

충남미술 연구총서

# 충남미술가편람 I

충남미술 연구총서

# 충남미술가편람 I

## 책을 펴내며

이 책은 충남미술관을 건립하는 가운데 기획된 「충남미술 조사연구 및 출간」 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지난해 충청남도에는 ‘충남미술사 간행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충남미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 책은 충남미술사의 맥락을 정리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충남미술관의 운영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는 충남미술의 지역성과 지역미술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설계 작업이라 하겠다.

『충남미술 연구총서』는 크게 인명사와 문화사로 구분하여 기획되었다. 인명사 2권(근·현대미술가 부문), 문화사 1권(충남미술의 태동과 유입, 발전 경로를 알 수 있는 교육, 기관, 인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 1권에는 활동사, 즉 충남미술계를 조망할 수 있는 소집단 활동과 미술운동, 전시활동 공간, 그리고 부록에 미발굴 사항과 보완점을 담기로 하였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연차적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등록 미술관은 267개이고, 이 가운데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립미술관은 약 73개이다. ‘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에 힘입어 앞으로 개관 예정이거나 건립을 준비하는 미술관까지 더하면 가히 미술관 건립 바람이 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립미술의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미술관 건립 바람으로 인해 자칫 설립준비 부족과 부실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건립과 운영 및 향후 지속가능성과 정체성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점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립 주체의 의지와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면밀할수록 훌륭한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공공미술관들이 사전에 미술관의 내용이나 기초 연구를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부터 세우는 경향이 있다.

충청남도도 이러한 국내 미술관 건립문화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다. 가장 간과되기 쉬운 ‘지역성’, 그리고 지역미술관의 역할과 기능 등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장품 수집정책과 향후 운영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 『충남미술 연구총서』를 기획하였다. 물론, 미술사 연구물 출간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충남미술 연구총서』와는 별도로 충청남도도 ‘충남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세부운영방안 연구수립’, ‘전시콘텐츠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참여미술관 정체성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등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전 논의들은 국제지명설계공모의 과업내용에 반영되어 세계적 건축가의 설계를 기다리고 있다.

『충남미술 연구총서』는 충남미술관이 개관하는 2024년에 완료된다. 이 시리즈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2024년 이후 더 많은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수록된 작가와 작품세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발판이 되어 충남의 미술 역사가 한국미술사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와 연구를 통해 작가마다의 미학적 특징을 조명해 나가게 될 것이다. 각 목차와 주제별 세부적이고 미시적인 반복 교차 작업들이 이어지면서 세밀하고 정교한 미술사의 씨줄과 날줄을 엮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풍부한 자원을 만드는 가운데 그 활용과 새로운 해석의 지평도 넓어지리라 기대한다.

이 책은 충청남도도와 충남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였다. 사업 예산과 뜻이 있어도 해당 연구자들의 능력과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다. 다행히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의 미술사학자 신수경, 정경숙, 김미정, 이안나 님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충청남도 · 충남문화재단

## 발간 개요

충청남도과 충남문화재단은 2024년 개관 예정인 충남미술관 건립 및 작품 수집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4차년(인명사 2권, 교육·문화사 1권, 소집단과 미술운동, 전시공간, 미발굴 작가 등 1권)에 걸쳐 연차·단계별로 『충남미술 연구총서』 발간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충남미술 연구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새로운 모델이 될 이 연구총서의 첫 번째 책은 1949년 이전에 태어난, 충남을 연고로 활동한 미술가들에 대한 자료와 작품을 조사·수집하여 묶은 『충남미술가편람I』이다. 이 책에 수록된 미술가의 순서는 충남미술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생연도순이며, 같은 연도에 태어났을 경우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문화재단이 주관,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가 수행한 ‘충남미술사 발간 및 조사연구’ 용역(2021. 4. 16~9. 30)을 통해 그동안 작가 개인별로 소장하고 있거나 여러 미술관에 흩어져 있는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정리한 것이다. 현재 파악되는 충남미술가는 수천 명에 이르나 이 책자에는 충남문화재단과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가 협의하여 1차년의 대상으로 선정한 190인이 수록되었다.

『충남미술가편람I』에 수록된 미술가의 선정은 2020년 충청남도 연구 성과물인 『충남미술사 간행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대전·충남미술에 대한 선행 연구서들을 참조하여,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연구진이 1949년 이전 출생한 충남미술가 1차 명단을 작성하였다. 이후 충남문화재단을 비롯해 해당 분야의 미술사학자, 작가 등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총 190인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1870년부터 1949년까지 출생한, 대전(1989년 대전직할시로 분리됨)을 포함한 충청남도 전 지역 작가
- 나. 출생, 성장, 근무, 거주, 주소, 묘지, 학교 등 충청남도과 연고가 있는 작가(출향(出鄕) 작가, 월북(越北) 작가 포함)
- 다. 타 지역 출신 작가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거주, 학교 등 근무지가 충남인 경우 충남미술사에 미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이 책자에 수록된 미술가에 대한 개요는 해당 작가에 대한 신문기사, 논문 및 단행본, 전시도록 등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생몰년, 가족관계, 학력, 경력, 작품활동 등 작가의 생애와 작품세계 전반의 특성을 기술한 것이며, 작품세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 이미지를 함께 실었다. 작가 연보는 기존 자료를 참조하여 새로 확인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작가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개요나 연보의 분량은 기초자료의 유무, 작가의 활동에 따라 편차가 있다. 1949년 이전 출생한 충남미술가 중 이 책자에 수록되지 못한 작가들은 후속 작업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 일러두기

1. 이 책의 작가 수록 순서는 출생연도-가나다순이다.
2. 충남미술가의 선정 근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본문 내에 붉은 색의 굵은 서체로 표기하였다.
3. 본문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한자나 영문 등 원어는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병기하였다.
4. 도판의 캡션은 작가, 작품명, 제작연대, 재질, 크기(세로×가로cm), 소장처(또는 출처) 순이다.
5. 작품명은 〈〉, 전시명이나 화첩, 연작물은 《 》, 단행본과 문집, 신문, 잡지, 전집류는 『 』, 논문명은 「 』, 원문 인용은 “ ”, 강조는 ‘ ’로 표기하였다.
6. 연보의 전시회 표기에서 전시명 다음 전시가 열린 장소를 지역명과 전시기관을 괄호 속에 넣어 표기하였다. 단, 대전시립미술관, 대전문화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과 같이 장소가 기관명에 들어 있는 경우는 지역명을 넣지 않았다.
7. 전시명 중 《조선미술전람회》는 《조선미전》, 《대한민국미술전람회》는 《국전》, 《대한민국미술대전》은 《미술대전》으로 약칭하였다.
8. 본문의 지명과 학교명은 해당 시기 지명(학교명)을 그대로 쓰고, 현재 지명은 괄호 속에 표기하였다. 단, ‘도쿄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는 ‘동경미술학교’로, 데이코쿠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 현 무사시노미술대학(武蔵野美術大學))는 ‘제국미술학교’로, ‘니혼대학(日本大學)’은 ‘일본대학’으로 표기하였다.
9. 한국근현대기 활동한 미술가들의 한자명과 생졸년은 본문에 표기하지 않고, ‘IV. 색인’에 정리해 놓았다.
10. 이 책에 수록된 원고의 저작권은 충청남도과 충남문화재단에 있으며, 이미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개별 자료에 표기한 소장처 및 출처로 귀속된다.
11. 이 책에 게재된 사진은 무단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 자료 이용에 대해서는 소장처 및 이미지 저작권자에 문의하면 된다.

# 목 차

책을 펴내며	2		
I. 발간 개요	4		
일러두기	6		
II. 충남미술가 개요 및 연보			
유창환(兪昌煥, 1870~1935)	10	김재석(金在奭, 1916~1987)	82
정성원(鄭成源, 1881~1962)	12	유진명(兪鎭明, 1916~1984)	85
정술원(鄭述原, 1885~1955)	14	이종무(李種武, 1916~2003)	88
박승무(朴勝武, 1893~1980)	16	장욱진(張旭鎭, 1917~1990)	91
황인춘(黃仁春, 1894~1950)	20	조중현(趙重顯, 1917~1982)	95
이상범(李象範, 1897~1972)	22	최정수(崔正秀, 1918~1999)	98
이경배(李慶培, 1898~1960)	26	김재배(金栽培, 1919~1994)	100
임숙재(任瑋宰, 1899~1937)	28	이팔찬(李八燦, 1919~1962)	102
조동욱(趙東旭, 1899~1944)	30	황영준(黃榮俊, 1919~2002)	105
유치웅(兪致雄, 1901~1998)	32	성재경(成在慶, 1920~1997)	108
송병돈(宋秉敦, 1902~1967)	34	최창식(崔昌植, 1920~?)	110
박성섭(朴性燮, 1903~1974)	37	김화경(金華慶, 1922~1979)	112
이동훈(李東勳, 1903~1984)	39	최덕휴(崔德休, 1922~1998)	116
이응노(李應魯, 1904~1989)	43	김성재(金星在, 1923~1968)	119
이봉영(李鳳榮, 1905~1962)	48	윤후근(尹厚根, 1923~2008)	121
이순석(李順石, 1905~1986)	49	이익용(李翼龍, 1923~2011)	123
고봉주(高鳳柱, 1906~1993)	52	김기숙(金基淑, 1924~2002)	124
우민형(禹民亨, 1906~1978)	54	윤영자(尹英子, 1924~2016)	126
이마동(李馬銅, 1906~1981)	56	김철호(金哲鎬, 1925~2011)	129
김기승(金基昇, 1909~2000)	59	이종학(李鍾學, 1925~2013)	132
구종서(具宗晝, 1912~1988)	62	임홍순(任洪順, 1925~ )	135
김두환(金斗煥, 1913~1994)	64	정택은(鄭澤殷, 1925~2005)	137
한유동(韓維東, 1913~2002)	68	김영학(金永學, 1926~2006)	139
조병호(趙柄鎬, 1914~2005)	70	이운섭(李允燮, 1926~?)	142
박상옥(朴商玉, 1915~1968)	72	이창호(李昌浩, 1926~1990)	144
박여일(朴如一, 1915~1992)	75	정환섭(鄭桓燮, 1926~2010)	146
이국전(李國銓, 1915~?)	77	홍동식(洪東植, 1926~2003)	148
이완석(李完錫, 1915~1969)	80	강태성(姜泰成, 1927~ )	150



강환섭(康煥燮, 1927~2011)	153	최병상(崔秉尙, 1937~ )	260
박노수(朴魯壽, 1927~2013)	156	권탁원(權卓遠, 1938~ )	263
최종걸(崔鍾傑, 1927~2000)	160	김창희(金昌熙, 1938~ )	265
김교만(金敎滿, 1928~1998)	162	김 한(金漢, 1938~2008)	268
김장한(金長漢, 1928~?)	165	송진세(宋鎭世, 1938~ )	271
신봉균(申鳳均, 1929~2000)	167	신현국(申鉉國, 1938~ )	274
전영화(全榮華, 1929~ )	169	오태학(吳泰鶴, 1938~ )	277
송영수(宋榮洙, 1930~1970)	172	우희춘(禹熙春, 1938~2020)	281
김만희(金萬熙, 1931~2018)	175	이명희(李明熙, 1938~ )	283
김영덕(金永惠, 1931~2020)	177	이종상(李鍾祥, 1938~ )	285
이남규(李南圭, 1931~1993)	180	이종환(李鍾煥, 1938~ )	289
강나루(1932~ )	184	이청자(李清子, 1938~ )	292
문우식(文友植, 1932~2010)	186	최국병(崔國柄, 1938~ )	294
송용달(宋龍達, 1932~ )	190	하태진(河泰晉, 1938~ )	296
육명심(陸明心, 1932~ )	192	황규태(黃圭泰, 1938~ )	299
이인영(李仁榮, 1932~2021)	195	강광식(姜光植, 1939~ )	303
이희세(李喜世, 1932~2016)	198	김배희(金培熙, 1939~ )	305
조평휘(趙平彙, 1932~ )	200	김영배(金寧培, 1939~ )	308
최종태(崔鐘泰, 1932~)	204	백현옥(白顯鈺, 1939~ )	311
민경갑(閔庚甲, 1933~2018)	208	임명철(林明喆, 1939~ )	314
이우성(李又性, 1933~2010)	212	조성묵(趙晟默, 1939~2016)	316
임봉재(林奉宰, 1933~ )	213	황교영(黃敎泳, 1939~1986)	319
임상묵(林庠默, 1933~1998)	217	김세원(金世源, 1940~ )	322
조영동(趙榮東, 1933~ )	219	김인중(金寅中, 1940~ )	324
강신철(姜信哲, 1934~1993)	222	유희영(柳熙永, 1940~ )	326
장선백(張善栢, 1934~2009)	224	이근신(李根伸, 1940~ )	329
김동수(金東洙, 1935~2011)	227	권영우(權寧祐, 1941~ )	331
신영상(辛永常, 1935~2017)	230	김철성(金徹性, 1941~ )	333
이종수(李鍾秀, 1935~2008)	233	박승배(朴勝培, 1941~ )	335
남 철(南徹, 1936~2017)	236	박영숙(朴英淑, 1941~ )	337
손경식(孫敬植, 1937~ )	239	유재일(俞財一, 1941~ )	339
신권희(申權熙, 1937~1995)	241	이철주(李澈周, 1941~ )	341
이용휘(李容徽, 1937~2016)	243	황만영(黃滿泳, 1941~2015)	344
이종각(李鍾珪, 1937~ )	246	김수평(金水平, 1942~1989)	346
전영기(田榮淇, 1937~ )	249	박명규(朴明奎, 1942~ )	348
정관모(鄭官謨, 1937~ )	250	성창경(成昌慶, 1942~ )	351
정영복(鄭永福, 1937~ )	254	신동주(申東柱, 1942~2006)	354
제정자(諸靜子, 1937~ )	257	신양섭(申養燮, 1942~ )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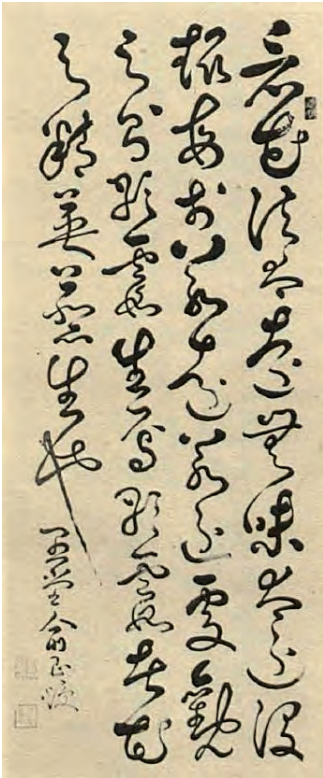
이건용(李健鏞, 1942~ )	358	인영선(印永宣, 1946~2020)	432
이석구(李錫九, 1942~ )	361	임양수(林陽洙, 1946~ )	434
이영길(李英吉, 1942~ )	363	김석기(金奭基, 1947~ )	437
전래식(全來植, 1942~ )	365	김영순(金榮順, 1947~ )	439
하동철(河東哲, 1942~2006)	367	김치중(金致中, 1947~2012)	442
송번수(宋繁樹, 1943~ )	369	박명규(朴明圭, 1947~ )	446
조종국(趙鍾國, 1943~)	373	임재우(林裁右, 1947~ )	448
지치우(池治宇, 1943~ )	375	장순업(張淳業, 1947~ )	450
최태신(崔台新, 1943~ )	377	홍용선(洪容宣, 1947~ )	454
강성열(姜聲烈, 1944~2005)	379	황용식(黃龍植, 1947~ )	456
김회직(金會直, 1944~ )	381	김영천(金榮天, 1948~2012)	459
성능경(成能慶, 1944~ )	383	박병희(朴炳熙, 1948~2019)	462
양창제(梁蒼濟, 1944~2019)	386	오정길(吳正吉, 1948~ )	465
이영수(李寧秀, 1944~ )	388	유근영(柳根永, 1948~ )	466
김관호(金瑄鎬, 1945~ )	390	유병호(兪丙昊, 1948~ )	469
김홍주(金洪疇, 1945~ )	392	윤복희(尹福熙, 1948~ )	472
오세열(吳世列, 1945~ )	395	이곤순(李坤淳, 1948~ )	474
이환영(李桓英, 1945~ )	398	이명자(李明子, 1948~ )	476
임동식(林東植, 1945~ )	402	장주봉(張柱鳳, 1948~ )	478
임 립(林立, 1945~ )	405	조창례(趙昌禮, 1948~ )	480
정명희(鄭莫熙, 1945~ )	408	최영근(崔榮根, 1948~ )	482
정해조(鄭解朝, 1945~ )	411	김영대(金榮大, 1949~ )	485
조태수(趙泰洙, 1945~)	414	노 광(盧枕, 1949~ )	488
김순기(金順基, 1946~ )	416	송근호(宋近鎬, 1949~ )	491
김여성(金如星, 1946~ )	419	신중덕(愼重惠, 1949~)	493
김정헌(金正憲, 1946~ )	421	이길원(李吉遠, 1949~ )	496
유영교(劉永敎, 1946~2006)	424	이 동(李東, 1949~ )	499
이택우(李澤雨, 1946~ )	428	장준문(張俊文, 1949~)	502
이효숙(李孝淑, 1946~ )	430	차선영(車先英, 1949~)	504

III. 참고문헌	506
-----------	-----

#### IV. 색인

1. 충남미술가 찾아보기	515
2. 한국근현대미술가 찾아보기	517

# 유창환(兪昌煥, 1870~1935)



유창환, 〈초서(草書)〉, 1925, 《제4회 조선미전》 4등상 수상

호는 우당(愚堂)·육일거사(六一居士). 본관은 기계(杞溪), 초명은 명환(明煥), 자는 주백(周伯) 또는 준백(準伯) 등이 있다. 1870년 충청남도 부여현 옥계(현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에서 출생한 유창환은 조선 후기 서예 역사를 이끈 기계유문(杞溪兪門) 출신의 문인서예가이다.<sup>1</sup> 1902년 인천감리서 주사(仁川監理署 主事)에 임명되는 동시에 6품 승훈량(承訓郎)으로 진급하여 첫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1912년 문중(門中)이었던 유길준(兪吉濬, 1856~ 1914)·유진태(兪鎭泰, 1872~1942)의 권유로 상경하여 궁내부주사(舊韓國宮內部主事)를 지냈고 마지막 직임은 주사(6품)이다. 《조선미전》과 《서화협회전》에 여러 번 입선했으며 예서, 전서 등 각 서체와 금석(金石)에도 조예가 있었다.<sup>2</sup>

유창환은 교육을 통해 국운을 회복하고자 1907년 부여에 부흥학교를 설립했으며, 1920년에는 한규설(韓圭晄, 1848~1930), 이상재(李商在, 1850~1927)와 함께 민립(民立)대학교 설립을 위한 ‘조선교육회(朝鮮教育會)’ 발의에 동참하였다.<sup>3</sup> 또한 1931년에는 김규진, 김은호와 함께 서화교육기관인 ‘서화연구회(書畵硏究會)’의 교사로 재직했다. 그뿐만 아니라 유창환은 허위(許蕙, 1855~1908)와 함께 의병운동을 펼치기 위해 중국으로의 망명을 계획하거나 만주의 독립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며 독립운동에도 힘썼다.<sup>4</sup>

유창환은 20세기 근현대 한국사회를 필묵의 정신으로 일으켜 세운 인물로 평가받으며 세상

1 기계유문은 가학(家學)을 통해 서예를 ‘대물림’한 대표적인 서예 가문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유한지(兪漢芝, 1760~1834)가 있으며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외가가 기계유문이다. 이동국, 「우당(愚堂)·일창(一滄) 양세(兩世)의 서예(書藝)세계」, 『제4회 유흥준 교수 기증 유물전-부여의 서예가 I』(부여문화원, 2018), p. 39.

2 「서도계(書道界)의 거성(巨星), 유창환 오늘 창신동 자택에서」, 『동아일보』(1935. 04. 23); 「조선교육회발기(朝鮮教育會發起)」, 『동아일보』(1920. 6. 23).

3 ‘조선교육협회’는 1920년 6월 ‘조선교육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였으나 2년 동안 총독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조선교육회’는 총독부의 인가를 받고자 ‘조선교육협회’로 개칭하였고 1922년 1월 24일 승인을 받았다. 「교육협회인가(認可)」, 『동아일보』(1922. 1. 26); 조선교육협회의 교육운동에 대한 연구는 김한중, 「1920년대 조선교육협회의 교육운동」, 『충북사학』8(충북사학회, 1995), pp. 59~69.

4 유창환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이동국, 앞의 글, pp. 45~46; 「유창환유묵전」, 『경향신문』(1976. 7. 26); 「현대미술관에서 우당유창환유묵전」, 『매일경제』(1976. 7. 26).

을 떠나기 전까지 ‘조선교육협회(朝鮮教育協會)’와 ‘서화연구회(書畫研究會)’에서 활동하였다. 초서에 뛰어나 1925년 《제4회 조선미전》에서 〈초서(草書)〉로 4등상을 수상하였으며 호방하면 서도 힘차고 유려하였기 때문에 ‘호건유창(豪健流暢)하다’는 평을 받았다.<sup>5</sup> 실례로 조선왕조 말기의 서예가였던 지운영은 유창환을 당대의 ‘초성(草聖)’이라고 평가하였다.<sup>6</sup> 현존하는 유창환의 작품으로는 경상남도 사천의 〈침산정기덕비(枕山亭紀德碑)〉, 서울의 〈이종석송덕비(李鍾奭頌德碑)〉·〈한규설묘표(韓圭高墓表)〉 등이 있다.

## 연보

- 1870년 충청남도 부여현 옥계(현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출생
- 1902년 인천감리서 주사(仁川監理署 主事)에 임명, 6품 승훈랑(承訓郎)으로 진급
- 1907년 부흥학교 (교장: 권중석, 학감: 유창환) 설립
- 1912년 유길준(兪吉濬)·유진태(兪鎭泰)의 권유로 상경
- 1914년 일본에서 청말(淸末)의 서예가 강유위(康有爲)를 만남
- 1920년 한규설(韓圭高), 이상재(李商在)와 함께 ‘조선교육회(朝鮮教育會)’ 설립
- 1922년 이상재 및 유진태와 협력하여 ‘조선교육협회(朝鮮教育協會)’ 창립
- 1925년 《제4회 조선미전》에 〈초서(草書)〉와 〈예서(隸書)〉를 출품하여 4등상 입선
- 1926년 《제5회 조선미전》에 〈초서(草書)〉와 〈고시(古詩)〉 입선
- 1927년 《제6회 조선미전》에 〈초서(草書)〉 입선
- 1928년 《서화협회전》(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 대강당)에 출품  
‘조선교육협회(朝鮮教育協會)’ 부회장 역임
- 1931년 김규진, 김은호와 함께 ‘서화연구회(書畫研究會)’ 교사 역임<sup>7</sup>
- 1935년 창신동 자택인 성동우사(城東寓舍)에서 뇌일혈로 작고

5 유홍준, 「우당과 일창 작품전을 열며」, 앞의 도록(부여문화원, 2018), pp. 6~7.

6 「유창환유목전」, 『경향신문』(1976. 7. 27).

7 「서화계의 서광」, 『조선일보』(1931. 9. 4).

# 정성원 (鄭成源, 1881~1962)

호는 현암(玄菴). 1881년 2월 24일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국동리에서 출생한 정성원은 공주를 대표하는 서화가이다. 1922년경, 41세 때에 가족을 데리고 상경하였다. 경성(현 서울)으로 이사한 후, 자신이 그린 그림을 판매하며 생활하던 중 1939년에 촉탁직으로 조흥은행에 입사하였다.<sup>1</sup> 1961년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이듬해인 1962년 82세의 나이로 아현동 자택에서 작고하였다.

정성원은 글과 그림에 모두 뛰어났으며 특히 산수화에 능했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부여팔경도(技餘八景圖)>는 8면으로 구획한 병풍 바탕에 부여를 대표하는 수북정(水北亭), 고란사(皇



정성원, <부여팔경도(技餘八景圖)>, 연도미상, 천에 채색, 121×63.3cm(출처: 『백제의 화가 정성원과 정술원-유홍준교수 제2회 기증 유물전』, 부여문화원, 2017)

蘭寺), 정림사지(定林寺址) 5층 석탑 등을 그린 것으로, 선면형·원형·방형·육각형의 도형 안에 그림을 그려 넣은 것이 특징이다. 상단에 예서체로 적힌 ‘百濟古都 扶餘八景’이라는 글씨가 작품에 문기를 더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물기를 충분히 머금은 옅은 수묵 담채에 단아하고 얹전한 행서로 제시를 썼다.<sup>2</sup>

정성원의 또 다른 작품인 《백납도(百納圖)》 10폭 병풍에서도 <부여팔경도(技餘八景圖)>와 같은 형식이 엿보인다. 10폭의 병풍에 원형·방형·선면형·육각형 안에 산수 11점, 화조영모 14점, 사군자 5점, 어해도(魚蟹圖) 2점, 십장생 2점, 부여팔경 8점, 일본신팔경(日本新八景) 8점을 그렸다. 두 작품 모두 전체적으로 물기를 머금은 옅은 수묵담채에 단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으며, 특히 《백납도》 10폭 병풍은 정성원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sup>3</sup> 이 외에도 정성원의 작품으로는 <고사관폭도(高士觀瀑圖)>, <관동팔경도(關東八景圖)>, <금강산도(金剛山圖)> 등이 있다.<sup>4</sup>

1 박효정, 「현암 정성원과 두산 정술원의 생애와 회화세계」,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백제의 향기와 나의 애장품』(부여문화원, 2016), p. 94.

2 박효정, 「백제의 화가, 정성원과 정술원」, 『백제의 화가 정성원과 정술원-유홍준교수 제2회 기증 유물전』(부여문화원, 2017), pp. 4~5.

3 박효정, 위의 글, p. 4.

4 윤여현, 「공주 근대(近代) 향토작가 지상전(紙上展) -上-」, 『웅진문화』20(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07), pp. 102~116.



정성원, 《백납도(百納圖)》 10폭 병풍, 연도미상, 비단에 수묵, 168×382.5cm  
 (출처: 『백제의 화가 정성원과 정슬원-유홍준교수 제2회 기증 유물전』, 부여문화원, 2017)

## 연보

- 1881년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국동리 출생
- 1922년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으로 이사
- 1935년 이사(현, 서울시 서대문구 아현동)
- 1939년 조흥은행 입사
- 1940년 《문인서화전(文人書畫展)》(서울, 조선일보사 강당) 참가  
 한규복 · 정운면 · 조동호 · 김영기 · 배렴 · 이응노 · 민택기 · 김진우 · 조동욱과 함께 합작  
 《사군자》 병풍 2점 출품<sup>5</sup>
- 1962년 아현동 자택에서 작고

5 「문인서화전 명일(明日) 개막(開幕)」, 『조선일보』(1940. 1. 15).

## 정술원 (鄭述原, 1885~1955)



정술원, <노안(蘆雁): 임(臨) 석창 홍세섭(石窓 洪世燮)>, 연도미상, 천에 채색, 29.4×29.4cm(출처: 『백제의 화가 정성원과 정술원-유홍준교수 제2회 기증 유물전』, 부여문화원, 2017)

호는 두산(斗山). 1885년 충청남도 공주군 탄천면 국동리(菊東里)에서 출생했다. 정성원과 재종(再從)간이고, 조동욱은 정술원의 조카사위이다. 일찍이 서울로 올라와 중앙화단에 진출했던 정성원과 달리 정술원은 줄곧 공주 집성촌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하였다.<sup>1</sup>

정술원은 절지(折枝), 영모(翎毛), 화훼(花卉), 인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작품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특히 산수화를 즐겨 그렸으나 전하는 작품은 많지 않다. 초기작은 중국화풍을 따른 것이 많았으나, 만년(晩年)에는 점차 개성 있는 필획을 발현하며 독특한 화풍을 보여주었다.

당시 지방화단에는 서울화단에서 유행하던 화목과 화풍을 그대로 수용하여 작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술원 역시 이계호(李繼祜, 1574 ~ ?)와 홍세섭(洪世燮, 1832~1884)의 작품을 임모하여 《묵포도(墨葡萄圖)》 8폭 병풍과 <노안(蘆雁) 임(臨) 석창 홍세섭(石窓 洪世燮)>을 제작했다.

8폭의 병풍을 해체해 8개의 족자 형태로 장황한 《묵포도》 8폭 병풍은 이계호의 화풍을 임모한 것으로 추측된다. <노안 임 석창 홍세섭> 역시 기러기를 잘 그렸던 홍세섭의 화풍을 본받은 것으로, 그림 속에 “古今山色有濃淡 日夜潮聲幾去來 臨石窓筆意(예나 지금이나 산색에는 짙고 옅음이 있고 밤낮 조수 소리 밀려오고 나가네 홍세섭을 임모하다)”라는 내용을 통해 정술원이 방작(倣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대(先代) 화가의 작품을 방작하더라도, 정술원의 화풍은 방작에서 주로 나타나는 획일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활달한 구성과 필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영모화의 경우 사실적인 묘사와 섬세한 채색이 돋보인다.

1955년에 작고한 후, 45년이 지난 1999년 《근대 민화·서예전》(서울, 미맥화랑)에 김은호·이상범·변관식·노수현·허백련·박승무 6대가들과 함께 정술원·조석진·배림·안중식

<sup>1</sup> 정성원과 정술원은 영일 정씨(迎日鄭氏) 23세손 재종(再從, 6촌)간으로 공주 국동마을 집성촌에서 나고 자랐다. 박효정, 『백제의 화가, 정성원과 정술원』, 『백제의 화가 정성원과 정술원-유홍준교수 제2회 기증 유물전』(부여문화원, 2017), p. 3.



정술원, 《목포도》 8폭 병풍, 연도미상(출처: 『백제의 화가 정성원과 정술원-유홍준교수 제2회 기증 유물전』, 부여문화원, 2017)

등의 작품이 전시되었다.<sup>2</sup>

## 연보

- 1885년 충청남도 공주군 단천면 국동리 출생
- 1921년 공주 공자묘명륜당(孔子廟明倫堂)에서 개최한 공주백일장에 3등상 수상<sup>3</sup>
- 1931년 《양화백전람회(兩畫伯展覽會)》 참가
- 1955년 70세의 일기로 작고

<sup>2</sup> 「새해 · 새봄맞이 근대 민화 · 서예전」, 『경향신문』(1999. 1. 9).

<sup>3</sup> 「공주백일장 입격(入格)」, 『매일신보』(1921. 8. 20).



## 박승무 (朴勝武, 1893~1980)

호는 심향(心香). 1893년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 255에서 태어난 박승무는 출생 직후 효자동에 거주하던 큰아버지 박경양(朴慶陽)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9세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독립운동가인 김규홍(金奎興)이 설립한 옥천 창명학교(현 죽향초등학교)를 다녔다.<sup>1</sup> 이후 경성으로 상경하여 대한제국 승정원 부승지를 지냈던 양부 박경양의 영향으로 1909년 YMCA 중학부에 진학하여 일본어와 영어수업을 받으며 미국 유학을 목표로 공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석진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우던 친구 김창환의 영향으로 그림을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서화(書畵)를 배우기 위해 1913년 조석진과 안중식이 운영하던 '서화미술회'에 입문하여 1916년 '서화미술회' 3기생으로 화과(畵科) 3년 과정을 졸업하였다.

1917년 동양의 전통화법을 보다 깊이 연구하기 위해 중국 상해(上海)로 유학을 떠나 3년간 체류하면서 중국의 명화를 접하고 전통화단의 동향을 살피며 예술세계의 시야를 넓혔다.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3·1운동으로 감시가 심해지자 귀국길에 올랐지만, 상해 임시정부에 드나들며 독립지사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주거지 제한을 받아 약 3년간 충북 옥천에 머물게 되었다.<sup>2</sup> 이후 경성으로 이주하여 1923년 《제2회 조선미전》에 〈흐린 달밤〉을 출품하면서 본격적으로 화단 활동을 펼치고자 하였으나 일제의 감시를 견디지 못해 다시 만주로 떠나 조선인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3년간 체류하였다.

1926년 경성으로 돌아온 박승무는 1926년 《제5회 조선미전》에서 〈유곡(幽谷)의 가을(秋)〉로 입선한 뒤 1931년 《제10회 조선미전》까지 작품을 출품하였다. 특히 1930년 《제9회 조선미



박승무, 〈어느 시골(或る田舎)〉, 1930, 《제9회 조선미전》 특선작

전》에서는 〈어느 시골(或る田舎)〉로 특선을 수상하였다. 부드러운 우모준(牛毛皴)으로 온화하고 아늑한 시골 경치를 담아낸 〈어느 시골〉은 도화교본(圖畵敎本)에서 벗어나

1 황효순, 「외로운 나그네-심향 박승무의 예술세계」, 『심향 박승무』(대전시립미술관, 2006), p. 11. 박승무는 그동안 서울 출생으로 알려져 왔다. 서울 효자동으로 되어있는 기존의 출생기록은 어린 시절 백부에게 입양되면서 자연스럽게 백부의 거주지를 따른 것이다. 황효순, 「심향 박승무의 작품세계」, 『인물미술사학』7(인물미술사학회, 2011), p. 145.

2 황효순, 위의 글(대전시립미술관, 2006), p. 14.



박승무, <설촌(雪村)>, 1971, 종이에 담채, 68x136cm(출처: 『한국현대미술전집5』, 한국일보사, 1978)

주변의 실경을 그린 작품이다. 박승무는 특선까지 올랐으나 일본 남화풍의 작품을 선호하는 조선미전의 심사에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 작품을 출품하지 않는 대신 <서화협회전>에 참여하였으며, 1940년에는 10명가로 선정되어 <십명가산수화전(十名家山水畫展)>에 출품하였다.

1940년대 들어 허백련, 변관식과 함께 한국 실경산수화의 뿌리를 모색하며 허백련이 있는 광주 무등산 자락의 '춘설헌'을 자주 찾아 함께 광주와 목포 주변 경치를 스케치하였다. '기축(己丑)'으로 명기된 1949년 작품 중 유달산의 가을풍경과 설경을 그린 몇 점이 남아있는데, 주로 주산(主山)을 중심으로 군봉들이 좌우로 펼쳐지고, 근경에 큰 언덕을 이루는 토산을 배치한 구도이다.<sup>3</sup>

해방 직후 '조선미술건설본부'에서 활동하며, 10월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된 <해방기념문화대축전 미술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했다. 1949년 <제1회 국전>의 수묵채색화 분야의 추천작가로 선정되었으나 국전의 운영에 대한 불신으로 허백련, 김경원과 함께 출품하지 않았다.<sup>4</sup> 이후에도 국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1953년 박성섭, 이동훈, 김기숙, 이인영, 김철호, 임상묵 등과 함께 '충남미술협회'를 발족하는 등 이때부터 충남미술가들과 교류했다.<sup>5</sup> 박승무의 독자적인 필법은 1958년 대전에 정착하면서 완성되었다.<sup>6</sup>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치들을 주된 소재로, 짙은 먹색을 사용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더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 화면에 등장하는 민가와 점경인물의 표현에서 한국적인 풍경보다는 중국풍의 관념적인 양식이 점차 보이기 시작했다. 필선의 굵기와 방향이 일정해지고, 자잘한 미점(米點)을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화보풍의 관념화된 인물이 등장한다.

3 황효순, 앞의 글, p. 16.

4 최열, 『한국현대미술의 역사-한국미술사사전 1951~1961』(열화당, 2006), p. 227.

5 대전미술협회 홈페이지 <http://www.djart.or.kr/bbs/page.php?hid=p107>.

6 박승무가 대전에 정착하기 시작한 때는 1957년이고, 대전에 완전 정착하기 시작한 때는 1958년 서울 자택을 매각한 이후이다.

〈설촌(雪村)〉은 박승무가 40대 이후부터 그리기 시작하여 말년까지 즐겨 그리던 설경을 그린 작품으로, 중년 이후 관념화된 작품의 경향이 엿보인다. 눈 덮인 산과 언덕, 나무 등의 표현에서 전통적인 남종화풍이 두드러지나 먼 산의 윤곽선, 부드럽게 표현된 수목, 태점에서 박승무 특유의 온화하고 소박한 화풍이 잘 드러난다.

대전에 정착한 뒤로 중앙화단과 거리를 두었던 박승무는 1971년 서울신문사에서 주최한 《동양화 6대가전》에 참가하면서 다시 화단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심향 박승무의 생애에서 가장 영예롭고 분주한 시기는 팔순이 넘은 1970년대로, 197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근대 미술 60년전》과 1976년 《한국동양화대전》에 작품이 전시되었다. 같은 해 동아일보사 주최로 《박승무 회고전》이 개최되어 신작 30여점과 함께 총 154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뒤늦게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1980년 작고하기 전까지 약 20여 년을 대전에서 보낸 박승무는 권위에 아부하지 않고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추구한 화가로 평가받는다. 서울화단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릴 수 있었음에도 미술계의 보이지 않는 알력 행사를 거부하고 대전에 정착하여 우직하게 '설경' 작품에 매진하며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다.

## 연보

- 1893년 충청북도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 255에서 출생, 큰아버지 박경양에게 양자로 입적
- 1901년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옥천 창명학교(현 죽향초등학교) 입학
- 1909년 YMCA 중학부 수료, 묵화(墨畵) 입문
- 1911년 집안에서 정해준 은진 송씨 무정과 혼인
- 1913년 서화미술회(書畵美術會)에 입학하여 조석진과 안중식을 사사
- 1916년 서화미술회 화과(畵科) 3년 과정 졸업
- 1917년 동양 전통화법을 연구하기 위해 상해(上海)에서 유학
- 1919~1921년 상해에서 귀국하였으나 충북 옥천으로 주거지역이 제한됨
- 1923년 《제2회 조선미전》에 〈흐린 달밤(曇りたる月夜)〉 입선
- 1924년 《제4회 서화협회전》에 출품
- 1924~1926년 조선인 이주민 자녀를 위하여 한인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3년간 만주 체류
- 1926년 《제5회 조선미전》에 〈유곡(幽谷)의 가을(秋)〉 입선
- 1927년 《제6회 조선미전》에 〈송림고사(松林古寺)〉 입선
- 1928년 《제7회 조선미전》에 〈삼계유곡(杉溪幽谷)〉, 〈산가(山家)의 가을(秋)〉 입선
- 1929년 《제8회 조선미전》에 〈여름(夏)의 유곡(幽谷)〉 입선
- 1930년 《제9회 조선미전》에 〈어느 시골(或る田舎)〉 특선, 〈만추(晩秋)〉 입선
- 1931년 《제10회 조선미전》에 〈교외일부(郊外一部)〉 입선

- 1932년 일본 총독부 문화정책에 불응하여 이후 《조선미전》에 불참
- 1934년 김은호, 이상범, 이병직, 안석주 등과 함께 '조선미술연구회' 참여
- 1935년 《제14회 서화협회전》에 〈눈(雪)〉 출품
- 1939년 《제1회 조선미전 특선 작가 신작전》에 출품 / 《제1회 박승무 개인전》 개최
- 1940년 《제2회 박승무 개인전》(서울, 화신백화점) 개최  
《십명가산수화전(十名家山水畫展)》에 〈추강연하(秋江煙霞)〉 출품
- 1943년 총독부 강요로 《제5회 조선미전 특선작가 신작전》에 작품 출품
- 1945년 조선미술건설본부 주최 《해방기념문화대축전 미술전람회》(덕수궁미술관)에 참여
- 1946년 자유신문사 주최 전쟁동포구제 《두방(斗方)전》(정자옥화랑)에 출품  
《제1회 조선미술가협회전람회》에 〈도류춘색(桃柳春色)〉 출품
- 1948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주최 민족정신 양양 전국문화인총궐기대회에 참여
- 1949년 《제1회 국전》의 추천작가로 선정되었으나 출품하지 않음
- 1953년 자유아세아협회의 자재 후원 작가로 선정
- 1957년 제1회 충청남도 미술문화상 수상
- 1958년 대전(대흥동) 이주 및 정착  
《반공미술전》(반공회관)에 출품
- 1971년 《동양화 6인전》(서울, 신문회관)에 〈녹수청음〉·〈청하어촌〉·〈백운호수〉·〈계촌설청〉 등 4점 출품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한국근대미술 60년전》에 〈산수도〉(1923) 출품
- 1973년 《동양화오인도화전(東洋畫五人陶畫展)》(서울, 신세계화랑)에 14점 출품
- 1976년 《심향 박승무 회고전》(서울, 신문회관) 개최, 154점 출품  
《한국동양화대전》(국립현대미술관) 개최, 《추경산수 8곡병풍》·〈추발산수〉·〈설경〉 출품
- 1978년 《현대동양화명품전》(서울, 엘칸토미술관)에 참여
- 1979년 《한국화 원로 17인 초대전》(서울, 해송화랑)에 참여
- 1980년 대전 대흥동 자택에서 작고

# 황인춘(黃仁春, 1894~1950)

1894년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거성리에서 농사를 짓던 창원 황씨의 2남 가운데 둘째로 출생한 황인춘은 1898년 괴질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형과 함께 큰아버지 집에서 성장하였다. 의지하던 큰아버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자 1904년 10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상경하여, 낮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잔심부름을 하고 밤에는 야학에 다니며 일본어를 배웠다. 16세에 일본인이 운영하던 청자공방 ‘한양고려소(漢陽高麗燒)’에 들어가 도자기를 처음으로 접하였다.<sup>1</sup>

고려청자 기술 재현의 중요성을 깨달은 1919년 초, 일본인 경영자의 주선으로 본격적인 도자수업을 받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조선인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와 도자기 기술 전수의 폐쇄적 속성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만년필과 지갑 등을 생산하는 공장의 기술 연수생이 되었다. 도일한 지 4년 되던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귀국하였다. 귀국 후 한동안 서울 서대문 형무소의 소년 수감생들에게 일본에서 배운 산업공예품 제작 기술을 가르쳤다.<sup>2</sup> 장충단공원 부근의 일본인 도미다(尋田)이 운영하는 청자공방과 영등포에 있던 일본인 오오츠카(大家)소유의 청자공방에 도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번조 일을 맡아서 하였다.<sup>3</sup>

20여 년간 일본인이 경영하는 청자 공장에서 일을 한 황인춘은 1929년 영등포 모래말(현 도림동 부근)에 조선인 최초로 재현 청자공방 ‘황인춘 청자요’를 열었으며 주로 상감이나 음각 문양의 청자 대접, 병 등 고려시대의 원형을 재현하였다. 1935년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주 수요층인 일본인들의 청자 수요가 감소하자 가게를 줄여 대방동으로 옮겨 운영하였다. 황인춘은 청자 제작용 가마로 당시 주로 이용하던 재래식 등요(登窯)보다 경제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일본의 개량식 등요를 보급하고자 노력하였다.<sup>4</sup> 조선총독부의 기술고문으로 와있던 도자 전문가 하야시 시사오(林久男)의 도움으로 경기도 공업시험소의 촉탁기술자로 근무하였다. 1937년에는 개성에서 고려 청자를 부흥시켜 보자는 하야시의 권유와 후원으로 청자공방인 ‘고려청자연구소(高麗靑瓷研究所)’를 운영하였다.<sup>5</sup> 아울러 하야시의 중재로 경기도청과 개성시의 후원금으로 ‘개성제도업협동조합(開城制陶業組合)’을 결성하고 실무 책임을 맡았다.

청자 재현 기술의 보급과 후진 양성의 일환으로 매년 개성 소재 보통학교 졸업생 10명을 선

1 당시 일본의 가정에서는 조선의 도자기로 집안을 꾸미는 것이 대 유행이었다. 민수홍, 「고려청자 재현의 선구자, 황인춘(1894~1950)」, 『공예와 문화』3(공예문화연구소, 2002), p. 147.

2 민수홍, 위의 논문, p. 147.

3 류근형, 위군섭, 최남성, 최인환 등 150여명의 도공이 함께 일했다.

4 재래식 등요는 내부가 낮고 긴 터널식 구조이나 개량식 등요는 사람이 서서 드나들 수 있는 높이에 길어도 2m 이내로 연료를 반으로 절감하고 기물의 적재나 화도 측정 등 작업도 용이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5 민수홍, 위의 논문, p. 148.



황인춘, <청자음각 갈대학문 대접>, 1930년대, 개인소장



황인춘, <백태청자음각꽃무늬 반상기>(출처: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cef.org>)

발해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11점의 작품(10점은 개성에서 제작)이 남아 있는데, <청자음각 갈대학문 대접>는 완성도 높은, 깊이 있는 청자 빛깔을 재현하는데 기여했음을 잘 보여준다. 자녀 황중례와 황중구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예가의 길을 걸었다.

황인춘은 일본인이 독점하던 고려청자의 재현에 참여하여 독보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개량가마의 보급과 청자 재현 기술의 전수 및 후학 양성에 힘쓴 한국 근대 도예의 선구자로 평가된다.

## 연보

- 1894년 충청남도 서산에서 빈농 황 씨의 차남으로 출생
- 1910년 일본인이 운영하는 도자기공방 '한양고려소(청자공방)'에 입소
- 1919년 한양고려소 주인의 권유로 일본으로 유학
- 1923년 귀국 후 일본인 도미다(富田)가 운영하는 청자공방에 도공으로 취업
- 1929년 영등포 모래말에 '황인춘 청자요' 설립
- 1935년 청자공방을 대방동으로 이전
- 1937년 개성에 청자공방 설립 및 개성제도업협동조합(開城制陶業協同組合) 결성
- 1950년 지병으로 작고

# 이상범 (李象範, 1897~1972)

호는 청전(靑田). 이상범은 1897년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석송리에서 평해군수(平海郡守)와 칠원현감(漆原縣監)을 거쳐 공주부 영장(營將) 겸 토포사전주중군(討捕使全州中軍)이던 아버지 이승원(李承遠)과 어머니 김응수(金應秀) 사이에서 4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부친의 첫 부인이었던 능성(綾城) 구씨(具氏)가 사망한 뒤 후처로 들어와 상우(象禹), 상무(象武)에 이어 4남으로 상범을 낳았다. 그러나 이상범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평양의 새로운 임지로 발령을 받고 부임을 준비하던 부친이 1898년 50세의 일기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편모슬하에서 자랐다.<sup>1</sup> 부친 사후에도 공주를 떠나지 않고 유년시절을 보내던 이상범은 10세 무렵 서울 돈화문 부근으로 이주하였다.

1910년 사립 보흥학교에 입학한 이상범은 매학기 연속 수석을 차지하였으며, 2년제인 보흥학교를 졸업하고 사립 계동학교로 편입한 후 18세 되던 1914년, 우등으로 졸업하고 YMCA학관 중학부에 잠시 들어갔다가 4월 경 서화미술회에 입학하며 화업을 시작했다. 서화미술회에 입학한 지 6개월 만에 남다른 재능을 인정받은 이상범은 조석진과 주임교수격이었던 안중식의 경묵당(耕墨堂)에서 동기생인 노수현과 별도의 수업을 받았다. 때로는 스승의 자리를 대신해 그림을 그리기도 했을 만큼 스승의 솜씨와 닮아 있었던 이상범은 스승 안중식이 오세창과 의논해서 지어준 ‘청전(靑田)’이라는 호를 평생 사용하였다.

서화미술회에서 스승이 그린 초본(草本)이나 『개자원화전(芥子園畫傳)』 등의 중국 화보를 임모하는 도제식 수업으로 전통화법을 답습하던 이상범은 1920년 왕비의 침실인 경훈각(景薰閣)의 서쪽 벽면에 안중식에게 배운 궁중장식화 양식으로 <삼선관파(三仙觀波)>를 제작했다.<sup>2</sup> 또 1918년 결성된 한국 최초의 미술단체인 서화협회에 참여하기 시작해 1935년까지 계속 활동하였다. 그러나 1922년 조선총독부에서 개최한 《조선미전》을 통해 유입된 서양화와 일본 회화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관념적 산수화에서 벗어나 실경의 사실적인 표현을 시도하였다. 1923년 3월 서화미술회 강습소 출신의 제1세대 화가인 변관식·노수현·이용우와 함께 ‘동연사(同硯社)’를 결성하고, 신구화도(新舊畵道)의 절충을 표방하며 관념산수화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같은 해 11월, 노수현과 함께 《2인전》을 열기도 하였으나 동연사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924

1 홍선표, 「한국적 풍경을 위한 집념의 신화」, 『한국의 미술가』(삼성문화재단, 1997), pp. 9~10.

2 창덕궁은 1917년 화재로 내전의 전각이 소실되었으며, 1920년 경복궁의 일부 건물을 헐어 대조전(大造殿), 회정당(熙政堂), 경훈각(景薰閣)을 재건하였다. 이때 대조전에는 동벽의 <봉황도>(오일영, 이용우)와 서벽의 <백학도>(김은호), 순종의 집무실 겸 접견실인 회정당에는 동벽의 <충석정절경도>(김규진)와 서벽의 <금강산만물초승경도>(김규진), 경훈각에는 동벽의 <조일선관파도>(노수현)과 서벽의 <삼선관파>(이상범)가 그려졌다.

년 해체되었다. 하지만 서양화의 일점투시도법과 전통화법에 현장 사생(寫生)을 적극 수용하여 동서절충(東西折衝)의 사경산수화의 양식을 제시하며 한국 근대 산수화의 변화를 이끌었다.

1926년 《제5회 조선미전》에서 입선한 〈초동(初冬)〉을 비롯해, 1930년대 출품한 작품들은 대개 전답(田畓)을 주제로 한 대관적(大觀的) 구도로 주변의 일상적 풍경을 담아낸 작품들이다. 이때 규칙적으로 반복된 미점이나 짧은 필선을 적용하



이상범, 〈초동〉, 1926, 종이에 수묵담채, 152×182cm, 《제5회 조선미전》 입선작, 국립현대미술관

여 황량하면서도 소박한 풍경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청전화숙의 제자들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 스승 안중식에게 배운 관념산수화의 답습에서 벗어나 주변 산천이나 일상의 모습을 담은 이상범의 산수화는 한국적 사경산수화를 모색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이상범은 1927년 10월부터 1936년 8월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살사건으로 사직할 때까지 동아일보사 삽화가로 재직하며 사실적 인물화에서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였다. 동아일보사를 그만둔 후, 금강산을 유람하며 관전풍의 단조로운 표현기법에서 벗어나 경물의 특징에 따라 다른 필법을 구사하는 실경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1946년에 그린 〈설악산〉은 대관구도로 포착한 웅장한 산세의 끝부분을 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벽준과 절대준을 절충한 것 같은 독특한 준법으로 바위면을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해방 후 이상범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작품활동에 몰두하였다. 부벽준과 절대준을 절충한 것 같은 독특한 표현기법은 1950년에 그린 작품에서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조선미전》에 출품작에서는 거의 볼 수 없었던 촌부의 아내를 화면에 추가하여 원초적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가을 풍경에 보이는 앙상한 나무들과 잡목들이 자라는 비탈길을 돌아 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촌부와 화면의 중앙에 배치한 야산 중턱을 강한 먹으로 처리하고 주변으로 갈수록 어렵풋하게 처리하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청전양식’을 예고했다.

1950년대 완성된 이상범의 전형적인 사경산수화는 가로로 긴 수평의 화면 중앙에 초가집이나 큰 고목을 배치하고, 그 주변의 오솔길이나 시냇물을 따라 지계를 진 촌부나 물동이를 진 아낙네, 다리, 배 등의 경물들을 그린 것이 특징이다. 무수한 스케치를 거쳐 창출된 특유의 화면은 유사한 그림을 반복 제작하면서 획일화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변의 야산을





이상범, <모추(暮秋)>, 1962, 종이에 수묵담채, 76×178cm(출처: 『한국의미술가, 이상범』, 삼성문화재단, 1997)

배경으로 촌부나 아낙네 등을 포치한 것은 화보식 점경인물화에서 벗어나 운동감이 강한 순간의 동작을 포착한 것으로 『동아일보』에서 삽화를 그렸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59년 작 <하경산수>와 <부창부수(夫唱婦隨)>는 절정기 작품으로, 청진양식의 전형적인 경물들을 빠른 필묵으로 채워가며 만들어낸 농담의 울림이 푸근한 고향을 연상시킨다. 또한 암벽에 가한 반점 모양이나 부벽준 같은 터치, 잡풀을 표현한 뽕족한 갈고리 모양의 필치가 청진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960년대에는 수묵의 변주에 더욱 탐닉하면서 이전보다 여름을 즐겨 그렸는데, <산로정취(山路情趣)>와 같은 작품에서 먹의 풍부한 농담 변화로 그려낸 녹음이 우거진 나무숲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 1965년의 <황성모추(皇城暮秋)>처럼 형식화되었으나 고향이나 전통에 대한 그리움을 일깨우며 한국 산천의 이상향을 보여주었다.

1972년 서울 누하동 자택 ‘청연산방’에서 작고했으며 사후 신문회관 화랑에서 《이상범 유작전》이 열렸다.

세속의 명리와는 무관한 채 그 혼한 개인전이나 회고전도 갖지 않았던 이상범은 지나칠 만큼 절제된 내면세계를 견지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지닌 조형의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꾸준하면서도 외로운 고행으로서의 창작세계를 고집했다. 전통시대의 관념적이고 형식화된 산수화에서 탈피하여 주변의 친근한 풍경에 동시대인의 보편적 감성을 담아 한국 사경산수화의 전형을 완성한 이상범은 전통시대와 근·현대 화단을 잇는 작가로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연보

- 1897년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석송리에서 이승원(李承遠)의 3남으로 출생
- 1906년 강릉 김씨 소생의 3형제만 어머니를 따라 서울 돈화문 부근으로 이주
- 1910년 사립보흥학교 입학
- 1912년 보흥학교를 2년 수료하고 계동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
- 1914년 계동보통학교 4년 과정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YMCA학관 중학부에서 수학
- 1918년 서화미술회에 응시해 합격하고 화과(畵科)에 입학하여 안중식, 조석진 사사
- 1918년 서화미술회의 화과 3년 진과정을 마치고 졸업, 졸업 후 경묵당에서 그림 공부 지속
- 1918년 서화협회의 정회원으로 입회
- 1920년 이왕가의 요청으로 창덕궁 내전 경훈각 내벽에 <산선관파(三仙觀波)>를 제작
- 1921년 《제1회 서화협회전》(서울, 계동 중앙학교)에 정회원으로 출품
- 1922년 《제1회 조선미전》 동양화부에 <추강귀어(秋江歸漁)> 입선
- 1923년 노수현 · 변관식 · 이용우와 ‘동연사(同硯社)’ 조직
- 1923년 동연사전을 계획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노수현과 《2인전》(서울, 보성학교 강당) 개최
- 1925년 《제4회 조선미전》에 <소슬(瀟瑟)>로 3등상 수상, 이후 13회까지 연속 특선
- 1927년 동아일보사 학예부 미술기자로 입사. 각종 삽화와 도안, 사진 수정 등 전담
- 1932년 충남 아산 현충사 영정각에 봉안될 이순신 장군 초상 제작
- 1932년 《제11회 조선미전》에서 <귀초(歸樵)>로 연속 8회 특선에 최고상인 이왕가상 수상
- 1933년 ‘청진화숙(靑田畵塾)’을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문하생 지도
- 1935년 《제14회 조선미전》에 신설된 추천작가가 되어 <무(霧)> 출품
- 1935년 이여성과 《소품 백폭전》(서울, 동아일보사 3층) 개최
- 1936년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 말살 사건으로 동아일보사 퇴사
- 1940년 조선미술관 주최 《십명가산수화전(十名家山水畵展)》(서울, 부민관)에 <우후(雨後)> 출품
- 1941년 《제1회 청진화숙전》(서울, 화신백화점 화랑)에 찬조 출품
- 1949년 《제1회 국전》(서울, 경복궁미술관)에 추천작가로 <효천보희(曉天報喜)> 출품
- 1950~1962년 홍익대학교 미술과(동양화) 교수로 재직
- 1952년 대구 미국공보원에서 <효종(曉鐘)> 등 25점으로 생애 유일의 개인전 개최
- 1957년 제3회 예술원상 공로상 수상
- 1959년 해외소개 문화영상 <한국의 전통화가 이상범과 그의 화실> 촬영
- 1962~1966년 홍익대학교 정년퇴임, 이후 명예교수로 출강
- 1962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대통령장 수상
- 1963년 3·1문화상 예술부문 본상 수상
- 1965년 서울시 문화상 수상
- 1971년 《동양화 6인전》(서울, 신문회관) 출품
- 1972년 서울 누하동 자택 ‘청연산방’에서 작고

## 이경배 (李慶培, 1898~1960)



이경배, <난(蘭)>, 1948, 한지에 수묵담채, 33×125cm, 대전시립미술관



이경배, <묵란(墨蘭)>, 1959, 제8회 <국전> 서예부 특선작(출처: 『동아일보』, 1959. 9. 29)

호는 석연(石淵). 1898년 애국지사이며 동몽교관(童蒙教官)을 지낸 이익의 차남으로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하였다.<sup>1</sup> 공주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해서 선린상업고등학교를 다닐 당시 고모(당시 영의정을 지낸 안동 김병학(金炳學)의 며느리)의 집에서 기숙하였는데, 이때 만난 김용진의 영향으로 화가의 길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경배는 1929년 <제8회 조선미전>에서 첫 입선을 거두며 이후 <제11회 조선미전>까지 연속 네 차례 입선을

하였다. 또한 <서화협회전>에도 참여하여 <제10회 서화협회전>에서는 <난(蘭)>으로 특선을 수상하였다. 해방 후 1949년 열린 <제1회 국전>의 제5부 서예에서 <석란(石蘭)>으로 입선하였고, 이후 제2·6·8회 <국전>에서 사군자로 입선 및 특선을 하며 추천작가가 되었다.

공주중학교, 온양중학교, 대천중학교 등에서 교편생활을 하였으며, 1960년 작고할 때까지 대전에 정착하여 이 지역의 초창기 화단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조중현, 박성섭, 박승무 등과 함께 초기 대전 화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경배는 시·서·화는 물론 거문고와 가야금에도 뛰어났으며, 문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기량을 골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산수화·인물화·화조·서예 등 장르의 구분 없이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특히 난화(蘭畵)에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였고, 낙관을 손수 전각할 정도로

<sup>1</sup> 이경배의 출생 시기는 연구자에 따라 1886년, 1898년, 그리고 1900년으로 보고 있다. 1886년 출생설은 윤여현, 「공주 근대(近代) 향토작가 지상전(紙上展) -上-, 『웅진문화』 20(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07), pp. 102~116; 1900년으로 보는 연구는 『충남 근현대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 56이 있다.

전각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sup>2</sup>

## 연보

- 1898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29년 《제8회 조선미전》에 〈묵란(墨蘭)〉 입선
- 1930년 《제9회 조선미전》에 〈국화(菊)〉 입선  
《제10회 서화협회전》에 〈난(蘭)〉으로 특선 수상
- 1931년 송재 조동욱과 합동 전시회 개최(공주, 충남도평 의회장)  
소정 변관식과 《2인전》 개최
- 1934년 《제13회 서화협회전》에 출품
- 1935년 《제14회 서화협회전》에 출품
- 1936년 《제15회 서화협회전》에 〈석죽(石竹)〉, 〈목단(牡丹)〉 출품
- 1949년 《석연 이경배 개인전》(서울, 동화백화점 화랑) 개최  
《제1회 국전》에 〈석란(石蘭)〉 입선
- 1953년 《제2회 국전》에 〈유곡청향(幽谷清香)〉 입선
- 1957년 《제6회 국전》에 〈학무(鶴舞)〉 입선
- 1958년 《제7회 국전》에 〈묵란(墨蘭)〉 입선
- 1959년 《제8회 국전》에 〈묵란(墨蘭)〉 특선
- 1960년 작고

2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10.

## 임숙재 (任壽宰, 1899~1937)



임숙재, <동식물 도안>, 1920, 종이에 먹, 18.5×27.5cm, 국립현대미술관

임숙재는 1899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했다. 경성중등학교 중등과를 졸업하고, 1923년 동경미술학교 도안(圖案)과 제1부에 특별학생으로 입학하여, 1927년 4월 선과(選科)에 전입, 1928년 3월에 졸업했다.<sup>1</sup>

한국인 최초로 일본에서 도안을 전공한 임숙재는 귀국 후 조선 공예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한편, 1928년 『동아일보』에 2회에 걸쳐 「공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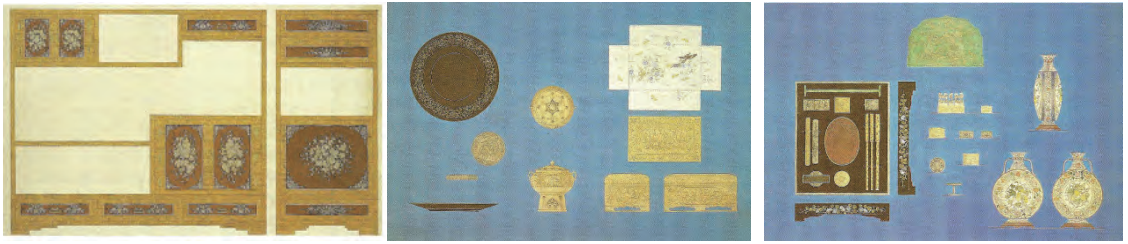
(工藝)와 도안(圖案)」이라는 논문을 기고하여 처음으로 ‘공예’와 ‘도안’ 개념을 소개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의 미술 강습회를 개최하여 당시로선 낯선 분야였던 도안의 보급에 힘썼다.<sup>2</sup> 1929년 7월 ‘위대한 조선의 미술과 공예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나 의논하여 ‘조선공예연구회’를 조직했다.<sup>3</sup> 연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대사업으로 서울 안국동에 경성도안사(京城圖案社)를 설립하여 이왕직미술품제작소의 업무와 함께 상업도안을 포함한 다양한 도안을 연구하는데 매진하였다.

임숙재 작품을 비롯해 관련 자료들은 한국전쟁 중 대부분 유실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작품은 동경예술대학 미술학부에 소장되어 있는 졸업작품 <책장 및 장식 공예품 도안(書棚及飾付工藝品圖案)>을 비롯한 4점과 귀국 직후 이왕직미술품제작소에서 제작한 <목단문나전칠소반((牧丹紋螺鈿漆小盤)>(1928), 유족으로부터 구입해 2001년 국립현대미술관 신소장품이 된 <사슴 도안>(1928) · <동식물 도안>(1920) 정도이다.<sup>4</sup>

1 노유니아, 「근대 디자인 개념과 양식의 수용-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유학생 임숙재(任壽宰)를 중심으로」, 『미술이론과 현장』 제8호(한국미술이론학회, 2009), pp. 9~10. 임숙재의 동경미술학교 졸업연도는 국립현대미술관 작가 설명에는 ‘1929년’, 한국민족대백과사전에는 ‘1928년’으로 자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출생연도 역시 동경미술학교 학생부 기록에는 1900년 8월생으로 되어있다. 당시 도안과는 1부 공예도안 전공, 2부 건축 전공으로 나뉘어 있었다.

2 임숙재는 미술강습보다는 염색도안 강습을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십일부터 열리는 염색도안강습회」, 『동아일보』(1928. 8. 19); 임숙재의 강습과 염색보급의 필요성에 관한 글은 『조선일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1928. 9. 23); 『조선일보』(1928. 9. 28); 『조선일보』(1928. 10. 5)에 연이어 실렸다.

3 조선공예연구회는 임숙재를 회장으로, 부회장에 박진환, 고문 민경휘, 안석주와 이범철, 간사에 박노율이 참여하는 등 단체로 운영되었다. 「공예연구회 창립」, 『동아일보』(1929. 7. 22).



임숙재, <책장 및 장식 공예품 도안(書棚及飾付工藝品圖案)>, 1928, 종이에 수채, 크기 미상, 동경예술대학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의 <동식물 도안>(1920)은 식물과 동물의 패턴이 뚜렷한 흑백 대비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아르누보 스타일의 곡선으로 이루어졌다. 졸업작품으로 제작한 <책장 및 장식 공예품 도안>(1928)은 서구의 아르누보(Art Nouveau) 풍 장식이 전면에 보이지만, 표주박 꽃과 가늘고 섬세한 넝쿨의 곡선미에서 한국 전통문양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임숙재는 “도안은 용도에 적합하고 미관의 색채를 표출하고 실물로 제작하기에 용이하고 간단해야 한다.”라고 도안을 정의하였다.<sup>6</sup> 그러나 활기차게 운영하던 도안사무소가 어려워지면서 1937년 38세의 이른 나이에 작고했다. 임숙재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에서 도안을 전공하고 돌아와 낯선 분야였던 도안의 홍보와 조선공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1세대 도안전문가이다.

## 연보

- 1899년 충남 천안에서 출생
- 1923년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제1부에 특별학생으로 입학
- 1927년 4월, 선과(選科)에 전입
- 1928년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졸업  
졸업작품으로 <책장 및 장식 공예품 도안(書棚及飾付工藝品圖案)> 제출
- 1928년 동아일보사 3층에서 염색도안 강습회 개최
- 1929년 '조선공예연구회' 조직  
경성도안사(京城圖案社) 설립
- 1937년 작고

4 <사슴 도안>은 《국립현대미술관 신소장품 2000년 전》에서, <동식물 도안>은 《국립현대미술관 신소장품 2001년전》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노유니아, 앞의 논문, p. 8.

5 실재하는 자연물을 2차원적인 평면에 표현함으로써 도상의 평면화·패턴화를 가능하게 한 아르누보 양식은 파리 만국박람회를 통해 일본에 확산되었다. 1920년대 동경미술학교에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교수들에 의해 아르누보 양식의 곡선미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3월, 이달의 인물-근대 공예사의 개척 디자이너, 임숙재」, 근현대디자인박물관(디자인코리아뮤지엄, 2012. 3). <http://www.designmuseum.or.kr/>

6 노유니아, 앞의 논문, p. 22.

## 조동욱(趙東旭, 1899~1944)



(좌) 조동욱, <묵란(墨蘭)>, 1931, 《제10회 조선미전》 입선작  
(우) 조동욱, <수류화개(水流花開)>, 1936, 《제15회 조선미전》 입선작



호는 송재(松齋), 무릉어인(武陵漁人). 조동욱은 1899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조용하(趙容夏)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정술원의 조카 사위이다. 약 16년간 공주 무릉리에서 습작기를 보내고, 32세 때인 1930년 경성으로 이사하여 1944년 46세로 작고할 때까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였다.<sup>1</sup>

1931년 처음으로 《제10회 조선미전》에 <묵란(墨蘭)>, <석란(石蘭)>이 입선한 후, 1936년까지 《조선미전》과 《서화협회전》에서 여러 차례 입선하였다. 김응원과 민영익의 화법을 본받아 필치가 아름다웠으며, 난을 주로 그렸다. 대표작으로 난과 괴석이 어우러진 <석란화(石蘭畫)>를 들 수 있다.

세련된 운필의 난(蘭)의 묘사와 함께 담백하면서도 간결한 필묵법의 바위를 그려 그림의 운치를 더했으며 화면 상단에 그림에 상응하는 시구를 적어 시·서·화 일치의 경지를 보여주

었다.<sup>2</sup> 평생 ‘난(蘭)’ 그리기를 고집했던 조동욱은 “난을 전공하되 김응원의 법을 주로 하고, 다시 운미 민영익의 법을 두루 살펴서 범람 필력이 오묘(奧妙)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sup>3</sup>

당시 일류 서화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본 정치가인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1936년 관동군(關東軍) 사령관에서 조선총독으로 부임해 왔을 때, 조동욱으로 하여금 《묵란화》 10폭 병풍을

1 한국미술진흥원에는 조동욱의 생몰년이 1897년~1942년으로 나온다. 한국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https://kapatv.net/%ED%8F%89%EB%A9%B4%EC%9E%91%ED%92%88/view/197299>; 조동욱의 부친 조용하는 자산(子山) 박영두(朴永斗)의 사위이다. 1915년 등기부에는 무릉동 544번지가 조용하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1921년 조동욱의 명의로 이전된다. 남궁운, 「무릉동 이야기」, 『웅진문화』32(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19), pp. 133~145; 윤여현, 「공주 근대(近代) 향토작가 지상전(紙上展) -上-」, 『웅진문화』20(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07), pp. 102~116.

2 김정숙, 「조동욱」, 『한국역대서화가 사전(下)』(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p. 2046~2047.

3 윤여현, 앞의 글, pp. 107~108.

그리게 하여 만주국(滿洲國) 황제에게 진상했다는 일화가 전한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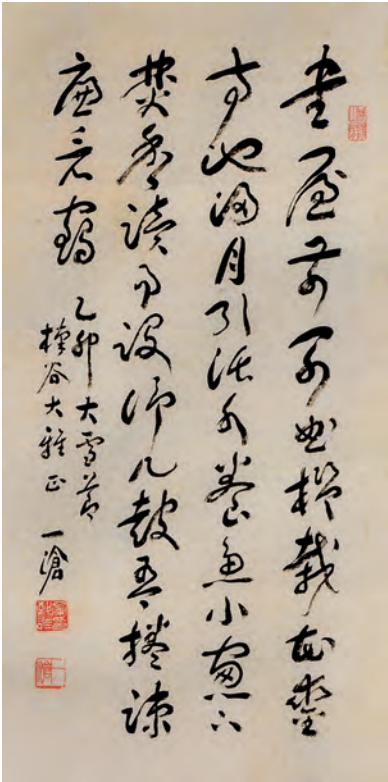
## 연보

- 1897년 충청남도 공주 무릉동에서 조용하(趙容夏)의 2남 중 장남으로 출생
- 1930년 경성(현 서울) 이주
- 1931년 《제10회 조선미전》에 〈묵란(墨蘭)〉 입선  
《이경배·조동욱 2인전》(공주, 충남도평의회장 개최)
- 1932년 《제11회 조선미전》에 〈석란(石蘭)〉 입선
- 1934년 《제13회 조선미전》에 〈석란(石蘭)〉 입선  
《제13회 서화협회전》에 〈석란(石蘭)〉 2점 입선
- 1935년 《제14회 서화협회전》에 〈석란(石蘭)〉 입선
- 1936년 《제15회 조선미전》에 〈수류화개(水流花開)〉 입선  
《제15회 서화협회전》에 〈묵란(墨蘭)〉 입선
- 1939년 《송재 조동욱, 석란작품전》(서울, 화신백화점 갤러리) 개최
- 1940년 《문인서화전》(서울, 조선일보사)에 작품 출품
- 1944년 작고

4 김정숙, 앞의 글, pp. 2046~2047.



# 유치웅 (俞致雄, 1901~1998)



유치웅, <소창유기(小窓幽記)>, 종이에 먹, 63.2×32.3cm(출처: 『우당 유창환, 일장 유치웅-제4회 유홍준교수 기증 유물전, 부여의 서예가』, 부여문화원, 2018)

호는 일창(一滄). 1901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에서 태어난 유치웅은 부친 유창환의 뒤를 이어 가학(家學)을 충실하게 계승한 서예가이다. 1916년 규암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 부여 공립간이농업학교(簡易農業學校)를 졸업하였으며, 같은 해 이희숙(李喜淑)과 혼인하였다.

1923년 경성으로 이사한 유치웅은 1928년 경성공학원(京城工學院)에 입학해서 토목을 배웠으며, 졸업 후 1928년부터 1934년까지 조선토지 개량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1926년 6·10 만세 사건으로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으며, 1934년에는 기계 유씨의 창씨개명 반대 결의 대회를 주도하는 등 부친과 함께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는 동성중학교에서, 1946년부터 1948년까지 보인상업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다.

해방 후 '조선어학회'에서 주최한 '제1회 국어강습회 사범부'를 수료하고 한글문화 보급회 부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검찰위원회 이사관을 역임하였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공무원 고등전형에 합격하여 검찰관을 역임하였다. 명지학원 이사장을 지냈으며, 《국전》 초

대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근대미술 60년전》에서 유치웅의 <초서>가 1960년대의 서예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2014년 '부여를 빛낸 100인'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부친의 묘와 함께 부여군의 향토문화유산 제 134호로 지정되었다.

대표작으로 <초서> 8폭 병풍이 있으며, 만해 한용운(韓龍雲, 1879~1944)이 말년을 보낸 '심우장(尋牛莊)'의 편액 글씨가 남아있다. 유치웅의 초서는 한 군데도 모가 난 곳 없이 동글동글 한 것이 특징으로, 한국 근대기 서예사에서 '초서'로 독보적인 세계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1</sup>

1 「한국근대미술 60년전 27일 개막」, 『조선일보』(1972. 6. 23).

## 연보

- 1901년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가곡2리 출생
- 1916년 규암공립보통학교 졸업
- 1918년 부여공립간이농업학교 졸업, 이희숙(李喜淑)과 혼인
- 1923년 경성으로 이주
- 1926년 6·10 만세 사건에 가담
- 1928년 경성공학원(京城工學院)에서 토목과 수학
- 1928~1934년 조선토지 개량주식회사에서 근무
- 1934년 기계 유씨(杞溪 俞氏) 창씨개명 반대 결의대회 주도
- 1941~1945년 보인상업학교 교원 및 서무주임
- 1945년 조선어학회 주최 제1회 국어강습회 사범부 수료, 한글문화 보급회 부회장 취임
- 1945~1948년 동성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46~1948년 보인상업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47년 문교부 주최 교육전람회 심사위원 역임
- 1948년 대한민국 초대 감찰위원회 비서실장(이사관)
- 1948~1998년 기계 유씨(杞溪 俞氏) 대종(大宗) 제54대 門長
- 1949년 재단법인 부운강학회 설립, 이사장 취임
- 1972년 《한국근대미술6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초서〉 출품
- 1974년 《1975한중 친선 서예전》(대만)에 출품 / 《한국서예 국전 30년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78년 《한국현대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0년 《청립회전》(서울, 덕수궁미술관)에 출품
- 1981~1984년 《국제서법연합전》(일본 도쿄, 센트럴 미술관)에 출품
- 1982년 《'82 한중현대서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3년 《한국현대서화전》(대만, 국립역사박물관) / 《한일중 서예교류전》(광주, 남도문화회관)에 출품
- 1984년 《한중서예연의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출품
- 1985·1987년 《'85, '87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5년 《한중서예명가전》(서울, 세종문화회관) / 《현대미술 4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6년 《동방연서회전》(파리, 한국문화원)에 출품
- 1986년 《한국현대미술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8년 《국제현대서예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한국서예 100년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0년 《한국서협 창립 기념전》(서울, 백상기념관)에 출품
- 1993년 《한국서예 100인 초대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8년 작고

## 송병돈 (宋秉敦, 1902~1967)



송병돈, 〈초여름의 금강(初夏의錦江)〉, 1924, 《제3회 조선미전》  
입선작

송병돈은 1902년 충청북도 진천에서 태어나 공주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다. 1924년(23세) 《제3회 조선미전》에 〈초여름의 금강(初夏錦江)〉을 출품해 입선했고,<sup>1</sup> 다음 해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 입학했다. 일본 유학 중이었던 1926년 〈조춘(早春)〉으로 《제5회 조선미전》에서 입선했으며, 1930년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면서 안경을 끼고 교복을 입은 자화상을 졸업작품으로 제출했다.

귀국 후에는 《동미전(東美展)》(1930)에 참여했으며, 공주 영명여자학교(永明女學校)에 재직하면서 지역 미술단체인 《공주회화회(公州繪畫會) 제1회 전람회》(1931. 11)에 〈수원지풍경(水源池風景)〉, 〈백일홍(百日紅)〉, 〈W상(W像)〉, 〈늦가을풍경(晚秋風景)〉, 〈초가을풍경(初秋風景)〉, 〈초여름풍경(初夏風景)〉, 〈어린이(小兒)〉 등 7점을 출품했다.<sup>2</sup> 1933년 《제12회 서화협회전》에는 정물화를 출품했으며, 이 해에 김천고등보통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했다. 1934년에는 《목일회(牧日會)전》에 참여하면서 회원으로 활동했다.<sup>3</sup> 이후 1937년 목일회가 목시회(牧時會)로 명칭을 바꾸어 개최되었던 마지막 동인전에도 참여했다.<sup>4</sup>

송병돈은 1933년부터 1934년까지 『조선일보』에 「유행인(流行人)」, 「불시봉변(不時逢變)」처럼 세대를 풍자하는 만평을 그렸으며,<sup>5</sup> 1935년에는 『조선일보』에 연재된 김유정 소설 『소낙비』의 삽화를 그렸다.<sup>6</sup> 송병돈의 삽화는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렸는데, 전반기에는 풍경을 위주로 그렸다면, 후반기에는 인물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삽화를 그려 김유정 소설의 분위기를 이미지로 전달했다. 김천고등보통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이 해 여름에는 『동아일보』의 《팔도풍광(八道風光)》 시리즈에 「남방토(南方土)」라는 제목의 기행 사생화

1 「美展入選의 〈初夏錦江〉의 揮毫-공주 宋秉敦氏의 영예」, 『매일신보』(1924. 6. 3).

2 「公州繪畫會第一回作品展」, 『朝鮮新聞』(1932. 11. 27); 「公州繪畫會, 作品展出品」, 『朝鮮新聞』(1932. 11. 28).

3 「牧時會 첫展覽會-十六일부터 四日間」, 『조선중앙일보』(1934. 5. 8).

4 「牧時會展 화신 『홀』에서」, 『매일신보』(1937. 6. 1).

5 송병돈, 「流行人」, 『조선일보』(1933. 5. 7); 송병돈, 「불시봉변(不時逢變)」, 『조선일보』(1934. 6. 11).

6 김정화, 「김유정 신문연재소설의 삽화연구」, 『우리어문연구』 54(우리어문학회, 2016), pp. 40~43.

를 4회 연재했는데,<sup>7</sup> 삽화에는 경북 김천의 자연 풍광과 시가지 풍경, 그리고 장날 풍속 등이 담겼다.

해방 후 출판계가 활황을 맞이하자 송병돈은 장정가로도 활동했다. 1949년 김진섭(金晋燮) 수필집 『생활인의 철학』(선문사)의 장정과 1952년 양정고등학교 교지인 『양정(養正)』의 표지화를 제작했고, 1954년 문학 번역서인 『영국애란시선(英國愛蘭詩選)』(受驗社, 1954)을 장정했다. 해방 후 열린 국전의 추천작가를 지냈으며, 한국전쟁 발발 직후 공군 중군화가단 소속 화가로 활동했다. 1955년 한국미술가연합준비위원회의 발기인으로 서세옥, 김병기 등과 함께 참여했다.

송병돈은 1949년 9월부터 1967년 타계할 때까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서울대학교 서양화과의 토대를 마련한 교육자 중 한 사람이다.<sup>8</sup> 1960년 이승만 하야를 요구하는 ‘4·25 교수시국선언’에 참가했으며, 1962년 서울대학교 정년퇴임 후에는 《창작미술협회전》에 8회부터 10회까지 참여했다. 1967년 타계한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84년 10월에 열렸던 《송병돈·박상옥·박수근 특별전》과 1997년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유화》에 송병돈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송병돈은 1930년대 초반 충남지역 최초의 미술단체인 ‘공주회화회’ 결성의 주역이자 신문삽화, 장정 등 출판미술가로 활동한 한편, 미술교육자이자 화가로 다양한 활약상을 보여준 화가이다.



송병돈, 〈Work〉, 1964, 캔버스에 유채, 90.6×72.1cm, 서울대학교미술관

## 연보

- 1902년 충청북도 진천 출생
- 1924년 《제3회 조선미전》에 〈초여름의 금강(初夏の錦江)〉 입선
- 1925년 동경(東京)미술학교 입학
- 1926년 《제5회 조선미전》에 〈조춘(早春)〉 입선
- 1930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졸업
- 1931년 ‘공주회화회’ 창립에 참여, 《공주회화회(公州繪畫會) 제1회 전람회》에 〈수원지풍경〉, 〈백일홍〉, 〈W상〉, 〈늦가을풍경〉, 〈초가을풍경〉, 〈초여름풍경〉, 〈어린이〉 7점 출품

7 송병돈의 글과 그림은 1935년 8월 31일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다. 박희연, 「근대 한국의 기행사생화연구: 1930년대 『동아일보』 연재 삽화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 63~64.

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0년사』(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2016), p. 44.

- 1933년 《제12회 협전(協展)》에 정물화 출품
- 1933~1934년 『조선일보』에 만평 게재
- 1934년 《제1회 목일회(牧日會) 전》에 참여
- 1935년 『동아일보』에 《팔도풍광(八道風光)》 시리즈로 「남방토(南方土)」 연재  
『조선일보』에 연재된 김유정 소설 『소낙비』의 삽화를 6회까지 그림
- 1937년 《목사회전》(서울, 화신화랑)에 출품
- 1949년 김진섭(金晉燮) 수필집 『생활인의 철학(生活人의哲學)』(선문사) 장정
- 1949~196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 1952년 양정고등학교 교지 『양정(養正)』의 표지화 제작
- 1954년 『영국애란시선(英國愛蘭詩選)』(受驗社) 장정
- 1957년 국전 추천작가
- 1962년 《국제자유미술전》(서울, 경복궁미술관)에 출품
- 1963~1965년 제8회~제10회 《창작미술협회전》에 출품
- 1967년 12월 작고

## 박성섭 (朴性燮, 1903~1974)

호는 아무(亞武). 1903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출생한 박성섭은 배재중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의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에 진학했다. 1931년 《제10회 조선미전》에 〈벽천리춘색(碧泉里春色)〉으로 첫 입선한 이후 제11회와 제12회에 연속으로 조선미전에 입선하며 작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1932년에는 동아일보사 부여지국과 중앙일보 부여지국의 후원으로 홍산(현 부여군 홍산면)에서 박성섭의 《양화전람회》(1932. 12. 23~12. 24)를 개최했다.<sup>1</sup> 이 전람회를 알리는 기사에 따르면, 박성섭은 “동경미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돌아와 수년간 연구를 거듭해 조선미전에서 특선으로 입상했다고 전하고 있다.<sup>2</sup>



박성섭, 〈고미〉, 1965, 캔버스에 유채, 38×45.5cm, 대전시립미술관

1945년 대전사범학교 설립 당시 미술교사로 부임해 대전화단과 미술 교육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활동의 일환으로 1945년 10월 10일 대홍동의 한 사무실에서 이동훈과 함께 취미로 작품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모아 ‘충남미술협회’를 결성했다.<sup>3</sup> 이 무렵 이동훈과 자주 스케치를 나가 풍경화를 그렸고, 1947년 대전상공회의소의 상공장려관 관장으로 임명되면서 같은 해 11월 대전사범학교를 그만두고 후임 미술교사로 이동훈을 추천했다. 1949년 대전미국공보원에서 열린 하기 문화강좌에서 미술부문 대중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sup>4</sup>

박성섭은 1953년 1월 전쟁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던 ‘충남미술협회’를 이동훈을 비롯한 지역 미술가들과 함께 재건하고, 초대 회장을 맡아 충남미술의 발전을 도모했다. 1955년 대전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걸쳐 서양화 개인전을 개최했다. 1962년 대전일보사 후원으로 충남공보관에서 《박성섭 개인전》을 열었으며, 1969년에는 21점의 작품으로 《아무 박성섭화백 유화전》(1969. 6. 2~6. 9)을 서라벌다방에서 개최했다.<sup>5</sup> 심향 박승무와도 친분이 있었

1 『洋畫展覽會 夫餘支局主催』, 『동아일보』(1932. 12. 21).

2 선행연구에서는 박성섭이 미술공부를 위해 일본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완고한 아버지의 반대로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32년 12월 21일자 『동아일보』에는 이미 동경미술학교를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어 박성섭의 동경미술학교 재학 및 졸업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동아일보』, 위의 기사; 황효순, 『대전미술의 선구자들 2』, 『대전문화』 제23호(2014), pp. 68~69.

3 김경연, 『李東勳 評傳』(열화당, 2012), p. 180.

4 『하기문화강좌 오늘부터 개강, 미공보원』, 『충청매일』(1949. 8. 2).

5 『아무 박성섭화백 유화전』, 『대전일보』(1969. 6. 2);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322.



박성섭, <추수>, 1965, 캔버스에 유채, 38×45.5cm, 대전시립미술관

던 박성섭은 서양화를 전공했지만 스케치 여행을 다닐 때는 동양화 모필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으며, 주로 서양화 작업을 했으나 말년에는 한국화를 제작했다.<sup>6</sup> 해방 전후로 많은 골동품과 고화·고서를 수집했던 기록이 있어 전통미에 대한 의식을 짐작케 한다.<sup>7</sup>

박성섭의 화풍은 현재 남아있는 자료들이 적어 전모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추수>(1965)를 보면 인상파적 경향의 풍경화를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벼단이 수북히 쌓인 논과 그 사이로 허리를 숙이고 벼를 베고 있는 농부들을 통해 추수의 계절을

묘사한 그림이다. 근경의 논과 멀리 황금색 들판이 수평 구도를 이루는 가운데, 속도감 있는 빠른 붓질이 바쁜 농촌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전해준다. 박성섭은 향토적 소재를 주로 다루며,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자신이 직접 밖에서 본 일상적인 풍경을 화면에 담았다.<sup>8</sup> 1974년 타계할 때까지 척박했던 초기 충남미술을 일군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 연보

- 1903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  
서울 배재중학교 졸업
- 1931년 《제10회 조선미전》에 <벽천리춘색(碧泉里春色)> 입선
- 1932년 《제11회 조선미전》에 <정물> 입선 / 《양화전람회》 개최
- 1945~1947년 대전사범학교 교사로 재직
- 1945년 이동훈 등과 충남미술협회 결성 / 《해방기념문화대축전 미술전람회》(덕수궁미술관)에 출품
- 1947년 충청남도 상공장려관 관장으로 취임
- 1949년 《아무(亞武) 박성섭 화백 유화전》 개최 / 대전미국공보원 미술부문 대중강연
- 1953~1957년 충남미술협회장 역임
- 1955년 이후 대전·서울·대구에서 개인전 개최
- 1955년 《박성섭 서양화 개인전》 개최
- 1962년 《박성섭 개인전》(충남공보관 외) 개최
- 1969년 《아무 박성섭화백 유화전》(대전, 서라벌 다방) 개최
- 1974년 작고

6 황효순, 앞의 글, p. 71.

7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충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12.

8 충남근현대예술사편찬위원회, 『충남근현대예술사 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p. 33~34.

## 이동훈 (李東勳, 1903~1984)

이동훈은 1903년 평안북도 태천에서 고흥군수를 지낸 이봉구(李鳳九)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23년 의주공립농업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평북사범학교 강습과에 들어가 1924년에 수료했다.<sup>1</sup> 일찍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었으나 집안의 반대로 보통학교 교사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독학으로 틈틈이 익힌 실력을 발휘해 1928년 《제7회 조선미전》에 〈풍경〉으로 첫 입선한 후, 1944년까지 12차례 입선했다. 또 1929년 《제1회 녹향회전》에 〈조춘풍경(早春風景)〉을 출품해 입선했다. 1934년 말 일본으로 건너간 이동훈은 1935년 8월까지 도쿄 구마오카회화도장(熊岡繪畫道場)에서 서양화 강습을 받고 돌아와 1936년부터 일본인 화가 도오다시게오(遠田運雄)에게 4년간 그림을 배웠다.

평북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평북 용암포보통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으며, 1935년 경성(현 서울)의 금화보통학교를 거쳐 1940년 미동보통학교에서 재직했다.<sup>2</sup> 해방되기 직전인 **1945년 4월**에 **대전으로 이사**해 1947년 10월 말까지 대전공업학교에서 근무했다. 1948년 ‘충남북학생미술 실기대회’를 개최했고 이듬해 《충남학생미전》을 실시하는 등 충남지역 미술교육을 위해 헌신했다. 1953년 박성섭과 ‘충남미술협회’의 재건을 도모하는 등 대전, 충남화단을 이끈 공로로 1958년 제2회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1962년 한국미술협회가 발족된 이후 충남지부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을 맡았다.

이동훈은 1947년 11월 대전사범학교에 부임해 1963년까지 16년간 교사로 지냈다. 1963년 대전사범학교가 충남고등학교로 개편된 후에도 1969년 2월까지 6년간 평교사로 지내다 충남고등학교에서 정년퇴임했다. 정년퇴임 후 서울로 이주해 1981년까지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에 출강했다. 대전사범학교에 재직하던 1960년, 현장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 『도안사전』을 제작했다. 1962년 대전사범학교 교지인 『대사(大師)』를 창간했고, 충남고등학교 교지인 『청운령』도 이동훈이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판화를 교지의 표지화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동훈은 1946년 10월 대전 본정통의 후생관에서 30여 점의 작품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고, 이 무렵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교류하며 활발하게 작품을 제작했다. 작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것은 《제1회 국전》에 출품한 〈목장의 아침〉이 특선을 차지한 1949년부터이며, 1953년 《제2회 국전》에서 〈목장〉으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더욱 이름이 알려졌다. 이동훈의 연이

1 이동훈의 생애와 연보는 대전시립미술관, 『탄생 100주년 기념 이동훈 회고전 도록』(대전시립미술관, 2003); 김경연, 『李東勳 評傳: 朝鮮땅 풍경의 畫家 이동훈, 예술과 생애』(열화당, 2012) 참조.

2 황효순, 「대전미술의 선구자들 2」, 『대전문화』 제23호(2014), p. 72.





이동훈, 〈뜰〉, 1950, 캔버스에 유채, 100×72.7cm, 대전 시립미술관

은 국전 특선은 당시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충남화단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다. 이후 이동훈은 국전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며 추천작가·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다.<sup>3</sup> 이러한 이동훈의 활약상은 대전과 서울 화단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동훈의 작품은 화려하거나 뛰어난 기교보다는 관조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화면을 운영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sup>4</sup> 늘 한결같은 자세로 화면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동훈의 화면은 경우에 따라서 평면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주의적인 사실주의 화풍을 평생 견지한 이동훈은 향토색 짙은 세계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현했다. 이동훈의 작품은 대부분이 풍경화이지만, 젓소라든가 닭장, 염소 등 농촌의 일상이 담겨있고, 야외스케치가 어려운

경우 집안의 화초를 소재로 한 정물을 그리기도 했다.

이동훈의 초기 작품은 조선미전 도록에 실린 흑백도판으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색채를 알 수 없지만, 화면구성은 철저하게 자연을 묘사하여 마치 사진의 구도와 흡사한 면을 보여준다.<sup>5</sup> 대전에 정착한 이후에는 계룡산, 감사, 유성 등 대전 근교 풍경을 주로 그렸다. 이 시기 작품에는 대상을 생략하거나 재구성하는 화면 경영보다는 철저하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1969년 45년간의 교사생활을 마감하고 서울로 거처를 옮긴 후에는 서울 근교를 소재로 많은 작품을 제작했다. 또한 이 무렵 민족기록화 제작에도 참여해 〈새마을 추수〉를 제작했다. 1976년 73세의 나이로 국전에서 초대작가상을 받으며 화업을 인정받았다. 이후 이동훈은 태국과 방글라데시를 거쳐 네팔을 돌아오는 여정과 유럽여행을 하며 보았던 이국의 풍광을 화면에 담았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한층 더 색채가 밝아졌으며, 단순하고 소박한 화면을 통해 원시적이고 목가적인 여유로움을 구현했다.

이동훈은 풍경화 외에도 국전 추천작가로 출품한 〈금련화와 사보텐〉을 비롯해, 〈선인장과 꽃〉 등 선인장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제작했는데, 〈뜰〉(1950)도 이런 유형의 작품 중 하나다. 이 작품은 구불거리는 화초 줄기와 창밖의 구름이 어우러져 장식성이 강하고, 화면 한가운데 하얀

3 이동훈은 1964년과 1965년 연이어 국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으나 심사장에서의 불쾌감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은 아무리 명예로운 직분이라도 맡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겨 그 이후로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황효순, 앞의 글, p. 74.

4 정준모, 『순진한 눈과 소박한 마음의 작가-무애(無涯) 이동훈의 삶과 예술』, 『탄생100주년 기념 이동훈 회고전 도록』(대전시립미술관, 2003), p. 12.

5 정준모, 위의 글, p. 15.

선인장 꽃이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한다.<sup>6</sup> 이동훈의 작품은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함께 자연과 교감하면서 느낀 순수한 감정이 성실하고 소박한 필치를 통해 정직하게 표현되었다는 평을 받는다.<sup>7</sup>

이동훈은 작가로서 교육자로서 충남화단을 형성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 대전미술 정착기에 가장 공이 컸던 인물로, 그의 공로를 기리는 이동훈 미술상이 2003년 대전문화방송 주최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2003년에는 《탄생 100주년 기념 이동훈 회고전》이 열려 이동훈의 생애와 작품세계 전반이 조명되었다.



이동훈, 《닭장》, 1962년, 캔버스에 유채, 117×91cm, 국립현대미술관

## 연보

- 1903년 평안북도 태천 출생
- 1923년 의주공립농업학교 졸업
- 1924년 평북사범학교 강습과 수료, 3월부터 평북 용암포보통학교에서 근무
- 1928년 《제7회 조선미전》에 〈풍경〉 입선
- 1928~1940년 제7, 10, 11, 13, 14, 15, 16, 18, 19회 조선미전에서 입선
- 1929년 《제1회 녹향회전》에서 〈조춘풍경(早春風景)〉 입선
- 1934년 《이동훈양화전람회》(신의주, 삼공(三共)양품점) 개최
- 1934~1935년 일본 도쿄 구마오카회화도장(熊岡繪畫道場)에서 서양화 수강
- 1935년 서울 죽점보통학교로 전직
- 1936년 일본인 화가 도오다시게오(遠田運雄)에게 4년간 사사
- 1941년 《유화 5인전》(서울, 화신화랑) 개최
- 1945년 대전으로 이사, 대전공업학교에서 근무  
충남미술협회 결성  
조선미술건설본부 주최 《해방기념문화대축전 미술전람회》(덕수궁미술관)에 참여
- 1946년 《개인전》(대전후생관) 개최
- 1947~1963년 대전사범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48년 《개인전》(대전미국공보원) 개최

6 『해방 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대전시립미술관, 2015).

7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동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14.

- 1949년 《제1회 국전》 서양화부에 〈목장의 아침〉 특선
- 1952년 대전사범학교 주최로 개인전(대전미국공보원) 개최  
《광복절 축하전람회》(대전미국공보원)에 출품
- 1953년 《제2회 국전》에 〈목장〉으로 문교부장관상 수상
- 1953~1960년 《충남미술협회전》에 출품
- 1955년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충청남도 교육공로자상 수상
- 1956년 《제5회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57~1968년 충청남도 문화상 심사위원 역임
- 1958년 제2회 충청남도 문화상 미술상 수상  
목우회(木友會) 창립에 참여
- 1959년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60년 녹조소성훈장 수훈
- 1962~1969년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미술협회전》에 참여
- 1963~1969년 충남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65년 《이동훈 초대 개인전》(충무 호반다방) 개최
- 1966년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68년 한국미술교육공로상 수상
- 1969년 충남고등학교 정년퇴임  
퇴임기념 《李東勳 歷50周年紀念展》(대전예총화랑) 개최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에 1981년까지 12년간 출강
- 1973년 《한국현대작가 100인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4년 한국신미술회 창립에 참여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76년 《제25회 국전》 초대작가상 수상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77년 동남아, 유럽 미술계 시찰과 사생여행
- 1977~1978년 12월부터 1978년 2월까지 태국 · 방글라데시 · 네팔 사생여행
- 1979년 《한국현대미술-1950년대 서양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개인전》(서울, 문화화랑) 개최
- 1981년 《한국미술 '81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2년 《'82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3년 《'83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4년 5월 25일 작고

## 이응노(李應魯, 1904~1989)

호는 죽사(竹史)·고암(顧庵). 이응노는 1904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하여 충청남도 예산에서 유년 시절 대부분을 보냈다. 1922년, 19세에 김규진 문하에 입문하여 정식으로 묵화를 사사하였다.

이응노는 1924년 《제3회 조선미전》에 묵죽을 비롯하여 묵매, 묵란 등 사군자 그림으로 거듭 입선하며 화단에 등단하였다. 이응노가 1924년 《제3회 조선미전》에 처음 출품한 〈청죽(晴竹)〉은 김규진의 화법을 그대로 구사한 묵죽화로 김규진의 전통·서화·사의로부터 출발하였다.

1931년 《제10회 조선미전》에서 〈청죽(晴竹)〉으로 특선한 이후 김규진의 영향에서 조금씩 벗어났으며, 중앙 일간지의 신년 휘호에 묵죽을 수차례 게재하는 등 당시 화단에서 명성을 얻게 된다.<sup>1</sup> 이후 이응노는 작품의 주된 주제였던 묵죽에서 벗어나 1933·1934년 《조선미전》에 각각 난초와 매화를 출품하며 사군자 전반으로 폭을 넓혀갔다.

1936년 이응노는 새로운 그림 수업을 위하여 일본에 건너가 도쿄에 머무르면서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畫學校)’와 ‘혼고양화연구소(本郷洋畫研究所)’에서 일본 화법과 양화의 기초를 익혔으며, 귀국 후에도 1944년까지 《일본화원전》에 참가하며 입선과 특선을 하였다. 일본 유학 후, 이응노는 수묵담채(水墨淡彩)

의 사실적 풍경화를 조선미전에 출품했는데, 《제18회 조선미전》에서 특선한 〈황량(荒涼)〉을 비롯해 〈동도하안(東都河岸)〉, 〈동원춘사(東園春事)〉, 〈여름날(夏日)〉, 〈소추(蕭秋)〉 등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김복진은 이응노의 작품에 대해 “안정하였던 고향(남화)를 버리고 새로운 모색의 길을 떠난 하나의 이민, 나는 이렇게 생각하여 보았다. 바야흐로 전향기에 섰으니 절충의 파탄은 피할 수 없으리라고.”<sup>2</sup> 평가하기도 하였다. 일본 유학을 통해 이응노는 문인화의 관념성에서 벗어나 현실로 눈을 돌려 사실적이고 정교한 화풍을 구사했다. 1939년과 1941년, 두 차례에 걸쳐



이응노, 〈청죽(晴竹)〉, 1931, 《제10회 조선미전》 특선작

1 김학량, 「이응노 회화 연구」(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4), pp. 41~42 참조.

2 김복진, 「제17회 조선미전 평」, 『조선일보』(1938. 6. 12).



이응노, <양색시>, 1946, 한지에 수묵담채, 50×60cm(출처: 『이강사회상전 : 고암 이응노 탄생 100주년』, 빛 갤러리, 2004)

의 선으로 인물의 윤곽을 빠르게 드로잉 하는 구름법에서 윤곽과 면을 구분하지 않는 몰골법까지 다양하게 구사했다. 1946년 작인 <양색시>와 1954년 작인 <영차영차>는 이응노의 달라진 필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해방 이후 화단의 중진으로 활약하던 이응노는 54세가 되던 1958년,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유학을 떠나기 전 1955년 개인전 직후부터 1958년 초까지 그린 신작을 중심으로 《도불전》을 개최해 실험성이 강한 작가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sup>3</sup> 이응노의 《도불전》은 당시 많은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받았는데 평론가 이경성은 “이 도불전의 작품경향은 자유롭게 형태를 해체하고, 묵선으로써 운동적인 리듬과 자유분방한 조형을 이룩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는 전통을 파괴하고 전 동양화가 뿌리깊게 빠지고 있는 안이한 매너리즘에서 우선 그 자신을 구하고 나아가서 한국의 동양화 전체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였던 것이다.”<sup>4</sup>

파리에 도착한 이응노는 출국 전에 이미 계획된 개인전을 가졌다. 유럽에서 이응노의 작품에 대한 반응은 호평이었고, 1960년 파케티(Galerie Paul Facchetti)화랑과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응노는 동양의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조형 감각을 동시에 지닌 ‘문자추상’과 인간군상을 그린 ‘무화(舞畵)’ 등으로 주목을 끌며 세계적인 화가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파케티화랑 소속의 평론가 미셸 타피에(Michel Tapié)는 이응노의 조형정신을 앵포르멜 예술의 한 범주로 해석하였다.<sup>5</sup>

1964년 이응노는 파리에 위치한 세르누시 미술관 내에 ‘파리동양미술학교’를 설립해 프랑스인들에게 서예와 동양화를 가르치며 동양문화 전파에 힘썼다. 그러나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개최된 개인전은 이응노의 변신을 공식화한, 회화적 방향을 새롭게 모색한 전시였다.

1945년 해방 직전 귀국한 이응노는 ‘단구미술원(檀丘美術院)’을 조직하여 1946년부터 동인전을 개최했다. 이 시기부터 이응노는 거리 풍경, 노동자, 전쟁 등 자기주변에서 취재한 삶의 광경을 생동감 있게 그리기 시작했다. 사생을 통해 즉흥적으로 그리는 이러한 태도는 필묵법에도 변화를 가져와 담묵

3 김병기, 「동양화의 근대화지향 고암 이응노 도불기념전평」, 『동아일보』(1958. 3. 22).

4 이경성, 「고암 이응노의 예술」, 『이응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1976).

5 파케티화랑의 평론가 미셸 타피에는 앵포르멜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 파케티화랑 역시 미셀과 뜻을 같이하며 전위적인 운동성격을 갖고 있는 화랑이었다.

연루되어 2년 6개월간 수감되었다. 이응노는 감옥 속에서 종이, 천, 돌멩이, 비닐, 은박지, 밥알과 신문지를 반죽한 재료로 300여 점의 작품을 제작했고, 프랑스 예술인들의 석방 요구로 특별사면을 받았다. 1969년 출옥한 이응노는 프랑스로 돌아가 파리에서 남은 생을 보내며 서구의 현대적 조형형식과 동양의 미학을 결합시킨 ‘문자추상’을 시도했다. 1980년



이응노, <군상>, 1986, 종이에 수묵, 211×270cm, 국립현대미술관

을 전후하여 이응노는 비민주적 독재체제 항거를 격려하기 위한 정치적 주제의 대작들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1986년 작인 이응노의 <군상>은 작가 자신의 외침이며 남한에서 일어난 민주화 투쟁의 응원이었다. 이후 이응노는 남한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작업에 대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1983년 부인 박인경과 함께 프랑스에 귀화하였다.

80세가 넘는 노령에도 프랑스 파리, 스위스, 일본, 평양, 뉴욕 등 세계 각국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이응노는 1989년 1월 10일, 서울 호암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열리고 있을 때 파리 보인병원에서 심장마미로 세상을 떠났다. 사후 프랑스의 유명 예술인들이 잠들어 있는 파리 시립 페르 라세즈 묘지(Père Lachaise)에 안장되었다. 2000년 4월 서울 평창동에 이응노미술관이 설립되었으며, 2007년 5월, 대전광역시에 새롭게 개관하여 <고암, 예술의 숲을 거닐다 파리에서 대전으로>가 개최되었다. 또한 2004년 고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이응노의 고향 홍성에서는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2011년 ‘이응노의 집,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을 개관하는 등 그를 기리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응노는 동아시아의 서화전통을 활용해 현대적 추상화를 창작한 한국현대미술사의 거장이라 할 수 있다.

## 연보

- 1904년 충청남도 홍성 출생
- 1910년 홍성 보통학교 입학
- 1920년 염재 송태회(念齋 宋泰會) 사사
- 1922~1924년 상경하여 김규진 문하에 입문
- 1924년 《제3회 조선미전》사군자부에 〈청죽(晴竹)〉 입선
- 1928년 전주 정착 후 간판점 '개척사' 운영
- 1931년 《제10회 조선미전》사군자부에 〈청죽(晴竹)〉 특선, 〈풍죽(風竹)〉 입선
- 1932년 《제11회 조선미전》〈대죽〉, 〈풍죽〉, 〈청죽〉 무감사 출품
- 1933년 규원 정병조(葵園 鄭丙朝) 선생에게 고암(顧菴)이라는 호를 받음
- 1935년 《제95회 일본미술협회전》에서 〈풍죽〉 입선
- 1936년 도쿄(渡日), 도쿄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畫學校) 동양화과 수학, 도쿄 혼고양화연구소(本郷洋畫研究所) 서양화과 수학, 도쿄 마쓰바야시 게이게쓰의 덴코화숙(天香畫塾) 수학
- 1938년 《제17회 조선미전》에서 〈동도하안(東都河岸)〉, 〈동원춘사(東園春事)〉 입선
- 1939년 개인전 《남화 신작》(서울, 화신화랑) 개최  
《제18회 조선미전》에서 〈황량(荒涼)〉 특선, 〈여름날(夏日)〉, 〈소추(蕭秋)〉 입선
- 1945년 일본에서 귀국 후 충남 예산 수덕여관 인수, 상경 후 고암화숙 설립 '조선서화동연회(朝鮮書畫同研會)', '단구미술원(檀丘美術院)' 조직
- 1948~1950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강의
- 1954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동양화과 출강
- 1956년 『동양화의 감상과 기법』(서울, 문화교육출판사) 출간  
세계미술평론가협회 프랑스 지부장 자크 라세뉴(Jacques Lassigne)로부터 도불 초청을 받음
- 1957년 《현대한국미술전》(미국 뉴욕, Worldhouse Gallery)  
미국 록펠러 재단에서 〈출범〉, 〈산〉 매입 후 뉴욕현대미술관(MoMA) 기증  
《제1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덕수궁미술관)에 〈숲〉, 〈산〉, 〈은조(隱鳥)〉 출품
- 1958년 도불(渡佛) 기념 《이응노 개인전》(서울, 중앙공보관). 12월 26일 도불
- 1959년 서독에서 1년간 체류, 《이응노·박인경 부부전》(독일, 본 시립미술관(Kunst Museum Bonn))
- 1960년 프랑스 파리 정착  
《그룹전》(프랑스 파리, 폴 파케티 갤러리(Galerie Paul Facchetti)) 참여  
11월 프랑스 파리 폴 파케티 갤러리와 전속계약
- 1962년 개인전 《이응노, 콜라주》(프랑스 파리, Galerie Paul Facchetti) 개최
- 1964년 파리 세르누쉬 미술관(Musée Cernuschi)에 엘리세프(Elisseeff) 관장과 함께 파리동양미술학교(L'Académie de Peinture Orientale de Paris) 설립
- 1965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8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은상 수상
- 1966년 《개인전》(덴마크, 코펜하겐국립미술관) 개최

- 1967년 동백림 사건으로 2년 6개월 동안 서대전, 대전교도소, 안양교도소에서 옥고
- 1969년 3월 석방되어 충남 예산 수덕여관 암각화 제작, 프랑스 파리로 돌아감  
개인전 《콜라주》(파리, 폴 파케티 갤러리(Galerie Paul Facchetti)) 개최
- 1970년 《사블르 미술관(Le Musée des Sables) 개관전》(프랑스, 바카레 항구)에 참여, 사블르 미술관  
앞 해안가에 고암의 탐 조각 설치(높이 10m, 직경 1.5m)
- 1972년 프랑스 국립 모빌리에 박물관(Musée Mobilier National)에서 태피스트리 도안을 의뢰, 매입함
- 1973년 자키야르(P. Jaquillard)와 함께 『서(書, Ides et Calendes)』 출간  
《제6회 국제 태피스트리 비엔날레》입선
- 1974년 개인전 《멀티미디어》(미국 라호야, Wenger Gallery) 개최
- 1975년 《회화와 콜라주》(영국 브리스톨, Bristol Museum of Art)
- 1976년 파리 고려화랑 개관  
프랑스 아넝 르 무안느 갤러리 영화 <Ungno Lee> 제작  
프랑스 주앵빌고등학교(Joinville high school)에 벽화 제작
- 1977년 《무화(舞畵) 신작 발표》(서울, 문헌화랑) 개최  
개인전 《판화》(프랑스 파리, 고려화랑) 개최
- 1978년 개인전 《사람들》(프랑스 파리, 고려화랑) 개최  
《이응노, 토비(Tobey), 로비에스(Laubies) 수묵》(프랑스 파리, 고려화랑) 개최
- 1978년 동양화 교습서 『수묵담채화법: Ungno Lee, L'art de Peindre à l'encre de Chine』, Sarl Koryo (프  
랑스, 파리) 발행
- 1980년 《떡과 흙, 서예적 행위》(프랑스 파리, 고려화랑) 개최
- 1982년 《개인전》(프랑스 파리, BIMC 갤러리/ 파리, 살롱 콩파레중/ 파리, 그랑팔레) 개최
- 1984년 《개인전, 군상-기호1974~1984》(스위스 리쇼드 폰, 중앙문화클럽 44) 개최
- 1985년 순회전 《이응노-박인경》(일본 요코하마, 가나가와현립 현민갤러리 / 도쿄, 산요갤러리(さんよう))  
이응노, 박인경, 도미야마 다에코(富山妙子) 대담집, 『이응노-서울·파리·도쿄: 그림과 민  
족에 대한 사색』(일본 도쿄, 기록사) 출간
- 1986년 고암을 주제로 한 영화 <우리나라·(ウリナラ)> 제작  
《인인전 人人展》(일본 도쿄, 동경도 미술관(東京都美術館)) 초대 출품
- 1987년 《기호와 문자》(프랑스 파리, Galerie Arnou)에 작품 출품  
《20세기 세브르 도자기》(프랑스 세브르, 국립도자박물관)에 작품 출품
- 1988년 동양화 교습서 『수묵화의 예술(L'art de Peindre à l'encre de Chine)』 출판  
《개인전》(미국 LA, Simmonson Gallery) / 《1950~1980 회고전》(미국 뉴욕, Bruno Facchetti Gallery)
- 1989년 1월 10일, 서울 호암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열리고 있을 때 파리 보인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작고



## 이봉영 (李鳳榮, 1905~1962)

이봉영은 충청남도 아산 출생으로, 경성공립고등보통학교를 나왔으며, 1929년 일본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했다. 동경미술학교 재학 중인 1930년 동문들이 결성했던 《제1회 동미전》에 참여했다.<sup>1</sup> 이후 1937년 6월, 18인의 동인이 참여해 화신백화점에서 개최되었던 목시회(牧時會, 전 목일회) 전시에 〈풍경〉을 출품하기도 했다.<sup>2</sup>

골동품 수집에 관심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6·25 전쟁 때 폭격으로 자료 대부분이 소실되어 이봉영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sup>3</sup>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997년에 개최한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유화》에 이봉영의 1934년 작품인 〈정물〉과 그의 동경미술학교 졸업 작품 〈자화상〉이 전시되었다. 1934년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하면서 제출한 〈자화상〉에는 차분한 필치로 그린 교복을 입은 옆모습이 담겨있다.<sup>4</sup>



이봉영, 〈자화상〉, 1934, 60.6×45.5cm, 동경예술대학 미술관(출처: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유화』, 삶과꿈, 1997)

### 연보

- 1905년 충청남도 아산 출생
- 1929년 동경미술학교 입학
- 1930년 《제1회 동미전》에 참가
- 1934년 동경미술학교 졸업
- 1937년 목시회(牧時會, 전 목일회) 전시에 〈풍경〉 출품
- 1962년 작고

1 「第一回東美展合評記(上)」, 『中外日報』(1930. 4. 20).

2 「牧時會展 画新 『홀』에서」, 『每日申報』(1937. 6. 1).

3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유화』(삶과꿈, 1997), p. 361.

4 홍성미, 「동경미술학교 조선인 유학생 연구-1909년~1945년 서양화와 졸업생을 중심으로」(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p. 106.

## 이순석 (李順石, 1905~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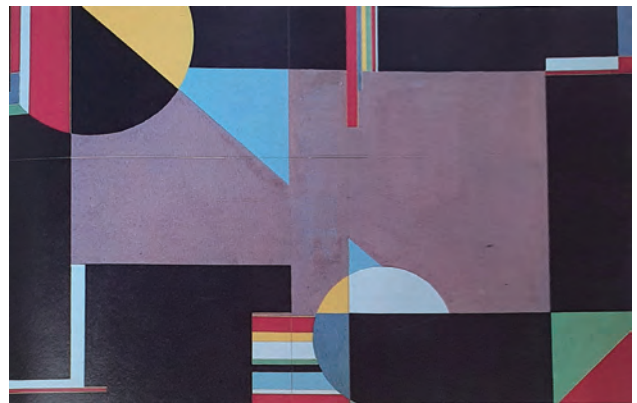
호는 하라(賀羅). 1905년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에서 출생했다. 이순석은 13세 되던 해 서울로 올라와 용산 성심신학교 초등과를 3년 다닌 후 동대문 상업학교(현 동성고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에 다니면서 교회동이 운영하던 서화협회에서 서양화를 배웠다.

졸업 후 독일인 신부 안드레아 에카르트(Andrea Eckart, 1884~1974)의 도움으로 독일 베네딕도회에서 운영하는 원산의 해성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독일 유학을 준비하였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유학지를 일본으로 변경하고, 1925년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하였다.<sup>1</sup>

양화를 배우고자 했던 이순석이 도안과로 전공을 바꾼 것은 “한국은 예로부터 공예가 발달한 나라이므로 도안과에 들어가 공예미술이나 상업미술을 배워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일본인 화가 단우(丹羽)의 조언과 공예를 중시하는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sup>2</sup> 도안 선구자인 임숙재 보다 3년 뒤인 1931년 일본 우에노미술학교(현 동경예술대학 미술학부) 도안과를 졸업하였다. 졸업 작품 <장정 각종도안(裝幀各種圖案)>에 선보인 책의 제목이 ‘인생학(人生學)’, ‘하라시집(賀羅詩集)’, ‘도덕정의(道德正義)’, ‘촌락(村落)’ 등으로 작가 자신이 평생 추구하는 주제들이 모두 담겨있다.

귀국 직후인 1931년, 도쿄유학시절 제작한 도안들을 갖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동아일보사 강당에서 《제1회 공예도안 개인전》을 열었다. 화신백화점 디자이너로 광고와 선전미술을 담당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나, 화신백화점 일을 그만두고 1930년대 지식인들의 집합소인 카페 ‘낙랑파라(樂浪 parlour)’를 약 3년간 경영하였다. 이후 해방 전까지 도안가로서 공식적인 행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제강점기에서도 개인 아틀리에를 갖고 공예연구와 작품을 제작하였으나 한국전쟁 때 작품이 모두 유실되었다.

이순석은 1946년부터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도안과 교수로 재



이순석, <포장도안 무제>, 1931(출처: 『하라(賀羅) 이순석 石美展』, 푸른동산, 1973)

1 입학 동기로 서양화과에 오지호, 김용준, 소조부에 김두일, 도화시범과에 선우담이 있었다.

2 이순석, 「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하라 이순석 작품집』(서울대학교미술대학 응용미술과 동문회, 1993) p. 192; 구경화, 「이순석의 생애와 작품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 8~9.



이순석, <성수기를 겸한 심자기>, 1969, 돌, 15×14×31.5cm, <국제공예전 출품작>(출처: 『하라(賀羅) 이순석 石美展』, 푸른동산, 1973)

직하면서 교육자이자 행정가로 바쁜 일정으로 인해 개인전을 단 두 번 열었다. 작품 소재로 한국 전통 민화에 등장하는 십장생이나 사슴을 즐겨 다루었으며, 1950년대는 《제3회 국전》에 출품한 <쌍오리함>(1954)처럼 주로 목공예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1949년 공개된 공군모표 및 계급장 디자인과 1953년부터 착용된 대법원 법복과 법모, 휘장, 1963년 만든 국가재건최고회의 휘장이 모두 이순석의 작품이다.

이순석은 1960년대 후반부터는 분수대, 석상 등 석(石) 공예에 몰두했다. 석공예에 빠진 배경에 대해서 천성적으로 돌을 좋아했으며, 돌의 굳건한 의지와 영원함, 그 침묵에 이끌려 작업하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sup>3</sup> 1965년 환갑기념으로 열린 《제3회 개인전》에서 석공예 작품 30여점을 비롯해 목공예, 도자공예, 금속 공예 작품 20여점 등 다양한 종류의 공예

작품을 선보였다.<sup>4</sup>

이순석은 1966년 수출 진흥책의 일환으로 수출용 공산품의 디자인 개선과 우수한 디자인 발굴을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상공미술전람회》를 개최하는 한편, 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연구소의 설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1970년 서울대학교를 정년퇴임한 후에는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sup>5</sup> 충석정, 유관순상, 석등 등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했으며, 1974년 대한민국 예술원 미술분과 회원이 된 이후 대작들을 많이 완성했다. 1983년 자신의 호를 빌려 '하라 석미술원'을 만들어 석미술 전통의 계승, 기술 개발, 석조 기능인의 육성 등 석조미술의 발전을 위해 힘썼으나 건강 악화로 관리가 어려워지자 1년여 만에 정리하였다.

1986년 작고 후 7년만인 1993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동문회에서 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졸업 작품을 비롯한 약 100여점의 작품과 이순석에 관한 글을 모아 『하라 이순석 작품집』을 출판하였다. 이순석은 공예의 본질인 아름다움과 쓸모를 충실하게 작품에 담은 공예가로 평가받고 있다.

## 연보

- 1905년 충청남도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에서 9남매 중 막내로 출생
- 1922년 서화협회에 입회하여 교회동 화실에서 서양화를 공부

3 9남매의 막내인 이순석의 본명은 평래(平來)이나 호적에는 아명인 순돌을 한자로 옮긴 순석으로 올렸다. 이순석은 '順石'을 돌을 순하고 아름답게 다듬는 석수장이를 의미한다고 말하며 어릴 때부터 돌을 다룰 운명이었다고 회고하였다. 구경화, 앞의 논문, pp. 6~7.

4 구경화, 위의 논문, p. 22.

5 구경화, 위의 논문, pp. 27~31.

- 1924년 남대문 상업학교(현 동성고등학교) 졸업
- 1931년 일본 우에노미술학교(현 동경예술대학 미술학부) 도안과 졸업, 졸업작품 〈장정 각종도안(裝幀各種圖案)〉 제작  
《제1회 공예도안 개인전》(서울, 동아일보사 강당) 개최
- 1945년 화신백화점 광고부 주임으로 근무
- 1946년 미군정 문교부 예술과 고문으로 위촉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도안과 부교수로 부임
- 1949년 《제1회 국전》 공예부 추천작가  
《제2회 이순석 도안》(서울, 동화화랑) 개최  
공군 모표 및 계급장 디자인
- 1952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복직  
서울 '한국의 집'에 대리석 분수 〈희락〉 제작
- 1953년 《제2회 국전》 추천작가로 〈장생도〉 출품 / 대법원 법복, 법모, 휘장 디자인
- 1954년 《제3회 국전》에 〈쌍오리함〉 출품
- 1955년 《제4회 국전》 초대작가로 〈수반〉 출품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 서울 공군본부에 〈독수리〉 제작
- 1956년 육군사관학교에 〈화랑모뉴먼트〉 제작
- 1956~1972년 《국전》 심사위원 역임
- 1957년 《벨기에 만국박람회 출품작 귀국전》에 출품
-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휘장 디자인  
문화훈장 대통령상 수상 / 최고회의의장 표창장 수상
- 1964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회 세계공예가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
- 1966~1970년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심사위원장 역임
- 1969년 《국제공예전》(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출품  
《제1회 대한민국예술대상》전에서 대통령상 수상 /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 취임
- 1970년 서울대학교 정년퇴임 / 한국 수출디자인센터 이사장  
《제4회 하라 이순석 현대석공예전》(서울, 한국수출디자인센터) 개최
- 1971년 서울가톨릭미술가협회장 역임
- 1973년 《제6회 석미전》(서울, 태릉 푸른동산) 개최
- 1974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미술분과)으로 추천됨
- 1975년 대한민국예술원상(미술부문) 수상
- 1976년 《제7·8회 석미전》(일본 도쿄, 미쓰고시 백화점 본점) 개최
- 1982년 《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3년 하라 석미술원 창설
- 1985년 《현대미술4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6년 《한국현대미술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작고

# 고봉주 (高鳳柱, 1906~1993)



고봉주, 〈방촌천지(方寸天地)〉, 종이에 먹, 인주, 123.5×35cm, 『미술관에 書』, 국립현대미술관, 2020

호는 석봉(石峯). 고봉주는 1906년 3월 23일 충청남도 예산에 서 고영서(高永瑞) 씨의 5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sup>1</sup> 7세가 되던 1912년부터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여 10세 때에 이미 한시를 지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으며,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15세에 예산공립보통학교를 입학하여 3년 만에 졸업하였다. 교육자가 되고 싶었던 고봉주는 사범학교에 진학했으나 재학 중 일본 교장 축출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학교에 쫓겨났다. 이후 19세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 길거리 행상을 하면서도 일본대학 사회학부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생활고로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인노동총동맹’을 결성하여 비밀리에 노동투쟁을 하고, 일본 전 지역을 순회하며 밀서연락책을 맡기도 하였다. 하지만 비밀활동이 발각되어 금고형을 선고받고 1년간 복역하는 고초를 겪었으며, 출옥 후 해방이 될 때까지 요시찰 인물로 감시를 받았다.<sup>2</sup>

1932년 일본 각지를 방랑하던 고봉주는 일본 현대 서도(書道)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다이 덴라이(比田井天來, 1872~1939)의 문하에 들어가 금석학과 전각에 매진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덴라이를 따라 귀국해 김돈희, 오세창, 이한복, 김용진, 고희동 등과 친교를 맺었다. 고봉주는 덴라이의 문하에 있으면서 당대 일본 최고 전각가인 가와이 센로(河井筌廬, 1871~1945)에게 직접 전각을 배웠다. 가와이는 중국에서 오창석(吳昌碩, 1844~1927)으로부터 전각과 금석학을 직접 사사 받은 인물로 가와이를 통해 오창석, 조지겸(趙之謙, 1829~1884), 제백석(齊白石, 1863~1957) 등의 작품을 접하며 고봉주는 자신의 예술세계를 심화시켜 나갔다.

1944년 39세에 귀국하여 1946년부터 4년간 충남 예산여자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1 이 외에 별호(別號)로 석봉(石樺), 팔도산인(八道山人), 호도인(壺道人), 보운선사(普雲仙史), 천선도암주(天仙道庵主), 탄심재(彈心齋), 석봉(石峯), 추부재(秋缶齋), 완부재(阮缶齋), 방부노인(仿缶老人), 석봉노부(石峯老夫), 노봉(老峯), 석로(石老), 남은옹(南隱翁), 설염옹(雪髯翁) 등이 있다.

2 권상호, 『방촌(方寸)위에 돌 꽃을 새겨내다』, 『미술관에 書, 한국근현대사예전』(국립현대미술관, 2020), pp. 151~152.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일본 지인의 초청으로 4개월간 일본에 머물며 전각 제작에 몰두하였다. 1965년 서울 국립중앙공보



고봉주, <추사선생학예술비(秋史先生學藝術碑)>, 1986,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소재

관에서 《제1회 고석봉전각서예전》을 개최하는 등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전각과 서예를 알리는 데에 힘썼다.<sup>3</sup> 일제강점기 일본에 거주하며 나라 잃은 설움을 이기고자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전각에 매진한 고봉주는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의 학문과 예술의 업적을 기리는 ‘추사학예술비(秋史學藝術碑)’ 제작에 전각가로 참여하였다.<sup>4</sup> 또한 1989년부터 199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예산향토작가초대전》에 참가하여 자신의 고향인 예산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자 힘썼다.

고봉주는 전국시대(戰國時代)나 한대(漢代)의 양식을 응용해 음각인(陰刻印)의 주변에 궤선(郢線)을 자주 새겨 넣었으며, 오창석과 가와이 센로를 배워 고아하면서도 중후하고, 질박하면서도 세련된 맛을 구현했다.<sup>5</sup> 전각에 대한 열정으로 약 2만과(顆)가 넘는 작품을 남긴 현대 전각의 개척자다. 작고 후 고봉주의 예술세계를 기리는 《석봉 고봉주 유작전》이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 연보

- 1906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23년 예산공립보통학교 졸업
- 1925년 일본대학 사회학부 입학 이후, 중퇴
- 1932년 히다이 텐라이(比田井天來) 문하에서 금석학과 전각 수학
- 1946~1950년 예산여자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65년 《제1회 고석봉 전각서예전(高石峯篆刻書藝展)》(서울, 중앙공보관) 개최
- 1975년 《한국전각협회전(韓國篆刻協會展)》 참여
- 1980년 《예산향토작가초대전》(예산, 友利전시실)에 출품<sup>6</sup>
- 1986년 <추사선생학예술비(秋史先生學藝術碑)> 제작에 전각가로 참여
- 1989~1993년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역임
- 1993년 충남 온양시 자택에서 작고

3 대성서예원 주최로 1965년 9월 7일부터 1주간 중앙공보관 제3화랑에서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는 고봉주씨가 30년동안 제작한 작품 충융(冲融) 등 서예 15점을 전시한다. 「석봉(石峯) 전각(篆刻) 서예전(書藝展)」, 『동아일보』(1965. 9. 4).

4 탄신 2백 주년을 맞아 추사고택 입구에 세운 비석으로 추사가 쓴 “書法有 長江萬里, 書執如 孤松一支(그림의 법도에는 장강 만리가 들어있고, 글씨의 기세는 외로운 소나무 한가지와 같네)”를 고봉주가 새겼다. 「추사학(秋史學)예술비 제막식(除幕式)」, 『경향신문』(1986. 7. 3).

5 권동철, 「석봉 고봉주···고매한 전각의 도혼(刀魂)」, 『데일리한국』(2020. 5. 12).

6 「향맥(鄉脈)고장 문화(文化)의 현장(現場)을 찾아 예산(禮山)」, 『경향신문』(1983. 2. 5).

## 우민형 (禹民亨, 1906~1978)

호는 금포(琴浦). 1906년 황해도 개성에서 정3품 벼슬을 지내던 우상훈(禹相勳)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넉넉한 가정형편 덕에 상경하여 경기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sup>1</sup> 이후 1930년, 와세다(早稻田)대학교 문과에 합격하면서 일본 유학길에 올랐지만, 가업(家業)을 이어받기 위해 중퇴하고 귀국하였다.<sup>2</sup>

우민형은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부터 꾸준히 그림을 배웠으며 일본에서도 붓을 놓지 않고 화업을 이어갔다. 그림에 대한 열정은 1953년 이동훈, 박성섭, 김기숙과 조직한 '충남미술협회'의 결성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를 확장시켜 지역 화단의 발전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sup>3</sup> 한국전쟁 이후, **대전에 정착**한 우민형은 보문중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였다.<sup>4</sup>

우민형은 사군자나 필획이 초초한 문인화풍의 산수화를 즐겨 그렸다. 그의 작품은 자연의 외양적 묘사보다도 작가의 심상에 내재되어 있는 시상을 산수로 담은 것이 특징으로, 시적 감수성을 묵필로 표출함으로써 시흥화취(詩興畫趣)의 기색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5</sup> 이러한 작가의 철학이 잘 담겨있는 작품으로 1961년에 제작한 <동학사 설경>은 문인화의 품격을 잘 보여준다.

우민형은 1970년 호수돈여고를 정년퇴임하기 전까지 《5·16혁명기념전》, 《충남예총개관기념 종합전》 등에 참가하며 초기 충남미술의 토대를 마련한 작가라 할 수 있다.

1 우민형의 출생과 해방 이전 작품활동에 관한 기록은 드물다. 그러나 1906년(고종43년) 4월 24일, 『승정원일기』(3194책)에 부친 우상훈에 대한 기록을 토대로 우민형의 집안에 대해 일부 확인하였다. <http://sjw.history.go.kr/id/SJW-K43040240-00300>

2 경기고등보통학교 졸업과 와세다대학 중퇴 이유 등은 작가의 유족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전화 인터뷰: 2021. 10. 14).

3 송미경, 「대전미술의 형성과 전개」,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15.

4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37.

5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16.



우민형, <동학사 설경>, 1961, 장지에 수묵, 65×125cm, 유족 소장

## 연보

- 1906년 황해도 개성에서 우상훈(禹相勛)의 장남으로 출생
- 1927년 경기고등보통학교 입학
- 1930년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문과 중퇴  
도쿄에서 동양화 습득 및 작품활동
- 1953년 '충남미술협회' 결성
- 1957~1970년 보문고등학교 교사,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재직
- 1960년 《제7회 충남미협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62년 《5·16혁명기념 미전》(충남공보관)
- 1963년 《한국미술협회충남지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5.16혁명 2주년 기념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67년 《충남예총화랑 개관기념 종합전》(대전, 충남예총화랑)에 작품 출품
- 1978년 작고



## 이마동(李馬銅, 1906~1981)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난 이마동은 1921년(15세)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해 고희동과 이한복에게 그림지도를 받았다. 1923년(17세) 고려미술원에서 서양화반 지도를 맡고 있던 이종우를 찾아가 데생과 유화기법의 기초를 쌓았고, 이후 휘문고보 4년생 때는 이종우가 중앙고등보통학교에 마련한 아틀리에에서 유화를 배웠다.<sup>1</sup> 1926년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동경으로 건너가 미술학교 입학의 목표로 1년간 미술연구소를 다녔다. 1927년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본과에 입학했다.<sup>2</sup> 당시 대부분 한국인 유학생들이 외국인 특별학생 전형으로 입학했지만, 이마동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본과에 입학했다.

동경미술학교 재학 중 1928년 《제7회 조선미전》에 〈봄〉으로 입선했으며, 1931년 동경에서 ‘백만양화회’를 조직했다.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1932년 이마동은 《제11회 조선미전》에서 〈남자(男)〉로 특선, 〈풍경〉으로 입선했다. 1933년에는 동아일보사 미술기자로 입사해 연재소설 삽화와 미술 관련 기사를 담당했다. 1934년 ‘목일회’ 창립에 동참했으며, 1936년 동아일보사를 사직하고 신의주공립상업학교와 신의주여자고등보통학교 미술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1938년 미술교사를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간 이마동은 화신화랑에서 유화 50점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 1939년부터 보성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했으며, 1945년 해방 이후 조선미술건설본부에 가입했다. 보성중학교 교감이 된 1949년 11월 열린 《제1회 국전》의 추천 작가로 〈한정추색〉, 〈가을의 북단〉을 출품했다. 이후 제26회 국전까지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으로 꾸준히 참여하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1958년 창립된 ‘목우회’에 참여했으며, ‘일요화가회’에도 참가했다.

이마동은 1939년부터 1961년까지 23년간 보성중학교의 미술 교사로 근무했으며, 196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후학을 양성했다. 1972년 월남전선 시찰 화가단으로 월남을 방문하기도 했다. 수상 이력으로 1963년 서울시 문화상(미술부문), 1972년 대한민국 은관 문화훈장, 1975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등을 받은 바 있다. 1978년 미국 시카고로 이주해 1981년 미국에서 작고했다.

이마동은 동경미술학교 재학시절 스승인 후지시마 다케지(藤島武二, 1867~1943)의 영향을 받아 사실적 자연주의에 기반을 둔 풍경화를 많이 제작했으며, 정물화와 인물화도 다수 제작

1 이경성, 『近代韓國美術家論攷』(일지사, 1974), p. 79.

2 이마동의 생애 관련 정보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상신, 「이마동회화연구-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절충성에 대하여」(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했다.<sup>3</sup> 이마동의 화풍은 1960년을 중심으로 전후로 나뉘는데, 1960년 이전 시기는 아카데미한 사실주의에 기반을 둔 정확한 데생력과 견실한 채색을 바탕으로 한 화풍을 구사했다. 1960년 이후 작품은 페인팅 나이프의 짧은 수직선들이 화면을 점진적으로 뒤덮는 일종의 인상파적 점묘법을 통한 화려한 색감을 보여주었다.

이마동의 전기 화풍을 대표하는 <남자> (1931)는 1920~1930년대 아카데미한 화풍의 화가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서있는 인물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동경미술학교 교육의 핵심이었던 세밀한 관찰에 의한 입체감과 삼차원의 표현, 그리고 인물의 사실적 묘사에 이마동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sup>4</sup> 이외에도



이마동, <남자>, 1931, 캔버스에 유채, 115×87cm, 국립현대미술관

이마동의 대표작으로는 1933년 작인 <꽃다발 있는 정물>, 1966년 작 <교회보이는 풍경>, 1968년 작 <흑석동 풍경> 등이 있다. 타계한 후 1997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유화》와 1999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중원미술의 향기》 등에 작품이 전시되었다.

## 연보

- 1906년 충청남도 아산 출생
- 1921년 상경, 휘문중학교 서양화과 입학
- 1927년 동경미술학교 입학
- 1928년 《제7회 조선미전》에서 <봄> 입선
- 1930년 《제1회 동미전》(동아일보사 전시장) 참가
- 1931년 《제2회 동미전》에 <나무>, <야방풍경> 출품, '백만양화회' 결성
- 1932년 동경미술학교 졸업  
《제11회 조선미전》에 <남자>로 특선, <풍경>은 입선  
《제3회 동미전》에 <봉순이>, <소녀상> 출품
- 1933년 《제12회 조선미전》에 <소나무>와 <봄> 입선, 7월 동아일보사에 입사
- 1934년 《제13회 조선미전》에 <꽃다발이 있는 정물>과 <독서> 입선

3 《낮익은 해후 : 충남 작가 초대전》(천안 아라리오갤러리, 2021) 전시 해설 참조.

4 김영나, 『20세기의 한국미술』(예경, 2001), pp. 39~41.

- 1936년 신의주공립상업학교와 신의주여자고등보통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 1937년 《목시회전》에 〈교정〉, 〈포구〉 출품
- 1938년 《개인전》(서울, 화신백화점 화랑) 개최
- 1939~1961년 보성중학교에 미술교사로 재직  
화신백화점 화랑에서 열렸던 9인전에 참여
- 1945년 조선미술건설본부 회원으로 참여
- 1949년 보성중고등학교 교감 부임  
《제1회 국전》에 추천 작가로 〈한정추색〉, 〈가을의 복단〉 출품
- 1949~1977년 제1회~제8회, 제10회~제16회, 제18회, 제22회~26회 국전에 참가
- 1953년 《제5회 대한미협전》(부산)  
《제1회 현대미술작가초대전》(부산)에 출품  
《제2회 국전》 서양화부 심사위원 역임
- 1957년 《개인전》(중앙공보관) 개최
- 1958년 ‘목우회’ 창립에 참여
- 1962년 《제4회 개인전》(서울, 국립도서관 화랑) 개최  
서울시문화위원회 위원에 임명
- 1963년 서울시 문화상(미술부문) 수상 / 홍익대학교 교수 부임
- 1965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장 취임
- 1968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장 취임  
《제6회 개인전》(서울, 신세계백화점 화랑) 개최
- 1970년 《제7회 개인전》(서울화랑) 개최
- 1970~1973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역임
- 1971년 홍익대학교 학장으로 정년퇴임
- 1972년 월남전선 시찰 화가단으로 월남 방문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개인전》(일본 고베, 원전화랑) 개최
- 1973년 《한국현역화가 100인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충남향우회 창립 20주년 《초대작가서화전》(서울, 코스모스화랑)에 출품
- 1974년 《아시아현대미술전》(일본 도쿄도미술관) 한국 대표로 일본 방문  
《개인전》(서울, 양지화랑) 개최
- 1975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 1977년 《개인전》(서울, 송원화랑) 개최
- 1978년 미국 시카고로 이주
- 1981년 10월 6일 시카고에서 작고

## 김기승(金基昇, 1909~2000)

호는 원곡(原谷). 김기승은 1909년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에서 경주 김씨 김정환의 차남으로 태어났다.<sup>1</sup>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한 김기승은 유년시절, 조부를 비롯한 어른들의 훈도로 다섯 살 때부터 천자문·소학·대학·논어·맹자·서전(書傳)과 당시(唐詩) 등의 고전을 익혔다. 12세에 홍산보통학교 2학년에 편입했으며, 월반을 통해 공주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다. 그러나 공주고등보통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일본인 체조교사를 배척하는 동맹휴학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여 4년을 수료하였다.<sup>2</sup>

1927년에 중국 만주의 봉천문화고급중학교(奉天文會高級中學校)를 졸업하고 상해(上海)의 중국공학대학(中國公學大學) 경제과에 입학하여 1932년 24세에 졸업을 했다. 이처럼 외국유학을 통해 신구(新舊) 학문을 익히는 한편, 김기승은 이 시기 안창호(安昌浩, 1878~1938)를 만나 홍사단에 가입했으며, 김구(金九, 1876~1949)가 이끄는 한국독립당에도 가입했다.<sup>3</sup>

1933년 중국에서 귀국 후 부여에서 형과 함께 신익선(辛翊善)을 사사했고, 1936년부터 1957년까지는 손재형 문하에 입문하여 본격적으로 서예를 학습했다. 1938년 ‘조선서도진흥회(朝鮮書道振興會)’가 주최한 《전국서도전(全國書道展)》에 입선하였으며, 해방 이후 개최된 1949년 《제1회 국전》 서예부에서 〈고시행서이폭(古詩行書二幅)〉으로 문교부장관상을 받았고, 휴전 이후 치러진 제2회에서 4회까지 《국전》에 〈해서칠언대련(楷書七言對聯)〉, 〈죽서오언대련(竹書五言對聯)〉, 〈전자칠언절구(篆字七言絶句)〉를 출품하며 특선과 함께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55년 후학의 발굴, 양성을 위해 대성서예원을 창설하였으며, 1978년에 원곡서예상(原谷書藝賞)을 제정해 서예 분야의 창작과 학술활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61년 《제10회 국전》의 취지문에서 “한국적 향기와 한국인의 체취를 풍기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온몸을 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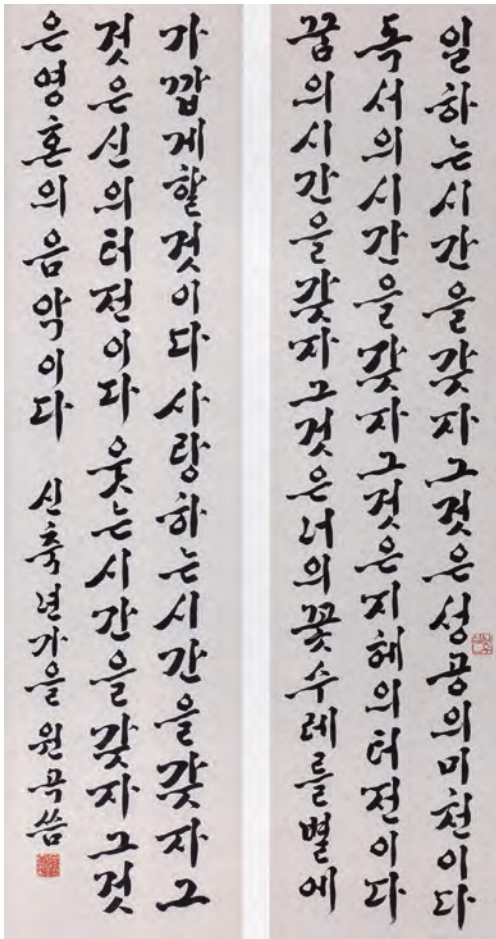


김기승, 〈묵영(墨影)〉, 1959, 종이에 먹, 43.5×67cm, 원곡문화재단 소장

1 『원곡 탄생 100주년 기념, 말씀대로』(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2009), p. 396.

2 공주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 일본인 교사를 배척하는 동맹휴학의 주동학생으로 지목되어 휘문고등보통학교로 전학하였다.

3 박병천, 「특유의 서풍을 창안하고 응용하다」, 『미술관에 흠, 한국근현대서예전』(국립현대미술관, 2020), p. 185.



김기승, 〈일하는 시간을 갖자〉, 1961, 종이에 먹, 137×34cm(2), 국립현대미술관

사하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서예의 경지를 어느 단계까지 끌어올리려고 정성을 다했다”라고 역설했듯이 김기승은 특정 형식이나 글자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문자를 내용보다 조형이나 필묵중심으로 해석한 ‘묵영(墨映)’을 발표해 서예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기승은 청묵(靑墨)의 번짐을 사용하거나 먹물의 농담을 이용해 시각적 효과를 부각시킨 묵영을 전위적이라 일컬으며, 전통적 서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sup>4</sup>

1970년대 초부터는 ‘소전풍’의 서체에서 벗어나고자 자신만의 서체 정립을 시도해 ‘원곡서체(原谷書體)’라는 한글 서체를 창작·개발하였다. 원곡체는 기운생동한 세로획과 아주 가늘게 물결치는 듯 표현한 가로획이 행서도 해서도 아닌 절충된 해행체(楷行體)로, 필력이 넘치고 물결치는 것 같은 유연성이 특징이다.<sup>5</sup> 1990년대 간판 글씨와 유명한 성경책 글씨가 모두 원곡서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다. 한글과 한자 서예체의 구분이 없는 원곡체의 서체

미는 〈애국가〉와 같은 한글-한자 혼용작품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주요 작품으로 〈독립선언서〉, 〈안창호선생비문〉, 〈유관순열사봉화탑〉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한국서예사(韓國書藝史)』, 『신고한국서예사(新稿韓國書藝史)』, 『원곡서문1·2집(原谷書文一·二集)』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선각(先覺)의 땅을 찾아」라는 글을 신문에 연재하며 잊혀진 민족문화의 발굴을 위해 힘썼다. 추사체 이후 유일한 우리 글씨체인 ‘원곡체’를 완성했으며 ‘밥 먹을 때도 글씨 사랑, 잠 잘 때도 글씨 사랑’을 가슴에 새길 정도로 글씨에 애착이 많았던 서예가로 유명하다.

4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김기승 강류석불전 묵영〉 설명 참조. <http://www.mmca.go.kr/collections/>

5 박병천, 앞의 글, p. 186.

## 연보

- 1909년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조현리에서 출생
- 1913~1919년 서당에서 한문, 한시 수학
- 1926년 휘문고등보통학교 4년 수료
- 1927년 중국 봉천문회고급중학 졸업
- 1929년 중국에서 흥사단 입단
- 1932년 중국 공학대학부 경제과 졸업
- 1933년 부여에서 신익선 선생에게 서예 사사
- 1934년 조선일보 군산지국장으로 부임
- 1938년 《전국서도전》 입선
- 1942년 《중국서화전》 입선
- 1946년 《전국서화전》 2등 수상
- 1949년 《제1회 국전》에 <고시행서이품(古詩行書二幅)>으로 문교부장관상 수상
- 1953년 《제2회 국전》에 <해서칠언대련(楷書七言對聯)>으로 무감사 특선, 문교부장관상 수상
- 1954년 《제3회 국전》에 <죽서오언대련(竹書五言對聯)>으로 특선
- 1955년 《제4회 국전》에 <진자칠언절구(篆字七言絕句)>으로 무감사 특선, 문교부장관상 수상  
대성서예원(大成書藝院)을 설립
- 1956~1982년 《국전》 추천 및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1958년 《원곡 서숙전(書塾展)》(서울, 공보관) 개최  
《원곡 서예전》(서울, 공보관) 개최
- 1967년 『한국서예사(韓國書藝史)』 저술
- 1969년 「선각(先覺)의 땅을 찾아」라는 주제로 『경향신문』에 총 10회 연재
- 1970년 《김기승 회고전(回顧展)》(서울, 공보관) 개최
- 1973년 충남향우회 창립 20주년 《초대작가서화전》(서울, 코스모스화랑)에 출품
- 1974~1981년 《국전》 서예부 운영위원
- 1975 · 1983년 『원곡서문집』 1, 2 출간
- 1976년 《한일서운교류전(韓日書芸交流展)》 개최(일본 동경/오사카/홋카이도)
- 1978년 원곡(原谷) 서예상 제정
- 1985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수훈
- 1993년 연세대학교 명예철학박사 수여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 수상
- 1995년 서울 정도 600년 기념 '자랑스런 서울 시민' 선정
- 2000년 작고

## 구종서 (具宗書, 1912~1988)



구종서, 〈풍경〉, 1931, 캔버스에 유채, 38.3×45.5cm, 국립현대미술관

구종서는 1912년 12월 18일 충청남도 공주의 평범한 집안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sup>1</sup> 공주 공립고등보통학교 5년생 때인 1931년 《조만중등미전》에 〈풍경〉을 출품해 입선하였고, 《제10회 조선미전》에서 〈조춘(早春)의 풍경〉으로 입선을 차지했다. 이것을 계기로 10살 연상인 송병돈과 함께 《제1회 공주회화회(公主繪畫會) 전》에 6점의 작품을 출품했다.<sup>2</sup>

1933년 일본의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해 1938년 졸업한 구종서는 졸업하던 해 《제1회 재동경미술협회전》

에 작품을 출품하기 시작해 1940년까지 연속해서 출품했다.<sup>3</sup> 1939년 《제2회 재동경미술협회전》에 〈화(花) A〉, 〈화(花) B〉, 〈인물〉 세 점을 출품했는데, 이때 윤희순으로부터 “자유화(自由畫)와 같은 순박한 느낌을 준다”는 평을 받았다.<sup>4</sup> 1940년 《제19회 조선미전》에서는 〈나룻배(渡船)〉로 입선했고, 해방 후 제국미술학교 동문 미술인들이 모여 열었던 《제3회 백우회(白友會)전》에도 참여했다.<sup>5</sup>

1938년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귀국 한 구종서는 이해 동덕고등여학교에 부임했고, 1945년까지 신의주 상업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했다.<sup>6</sup> 1945년 이후에는 충남으로 이주해 1980년까지 충남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오랜 기간 교장으로 있었다. 1952년 공주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했으며,<sup>7</sup> 1954년 부여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다.<sup>8</sup> 이외에도 공주중학교 교장, 도지원여자고등학교 교장, 강경여자중학 교장, 공주여자중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다.

1 한국근현대미술기록연구회 편저, 『제국미술학교와 조선인 유학생들』(눈빛, 2004), p. 99.

2 「公州繪畫會, 作品展出品」, 『朝鮮新聞』(1931. 11. 28).

3 「在東京美術學生綜合展」, 『每日申報』(1938. 4. 15).

4 윤희순, 「在東京美術協會 展覽會를 보고(下)」, 『每日申報』(1939. 4. 25).

5 한국근현대미술기록연구회 편저, 앞의 책, p. 100.

6 예가화랑 창립기념 《8인 원로작가초대전》(대전 예가화랑, 1986) 전시 자료 참조.

7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 직원록(1952년). [http://db.history.go.kr/id/jw\\_1952\\_3759\\_0010](http://db.history.go.kr/id/jw_1952_3759_0010)

8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101\\_20376](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101_20376)

구중서는 고등학생 시절인 1930년대 초반 충남지역에서 활동한 화가였지만 1940년대 이후 부터는 작품 활동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86년 대전 예가화랑의 창립기념 전시로 열렸던 《8인 원로작가초대전》에 초대되었던 것으로 보아 노년기까지 화업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타계한 후 1997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유화》에 1931년 작 〈풍경〉이 전시되었다.

## 연보

- 1912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공주 공립보통학교 졸업
- 1931년 《제10회 조선미전》에 〈조춘 풍경〉 입선  
《조만중등미전》에 〈풍경〉 입선  
《제1회 공주회화회 작품전》에 〈풍경〉, 〈정물〉, 〈조춘 풍경(早春의風景)〉, 〈화(花)〉, 〈소녀좌상〉, 〈가을의 연못가(秋の池畔)〉 출품
- 1933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 졸업  
‘백우회’ 창립에 참여
- 1938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 졸업  
《제1회 재동경미술협회전》(서울, 화신갤러리)에 〈소녀〉, 〈풍경〉 출품
- 1939년 《제2회 재동경미술협회전》에 〈화(花) A〉, 〈화(花) B〉, 〈인물〉 출품
- 1940년 《제19회 조선미전》에 〈나룻배(渡船)〉 입선  
《제3회 재동경미술협회전》에 〈여름의 아침〉, 〈조춘의 압록강〉, 〈풍경〉 출품
- 1945~1980년 충남도내 중고등학교 교장 역임
- 1952년 공주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 1954년 부여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 1986년 예가화랑 창립기념 《8인 원로작가초대전》(대전, 예가화랑)에 출품
- 1988년 작고



## 김두환(金斗煥, 1913~1994)

호는 월성(月城), 설봉(雪峰). 1913년 충청남도 예산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김두환은 1932년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畫學校)를 3년간 다니고, 1935년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미술공부를 시작했다. 제국미술학교 재학시절 화풍을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스승인 다카바다케 다츠시로(高島達四郎, 1895~1976)와 함께 그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나부>가 있다. 김두환이 입학하던 1935년부터 교수로 재직했던 다카바다케는 포비즘적 경향의 사실주의 화풍을 구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1</sup> <나부>에는 두텁게 칠한 검은 색 배경과 부분적으로 가한 갈색 터치가 다카바다케 화풍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sup>2</sup> 또한 무릎 위에 길게 늘어진 파랑색 타월과 살구빛 살갗이 대비를 이루는 1938년 작 <나부좌상>에서도 야수파적 기질이 엿보인다.



김두환, <아이들(子供2)>, 1939, 캔버스에 유채, 90.5×72.5cm, <제19회 조선미전> 입선작, 국립현대미술관

김두환은 일본에 유학하던 1930년대 후반 <재동경미술협회전>, <독립미술협회전>에 참여했으며,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조선미전에 연속 입선했다.<sup>3</sup> 1941년 <제28회 이과회(二科會)전>에 <정좌야 부인상(正坐也 婦人像)>으로 입선했고, 1943년 <제6회 재동경미술협회>에는 전시기간 동안 협회 회원들과 채관위문(彩管慰問)에 참가했다. 해방 후 열린 <백우회전>에 제5회를 제외하고 1회부터 8회까지 참여했다.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40년 서울 화신화랑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 김두환은 고향 예산에 돌아와 '김두환회화연구소'를 개설하고 향토예술을 탐구했다.<sup>4</sup> 이

- 1 전혜숙, 「제국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의 조선인 유학생들(1929~1945)-서양화과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1집(한국근대미술사학회, 2003), pp. 53~63.
- 2 신수경, 「김두환 — 생동감 넘치는 색채의 향연」, 『월성 김두환전』(진고원갤러리, 2009).
- 3 1940년 <제19회 조선미전>에는 '김환(金煥)'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子供2)>을, <제20회 조선미전>과 <제21회 조선미전>에는 '카네코 토간(金子斗煥)'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출품했다. 1942년에도 카네코 토간으로 <あまさん>을 출품했다.
- 4 이 화실은 '김두환회화연구소', '향토문화연구소', '김두환유화도장'이라는 세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백지홍, 「설봉 김두환, 근대미술사의 맞닿지 않은 퍼즐」, 『미술세계』 76(미술세계, 2018), p. 119.

곳은 작가의 개인 화실이자 향토문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공간이며, '서양화 교습소'였다. 제국미술학교 졸업 후 각종 전람회에 출품하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해방 이후 서울에서 교편생활을 하며 1948년 동화화랑 4층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목록을 보면 예산 화실에서 그린 〈목련〉, 〈백합〉처럼 꽃을 소재로 한 정물을 비롯해, 남대문·자하문·인왕산·덕수궁 등을 그린 풍경화와 스케치, 그리고 대천 앞바다에서 그린 작품들을 전시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6·25전쟁 기간 중군화가로 활동했던 김두환은 1952년부터 경동중학교에 재직하면서 두 병사가 젖먹이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의 머리에 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있는 모습을 담은 〈야전병원〉(1953)을 남겼다.<sup>5</sup>



김두환, 〈향원정(가을)〉, 1970, 캔버스에 유채, 80.3×116.8cm(출처: 『월성 김두환 展』, 진고원갤러리, 2009)

김두환은 미술 교사로 재직하면서 1960년부터 1980년까지 10여 차례 이상 개인전을 열었다. 경기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기 시작한 1960년 김두환은 경주를 방문해 많은 스케치를 했는데, 1960년 개최한 《제3회 김두환 개인전》에는 신라의 고도(古都)인 경주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석불〉(경주박물관에서 제작, 1959)·〈仁王像〉·〈立石佛〉(경주에서 제작, 1959) 등이 전시되었다.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자란 김두환은 이후에도 경주에서 소재를 취한 작품을 다수 제작했다.

1960~1970년대에는 향원정, 비원과 같은 고궁을 소재로 한 작품을 여러 점 제작했다. 고궁을 그린 대부분의 작가들이 정제된 필치로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담은 것과 달리 김두환의 〈향원정(가을)〉(1970)과 같이 비원을 그린 작품들은 화면 전체를 파랑색 계열로 밀칠을 한 후 짧은 터치로 물감을 여러 번 겹쳐 채색해 부드러운 색감과 점묘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여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뾰뾰이 점을 찍어나간 풍경화는 1960~1970년대에 김두환 작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김두환은 이러한 작품을 1975년 《회갑기념전》, 1978년 《정년퇴임 기념 개인전》 등에서 꾸준히 선보였다.

김두환 작품의 특징으로 감각적인 색채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교직에서 물러나 여행을 다니던 70세가 다 된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 동경 유학 시절 친분을 나누었던 박여일을 5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 도불(渡佛)을 기념한 전시를 열고,

5 〈야전병원〉은 1953년 작으로, 김두환이 1952년부터 경동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전 이후 교사생활을 하며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 당시 이 그림과 똑같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잡지에 실려 있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김두환이 직접 목격한 장면을 그린 것이라기보다는 사진을 이용해 민간인에게까지 미친 전쟁의 상처를 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의 각지를 여행하며 구아슈를 이용한 많은 풍경화를 제작했다.

김두환의 작품은 단순한 구성, 후기인상주의 또는 야수주의 경향의 강렬한 색채, 분방한 필치가 특징이다. 또한 일기 쓰듯이 날마다 그린 많은 자화상이 남아있으며, 불교적 소재, 풍경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다.

작고한 후 1995년 《한국의 누드미술 80년전》을 비롯해, 2007년과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소장품전》, 2008~2009년 《한국 근대미술 걸작전: 근대를 묻다》 등 다수의 전시에 작품이 전시되었다. 유작전으로 2009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월성 김두환전(月城 金斗煥展)》이 열렸으며, 2013년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예산군문화회관에서 《설봉 김두환 회향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에는 ‘설봉 김두환과 그의 예술세계’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함께 진행되었다. 2017년 모리스갤러리에서도 《설봉 김두환전(雪峰 金斗煥展)》이 개최되었다.

## 연보

- 1913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32년 양정고등보통학교 졸업
- 1932~1935년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畫學校)에서 수학
- 1935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 입학
- 1938년 《제1회 재동경미술협회전》에 〈풍경〉, 〈봄의 풍경〉 출품
- 1939년 《독립전》(일본 도쿄)에 출품
- 1940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졸업, 예산에 ‘김두환 회화연구소’ 개설  
《제3회 재동경미술협회전》에 〈여승〉·〈향수〉·〈자화상〉 출품  
《제19회 조선미전》에 〈아이들(子供2)〉 입선  
《제1회 개인전》(서울, 화신화랑) 개최
- 1941년 《제20회 조선미전》에 〈일하는 기쁨〉 입선  
《제28회 이과회(二科會)전》에 〈정좌야 부인상(正坐也 婦人像)〉으로 입선
- 1942년 《제21회 조선미전》에 〈어머니(あまさん)〉 입선
- 1943년 《제6회 재동경미술협회전》에 참여
- 1945년 《해방기념문화대축전 미술전람회》(서울, 덕수궁 석조전)에 〈인왕산〉 출품
- 1946년 예산농업중학교에서 교직생활 시작
- 1948년 《제2회 개인전》(서울, 화신백화점화랑) 개최
- 1949년 《제1회 국전》에 〈향원정〉 입선
- 1950년 6·25전쟁에 중군화가로 참전
- 1952년 경동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53년 《소품전》(서울, USIS화랑) 개최
- 1955년 《제5회 백우회전》(서울, 중앙공보관)에 출품

- 1960년 《제3회 김두환 개인전》(서울, 동화화랑) 개최
- 1961년 경기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62년 《국제자유미술전》(서울, 경복궁미술관)에 〈분황사〉 출품
- 1963년 《제6회 신기회전》(서울, 수도화랑)에 출품
- 1964년 《제5회 개인전》(서울, 신문회관) 개최
- 1964~1968년 《신기회전》(서울, 동화화랑 외) 참여
- 1965년 경북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69년 《개인유화소품전》(서울, 중앙공보관) 개최
- 1970년 《유화소품전》(서울, 삼보화랑) 개최  
《제7회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74년 《서울미술협회전》에 참여
- 1975년 《김두환회갑전》(서울, 미술회관)
- 1978년 《대한미술원전》 중앙상임 위원장, 서양화 심사위원장 역임  
제9회 개인전 《정년퇴임기념전》(서울, 에레칸트미술관) 개최
- 1979년 제10회 개인전 《수채화전》(서울, 에레칸트미술관) 개최
- 1980년 예총 충남지부 후원, 월간미술전시계사 협찬 도불(渡佛)기념 《김두환 화백전》(대전, 라이카  
여일미술관) 개최  
런던, 로마 등 8개국 여행
- 1993년 《개인전》(대전, 예전화랑) 개최
- 1994년 작고

## 한유동 (韓維東, 1913~2002)



한유동, 〈취(鷲)〉, 1930, 《제9회 조선미전》 입선작

호는 규당(葵塘). 1913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27년부터 김은호의 낙청헌에서 그림을 배웠고, 이후 일본 유학을 떠나 우에노(上野) 미술전문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제9회 조선미전》에 〈취(鷲)〉로 입선한 후 13회까지 각각 〈야당수원(野塘水暖)〉(1931), 〈군계(群鷄)〉(1932)와 같은 맹금류나 화조화를 출품해 연속 입선했고, 《서화협회전》에도 작품을 출품했다. 안석영이 《제13회 서화협회전》에 출품한 한유동의 〈화조〉

를 보고 “명량한 작품이다”며 “기교에 있어서 이만한 작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평했다.<sup>1</sup> 그러나 1934년 《제13회 조선미전》에 〈기직(機織)〉으로 입선한 후 한동안 출품하지 않다가 1941년 〈청어(靑魚)〉를 마지막으로 출품하였다.

이렇게 조선미전에는 초반에 활동한 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과 달리 1936년 김은호 문하생인 백윤문, 김기창, 장우성, 조중현, 이유태 등과 함께 ‘후소회(後素會)’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후 1회부터 5회까지 《후소회전》에 작품을 출품했고, 1996년 《후소회 창립 60주년 기념전》까지 꾸준히 후소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또한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 모색하기 위해 창립된 ‘백양회(白陽會)’의 회원으로 〈석류〉, 〈모란〉, 〈화향(花香)〉과 같은 화조화를 출품하였다.<sup>2</sup> 1958년에는 **충남 합덕중학교에 재직**하며 김화경 등 6명이 ‘녹청회(綠靑會)’를 조직하여 충남 미술 발전을 도모하였다.<sup>3</sup>

1977년 수도여자사범대학교 회화과 교수(현 세종대)로 부임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하였고,

1 「협전화첩」, 『동아일보』(1934. 10. 20); 석영(夕影), 「제13회 협전을 보고서」, 『조선일보』(1934. 10. 25).

2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유동의 《백양회전》 참가연도를 1958년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유동의 이름이 백양회 회원명부에 등록되었던 시점은 공식적으로 《백양회 7회 공모전》(1973)부터다. 조희성, 「한국 현대 수묵채색화단의 태동-백양회, 묵림회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07), pp. 85~86.

3 「문화계 소식-綠靑會 發足」, 『경향신문』(1958. 4. 9).

그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운 제자들은 1977년 《상림회(桑林會) 창립 회원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후 한유동은 《현대미술초대전》(1983)과 같은 단체전에 참여하거나, 개인전 등을 개최하였다.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한국화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연보

- 1913년 서울 출생
- 1929년 《제9회 서화협회전》에 〈오(午)〉 출품
- 1930년 《제9회 조선미전》에 〈취(驚)〉 입선
- 1931년 《제10회 조선미전》에 〈야당수원(野塘水暖)〉 입선
- 1932년 《제11회 조선미전》에 〈군계(群鷄)〉 입선
- 1934년 《제13회 조선미전》에 〈기직(機織)〉 입선  
《제13회 서화협회전》에 〈화조〉 출품
- 1936년 김기창, 백운문, 장우성, 이유태, 정홍거, 조중현, 한운봉과 ‘후소회(後素會)’ 결성  
《제1회 후소회전》(조선실업구락부)에 출품
- 1939년 《제2회 후소회전》(서울, 화신백화점화랑)에 〈황작(黃雀)〉 출품
- 1940년 《제3회 후소회전》(서울, 화신백화점화랑)에 〈앵무새(鸚鵡)〉 출품
- 1941년 《제20회 조선미전》에 〈청어(靑魚)〉 입선  
《제4회 후소회전》(서울, 화신백화점화랑)에 〈게(蟹)〉 출품
- 1942년 《제5회 후소회전》(서울, 총독부미술관에 〈꽃(花)〉 출품
- 1958년 김화경, 김성재, 정택은, 황진국, 허훈과 함께 ‘녹청회’ 발족  
충남 합덕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 1971년 《제8회 후소회전》(서울, 신세계백화점화랑)에 〈쟁〉, 〈꽃〉 출품
- 1973~1978년 《백양회 회원전》(서울, 미술회관) 참여
- 1977~1979년 수도여자사범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
- 1979년 《동양화실경산수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5·1987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6년 《개인전》(서울, 롯데화랑) 개최
- 1992년 《원로작가회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3년 《전관개관 기념 현대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6년 《후소회 창립 60주년 기념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7년 《제24회 후소회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 2002년 작고

## 조병호 (趙柄鎬, 1914~2005)

호는 정향(靜香). 1914년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에서 태어난 조병호는 대한민국의 서예가이자 한학자인 조부 조충현(趙忠顯)에게 가학(家學)을 전수받았다.<sup>1</sup> 6세 때 한학 공부를 시작했으며, 1933년 '시서화사(詩書畫社)'에 입문하여 민형식과 오세창의 문하에서 한학과 금석학을 배웠다.<sup>2</sup> 1951년 고향 청양군 정산면에 정산고등공민학교(현, 정산중학교)를 세워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을 가르쳤다. 1956년 흐트러진 민족혼과 국혼을 바로잡기 위해 사재를 털어 고향인 청야군 정산에 단제묘(壇帝廟)를 창건했는데 이후 계룡시 신도안으로 확장하였다.<sup>3</sup>

1939년 《제1회 조선서도전(朝鮮書道展)》에 입선하였으며, 1940년 중국·만주국·일본으로 구성된 3국 합동서예전인 《흥아서도전(興亞書道展)》에서 작문과 서예로 입선하였다. 또한 금석학에도 관심이 많아 중국 금문에 나타나는 다양한 서체를 연구하였으며, '중국서법학회'의 초청으로 중국 고궁박물관과 역사박물관에서 전시를 하였다. 두 박물관에 작품이 소장된 유일한 서예가이다.

조병호는 전서, 예서 8분체, 중국 서체에 두루 능통했으나 '일본이 주최하는 공모전에 출품했다'는 비난을 받고 난 뒤로부터 공모전과 거리를 두었다.<sup>4</sup> 따라서 공모전을 통해 등단하려는 서예가들이 조병호 문하에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으로 후학을 양성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공주대학교 강사를 지내며, 대전에서 후학들에게 한문과 서예를 가르치며 충남문화 발전에 이바지하였다.<sup>5</sup>

조병호의 제자로는 임형수와 손자인 조득상이 있고, 성공회대 교수 신영복(申榮福, 1941~2016) 역시 조병호의 제자이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학과 서예를 가르치던중 당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신영복을 만나게 되었다. 신영복은 "교도소 당국의 초대로 조병호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국이 적극적이지 않을 때에도 매주 한 번씩 6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찾아왔다"고 회고하였다.<sup>6</sup>

조병호는 종로구 인사동 고서적상에서 입수한 추사 김정희의 자필문집인 『완당집』 초고 일

1 황효순, 「대전 서예·문인화의 선구자들」, 『대전문화』27(2018), p. 106.

2 조병호의 출생은 1913년 혹은 1914년으로 전해졌으나 조병호 선생 생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1914년 4월 27일 정산면 덕성리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음이 밝혀졌다. 「내 고향은 청양-원로 서예가 조병호 선생」, 『청양신문』(1991. 1. 1); 신영복의 저서에도 조병호의 약력이 기록되어 있다. 신영복, 『넋몰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돌베개, 2017).

3 1984년 군사시설이 들어서는 바람에 이전하여 현재는 대전시 정림동에 자리하고 있다.

4 1939년 조병호의 입선 기록에 대해서는 《선전》으로 보는 경향과 《조선서도전(朝鮮書道展)》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1939년 《선전》에서 입선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조병호가 비난을 받았던 전시회는 《조선서도전》으로 추측된다.

5 「정향 조병호 서예전」, 『동아일보』(1981. 11. 20).

6 신영복, 『감옥으로부터의 사색』(햇빛출판사, 1988), pp. 268~269.



조병호, 〈춘풍추월〉, 1997, 종이에 먹, 34x204cm, 대전시립미술관

부(원본)와 제주도 유배시절 김정희가 육촌에게 보낸 서찰 등을 모아 추사의 필법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후 1993년 ‘21세기를 지향하는 대전대학 발전기금 조성위원회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민족의 얼을 드높이는 교육을 위해’ 평생을 모은 고서 1천여 권과 전 재산을 후학을 위해 대전대학교에 기증하였고, 대전시로부터 대전시민문화상을 수여받았다.<sup>7</sup>

## 연보

- 1914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
- 1919년 위창 오세창과 우하 민형식에게 한학 및 금석학 수학
- 1939년 《조선서도전(朝鮮書道展)》서예부분 입선
- 1940년 《흥아서도전(興亞書道展)》에 작문과 서예로 입선
- 1951년 청양군 정산면 정산고등공민학교(현, 정산중학교) 건립
- 1956년 충남 청양군 정산에 단제묘 창건
- 1974년 《한·중 공동 서예전》(대만고궁박물관)에 출품
- 1979년 중국서법학회 초청 전시(중국 고궁박물관)
- 1981년 《정향 조병호 서예전》(서울, 미도파화랑) 개최
- 1992년 중국서법학회 초청 전시(중국 역사박물관)
- 1993년 대전대학교에 고서 1천여 권과 전 재산을 기증  
대전시민문화상 수상
- 2005년 작고

7 김세영, 「원로 한학자 조병호翁 전재산 대전대에 기증」, 『조선일보』(1993. 6. 5).



# 박상옥(朴尙玉, 1915~1968)

1915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난 박상옥은 1923년 충남 삼흥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학년을 수료한 후 2년간 휴학했다가 1927년 서울 정동(貞洞)보통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다.<sup>1</sup> 정동보통학교 6학년 재학 중 『매일신보』에서 주최한 ‘전조선아동생도(全朝鮮兒童生徒) 대상 미술대회’에서 입선했다. 1930년 정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현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 김주경에게 그림을 배웠고, 경성제일고보 재학시절 미술부, 운동부 등 교내 각종 서클에서 활동했다. 1934년(19세) 동아일보사 주최 《전조선학생작품전》에 〈정물 습작〉이 입선되었는데 “역작이다. 재료의 질에 대한 묘사에 좀 용의(用意)하였으면 좋겠다”는 평을 받았다.<sup>2</sup> 이듬해인 1935년에도 《전조선학생작품전》에서 〈한강의 일우(一隅)〉 등 세 작품이 입선되었으며,<sup>3</sup> 다음해인 1936년 《제15회 조선미전》에서 〈정물〉, 1939년 《제18회 조선미전》에는 〈인물습작〉과 공예도안 〈꽃(花)〉이 입선되었다. 이후 22회(1943)까지 연속해서 입선했다.

1939년 일본으로 떠나 1940년 제국미술학교에 입학해 본격적인 미술수업을 받았다. 제국미술학교 재학시절 《이과전(二科展)》에 참여했는데 《제28회 이과전》에 〈유동(遊童)〉을 출품한 이래, 제29회에는 〈한정(閑庭)〉, 30회는 〈군동(群童)〉(1941)을 출품했다. 1942년 일본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대구사범학교에 부임했으며, 이듬해 《경북미술전람회》에서 〈건아〉로 도지사상을 받았다.

1945년 주경 등 32인과 조선건국위원회 경북미술대를 조직, 창립선언문을 발표하고 해방기념전을 개최했다. 해방이 되자마자 3일만에 조직된 조선미술건설본부 회원으로 가입했다. 1946년 조선미술협회에서 탈퇴한 김주경, 오지호, 정규, 박영선, 이인성 등이 젊은 미술가들과 조직한 조선미술가동맹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11월 박상옥은 윤희순, 정현웅 등과 함께 조선미술동맹의 발족에 참여했다. 1946년부터 서울 성남중학교를 비롯해, 휘문중학교, 경기공립중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49년 대원화랑에서 열린 《유화신작

1 박상옥은 서울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학생작품전’에 입상한 박상옥에 대한 기사가 실린 『동아일보』 1935년 10월 3일자 기록에 따르면, “군은 충남 청양(靑陽) 태생으로서 보통학교는 경성의 정동공립보통학교를 마치고 제일고보에 드려갔다 합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충남 태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작품전 입선자 방문기: 중등도화(상) 졸업 후에는 의학교에-제일고보 오년 박상옥(십구)」, 『동아일보』(1935. 10.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도 박상옥은 서울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5773&cid=46660&categoryId=46660>. 이는 본적지가 ‘경성부 인의정 130’이기 때문에 일어난 착오로 보인다.

2 배찬국, 「학생전을 보고-중학도화부를 중심으로」, 『동아일보』(1934. 10. 4).

3 이 기사에는 “모다 세 번 출품을 하여 이번의 입상을 비롯하여 두 번의 입선을 하였다고 합니다. 체모가 건장한 군은 울에 열아홉이라고는 도모지 보이지 안홀만치 노성해 보였습니다. 이번 입상에 감상이 어떠냐고 하니 “저는 본대 출품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의 김 도화선생께서 출품해보라는 말씀에 한 것인데 입상이 되어 펍 기쁩니다”하며 웃었습니다. 장래에 미술학교에 갈 생각은 없느냐 하니 그는 “가고는 싶지만 집에서는 의학을 공부하라 하여서 그대로 하는 수밖에는 어겠지요”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앞의 기사, 『동아일보』(1935. 10. 3).

전》에 배운성, 김환기, 장욱진 등과 함께 참여했다.<sup>4</sup>

한국전쟁 발발 후 1951년 1·4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해 중군 화가로 활동했으며, 1953년 《제2회 국전》에서 〈소와 목동〉으로 특선을 차지했다. 1954년에는 《제3회 국전》에 〈한일(閑日)〉로 대통령상 겸 예술원상을 수상한 이후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으로 활동했고, 1958년 설립된 구상화가들의 모임인 ‘목우회(木友會)’의 창립회원으로도 활동했다.



박상옥, 〈한일(閑日)〉, 1954년, 캔버스에 유채, 112×193cm, 《제3회 국전》 대통령상 수상작

1955년 「현대미술의 지향정신」이라는 평론을 『동아일보』에 게재해 자신의 미학을 피력했으며,<sup>5</sup> 1959년 12월 5일부터 동화화랑에서 8일간 〈시장〉을 비롯한 42점의 작품으로 《박상옥개인전》을 열었다.<sup>6</sup> 1960년 활발한 창작활동과 미술계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녹조소성훈장을 받았고, 1961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후학을 양성했다.

박상옥은 사실적 자연주의 계열의 작가로, 향토적인 색채가 짙은 정경과 풍물을 즐겨 다루었다. 이러한 박상옥의 화풍은 소재와 색채, 화면구성 등 이인성의 1930년대 전성기 화풍과 유사한 점이 많다. 박상옥은 1968년 5월 17일, 53세에 당뇨병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작고한 이듬해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주최로 《유작전》(신문회관화랑)을 열어 박상옥의 작품세계를 조명했으며, 1978년에는 《10주기 기념 회고전》이 문화화랑에서 열렸다. 1984년 《송병돈·박상옥·박수근 특별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렸고, 1987년에도 중앙일보사 주최로 《朴尙玉 유작전》이 호암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sup>7</sup>

## 연보

- 1915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
- 1930년 『매일신보』 주최 ‘전조선아동생도(全朝鮮兒童生徒) 대상 미술대회’에서 입선
- 1934년 동아일보사 주최 《전조선학생작품전》에 〈정물습작〉 입선,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주최 《제6회 선만중등학교 미전》에 유화 〈여름날(夏日)〉 입선

4 「大元畫廊에서 油畫新作展」, 『민주중보』(1949. 4. 30).

5 「現代美術의 志向精神」(上)·(下), 『동아일보』(1955. 1. 7·1. 8).

6 「朴尙玉 個人展」, 『동아일보』(1959. 12. 9).

7 박상옥의 연보는 한국근현대미술기록연구회 편저, 『제국미술학교와 조선인 유학생들』(눈빛, 2004), pp. 136~139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1935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5학년 재학 중 《제14회 조선미전》에 〈풍경〉 입선  
 동아일보사 주최 제6회 《전조선학생작품전》에 〈한강의 일우(一隅)〉, 〈담일(曇日)〉, 〈탁상정물(桌上靜物)〉 입선
- 1936년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졸업, 《제15회 조선미전》에 〈정물〉 입선  
 《전조선남녀학생작품전람회》에 〈교회당이 보이는 풍경〉 입선
- 1937년      전주사범학교 강습과 수료, 경기도 파주 봉일천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
- 1939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입학  
 《제18회 조선미전》에 〈인물습작〉과 공예도안 〈꽃(花)〉 입선
- 1939~1941년   제28회~제30회 《이과전(二科展)》에 출품
- 1940년      《재동경미술협회전》(충독부미술관)에 출품  
 《제19회 조선미전》에 공예도안 〈축제의 춤〉 입선
- 1941년      《제20회 조선미전》에 〈뒤뜰〉 입선
- 1942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사범과 졸업 후 귀국, 대구사범학교에 부임  
 《제21회 조선미전》에 〈성문(城門)〉 입선
- 1943년      《경북미술전람회》에서 〈건아〉로 특선, 경북도지사상 수상  
 《제22회 조선미전》에 〈閑境〉 입선  
 《제6회 재동경미술협회전》(충독부미술관)에 〈好日〉, 〈初秋〉 출품
- 1945년      조선미술건설본부 회원으로 참여
- 1946년      서울성남중학교 교사, 조선미술가동맹, 조선미술동맹 가입
- 1947년      휘문중학교 교원 및 이화여대 미술학부 강사
- 1949년      경기중립학교 교사 / 《油畫新作展》(대원화랑)에 참여
- 1952년      《3·1절기념 미전》(부산, 금잔디다방)에 〈노우(怒牛)〉 출품
- 1953년      경기중고등학교 교사 / 《제2회 국전》에서 〈소와 목동〉이 특선
- 1954년      《제3회 국전》에서 〈한일(閑日)〉 특선, 예술원상과 대통령상 수상
- 1955년      제4회 국전 초대작가로 〈양지〉와 〈6월〉 출품  
 『동아일보』(1955. 1. 7·1. 8)에 미술평론 「현대미술의 지향정신」 게재
- 1956년      《제5회 국전》에 〈계림(鷄林)〉, 〈훈풍(薰風)〉 출품
- 1957년      《제6회 국전》 심사위원으로 〈서울의 아침〉, 〈시장소견〉 출품
- 1958년      《제7회 국전》 초대작가로 〈그늘〉, 〈향로봉〉 출품
- 1959년      《박상옥개인전》(동화화랑) / 《제8회 국전》 초대작가로 〈한강소견 A·B〉 출품
- 1960년      목우회 사무국장으로 선임, 녹조소성 훈장 수훈  
 《제9회 국전》 초대작가로 〈서울시 전망〉 출품
- 1961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취임 / 《제10회 국전》 심사위원으로 〈산〉 출품
- 1966년      개인전(서울, 신세계화랑) 개최
- 1967년      민족기록화 〈혁명군 한강도하〉 제작
- 1968년      5월 17일 당뇨병으로 작고

## 박여일 (朴如一, 1915~1992)

박여일은 1915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 제일보통학교를 다녔고 4학년 때 일본 '전국아동미술대회'에서 입상한 것을 계기로 15세에 일본으로 건너갔다.<sup>1</sup> 일본 태평양미술학교에 남관과 동기생으로 입학해 교분을 쌓았고 1940년경 졸업했다. 한국전쟁 때 중군사진기자로 활동했던 박여일은 1951년 지역 최초 사진 동호회인 '충남사진연우회'에 동참해 대전·충남 지역 사진예술의 도입에 기여했다.<sup>2</sup> 1955년 《전국사진연합전》에서 특선과 입선을 했으며, 1956년에는 중도일보사에서 사진부장을 지냈다.

1959년 사진동호회인 '다-겔 동인회'를 창설했고 1961년 일본 《국제사진전》에 〈혈연(血緣)〉을 출품해 입상했다. 1962년에는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던 《제7회 국제전》에서 〈파이프〉로 입상했고, 포르투갈에서 열렸던 《국제전》에서는 〈보릿고개〉로 금상을 수상했다. 1962년부터 1963년까지 '한국 사진협회(寫眞協會)' 충남지부 초대지부장을 맡아 사진 조직을 일구어 나갔다. 1963년 대전문화원에서 열린 《5·16혁명 2주년 기념 연합전》에 참여했으며, 1964년 《제13회 국전》에 사진 〈엄마 왜 울어?〉를 출품했다. 수석(水石) 수집에도 심취해 1968년 '한국 수석회(水石會)'를 설립했으며, '한국 명석회(名石會)'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1980년 대전시 중구 은행동에 여일미술관을 개관해 남관, 이종무, 장리석 등 원로작가 초대



박여일, 〈혈연(血緣)〉, 1961, 《국제사진전》 입선작(출처: 『청산여일』, 여일미술관, 1991)



박여일, 〈보릿고개〉, 1962, 《국제전》(포르투갈) 금상 수상작(출처: 『청산여일』, 여일미술관, 1991)

1 박여일의 생애 관련 정보는 다음의 도록을 참조했다. 박여일, 『靑山如一』(여일미술관, 1991).

2 「기획시리즈 人脈(28)-지역사진작가」, 『중도일보』(1998. 5. 7).

전을 꾸준히 개최하며 대전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다.<sup>3</sup> 또한 중앙예총이사, 한국미술문화대상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아시바미술문화중앙위원, 한국미술문화대상전 초대작가, 5월 문화상·충남도문화상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sup>4</sup>

박여일은 회화 작품의 재료로 보약재인 녹용과 녹각은 물론이고, 장식용품으로 사용하는 값비싼 옥석과 진주, 심지어 백 년 이상 지난 양주 등을 섞어서 화포에 뿌리고 문질러서 작업하기도 했다. 작고 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한발미술의 여정Ⅱ-이동훈과 대전화단》 전시에 유족 소장품의 사진 〈무심〉과 〈조리개를 통한 세상〉이 전시되었다.

## 연보

- 1915년 대전 출생
- 1940년경 일본 태평양미술학교 졸업
- 1951년 사진 동호회 ‘충남사진연구회’ 참여
- 1955년 《전국사진연합전》 특선 및 입선
- 1956년 경남예술제 전국저명초대작가, 중도일보사 사진부장
- 1959년 ‘다-겔 동인회’ 창설
- 1961년 일본에서 열린 《국제사진전》〈혈연〉 입상
- 1962년 프랑스 《제7회 국제전》에서 〈파이프〉 입상  
포르투갈 《국제전》에서 〈보릿고개〉로 금상 수상  
한국사협(韓國寫協) 충남지부 초대지부장  
중앙예총 이사 역임  
《충남북 사협전(寫協展)》 심사위원장
- 1963년 《대전미협전》(대전문화원) 출판
- 1964년 《제13회 국전》에 사진 〈엄마 왜 울어?〉 입선  
남원 춘향전 심사위원장 역임  
충남도문화상 심사위원 역임
- 1965년 ‘수정문화상(水晶文化賞)’ 창설
- 1968년 ‘한국 수석회(水石會)’ 설립
- 1980년 여일미술관 개관(대전, 한국 수석관 4층)
- 1991년 개인전(대전, 인테코갤러리) 개최
- 1992년 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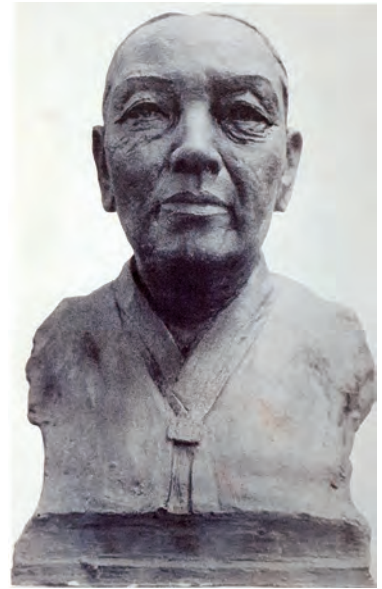
3 여일미술관은 1985년 9월 라이카 회관 1층으로 이전되었고 여일미술관 신관개관 기념으로 《충남작가 초대전》이 개최되었다. 이 시기에 여일미술관에서 《전국저명원로작가전》은 계속 열렸고 1988년 한국 ‘현대정예작가회(現代精銳作家會)’ 본부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4 김달진미술연구소 인명사전 <http://www.daljin.com/author/5460>

## 이국전 (李國銓, 1915~?)

이국전은 1915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면 운산리에서 태어나 양주(楊州) 보통학교를 나온 후 상경하였다. 경성(현 서울)에 있던 조지야(丁子屋) 백화점의 점원으로 근무하던 중 1935년 숙부의 친구인 조각가 김복진이 운영하던 미술연구소에서 조각 공부를 시작하였다.<sup>1</sup> 김복진 밑에서 조각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듬해인 1936년 <고바야시(小林) 상>으로 《제15회 조선미전》에서 입선한 이국전은 1937년 <P여사상(女史之像)>과 <A씨 수상(壽像)>으로 연이어 입선하였다. 이후 1944년 조선미전이 23회로 막을 내릴 때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제21회(1941)에 <머리(首)>, 제22회(1943)에는 <소년>으로 특선을 차지했다.

조선미전을 무대로 조각가로 이름을 알리던 이국전은 1937년 일본대학 예술과 미술부에 입학해<sup>2</sup> 카타마리닌샤(塊人社)를 창설한 안도 테루(安藤照, 1892~1945)에게 조소를 배우며<sup>3</sup> 《문부성미술전람회》에 <초추의 작립상(初秋의 作立像)> 등으로 세 번이나 입상하였다.<sup>4</sup> 또한 일본으로 건너간 1937년 11월 이국전은 우에노(上野)에서 열리는 《고우쥬우사전(構造社展)》에 <습작>으로 입선했는데, 당시 출품된 작품 230여점 중 입선된 작품은 21점에 불과했다고 한다.<sup>5</sup> 1939년에는 《수선미술전(主線美術展)》에 입선한 <좌상>으로 호평을 받았다.<sup>6</sup> 1940년 도쿄 일류 조각가들의 모임인 ‘카타마리닌샤(塊人社)’의 사우(社友)가 된 이국전은 《제9회 카타마리닌샤전람회(塊人社展覽會)》에 무감사로 <여인좌상>을 출품했는데, 『조선일보』는 “아직도 삼십(三十)이 못 되는 청년조각가로서 그 정진(精進)과 비범한 천질(天質)은 그 장래가 실로 무한한 것을 느끼게 한다”는 평과 함께 작품 도판을 실었다.<sup>7</sup>



이국전, <P여사상(女史之像)>, 1937, 《제16회 조선미전》 입선작

1 「전도양양한 천재의 청년 이국전군」, 『매일신보』(1936. 5. 13.); 김복진이 좌익운동에 몰입하면서 체계적인 조각 공부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국전 관련 자료 참조. 리재현, 『조선력대미술가편람(증보판)』(평양: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pp. 322~323.

2 「李國銓 君 彫刻 主線美術展에서 好評」, 『동아일보』(1939. 4. 28).

3 윤범모, 「한국근대 조소예술의 전개양상」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조소』(삼과삼, 1999), p. 261.

4 「初特選의 기쁨 <首> 作者, 李國銓 氏」, 『每日新報』(1942. 5. 29); 「앞으로 더 工夫 兩次 特選된 李國銓 氏」, 『每日新報』(1943. 5. 27); 조선미전 기사는 韓國美術研究所 編, 『朝鮮美術展覽會 記事資料集』(시공사, 1999)에서 재인용.

5 「彫刻家 李國銓 君 構造社展 入選」, 『조선일보』(1937. 12. 22).

6 「李國銓 君 彫刻 主線美術展에서 好評」, 『동아일보』(1939. 4. 28); 「新進彫刻家 李國銓 氏」, 『조선일보』(1939. 4. 28).

7 「作者紹介」, 『조선일보』(1940. 4. 5); 「女人坐像 東京塊人社展覽會第九回展覽會 李國銓 氏 作」, 『조선일보』(1940. 4. 5).



이국전, 〈A씨 수상(壽像)〉, 1937, 《제16회 조선미전》 입선작

졸업 후에는 도쿄에 머물면서 〈화가초상〉(1938), 〈입상〉(1939), 〈도루소〉(1941), 〈얼굴〉(1942), 〈입상〉(1942), 〈평화〉(1942) 등 주로 여성 나체 전신상을 형상화한 작품을 제작했다.

이국전은 1940년 『조선일보』에 「신라적 종합(新羅的綜合)」이라는 글을 발표해 신라시대 조소가 동서양 조소의 특징을 종합한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sup>8</sup> 1942년 일본에서 귀국한 후에는 김복진의 미술연구소를 이어받아 경성미술연구소(京城美術研究所)를 개설하였으나 이듬해 창신동 자택으로 연구소를 옮겼다.<sup>9</sup> 이해 《제22회 조선미전》에서 특선을 차지한 후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국전은 특선작 〈소년〉에 대해 “반입기일 十五日 전부터 제작하였습니다. 장래를 두 어깨에 짊어진 건전한 소국민의 표현에 힘을 들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sup>10</sup>

해방 후인 1946년 결성된 ‘조선조각가협회’의 창립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같은 해 조규봉 등과 함께 《인천시립예술관 개관 기념전》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그러나 194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유진명·박승구 등 진보 성향의 조각가들과 결별하였다. 1949년 열린 《제1회 국전》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전쟁 당시 홍익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나 1·4 후퇴 때 월북하였다. 월북 후 1954년까지 평양미술대학 교원으로 있었으며, 조선미술가동맹 현역미술가로 활동했다. 교통성미술제작소 제작부장을 역임했고, 〈천리마동상〉 창작에 참여했다.<sup>11</sup>

이국전은 조각의 구조적이고 통일성을 중시하는 작가로, 그의 작품은 덩어리와 구성의 아름다움, 즉 간결한 양식과 전체적인 균형을 강조한 고전주의적 경향이 특징이다.

8 李國銓, 「新羅的 綜合」, 『조선일보』(1940. 6. 8).

9 1943년 〈소년〉으로 《제22회 조선미전》에서 특선을 차지한 이국전에 대한 『매일신보』의 기사에는 “방금 창성정 자택에다 경성미술연구소(京城美術研究所)를 개설하고 동지들과 연구에 전력하고 있는데”라는 내용과 함께 주소지가 ‘창성정(昌成町) 一〇八번지 三’으로 나오고 있다. 이 기사들로 미루어 1943년 창신동 자택으로 연구소를 옮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工夫, 兩次 特選된 李國銓氏」, 『每日新報』(1943. 5. 27). 한편 이국전의 귀국 시기는 자료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조선향토대백과』 인물정보관에서는 1943년 귀국한 것으로 나와 있다.

10 위의 신문기사, 『每日新報』(1943. 5. 27).

11 월북 후 활동은 이재현, 앞의 책, pp. 322~323.

## 연보

- 1915년 6월 4일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면 운산리에서 출생
- 1935년 흉상 조각 〈K씨 상〉 제작
- 1936년 《제15회 조선미전》에 〈고바야시(小林) 상〉과 〈노부(老婦)〉 입선, 〈여자 반신상〉 제작
- 1937년 일본대학 예술과 미술부 입학  
《고우조우사전(構造社展)》에 〈습작〉 입선  
《제16회 조선미전회》에 〈P여사상(女史之像)〉, 〈A씨 수상(壽像)〉 입선
- 1938년 《제1회 재동경미술협회전》(서울, 화신갤러)에 〈머리(首)〉 출품
- 1939년 《슈센미술전(主線美術展)》에 〈좌상〉 입선  
《제18회 조선미전》에 〈여(습작)〉, 〈나좌상(裸坐像)〉 입선  
《제2회 재동경미술학생 종합전》(서울, 화신화랑)에 출품
- 1940년 《제19회 조선미전》에 〈흉상〉 입선  
도쿄 조각가들의 모임인 카타마리닌샤(塊人社)의 사우(社友)가 됨  
《제9회 카타마리닌샤전람회(塊人社展覽會)》에 〈여인좌상〉을 무감사로 출품
- 1941년 일본에서 귀국 후 조지야(丁子屋) 백화점 화랑에서 《개인전》 개최  
《제20회 조선미전》에 〈여인입상〉, 〈도루소〉 입선
- 1942년 김복진의 사직동 미술연구소를 이어 경성미술연구소 개설  
《제21회 조선미전》에서 〈머리(首)〉로 특선 수상, 〈얼굴〉 〈평화〉 제작
- 1943년 《제22회 조선미전》에 〈소년〉 특선, 창신동 자택으로 미술연구소 이전  
〈개인전〉(서울, 조지야백화점) 개최, 〈소년〉, 〈노인〉 등 전시
- 1944년 《결전미술전(決戰美術展)》에 〈공격〉 출품  
《제23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전우애(戰友愛)〉, 〈어느 대좌의 상〉 출품
- 194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과 교수로 부임
- 1946년 조선조각가협회 창립위원  
《인천시립예술관 개관기념전》에 출품
- 1948년 서울시 예술위원회에 김경승과 함께 위원으로 참가
- 1949년 《제1회 국전》 심사위원이자 추천작가로 〈흉상〉과 〈가을〉 출품  
《제1회 대한미술가협회전》에 〈어린이 얼굴〉 출품
- 1951년 1.4 후퇴 때 월북, 북한 중앙미술제작소에서 조각가로 활동
- 1954년 평양미술대학 상급교원 역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상〉으로 조선인민군 창건 5주년 문학예술상 2등 수상
- 1957년 교통성미술제작소 제작부장 역임
- 1959년 공업 및 농업 전람회 소속 조각가
- 1963년 조선미술가동맹 현역미술가로 활동, 황해제철소 현지파견미술가



## 이완석 (李完錫, 1915~1969)



이완석, <관광 홍보용 포스터-제주>, 1967, 유족소장

1915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한 이완석은 일본 태평양(太平洋)미술학교를 졸업하였다.

한국 산업미술의 현대화를 위해 1945년 권영휴, 한홍택, 조병덕 등과 함께 '조선산업미술가협회(후에 '대한산업미술가협회'로 변경)'를 창립하였다.<sup>1</sup> 1949년 한국미술협회 동남아방문단에 한문화단체총연합회 심의위원으로 참가하여 대만국립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전시에 참여하였다.

이완석은 1954년 서울 종로 4가에 있던 천일백화점 4층에 천일화랑을 열고 직접 경영하였다. 천일화랑에서 열린 전시로 구본웅, 이인성, 김중현 유작전뿐만 아니라 고희동, 이중섭의 작품도 전시했다. 화랑을 경영하면서 산업미술가협회 회원들과 함께 경주·대관령·제주 등을 탐방하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

는 관광포스터를 제작했다. 현재 경주·제주·서귀포를 소재로 한 작품 중 <경주>(1965)에는 석굴암의 불상을, <제주>(1967)에는 제주도에서만 사육하는 흑소를 탄 목동을 그려 목가적인 정경을 강조했다.

홍보용 포스터 제작 외 전통적인 민예품인 목기, 석기, 죽세공, 자기 등의 예술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민예품연구소(韓國民藝品研究所)' 발족을 위한 창단 멤버로 참여하여 전통 공예품의 기술적 향상과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sup>1</sup> 조선산업미술가협회는 1945년 12월 27일 서울 예지동의 천일빌딩에 사무실을 두고 작품 발표회, 선전 공예물·전시회·산업도안 등에 관한 연구와 양성 및 지도, 강연, 좌담회 개최, 신국가 선전 정책에 협력, 외국 산업미술의 국내 소개' 등을 목표로 결성한 단체이다. 권영휴, 한홍택, 홍형문, 이완석, 류윤상, 조능식, 엄도만, 조병덕, 최연한, 이태선, 홍남국이 창립하였다. 1946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동화백화점 화랑에서 《제1회 발표전》을 개최했고, 1947년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2회 작품 발표전을 개최하였다. 1959년 '대한산업미술가협회'로 협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https://www.gokams.or.kr:442>

## 연보

- 1915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
- 1945년 '조선산업미술가협회'(후에 '대한산업미술가협회'로 변경) 창립 회원
- 1946년 《제2회 조선산업미술가협회전》(서울, 동화화랑)에 출품  
공예 문화의 양양을 위한 '조선공예가협회' 창립 위원
- 1949년 한국미술협회 동남아방문단에 한문화단체총연합회 심의위원으로 참가
- 1953년 《재경미술가작품전시회》(서울, 국립도서관)에 출품
- 1954년 천일백화점 4층에 천일화랑 경영<sup>2</sup>  
《제8회 산업미술가협회전》(서울, 화신화랑)에 출품  
대한미술협회와 국방부 주최 《6.25 4주년 기념미술전》(경북공미술관) 응용 미술 분야 심사  
위원으로 위촉
- 1955년 《제9회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서울, 동화백화점 화랑)에 출품  
대한미술협회 사무국장 및 공예부 상임위원  
한국민속공예연구소 경영
- 1959년 《제11회 산업미술협회전》(서울, 동화백화점 화랑)에 출품
- 1960년 아세아미술가국제연합결성 예비회담을 위한 위원단으로 대만 방문
- 1961년 《한국현대미술전》(필리핀 마닐라, 국립박물관)에 출품  
아세아미술전 개최를 위한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
- 1964년 한국민예품연구소(韓國民藝品研究所) 설립단으로 참여
- 1967년 《제18회 산미회원전》에 출품
- 1969년 작고

<sup>2</sup> 천일화랑은 이완석이 미술 문화의 대중화를 진작하고자 1954년 7월에 종로4가의 천일백화점 4층에 개관한 화랑이다. 미술품 매매에서부터 작품 대여, 감정, 한국 미술품의 해외 소개, 미술 강좌 개최, 표구 업무까지 다양한 일을 진행했다. 개관전은 동양화, 서양화, 조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던 40명의 작가를 초대한 《현대미술작가전》이었고, 두 번째 전시는 김중현(金重鉉), 구본웅(具本雄), 이인성(李仁星)의 유작전으로 꾸려져 주목을 받았으나 운영 기간은 6개월 남짓이었다.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https://www.gokams.or.kr>.

## 김재석 (金在奭, 1916~1987)



김재석, 〈철사요변화입〉, 1955, 30×24.5cm  
(출처: 『김재석도예전』, 롯데미술관, 1987)

호는 봉계(鳳鷄). 1916년 충청남도 공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김재석은 공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1936년에 제국미술학교(帝國美術學校) 서양화과에 입학했다가 1937년 공예도안과로 전과했다.<sup>1</sup> 재학 중인 1937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일본의 《국화회(國畫會)전》에 입선하였으며, 1939년 《제18회 조선미전》에 〈테이블 센터〉는 공예부에, 〈시장 소견〉은 서양화부에 동시 입선을 했다. 1940년 재도쿄미술협회 전람회를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공예부 주임을 역임했으며, 1941년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41년 《제20회 조선미전》에는 〈화입(花入)〉으로 특선을 차지했으며

1943년과 1944년 《조선미전》에 연속 입선했다.

1945년 해방 후 ‘조선미술건설본부’에서 공예부 설치 위원으로 참여하며 ‘조선미술협회’와 1946년 창립한 ‘조선공예가협회’ 회장을 맡았다.<sup>2</sup> 해방 후 제국미술학교 동인전인 《백우회전》에 제2회와 7회에 참여했다. 1948년 국전의 창립위원으로 참여하여 《제1회 국전》의 공예부 심사위원을 맡았다. 이후 제16회, 25회, 30회 국전 공예부의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잠시 있었고, 1946년부터 1955년까지 홍익대, 서울대, 동덕여대, 덕성여대의 강사로 지냈다. 1960년부터 1967년까지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공예과 주임 교수로 재직했다. 한편 1950년 서울시문화위원을 지냈고, 1984년 《제3회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일본에서 익힌 염직기술과 유색 도자기를 국내에 도입하는데 앞장섰으며,<sup>3</sup> 훌륭한 조선의 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옛 작품의 모방이나 일본미의 무조건적인 수용에서 벗어나도록 일깨우는 글도 남겼다.<sup>4</sup> 특히 한국의 전통 도자기를 바탕으로 한 현대감각의 도예창작에 몰두하여 재벌구이에 머물던 기존 도예기법에서 벗어나 〈철사요변화입(鐵砂窯變花入)〉(1955)과 같이

1 한국근현대미술기록연구회 편저, 『제국미술학교와 조선인 유학생들』(눈빛, 2004), p. 122.

2 황효순, 「대전미술의 선구자들 3 -공예편-」, 『대전문화』 24(대전광역시, 2015), p. 60.

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4 김재석, 「工藝의 朝鮮的 使命」, 『新文藝』(신문예사, 1945. 12), p. 55.

여러 번 구운 도자기에 금채를 입힌 뒤 추상적이면서도 기하학적인 그림을 그려 넣음으로써 다양한 색채와 기형의 작품을 완성하였다. <동유모양묘화입유리금채요변(銅釉模樣描花入琉璃釉金彩窯變)>(1984)는 밤하늘에 쏟아져 내리는 별빛을 연상케 하는 추상적인 무늬와 터치가 조화롭게 어울린 작품으로, 2010년 체신부에서 우표도안과 공중전화카드의 도안으로 활용하였다.<sup>5</sup>



김재석, <동유모양묘화입유리금채요변>, 1984, 점토에 채색, 24×18×18cm(2), 국립현대미술관

김재석은 해방 후 도예가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근대적 형태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꾸준히 전시회를 열어 도자공예를 미술의 한 분야로 알리며 도예 부흥의 기반을 닦은 작가로 평가받는다.

## 연보

- 1916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
- 1936년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 입학
- 1937년 공예도안과로 전과  
《제27회 광풍회전(光風會展)》(도쿄, 우에노미술관)에 <部室掛物>로 입선
- 1937~1939년 일본 《국화회(國畫會)전》(도쿄, 우에노미술관)에 제14회부터 16회까지 입선
- 1938년 《제1회 재동경미술협회전》(1938. 4. 23~27)에 <테이블 센터>, <풍경> 출품
- 1939년 《제18회 조선미전》 공예부문에 <테이블 센터>, 서양화부에 <시장 소견> 입선  
《제2회 재동경미술협회전》(서울, 화신백화점, 1939. 4. 20~25)에 <벽걸이 A>, <벽걸이 B> 출품
- 1940년 《제19회 조선미전》 공예부에 <掛物> 입선  
《제3회 재동경미술협회전》(서울, 총독부미술관, 1940. 9. 5.~10)에 <여름용 마지 카텐>, <掛物>, <테이블 센터A>, <테이블 센터B> 출품
- 1941년 제국미술학교 졸업  
《제20회 조선미전》에 <화입(花入)> 특선, <은회각도판(銀繪角陶板)> 입선
- 1943년 《제22회 조선미전》에 <철사병(鐵砂瓶)>과 <백자병(白瓷瓶)>으로 입선
- 1944년 《제22회 조선미전》 공예부에 <目カクシ> 입선
- 1945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
- 1946년 '조선공예가협회' 초대회장

<sup>5</sup> 황효순, 앞의 글, p. 61.

- 1947년 한국 공예미술협회 회장  
문교부미술협회 심의위원 역임
- 1948년 국전 창립위원
- 1949년 《제1회 국전》공예부에 작품 출품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
- 1950년 서울시 문화위원 역임
- 1953년 도자기 염색 연구차 도일(渡日)
- 1954년 《개인전》(전라남도 광주) 개최
- 1958년 《개인전》(충청남도 공주) 개최
- 1959년 《개인전》(전라북도 전주) 개최
- 1960~1967년 서라벌 예술대학 공예과 주임 교수로 재직
- 1967년 《제16회 국전》공예부 심사위원장
- 1968년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 1971년 《충청남도 미술전람회》심사위원으로 위촉
- 1974년 《한국 공예전 초대전》에 출품
- 1975~1977년 일본 《新匠工藝 초대전》에 출품
- 1975년 《한국현대 공예대전 초대전》 참가
- 1976년 《제25회 국전》공예부 심사위원장
- 1978년 《개인전》(서울, 신세계 미술관) 개최
- 1979년 《개인전》(서울, 한국화랑) 개최
- 1981년 《개인전》(대전, 신신화랑) 개최  
《제30회 국전》공예부 심사위원장
- 1982년 《개인전》(대구, 맥향화랑) 개최  
《제1회 현대미술 초대전》에 출품  
《한국미술대전초대전》에 참여
- 1983년 《개인전》(뉴욕) 개최
- 1984년 《미술대전》심사위원장  
대한민국 사회교육문화상 수상
- 1987년 《고희기념 초대전》(서울, 롯데미술관) 개최  
12월 18일 작고

## 유진명 (俞鎭明, 1916~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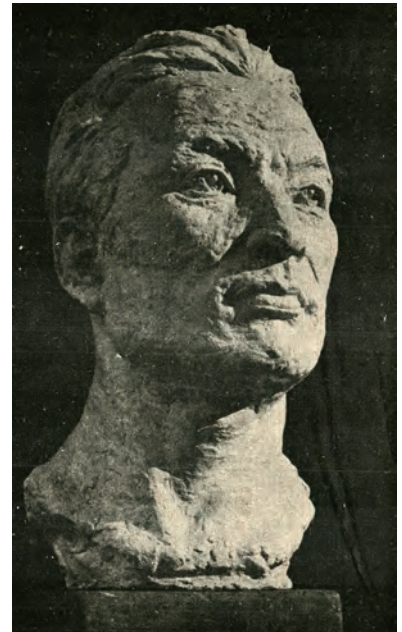
1916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리의 농민가정에서 넷째 아들로 출생한 유진명은 1926년쯤 예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36년까지 충청남도농업학교에 다녔다. 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예산의 덕산연초경작조합(德山煙草耕作組合)에 취직하여 3년간 일했으며, 1939년 일본으로 미술 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확한 사항은 파악되지 않으나 니혼미술학교(日本美術學校)에 입학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술학교에서 조각을 공부하고 1942년 졸업하였다. 졸업 후 조각연구소에서 연구생으로 근무하였으며, 〈여인두상〉, 〈청년두상〉 등을 제작했다. 1943년 귀국하여 충청남도 당진군에서 머물며 작품 창작에 힘썼다.

해방 이후 1946년 11월에 출범한 조선미술동맹의 맹원으로 활동했으며, 1948년 5.10 총선거, ‘여수·순천사건’ 등의 반대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강사, 경주예술학교 강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남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세 차례 체포 및 투옥되었다. 한국전쟁 중에는 조선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 소속으로 이석호와 함께 전형필의 보화각(菩華閣)에 있는 개인 소장품의 조사 및 포장 임무를 맡았다.

국군이 서울을 탈환한 9월 28일 수복을 앞두고 월북했다. 월북 직후 1951년 〈여성 빨찌산〉, 〈여성 리순임〉 등을 제작하며 조선미술가동맹 조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1952년에는 평양에서 개최된 《조국해방전쟁미술전람회》에 〈영웅 조옥희〉, 〈여공인〉 등을 출품했다. 1955년 《8.15 해방 10주년 기념 미술전람회》에 〈리순신 장군〉을 출품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어린이들과 물오리〉, 〈배우 황철〉, 〈뇌신경외과 김시창 교수〉를 제작했다. 1960년에는 양강도 혜산시 괘궁정(掛弓亭)터에 건립될 인민영웅탑 구



유진명, 〈리순신 장군〉, 1955(출처: 『조선미술』,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6. 9)



유진명, 〈인민배우 황철 초상〉, 1956(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10주년기념 미술작품집』, 평양: 조선미술사, 1958)

상을 위해 항일혁명전적지를 답사하여 성과를 보였다. 1961년부터는 본격화된 집체창작단 '2중 천리마 조각 창작단'에 참여하여 <당을 우러러>를 제작하였다. 1964년에는 중앙미술창작사 조각창작단 단장으로 임명되어 여러 기념비 제작에 착수하였고, 1967년 해산시의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제작을 주도했다. 그밖에 <만수대 대 기념비>, <항일혁명투사 조왈남 동지> 등 다수의 기념비를 완성했다. 1974년부터는 시력에 문제가 생겨 조각보다는 공예에 집중했다. 1976년 이후 평안북도 성천에서 도자기 창작에 전념하였으며, 1984년 작고했다.<sup>1</sup>

## 연보

- 1916년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리의 농민가정에서 넷째 아들로 출생
- 1926년 예산공립보통학교 입학
- 1936년 충남농업학교 졸업<sup>2</sup>
- 1937년 덕산연초경작조합(德山煙草耕作組合)에 취직
- 1939년 일본미술학교에 입학하여 조각 수업을 받음<sup>3</sup>
- 1942년 일본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조각연구소에서 연구생으로 근무
- 1943년 귀국하여 충남 당진군에서 거주하며 작품 제작
- 1946년 조선미술동맹에 가입하여 맹원으로 활동
- 1947년 <남자두상>, <나물캐는 여인들> 제작
- 1948년 5·10 총선거, 여수·순천사건 등에 반대 투쟁에 참여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홍익대학교 미술교원으로 재직
- 1949년 《제1회 국전》 심사위원으로 여인나부 입상인 <가을> 출품  
<노래를 그들에게> 제작
- 1950년 조선물질문화유물보존위원회에 참여. 위원장 김용태 지휘 아래 이석호와 인민군기마부대를 이끌고 보화각의 개인소장품 복송 사업을 계획<sup>4</sup>  
9월 28일 월북
- 1951년 <여성 빨찌산>, <영웅 리순임> 제작  
조선미술가동맹 조각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배치
- 1952년 평양에서 개최된 《조국해방전쟁미술전람회》에 <영웅 조옥희>, <여공인> 출품<sup>5</sup> 및 <영웅 리순임> 제작

1 유진명에 대한 개요 및 연보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복원-복으로 간 미술가들 저작목록』(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pp. 150~155를 참조했다.

2 입학시기는 정확하지 않다.

3 유진명은 도일(渡日)하여 미술학교를 다녔다고 언급되었으나 정확한 것은 파악되지 않는다. 리재현, 『조선력대미술가편람』(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p. 341; 신수경, 『해방기 월북미술가 연구』(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 62.

4 김재원, 『박물관과 한평생』(탐구당, 1992), pp. 120~121; 이충렬, 『간송 전형필』(김영사, 2010), pp. 384~389.

5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개화 발전하고 있는 우리 미술」, 『조선미술』(평양: 국립미술출판사, 1960. 9), p. 7; 鄭律, 「祖國解放戰爭中的朝鮮美術」, 『美術』(1954年 5期), p. 13.

- 1954년 <노동자 군상> 제작
- 1955년 《8·15 해방 10주년 기념 미술전람회》에 <리순신 장군> 출품<sup>6</sup>
- 1956년 <어린이들과 물오리>, <인민배우 황철 초상> 제작
- 1957년 《전국미술축전》에 <뇌신경외과 김시창 교수> 출품<sup>7</sup>  
『조선미술』에 논문 「신라조각에 대하여」 게재<sup>8</sup>
- 1958년 문석오 · 최항윤 · 원용학 · 박치홍과 함께 <인민군 추모탑(인민군 열사탑)>의 제작 착수  
소련 모스크바 전련맹 상설전람관에서 개최된 《사회주의 제국가 조형 미술 전람회》 참관<sup>9</sup>  
<압연공>, <배우 황철> 제작
- 1959년 <조중우의탑> 제작에 참여
- 1960년 9월부터 10월 사이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제작을 위한 혁명전적지 답사 진행<sup>10</sup>
- 1961년 평양의 모란봉 기슭 만수대에 <천리마 동상> 제작, 제막식에 참여  
조각 집체창작단 '2중 천리마조각 창작단'을 구성하여 제4차 당 대회를 앞두고 <당을 우러  
리> 제작,<sup>11</sup> <경옥이 돌아오다> 완성
- 1963년 <어린이들 속에 계시는 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님> 제작에 김덕영, 김종렬, 김홍제와 함께 참여
- 1964년 중앙미술창작사 조각창작단 단장으로 임명되어 기념비 제작 착수  
<어린이들 속에 계시는 수상 동지> 제작
- 1967년 양강도 혜산시 소재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제작 참여
- 1968년 봉화리에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 선생님의 동상> 제작
- 1972년 <만수대 대기념비> 제작에 참여
- 1973년 혁명열사릉에 <항일혁명투사 조완남 동지> 제작
- 1974년 시력 문제로 조각에서 공예(도자기)로 전향
- 1975년 <원추리무늬 꽃병> 제작
- 1976년 평안북도 성천에서 도자기 창작 생활
- 1982년 <석류하회장식 약탕관>, <매화석류장식편호 꽃병> 제작
- 1984년 5월 1일 작고

6 길진섭, 「해방 후의 조선미술」, 『조선미술』(평양: 조선미술사, 1957. 1), p. 8.

7 김창석, 「찬란한 민족미술 창건 도상에서」, 『조선미술』(평양: 조선미술사, 1957. 5), p. 30.

8 유진명, 「신라조각에 대하여」, 『조선미술』(평양: 조선미술사, 1957. 3), p. 38.

9 유진명, 「사회주의 제 국가 조형 예술 전람회-조각 작품을 보고」, 『조선미술』 제6호(국립미술출판사, 1959. 6)

10 유진명, 「국내 혁명 전적지 답사를 끝마치고」, 『조선미술』(평양: 국립미술출판사, 1961. 1), pp. 24~27.

11 2중 천리마 조각 창작단 1,2분단, 「조각 <당을 우러리>를 창작하면서」, 『조선미술』(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1. 10), pp. 12~14.



## 이종무 (李種武, 1916~2003)



이종무, 《향원정》, 1955, 캔버스에 유채, 162.2×130.3cm, 국립현대미술관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난 이종무는 1935년 고희동에게 1년간 독서와 데생 등의 지도를 받았다.<sup>1</sup> 이후 일본 도쿄 가와바타 미술학교(川端畫學校)를 수료하고, 1941년 도쿄의 동방(東邦)미술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sup>2</sup> 1946년 임군홍·엄도만·신홍휴·한홍택·박병수와 함께 《양화 6인전》에 참여했다.<sup>3</sup> 1947년 대한미술협회 상임이사를 역임했으며, 미술문화협회 결성을 주도했다. 1955년 《제4회 국전》에서 문교부장관상 수상을 시작으로 1958년까지 매해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하며 국전 초대작가가 되었다. ‘목우회’ 창립 시 총무로 활동했으며, 1978년 《상형전》 창립에 참여해 이사장을 맡아 한국 구상미술의 전개와 발전에 기여했다.

이종무는 1955년부터 1966년까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한 바 있으며,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예술원상, 대한민국문화훈장 등을 수상했으며, 국내외에서 18번의 개인전을 가졌다.<sup>4</sup> 한국 미술의 국제화에도 힘을 기울여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교우회전》, 이탈리아에서의 《한국현대미술전》, 서울과 프랑스 파리에서의 《한불국제회화전》 창립에 힘썼다.

이종무는 풍경·정물·인물·초상·누드크로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작품을 남겼고, 주로 고향의 정취와 향토색이 느껴지는 갈색조의 풍경화를 많이 그렸다. 대표적인 분야는 평생에 걸쳐 답사를 하며 자신이 본 경치를 그린 풍경화로, 국전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던 1955년 작 《향원정》은 건축물에 대한 건실한 데생을 바탕으로 경복궁의 누각을 재현한 작품이다. 섬세하게 자연을 관찰하여 온화한 색감과 부드러운 붓놀림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이종무의 초기 사

1 이종무의 생애와 작품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도록 참조.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이종무화백 회고전』(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2016).

2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유화』(삶과꿈, 1997), p. 362.

3 최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열화당, 2015), pp. 135~140.

4 이경모, 「당립 이종무의 삶과 예술」, 앞의 도록(2016), p. 6.

실주의적 화풍을 잘 보여준다. 초기 작품은 이처럼 사실적 묘사에 중점을 둔 자연 풍경이 주를 이루었지만, 1960년대 초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서구에서 들어온 추상표현주의 양식에서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형태를 해체한 추상적인 작품 경향을 띠기도 했다.<sup>5</sup> 이 시기 작품에는 구성적이며 기하학적인 패턴과 더불어, 비정형의 추상표현이 드러난다.<sup>6</sup> 예를 들면 1962년 제작한 <전원>



이종무, <전원>, 1962, 캔버스에 유채, 69×97cm(출처: 『한국현대미술전집7』, 한국일보사, 1978)

은 대상을 해체하여 여러 개의 사각형으로 면을 분할하고, 동식물의 형태는 최대한 단순화시킨 작품으로 이 시기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후 1970년대 들어 다시 구상으로 선회해 1975년 이후 《산》 연작을 제작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대상을 굵고 진한 윤곽선으로 단순화하면서 온화한 색채를 사용한 작품을 제작했다.

2003년 작고하기 전까지 전국을 사생하며 그린 풍경화들은 사실적인 시각을 반영하면서도 붓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굵은 선 처리와 소박하고 조출한 멋을 담은 온화한 그의 성향이 담겨 있다. 2003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2016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천안 예술의전당에서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이종무 화백 회고전-INTO THE NATURE》이 열려 이종무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조명한 바 있다.

## 연보

- 1916년 충청남도 아산 출생
- 1935~1936년 춘곡 교회동에게 사사(師事)
- 1937년 일본 도쿄 가와바타미술학교(川端畫學校)에서 수학
- 1940년 《동광회전》에 출품
- 1941년 일본 도쿄 동방(東邦)미술학원 회화과 졸업
- 1942년 《재동경미술전》과 《동광회전》에 출품
- 1946년 《양화 6인전》에 참여
- 1947년 미술협회 대표위원, 대한미술협회 상임이사
- 1948년 미술문화협회 회원, 1회 회원전에 참여
- 1953년 《제2회 국전》 서양화부에 <폐허의 충무로(忠武路) 부근> 입선

5 당림미술관 홈페이지 <https://dangnim.modoo.at/?link=dyop4c20>

6 김인환, 「과도기의 추상화가」, 『이종무: Lee Chong-Moo』(미술저널사, 2003), p.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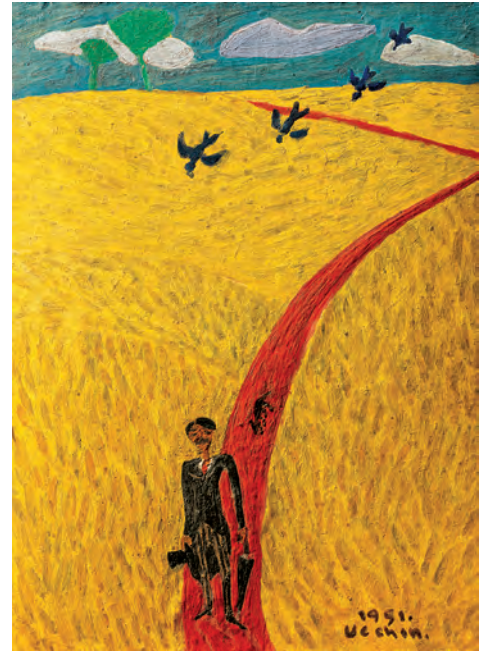
- 1953년            대한미술협회전 입상(제임스 A 미취녀상)
- 1955년            《제4회 국전》 특선, 문교부장관상 수상  
                    《제1회 개인전》(동화백화점 화랑) 개최
- 1952~1955년    숙명여자중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55~1966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역임
- 1956년            《제1회 개인전》(서울, 동화백화점 화랑) 개최
- 1956~1958년    국전에서 연속 특선 입상  
                    목우회 창립위원 총무 역임(4회까지 출품)  
                    《제2회 개인전》(국립도서관) 개최
- 1959년            국전 심사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1963년            《제3회 개인전》(대전) 개최
- 1965년            《제4회 개인전》(신문회관화랑) 개최
- 1970년            《제5회 개인전》(도라장화랑) 개최 / 한국미술협회 이사 서양화분과위원장 역임
- 1973년            《제6회 개인전》(미도파화랑) 개최  
                    충남향우회 창립20주년 《초대작가서화전》(서울, 코스모스화랑) 출품
- 1975년            《제7회 개인전》(미도파화랑) 개최
- 1975~1980년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강사
- 1976~1985년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강사
- 1978년            상형전 창립 이사장 역임
- 1980년            《미술대전》 운영위원 부위원장 역임
- 1980~1983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역임
- 1981~1983년    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역임
- 1982년            국회의사당 미화자문위원장  
                    《현대미술초대전》 초대작가 선정위원
- 1982~1987년    대한민국예술원 정회원
- 1984년            제29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예술원 공로상 수상
- 1985년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대한민국 문화훈장(모란장) 수상
- 1991년            개인전(영동화랑) 개최
- 1992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 수훈
- 1994년            개인전(예맥화랑) 개최
- 1995년            《파리국제예술 서울회화전》(서울갤러리 / 부산국제문화센터 / 파리)
- 1997년            당립미술관 건립  
                    《상형전》 명예회장 추대
- 1998년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서울시 문화상 심사위원, 세종문화상 심사위원장 역임
- 2003년            5월 26일 교통사고로 작고

## 장욱진 (張旭鎭, 1917~1990)

장욱진은 1917년 충청남도 연기군 동면 송릉리에서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7살 때인 1923년,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고모의 뜻에 따라 서울로 이사해 신식 교육을 받았다. 경성 사범부속보통학교에 입학해 보통학교 3학년 때인 1926년 《전국소학생미전》(일본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廣島高等師範學校 주최)에서 일등상을 수상하며 그림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경성제2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해 사토구니오(佐藤九二男, 1897~1945)의 지도를 받으며 그림에 열중했다. 그러던 중 공정치 못한 처사를 일삼는 일본인 역사교사에 항의하다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집 근처에서 사랑방을 열고 있었던 공진형을 방문하여 이종우와 같은 선배화가들과 친분을 맺고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그림을 그리는 이유로 고모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난 후 성홍열에 걸린 장욱진은 요양을 위해 충청남도 예산 수덕사에 6개월간 머물렀다. 이곳에서 나혜석을 만나 다시 그림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1936년 서울 양정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한 장욱진은 1938년 《제2회 전조선학생미술전람회》에서 〈공기놀이〉로 최고상인 사장상을 수상한 뒤 1939년 일본으로 건너가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에 돌아온 장욱진은 강제로 징용되었지만, 3개월 후 해방되면서 징용에서도 풀려났다. 해방 후 국립박물관에 취직해 1947년까지 학예관으로 근무하면서 최순우, 김원용과 교분을 나누었다. 이 시기에 박물관 소장품 정리와 발굴작업을 참관하면서 전통미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1947년 박물관을 그만둔 장욱진은 김환기, 유영국, 이규상이 주축이 되어 발족한 '신사실과'에 참여했다.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말에 이르는 시기 장욱진의 작품은 향토적 소재와 토속적 표현에 치중했으며, 회화의 기반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던 장욱진이 술만 마시며 안정을 찾지 못하자 부인은 1951년 고향인 연기군으로 가 있기를 권유했다. 고향으로 돌아간 장욱진은 〈자화상〉을 그렸는데, 영국신사 풍 연미복을 입고 콧수염 기른 화가 자신을 그려놓았다. 어렵고 힘든



장욱진, 〈자화상〉, 1951, 캔버스에 유채, 14.8×10.8cm, 개인소장



장옥진, 〈진진묘〉, 1970, 캔버스에 유채, 33×24cm, 개인소장

전쟁 시절이었지만 바탕에 밝고 경쾌한 노란색 터치로 표현했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갔지만, 수차례에 걸쳐 거처를 옮겨 다녔다. 장옥진의 작품세계는 거처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피난 시절 가족들과 헤어져 사는 아픔이 담겨 있는 작품에서부터 작가의 치열한 내면 탐구가 이루어졌던 덕소시절,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던 명륜동 시절, 그리고 장옥진의 탈속적 이상향이 작품에 구체화되었던 수안보 이후 용인시절까지 그의 작품은 거처했던 곳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1953년 서울로 돌아갔을 때 이전에 살던 내수동의 집은 다 부서져 유명국의 집에서 6개월 기거했고, 20여 차례 이사 한 끝에 명륜동의 초가집에 가족들과의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듬해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취임했다. 교단에 선 기간은 6

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생활의 안정을 찾았고, 이 시기에 창작과 교육 모두에 열중했다.

1960년에는 그림에 전념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그만두었고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장옥진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조그만 집을 마련했는데, 이곳은 장옥진의 산문집 『강가의 아틀리에』의 배경이 된 덕소화실이다. ‘덕소시대’에는 가족들과 헤어져 홀로 기거하며, 12년 동안 수도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화실에서 작품 제작에만 전념했다. 그러다가 1970년 폐기종 진단을 받은 이후 장옥진은 죽음의 문제에 천착하면서 한동안 작품을 제작하지 못했고, 1972년 경부터 다시 활발하게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장옥진의 그림은 두텁게 물감을 겹쳐 올리는 대신 바탕 결이 보일 정도로 물감을 묽게 풀기 시작했다. 덕소시절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독자적 스타일을 구축한 시기로, 초기에는 두꺼운 질감과 강한 붓 터치의 추상 화면들을 시도했지만 후반기에는 수묵화 같은 유화가 나타난다. 또 윤곽선으로만 표현되거나 대상이 선묘로 단순화된 작품이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1975년 덕소생활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이 시기에는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장옥진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유와 해학을 작품에 담아냈다. 이 시기 작품에는 민화나 고분벽화, 수묵화와 같은 다양한 전통회화를 접목하기 시작했다. 또한, 독실한 불교 신자인 부인의 영향으로 절을 유람하면서 종교적 성향이 짙게 나타나는데, 부처의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1976)가 이 시기 작품이다. 명륜동 시절에 나타난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해 여러 가지 조형 실험을 시도한 점이다. 매직마커 그림, 목판화, 세리그래프, 먹그림, 도화(陶畵) 등이 이 시기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개발로 인해 집 주변이 번잡스러운 곳으로 변해가자 1980년 이른 봄 수안보 온천 동네 뒤 탑동 마을로 거처를 옮기면서 ‘수안보 시절’이 시작되었다. 수안보의 아름다운 자연은 장욱진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쳐 장욱진이 일생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수안보 시절이다. 이 시기 장욱진은 먹그림을 자주 제작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동양화 물감의 특성을 도입한 안티크 컬러라는 일본 수입 물감을 사용해 수묵담채화의 느낌을 표현하면서 유화와 수묵화의 매체 특성을 결합하고자 했다. 가볍고 맑은 색채와 붓의 자유분방한 느낌을 드러낸 표현방식은 수안보 시절 이후 장욱진 작품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1986년 수안보를 떠나 용인의 마북동에 살면서 장욱진의 작품에는 먹그림 풍의 유화와 풍경이 줄어들고 점차 환상적이며 관념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과격적인 구도와 자유로운 표현이 최고조에 달하는데, 1990년 늘 이야기하던 ‘삶이란 소모 하는 것,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다 쓰고 가야겠다’는 화두에 걸맞게 초탈한 경지의 작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장욱진의 작품은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것처럼 단순하지만 그 속에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조화로운 화면구성과 동양 철학사상을 담고 있다. 사후에는 국제화랑에서 1991년 유작전, 호암미술관에서 1995년 회고전, 갤러리현대에서 2001년 10주기 기념 회고전 《해와 달 · 나무와 장욱진》과 2011년 20주기 기념 회고전 《장욱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04년 《장욱진전》 등의 전시가 열렸다. 1998년 장욱진미술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며, 2014년 4월에는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이 개관되었다.<sup>1</sup>

## 연보

- 1917년 충청남도 연기군 출생
- 1926년 경성사범부속보통학교 재학 중 《전일본소학생미전》 일등상 수상
- 1932년 일본인 교사의 공정치 못한 처사에 항의 후 경성제2고등보통학교 중퇴
- 1933년 성홍열을 앓아 충남 예산의 수덕사에서 6개월간 요양
- 1936년 체육 특기생으로 양정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
- 1938년 조선일보 주최 《전조선학생미술전람회》에서 〈공기놀이〉(1938)로 최고상인 사장상과 중등부 특선 수상
- 1939년 양정고등보통학교 졸업, 일본 제국미술학교(현 무사시노미술대학) 서양화과 입학
- 1940~1943년 《조선미전》 입선
- 1943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졸업
- 1945~1947년 국립박물관(현 국립중앙박물관) 진열과 재직
- 1948년 《제1회 신사실과 동인전》에 참가
- 1949년 《제2회 신사실과 동인전》에 〈독〉 출품

<sup>1</sup>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yangju.go.kr/changucchin/index.do>

- 1951년            중군화가단에 입단하여 《전쟁미술전》에 전시 후 중군작가상 수상
- 1953년            《제3회 신사실과 동인전》에 출품
- 1954~196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우교수 역임
- 1955년            《제1회 백우회전》에서 〈수하〉(1954)로 ‘이범래상’ 수상
- 1956~1969년    제5회, 제8회, 18회 국전 심사위원
- 1957년            《동양미술전》(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출품
- 1958년            《현대한국회화전》(뉴욕, 월드하우스갤러리)에 〈나무와 새〉 등 유화 2점 출품
- 196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직을 사임한 후 명륜동 집을 양옥으로 개조
- 1963년            경기도 덕소(현 남양주시)의 한강가에 화실을 짓고 혼자 생활하기 시작
- 1964년            《제1회 개인전》(서울, 반도화랑) 개최
- 1967년            《양가주망 동인전》에 출품
- 1972년            《한국근대미술6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3년            충남향우회 창립20주년 《초대작가서화전》(서울, 코스모스화랑)에 출품
- 1974년            《제2회 개인전》(서울, 공간화랑) 개최
- 1975년            덕소 생활을 청산하고, 서울 명륜동 집 뒤편에 있는 한옥을 구입하여 화실로 꾸밈
- 1977년            양산 통도사 경봉 스님이 비공(非空)이라는 법명을 내림
- 1978년            윤광조의 도자기에 그림을 그린 《도화전》(서울, 현대화랑) 개최
- 1979년            《장옥진 화집발간 기념전》(서울, 현대화랑) 개최
- 1980년            지난해 구입한 수안보 상모면 온천리의 농가를 화실로 만들고 부인과 함께 생활
- 1981년            《개인전》(서울, 공간화랑) 개최
- 1983년            판화집 출판기념 《장옥진 판화전》 개최
- 1985년            수안보의 화실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
- 1986년            《개인전》(서울, 국제화랑) 개최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의 낡은 한옥을 구입하여 보수  
중앙일보 예술대상 수상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7년            《개인전》(두손갤러리) 개최  
대만과 태국 여행
- 1988년            인도 뉴델리 박물관, 발리섬 여행
- 1989년            용인의 한옥집 옆에 양옥을 짓고 입주  
미국 뉴저지 버겐 예술과학박물관 주최 《한국현대회화전》에 출품
- 1990년            12월 27일 작고

## 조중현 (趙重顯, 1917~1982)

호는 심원(沁園). 1917년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에서 출생했다. 어려운 집안형편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던 조중현은 한유동의 아버지를 통해 이당 김은호의 명성과 함께 문하생을 지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17세 때 단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김은호의 문하생이 되었다.<sup>1</sup> 낙청헌에 입문한 지 1년 후인 1936년 《제15회 조선미전》에 〈쇠재두루미(アネノ鶴)〉로 첫입선을 한 후 17회(1938)까지 연속 입선했다.<sup>2</sup>



조중현, 〈비상(飛翔)〉, 1977, 종이에 채색, 107×130cm(출처: 『심원 조중현』, 수문서관, 1993)

1937년 일본미술학교에 들어가 2년간 수학하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와 1941년부터는 ‘松岡 重顯’이라는 이름으로 조선미전에 응모해 입선과 특선을 거듭했다. 《제20회 조선미전》에는 〈학(鷄)〉으로 입선, 1942년 《제21회 조선미전》에는 〈독수리(鷲)〉로 첫 특선을 수상했다. 이때 『매일신보』에 조중현을 “경성의 가회정(嘉會町) 三十一번지의 九十六호 송강중현(松岡重顯)(二六) 씨는 충청남도 출신으로 고향에서 소학을 마친 후 독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김은호(金殷鎬) 씨의 지도를 받고 七年 전에 선전에 초입선을 하였다. 그후 동경미술학교에서 一年 동안을 연구하고 작년에는 〈닭〉과 〈꽃〉으로 두 가지에 입선을 하였다.”라고 소개되었다.<sup>3</sup> 당시 조중현이 외출을 하여 대신 인터뷰에 응한 모친에 의하면 〈독수리〉는 “동물원에 四十일 동안이나 다녔고 집에 와서도 스무 날이나 계속하여 그렸”다고 한다. 이 작품에 대해서 윤희순은 “〈독수리(鷲)〉는 역작이다.” “중현 씨는 선염(渲染)에서 성공하였다. 옹혼미(雄渾味)가 이만큼 나온 것은 목의 선염이 효과를 내인 까닭이다. 동양화의 목은 기본색이라 할 수 있다. 목맛을 알고 목빛을 낼 줄 하는 작가는 드물다.”며 “금년의 수확”으로 꼽았다.<sup>4</sup>

1 이구열, 『靑餘散稿 ①근대한국미술 작가와 작품』(에이엠아트, 2018), p. 117.

2 조중현이 첫입선한 후 『매일신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중현을 소개했다. “군은 충남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忠南 燕岐郡 全義面 元城里) 출생으로 당년 二十세의 청년이다. 四年 전에 당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가세의 빈궁으로 중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있으면서 틈 있는 대로 그림에 취미를 부치어 지금까지 二年 동안을 그림에 열중하였다 한다. 금번 입선은 의외로 금후에도 더욱 정진하겠다고 한다.” 「入選은 意外 今後도 精進, 趙重顯 君」, 『每日申報』(1936. 5. 12). 신문기사는 韓國美術研究所 編, 『朝鮮美術展覽會 記事資料集』(시공사, 1999)에서 재인용.

3 「〈독수리〉 作者, 松岡重顯 氏」, 『每日新報』(1942. 5. 29).

4 윤희순, 「美術의 時代色: 제二一回 朝鮮美展評」, 『每日新報』(1942. 6. 10).





조중현, 〈화초(석류도)〉, 연도미상, 수묵담채, 65×85cm, 아라리오 뮤지엄

다음 해인 《제22회 조선미전》에는 〈악어(鱷)〉로 입선되었으며, 1944년 《제23회 조선미전》에는 〈대기(待機)〉로 조선총독상을 수상했다. 1941년부터는 입상작의 도판조차 남아있지 않으나 작품 제목과 신문기사 평을 통해 스승 김은호에게서 배운 공필채색화법의 화조·영모화였음을 알 수 있다.<sup>5</sup>

조중현은 다른 후소회 작가들과 달리 인물화에는 흥미가 없거나 소양이 없었던 듯 화제들이 모두 동물, 조

류, 어류, 화초 및 자연풍경들로,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sup>6</sup>

1961년 중앙화단으로 가기 전까지 대전·충남에서 교육과 창작활동을 하였고, 지역 미술계에 기여한 공로로 1959년 제3회 충남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sup>7</sup> 또한 《국전》 동양화부의 중견으로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하는 한편, 백양회에도 참여했다. 1965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1982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후진양성과 함께 전통 동양화 전승에 매진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작고 후인 1989년 10월 문화훈장(옥관)이 수여되었다.

조중현 작품의 특징은 담담하고 부드러운 필선과 서정적인 구도에서 찾을 수 있다. 소나무나 가을의 열매나무와 꿩, 독수리, 참새 등을 어울리게 배치하여 자연의 아취와 깊은 공기의 정취를 감지케 한다.<sup>8</sup> 조중현은 〈화조〉처럼 나뭇가지라든가 지면에 앉아있는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의 새를 치밀한 묘사와 신뜻한 색채로 표현했다. 대담한 필치로 생동감이 넘치면서도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조중현 작품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의 〈학〉은 김은호 문하생다운 극세필(極細筆)의 정교한 필치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푸른색 물감으로 선염(渲染)한 바탕 위에 네 마리의 학이 유유히 나는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네 마리 모두 다른 모습으로 날갯짓을 하고 있는 학의 우아한 자태가 잘 표현된 작품이다.

화조화와 동물화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sup>9</sup>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 조중현은 《재경충남출신화가전》을 비롯해, 대전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충남화단의 채색화 분야에 족적을 남겼다. 작고

5 《제17회 조선미전》(1938)년 입선한 조중현의 〈응시(雄視)〉에 대해 김복진은 “場 내에서 오직 한 點의 翎毛畫. 展覽會 空氣를 過히 呼吸하여서 雷同性을 가지게 된 數 많은 畫家들에게 示唆가 있겠고”라고 평하였다. 김복진, 『第十七回 朝美展評』, 『朝鮮日報』(1938. 6. 9). 한편 윤희순은 “〈雄視〉는 소나무가 더 크거나 수리를 主體로 하거나 할 것이다. 이만한 實力으로 中心 重力을 鮮明히 하였더라면 成功하였을 것이다.”라고 평했다. 윤희순, 『第十七回 朝鮮美術展覽會評』, 『每日新報』(1938. 6. 12. (朝)). 이러한 평들을 통해서 화조·영모화로 두각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6 이구열, 앞의 책, p. 118.

7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39.

8 이구열, 앞의 책, p. 118.

9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충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18.

후, 1993년 절제된 색과 섬세한 필력이 돋보이는 작품을 모아 《조중현 회고전》이 개최되었다.

## 연보

- 1917년 충청남도 연기 출생
- 1936년 《제15회 조선미전》에 〈쇠재두루미(アネハ鶴)〉 입선
- 1937년 《제16회 조선미전》에 〈만추(晩秋)〉 입선
- 1937~1939년 일본미술학교에서 수학
- 1938년 《제17회 조선미전》에 〈웅시(雄視)〉 입선
- 1939년 《제2회 후소회전》(서울, 화신백화점화랑)에 〈비둘기(鳩)〉, 〈초여름(初夏)〉, 〈비에 취하다(吹雨)〉, 〈원앙(鴛鴦)〉 출품
- 1941년 《제20회 조선미전》에 고향 연기군에서 출품한 〈학(鷄)〉 입선  
《제4회 후소회전》(서울, 화신백화점화랑)에 〈원숭이(猿)〉, 〈꽃(花)〉, 〈과일(果)〉 출품
- 1942년 《제21회 조선미전》에 〈독수리(鷲)〉로 특선, 〈용설란(龍舌蘭)〉 입선  
《제5회 후소회전》(서울, 총독부미술관)에 〈어(魚)〉, 〈오리〉 출품
- 1943년 《제22회 조선미전》에 〈악어(鱷)〉 입선
- 1944년 《제22회 조선미전》에 〈대기(待機)〉로 조선총독상 수상
- 1946년 상명여자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 1948년 《동양화 7인전(東洋畫七人展)》(서울, 동화백화점) 개최
- 1950년 《두방신작전(斗方新作展)》(서울, 대운화랑)에 출품
- 1957~1971년 《백양회전》 참가
- 1958년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59년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 1960년 《미술동인전》(대전문화원) 참여
- 1961~1981년 《국전》 초대작가 · 심사위원 · 운영위원
- 1965~1982년 이화여대 교수 역임
- 1969년 《재경충남출신화가전》(대전, 충남예총화랑) 출품
- 1971년 《제8회 후소회전》(서울, 신세계백화점화랑)에 〈산양(山羊)〉, 〈석류(石榴)〉 출품
- 1973년 충남향우회 창립20주년 《초대작가서화전》(서울, 코스모스화랑) 출품
- 1974년 《개인전》(대전, 문헌화랑) 개최
- 1982년 작고

## 최정수(崔正秀, 1918~1999)



최정수, 〈매(梅)〉, 1980, 종이에 먹(출처: 『蓮坡叢書』, 대경출판사, 1980)

호는 연파(蓮坡). 1918년 충청북도 보은에서 출생한 최정수는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비롯한 한학을 배우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20대에 접어들면서 대전에서 일을 하며 고향인 보은과 대전을 왕래하다가 한국전쟁 이후 **대전에 정착**하였다.

최정수는 ‘추사체’에 매료되어 전국을 다니며 추사체를 복원하는 데에 힘을 쏟았다. 서법이 난해하여 서예가들이 접근을 꺼려하던 추사체를 배우기 쉽고 실용적으로 추사 필의(筆意)로 정립하여 『연묵천자(研墨千字)』, 『연파총서(蓮坡叢書)』, 『연파서집(蓮坡書輯)』, 『추사체천자문』, 『경전』, 『연파서정』, 『가언집』 등 10여종의 추사체 교본을 제작하여 추사 서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sup>1</sup>

1975년 ‘한국추사연묵회(韓國秋史研墨會)’를 설립하여 1982년부터 《제1회 추사체 연구 회원전》을 개최하며 많은 문하생과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1986년에는 수도산(修道山) 봉은사판전(奉恩寺板殿) 앞뜰에 〈추사 김정희선생 기적비(紀蹟碑)〉를 세우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현재는 아들 최영환이 ‘한국추사연묵회’를 물려받아 가학(家學)으로써 그 맥을 잇고 있다.

<sup>1</sup> 윤담, 「추사 김정희의 서체는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 『뉴스메이커』(2020. 1. 5).

## 연보

- 1918년 충청북도 보은 출생
- 1973년 홍성도와 함께 양성서도회 설립
- 1975년 한국추사연묵회(韓國秋史研墨會) 설립
- 1982년 《제1회 추사체 연구 회원전》(서울, 세종문화회관) 개최
- 1984년 《제3회 추사체 연구 회원전》(서울, 세종문화회관) 개최
- 1986년 수도산 봉은사판전(奉恩寺板殿)에 〈추사 김정희선생 기적비(紀蹟碑)〉 건립
- 1987년 《제6회 추사체 연구 회원전》(전주, 예총회관) 출품
- 1988년 《제7회 추사체연구 회원전》(서울, 신촌 크리스탈백화점 미술관) 출품<sup>2</sup>
- 1989년 『연파서징(漣波書徵)』(지음사) 출간
- 1990년 《제9회 추사체 연구 회원전》(서울, 세종문화회관) 출품
- 1992년 〈박사진순의비(朴士振殉義碑)〉 서비(書碑) 제작
- 1993년 『추사서체 천자문』(우일출판사) 출간
- 1994년 『화방팔람』(미술문화원) 출간
- 1994년 한국추사체연구회 주최 《가훈(家訓)작품전》 개최
- 1999년 작고

2 「추사체(秋史體)연구 회원전」, 『조선일보』(1988. 11. 17).

# 김재배 (金栽培, 1919~1994)



김재배, <추복(秋卜)>, 1957, 《제6회 국전》 입선작

호는 화당(和堂). 1919년 충청남도 공주 이인면에서 출생하였다. 유년시절부터 손재주가 뛰어나 목공예(木工藝)를 하였고, 한때 논산에서 중앙사진관을 경영하였다.<sup>1</sup>

이당 김은호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김은호의 제자들이 결성한 '후소회'에서 활동하며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1944년 김재배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제23회 조선미전》에 <조직(組織)>을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1957년 《제6회 국전》에 입선한 <추복(秋卜)>은 산속에 초가가 있는 산수화를 그리면서도 근경에 빨래하는 두 여인을 그려 풍속화적인 요소를 집어넣었다. 화면 중심에 커다란 나무를 배치하고 그 아래 인물을 배치해 화면 중심으로 시선을 모으고, 화면 뒤쪽의 산세는 선염으로 처리하는 중앙집중식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구열은 화당 김재배의 작품세계를 “고요하고 은근미에 가득 차 있다”며, 소박한 그의 화풍은 자신의 작품자체에만 충실한 온화하고 겸손한 성격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1972년부터 1980년까지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 강사를 역임했으며,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1973년, 충남향우회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충남 출신 서화가들의 《초대작가서화전》에 참여하여 지역화단의 활성화에 일조하였다.<sup>2</sup> 1977년에는 미술계 저변의 부조리한 권위주의와 인맥, 파벌에 대응하고자 반(反)국전 모임인 '대한미술원(大韓美術院)'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김영기, 김진황, 박생광, 정홍거 등 재야에서 정진하고 있는 작가들과 함께 단합하여 현 화단과 사

1 정확한 출생지는 공주시 이인면 이인리 249번지이다. 윤여현, 「공주 근대(近代) 향토작가 지상전(紙上展) -下-, 『웅진문화』21(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08), pp. 181~183.

2 충남향우회(회장 김제원)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코스모스화랑에서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이 전시에는 박노수·서세욱·신영상·조종현·민경갑·김재배·김화경·이종상, 서양화부에 김두환·이마동·이종무·장욱진·최덕휴·유희영, 서예부에 김기승·정환섭 등 19명의 충남 출신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했으며, 초대작품 외에도 민태식과 윤보선의 천조 작품품도 전시되었다. 「충남향우회(忠南鄉友會) 창립기념 초대, 『경향신문』(1973. 11. 10); 「초대작가서화전 충남향우회 주최, 『조선일보』(1973. 11. 7).

회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였다.<sup>3</sup> 1980년대에는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며 《미술대전》 심사위원, 단원미술제 심사위원에 위촉되었고, 1992년 《원로작가 회화전》에 참여하였다.

1994년 작고 이후 정부수립 50주년과 정부종합청사 대전 입주 기념으로 1998년 열린 《대전 충청지역 정부소장 미술특별전: 중원 미술의 향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작품이 전시되었다.

## 연보

- 1919년 충청남도 공주 이인면 출생
- 1943년 《제6회 후소회전》(서울, 화신백화점화랑)에 〈심추(深秋)〉 출품
- 1944년 《제23회 조선미전》에 〈조직(組織)〉 입선
- 1945년 《일본 남화원전》에 출품
- 1957년 《제6회 국전》에 〈추복(秋卜)〉 입선
- 1969년 부산역과 대구역 벽화제작 참여
- 1971년 《제8회 후소회전》(서울, 신세계백화점화랑)에 〈범〉, 〈추경(秋景)〉 출품
- 1972~1980년 경희대 미술교육과 교수 역임
- 1973년 충남향우회 창립20주년 《초대작가서화전》(서울, 코스모스화랑) 출품
- 1975년 오원미술연맹 주최, 《한일친선소품전》(대전, 미술회관)에 출품
- 1976년 《김재배 개인전》(진주, 백제화랑) 개최
- 1977년 김청강, 박생광 등과 함께 대한미술원(大韓美術院) 결성
- 1978년 《김재배 동양화전》(서울, 선화랑) 개최
- 1979년 《동양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자연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1년 《김재배 개인전》 개최  
《한국미술'81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2년 미술대전 심사위원, 단원미술제 심사위원, 한국작가협회 부회장 역임
- 1983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4년 '후소회' 회장 역임
- 1985년 《국제기독교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6년 《현대미술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살롱 드 아티스트 프랑세즈》(파리, 그랑팔레(Grand Palace))에 출품
- 1988년 《'88한국 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2년 《원로작가 회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4년 작고

3 「대한미술원(大韓美術院) 결성」, 『조선일보』(1977. 7. 24).

## 이팔찬(李八燦, 1919~1962)



이팔찬, <종화를 마치치고>(출처: 『Kunst der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Korea』 표지, 1959)

호는 한산(韓山). 이팔찬은 1919년 2월 9일 충청남도 공주 장기면 평기리 151번지에서 6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sup>1</sup> 1935년 대성중학 3년을 수료한 뒤 상경하여 김은호 문하에서 동양화에 대한 기초수업을 연마했다. 1939년 일본 제국 미술학교 일본화과에 입학하여 1943년 9월 25일 졸업했다.<sup>2</sup>

유학 중 1940년 《제3회 후소회전》에 <오음(五陰)>을, 같은 해 《제3회 백우회전》에는 <태산목>을 출품하였다. 또한 1940년 《제19회 조선미전》에서 <타조>로 첫 입선을 한 후 1943년까지 연속 입선했다.

1942년부터 1946년까지 공주여자사범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1943년에 윤희중의 셋째 딸 윤석원과 결혼했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휘문중학교 교사로 지냈다. 해방 직후 조선미술건설본부 회원에 가입하였으며, 1946년 조선조형예술동맹 회화부 맹원으로 활동했다. 이념적으로 가까웠던 김기창·정중여·조중현·이건영·이석호·박래현과 함께 1948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동화백화점 화랑에서

“민족미술 수립을 위한 동인전”을 목표로 《동양화 7인전(東洋畫七人展)》을 열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며칠 전인 6월 20일 이상범·김은호·이용노·배렴·장우성·이유태·김기창·이건영 등과 연 《두방신작전(斗方新作展)》은 월북 전 남한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참여한 전시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인민군에 입대한 이팔찬은 인민군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원 소좌로 임명되었으며, 6월 28일 조선인민군대가 서울을 점령하자 서울 국립미술제작소 총무과장 직책을 수행했다. 조선미술동맹의 간부 활동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동맹 위원들과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화 제작에 동원되었으며, 9월 28일 서울이 국군에 의해 재수복되기 직전 월북하였다.

1 이팔찬에 대한 개요 및 연보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복원-복으로 간 미술가들 저작목록』(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pp. 234~243을 참조했다.

2 한국근현대미술기록연구회 편저, 『제국미술학교와 조선인 유학생들』(눈빛, 2004), p. 170.

월북 직후 이팔찬은 조선 미술가동맹 현역미술가로 평양 및 지방에서 활동하며 여러 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했다. 1952년 개편된 평양미술대학에 1954년 동양화과가 신설되자 동양화과 교원으로 부임되었다. 이팔찬은 1952년 평양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미술전람회》와 195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팔찬, 《사만호》, 1960(출처: 『천리마』, 평양: 국립미술출판사, 1960. 7)

에서 열린 《조선의 자유를 위하여(Korea a szabadságért)》에 1951년 작 〈금강도하작전〉을 출품했다.<sup>3</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한 〈풍작〉과 〈총화를 마치고〉로 큰 주목을 받았다. 『조선미술』의 첫장에 당시 전람회를 참관했던 김일성과 정부 지도자들이 이팔찬의 두 작품 앞에서 찍은 사진이 실렸다.<sup>4</sup> 1959년 동베를린의 페르가몬박물관(Pergamonmuseum)에서 열린 《조선미술전람회(Koreanische Kunst)》에 〈풍년〉을 출품하여 독일 사회통일당 기관지에 소개되는 등 크게 주목을 받았다.<sup>5</sup>

최은석과 합작으로 〈중국인 부락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제작하여 조선혁명박물관에 소장되었다. 그 밖에 이팔찬은 1960년대 들어 북한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채색화 담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쓴 「우리나라에서의 채색화 발전」을 1962년 7월호 『조선미술』에 기고했다.<sup>6</sup> 같은 해 조선시대 복식을 채색인물화로 그려 엮은 『리조복식도감』을 출판했다. 1962년 작고한 것으로 보이나 사망 경위나 자세한 행적은 북한의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연보

- 1919년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평기리 151번지에서 육남매 중 막내아들로 출생
- 1935년 호정춘 대성중학 3학년 수료. 상경하여 김은호의 낙청헌에서 사사
- 1939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일본화과 입학
- 1940년 《제3회 후소회전》(서울, 화신백화점화랑)에 〈오음(五陰)〉 출품  
《제19회 조선미전》에 〈타조〉 입선, 《제3회 백우회전》에 〈태산목〉 출품
- 1941년 《제20회조선미전》에 〈하일(夏日)〉 입선

3 鄭律, 「祖國解放戰爭中的朝鮮美術」, 『美術』(1954年5期), p. 13; 『Korea a szabadságért』(1953), pp. 9~10.

4 「김일성 수상을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국가미술전람회를 참관」, 『조선미술』(평양: 조선미술사, 1958. 10), p. 3.

5 「Koreanische Kunst Ausstellung im Pergamon-Museum Berlin」, 『Neues Deutschland』(1959. 7. 6).

6 리팔찬, 「우리나라에서의 채색화 발전」, 『조선미술』(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2. 7), pp. 23~25.



- 1942년 《제21회 조선미전》에 〈설모(雪暮)〉 입선  
공주여자사범학교의 교사로 부임
- 1943년 《제22회 조선미전》에 〈支那의 부인〉 입선  
일본 제국미술학교 졸업
- 1945년 조선미술건설본부 회원
- 1946년 휘문중학교의 교사로 재직  
조선조형예술동맹 회화부에서 활동
- 1948년 《동양화 7인전(東洋畫七人展)》(서울, 동화백화점) 개최  
명동에 동양화연구소를 설립하여 미술인 양성
- 1950년 《제7회 후소회전》(서울, 동화화랑)에 〈여름정원(夏庭)〉, 〈만추(晩秋)〉 출품  
《두방신작전(斗方新作展)》(서울 충무로, 대운화랑(大允畫廊))에 출품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여 인민군 전선사령부 문화훈련국원 소좌 역임  
서울 국립미술제작소 총무과장 직책 수행  
조선미술동맹의 간부 활동으로 김일성, 스탈린의 초상화 제작에 동원  
9월 28일 서울 수복을 기점으로 월북
- 1951년 조선미술가동맹 현역미술가로 평양 및 지방에서 활동
- 1952년 평양에서 열린 《조국해방전쟁미술전람회》에 〈금강도하작전〉 출품
- 1953년 《조선의 자유를 위하여(Korea a szabadságért)》(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금강도하작전〉 재출품
- 1954년 평양미술대학의 동양화과 교원으로 부임
- 1955년 《8·15 해방 10주년 기념미술전람회》에 〈평양은 일떠선다〉, 〈농악〉 출품
- 1957년 《10월 혁명 40주년 경축 전국미술전람회》에 〈황해제철소 복구건설〉 출품
- 195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국가미술전람회》에 〈풍작〉과 〈총화를 마치고〉 출품
- 1959년 《조선조형예술전람회(朝鮮造型藝術展覽會)》(중국 북경)에 〈풍작〉, 〈평양은 일떠선다〉 출품  
《조선미술전람회(Koreanische Kunst)》(독일 동베를린, 펠가몬박물관)에 〈풍작〉, 〈총화를 마치고〉 재출품
- 1960년 조선화분과 집체창작단에 참여하여 〈영광의 오늘〉 제작
- 1961년 최은석과 합작하여 〈중국인 부락에서의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 제작
- 1962년 『조선미술』(1962년 제7호)에 「우리나라에서의 채색화 발전」 게재  
『리조복식도감』(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2) 발행  
작고

## 황영준 (黃榮俊, 1919~2002)

호는 화봉(華峯). 1919년 충청남도 논산군 계룡산에서 출생하여 옥천군 보통학교에서 수학했다.<sup>1</sup> 1931년 상경하여 낙칭헌에서 김은호에게 그림을 배우며 1943년 《제6회 후소회전》에 〈초추(初秋)〉를 출품했으나 다른 후소회 회원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황영준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린 것은 해방 후의 일이다.

황영준은 1949년 1월 서양화가 홍인표와 함께 《교통부우회미술전(交通部友會美術展)》을 개최했다.<sup>2</sup> 이 전시를 본 서강헌의 평에 따르면 황영준이 기존 동양화 장르의 형식에서 탈피해 반고흐 식의 점묘법을 시도하였으며, 사회현실을 주제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데생력의 부족에서 오는 사실성의 결함을 지적했다.<sup>3</sup> 1950년 봄에는 교통부우회 미술부 주최로 조병룡과 함께 《2인 합작 미술전람회》를 개최했다.<sup>4</sup> 이 전시는 지난 5년간 제작한 작품 가운데 〈철길〉, 〈공장풍경〉, 〈농촌풍경〉, 〈도시풍경〉 등 25점을 선별하였으며, “미력하게나마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여주려 하였다”는 리재현의 글을 볼 때 두 전시가 모두 현실 비판 의식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황영준은 아내와 자식을 남겨두고 홀로 월북하였다. 월북 후 황영준은 전투부대에 파견되어 직관선전(선전화)을 제작하였고, 1956년 조선로동당 제3차 전당 대회 경축을 위한 《선전미술전람회》에 〈현물세〉(260×170cm)를 출품하여 조선화 부문의 대표작으로 선정되었다.<sup>6</sup> 황영준은 1957년경부터 1960년 8월까지 평양미술대학 조선화과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1958년 9월 황영준은 평양미술대학 조선화학부의 보천보 실습조를 책임지고 학생들과 함께 빨치산 전적지인 보천보를 1개월간 답사한 후, 『조선미술』 1959년 제2호에 시기 형태의 글로 발표했다.<sup>7</sup> 또한 황영준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백두산 지구의 혁명전적지를 여러 차례 답사하며 제작한 천여 점에 달하는 습작을 바탕으로, 국가미술전람회와 두 차례의

1 충남 논산 출생설은 북한에서 나온 리재현이 쓴 『조선력대미술가편람(증보판)』(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p. 377)를 따른 것이나 2002년 3월 5일 황영준의 사망 당시 유언을 받아적은 양아들 황영철은 황영준이 충북 옥천군 매화리에서 출생했고, 옥천군 보통학교에서 수학했다고 기록했다. 홍지석, 『동양화와 조선화 사이: 황영준의 생애와 작품세계』, 『조선화가 아카이브-황영준』(경인일보사, 2020), p. 246; 황영준의 막냇동생은 황영준이 충남 논산군 연산면 덕암리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김민재, 「형은 옥천 아닌 논산서 태어나」 남북 공동연구 필요성 제기, 『경인일보』(2020. 1. 31).

2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동화화랑에서 개최」, 『교통부우회미술전 동화화랑에서 개최』, 『경향신문』(1949. 1. 7).

3 서강헌에 의하면 황영준은 “동양화의 ‘장르’를 타파함에는 엑센 의도는 가히 알 수 있으나 너무 지나친 폭발로 말미암아 동양화적인 생명을 상실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견 ‘반고흐’적 수법인 점묘법을 사용하였는데 대상의 부족으로 오는 무리”를 문제 삼았다. 또 이 전시에 “기관차 흙 철길 등 주제는 매우 현실적이면서 화면의 사실부족이 결함일 것이다.”라고 평했다. 서강헌, 『洪仁杓 黃榮俊 二人展 短評』, 『조선일보』(1949. 1. 14).

4 「4월 6일부터 13일까지 황영준, 조병룡 랑씨 2인전 개최」, 『연합신문』(1950. 4. 9).

5 리재현, 앞의 책, p. 377.

6 「조선 로동당 제3차 전당 대회 경축-선전미술전람회」, 『미술』(평양: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1956. 2), p. 73.

7 황영준, 「나의 창작 경험: 혁명 전적지를 찾아서」, 『조선미술』(평양: 국립미술출판사, 1959. 2), p. 37.



황영준, 〈1937년 5월 20일 항일 유격대가 숙영하던 곳〉, 1959(출처: 『조선미술』, 평양: 국립미술출판사, 1959. 2)



황영준 · 로선주 · 안상목, 〈소백수의 아침〉, 1968, 조선화, 150×224cm(출처: 『오늘의 조선화』, 평양: 조선화보사, 1990)

개인전을 열어 ‘혁명전적지 화가’라고 불릴 정도로 이 분야에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sup>8</sup>

1960년 황영준은 평양미술대학교를 사직하고 1961년 조선미술가동맹 량강도 지부에서 창작집단을 구성해 조선화 〈수상동지 현지교시 받들고 지상 락원 이루자〉를 제작하였고, 1966년부터 평안남도 남포시 미술가 동맹 위원장을 맡아 안상목, 로선주와 합작으로 〈소백수의 아침〉(1968), 〈근거지의 봄〉(1968)을, 윤형섭과는 〈결판을 내자〉(1968)를 제작했다. ‘혁명전적지 풍경화’와 더불어 황영준의 대표작들인 이 작품들은 황영준이 1960년대 초반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집체창작을 주도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sup>9</sup>

1970년대 들어 황영준은 석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이전보다 더욱 큰 화면에 화려한 조선화를

제작했다. 리재현은 황영준이 개성적인 화풍을 수립한 미술가 중 한 사람이라며 “묘사 대상의 형태처리를 선묘 위주로 하면서 짧은 선과 점으로 형상을 완결 짓고 있으며 색채 처리에서도 자기식의 독특한 형상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sup>10</sup> 이러한 공로로 황영준은 1988년 공훈예술가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노년에는 송화미술원의 명예고문을 역임하며 존경받는 원로작가로 안온한 삶을 누리다 생을 마감했다. 황영준은 풍경, 산수, 화초, 인물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북한의 조선화 기틀을 잡는 데 기여한 작가라 할 수 있다.<sup>11</sup>

8 홍지석, 앞의 글, p. 249.

9 조선화가 이석호는 이 작품들이 “당과 인민 앞에 좋은 그림을 내놔야 한다는 집단정신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정관철, 길진섭, 리석호, 리건영, 조인규 등, 「천리마 현실과 집체창작-집체창작 성원들의 좌담회」, 『조선미술』(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1. 11), p. 10; 홍지석, 앞의 글, p. 25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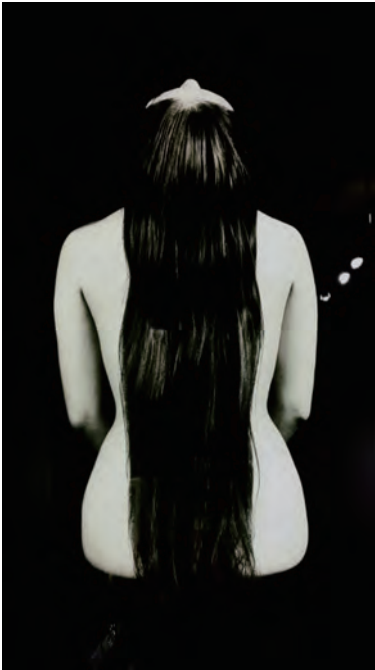
10 리재현, 앞의 책, p. 378.

11 김천일, 「황영준의 화풍과 작품 기법」, 『경인일보』(2020. 2. 14).

## 연보

- 1919년 충청남도 통산군(현 논산군) 계룡산 출생
- 1931년 상경, 낙청헌에서 이당 김은호 사사
- 1943년 《제6회 후소회전》(서울, 화신백화점화랑)에 〈초추(初秋)〉 출품
- 1949년 서양화가 홍인표와 《2인 합작 미술전람회》(서울, 동화화랑) 개최
- 1950년 《제7회 후소회전》(서울, 동화화랑)에 〈풍경(風景)〉 출품  
조병룡과 《2인 합작 미술전람회》 개최  
9·28 수복을 앞두고 월북
- 1955년 조선화 〈평로는 복구된다〉(조선미술박물관 소장) 제작
- 1956년 《선전미술전람회》에 〈현물세〉를 출품하여 조선화 부문 대표작으로 선정
- 1957~1960년 평양미술대학 조선화과 교원으로 재직
- 1958년 〈보천보 풍경〉 제작
- 1959년 〈별목공〉, 〈류별공〉(조선미술박물관 소장) 제작  
「혁명 전적지를 찾아서」를 『조선미술』에 기고
- 1960년 〈흥기하진투〉 제작
- 1961년 유화가 김삼록, 정보영, 조선화가 홍영표, 출판화가 리영춘과 〈수상동지 현지교시 받들고 지  
상 락원 이루어자〉 합작, 〈백두고원〉 제작
- 1966년 평안남도 남포시 미술가 동맹 위원장 역임
- 1966~1985년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 송화미술원 명예고문 역임
- 1968년 안상목, 로선주와 〈소백수의 아침〉, 〈근거지의 봄〉 합작  
윤형섭과 〈결판을 내자〉 합작
- 1973년 「조선화재료를 확대발전 시키는 것은 주체적인 화법발전의 물질적 담보」를 『조선예술』에  
기고
- 1988년 공훈예술가 칭호 수여됨
- 2002년 작고

## 성재경 (成在慶, 1920~1997)



성재경, 〈흑발〉, 1965, 《제14회 국전》 특선작  
(출처: 『한국사진사구술프로젝트』, 한국사진  
문화연구소, 2010)

1920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성재경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견습생 신분으로 사진을 배웠다.<sup>1</sup> 성재경의 활동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1951년 설립한 ‘충남사진연우회’ 활동부터이다.<sup>2</sup> ‘충남사진연우회’는 충청남도 공보과장 장군(張筠)이 주도하여 설립한 단체로 성재경은 정현태, 박여일 등 총 11명과 함께 1952년 창립전인 《제1회 사진동우회전》을 개최하며 대전, 충청 지역 사진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후 1952년 정현태, 정희섭, 장병환과 함께 대전미국공보원에서 《사진동인전》을 개최하며 대전 사진계의 지평을 열었다.<sup>3</sup>

성재경은 대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사진작가 연합단체인 ‘한국사진작가협회’에도 가담하였으며,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부산에서 열린 《제1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전》에도 참여하였다.<sup>4</sup> 이후 1964년 《제13회 국전》에서 〈여인〉으로 입선, 1965년 《제14회 국전》에서는 〈흑발(黑髮)〉로 특선을 차지했다. 이는 국전에 사진부문이 편입된 1964년

이후 충남 출신 사진작가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전에서 특선한 이듬해인 1966년 성재경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지부 지부장을 맡았으며, 《제17회 국전》과 《제29회 국전》에서 각각 〈누드〉와 〈어촌 소경〉으로 입선하는 등 대전 사진의 중흥기를 이끌었다.

성재경은 국전 특선작인 〈흑발〉과 같이 뚜렷한 배경 없이 화면 중앙에 대상이 되는 인물을 크게 강조한 ‘인물사진’을 주로 촬영하였다. 이는 조형성 탐구를 예술사진의 본령으로 삼았던 ‘한국사진작가협회’의 회화주의(pictorialism) 노선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무렵부터 ‘생활주의’로 대변되는 리얼리즘 사진이 주를 이루게 되면서 ‘인물사진’에 예술성을 부

1 성재경 아들 성기영과의 전화인터뷰(2021. 10. 28).

2 ‘충남사진연우회’ 회원은 성재경, 정현태, 박여일, 정희섭, 장병환, 장군, 송영현, 김재위, 권용직, 허두천, 임택준이다. 한상현, 김창수, 「문화기반 조성과 향토예술인의 형성」, 『대전 향토예술인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대전세종연구원, 2018), p. 41.

3 최원진, 「대전·충청 사진의 현황과 과제」, 『계간예술문화비평』 제4호(한국예술문화비평가협회, 2012), p. 45.

4 ‘한국사진작가협회’는 한국전쟁 중인 1952년 12월 12일에 부산에서 현일영, 임석제, 임응식 등 16명의 회원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김소희, 「1952~1961년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전 관련 자료」, 『사진+문화』 8(한국사진문화연구소), pp. 7~8.

여히는 양식은 더 이상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성재경은 ‘인물사진’의 대중화를 위해 대전에 ‘성사진관’을 열었다. 성사진관은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프로펠사진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물사진을 촬영하며 운영되었다. 그러나 대전 사진사에 성사진관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당시 사진가들이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정보와 전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성재경의 작고 이후 현재는 아들이 가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업을 확장시켜 1990년 대흥동(대전)에 제2스튜디오를 열었다. 성재경은 인물사진을 통한 예술성과 대중성을 꾀하며 대전 사진예술의 지평을 열었던 사진가라 할 수 있다.

## 연보

- 1920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51년 ‘충남사진연우회’ 설립
- 1952~1960년 충남사진연우회 창립전 《제1회 사진동우회전》 개최  
1960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충남사진연우회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52년 《제1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전》(부산, 국제구락부화랑)에 〈아침〉 출품  
《사진동인전》(대전미국공보원)에 출품
- 1953년 《제2회 한국사진작가협회전》(부산, 국제구락부화랑)에 〈수련〉 출품
- 1964년 《인상사진 콘테스트》에서 〈여인〉으로 특선<sup>5</sup>  
《제13회 국전》에서 〈여인〉으로 입선
- 1965년 《제14회 국전》에서 〈흑발(黑髮)〉로 특선
- 1966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남지부 지부장 역임
- 1968년 《제17회 국전》에서 〈누드〉로 입선
- 1975년 《충남미전》(사진부) 초대작가로 지정
- 1980년 《제29회 국전》에서 〈어촌 소경〉으로 입선
- 1981년 《제1회 현대스튜디오 ‘인상사진 콘테스트’》에서 〈포트레이트〉로 금상 수상
- 1992년 《대한민국 사진전》(서울, 미술회관)에 입선
- 1997년 작고

5 《인상사진 콘테스트》는 한국영업사진가협회와 국일사진화공(國一寫眞化工) 주식회사가 공동주최한 최초의 인물사진 공모전이다.

## 최창식 (崔昌植, 1920~?)

1920년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금주리에서 출생한 최창식은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나온 후 예산에서 농업학교를 다녔다. 예산농업학교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최창식은 미술에 뜻을 두고 대구사범학교에서 단기강습을 받은 후 일본에 건너가 도쿄의 회화연구소에서 그림을 배웠다. 부친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중퇴를 하고 고향에 돌아와 예산과 서울 등에서 교사로 활동했다.<sup>1</sup>

1949년 《제1회 국전》 서양화부에 아들 이름인 최광진으로 〈석고 있는 정물〉을 출품하여 특선을 수상했다. 무명이었던 최창식의 이 작품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다. 국전 심사위원장인 이인성은 이 작품에 대해 “유화의 자재를 잘 살린 점은 어느 작가보다 우수함은 틀림없는 작품이다. 석고의 흰빛과 주변물 등의 색감도 비교적 익어가는 가을과 같은 화면이다”라고 했고,<sup>2</sup> 박영선은 “화면 구성에서 껍 노려한 것이 엿보이며 색조와 촉감이 우아하며 진실성 있는 작가이다”라고 평가했다.<sup>3</sup> 남관은 국전의 심사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며 최창식의 화력(畫歷)이 아직 조선에서 존재가 없기 때문인지 〈석고 있는 정물〉이 입상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sup>4</sup> 그러면서 국가적인 전람회에서 이런 작품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을 정도로 당시 이 작품은 미술가들 사이에서 수작으로 인정받았다. 도판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형태와 색채는 알 수 없지만, 북한에서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았던 작가답게 데뷔작부터 이목을 집중시켰다.

30대 초반,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최창식은 한국전쟁에 의용군으로 입대했다가 월북했다.



최창식, 〈석고 있는 정물〉, 1949, 《제1회 국전》 특선작

1953년 제작한 〈351고지를 지키는 용사들〉로 《조선인민군 제3차 미술전람회》에 입상한 최창식은 1954년 제대한 후 북한의 전승기념관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이후 철도부 미술창작사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 특히 길진섭과 여러 작품을 공동으로 제작했는데, 합작품으로 〈광주학생운동〉(1959), 〈해금강만물상〉(1960)이 있다. 1950~1960년대 북한의 쟁쟁한 미술가들로 알려진

1 리재현, 『조선력대미술가편람(증보판)』(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p. 396.

2 이인성, 「국전작품평-제이부 양화편」, 『국제보도』22호(1950. 1. 25), p. 25.

3 박영선, 『민성(民聲)』(1950. 1), p. 78.

4 남관, 「미술계의 1년」, 『신천지』 22호(1950. 1).

장혁태, 송찬형, 길진섭과 공동 창작한 <전쟁이 끝난 강선 땅에서>(1961)는 ‘형상의 기념비성과 회화적 묘사의 구체성, 성격창조의 우수성’ 등에서 뛰어나 북한미술의 성과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이 청봉의 밀림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청봉의 아침>(1966)은 작식대원(취사병)들의 생활을 탐구해 풍부한 예술성을 보여준 최창식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미술가로서 북한의 각종 미술전람회에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고, 오랜 기간 미술가들을 양성한 공로로 공훈미술가 칭호를 받았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작가는 아니지만, 북한미술계에서는 작품의 색채가 차분하고 유화의 특징을 잘 살려 깊이 있는 형상을 창조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sup>5</sup>

## 연보

- 1920년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금주리에서 출생  
예산농업학교 졸업  
대구사범학교에서 단기 강습, 도쿄 회화연구소에서 미술 수업  
귀국 후 예산, 서울 등지에서 교사생활
- 1949년 《제1회 국전》 서양화부에 <석고 있는 정물>로 특선(최광진으로 출품)
- 1950년 의용군으로 입대했다가 월북
- 1953년 《조선인민군 제3차 미술전람회》에서 <351고지를 지키는 용사들>(40호)로 입상
- 1954년 제대 후 전승기념관에서 미술작품 창작 / <탈곡장에서>(300호) 제작
- 1955년 <대동강의 아침>(80호), <아침>(20호), <강가에서>(10호) 제작
- 1956년 <조국>(200호) 제작
- 1957년 <모란봉> 제작
- 1958년 <집선봉의 아침>(20호), <전우>(10호) 제작
- 1959년 <우의담 벽화>(합작), <벽 돌베 닿는 곳>(40호), <광주학생운동>(100호) 제작
- 1960년 <해금강만물상>(길진섭과 합작, 500호) 제작
- 1961년 <고난의 40일>, <전쟁이 끝난 강선땅에서>(길진섭 · 장혁태 · 송찬형과 합작) 제작
- 1966년 <청봉의 아침> 제작
- 1968년 <항쟁의 거리> 제작
- 1974년 반경화 <1211고지 전투원들에게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사병들의 투쟁> 제작
- 1975년 유화 <덕팔선련보식철다리 건설장에서> 제작
- 1977~1987년 <간도에 사무친 원한>(1977), <건창에서>, <백두밀영>(1979), <대동강 기슭을 따라>(1983), <청년공원에서>(1984), <전선길은 이어졌다>(1985), <보통강반에서>(1986), <광주의 어머니>, <학사대풍경>(1987) 제작

5 리재현, 앞의 책, p. 397.



# 김화경 (金華慶, 1922~1979)



김화경, 〈세배(歲拜)〉, 1940, 《제19회 조선미전》 입선작

호는 유천(柳泉). 1922년 충청남도 아산의 읍내에서 상업을 하고 있던 비교적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제대로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던 김화경은 그림에 뜻을 두고 15세에 김은호, 서양화가 박광진, 조각가 김복진이 종합미술학원으로 개설한 ‘조선미술원’의 연구생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조선미술원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문을 닫자 조선미술원에서 배웠던 김은호가 운영하던 낙청헌에서 수학하였다.<sup>1</sup>

조선미전에서 화가로 이름을 알리기 전 김화경은 1938년 10월부터 1940년 8월까지 『동아일보』에 「어린이만화」를 연재했다.<sup>2</sup> 김화경이 화단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40년 《제19회 조선미전》에 〈세배(歲拜)〉가 입선하면서이다. 이때 신문에는 김화경의 사진과 함께 “은사되시는 김은호 선생의 장려와 채죽질로 밤잠을 아니자고 공부한 결과로 이번에 영예의 입선을 보게 되었습니다.”<sup>3</sup>는 기사가 실렸다. 김화경은 1940년부터 김은호의 문하생들로 이루어진 《후소회전》에 참여하여 〈토향(土鄕)〉, 〈기(妓)〉, 〈한정(閒庭)〉 등을 출품했다.<sup>4</sup>

체계적인 미술교육을 받고자 김화경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941년 9월 제국미술학교 일본화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1942년 2월 중퇴를 하고, 1943년 4월 1일 재입학했다가 같은 해 11월 30일 또다시 중퇴를 했다.<sup>5</sup> 이렇게 입학과 중퇴를 반복했지만 제국미술학교에 입학한 1941년부터 그만 둔 1943년까지 조선미전에는 꾸준히 작품을 출품했다.<sup>6</sup> 1942년과 1943년은 출품지가

1 이구열, 『靑餘叢稿 ①근대한국미술 작가와 작품』(에이엠아트, 2018), pp. 118~119.

2 『동아일보』에 연재된 김화경의 만화는 1938년 10월 9일 「매맞은 친절」로 시작해 1940년 8월 6일 「고양이를 잡으려다가」까지 거의 한 달에 한 편씩 15편이 실렸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코믹한 내용을 4~6컷 만화로 이루어진 이 만화는 단순하면서도 귀여운 캐릭터로 꽤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미전 입선자의 특이한 사례를 실은 『동아일보』 기사에는 “반가운 것은 우리 어린 어린이 일요지에 번번히 만화를 발표해서 여러 분의 갈채를 받아오던 김화경 씨가 이번에 동양화에 입선이 되었습니다. … 우리 동무들의 언니되시는 여러분이 입선을 하신 중에 우리와 만화를 통하여 가장 가까운 김화경 씨의 입선을 보게 된 것은 실로 기쁜 일입니다.”라는 내용이 실렸다. 『全朝鮮美術展覽會에 입선자는 三八八인』, 『동아일보』(1940. 6. 2).

3 위의 기사, 『동아일보』(1940. 6. 2).

4 「후소회전 연일 대성황」, 『매일신보』(1940. 11. 7); 이구열, 『화단일경』(동양출판사, 1968), p. 126.

5 한국근현대미술기록연구회, 『제국미술학교와 조선인 유학생들』(눈빛, 2004), p. 132.

6 1941년까지는 조선미전 입선작 명단에 ‘김화경’으로 나오나, 1942년, 1943년 입선작 목록에는 카네야마 카케이(金山華慶)이라는 이름을 사

충남 금산으로 되어 있다. 《제21회 조선미전》에 입선한 〈3인의 여자(三人の女)〉에 대해 최근에는 “얼굴과 의복의 색감 등에 개성 있는 묘사를 바란다”는 충고를 하며 후소회 회원들의 틀에 박힌 제작태도를 비판했다.<sup>7</sup> 그래서인지 《제21회 조선미전》까지는 〈세배〉(1940), 〈장고(長鼓)〉(1941), 〈3인의 여자〉(1942)처럼 이당 김은호에게 배운 세필 채색인물화를 출품하였으나 1943년 《제22회 조선미전》에는 자신의 고향 풍경을 소재로 한 〈온양교외(溫陽郊外)〉를 출품해 입선했다.<sup>8</sup>



김화경, 〈설경(天撒飛雪)〉, 연도미상, 120x120cm, 아라리오 뮤지엄

그러나 1949년 『경향신문』에 “인체를 제작하는 화가와 조각가에게 골격과 근육 등을 다루는 해부학은 미술가를 위한 기초학문”이라고 주장하며 인물화 제작을 위해 해부학 학습의 필요성을 역설했을 정도로 1950년대까지는 김화경의 작품은 인물화가 중심을 이루었다.<sup>9</sup>

해방 후 김화경은 《백우회전》에 1회부터 8회까지 참여했으며, 한국전쟁 이후 열린 1953년 《제2회 국전》에 전쟁을 소재로 한 〈설중남하(雪中南下)〉를 출품해 입선했다. 그러나 1954년 《제3회 국전》 동양화부에서 어이없이 낙선을 하자 정진철 등과 함께 심사위원 구성의 편파성에 대한 불만을 행동으로 옮긴 《낙선작품전람회》(화신백화점화랑)를 열어 논란이 되었다.<sup>10</sup> 이렇게 김화경은 중앙화단에서 화가로서 목소리를 내는 한편, 1958년 한유동, 김성재 등과 함께 ‘녹청회(綠靑會)’를 발족하여 지역미술 발전을 도모하며,<sup>11</sup> 1960년까지 15년 넘게 천안 등지에서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지냈다.

1960년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긴 김화경은 한국미협 동양화부 분과위원장 및 이사를 지내며, 후소회를 비롯해 1959년 가입한 중견 동양화가 단체인 백양회를 중심으로 국내외 미술단체전에 참가했다. 또한 국전에서 연속 특선을 거쳐 추천·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1964년부터 1971년까지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화단에서 확고한 위치를

용한 것으로 보아 제국미술학교 입학에 대해 창씨개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미전 입선작 목록은 한국미술연구소 편, 『朝鮮美術展覽會 記事資料集』(시공사, 1999) 참조.

7 崔木朗, 「鮮展東洋畫評」, 『朝光』第8卷7號(1942. 7); 한국미술연구소 편, 위의 책, p. 684 재인용.

8 이구열, 앞의 책, p. 119.

9 「屍體의 모델 美術解剖學의 起因」, 『경향신문』(1949. 1. 21).

10 이구열, 『근대한국미술사의 연구』(미진사, 1992), pp. 469~470.

11 「문화계 소식-綠靑會 發足」, 『경향신문』(1958. 4. 9).

정립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화단에서의 위상에 따라 화법에도 변화를 보였다.

김화경의 작품은 1950년대 이전까지는 간헐적으로 서정적인 농촌의 자연풍경을 시도하였으나 대부분은 김은호 계열의 채색화법으로 이루어진 인물화와 화조화가 중심을 이루었다. 1960년 무렵부터는 토속적인 농촌 풍경을 작가만의 독특한 수법으로 정립해 나갔다.<sup>12</sup> 전통적인 수묵화 기법을 따르면서도 화제를 향토적인 농촌의 정취 표현에 국한시킨 낭만적인 분위기와 필치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했다. 특히 김화경은 눈 내린 농촌의 초가집을 반복적으로 그렸다. 김화경이 그린 설경은 초가지붕의 과장된 형태, 하얀 눈밭에서 뛰어노는 강아지와 까치 등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를 호분을 사용한 눈송이의 독특한 질감과 단순한 화면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러한 김화경의 설경 그림은 새해 연하장으로 많이 사용되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사후 《1950년대 동양화전》(국립현대미술관, 1980), 《한국근대미술:수묵, 채색화-근대를 보는 눈》(국립현대미술관, 1988), 《한발미술의 여정: 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 2008), 《낮익은 해후: 충남 작가 초대전》(천안 아라리오) 등에 작품이 전시되었다.

## 연보

- 1922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출생
- 1937년 서울의 조선미술원 연구생, 이당 김은호 사사
- 1938~1940년 『동아일보』에 어린이 만화 연재(15회)
- 1939년 《제2회 후소회전》(서울, 화신백화점화랑)에 〈풍경(風景)〉 출품
- 1940년 《제19회 조선미전》에 〈세배(歲拜)〉로 입선  
《제3회 후소회전》(서울, 화신백화점화랑)에 〈토향(土鄕)〉, 〈기(妓)〉, 〈국화(菊)〉 출품
- 1941년 9월 19일 일본 제국미술학교 일본화과 입학  
《제19회 조선미전》에 〈장고(長鼓)〉 입선  
《제4회 후소회전》(서울, 화신백화점화랑)에 〈한정(閒庭)〉 출품
- 1942년 2월 10일 일본 제국미술학교 중퇴  
《제21회 조선미전》에 〈세여인(三人の女)〉 입선  
《제5회 후소회전》(서울, 충독부미술관)에 〈유월 무렵(六月頃)〉 출품
- 1943년 4월 1일 일본 제국미술학교 재입학, 11월 30일 중퇴  
《제22회 조선미전》에 〈온양교외(溫陽郊外)〉 입선  
《제6회 후소회전》(서울, 동화화랑)에 〈눈(雪)〉 출품  
《제6회 재동경조선미협전》(경북궁미술관) 참여
- 1944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사범과 졸업

12 이구열, 앞의 책, p. 120.

- 1953년 《제2회 국전》에 〈설중남하(雪中南下)〉 입선
- 1954년 《제3회 국전》에서 낙선한 동양화가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한 《낙선작품전람회》(화신백화점 화랑, 1944. 11. 10~15) 주도
- 1958년 《반공미술전》 동양화 부문 수석상 수상  
김성재, 정택은, 한유동, 황진국, 허훈과 함께 '녹청회' 발족
- 1961년 《한·일친선국제자유미술전》(일본), 《백양회전》, 《후소회전》 참가
- 1962년 5·16 컷돌 기념으로 공보부 주관으로 열린 《신인예술상전》에서 〈토끼를 키우는 집〉으로 장려상 수상<sup>13</sup>
- 1964년 《김화경 개인전》(서울, 신문회관) 개최
- 1964~1971년 수도여자사범대학교(현 세종대학교) 교수 역임
- 1965~1966년 한국미술협회 동양화부 분과위원장 역임
- 1965~1975년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 1966년 《김화경 개인전》(서울, 싸롱파고동화랑) 개최
- 1968~1969년 서울시 교육위원회 미술과 장학위원 역임
- 1969~1970년 한국미협 이사 및 동양화 분과위원장 역임
- 1970년 《칸느 국제회화제》 참여
- 1971년 《제8회 후소회전》(서울, 신세계백화점화랑)에 〈가을〉, 〈겨울〉 출품
- 1973년 충남향우회 창립20주년 《초대작가서화전》(서울, 코스모스화랑)에 참여  
《한국현대작가 100인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6년 《한국현대동양화대전》에 출품
- 1979년 작고

13 당시 신문에 “제3회 미술전람회(국전)에 출품하였다가 낙선된 작품의 작가인 동양화가들이 비록 낙선은 되었지만 작품을 한번 일반에게 공개해보겠다고 10일부터 15일까지 화신백화점화랑에서 색다른 낙선작품 전시회를 연다고 한다. 그리하여 주최 측에서 낙선 작가들에게 9일까지 화신화랑으로 작품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國展’ 落選東洋畫』, 『조선일보』(1954. 11. 4)). 이구열은 이 전시가 김화경과 정진철에 등에 의해 열렸다고 쓰고 있다. 이구열, 앞의 책, p. 369.

## 최덕휴(崔德休, 1922~1998)



최덕휴, 《무사시노 농장》, 1942, 캔버스에 유채, 73×91cm, 국립현대미술관

최덕휴는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해 서울 휘문중학교(현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했다.<sup>1</sup> 1941년 일본 제국 미술학교 본과 서양화과에 입학해서 1943년 중퇴했다.<sup>2</sup> 1944년부터 1946년까지 중국 국부군 및 한국 해방군 장교로 중·일 전쟁에 참가했다.<sup>3</sup> 해방 후인 1946년부터 1950년까지 홍성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동덕여자중·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다시 군에 입대해 1956년 5월까지 육

군본부와 국방부에서 복무했고, 이후 교직에 복직했다. 1960년부터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했고 1980년 경희대학교 사범대학장으로 취임해 1987년에 정년 퇴임했다.

최덕휴는 1950년 군복무 중에도 개인전을 열어 ‘군인화백’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1950년 《제1회 개인전》을 경기여자중학교의 후원으로 동화백화점 화랑에서 개최했으며 1952년에는 성림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후 1991년의 고회전까지 총 28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1956년, 1958년, 1959년에는 국전에서 특선을 차지했으며, 1966년에는 국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1981년까지 꾸준히 국전에 참여했다. 최덕휴는 1958년 구상작가들의 단체인 ‘목우회’ 창립멤버로 이종우, 도상봉, 박득순, 박상옥 등과 함께 활동했다. 1965년 이후에는 국제미술교육세계총회(INSEA)의 이사 및 사단법인 국제미술교육연구협회 한국위원회(INSEA-Korea) 이사장, 국제미술교육아시아 회장, 대한교련 산하 한국미술교육회 회장을 역임했다. 또 1951년 무공훈장 화랑장을 비롯해, 1980년 문교부장관 표창, 1987년 국민훈장 모란장, 1991년 3·1문화상(예술) 등 많은 상을 수상한 작가이다. 198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의 자연전》과 《한국미술'81전》에 참여했고,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현대미술초대전》에 초대되

1 최덕휴 관련 정보는 『최덕휴전』(서울시립미술관, 2011) 참조.

2 한국근현대미술기록연구회 편저, 『제국미술학교와 조선인 유학생들』(눈빛, 2004), p. 181.

3 『덕수궁미술관 개관 기념 : 다시 찾은 근대미술』(국립현대미술관, 1998), p. 185.



최덕휴, <정릉과 미아리>, 1982, 캔버스에 유채, 100.5×223.5cm, 서울시립미술관

기도 했다.

일본 유학 시절인 1941년(20세)에 그린 <무사시노 농장>에서는 대상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방식과 색상의 혼합, 질감에 관한 탐구 등 최덕휴가 평생에 걸쳐 구사해온 양식이 감지된다.<sup>4</sup> 최덕휴의 작품은 산과 전원, 도시, 부두, 어선 등 풍경을 소재로 다룬 구상화가 중심을 이루며, 1960년대 초반 비구상적 표현도 시도했다. 1970~1980년대에는 서울 풍경을 집중적으로 그리며, 서울이라는 도시에 남다른 애착심을 보였다. 이 시기 대표작으로 <남산에서 보이는 서울 풍경>(1980)과 <정릉과 미아리>(1982) 등이 있다.

미술평론가 이경성은 최덕휴의 작품세계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인생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곧 화가 최덕휴의 감정을 따라서 하나의 예술로 결정짓는다. 어두운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가는 1940년대의 작품은 그때의 화가 심성의 표현이고, 약간 명랑성을 회복한 1950년대 작품은 희망을 되찾은 화가의 표정일 것이다. 더욱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다양한 색채감각은 예술가로서 성숙해지는 내적인 변화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sup>5</sup> 이처럼 최덕휴의 작품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모했지만, 한국의 자연에 대한 애정과 자신만의 표현기법으로 일관하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사후 최덕휴의 작품은 경희대학교와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되었으며, 2003년 경기도 용인시에 최덕휴기념관이 건립되었다.

4 최병식, 「자연주의의 진지함과 원형의 탐구」, 앞의 도록(2011), pp. 6~7.

5 이경성의 평론과 작가 연보는 최덕휴 기념관 홈페이지 참조. <http://choidukhyu.org/critic.html>

## 연보

- 1922년 충청남도 홍성 출생
- 1941년 휘문중학교(현 휘문고등학교) 졸업 / 일본 제국미술학교 본과 서양화과 입학
- 1943년 11월 2일 일본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 중퇴
- 1944~1946년 학병입대, 일본군 중지과건 64사단 소속
- 1945년 한국광복군 항일전 참가, 중국군 육군 제9전구 중위 임관
- 1946~1950년 홍성고등학교, 휘문중 · 고등학교, 경기여자중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50년 《제1회 개인전》(서울, 동화백화점 화랑) 개최
- 1950~1956년 한국군 육군 소위 입대(소령 예편)
- 1951년 금성무공훈장 화랑장 수훈
- 1952년 《제2회 개인전》(서울, 성립화랑) 개최
- 1956년 《제5회 국전》에 〈풍경〉 특선  
한국미술교육협회 부회장 피선 / 한국수채화협회 창립에 참여
- 1958년 저서 『현대화의 이해』(文化教育) 출간 / 《제7회 국전》에 〈돌산이 보이는 풍경〉 특선
- 1959년 《국제석판화전》(미국 신시네티)에서 입선 / 국전 특선(총 3회 특선)
- 1960~1981년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 1960~1964년 《세계미술교육전》(경복궁 미술관)에 출품
- 1961~1962년 《국제자유미술전》에 초대 출품(서울 1961, 도쿄 1962)
- 1964년 《한국학생미술전》(타이완, 홍콩, 도쿄 등) 순회전에 참가
- 1966년 INSEA 프라하 세계 총회에서 World Council Member(이사)로 피선
- 1968년 INSEA-Asia 회장에 피선
- 1968~1974년 전국중고교 미술대회 주관(경희대학교)
- 1969년 INSEA 뉴욕 세계총회 참가, 귀국길에 구미 시찰
- 1971년 INSEA 아시아 서울총회 유치, 진행
- 1973년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경희대학교 문화공로상 수상  
충남향우회 창립20주년 《초대작가서화전》(서울, 코스모스화랑)에 출품
- 1975년 경희여자초급대학장 취임
- 1980년 경희대학교 사범대학장 취임 / 전국대학미전 개최 및 운영위원장 역임  
문교부장관 표창
- 1983년 한국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
- 1984년 서울시 문화상 수상 / 국제미술교육세미나 멕시코 참석
- 1987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교수 정년퇴임
- 1989년 《제27회 개인전》(서울, 롯데백화점화랑) 개최
-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과 3 · 1 문화상 수훈 / 고희기념 《제28회 개인전》(서울, 현대백화점미술관)
- 1998년 2월 작고

## 김성재 (金星在, 1923~1968)

1923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난 김성재는 일본 도쿄의 옥문관중학교를 졸업한 후 태평양 미술학교(太平洋美術學校)에서 수학했다.<sup>1</sup> 김성재는 1942년 《태평양 서회전》에서 입선한 이후 1943과 1945년 《문부성미술전》에서 입선했으며,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8년 작고할 때까지 **대전과 천안에서 후진 양성과 창작활동에 매진**했다. 1953년 7월 강경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1958년 충남지역 미술인 모임인 '녹청회'의 결성에 참여했다.<sup>2</sup> 김성재는 또 예총충남지부부회장, 충남미술협회부지부장, 충남미협부회장을 등을 역임하는 한편, 태평양미술학교 출신 동문인 박득순, 손응성, 조병덕, 남관 등과 꾸준히 교류하며 충남미술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했다.<sup>3</sup>

1962년 5월 충남공보관에서 열린 《5·16 혁명기념미전》에 〈얼굴〉과 〈풍경〉을 출품하였으며,<sup>4</sup> 초기 '목우회' 회원으로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였다.

1963년 천안역 앞에 위치했던 향촌 갤러리에서 25점의 소품으로 두 번째 개인전인 《김성재 미술소품전》을 열었다. 2년 후 1965년 《제4회 김성재 유화전》을 천안에 소재했던 자연다방 화랑에서 개최하였고, 1966년 충남문화상을 수상하며 작가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천안에서 활약하다가 1966년 봄 대전으로 이주해 같은 해 9월, 35점의 소품으로 대전문화원에서 다섯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sup>5</sup>

〈자화상〉(1948)은 김성재가 김제여자중학교에 재직 시절 제작한 작품으로, 고개를 약간 옆으로 돌려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천안에 머물렀을 때 그린 〈호두〉(1963)는 지역의 특산물인 호두를 소재로, 위에서 내려다 본 구도로 그린 작품이다. 붉은 색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호두를 화면 가득 구성했다. 정확한 데생을 바



김성재, 〈자화상〉, 1948, 패넬에 유채, 30×19cm, 대전시립미술관

1 『김이불루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9), p. 30.

2 『녹청회전』은 1958년부터 1961년까지 개최되었던 현대미술 그룹인 '녹청회'의 단체전 명칭이며 '녹청회'는 김화경, 김성재, 정택은, 조중현, 한유동, 황진국, 허훈이 모여 결성했고 당시 상공장려관 뒷길에 위치한 '개미다방'에서 창립전을 개최했다. 대전미술협회 홈페이지 <http://www.djart.or.kr/bbs/page.php?hid=p107>; 『문화계 소식 綠靑會 發足』, 『경향신문』(1958. 4. 9).

3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20.

4 《5·16혁명 기념전》(1962. 5. 16~5. 22)은 1962년 대전미협이 한국미술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이후의 첫 전시로 충남공보관에서 열렸다. 대전시립미술관, 앞의 책(2019), p. 88.

5 『김성재 개인전』, 『대전일보』(1966. 9. 14);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311에서 재인용.





김성재, 〈호두〉, 1963, 캔버스에 유채, 26.4×38cm, 대전시립미술관

탕으로 호두를 묘사한 이 작품은 김성재의 필력과 구상회화 작가로서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음악에도 심취하여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던 김성재는 향토색이 짙은 작품 창작에 몰두했다. 그러나 작품세계가 무르익을 무렵인 46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사후 1991년 《김성재 선생 추모전》이 있었다.

## 연보

- 1923년 전라북도 김제 출생
- 1942년 《태평양 서회전》(일본 도쿄)에 입선
- 1943~1945년 《문부성 성전미술전》(일본 도쿄)에 입선
- 1946~1950년 김제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52~1955년 강경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53년 《제1회 개인전》(강경) 개최
- 1954년 《충남미술협회전》에 참여
- 1955~1960년 천안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58년 김화경, 정택은, 한유동, 황진국, 허훈과 함께 '녹청회' 발족
- 1960~1961년 계광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62년 《5.16혁명기념 미전》(충남공보관)에 출품
- 1962~1966년 복자여자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63년 《한국미술협회지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5.16혁명기념예술제》(대전문화원)에 출품  
《김성재 미술소품전》(천안, 향촌갤러리) 개최
- 1963~1968년 《목우회 회원전》에 출품
- 1965년 《제4회 김성재 유화전》(천안, 자연다방 화랑) 개최
- 1966년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제5회 김성재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66~1968년 대전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67년 《민족기록화전》에 참여  
《충남예총회관개관기념종합전》(대전, 예총회관)에 출품
- 1968년 숙환으로 작고

## 윤후근 (尹厚根, 1923~2008)

1923년 전라북도 익산에서 출생한 윤후근은 1937년 전주사범학교에 입학해 특별활동으로 미술반에 들어가며 미술과 접하게 되었다.<sup>1</sup> 윤후근은 학교 미술반에서 류경채, 고화흠과 교류하며 전주사범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1939년 《제18회 조선미전》에 〈인왕과 성현(仁王と 聖賢)〉을 출품해 입선했으며, 이듬해에는 《조선미술협회전》에서 입선했다. 1942년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경상남도로 배치되어 백전(柏田)국민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조선미술가협회 경남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며 《제1회 경남도 미전》에 출품하기도 했다.



윤후근, 〈논산시내〉, 1955, 캔버스에 유채, 38.0×45.5cm, 대전시립미술관

1949년 **논산 강경상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발령**받으면서 이인영, 김철호 등 대전미술계 인사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이해에 《제1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입선했다. 이후 논산공업고등학교, 연산중학교, 대전여자중학교 등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고 정년퇴임할 때까지 대전과 충남지역의 미술교육을 위해 활약했다. 1956년에는 대한미술교육회 회원이 되었고, 1958년 충남도 지사로부터 우수공무원상을 받는 등 공직에 충실했다. 1963년에는 충남미협 부회장으로 이동훈 회장과 함께 회원전과 학생미술실기대회 등을 개최했다. 《충남미술협회전》, 《5·16 혁명 기념미전》, 《녹청회전》 등의 단체전에 출품했으며, 1967년에는 충남도 시청각교육원 연구사로 활동하면서 시청각교재를 제작했다.

정년퇴임을 기념해 1988년 1월 대전문화원에서 《윤후근 교장 정년기념 회고전》을 가졌으며,<sup>2</sup> 2000년대 이후 《한국미술 중국전》, 《호주 멜버른 대학교 초대전》, 《한불 국제회화전》에 작품을 출품했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 2003년 개최한 《한발미술의 여정 II-이동훈과 대전화단》에 〈퇴미고개〉와 〈정물〉이 소개되었고, 2008년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에는 〈논산시내〉(1955)가 소개되었다. 〈논산시내〉는 윤후근이 논산공업고등학교에 재직했을 때 그린 작품으로,

1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22.

2 《윤후근 교장 정년기념 회고전》(1. 23~1. 27) 소책자(대전문화원, 1988).

계절도 거리감도 느껴지지 않고 모든 사물 간의 관계가 동등하게 표현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sup>3</sup>

윤후근은 1962년 『대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자신의 작품 경향에 대해 “화려(華麗)한 꾸밈보다 꾸밈없는 소박(素朴)한 무장식(無裝飾)의 것이 마음에 든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sup>4</sup> 주로 풍경을 담박하게 담아낸 윤후근의 작품은 대전미술 초기 이동훈의 영향을 받아 소박하고 진실한 자연 풍경을 성실히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 연보

- 1923년            전라북도 익산 출생
- 1937년            전주사범대학 심상과 입학
- 1939년            《제18회 조선미전》에 〈인왕과 성현〉 입선
- 1942년            전주사범학교 졸업 / 《제1회 경남도 미전》에서 입선
- 1949년            《제1회 충남도전》에서 입선
- 1949~1950년    강경상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51~1960년    논산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60~1969년    대전여자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62~1963년    《5·16혁명 기념미전》(충남공보관)에 출품
- 1963년            《녹청회전》에 출품 / 충남미협 부지회장 역임
- 1967년            충남도 시청각교육원 연구사 제작보급부장
- 1967~1968년    대전미협 부지회장 역임
- 1968~1976년    연산중학교, 충남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 1976~1988년    서남중학교, 선도중학교, 노성중학교, 연산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 1986년            《8인 원로작가전》(대전, 예가화랑)에 출품
- 1988년            《윤후근 교장 정년기념 회고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95년            《오늘의 한국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6년            《한밭회향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한국 원로작가 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1999년            《격동기의 예술혼전》(부산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1년            《한.불 국제회화전》(서울·파리) / 《호주 멜버른대학 초대전》에 출품  
                          《한국미술 중국전》(중국, 청도시미술관)에 참여
- 2003년            《한밭미술의 여정 II-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8년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작고

3 『검이불루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9), p. 34.

4 윤후근, 「虛實한 裝飾이 싫다」, 『대전일보』, 1962. 6. 19(『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p. 311에서 재인용).

## 이익용 (李翼龍, 1923~2011)

1923년 황해도에서 출생한 이익용은 배재고 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연희전문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 대전 한밭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중 불현듯 청자 연구를 위해 교사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1971년 대전 유성구 계산동(사기막골)에 '계산요(鰲山窯)'를 설립하여 청자 제작에 전념하였다.

이익용은 아롱무늬가 물결모양으로 있는 유문암(流紋巖)으로, 철분이 다량 함유된 장식질 광물인 송지석(松脂石)을 이용하여 고려청자 및 천목(天目)을 재현하였다.<sup>1</sup> 이후 창작활동에 머물지 않고 청자 타일과 기와 등 생활용품을 제작해 판매했다. 청자원색 재현방법과 도자기제법의 특허를 냈으며, 전국 발명품 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 유약 개발과 도자기 제작방법에 열정을 쏟았다.



이익용, <베개>, 1976, 청자토, 청자유, 15×15×20cm(출처: 『대전미술 돌-공예·조각』, 대전시립미술관, 2009)

### 연보

- 1923년 황해도 출생
- 1971년 대전 유성구 계산동(사기막골)에 '계산요(鰲山窯)' 설립
- 1979년 《도자기연구발표회》(대전, 홍명화랑) 개최
- 1980년 특허 제6327호 청자원색 재현방법  
특허 제8109호 미술도자기제법
- 1982년 전국 발명품 대회 은상 수상
- 2011년 작고

<sup>1</sup> 이재황,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의 철화 안료연구」, 『철화분청사기』(동산도기박물관, 2007), p. 63

## 김기숙(金基淑, 1924~2002)



김기숙, <계곡>, 1960, 캔버스에 유채, 45.5×53cm, 대전시립미술관

김기숙은 1924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으로,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홍성중학교, 대전공업중학교, 한밭중학교에서 재직했으며, 1960년부터 1963년까지 충청남도 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했다.<sup>1</sup> 1963년부터 1969년까지는 공주교육대학교에 재직하다가 1970년 인천교육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sup>2</sup> 1977년부터 1978년까지 문교부 편수국 미술편수관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학생미술』을 저술해 미술교육에 기여했다.<sup>3</sup>

김기숙은 1953년 '충남미술협회' 발족에 참여했으며, 이 해 대전에서 가졌던 개인전을 시작으로 1962년까지 4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충남미술협회장을 맡아 지역 미술의 발전을 위해 힘썼으며, 1962년 '충남문화상'을 수상했고 대전문화원에서 개최한 《미술협회전》에 참여했다. 1964년 6월 대전문화원에서 33점의 작품으로 개인전을 열었다.<sup>4</sup> 이처럼 김기숙은 1950~1960년대에 교직에 있으면서 개인전을 비롯해 지역의 단체전에 여러 차례 참여했으나 초기작은 남아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1990년대 이후 대전과 타지역 활동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개최한 《우정의 만남전》(1995)에 출품했다.<sup>5</sup> 그리고 1996년 제14회 한밭문화제의 일환으로 대전시민회관에서 열렸던 《한밭회향전》에 푸른빛의 나무가 가득 들어찬 숲을 그린 풍경화를 출품했다.

김기숙의 1960년 작 <계곡>은 대전에 거주하던 시절 작품으로, 평범한 산하의 계곡을 굵고 활달한 필치로 묘사했다.<sup>6</sup> 대전 인근의 동학사에서 그린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녹음이 짙게 우거진 여름 계곡을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빛에 따라 달라지는 나뭇잎과 바위를 짙은 초록색부터 연두색까지 다양한 색채로 표현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풍경의 한 순간을 묘사했지만, 화면

1 김기숙은 "1942년 《제21회 조선미전》에 입선하며 작가로 첫발을 내디뎠다" (『김이불루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9), p. 20)고 알려져 있으나 《제21회 조선미전》 입선자 명단에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90.

3 충남근현대예술사편찬위원회, 『충남근현대예술사 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 35.

4 한국미협 대전시지회, 『대전미술 어제와 오늘』(한국미협 대전시지회, 1995), p. 45.

5 『미술전시회도 가뭇인 8월』, 『중도일보』(1995. 8. 20).

6 충남근현대예술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 36.

중앙에서 계곡의 물과 숲이 수평으로 나누어지는 안정된 구도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은 김기숙 작고 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린 《한발미술의 여정 II-이동훈과 대전화단》(2003)과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2008)에서 전시되었다.

사실주의 계열의 풍경화를 굵고 힘있는 필치로 그려냈던 김기숙은 이동훈과 함께 1950~1960년대 대전화단을 이끌며 후학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던 화가이다.

## 연보

- 1924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
- 1946~1960년 충남중·고등학교 미술교사, 교감으로 재직
- 1952년 한밭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53년 충남미술협회 발족  
《충남미술협회전》(대전문화원)에 참여  
《김기숙 개인전》 개최
- 1959년 《김기숙유화전》(대전문화원) 개최
- 1958~1961년 충남미술협회장 역임
- 1960년 《제7회 충남미협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60~1963년 충청남도교육청 학무과 장학사 역임
- 1962년 충남문화상 수상
- 1963~1969년 공주교육대학 교수로 재직
- 1964년 《김기숙 개인전》(대전 문화원) 개최
- 1970~1976년 인천교육대학 교수로 재직
- 1976~1977년 문교부 편수국 미술편수관
- 1977~1986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교수
- 1995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 1996년 《한발회향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 2002년 작고

## 윤영자(尹英子, 1924~2016)



윤영자, 〈애(愛)〉, 1986, 청동, 190×98×45cm, 개인소장

호는 석주(石洲). 서울에서 출생한 윤영자는 1947년 토우(土偶) 작가 윤경렬로부터 윤희중을 소개받아 약 2년간 정식으로 조소를 배우고,<sup>1</sup> 1949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 조각과가 개설되자 1회로 입학하였다. 대학 1학년 때 《제1회 국전》에 입선하면서 작가로 데뷔했으며, 3학년 때 《제3회 국전》에 출품한 〈소녀〉로 특선, 4학년 때 《제4회 국전》에 출품한 〈여인상〉으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조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대한미술가협회전》에도 작품을 출품하여 1955년에는 〈입상〉으로 최고상인 ‘미협상’을 수상했다. 1957년부터는 《국전》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1967년부터 1981년까지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윤영자는 한국 조소 개척기 선구적인 여성 조각가이자 교육자로서 충남 조각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에 재직하였으나, 1973년 **목원대학교에 미술교육과가 설립되자 교수로 부임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에서 《학생 야외조각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퇴임 전인 1989년 재단법인 석주문화재단을 창립하여 석주미술상, 석주미술 특별상, 석주 선정작가전 등을 통해 한국미술계에서 괄목할 활동을 한 여성 작가에게 상금과 개인전 개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윤영자는 1990년 목원대학교를 정년퇴임할 때까지 조각의 불모지였던 대전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며 조각 붐을 일으킨 인물로 평가받는다. 1992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 서훈, 1994년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인협회 미술상 수상, 2001년 홍익대 총동문회 주최 자랑스런 홍익인상, 2007년 제1회 대한민국 예술인의 날 ‘특별공로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며 미술가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윤영자는 1950년대에는 재료 수급의 어려움과 비용 때문에 시멘트나 석고로 구상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곡선미와 매끈한 질감으로 관능적인 여성의 신체를 빌어 생명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작품은 구체적인 형상에서 벗어나 추상조각을 제작하였다. 〈율(律)〉(1966)은 나무와 철이라는 이질적인 두 재료를 이용해 곡선과 직선의 결합을 통한 동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sup>2</sup> 이 시기는 특히 기념비와 동상을 다수 제작했는데, 공공미술에서는

<sup>1</sup> 황효순, 「대전 미술의 선구자들」, 『대전문화』 26호(대전광역시, 2017), pp. 120~122. 토우 작가로 알려진 윤경렬은 일본 유학 후 조선인형연구소를 경영하였다. 경주 최초의 예술전문학교인 경주예술학교 교원으로 활동을 했다.

구상 표현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개인작품에서는 추상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무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작가의 고민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sup>3</sup>

1970년대부터 2000년 이전까지는 〈애(愛)〉, 〈정(情)〉, 〈정(靜)〉을 테마로 작품을 하였으며 앞선 시기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추상적 표현과 재료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졌다. 특히 곡선과 곡면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sup>4</sup> 2000년대에 들어서 〈애(愛)〉(2006), 〈기다림〉(2007)처럼 다시 구상과 추상이 결합한 작품을 선보였다. 2011년 새롭게 선보인 《대지의 향기》와 《바다의 향기》 연작은 인간에서 자연으로 주제에 변화를 보이면서 대자연에 대한 경의심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여인상과 모자상 등 여성의 인체를 주된 소재로 한 윤영자 작품은 인간이 지닌 생명력을 율동감 있으면서도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였다. 윤영자는 인체를 모티브로 균제미를 중시한 작가이다. 단순함과 복잡함, 돌출과 함몰의 변화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안정감이 높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1세대 여성 조각가로 사비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석주미술상’을 제정하여 후배 여성 미술가들의 창작과 연구를 위해 힘쓴 조각가이자 교육자였다.



윤영자, 〈기다림〉, 2007, 대리석, 35×30×50cm(출처: 이응규, 최태만 공저, 『한국현대조각 1세대전』, 지에스북스, 2021)

## 연보

- 1924년 서울 출생
- 1949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1회로 입학 / 《제1회 국전》에 〈여학생〉 입선
- 1953년 〈애정〉 제작, 《제2회 국전》에서 특선 수상
- 1954년 《제3회 국전》에 〈여인상〉으로 문교부장관상 수상<sup>5</sup>, 〈홍상〉 제작
- 1955년 《제4회 국전》에서 역동적인 동세와 남성미를 풍기는 〈젊은이〉로 특선 제6회 대한미술협회장상을 수상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 1956~1958년 숙명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56년 〈얼굴〉 제작
- 1959년 제2상수도 정수장의 분수조각 제작 및 설치
- 1962년 경희대학교 산업대학 강사 / 한국은행건물 상단의 원형 부조 제작
- 1964~1965년 〈권율장군 행주대첩비〉(고양, 행주산성) 건립<sup>6</sup>

2 최태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의 형태」, 『한국현대조각 1세대전』(도서출판 지에이북스, 2021), p. 59.

3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조소』(삶과꿈, 1999), p. 260.

4 최지영·정경연, 「석주(石洲) 윤영자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70호(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20), pp. 162~165.

5 국립현대미술관 기록에 의하면 1954년 정통적인 누드소조인 〈여인상〉으로 문교부장관상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김달진 미술연구소 자료에는 1955년 수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응규, 「윤영자의 생애와 예술관」, 『한국현대조각 1세대전』(도서출판 지에이북스, 2021), p. 41



- 1966~1972년 서라벌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미술학과 및 건축미술학과 강사
- 1967~1970년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11인 분수조각, 벽부조, 정문상단부조 제작
- 1967년 문교부 주관 5월 문예상 미술부문 수상
- 1968년 <다산 정약용선생 동상>(서울, 남산도서관 앞) 제작  
<김유신 장군상>(충북 진천) 제작
- 1970년 <구호의 여신상>(경희대학교 정문) 제작 / <조동식 박사>, <임철순 흉상> 제작
- 1972년 제6회 충청남도 문화상 심사위원 역임
- 1973~1992년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및 명예교수 역임
- 1973년 <소양강댐 기념탑>(강원도 춘천, 높이 2,200cm) 건립
- 1976년 경주 삼국통일관 부조 제작
- 1979년 《제1회 개인전》(서울, 진화랑) 개최
- 1980년 《제2회 대전일보사 초대 개인전》(대전) 개최
- 1981년 《제3회 HanKook Gallery 초대 개인전》(미국 뉴욕) 개최
- 1985년 《여류조각회 Roma전》(이태리 주재 한국대사관) 기획 및 현지 참가
- 1985~1986년 《프랑스 르 싸롱, 한국작가 초대전》(프랑스 파리, 그랑팔레(Grand Palace)) 참가
- 1986년 《제4회 현대화랑 초대 개인전》(서울) 개최
- 1988년 《Selected Works by Leaping Korean Artists》(미국 뉴욕, 엘핀 화랑) 참가
- 1988년 예총주관 예술문화대상 수상
- 1991년 《제5회 현대화랑 초대 개인전》(서울, 현대화랑) 개최
- 1992년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 서훈 / 문화관광부 주최 《'92 IAA 서울기념전》에 출품
- 1993년 《제7회 월드갤러리 초대 개인전》(부산, 월드갤러리) 개최
- 1994년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인협회 미술상 수상
- 1995~2006년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서울, 예술원 미술관)
- 1996년 재단법인 석주문화재단 승인(문화관광부)
- 1997년 대한민국 예술원 예술원상 수상
- 1998년 <한경직 목사 흉상>(서울, 대광고 한경직 목사 기념관) 제작
- 2000년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 《한국조각50년》(서울, 갤러리 현대)에 출품
- 2001년 《석주 윤영자 초대회고전》(서울, 가나아트센터) 개최  
《김세중, 김정숙, 백문기, 윤영자 원로조각가 4인전》(모란미술관) 개최  
홍익대 총동문회 주최 자랑스런 홍익인상 수상
- 2003년 《개관 30주년 기념초대전》(서울, 백송화랑)에 출품
- 2006년 《서울미술대전: 한국현대 구상조각의 흐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7년 제1회 대한민국 예술인의 날 '특별공로상' 수상
- 2010년 《아름다운 대화》(서울, 롯데갤러리 본점)에 출품
- 2011년 문화관광체육부 여성문화인 수상
- 2014년 《대한민국 예술원 개원 60년: 어제와 오늘》(덕수궁미술관)에 출품
- 2016년 작고

## 김철호 (金哲鎬, 1925~2011)

1925년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에서 출생한 김철호는 대전공업학교 토목과를 졸업한 후 대전부청(대전시청의 당시 명칭)과 서울 조선흥업회사에서 근무했다.<sup>1</sup> 1944년 금남국민학교를 시작으로 1950년대 초 삼성국민학교와 유성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다.<sup>2</sup> 독학으로 그림을 익힌 김철호는 1954년 중등교원 검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강경상업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등에서 정년퇴임 때까지 40년 동안 미술교사로 재직했다.<sup>3</sup> 1970~1980년대에는 목원대학교와 한남대학교에 출강하는 등 교직원 활동을 하면서 꾸준한 창작활동으로 각종 전시를 통해 작품을 선보였다.



김철호, 〈고산사〉, 1957, 캔버스에 유채, 53×45.5cm, 대전시립미술관

문화의 기반이 척박했던 1953년 충남미술협회의 발족에 참여했으며, 1959년 대전문화원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김철호는 한국미술협회, 구상작가회, 녹청회, 사생회, 우경회 등의 단체에서 활동했다.<sup>4</sup> 한국미협 대전지부장을 오랫동안 맡았고, 충남미술대전 운영위원과 위원장 및 심사위원, 사생회전 운영위원과 고문 및 회장, 한국전업작가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김철호는 1971년 처음으로 열린 《충남미술대전》에 〈얼〉을 출품해 대상을 받았고, 이듬해인 1972년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1959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07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그의 회화 세계를 조명한 《김철호-교육자로서의 삶과 예술》까지 7번의 개인전을 가졌다.

김철호의 작품은 인물화나 초상화도 일부 보이지만 사실주의 계열의 풍경과 정물이 주를 이룬다.<sup>5</sup>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잠시 추상을 시도했으며, 관념적 사상을 화폭에 담아낸 시기도 있었다.<sup>6</sup>

1 김철호의 생애와 작품활동에 대한 정보는 2007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된 《김철호 개인전》(2007. 2. 14~3. 25) 도록 참조. 대전시립미술관, 『김철호』(대전시립미술관, 2007), pp. 86~87.

2 김철호는 1944년 금남초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했으며, 제자로는 유희영·이종상·이철주·김인중·하동철·유근영 등이 있다.

3 변상형, 「탄생의 숲에 들어 선 거목」, 『김철호』(대전시립미술관, 2007), pp. 12~16.

4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홍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28.

5 『검이불루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9), p. 32.

6 변상형, 앞의 글, p. 14.



김철호, <자목련>, 1976, 캔버스에 유채, 53×41cm, 유족소장

1957년 작 <고산사>는 한국의 어느 산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평범한 것에 애정을 두는 김철호의 감각을 발견할 수 있다.<sup>7</sup> “그림을 그리는 게 좋고 자연을 대할 때마다 또 다른 감흥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던 김철호는 일흔의 나이에도 습관처럼 야외스케치를 다니곤 했다.<sup>8</sup> 김철호의 풍경화는 다소 두터운 붓질로, 대상의 특징을 간략하고 소박하게 잡아내는 편이다. 이는 야외 현장에서 완성하는 제작방식과 연관이 있는데,<sup>9</sup> 그런 까닭에 김철호의 작품은 주로 소품이 많다. 실제로 사생활을 이끌며 야외스케치에서 작품 한 점을 반드시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도했다. 대전·충남의 2세대 원로작가이자 교육자로서 정년 이후에도 여러 단체전에 작품을 출품하며 꾸준히

작품을 제작했던 김철호는 2011년 2월 14일 87세로 작고했다.<sup>10</sup>

## 연보

- 1925년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출생  
대전공업학교 토목과 졸업
- 1944~1954년 금남국민학교, 강경 중앙국민학교, 대전 삼성국민학교, 유성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54년 중등학교 교사자격 검정고시 합격
- 1954~1972년 강경상업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59년 《제1회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62~1963년 《5·16혁명 기념전》(충남공보관)에 출품
- 1968년 《동아국제미전》에서 입상
- 1969~1972년 한국미협충남지부장 및 대전지부장 역임
- 1970년 《개인전》(대전, 충남예총화랑) 개최
- 1971년 《제1회 충청남도 미술대전》에서 도지사상(최고상) 수상
- 1971~1988년 《충남미술대전》에 출품
- 1972년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 1972~1990년 호수돈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정년퇴임

7 『충남근현대미술사: 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p. 41~42.

8 변양섭, 「서양화가 金哲鏞씨」, 『대전일보』(1995. 5. 12); 대전시립미술관, 앞의 도록(2007), pp. 86~87.

9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대충동예술품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28.

10 박수영, 「자연으로 사생 떠나듯 고이 가소서」, 『중도일보』(2011. 2. 17).

- 1974년 《개인전》(대전, 중도일보화랑) 개최  
아세아미술교육 공로상 수상
- 1975~1988년 목원대학교 출강
- 1976~1979년 한국예총 충남지부 부지부장 역임
- 1977년 《충남작가 초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77~1987년 《목원대 교수작품전》에 출품
- 1977~2010년 《이신희회》(구상작가회)에 출품
- 1978~2010년 《사생회전》 주도, 작품 출품
- 1980년 《개인전》(대전, 신신화랑) 개최
- 1981~1987년 한국미협대전지부장 및 충남지부장 역임(제8대, 제9대 회장)
- 1982년 《10인 초대전》(대전, 공간사랑)에 출품
- 1982~1984년 한남대학교 출강
- 1983~1993년 《우경회전》에 출품
- 1985년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1985~2010년 《수채화회원전》에 출품
- 1986~2010년 《자연전》에 출품
- 1987년 《7인 원로작가 초대전》(대전, 예가화랑)에 참여
- 1988년 《충남미술대전》에서 초대작가상 수상
- 1989년 《이동훈 화백 추모전》에 출품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수상
- 1990년 《정년퇴임기념전》(대전문화원)에 참여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 1990~1992년 《한발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 1993년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수상
- 1994년 《한발미술의 오늘과 내일전》(대전, 한밭도서관 전시실)에 출품
- 1995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 1997년 《한발미술의 미래모색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1999년 《대한민국 원로작가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0년 《21C 대전미술의 모색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7년 《김철호-교육자로서의 삶과 예술》(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2008년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11년 2월 14일 작고

## 이종학(李鍾學, 1925~2013)



이종학, <상(想)>, 1977, 캔버스에 유채, 45×71cm(출처: 『이종학 화집』, 아뜨리에, 2001)

1925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난 이종학은 서울 중앙회화연구소에서 2년간 그림을 공부한 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에 입학해 1952년에 졸업했다.<sup>1</sup> 한국전쟁 때 대전에서 피난 중 『문예(文藝)』에 시 「미루나무」를 발표했고, 1955년 유치환(柳致環, 1908~1967) 추천으로 「그림자」를 『현대문학』에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다.<sup>2</sup>

화가로서의 행보는 1958년 동화화랑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3</sup> 1960년부터 1966년까지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한 《현대작가초대전》에 출품했고, 이 공모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대전중학교와 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했던 이종학은 1967년부터는 문교부 미술담당 편수관으로 8년간 근무했다. 1976년부터 1977년까지 인천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창작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1991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했으며, 2010년 ‘제8회 이동훈미술상’을 수상했다.

이종학은 첫 개인전을 연지 15년 지난 1973년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본격적인 작가 활동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후 이루어졌는데, 이후 십여 회가 넘는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 원로작가 초대전》, 《현대미술초대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이종학의 작품은 《상(想)》 연작으로 대표된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추상적 정경》, 그리고 1990년대 초부터는 《무제》 연작을 제작했다. 이처럼 작품세계의 변화과정을 연대기적으로 구분해보면 표현주의적 경향에서 서정적 추상으로 이행해갔음을 알 수 있다. 《상(想)》 연작은 ‘무념무상(無念無想)’과 같은 의미의 작업으로 자연에 대한 관조적 접근을 여백의 공간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추상적 정경》은 낙서 같

1 박수영, 「'추상정경' 기교없는 향기 물씬」, 『중도일보』(2011. 7. 5).

2 이종학은 1954년 시집 『꽃밭』을 출간했으며, 1961년 현대문학상(시부문)을 수상했다. 한국문인협회회원 및 한국시인협회회원으로 활동했다. 이순구, 「무기교의 기교-서체적 음률의 조화」, 『이종학: 제8회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 2011), p. 6.

3 이일, 「1995년 7월, 개인전 서문」(이종학, 『이종학 화집』, 아뜨리에, 2001, p. 11 재인용).

은 서예적 필법으로 작가의 심상을 담은 연작이며, 1990년대 후반에는 담백하게 청색조의 단색 위주 선묘로 화면을 채운 작품을 선보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작가는 다양한 색채를 사용해 이전보다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했다.<sup>4</sup>

2011년 제8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수상기념 전시에서 이종학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이미지를 좋아한다는 것처럼 그리고 지워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흔적, 그 흔적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이미지들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sup>5</sup> 한국 추상미술 1세대로 평가받는 이종학은 2013년 9월 26일 89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이종학, 〈무제〉, 1999, 캔버스에 아크릴, 100×80.3cm  
(출처: 『이종학 화집』, 아트리에, 2001)

## 연보

- 1925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  
서울 중앙회화연구소에서 수학
- 1952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졸업
- 1954년 시집 『꽃밭』 출간
- 1958년 《제1회 개인전》(서울, 신세계화랑) 개최
- 1960~1966년 조선일보사 주최 《현대작가초대전》 출품 및 심사위원  
대전중학교, 대전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63년 현대문학상(시부문) 수상  
《한국미술전》(일본 도쿄) 출품
- 1966년 한국미술협회 서양화 분과위원
- 1967~1975년 문교부 미술담당 편수관
- 1973년 《제2회 개인전》(전주) 개최
- 1975년 《제3회 개인전》(서울, 신세계화랑) 개최
- 1976~1977년 인천교육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 1977년 《제4회 개인전》(서울, 문헌화랑) 개최

<sup>4</sup> 최병식, 「'절대자유'와 회화의 시(詩)」, 앞의 도록(2011), p. 17.

<sup>5</sup> 박수영, 「'추상정경' 기교없는 향기 물씬」, 『중도일보』(2011. 7. 5).

- 1977~1995년 창작미술협회 회원
- 1977~1999년 《대한민국 원로작가 초대전》에 참여
- 1980년 《제5회 개인전》(서울, 관훈갤러리) 개최  
《중앙미술대전》에 출품
- 1980~1981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 1981~1989년 《오늘의 작가전》에 참여
- 1983년 《상파울로비엔날레》(브라질)에 출품
- 1985년 《제6회 개인전》(진화랑) 개최  
《아시아 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5~1993년 《아주국제미술전》에 출품
- 1988년 《서울국제올림픽 한국현대미술전 초대전》에 참여
- 1990년 《예술의전당 개관기념 초대전》에 출품  
인천대학교 예체능대학장 역임
- 1990~1992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1년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 1994년 《한국의 추상미술(1960년대 전후) : 서남미술관 개관기념전》에 출품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 초대전》에 출품  
《제8회 개인전》(서울, 예맥화랑) 개최
- 2001~2004년 《제9~11회 개인전》(서울, 갤러리 상) 개최
- 2005년 서울신문사 초청 《제12회 개인전》 개최
- 2007년 《제13회 개인전》(서울, 신상갤러리) 개최
- 2009년 《한국현대미술제》(서울, 예술의 전당)에 출품
- 2010년 제8회 이동훈미술상 수상
- 2011년 제8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수상기념 《이종학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2013년 9월 26일 작고

## 임홍순 (任洪順, 1925~ )

임홍순은 우리나라 작가로는 최초로 일본의 동경미술학교 도안과를 졸업한 임숙재의 아들로 1925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다. 부친의 영향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에 들어가 목공예와 디자인을 전공하였다. 1963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는데 전념하다가 1991년 정년퇴임했다.<sup>1</sup>

1962년 《제11회 국전》에서 〈만자장식탁장(卍字裝飾卓櫥)〉으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한 후, 1965년 《제14회 국전》까지 연속 특선을 수상하며 추천작가 반열에 올랐다. 임홍순은 공예가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다. 1967년부터 1973년까지 7년간 국정교과서편찬심의위원을 지냈는데, 이러한 경험을 살려 1983년, 현대디자인의 각종 영역을 기초이론에서부터 전문분야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 10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대계(大系)』(미조사)를 출간했다. 1982년 《제1회 미술대전》부터 1987년 제6회까지 공예분과의 심사위원장직을 맡았다.

〈필탁서장〉(1963)은 《제12회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작품으로, 반듯한 면 분할로 직선미가 강조되었고 나무가 지닌 본래의 결을 잘 살린 것을 엿볼 수 있다. 임홍순은 주로 나무를 소재로 작업했는데, 나무를 다루면서 그 나무가 자라면서 겪은 사연을 생각하며 작업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나무를 깎고 다듬는 과정에서 나무의 생리를 따르고 달래가며 나무가 요구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공예가의 사명이라고 피력했다.<sup>2</sup>

교육계에서 은퇴 후, 공예가·문필가로 삶의 전환을 꾀하여 2000년 창작수필로 작품상을 수상하며 문필가로 등단했다. 자신의 목공예 작품과 일상을 가볍게 풀어 쓴 수필을 함께 엮어 『임홍순: 목조형·수필』(토요저널 출판국, 2001)을 냈으며, 전병훈과 함께 쓴 『동행』(선우미디어, 2004)를 출간했다. 한국 미술협회 고문, 한국 공예가협회 고문, 창작수필



임홍순, 〈필탁서장〉, 1963, 느티나무·흑단·카슈칠, 119.5×167×47.3cm, 《제12회 국전》 특선작(출처: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1 임홍순, 『임홍순 공예전』, 신세계미술관, 1981.

2 「작가의 글」, 위의 도록.



문인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다.

## 연보

- 1925년 충남 천안에서 출생
- 194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입학
- 195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 1962년 《제11회 국전》에서 〈근기裝飾卓織〉으로 문교부장관상 수상
- 1963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섬유예술과 교수로 부임  
《제12회 국전》에 〈필탁(筆卓)책장〉 특선
- 1964년 《제13회 국전》에 〈화병〉 특선
- 1965년 《제14회 국전》에 〈문갑〉 특선
- 1966년 《제15회 국전》에서 추천작가로 추대됨
- 1967~1973년 국정교과서 편찬 심의위원 역임
- 1970년 《EXPO '70 초대전》(일본 오사카) 참가
- 1977년 《세계목공예초대전》(프랑스 파리) 참가
- 1981년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 미국 뉴욕, 한국화랑) 개최
- 1982~1987년 《국전》 공예분과 심사위원장 역임
- 1983년 『디자인 大系』(서울, 미조사) 전 10권 출간  
《서울화랑 개관기념초대전》(서울)에 출품  
《미술대전 초대작가전》에 출품
- 1983~1991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8년 《서울올림픽기념 한국현대미술전》에 출품
- 1989년 한국미술협회 고문
- 1990년 《예술의전당 미술관 개관 기념전》(서울)에 출품
- 1991~1999년 《서울공예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1993년 《대한민국공예대전》 운영위원장
- 1995년 《이화여대 창립 50돌 기념미전》(서울, 이화여대미술관) 참여
- 1996년 한국공예가 협회 고문
- 1997~1999년 《한국공예가협회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1999년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초대전》(청주, 예술의전당)에 출품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공예》(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0년 창작수필로 등단, 작품상 수상
- 2001년 『임홍순: 목조형·수필』(토요저널 출판국) 출간
- 2004년 전병훈 공저, 『동행』(선우미디어) 출간

## 정택은 (鄭澤殷, 1925~2005)

정택은은 1925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으로 경기공업상업학교를 졸업한 후, 경성옥정상업미술연구소를 거쳐 국사과임시교원양성소를 수료했다.<sup>1</sup> 1943년부터 삼교공업국민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해, 1948년부터 1955년까지는 서천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1955년도 충남교육위원장학위원을 지냈으며, 이후 1970년까지 충남 지역의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있었다.

1959년 《제6회 충남미협전》에 참여했으며, 1958~1961년까지 《녹청회전》에 출품했다. 1962~1963년, 1966~1968년 대전미술협회 사무국장을 맡았고 1962년 대전문화원에서 열린 《대전미술협회 창립전》과 《5.16혁명기념 미전》에 판화를 출품했다. 1963년 《한국미술협회지부전》, 1967년 《충남예총회관개관기념전》 등에도 참여했다. 이처럼 정택은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대전화단을 이끈 주역 중 한명으로, 색채학과 판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sup>2</sup>

1970년부터 1년간 교육연구원 연구사로 근무했고, 1972년부터 1980년까지는 서산 등지에서 중학교 교감으로, 1980년부터 1991년까지는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산중학교에서 정년퇴임했다. 이처럼 정택은은 50년 가까이 교육현장에서 제자양성과 미술교육에 힘쓰며 충남미술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sup>3</sup> 1995년 《우정의 만남전》과 2001년 《한발미술의 여정》에 출품했으며, 타계 후 여러 단체전에 판화 작품이 소개되었다.

남아있는 작품이 많지 않지만, 1960년대 후반 제작한 목판화 〈여자〉(1967)와 〈적(寂)〉(1968) 등을 보면 목판의 질감을 살리면서 단순화된 선과 면으로 화면을 구성해 추상성이 강한 면모를 보인다. 판화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에디션 번호를 넣는 화면 하단 여백에 사인 대신 동양



정택은, 〈적(寂)〉, 1968, 종이에 목판, 54.0×35.0cm, 대전시립미술관

1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26.

2 대전미술협회 홈페이지. <http://www.djart.or.kr/bbs/page.php?hid=p107>

3 『검이불루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9), p. 36.

화의 낙관처럼 붉은 인장을 넣은 것이 이채롭다.<sup>4</sup>

정책은은 충남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직하며 표준색채를 보급하고, 판화를 예술적 경지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sup>5</sup> 무엇보다 정책은의 공적은 유화와 수채화 중심이던 충남 서양화단에 판화를 도입해 대중적으로 보급시켰다는 점이다.

## 연보

- 1925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경기공립상업학교 졸업  
경성옥정상업미술연구소 및 국사과 임시교원양성소 수료
- 1943~1948년 삼교공립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 1948~1955년 서천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55~1962년 광천중학교 및 강경여자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58~1961년 《녹청회전》에 출품
- 1959년 《제6회 충남미협》(대전문화원)에 출품
- 1962년 《5.16혁명기념 미전》(충남공보관)에 출품
- 1962~1963년 대전미술협회 사무국장 역임
- 1962~1970년 대전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63년 《한국미술협회지부전》에 출품
- 1966~1968년 대전미술협회 사무국장 역임
- 1967년 《충남예총회관개관기념전》(대전, 예총회관)에 출품
- 1970~1971년 교육연구원 연구사 역임
- 1972~1974년 서산여자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 1974~1980년 홍산중학교 및 추부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 1980~1989년 원이중학교 및 선도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 1989~1991년 정산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 1991년 정년퇴임
- 1995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 2001년 《한발미술의 여정》(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5년 작고

4 『충남근현대미술사: 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p. 44~45.

5 『대전미술 하나 그림으로 말한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44.

## 김영학(金永學, 1926~2006)

호는 정산(丁山). 1926년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홍연리에서 출생한 김영학은 194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에 입학해 1952년 9월 졸업했다. 대학교 졸업 후 약 12년간 서울에서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있었으며, 1963년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공예과로 자리를 옮겼다. 3년이 지난 1966년 서울교육대학으로 이직하였으며 1973년 다시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정년퇴임하였다.

김영학은 1958년 9월 첫 개인전을 열어 〈작품 B〉<sup>1</sup> 등 12점을 전시했다. 1963년 서울대와 홍익대 출신의 조각가 최기원, 이운식, 김찬식, 전상범, 김영중과 함께 ‘전위조각’을 모토로 의기투합한 ‘원형회(原形會)’의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념을 표방한 최초의 조각그룹’인 원형회는 3년 만에 해체됐으나,<sup>2</sup> 김영학은 1966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한국현대작가미술전》에 이어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전위조각 2점을 선보였다. 1979년 《제29회 국전》에 이어 《제30회 국전》에도 〈작품 0+1〉을 출품했는데 이후 이 조각은 여주 현충탑 제작에 사용되었다.<sup>3</sup>

김영학의 초기작은 풍부한 양감과 유려한 선, 단순화 시킨 형태로 요약된다.<sup>4</sup> 표면의 질감을 살려 재료의 물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조각 자체의 공간과의 조화로운 구성을 추구했다. 1958년 《제1회 김영학 조각 개인전》에 전시한 〈사슴〉, 〈애정〉, 〈작품A〉 등에 대해 작가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평화에 대한 회구와 인간애(人間愛)의 표현을 주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sup>5</sup> 두 마리의 사슴이 서로의 몸을 맞대고 서서 교감하는 모습을 표현한 〈사슴〉(1958)은 단순한 형태와 리드미컬한 선의 유동을 보여준다. 한 쌍의 사슴을 통해 험난한 세상이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함을



김영학, 〈사슴〉, 1958, 청동, 75×63×15cm(출처: 『김영학 조각전』, 한국등잔박물관 출판부, 1991)

1 〈작품 B〉는 후에 〈아담의 뼈〉로 작품명이 변경되었다.

2 원형회(原形會)는 “일체의 타협적인 형식을 부정하고 전위적 행동의 조형의식을 가지고, 공간과 재료의 새 질서를 추구하여 새로운 조형윤리를 형성한다.”는 선언을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전위 조각가들이 총망라된 단체였다.

3 여주 추모공원은 시설 규모가 작고 부지가 협소하다는 여론에 따라 2004년 재공사를 하고 이경순의 현충탑을 세웠다.

4 이경모, 『김영학, 위기의 시대, 인간애를 표현하다』, 『이경성 앤솔로지』(미진사, 2021), p. 262.

5 김영학, 「자서(自序)」, 『김영학 조각전』(한국등잔박물관 출판부, 1991), p. i.



김영학, 〈영예의 사랑〉, 1970, 자기, 26×57×53cm(출처: 『김영학 조각전』, 한국등잔박물관 출판부, 1991)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군더더기 없는 형태와 부드러운 곡선, 차가운 금속성 등 대상의 형태와 질감을 탐구하던 초기 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 《현대작가초대미술전》과 《원형회전(原形會展)》에 발표한 작품들은 이러한 조형적 실험보다는 현실로 눈을 돌려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1963년 결성한 ‘원형회’의 창립전에 발표한 〈작품 木+金Ⅱ〉은 비정형의 합판을

각목으로 구획하고 그 사이에 금속 덩어리를 접합시킨 작품으로, 이질적인 재료인 나무와 금속을 결합하여 사회 현실의 모순과 갈등을 표현했다. 1969년 《현대작가초대전》에 발표한 〈아담의 뼈Ⅱ〉는 철조를 사용한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조각적인 균형미를 유지하면서 보는 각도에 따라 형태가 완전히 다른, 비대칭 속 균형미가 돋보인다.

김영학은 1970년대 들어서 《한국현대조각연합전》과 《한국현대조각전》에 ‘핵무기로 인한 20세기 인간의 위기’를 주제로 한 일련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1940년대 초 미국에서 방사능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은 오직 곤충밖에 없다는 핵실험 결과를 토대로 〈이 세상 어느 곳에〉(1970), 〈영예의 사랑〉(1970), 〈생의 흔적〉(1976)과 같은 시대적 고민을 담은 작품을 제작했다.<sup>6</sup> 곤충류를 소재로 인류의 문제를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영예의 사랑〉(1970)은 도자기 원형 조각을 자르거나 찢어, 내부를 드러내고 형상을 과편화한 후 곤충 같은 모티브를 더한 작품이다.

1982년 이후 김영학은 《현대미술초대전》에서 회귀심리(回歸心理)를 기반으로, 초기 작품을 다시 재현한 〈울부짖는 새〉(1982), 〈회고〉(1985), 〈갈지라도〉(1991) 등을 발표했다. 〈울부짖는 새〉(1982)와 〈회고〉(1985)는 형태학적으로 1958년 첫 개인전에서 선보인 〈빙원지대(氷原地帶)〉와 〈석기시대(石器以前)〉를 재현한 작품이다. 그러나 표면을 이전 작품과 다르게 거칠게 마무리하여 보다 근원적인 조각미에 다가가고자 했다.

김영학은 대학교 재학시절부터 ‘한국적 선의 표현’과 ‘대상의 단순화’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작품에 반영하였다.<sup>7</sup> 또한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상처, 환경 파괴에 의한 생태적 위기 등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조각 작품을 통해 표출시키기 위해 재료를 탐구하고, 조형적인 실험을 시도했다. 모더니즘의 핵심 개념인 아방가르드 정신을 바탕으로 전통적 조형관을 참조하여 한국적 선과 단순함을 추구한 김영학은 한국조각의 형식적 트렌드를 주도한 작가로 평가된다.<sup>8</sup>

6 김영학, 앞의 글, p. i.

7 김영학, 위의 글, p. i.

8 이경모, 앞의 글, p. 274.

## 연보

- 1926년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에서 출생
- 1947~195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입학 및 졸업
- 1957~1969년 약 12년간 무학여고, 성동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58년 《제1회 김영학 조각 개인전》(서울, 중앙공보관 화랑)에 〈시슴〉, 〈울빼미〉 등 12점 전시<sup>9</sup>  
《제2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서울, 경북공미술관)에 출품
- 1963~1966년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공예과 조교수 역임
- 1963년 원형회(原形會) 결성, 창립멤버로 활동  
《제1회 원형회 조각전》(서울, 신문회관 화랑)에 출품
- 1964년 《제2회 원형회 조각전》(서울, 중앙공보관 화랑)에 출품
- 1965년 문교부 주최 '오월 문예상'(미술부문) 수상
- 1966년 《제3회 원형회 야외 조각전》(서울, 덕수공미술관)에 출품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  
《말레이시아 한국 현대미술전》(말레이시아)에 출품  
《제10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서울, 경북공미술관)에 출품
- 1967년 《상파울로 비엔날레》(브라질 상파울로, 현대미술관에 〈0.02liter〉외 2점 출품
- 1969년 《제13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서울, 경북공미술관)에 출품
- 1970년 《한국현대조각전》(서울, 신세계 미술관에 출품  
《한국현대조각 연합전》(국립현대미술관에 〈엑소더스 I〉 출품, 이후 작품 파기
- 1973년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 1975년 《제24회 국전》 추천작가로 〈어느 길가의 흔적〉 출품
- 1979년 《제28회 국전》 초대작가로 〈엑소더스 79(이 세상 어느 곳에)〉 출품
- 1980년 《제29회 국전》에 〈작품0+1〉 출품
- 1982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제(啼)〉 출품
- 1985년 《현대미술 40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6년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 참가
- 1991년 《제2회 김영학 조각 개인전》(용인, 한국 등잔박물관) 개최
- 1992년 《김영학 조각 작품전》 개최
- 1995년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내 정산 김영학조각관 개관<sup>10</sup>
- 199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한국현대미술전》(서울대학교박물관)에 출품
- 2000년 《한국 현대미술의 시원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6년 작고

<sup>9</sup> 〈새〉와 〈進化〉는 후에 파기되었다.

<sup>10</sup> 1995년 김영학이 기증한 조각품 31점과 미술 작품 94점 등 모두 125점의 작품을 바탕으로 부여군 청소년개발원 내에 정산조각관이 문을 열었다. 이후 백제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승가합장상(僧伽合掌像)〉 등 6점의 작품을 추가로 기증하여 총 131점이 전시되어 있다.

# 이윤섭 (李允燮, 1926~?)



이윤섭, <오양지전림 (鳴陽之篆臨)>, 1974, 《제23회 국전》 국회의장상 수상작(출처: 『경향신문』, 1974. 9. 23)

호는 설정(雪汀). 1926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난<sup>1</sup> 이윤섭은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1958년부터 1983년까지 25년간 예산, 홍성 등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교직에 있으면서 1962년부터 1975년 《제24회 국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참가하여 입선과 특선을 거듭했다. 특히 1966년 《제15회 국전》에는 <잠부론(潛夫論)>으로 문교부장관상을, 《제23회 국전》에서는 중국 청대 후기의 문인 오희재(吳熙載, 1799~1870)의 전각을 본뜬 <오양지전림(吳讓之篆臨)>을 출품하여 국회의장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1977년부터는 국전 추천작가로 활동하였으며, 《미술대전》의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1988년에는 ‘충남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꾸준히 충남지역에 머무르며 《충남서예가 협회전》, 《충남향토작가전》 등에 참가하였고, 예술의전당 서예관 개관기념전인 《한국서예100년전》 등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 연보

- 1926년 충청남도 홍성 출생
- 1958~1972년 예산여자고등학교, 광천상업고등학교, 홍성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62년 《제11회 국전》에 <전서대련(篆書對聯)> 입선
- 1963년 《제12회 국전》에 <낙지론(樂志論)> 입선
- 1964년 《제13회 국전》에 <석고문> 특선
- 1965년 《제14회 국전》에 <전서대련(篆書對聯)> 입선
- 1966년 《제15회 국전》에서 <잠부론(潛夫論)>으로 문교부장관상 수상

1 기존 연구에는 이윤섭의 생년을 1929년으로 보았으나, 이윤섭이 《제23회 국전》 서예부에서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1974년 신문기록에 따르면 이윤섭은 1926년생으로, 당시 거주지는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17로 확인된다. 「대통령상 박영성(서양화), 양진니(서예)씨」, 『조선일보』 (1974. 9. 24).

- 1967년 《제16회 국전》에 〈진(篆)〉 입선
- 1968년 《제17회 국전》에 〈설문서(說文叙)〉 입선
- 1969년 《제18회 국전》에 〈전서(篆書)〉 특선
- 1970년 《제19회 국전》에 〈전서(篆書)〉 입선
- 1971년 《제20회 국전》에 〈황학누시(黃鶴樓詩)〉 입선
- 1972년 《제21회 국전》에 〈행서(行書)〉 특선
- 1973년 《제22회 국전》에 〈장자동명(張子東銘)〉 입선
- 1973~1983년 광천여자중학교, 서산여자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 1974년 《제23회 국전》에서 〈오양지전림(吳讓之篆臨)〉으로 국회의장상 수상
- 1975년 《제24회 국전》에 〈건곤무화(乾坤無話)〉 특선
- 1977년 《한국서예가연합회창립전》(서울, 미술회관)에 참가
- 1977~1978년 《충남작가초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77~1981년 《국전》 추천작가 위촉
- 1978년 《한국현대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79년 《충남서예가협회전》(대전, 남계화랑)에 참가
- 1981년 《한국서예천인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출품  
《제11회 충청남도미술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충남향토작가초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81~1988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82년 《제1회 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82~1983년 《제2회 동락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가
- 1982~1985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83년 《제1회 이화종합미술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가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84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 졸업  
《미술대전》에서 국회의장상 수상
- 1985년 《한·일 서예교류전》(서울, 미술회관)에 참가
- 1987년 《한·일 서예교류전》(일본, 모리미술관)에 참가
- 1988년 충남문화상 수상  
《국제현대서예전》(서울, 예술의전당)  
《한국서예100년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0년 《한국서예국전30년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가
- 1991년 《'91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이창호 (李昌浩, 1926~1990)



이창호, 〈수반〉, 1960년대, 대리석, 개인소장  
(출처: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공예』, 일과알, 1999)



이창호, 〈벼루〉, 1980, 24×14.5×4cm, 상원미술관  
(출처: 『대전미술 둘-공예·조각』, 대전시립미술관, 2009)

호는 구봉(九峯). 1926년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에서 출생한 이창호는 김은호의 문하에서 동양화를 익히며 '후소회(後素會)' 회원으로 활동했다. 16세 되던 해 《제5회 후소회전》에 〈정(庭)〉, 〈추청(秋晴)〉을 출품했으며, 17세에 《제22회 조선미전》에 〈성지(城址)〉를 출품해 최연소로 입선하여 화제를 모았다.<sup>1</sup>

22세 되던 해 군대 문제로 낙향하여 벼루산지로 유명한 충남 보령 대천읍에 정착하였다. 대천은 예로부터 벼루 원산지로 유명했으나 당시 전문 제작자가 아닌 주민들이 농한기에 부업으로 만드는 상황이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벼루를 갖고 싶다고 평소 생각했던 이창호는 '내 벼루는 내가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벼루돌을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당시 보령에서 남포벼루 선생으로 유명한 김갑용을 찾아가 기술을 전수받고 벼루 계승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sup>2</sup>

회화에만 머물지 않고 문방사우의 하나인 석연(石硯)의 창작으로 활동 분야를 확장한 이창호는 2차원의 평면 작업인 그림에 비해 입체 작업인 조각에 재미를 느꼈으며, 깨지고 흠 있는 돌도 멋지게 변화할 수 있어서 즐거움이 무척 컸다고 한다.<sup>3</sup> 1965년까지 국전에 회화 작품을 출품했으나 이후 회화는 접고 석공예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해 제7회 전시회를 하고 20여 년만인 1971년 열린 《제8회 후소회전》에 이창호도 작품을 출품했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 대천문화원장을 지냈으며, 이듬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석공예가로 명성을 얻었다.

중국풍과 일본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창호는 민화와 고문양을 수집하고, 스케치하면서 우리 고유의 것을 찾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다. 상감기법을 기반으로 한국적인 문양을 개발하고,

1 「이창호 부이사장 중요무형문화재지정」, 『전통공예기능보존협회 회보』(1989. 12. 1).

2 황효순, 「대전미술의 선구자들 3 -공예편-」, 『대전문화』 24(대전광역시, 2015), pp. 63~64.

3 중요무형문화재 94호 벼루장 九峰 이창호. <https://blog.naver.com/malgalgai00/80107365382>

양각·음악의 기법으로 해동연의 맥을 잇고자 노력하였다.<sup>4</sup> 나아가 중국의 『흠정서청연보(欽定西清硯譜)』<sup>5</sup>와 같이 우리나라 벼루의 기록과 문양을 수집하여 손수 『연보(硯譜)』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욕심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흠이 있는 돌도 있는 그대로 활용해 자연적인 결을 살려 벼루를 제작하는 것이 특징인 이창호는 작고하기 한해 전인 1989년, 석공예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94호 벼루장으로 지정되었다.<sup>6</sup> 회화 제작을 통해 다져진 실력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벼루를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 우리나라 벼루의 형태와 문양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이창호는 비인기 분야였던 석공예가 주목받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연보

- 1926년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에서 출생
- 1942년 김은호에게 사사 / 《제5회 후소회전》(충독부미술관)에 〈정(庭)〉, 〈추청(秋晴)〉 출품
- 1943년 《제22회 조선미전》 동양화부에 〈성지(城址)〉로 첫 입선  
《제6회 후소회전》(화신백화점화랑)에 〈고성(古城)의 달〉 출품
- 1957~1963년 《국전》 동양화 부문 4회 입선
- 1965년 《개인전》(충남, 대천문화원) / 《제14회 국전》 공예부에 〈벼루〉 입선
- 1968년 《동아국제미전》 초대작가 / 충남문화상 수상
- 1969년 동아일보사 주최, 문공부 후원 《한국민속공예대전》(신문회관) 현대창작공예부문에서 〈신라고(新羅考)〉로 은상 수상 / 《제18회 국전》에 〈해수(海獸)〉 특선
- 1969~1984년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 추천 초대작가
- 1971년 《제8회 후소회전》(신세계백화점화랑)에 〈작품 A〉, 〈작품 B〉 출품
- 1971~1979년 충남 대천문화원장 역임
- 1972년 국무총리표창 수상
- 1973~1984년 《인간문화재공예품전》(진승공예관)에 출품
- 1974~1975년 《전국공예가초대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 1975년 《한국현대공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9년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에 한국화와 석공예 함께 전시  
대만 국립역사박물관 초청 《硯彫展》(대만, 국립역사박물관)에 참가
- 1983년 《개인전》(충남 대천, 신정다방) 개최 /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역임
- 1984년 《인간문화재공예품상설전시장 초대특별전》 참가
- 1989년 중요무형문화재 제94호 벼루장으로 지정
- 1990년 작고

4 황효순, 앞의 글, p. 64.

5 중국 청나라 때에, 우민중(于敏中)이 황제의 명에 따라 엮은 책으로 역대 왕실에서 간직하여 내려온 벼루를 집대성하였다. 1778년에 간행되었으며 전 24권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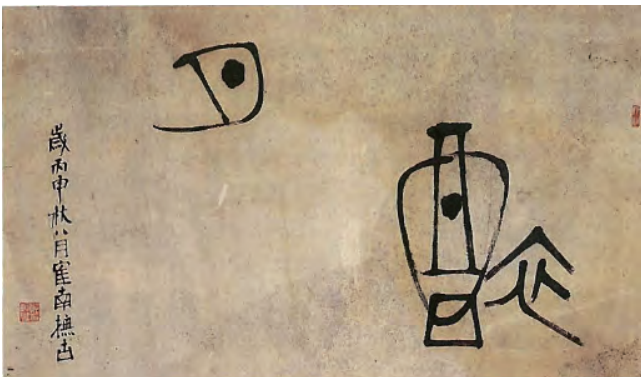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 정환섭 (鄭桓燮, 1926~2010)

호는 학남(鶴南). 1926년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학산리에서 태어난 정환섭은 13세가 되던 1938년 결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상경하여 1942년 선린상업학교를 졸업하였다. 선린상업학교 재학 당시 정환섭의 조부는 손자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서울 명륜동에 큰 집을 구입하고, 식모를 고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sup>1</sup>

194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를 1회로 입학한 정환섭은 손재형의 강의와 작품을 접한 후 전공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선천적으로 눈이 약하고 색맹증세가 있어 종이와 먹색이 갖는 서예의 대조적 아름다움에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손재형에게 사사 받게 된 정환섭은 손재형으로부터 정환섭의 고향인 학산리의 학(鶴)을 의미하는 ‘학남(鶴南)’이라는 호를 받게 된다.

당시 최고의 서예가와 미술 이론가의 지도를 받으며 서예가가 되기 위해 정진한 정환섭은 《제1회 국전》 서예부문에 〈전서대련(篆書對聯)〉을 출품하여 처음으로 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후 특선을 거듭하며 1958년 《제7회 국전》에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국전의 최연소 심사위원, 운영위원, 초대작가로 활동하였다. 또한 정환섭은 서울사범학교 교사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의 주요 미술대학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며 서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정환섭은 추상에 가까운 과격적이고 독특한 서체를 선보이며 현대 서예를 확장시켰다. 1956년 《제1회 한국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한 〈취월(醉月)〉은 당시 ‘새로운 조형적 처리에 있어서 발상과 수법이 서예술(書藝術)의 본질을 파헤친 하나의 쾌거라 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sup>2</sup> 이후 서예를 그림의 한 요소로 표현하는 작업을 계속하며 〈희(戲)〉, 〈일출(日出)〉과 같은 작품을 제작했다.



정환섭, 〈취월(醉月)〉, 1956(출처: 『제1회 한국미술가협회전』, 1956)

또한 정환섭은 1965년 국정교과서 『중학서예』를 발간하여 서예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서예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1 이동원, 『학남 정환섭의 서예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서예학과 석사논문, 2017), p. 5.

2 이동원, 위의 논문, p. 9.

## 연보

- 1926년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학산리 출생
- 1938년 결성보통학교 졸업  
서울 명륜동으로 이사
- 1942년 선린상업학교(5년제) 졸업
- 1946~195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입학 및 졸업  
소전 손재형 사사
- 1949년 《제1회 국전》에 〈진서대련(篆書對聯)〉 특선
- 1952년 서울사범학교 교사로 부임
- 1953년 《제2회 국전》에 〈행서일대(行書一帶)〉 특선
- 1956년 《제5회 국전》에 〈진액(篆額)〉 특선  
《제1회 한국미술가협회전》에 〈취월(醉月)〉 출품
- 1957년 《제6회 국전》에 〈송동소남서(送董邵南書)〉 특선
- 1958년 《제7회 국전》에 〈진서일대(篆書一帶)〉로 문교부장관상 수상
- 1965년 서라벌예술대학 강사  
문교부검인정 『중학서예』(장학출판사) 교과서 편찬
- 1969년 학남 서예 연구원 개원
- 1970년 《학남 서예 연구원전》(서울, 신문회관화랑) 개최
- 1972년 《한국근대미술 6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3년 《서예 초대 개인전》(광주, 금남로Y다실) 개최 / 《정환섭서예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충남향우회 창립20주년 《초대작가서화전》(서울, 코스모스화랑)에 참여
- 1982~1987년 《현대미술초대전》(82·84·85·87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85년 《현대미술 4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85~1987년 《한·일서예문화교류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 1986년 《한국현대 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7년 《개인전》(대구중앙미술관) 개최
- 1988년 《국제현대서예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가  
《한국서예100년전》(서울,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자문위원 역임
- 1989년 《지방서예가 초대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89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9~1991년 《'89, '91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0년 《한국서예 국전30년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가
- 1993년 《엑스포 '93 국제서예전》(서울, 문예전시관)에 출품
- 1998년 《제10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가
- 2010년 작고

## 홍동식 (洪東植, 1926~2003)



홍동식, 〈우후(雨後)〉, 연도미상, 캔버스에 유채, 53×45.5cm, 개인소장



홍동식, 〈풍경〉, 1979, 캔버스에 유채, 31.8×42cm, 대전시립미술관

홍동식은 1926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나 1946년 청주사범학교 심상과(尋常科)를 마친 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과에 입학해 1951년 졸업했다. 졸업 이듬해부터 1955년까지 옥천 청산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1955년 **대전여자중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전에 정착했다.** 1965년까지 대전 여자중·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1966년부터는 충남대학교에 출강했다. 1992년 충남대학교 교수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교육자로, 작가로 활약하며 연구와 교육에 힘썼다. 그리고 정년퇴임에 맞춰 대전문화원에서 《정년퇴임기념 초대-홍동식작품전》(1992. 2. 22~2. 28)이 열렸다.<sup>1</sup>

충남대학교 재직시절 홍동식은 색채와 관련된 미술이론 연구논문으로 「실내색채에 관한 연구 (I)」(1975), 「실내색채에 관한 연구 (II)」(1981), 「실내색채계획 기본방향에 대한 고찰」(1984), 「조형의 분할과 채도와와의 관계」(1984)를 저술하였다.<sup>2</sup> 이러한 연구를 통해 색의 운용에 관한 이론적 방향을 제시했으며, 1972년부터 1973년까지 제3대 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장을 역임했다. 1960년 한국미협 《충남지부전》 출품을 비롯해, 《백제문화제 미전》, 《향토작가 초대전》, 《한국구상작가전》 등 다수의 초대전에 참여했다.

〈풍경〉(1979)은 역동적인 자연을 묘사하기 위해 빠른 붓터치로 사물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1 『정년퇴임기념 초대-홍동식작품전』(대전문화원, 1992) 도록.

2 『충남근현대미술사: 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 43.

처리해 빛·공기·색채가 지닌 순간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강조했다.<sup>3</sup> 이 효과는 그가 연구했던 색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sup>4</sup> 특히 광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기와 빛에 따라 변화하는 순간의 색채를 표현한 점과 풍경을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을 묘사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점이 영국의 화가 윌리엄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를 연상시킨다. 이처럼 홍동식은 자신의 시각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변화무쌍한 빛의 효과를 충실하게 담은 화가라 할 수 있다.

## 연보

- 1926년 충청북도 옥천 출생
- 1946년 청주사범학교 심상과 졸업
- 1951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회화과 졸업
- 1952~1955년 옥천 청산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55~1960년 대전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60년 《한국미술협회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62년 《5.16혁명 기념전》(충남공보관)에 출품
- 1963년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69~1992년 충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 1972년 《백제문화제 미전》에 출품
- 1972~1973년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장 역임
- 1975년 연구논문 「실내색채에 관한 연구 I」 저술
- 1981년 연구논문 「실내색채에 관한 연구 II」 저술
- 1983년 《향토작가초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84년 《아름다운 금강전》(서울, 경인미술관)에 참여  
연구논문 「실내색채 계획 기본방향에 대한 고찰」 저술  
연구논문 「조형의 분할과 색도와의 관계」 저술
- 1992년 《홍동식작품전》(대전문화원) 개최  
충남대학교 정년퇴임
- 2001년 《한발미술의 여정》(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 II - 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작고

3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홍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30.

4 앞의 글(충남문화재단, 2016), p. 44.

## 강태성 (姜泰成, 1927~ )



강태성, 《률(律)》, 1976, 대리석, 45×35×16cm(출처: 『강태성』, 발행처 불명, 2017)

1927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한 강태성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상경하여 1947년부터 1949년까지 남관이 운영하던 흑석동미술연구소에서 소묘를 배웠다. 1949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조각과에 입학하여 김종영과 윤승욱에게 조각을 배웠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대전으로 피난을 내려와 당시 연합대학 형태로 수업에 참여하던 중 이동훈의 부탁으로 조각을 강의했다고 한다.<sup>1</sup>

1953년 《제2회 국전》부터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1957년 이후 서울공업고등학교, 용산고등학교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국전에 꾸준히 참가하였다. 1961년 〈가족〉, 1965년 〈지평선〉, 1967년 〈해〉, 1968년 〈산가〉로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1968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으며, 1992년 정년퇴임했다.

1966년 《제15회 국전》에서 〈해율(海律)〉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대리석이라는 견고한 재료를 활용해 파도를 타고 있는 듯한 두 인물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후 1970년대 해경(海景)을 주제로 한 작품의 바탕이 되었다. 《해경(海景)》연작은 구상과 추상 구분 없이 전통 조각의 가치이념과 회화적이라 할 수 있는 곡선적인 율동감을 반복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작가는 우연히 태평양을 건너면서 밀려오는 파도의 여운과 율동, 진력(進力)이 하나의 주체로서 공간에 확산하는 형상에 매혹되었으며 새로운 공간감을 깨달았다고 하였다.<sup>2</sup> 〈해풍〉(1973), 〈미풍〉(1976), 〈해명(海鳴)〉(1977) 에서는 바다 바람을 즐기는 인물의 모습을 부드러운 곡선과 율동감으로 구현하였다. 〈손의 환상(幻想)〉, 〈률(律)〉(1976) 등은 부드러운 곡선미가 마치 돌 자체에 내재된 형상을 꺼내어 환생시킨 듯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상파울루비엔날레에 출품한 〈율조(律調)〉(1974)는 석조 작업에서 벗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한 작품으로, 차가운 스테인리스강이 소용돌이를 그리며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형상을 율동감 넘치게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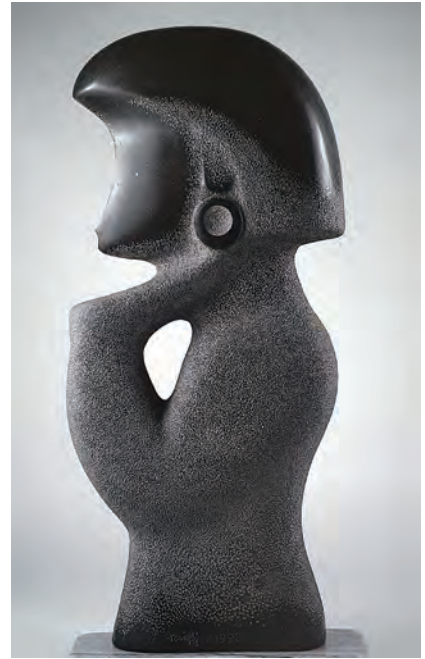
1980년대부터 〈려일(麗日)〉, 〈려인(麗人)〉 등 《려(麗)》 연작을 새롭게 선보였는데, 얼굴의

1 황효순, 「대전조각의 선구자들」 『대전문화』26호(대전광역시, 2017), p. 114.

2 강태성, 「조형의 공간 확산」, 『강태성』(발행처 불명, 2017), p. 61.

구체적인 형상을 생략한 인물상으로 주로 검은 오석(烏石)으로 제작하여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1983년 미술부문에서 제32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초기에는 돌, 특히 대리석을 주로 다루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나는 자연환원이란 정신에서 자연(바다)에서 발견한 형상을 다른 자연(돌)에 되새겨 자연공간에 돌려보낸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자연에 속한 것을 자연에 되돌려 보내기 위해 자연에 소박하게 접근하려는 마음으로 자연의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 고형화하는데 가장 알맞은 돌을 재료로 선택하였고, 형상의 다양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알맞은 돌로서 한국산 대리석을 좋아한다”라고 하였다.<sup>3</sup> 이후 대리석과 화강암, 검은 돌(烏石)에 이어 청동으로 재료를 확대하여 나갔다. 단단하고 차가운 돌이나 청동의 질감을 강조하면서 부드러운 리듬을 입혀 흐르는 듯, 생명감을 살려내는 게 특징이다.<sup>4</sup>



강태성, 〈려인〉, 1983, 오석, 100×43×18cm, 서울대학교

강태성은 환경조각도 매우 활발하게 제작해 〈화랑문·무상〉(육군사관학교, 1982), 〈백야 김좌진 장군 동상〉(1983), 〈해률(海律)〉(힐튼 호텔, 1983), 〈해명(海鳴)〉(대우투자(주), 1987), 〈해률(海律)〉(제일은행 본점, 1987) 외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 연보

- 1927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출생
- 1948~1949년 남관이 운영하던 흑석동미술연구소에 다니며 조형의 기본기를 익힘
- 1949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조각과에 입학
- 1953년 《제2회 국전》에 〈모텔〉로 입선
- 195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1957년 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후에 용산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김
- 1966년 《제15회 국전》에서 〈해율(海律)〉로 대통령상 수상. 부상으로 1년간 해외여행을 다녀옴
- 1967년 《제16회 국전》에서 〈해〉로 특선
- 1968년 《제17회 국전》에서 〈산가〉로 특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

3 劉權俊, 「姜太成의 藝術」, 『SCULPTURE EXHIBITION BY TAI-SUNG KANG』(M.M. SHINNO Gallery, 1980).

4 황효순, 앞의 글, pp. 114~117.



- 1968년 <스크랜톤(SCRANTON)여사像>(이화여자대학교) 제작
- 1970년 <김활란박사 묘소 및 초상>(이화여자대학교) 제작  
《개인전》(서울, 예총화랑) 개최
- 1972년 서울신문사 주최로 <윤봉길 의사 동상> 제작
- 1974년 브라질 《SAO PAULO BIENALE》에 작품 출품
- 1975년 국토미화 야외조각 설치(문화공보부 주최)위원 역임  
《역대 국전 대통령상 수상작가 초대전》(서울, 양지화랑)에 출품
- 1978년 《역대 국전 수상작가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0년 《초청 개인전》(미국 LA, M.M. SHINNO GALLERY) 개최
- 1983년 충남 홍성군에 <김좌진 장군 동상> 제작  
《개인전》(서울, 선화랑) 개최  
제32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미술부문 수상
- 1985년 《현대미술광복 40년 전》에 출품  
충청남도 홍성에 <만해 한용운 선생 동상> 제작
- 1986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미술제 운영위원 역임  
ZAIRE 공화국 전 대통령 및 영부인 동상 제작  
이화여대 100주년 기념 조각 제작  
《KBS TV 미술관 150인 방송기념 미술 초대전》(서울, KBS 방송국)에 출품
- 1988년 제2회 김세중 조각상 수상  
'88서울 올림픽 국제 야외조각대전 지명 작가로 작품 제작
- 1990년 청와대 신청사 조형물 설치를 위한 자문위원 역임  
한국 미술기획대전, KBS-TV미술관 《제4회 강태성 초대전》 방영
- 1991년 《'91 서울미술대전》 초대 작가로 출품
- 1992년 청와대 예술품 자문위원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정년퇴임 후 세종특별자치시에 강태성 조각미술관 개관
- 1997년 대한민국 옥관문화훈장 수훈

## 강환섭 (康煥燮, 1927~2011)

강환섭은 1927년 충청남도 연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부설 중등교원 양성소에서 관화를 전공했다. 1954년 졸업 후 중고등학교 미술교사를 하다가 1950년대 말 교사생활을 접고, 전업 작가 길에 들어섰다. 미술용품을 제작 판매하면서 만들어 놓고 팔지 못한 미술용품을 관화작품의 원판으로 활용한 지관화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1958년 창립한 '한국관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나 생활형편이 어렵자 미8군 SAC Crafts Shop에서 미술을 지도하면서 그 인연으로 1961년 주한 미8군 도서관에서 초대전을 열었다. 1962년 12월 말부터 1963년 1월 초까지 미국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후, 1972년까지 미국에서만 7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국내외 통틀어 20여 차례의 개인전을 열었다.

1966년 《IAA 국제전》에 한국대표로 참가, 1968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국제 관화 비엔날레, 1975년 한국관화가협회와 로스엔젤레스 관화가 협회가 공동 주최한 《현대관화교류전》에 참가하는 등 일찍부터 해외에서 활동했다.

1963년 《한국미협전》 관화부 장려상, 《제9회 국전》 서양화부와 공예부에서 동시 입선하였으며, 1971년에는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을 수상했다. 1971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미술협회 이사 겸 관화분과 위원장을 역임했다. 서라벌예술대학을 비롯해 목원대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지도했고, 미국대사관에서 관화교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작고하기 전 대전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해 현재 두 기관에 많은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강환섭은 박수근·유강열·이항성과 함께 우리나라 관화의 1세대 작가로, 전통적 소재나 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조형성을 제시했다. 관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강환섭, 《미의 교향》, 1960, 종이에 연필, 34.1×56cm, 국립현대미술관



강환섭, 《향(響)》, 1986, 유화, 43.5×38cm(출처: 『강환섭』, 청담미술관, 1990)

린 수많은 밑그림은 그 자체가 새로운 차원을 여는 조형적 성과로, 초기작에 속하는 〈미의 교향〉(1960)을 보면 연필만 사용하여 소박하면서도 진솔한 작가의 감정이 느껴진다. 이 작품에는 작가가 관심을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회화적 모티브들이 한 화면 안에서 들어있다. 화면 중심의 여인상을 비롯해 새 · 나무 · 태양 · 불꽃 등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패턴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러한 화면 구성은 이후에도 즐겨 사용했다. 초기에는 ‘꿈’, ‘환상’과 같은 제목의 작품에 원과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인 형태의 추상적인 작품을 제작했으며, 후기로 갈수록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형상화했다.

## 연보

- 1927년 충청남도 연기군 출생
- 195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중등교원 양성소 회화과 졸업  
《제3회 국전》서양화부 입선
- 1955년 포스터로 체신부 장관상 수상
- 1960~1964년 서울 국립중앙공보관에서 개인전 개최
- 1961년 《국제자유미전》(미술협회)에 출품  
《혁명 100일 광복절 축전》(문화공보부) 참가  
《핀랜드전》에 출품
- 1962년 《미8군 초대전》 참가  
『강환섭 화집』 출간
- 1963년 《한국미협전》 판화부 장려상 수상  
《제9회 국전》에서 서양화부와 공예부에 동시 입선  
《개인전》(미국 Iowa 주, Westmar 대학 / 캘리포니아주, Custom House)에서 개최
- 1963~1965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출강
- 1964년 조선일보사 주최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출품  
《Sanford 미술관 초대전》(미국 Cherokee)에 출품
- 1965~1966년 미술협회 주최 《한국미술전》(도쿄, 말레이시아)에 출품
- 1966년 IAA 국제전에 한국대표로 참가  
《국제판화 비엔날레》(아르헨티나 브에노스아이레스 / 도쿄)에 참여
- 1968년 《현대판화가 협회전》(서울, 신세계백화점)에 출품
- 1969년 조선일보사 주최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참여
- 1970년 《한국미술대상전》(서울, 한국일보사)에서 특별상 수상
- 1971 - 1972년 한국미술협회 이사 겸 판화분과 위원장 역임
- 1972년 《미국 인디애나주 Westville Sassafras 화랑 초대전》 개최
- 1973~1975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술지도

- 1974년 《미술회관 개관기념 판화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아세아 현대미술전》(일본 도쿄)에 출품
- 1975년 《개인전》(서울, 그로리치화랑) 개최
- 1976년 《유화 50인전》(서울, 양지화랑)에 출품  
한국국제문화협회 주최 《극동예술가회의 현대국제판화전》(아세아 예술센터)에 출품
- 1977년 《한국판화전》(대만) / 《한국서양화대전》 / 《국제판화교류전》에 출품  
《한국현대작가전》(일본, 니치도화랑)에 출품  
《한중현대판화전》(대만)에 출품
- 1979년 《국제판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0년 중앙광고상 수상  
《판화 한국판화드로잉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한국서양화 원로중진 작가전》(서울, 롯데화랑)에 참여
- 1980~1981년 《한국현대 판화대전》(문예진흥원)에 출품
- 1981년 《아세아 현대미술전》(방글라데시)에 참여  
《동서양화 명가 작품 특선전》(서울, 롯데화랑)에 출품
- 1982년 《한국판화전》(스웨덴)에 출품
- 1983년 《한국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4~1987년 《부산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86년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8년 《한국현대미술전》(서울올림픽기념관) 대회조직위원 역임
- 1990~1991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출강
- 1990년 《강환섭 초대전》(서울, 청담미술관) 개최  
《한국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1년 《강환섭 판화전》(서울, 이콘갤러리 / 대구, 수화랑 / 대전, 세이아트홀) 개최
- 1992년 《강환섭 초대전》(서울, 예맥화랑) 개최  
《강환섭 유화전》(서울, 청담갤러리) 개최
- 1993년 《한국판화4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한국 현대미술 66인전》(태백 갤러리)에 출품
- 1994년 《서울 천도 600주년 기념 서울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6년 《서울판화미술제》(서울, 백송화랑/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7~1999년 《대한민국 원로작가 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1999년 마지막 개인전인 《판화 초대전》을 서울, 대전, 대구에서 개최
- 2000년 《한국판화의 전개와 변모》(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1년 《손의 유희 : 원로작가 드로잉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5년 《APEC 현대미술 특별전》(부산시립미술관)에 출품
- 2011년 작고

# 박노수 (朴魯壽, 1927~2013)



박노수, 〈선소운(仙簫韻)〉, 1955, 종이에 채색, 187×158cm, 국립현대미술관

호는 남정(藍丁), 당호(堂號)는 심영실(心影室), 월아장(粵雅莊). 1927년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금사리에서 부친 박상래(朴祥來)와 모친 김봉금(金鳳今)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유년시절 조모와 부친으로부터 친자문과 서예를 익혔다. 충남 정안공립보통학교를 거쳐 1945년 충청북도 청주상업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그림에 뜻을 두고 이상범을 사사하였고,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의 1기생으로 입학하였다.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던 김용준, 장우성 등에게 본격적으로 미술교육을 받았다.

1946년부터 1956년까지 동흥중고등학교, 서울사범학교 강사와 상명여자중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1956~1962)와 서울대학교(1962~1982)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박노수는 1949년 해방 후 처음 열린 《제1회 국전》에서 〈청추(晴秋)〉로 첫 입선한 이후 1953년 《제2회 국전》에서 〈청상부(淸想賦)〉로 국무총리상 수상, 1955년 《제5회 국전》에서 〈선소운(仙簫韻)〉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이른 나이에 추천작가를 거쳐 심사위원,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다.<sup>1</sup> 1981년 《제30회 국전》까지 약 30회에 걸쳐 지속된 박노수의 국전 참가는 한 작가의 성장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을뿐 아니라 변화하는 동양화의 시대적 특성도 함께 고찰할 수 있다.<sup>2</sup>

박노수의 국전 초기작은 〈선소운〉(1955)이나 〈월향(月響)〉(1956)처럼 선묘로 이루어진 여성인물을 간결한 화면 구성으로 그린 작품들이다. 그러나 1957년 즈음부터 박노수는 대담한 구도와 독특한 준법의 추상적 회화를 시도하여 실험적이고 독자적인 화격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 동양화단은 큐비즘에서 앵포르멜의 추상 양식으로 이행하는 흐름을 보였고, 박노수 역시 작품에 시대성을 반영하였다.

1 「미술전입선자(美術展入選者) 백구십칠명(百九十七名)을 결정」, 『동아일보』(1949. 11. 19).

2 송희경, 「남정 박노수(藍丁 朴魯壽, 1927~2013)의 국전 출품작」, 『미술사와 시각문화』18(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6), pp. 68~69.

《제9회 국전》에 출품한 〈고행〉은 화풍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법적인 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상을 완전히 허물지 않은 채 함축적인 화면을 창출했다. 가늘고 탄력 있는 선으로 바위산과 보살의 형태를 변형함으로써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에 위치한



박노수, 〈취적(吹笛)〉, 1997, 종이에 수묵담채, 97×180cm, 대전시립미술관

사물을 창출했다.<sup>3</sup> 이처럼 수묵추상으로의 이행은 박노수가 1958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신동양화를 위한 모색」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글을 통해 동양화는 마치 ‘노목(老木)과 같아 쉽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후대는 그저 그것을 따르기에도 바쁜 형편’이라고 비유하며, ‘그러한 답습만으로는 시대의 생명은 없다’고 기술하였다.<sup>4</sup>

박노수는 점차 서구의 미술사조를 수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변형하고 시각적인 강렬함을 부여한 작품을 전개했다. 게다가 1965년 1년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석채(石彩)라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1970년대 초반부터 군청색을 도입하여 간결하면서도 색상의 뚜렷한 대비가 돋보이는 풍경화를 제작했다. 주로 군청을 사용했지만, 주황, 노랑, 초록 등 화려한 색상도 거침없이 활용했다. 수묵전통산수화에 명도와 채도가 한층 높아진 그의 산수화는 전통화단에 신선한 조형성을 선사했다. 박노수의 이러한 실험성은 ‘채색=왜색’이라는 수묵과 채색의 오랜 갈등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의 미술사조를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전통 회화의 지필묵과 어울릴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동양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박노수는 전통적인 동양수묵, 부채(賦彩)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시켜 개성있는 화풍을 확립한 한국 현대 동양화단의 대표적인 화가로 꼽힌다.

생전에 도쿄 국제미전과 뉴욕 《뉴욕월드하우스초대전》<sup>5</sup>에 출품하는 등 다수의 국제전에 참가하였으며, 국내외를 통해 10여 회 넘는 개인전을 열었다. 1987년에 대한민국예술원상, 1994년 5·16민족상, 1995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2000년에는 3·1문화상을 등을 수상하였고, 2013년 사후 그의 자택은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으로 개관했다.

3 송희경, 앞의 논문, pp. 74~75.

4 박노수, 「신동양화를 위한 모색」, 『동아일보』(1958. 2. 13).

5 미국 조지아대학 미술학교수 프셋티 여사의 심사를 통해 서양화 48점, 동양화 42점, 판화 11점, 도합 101점이 출품작으로 선정되었다. 박노수 작품은 10점으로 가장 많은 출품작이 선정된 작가이기도 하다. 「미국에 가는 한국현대미술, 프셋티 여사 101점 선정」, 『경향신문』(1957. 8. 25); Columbia University에서 소장하고 있는 팜플렛에는 박노수의 작품 〈Mountain Peak〉, 〈Rock and Flutist〉 2점이 기록되어 있다.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World House Galleries, 1958).

## 연보

- 1927년 충청남도 연기군 출생
- 1945년 충북 청주상업학교 졸업  
청진 이상범 사사
-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입학  
동홍중고등학교 강사
- 1949년 《제1회 국전》에 〈청추(晴秋)〉로 입선
- 1951~1953년 부산 피난지에서 국방부 중군화가단원으로 활동
- 195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졸업미전》에서 〈실내〉로 문교부장관상 수상
- 1953년 《제2회 국전》에서 〈청상부(淸想賦)〉로 국무총리상 수상
- 1954년 서울 상명여자고등학교 교사 재직  
《제3회 국전》에 〈아(雅)〉 특선  
《대한미협전》에 〈수하(樹下)〉로 국무총리상 수상
- 1955년 《제4회 국전》에서 〈선소운(仙簫韻)〉으로 동양화부 최초 대통령상 수상  
《대한미협전》에 〈수월(遂月)〉로 공보실장상 수상
- 1956년 《제5회 국전》에 〈월향(月響)〉 특선
- 1956~1962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 1957년 《뉴욕월드하우스초대전》(미국) 참가
- 1958년 《제1회 박노수 미술전》(서울, 동화화랑) 개최<sup>6</sup>
- 1960년 ‘묵림회’ 창립에 참여 직후 탈퇴
- 1962~198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 1963년 ‘청토회’ 창립
- 1964년 《도쿄올림픽 한국미술전》(일본)에 출품
- 1968년 《현대동양화 10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에 출품
- 1973년 충남향우회 창립20주년 《초대작가서화전》(서울, 코스모스화랑)에 출품
- 1976년 《동양화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9년 《동양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산수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정년퇴임  
한미수교 100주년기념 대통령특별사절단의 일원으로 도미(渡美), 6개 도시 순방
- 1983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
- 1986년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7년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 1988년 《88 서울 올림픽 국제회화전》에 출품

<sup>6</sup> 「박노수미전상황(朴魯壽美展盛況)」, 『동아일보』(1958. 6. 3).

- 1988년 《서울시미술대전》 추진위원회 부회장 역임
- 1992년 《한국근대미술 명품전》(서울, 호암갤러리)에 출품
- 1993년 《한국자연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1994년 5·16 민족상 수상  
《음악과 무용의 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5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서울시 문화상 미술부문 심사위원장
- 1997년 3·1문화상 예술부문 심사위원
- 1998년 《중원미술의 향기》(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1999년 《한국미술 50년전》(서울, 갤러리 현대)에 출품
- 2000년 3·1문화상 수상
- 2001년 《원로작가 100인-21세기 한국 미술의 여정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출품
- 2002년 《한국 미술의 마에스트로전》(서울, 금호미술관)에 출품  
《한국근대회화 100선전》(덕수궁미술관)에 출품
- 2004년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50주년기념미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8년 《배를 타고 가다가 한강르네상스, 서울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9년 《Nostalgia 근현대컬렉션전》(서울, 워터게이트갤러리)에 출품
- 2013년 작고



## 최종걸 (崔鍾傑, 1927~2000)



최종걸, 〈역군(役軍)〉, 1962, 《제11회 국전》 입선작

호는 위주(葦州). 1927년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노동리에서 출생하였다. 충남 예산농업 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해 1956년에 졸업하였다. 졸업 직후 학장의 추천으로 진명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해 1993년 정년퇴임 때까지 37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대학교 재학중인 1955년 《제4회 국전》에서 〈산촌(山村)〉으로 첫 입선했으며, 1957년 《제6회 국전》에서 입선한 〈산수〉는 산세의 표현에 전통적인 준법을 적용하여 원경과 중경, 근경의 거리가 뚜렷한 것이 특징으로 최종걸의 초기 화풍을 잘 보여준다.<sup>1</sup> 그러나 1960년 조선일보사 주최 《현대미술작가전》에 작품을 출품하며 한국화단의 전위적인 작가로 부상하였다. 최종걸은 수묵추상과 앵포르멜을 적극 수용하여 〈아침〉과 〈역군〉을 제작했다. 이는 1961년을 기점으로 일어난 국전의 성격 변화와 앵포르멜이 급부상했던 당시 화단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었다.<sup>2</sup> 이와 같은 화풍의 변화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을 중심으로 결성된 ‘목림회’ 활동과 연관 지을 수 있다.<sup>3</sup> 최종걸은 서세옥, 민경갑 등과 함께 《제1회 목림회전》에 참여하며 구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양식의 동양화를 모색했다.<sup>4</sup>

오랜 기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국전》, 《청토회전》 등에 참가하며 꾸준한 작품활동을 해온 최종걸은 1993년이 되어서야 제자들의 선물로 첫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었다.<sup>5</sup> 이후 해를 거듭하며 실경산수화를 지향하는 작가들의 단체로 ‘청토회’의 성격이 재정립됨에 따라 《전통산수화전》에 참가하며 한국전통산수화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오랜 기간 교직에 있으면서도 《국전》, 《청토회전》 등에 참가하며 꾸준한 작품활동을 해온 최종걸은 1993년이 되어서야 제자들의 선물로 첫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었다.<sup>5</sup> 이후 해를 거듭하며 실경산수화를 지향하는 작가들의 단체로 ‘청토회’의 성격이 재정립됨에 따라 《전통산수화전》에 참가하며 한국전통산수화를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1 「대작보다 내용을», 『경향신문』(1957. 10. 16).

2 김미정, 「한국 앵포르멜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60년대 초반 정치적 변혁기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12(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4), p. 302.

3 목림회는 ‘한국동양화단의 유일한 전위적 청년작가들의 집결체’로서 구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의 동양화를 선언하며 출발한 단체로, 1950년대 동양화단의 고루한 시각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폐단, 대한미술협회와 한국미술가협회 사이의 대립에서 나타나는 화단의 파당성 등을 비판하였다.

4 ‘35세 미만의 왕성한 제작의욕과 청신 민감한 현역작가’라는 회원자격 요건이 있었던 목림회는 처음에는 16명으로 출발하여 전성기에는 44명으로 늘어났다. 최종걸은 서세옥, 민경갑과 함께 설립멤버에 속한다. 이세기, 「광활한 산(山)의 화가 민경갑」, 『문화예술』(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3. 12), pp. 102~109.

5 이구열, 『근대 한국화의 흐름』(미진사, 1984), pp. 199~200; 「노(老) 미술교사에 사은(謝恩)의 전시회 미술교사 최종걸씨」, 『동아일보』(1993. 2. 3).

## 연보

- 1927년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노동리 출생  
충청남도 예산본정보통학교, 예산농업학교 졸업
- 1955년 《제4회 국전》에서 〈산촌(山村)〉, 〈습작(習作)〉 입선
- 195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동양화과) 졸업
- 1956~1993년 진명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57년 《제6회 국전》에서 〈산수(山水)〉 입선
- 1959년 《제8회 국전》에서 〈숲〉 입선
- 1960년 《제9회 국전》에서 〈아침〉 입선  
《제4회 현대미술작가전》, 《제1회 독립회전》에 참가
- 1962년 《제11회 국전》에서 〈역군(役軍)〉 입선
- 1965년 《제5회 청도회전》에 참가
- 1969년 《제9회 청도회전》에 참가
- 1978년 《78 現美展》 입상
- 1980년 《예산향토작가초대전》(예산, 우리전시실)에 출품
- 1984년 《광복 1세대 화가전》 초대작가 선정
- 1992년 MBC TV '아침의 창' 출연
- 1993년 《제1회 최종걸 개인전》(서울, 갤러리미건) 개최
- 1995년 《한국전통산수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0년 작고

## 김교만(金敎滿, 1928~1998)



김교만, <'88 서울 올림픽 문화포스터>, 1987  
(출처: 『김교만교수회갑기념전』, 신세계미술관, 1988)

김교만은 1928년 **공주군 계룡면 경천리**에서 출생했다. 195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전시연합대학을 거쳐 1956년 졸업했다. 졸업하던 해 한국아세아반공연맹 반공 포스터 공모전에서 3등상을 수상했다. 졸업 후 김교만은 같은 학과 출신의 일년 선배인 권순형과 함께 우리나라 디자인 스튜디오의 시초인 K-K디자인 사무실을 열어 1958년까지 운영했다.<sup>1</sup> 주문에 의존한 변동적인 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서울 진명여자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했으나,<sup>2</sup> 얼마 후 교사직보다는 활발한 상업 활동이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동양방직(주) (현 동일방직)에 입사하여 광고와 텍스타일 패턴 담당으로 약 4년간 근무하였다. 이후 다시 학교로 돌아와 성심여자고등학교와 서울예술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이후, 1964년에 모교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김교만은 1978년 50세의 나이에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영국의 세인트마틴스(St. Martins) 미술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199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에서 정년퇴임하였다.

1966년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상공미전)》가 신설되자 김교만은 상업미술부 심사위원으로 포스터를 출품하였다. 《상공미전》에 출품한 작품들에는 한국적 소재에 대한 관심과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 밝고 선명한 색상 등 김교만 포스터의 현대적 조형 감각이 잘 드러난다. 1976년 개최한 첫 개인전에는 당시 김교만이 “이미지를 선정하면서 테마는 민속적인 것을, 표현기법은 현대적인 간결함을 추구하였다”는 관광포스터 25점이 전시되었다.<sup>3</sup> 이 작품들은 개성이 뚜렷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으면서 한국이라는 주제를 훌륭하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4</sup>

1 김현주, 「김교만 그래픽 스타일의 형성과 전개」, 『디자인학연구』 33권 2호(한국디자인학회, 2020. 5), p. 234.

2 1960년대 초반까지 화신백화점, 유한양행, 방직회사와 은행 등에서 도안사라는 명칭으로 디자이너를 채용하기도 했으나, 사회적 수요가 적어 디자인 전공자들이 미술교사로 취업하기도 했다.

3 김교만, 「관광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김교만작품전』(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6).

4 황부용, 「단순과 정감으로 대표되는 서정적 스타일리스트 김교만」, 『월간 디자인』(1993, 9), p. 48.

김교만은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에서 대상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과장 또는 생략을 통해 우화적인 분위기와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중시했다.<sup>5</sup>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김교만의 그래픽 작업은 더욱 완성도가 높아졌으며, 1986년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후배 그래픽 디자이너 세 명과 함께 『아름다운 한국 '86 그래픽 4』를 출판했다.<sup>6</sup>



김교만, 〈Rhythm of Korea〉, 1998(출처: 『디자인 네트워크』, 디자인네트, 2008. 6)

김교만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선정한 〈'88 서울 올림픽 문화포스터〉(1987)를 보면, 탈춤, 부채춤, 농악 등 춤을 모티브로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五輪) 마크를 다섯 개의 부채로 표현한 이 작품은 바탕 화면에 과감하게 그래픽의 상이한 대조를 적용해 공간감을 살렸다. 이 시기 작품은 배경화면을 분할하고, 원근법을 적용해 입체감을 높이는 한편, 캐릭터의 율동감이 크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1995년 정년퇴임 후 김교만은 컴퓨터의 도입으로 변화하는 디자인계의 흐름에 맞춰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대학생과 신진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프로그램을 익혔다. 컴퓨터 그래픽에 도전한 그의 작품들은 기존의 인물 캐릭터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과감하게 해체, 재구성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작가가 얼마나 치열하게 실험했는가를 보여준다.<sup>7</sup> 한국 그래픽 디자인을 대표하는 1세대 작가인 김교만은 디자인 도구와 재료의 속성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디자인의 표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등 한국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한단계 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998년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래픽 세계를 확장하고 그 결과를 칠순기념전에 선보이고자 했으나, 아쉽게 전시를 20일 앞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1998년 뉴욕에서 열린 《리듬 오브 코리아》는 유작전이 되었다. 사후 21년만인 2019년 《김교만: 한국의 가락》과 《서울 김서방 DDP 가다》를 개최해 김교만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김교만은 1996년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진행한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에 선정될 만큼 디자인계에서 영향력이 큰 존재다. 농악대 고수나 포졸, 부채춤 등 한국인에게 친숙한 전통적인 소재를 채택해, 형태를 최대한 단순화시켜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서정적 포스터를 도입, 정착시킨 디자이너로 평가된다.

5 김교만, 앞의 글.

6 김현주, 앞의 논문, p. 238.

7 김현주, 앞의 논문, p. 238.

## 연보

- 1928년 충남 공주군 계룡면 경천리에서 출생
- 1950~195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응용미술학과 입학 및 졸업
- 1956년 서울 을지로에 동문인 권순형과 디자인 스튜디오의 시초인 K-K 디자인 사무실 개소
- 1957년 《벨기에 만국박람회 출품작 귀국전》 개최
- 1960년 동양방직주식회사(동일방직 전신)에서 광고와 텍스타일 패턴 담당으로 근무
- 196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과 교수 부임
- 1966년 《제1회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제1부 심사위원 및 추천작가로 〈사자표 구두〉 출품
- 1967년 크리스마스 쉼 〈거북선〉 2종 발매
- 1968년 서울특별시 문화상(공예부문) 수상
- 1972년 한국그래픽디자인협회 초대 회장 및 창립전에 출품
- 1974년 서울특별시 지하철 심벌마크 및 내부 디자인 담당
- 1975년 《한국현대공예대전》에 출품
- 1976년 《제1회 개인 작품전》(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전시실) 개최  
《대한민국상공미술전람회》 대회장상(상공부장관상) 수상
- 1977년 서울특별시 의뢰로 해외용 한국관광포스터 제작 / 성산대교 아치 디자인
- 1978년 영국 런던에 소재한 세인트마틴스 미술대학 입학  
《제2회 개인일러스트레이션》(영국 런던, 세인트마틴스미술대학 전시실) 개최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심벌마크, 로고타입, 포스터 제작
- 1979년 나자로 성당과 반포성당 14처 제작  
《제1회 아세아그래픽디자인 비엔날레》(이란, 테헤란)에 출품  
《제9회 BRNO 국제 그래픽 디자인 비엔날레》(체코슬로바키아) 초대작가
- 1980년 작품집 『한국의 가락』(디자인연구소) 출간 및 전시
- 1982년 《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유네스코 주최 노마(NOMA) 국제 콩쿨》 특선
-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심벌마크 제작
- 1986년 『그래픽4: 아름다운 한국』(미진사) 발간  
‘제10회 아시아경기’ 문화포스터 제작 / 한국 국제공항 사인 시스템 제작
- 1988년 ‘서울올림픽’ 문화포스터 제작 / 《제12회 바르샤바 국제 포스터 공모전》에 출품, 특선  
《회갑기념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1991년 이탈리아 제노바 엑스포 심벌마크 제작
- 1992년 서울정도 600년 기념 한국방문의 해 심벌마크와 로고타입을 디자인
- 1993년 동탑산업훈장 수훈
- 1994년 ‘한국방문의 해’ 심벌마크 제작 및 기념우표 발매 / 서울대학교 교수 정년퇴임
- 1996년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 선정
- 1998년 《개인전》(미국 뉴욕, 갤러리 아트 54)을 20여일 앞두고 자택에서 작고

## 김장한(金長漢, 1928~?)

### 충청남도 공주군 사곡면 호계리에서 태어난

김장한은 1943년 호계보통학교를, 1949년에 서울경동공립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에 입학했다. 중학교 때에 학생 운동에 참가해 두 차례 퇴학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시기 길진섭이 운영하던 남산미술연구소에서 그림을 배웠다.

한국전쟁 중 의용군으로 입대해 월북하여 1953년 11월에 제대했다. 제대 후 평양미술대학에 들어가 1957년 졸업했다. 졸업 작품으로 제작한 <홍남비료공장에서>(1957, 80호)은 《8.15 해방 12주년전》에 전시되었고, 해외순회전람회에도 출품된 작품 중 하나다. 졸업 후 평양미술대학의 교원, 강좌장으로 40년간 후학을 양성했다. 1979년에 예술학 부교수 학직과 1988년에 공훈예술가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1990년대 말까지 송화미술원 회원으로 활동했다.

1950년대 제작한 많은 작품 중 <이른 봄>은 1958년 《제5차 국가미술전람회(창건 10주년 기념 전람회)》에서 입상한 김장한의 대표작으로,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모판을 관리하는 여성을 통해 농사 준비를 하는 평범한 협동농장의 모습을 다룬 이 작품은 모판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농장원의 긍정적인 표정, 일상적인 생활의 소재, 구도와 포치, 색채구성 등 농촌의 모습을 아름답게 잘 묘사해 1950년대 후반 해외 미술전람회에 자주 출품되었으나 해외순회전람회 도중 사고로 소각되어 현재 작품은 다시 묘사한 것이다.



김장한, <홍남 비료 공장에서>, 1957, 캔버스에 유채, 80호(출처: 『조선미술』, 평양: 조선미술사, 1958. 1)



김장한, <이른봄>, 1965, 캔버스에 유채, 127×81cm, 평양 조선미술박물관

1957년 작 <홍남비료공장에서>(80호)부터 <변모되는 룡라도>(1989), <김정일화>(1992)에 이르기까지 30년 넘게 국가미술전람회 등에 출품했다. 그중 <봄>을 비롯한 여러 점의 작품들이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었다. 평양미술대학교 재직 중 교재 『유화실기기초』(1978), 『유화작품집』(1985), 『유화기법』 중 제1장 등의 집필과 편집을 담당했다. 조선미술가동맹 유화분과위원으로 있었으며, 1984년에는 예술교육대표단의 일원으로 불가리아를 방문했다.

## 연보

- 1928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서울경동공립중학교 졸업  
남산미술연구소(소장: 길진섭)에서 공부
- 1943년 호계보통학교 졸업
- 1949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서양화) 입학
- 1953년 한국전쟁 때 의용군으로 입대했다가 월북
- 1953~1957년 평양미술대학에서 공부
- 1957~1996년 평양미술대학에서 교원, 강좌장 역임
- 1957년 졸업 작품으로 <홍남비료공장에서>(80호), <할아버지>(25호) 제작
- 1958년 <이른 봄>(127×81cm), <고향으로>(25호) 제작
- 1959년 <강반에서>(60호) 제작
- 1960년 유화 <9월 총파업>(120호), 조선화 <통일연>(25호), <겨울>(60호), <춘황폭동>(80호) 등 제작
- 1961년 <봄>(50호), <제화직장에서>(25호) 제작
- 1962년 <정방산>(20호) 제작
- 1963년 <멀리 보이는 백두산> 제작
- 1964년 <논제초>(50호) 제작
- 1966년 <저녁길>(80호) 제작
- 1987년 <보람> 제작
- 1978년 대학교재 『유화실기기초』 집필
- 1979년 평양미술대학 예술학 부교수로 부임
- 1984년 예술교육대표단으로 불가리아 방문
- 1985년 『유화작품집』 집필
- 1988년 공훈예술가 칭호 수여 받음
- 1989년 <변모되는 룡라도> 제작

## 신봉균 (申鳳均, 1929~2000)

신봉균은 1929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으로, 단국대학교 국문과와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회화과를 거쳐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대전여자초급대학에 재직했으며 충남미술대전 운영위원,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협회장과 한국예총 충남지부장을 역임하며 초기 충남화단을 이끌었던 미술가중 한 명이다.

1957년 서울 문예살롱에서 《제1회 개인전》을 개최했고, 1961년 대전예총화랑에서 《제2회 개인전》을 열었다.<sup>1</sup> 그리고 1976년 《신봉균 추상화전》을 열었으며, 구상회화 창작 비중이 높았던 대전 화단에 현대미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어넣었다.<sup>2</sup>

1970년 ‘충남청년미술인회’가 결성된 후 창립전에 대한 글을 『대전일보』에 기고해 청년작가들에게 새로운 미술에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sup>3</sup> 신봉균은 대전 동중학교에 근무하던 1974년 제4대 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대전미협 회장으로 활약하던 시기 《한국미협전》에서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1975년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미술교육에도 열정을 쏟았다. 1982년에는 《한·일 친선미술교류전》에 참여했고 《국제미협전》에서 수여하는 특상(Special Prize)을 수상했다. 또한 1998년 충남도전 초대 작가 전시로 《신봉균 기획초대전》이 개최되었다.

대전시립미술관 소장 〈고향〉(1959)은 당시 화단에서 유행하던 앵포르멜 경향의 작품으로, 오래된 가구를 연상



신봉균, 〈고향〉, 1959, 캔버스에 유채, 72.5×52.7cm, 대전시립미술관



신봉균, 〈축제〉, 1984, 캔버스에 유채, 91×72.5cm, 대전시립미술관

1 《제6회 신봉균유화전》(서울 미술회관, 1976) 브로슈어 참조.

2 『충남근현대미술사: 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 46.

3 신봉균, 「충남청년미술인협의회 창립전을 보고」, 『대전일보』(1970. 6. 24);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대전미술의 새물결』(대전시립미술관, 2013), pp. 52~53.



시키는 형태가 상하로 놓여있다. <축제>(1984)는 붉은 색으로 칠한 캔버스 위에 물감을 뿌리거나 염색을 이용해 거친 마티에르가 표현되었고, 기하학적인 형태가 시선을 자극하며 축제와 같은 강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sup>4</sup> 신봉균은 작고할 때까지 대전·충남 화단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추상미술을 전개한 1세대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 연보

- 1929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1957년 《제1회 개인전》(서울, 문예살롱) 개최
- 1961년 《제2회 개인전》(대전, 예총회관) 개최  
조선일보사주최 《현대미술작가초대전》에 출품
- 1962년 《5·16혁명 기념미전》(충남공보관)에 출품
- 1963년 《5·16혁명 2주년 기념예술제》(대전문화원)에 출품
- 1964년 《제3회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66년 《제4회 개인전》(대전, 예총회관) 개최
- 1967년 《충청남도 예총회관 개관기념전》(대전, 예총회관)에 참여
- 1973~1975년 한국미협 충남지부장 역임
- 1974년 《예우회 창립전》(대전, 산강화랑)에 참여
- 1974~1975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주최 《지방작가 초대전》에 출품
- 1975년 《한국미협전》에서 미협이사장상 수상  
《제5회 개인전》(대전, 맥그리거화랑) 개최
- 1976년 《제6회 신봉균유화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77년 《대전실업대학 교수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78년 《한·일작가교류전》(서울시립미술관 / 중국 태화)에 참여
- 1979년 《현대작가 15인 초대전》(대전, 홍명미술관)에 참여
- 1980년 《예산향토작가초대전》(예산, 우리전시실)에 출품
- 1982년 《한·일 친선미술교류전》(일본, 도쿄미술관)에 참여  
《국제미협전》에서 특상 수상
- 1983년 《향토작가초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4~1994년 《충남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 1987~1988년 목우회 공모전 입선
- 1998년 《충남도전 초대작가전-신봉균 기획초대전》 개최
- 2000년 3월 작고

<sup>4</sup>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dma/DmaArtworksList.do?menuSeq=6093#close>

## 전영화(全榮華, 1929~ )

호는 해정(海丁). 1929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난 전영화는 보통학교 3학년 때 스케치를 배우고, 밀레(Jean-François Millet, 1814~1875)의 <만종>을 보면서 미술에 대해 본격적인 흥미를 갖게 되었다. 1949년, 천안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하였다. 본래 서양화 전공으로 입학했으나, 지도교수였던 노수현의 권유로 동양화로 전공을 바꾸었다.<sup>1</sup> 졸업이후에는 서세옥, 민경갑 등 서울대 출신의 동양화가들과 함께 '묵림회(墨林會)'를 결성하였다.

초기작품은 세밀한 수묵 선묘를 가미한 인물화가 주를 이루었다. 첫 국전 입선작인 <휴정>은 한 아이는 등에 업고, 또 다른 어린아이와 서있는 여인을 그린 작품으로 선묘 위주의 전형적인 국전양식의 인물화이다. 이 외에도 1957년 <제6회 국전> 입선작 <장미곡>, 1959년 <제8회 국전>에 무감사 출품한 <조손(祖孫)> 등이 있다.

전영화는 재료와 소재의 한계에서 탈피해 현실에 주목한 작품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1959년 작품 <가족>은 기존 동양화의 형식을 변화시키려는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sup>2</sup> 등장인물의 표현에서 대담한 먹의 사용과 함께 수묵 추상성이 감지된다.

전영화는 1970년대 초, 동국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과 중국화단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을 넘나들며 세계 각국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 전영화는 수묵과 채색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비구상 작품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양지(陽地)>, <푸른 대지의 아침>, <이른 아침>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농민들에게 친숙한 '흙'을 소재로, 소박하고 서민적인 작가의 조형의지를 담고 있다.<sup>3</sup> 1980년 신세계미술관에서 열린 <전영화 개인전>에서 이구열은 "전영화 작품의 화의(畫意)는 한국 농토의 관조(觀照)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 비구상 형태로 나타났을 뿐임을 알게 한다."라고 하며 시골 농경지가 평면의



전영화, <휴정>, 1954, <제3회 국전> 입선작  
(출처: 『천안박물관 제8회 기획전-전영화』, 천안박물관, 2014)

1 공광식, 「수묵추상으로 경작한 해정의 한국성」, 『제14회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전-해정 전영화』(대전시립미술관, 2017), pp. 8~9.

2 류철하, 「해정 전영화의 작품세계」, 『제14회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전-해정 전영화』(대전시립미술관, 2017), pp. 11~12.

3 김남수, 「'흙'에서 얻은 조형이념의 전개」, 『미술세계』(1991), pp. 23~24.



전영화, <평화의 메아리>, 1994, 한지에 수묵채색, 125 × 125cm, 대전시립미술관

추상화면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감상평을 남겼다.<sup>4</sup>

동국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1990년대 중반부터 전영화는 주로 미국 뉴욕의 소호를 중심으로 수묵화의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행보를 이어갔다. 전영화는 혼합매체를 이용해 한국 고유의 전통 오방색을 중심으로 채색화 작업을 시도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 1994년 작품 <평화의 메아리>는 오방색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즉물적인 감정과 감각을 직감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 오방색은 오대양 육대륙을 상징하며 다문화와의 연대, 그리고 인간애에 대한 깊은 신뢰를 마치 동화처럼 조화롭게 구성하였다. 이렇듯 전영화

는 시대정신과 흐름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지역과 시대성을 바탕으로 확장된 인류애적 관심사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 연보

- 1929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49년 천안 농업고등학교 졸업
- 1949~195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입학 및 졸업
- 1954년 《제3회 국전》에 <휴정> 입선
- 1955년 《제4회 국전》에 <추일> 입선
- 1956~1964년 중앙여자고등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56~1960년 경북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57년 《제6회 국전》에 <장미곡> 입선
- 1958년 《제7회 국전》에 <귀로> 특선
- 1959년 《제8회 국전》에 <조손(祖孫)> 무감사 출품
- 1959~1964년 《현대작가 초대전》(서울, 경북공미술관) 참가
- 1961년 《제10회 국전》에 <봄> 입선
- 1962년 《개인전》(서울, 동화화랑) 개최  
《국제자유미술초대전》(일본 도쿄미술관) 참가  
《제11회 국전》에 <정> 입선
- 1963년 《제12회 국전》에 <정> 입선,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참가
- 1964~1972년 서울미술학원 원장

4 류철하, 앞의 글, p. 13.

- 1966년 《동남아 국제미술전》(말레이시아)에 출품
- 1968년 《한국 현역작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69~1972년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덕성여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출강
- 1970~1978년 《한국미술대상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1년 《개인전》(도쿄, 마쓰야화랑) 개최
- 1972~1975년 《한국 불교미술 초대전》
- 1972~1992년 동국대 미술학과 교수
- 1974~1977년 《아시아 현대미술전》(일본)에 출품
- 1974~1981년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1975년 『한국불교미술의 조형성연구』 발간
- 1975~1976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 전공 석사 수료
- 1975~1980년 《앙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6년 《한국현대미술전》(대만)에 출품
- 1977년 《국제 현대미술전》(인도 뉴델리)에 출품
- 1979년 《한국미술 오늘의 방법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한국의 자연 실경산수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0년 벨기에 겐트대학교 초빙교수  
《전영화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1983~1985년 제2~4회 《미술대전》 심사위원
- 1988년 《한국 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1년 《제9회 개인전》(뉴욕, 아이런 갤러리) 개최
- 1993년 《전관 개관 기념 현대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4년 《서울 국제 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5~1996년 국민예술협회 회장 역임
- 1998년 《대전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1999년 《한국 원로 작가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0년 《한국 현대미술의 시원》(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1년 《제10회 전영화전》(뉴욕화랑) 개최  
《한국현대미술초대전》(뉴욕, 첼시센터)에 출품
- 2003년 《천안미술100인 작가전》(천안, 현민아트센터)에 출품
- 2004년 《한국현대미술초대전》(이탈리아 로마미술관)에 출품
- 2005년 《청계천 완공기념 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2012년 《국전작가회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2017년 제14회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 《전영화 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송영수(宋榮洙, 1930~1970)



송영수, 〈군상〉, 1954, 대리석, 68×28×20cm, 국립현대미술관

1930년 철도청에 근무하는 송흥선의 장남으로 서울에서 출생한 송영수는 7세 되던 해,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에게 입양되었다. 1944년 천안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이 무렵 함께 지내던 삼촌 송중배가 철도청에서 가져온 종이에 그림을 그리곤 했는데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하였다. 중학교 졸업 후 1947년 천안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며, 1950년 김종영이 교수로 있던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조각과에 입학하여 〈작품1〉과 〈작품2〉를 제작하였다.

송영수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53년 《제2회 국전》에서 여인을 소재로 한 입상 〈희망〉으로 첫 특선을 수상한 후, 《제5회 국전》까지 연이어 특선을 차지했다. 인체의 사실적 표현에 집중한 1950년대 전반 조각계의 흐름을 따라 이 시기 작품은 자매, 가족을 주제로 한 석고 입체 조각상을 주로 제작하였다.

국전에서 연이은 특선으로 최연소 추천작가에 오른 송영수는 1957년 《제6회 국전》에 첫 용접조각 작품인 〈부재(付財)의 나무〉와 나무와 새를 추상적으로 형상화한 〈효(曉)〉를 출품했다. 두 작품은 인체의 사실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형태를 단순화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추천작가에 반열에 오른 1957년은 송영수에게 또 다른 변화의 해였다. 그는 가톨릭 신자인 부인의 영향으로 영세를 받았으며,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서양미술사를 가르치던 장발의 권유로 성(聖)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 영향으로 1957년 벨기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십자고상〉과 〈통회(痛悔)〉 두 점을 출품하였다. 장발의 권유로 시작된 〈십자고상〉은 성(聖)미술에 대한 관심과 새롭게 시도한 철조 작업을 결합시킨 종교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용접조각의 도입기에 대부분의 작가들이 철판 자투리를 가지고 추상적인 용접조각을 제작했던 것과 달리 송영수는 철공소가 많이 있던 원효로 주변에 살고 있어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드럼통을 구입해 직접 해체하여 철판에 드로잉하고 잘라 추상작품을 제작하였다.<sup>1</sup> 용접조각의 특징인 즉흥성과 우연성에 바탕을 둔 다른 작가들과 달리 송영수는 여러 차례의 스케치를 통한 세심한 계획을 기반으로 작품을 완성하였다.<sup>2</sup> 〈작품 57〉은 목재를 사용해 인체를 구현하면서 공간

1 김이순, 『전후의 용접조각』(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 135~136.

2 송영수가 남긴 113권의 스케치북은 조각 작품의 형태 연구를 위한 크고 작은 도로잉으로 채워져 작품 양식의 변화과정도 보여준다. 김이순, 위

감을 강조한 작품으로 송영수가 철 외에 다양한 소재를 다룰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는 송영수 조각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던 전환기이다. 송영수는 괴담감을 중시하는 목조나 석조와 달리 선적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조각에 공간개념을 제시하는 새로운 표현방식을 적용하였다. 추상작품에 '새'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격동기를 겪은 작가의 체험을 담은 매개체이다. 1961년에 접어들면서 철판 중심의 작업에서 벗어나 철판과 철봉을 함께 활용한 용접기법을 시도하였으며, 1965년부터 새로운 금속 소재인 동판이 일본에서 수입되자 철 대신 동판을 사용한 용접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송영수는 1967년 개최된 《제9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순교자〉를 출품하는 등 다수의 국제전에 참가했다. 196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도자기용 가마가 처음 설치되자 여러 점의 테라코타 작업을 시도하였다. 또한 1960년대 말,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테인리스강이 생산되자 이를 작품 제작에 접목시키는 등 새로운 소재에 대한 관심과 실험정신이 강한 작가였다.

1970년 스테인리스강을 자르고 구부리고 용접해서 완성한 〈토템〉은 송영수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다. 고혈압으로 힘든 상황에도 추풍령 경부고속도로 준공기념탑의 설계를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송영수는 1970년 혈압으로 쓰러진 뒤 입원해서 혈압강화제를 맞고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1971년 서울 신문회관 화랑에서 유작전이 개최되는 등 사후 그를 기리는 전시가 꾸준히 이어졌다.<sup>3</sup>

조각의 제작기법으로 용접을 처음으로 활용한 송영수는 즉흥성과 우연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200여 권의 스케치북을 남길 정도로 세심한 계획 하에 작업했으며 40세에 안타깝게 요절한 천재 조각가라 할 수 있다.



송영수, 〈십자고상〉, 1963, 철, 83×32×15cm, 개인소장

의 논문, pp. 137~138.

3 1986년 《송영수 회고전》(그로리치 화랑); 1992년 《3인의 비교전-드로잉부터 작품까지》(그로리치 화랑); 1997년 《60년대의 한국 추상화 조각가 3인의 조명》(그로리치 화랑)에 이응노, 전성우, 송영수 출품; 1999년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미술: 조소》(국립현대미술관); 2000년 《작고작가 드로잉전: 선과 여백》(국립현대미술관); 2000년 《한국현대미술의 시원》(국립현대미술관); 2001년 《요절과 숙명의 작가전》(가나아트센터); 2003년 《오늘의 한국조각 2003-조각가 송영수》(모란미술관); 2010년 《한국 추상 철조각의 선구자 송영수》(국립현대미술관).

## 연보

- 1930년      서울에서 출생
- 1950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부 조각과에 입학
- 1953년      《제2회 국전》에 〈희망〉으로 첫 특선 수상
- 1954년      《제3회 국전》에 〈가족〉 특선
- 1955년      《제4회 국전》에 〈악기를 가진 여인들〉 특선
- 1956년      《제5회 국전》에 〈향〉 특선 / 《제1회 한국미협전》에 〈여인입상〉 작품  
〈모자상〉 제작, 수도여자고등학교 강당에 부조작품 〈진리〉 설치
- 1957년      벨기에 만국박람회에 〈십자고상〉, 〈통회〉 작품  
국전 추천작가로 위촉되어 《제6회 국전》에 〈부재(付財)의 나무〉, 〈효(曉)〉 작품
- 1958년      《제7회 국전》 추천작가로 〈형상〉 작품 / 《공보부초대전》에 〈여인좌상〉, 〈기도(신부)〉 작품
- 1959년      《제8회 국전》 추천작가로 〈책의 공포〉 작품
- 1960년      《제9회 국전》 추천작가로 〈달밤〉 작품  
〈항복(降福)〉, 〈망(望)〉, 〈작품3〉, 〈작품16〉 등 14점 제작
- 1961년      《제2회 한국미협전》 초대작가로 〈교차〉, 〈승화(昇華)〉 작품  
《제10회 국전》 추천작가로 〈형상〉 작품  
육군사관학교에 〈국기계양대〉 제작 설치 / 〈작품61-1〉 제작
- 196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로 부임  
공보부 주최 《34인전》에 〈건설을 위한 모뉴먼트〉 작품  
육군사관학교에 ‘화랑천 분수설계 및 사자상’ 제작 설치  
〈승화대〉 제작 및 설치. 그 외 〈작품 62-1〉과 〈자매〉 제작  
《한국대표작가전》(필리핀 마닐라)에 〈승화〉 작품
- 1963년      《제12회 국전》 심사위원으로 〈형상〉 작품  
《YMCA 신축기념 초대전》(서울)에 〈십자고상〉 작품
- 1964년      수유리에 ‘이준 열사 묘지 설계 및 조각’ 제작 설치, 〈십자고상〉 제작
- 1965년      서울 장충단공원에 〈이준 열사상〉 제작 설치 / 〈작품65-1〉과 〈작품65-2〉 제작  
《제14회 국전》에 〈승화〉 작품
- 1966년      《세계교육자대회 초대미전》에 〈작품〉 작품  
《제15회 국전》에 〈고궁의 환상〉 작품 / 〈곡예〉, 〈작품 66-1〉, 〈부활〉 제작
- 1967년      《제16회 국전》에 심사위원으로 〈소녀〉 작품 / 《제9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순교자〉 작품
- 1968년      〈생도회관기념부조〉(서울, 공군사관학교) 제작 설치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 위촉으로 〈사명대사상〉(서울, 장충단 공원) 제작 설치
- 1969년      《제18회 국전》에 〈새〉 작품 / 〈원효대사상〉(서울, 효창공원) 제작 설치
- 1970년      《엑스포70》 한국관에 〈순교자〉 · 〈생의 형태〉 작품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심장마비로 작고

## 김만희 (金萬熙, 1931~2018)

호는 고안(古岸). 1931년 부산에서 태어난 김만희는 국민학교 교사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미술에 관심을 갖고 기본 지식을 습득했다.<sup>1</sup> 1944년 대전사범학교에 입학하여 미술공부를 하였지만, 1950년경부터 서울에서 교편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매여 민화공부를 더 이상 진척시킬 수 없자 1962년 교사직을 그만두고 민화연구에 전념했다.

해방 후 급격하게 밀려오는 서구문화에 우리의 민족성이 소멸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김만희는 민속화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모사하여 『민속화집』을 발간했다. 김만희는 민화가 있는 곳이면 사찰, 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등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민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손수 수집한 자료를 그림으로 옮기는 작업을 거친 후, 1972년 김만희는 생애 첫 개인전인 《민속화 자료전》을 열어 민화 300점을 선보였다.<sup>2</sup> 이 전시회에는 의상 122종, 가면 34종, 꼭두각시 8종, 일상용품 90점, 화폐 7종, 선박 4점, 무구(武具) 18점 등 약 300종의 민속품을 8절지에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었다. 김만희는 전시 기간 동안 세계 50개국의 민속의상을 그린 그림을 컬러 슬라이드로 제작하여 대중에게 공개하였다. 이 《민속화 자료전》은 일반 시민들은 물론, 각종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덕수궁에서 앵콜전을 여는 결과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1975년 대만에서의 전시로 이어져 '애국자'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1997년에 개최된 《김만희 민화전-40년대 서울 재현》은 1940년대 서울의 모습을 되살려낸, 일종의 기록화였다.<sup>3</sup> 청계천과 동대문 근처의 오간수 다리, 전차, 승용차, 마차가 함께 뒤섞인 활기찬 모습, 축음기 앞에서 신기해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말기 갑작스런 공습경보에 놀란 시민들이 방공호로 대피하는 모습을 그린 〈공습경보〉는 당시의 혼란했던 정세를 잘 보여준다.



김만희, 1984, 〈문자도 도안-禮〉(출처: 김만희, 『한국의 문자도』, 상미사, 1984)

1 김현진, 「명인이야기-민화장 김만희」, 『천지일보』(2012. 4. 21).

2 「되살리는 옛 멋, 국립 공보관서」, 『경향신문』(1972. 2. 1).

3 오애리, 「'김만희 민화전' 40년대 서울 재현」, 『문화일보』(1997. 2. 4).



1979년 49세의 나이에 백내장으로 왼쪽 시력을 잃게 되어 민화 작업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에 놓이기도 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1984년까지 10년에 걸쳐 20권에 달하는 『민속도록』을 편찬했다. 이러한 공로로 ‘한국전통미술인회장 공로패’, 1992년 ‘문화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으며, 1996년에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8호 민화장(民畵匠)’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이만희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민화가 어떻게 이어져왔는지를 기록과 작품으로 보여주는 작가이다.

## 연보

- 1931년 부산 출생
- 1944년 대전사범학교 입학
- 1971년 《제1회 전국관광민예품 경연대회》(서울, 코스모스 백화점) 입선
- 1972년 《민속화 자료전》(서울, 국립공보관) 개최
- 1973년 『한국민속도감』(서울, 아시아태평양문화협회) 편찬
- 1973~1984년 『민속도록 1-20집』 편찬
- 1974년 《한국민속자료전》(서울, 국립공보관 / 미도파백화점) 개최
- 1975년 《민속화 자료전》(대만, 유사(幼獅)화랑) 개최  
사단법인 문화재보호협회장 문화재보호유공상
- 1976년 ‘한국고민예품보존회(韓國古民藝品保存會)’ 창립
- 1977년 《한국민속화 3백종 자료전》(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개최  
『민속도감 V.1-13』(서울, 상미사) 출간
- 1983년 《十二支(십이지) · 민畵展(민화전)》(서울, 석화랑) 개최
- 1983~1992년 『한국민속 칼라북스 1-17집』 편찬
- 1989년 사회단체 한국전통미술인회장 공로패
- 1992년 문화부장관 표창장
- 1996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8호 민화장 선정
- 1997년 《김만희 민화전-40년대 서울 재현》(서울, 현대아트갤러리) 개최
- 2001~2002년 『우리풍속화 100가지 국영문판』 편찬
- 2002년 사단법인 전통한지공예가협회장 공로패
- 2006년 『우리민속도감』 편찬
- 2018년 작고

## 김영덕 (金永惠, 1931~2020)

김영덕은 1931년 충청남도 서산에서 출생했고, 4살 되던 해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했다.<sup>1</sup>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세가 기울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김영덕은 덕수상업고등학교 야간부에 진학해 이곳에서 김두환과 장욱진 등으로부터 그림을 배웠다. 이 무렵 장욱진의 내수동 집을 오가며 그림을 사숙하기도 했다.<sup>2</sup> 1950년 4월 일본의 미술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밀항하려 부산에 내려간 김영덕은 한국전쟁 발발로 계획이 좌초되었으나 전쟁으로 기사를 급하게 구하던 국제신보(국제신문 전신)에 입사하면서 부산에 정착했다.

화가로서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국전쟁 시기 '토벽(土壁)'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결성된 미술동인 '청맥(靑脈)'의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서이다.<sup>3</sup> 김영덕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2년 뒤 그린 <전장의 아이들>을 《청맥 창립전》에 출품했다. 화면 가득히 전쟁고아를 연상시키는 헐벗고 남루한 9명의 아이가 자기들끼리 얽혀 있는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을 아이들을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sup>4</sup> 즉 향토적 색감으로 어른이 사라진 공간에서 서로를 지키는 아이들의 결연한 의지가 담긴 작품이다.<sup>5</sup>

1957년 봄, 부산 국제신보를 사직하고 김영덕은 부산상업고등학교에서 미술강사로 몇 년의 시간을 보냈다.<sup>6</sup> 미술강사로 지내던 1958년, 민주신보사에서 제정한 '제1회 경남미술상'을 수상했고, 부산에서 열린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10차례의 개인전을 가졌다. 5·16 군사정변 때 강사



김영덕, <전장의 아이들>, 1955, 캔버스에 유채, 90.9 × 72.7cm, 국립현대미술관

- 1 김영덕의 생애 관련 정보와 작품 세계에 관해서는 2018년 '갤러리 미술세계'에서 열렸던 회고전 도록 참조. 『金永惠 金壽展』(미술세계, 2018).
- 2 김동화, 「현실의 고통과 이상에의 갈망, 그 절실한 대결의 접점으로서의 화업(畫業)」, 위의 도록, p. 169.
- 3 '청맥동인' 창립 회원은 김경 · 김영교 · 추연근 · 하인두이고 1956년 3월 창립전을 열었다.
- 4 <전장의 아이들>에 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Detail.do?wrkMngNo=PA-04812>
- 5 김영덕이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내용을 작품의 주제로 삼게 된 데는 5년간의 신문사 생활이 배경이 되었다. 국제신보에 있으면서 세계 미술계 소식을 신속하고 풍부하게 접할 수 있었던 그는 일본 신문에서 프랑스의 L'homme Temoin, 즉 '증언하는 자', 의역하면 '시대의 증인' 그룹의 강력한 현실 참여를 주장하는 창립 선언문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눈앞에서 벌어진 동족상잔 비극 보고 '순수미술' 도저히 못하겠더라」, 『국제신문』(2018. 6. 10).
- 6 박영택, 「김영덕-정신적 외상을 거느린 기억의 형상화」, 위의 도록, p. 9.



김영덕, 〈인탁(人拓)-빛으로 72-03〉, 1972, 캔버스에 유채, 130.3×130.3cm, 작가소장

직을 그만두고 상경해 1967년 ‘구상전’이 시작될 때 간사로 동참했다. 1970년대 초반 생계를 위해 『조선일보』(1972.9.5.~1973.9.9.)에 1년 동안 연재된 최인호 소설 「별들의 고향」과 1972년 10월 『문학사상』이 창간되면서 연재를 시작한 박경리 소설 「토지」 2부의 삽화를 그리며 삽화가로도 이름을 얻었다.

1950년대 신문사 재직시절, 20세기 초 멕시코 벽화에 관심을 가졌던 김영덕은 굴곡 많은 한국의 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그림의 실마리를 멕시코 벽화운동에서 찾기도 했다.<sup>7</sup> 1968~1969년에 시작된 《인탁(人拓, ‘인간탁본’의 줄임말)

연작은 납작하게 깔린 인물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반영했다. ‘인탁’은 암각화나 비문을 탁본하듯이 인간을 떠낸 듯한 흔적을 말한다. 그것은 당시 한국의 어둡고 답답한 정치 상황 속에서 박제되어 버린 인간, 혹은 죽은 인간의 시신을 암시한 것으로, 자신이 1950년 9월 중군기자로 전쟁 중에 겪었던 체험을 기반으로 했다.

1970년대 시작된 《향(鄕)》 연작은 어린 시절 체험했던 자연에 대한 애뜻한 그리움에서 비롯되었다.<sup>8</sup> 김영덕은 수많은 산행을 통해 몸소 체득한 풍경을 《향》 연작에 담았는데, 《국토기행》이나 《금강산》 연작의 경우 우리 국토에 대한 사랑을 그린 작업으로, 금강산 그림에는 주로 고구려 고분벽화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도상들을 통해 남과 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화가의 마음을 담았다.

김영덕은 작고 몇 달 전인 2020년의 한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자주 드나들었던 경성도서관에서 프랑스 바르비종과 코로(Camille Corot, 1796~1875)의 풍경화를 화집으로 접하고 코로의 그림에 반해서 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고 밝혔다.<sup>9</sup> 그러나 전쟁 이후 한국의 현실에서는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대로 담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이 소외된 세상을 표현하고자 《인탁》 연작을 통해 ‘인간 실종’의 상황을 암시적으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인탁》 작업 이후 《향》 연작을 통해 고향 충남의 풍경을 표현주의적 화풍으로 화면에 담고자 했던 김영덕은 성격상 대척의 관계에 있는 이 두 시리즈를 지속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두 시리즈를 계속 병행했던 김영덕은 “그림은 나의 인생이었다”라는 회고를 남기고 2020년 12월 작고

7 박영택, 「김영덕-정신적 외상을 거느린 기억의 형상화」, 『미술세계』 67(2018), p. 47.

8 신항섭, 「김영덕의 鄕, 순수하고 순정한 옛 고향에의 헌사」, 앞의 도록, p. 82.

9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 관장과의 인터뷰 동영상, 「원로화가 김영덕 화백 인터뷰」(2020. 7. 13) 참조.

했다.<sup>10</sup> 작고 후 유족이 그의 화업이 시작되었던 부산에 그림을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물화 <건어(乾魚)> 등 당대 분위기를 일별할 수 있는 작품 9점이 부산시립미술관에 기증되었다.<sup>11</sup>

## 연보

- 1931년 충청남도 서산 출생
- 1935년 서울로 이주
- 1950년 밀항을 위해 부산에 갔다가 국제신보(국제신문의 전신)에 입사
- 1956년 《청맥 창립전》(부산, 미화당 백화점 별판)에 <진장의 아이들> 출품
- 1958년 경남미술제 참여 / 민주신보사 제정 '제1회 경남미술상(최고상)' 수상
- 1959년 《개인전》(부산) 개최 / 《제작 동인전》(국립도서관 화랑)에 참여
- 1960~1963년 조선일보사 주최 《현대작가미술전》에 참여
- 1972년 최인호 연재소설 「별들의 고향」(『조선일보』, 1972. 9. 5.~1973. 9. 9) 삽화 제작  
『문학사상』에 연재된 박경리 소설 「토지」 2부의 삽화 제작
- 1967~1980년 《구상전》에 출품
- 1971년 《현대한국중견작가 초대전》(일본 도쿄, 소고화랑)에 출품
- 1976년 《한국미술 오늘의 방법전》(문예진흥원)에 출품
- 1978년 《개인전》(서울, 선화랑) 개최  
《미술단체초대연립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9년 《한국미술 오늘의 방법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 1981년 《한국미술'81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1~1983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3년 《한·중 예술전》(대만, 고궁박물관)에 출품
- 1985년 《개인전》(서울, 조선화랑) 개최  
《제9회 아시아 현대미술전》(일본 도쿄)에 출품
- 1988년 《한국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0년 《한국미술 오늘의 상황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개인전》(이인화랑) 개최
- 1994년 《서울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5년 《개인전》(서울, 다도화랑) 개최
- 1998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3년 《70년대 회화정신전》(서울, 조선화랑)에 출품
- 2018년 《김영덕 미수전》(서울, 미술세계갤러리) 개최
- 2020년 12월 9일 작고

10 김경애, 「'인간 탁본 시리즈' 원로 김영덕 화백 별세」, 『한겨레신문』(2020. 12. 9).

11 정창혁, 「그림부터 조각까지... 기증미 미술관을 살찌우다」, 『조선일보』(2021. 5. 7).

# 이남규(李南圭, 1931~1993)



이남규, 〈Work〉, 1969, 캔버스에 유채, 73×52cm, 국립현대미술관

이남규는 1931년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현 대전시 유성구)에서 출생해 대전사범학교를 나왔다. 대전사범학교 재학시절 1년 후배인 최종태와 함께 미술반에서 활동하며 이동훈으로부터 그림을 배웠고, 1948년 《충남미술전람회》에서 특선을 수상했다.<sup>1</sup> 공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중등교사로 발령받았으나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 1953년 피난지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들어갔다. 대학시절 장발과 장욱진을 통해 간결한 추상 화법과 종교예술에 눈을 떴고,<sup>2</sup> 하인두, 이민희, 이지휘, 조영동과 교류했다.

1957년 장발 학장의 소개로 오기선 신부를 만나 천주교에 입교한 이남규는 서른일곱 살이 되던 1968년,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쉘리버흐 수도원(Schlierbach Abbey) 스테인드글라스 공방에서 가톨릭 성(聖)미술의 스테인드글라스 기법을 배웠다.

유리화공방에서 6개월간의 연구 후 프랑스 파리에서 2년간 머물며 그림 공부를 계속했다. 이때 파리에서 화가 마네시에(Alfred Manessier, 1911~1993)와 교분을 나누었고, 1970년 프랑스 파리 오파베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후 그해 말 귀국했다. 귀국한 후 1991년 작고할 때까지 이남규는 일곱 차례의 개인전과 국내외 수많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며 700점이 넘는 작품을 제작했다.

스테인드글라스 분야에도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이남규는 1974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서울 약현성당(현 중림동성당)에 세 폭으로 이루어진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하여 설치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 혜화동성당, 서울 정동제일교회, 서울 잠두봉순교성지 등 전국 각지 50여 곳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제작했고, 1980년대 초 서울 명동성당 스테인드글라스 복원에도 참여했다. 원광대학교 미술교육과와 공주사범대학(현 공주대학교) 미술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1 최종태, 「남만의 계절-이남규 이야기」, 『李南奎 畫集』(가나아트, 2003), p. 10.

2 대전시립미술관, 『이남규 1931~1993: 한국의 서정 추상 화가』(수류산방, 2013).

힘썼으며, 1988년부터 가톨릭미술가협회장을 맡았다. 그 공로로 작고 후인 2003년 가톨릭 미술상 특별상을 받았다. 1991년 일곱 번째 개인전을 사흘 앞두고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2년간의 투병 끝에 1993년 세상을 떠났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주로 구상 계열의 작품을 제작하던 이남규는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1960년대 중반 이후 점과 선을 활용해 세포(cell) 같은 색면들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온화한 파스텔조의 색면으로 이루어진 이 시기 작품에는 장욱진 작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남규의 작품 명제(命題)는 줄곧 ‘작품(Work)’으로 일관했다. 1969년 작 〈Work〉는 화면을 구획 짓고 사각형의 화면 안에 또 다른 큰 테두리를



이남규, 〈Work〉, 1990, 캔버스에 유채, 130×97cm, 대전시립미술관

그려 넣어 마치 그림 속의 그림을 보는 듯한 효과를 보여준다.<sup>3</sup> 이러한 효과는 스테인드글라스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유리를 통해 쏟아지는 빛을 색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남규는 잔 붓질을 반복했는데, 이러한 잔 붓질의 반복 또한 스테인드글라스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이남규는 1960년대 말 파리지절 체험한 프랑스의 서정적 추상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적 가치관을 회화 작업과 일체시켜 ‘신을 향한 예술’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4</sup> 빛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려한 선과 따뜻한 색채로 이루어진 추상회화를 제작했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도를 닦는 것과 같다”는 말을 즐겨 했다.<sup>5</sup> 평소 즐겨하던 말처럼 도를 닦듯이 자신의 예술 철학을 작품에 실친했던 미술가다. 조각가 최종태는 이남규의 작품에 대해 ‘한국적이며 동양적인 문기(文氣) 짙은 따뜻한 추상표현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려하고 리드미컬하고 생동감 넘치는 독특한 양식을 확고하게 구축했다’고 평가했다.<sup>6</sup>

2003년 작고 10주기를 맞아 가나아트센터에서 《이남규 회고전》이 열렸으며, 2013년 20주기를 회고하는 전시가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3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Detail.do?wrkMngNo=PA-04769>

4 김미경, 「신(神)을 향한 예술-이남규 10주기전에 부쳐」, 『李南奎畫集』(가나아트, 2003), p. 211.

5 이남규, 「무언(無言)의 실천자, 그 험난한 예술가의 길」, 『李南奎畫集』(가나아트, 2003), p. 212.

6 최종태, 앞의 글, p. 17.

## 연보

- 1931년 충청남도 대덕군 유성읍에서 출생
- 1945년 유성국민학교 졸업, 대전사범학교 입학
- 1951년 공주사범대학교 국문학과 입학
- 195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입학
- 1957년 장발의 소개로 오기선 신부와 만나 천주교에 입교
- 1957~1965년 유성중학교, 대전중학교, 충남고등학교, 대전사범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63년 대전 대흥동 성당 내 14처(부조) 제작, 외벽 12중도상(부조)을 최종태와 함께 제작
- 1964년 《수요동인전》(이지휘, 이종수, 조영동, 최종태)에 참여
- 1965~1968년 공주교육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 1968년 《5인 작가전(이민희, 조영동, 이지휘, 최종태)》(서울, 시민회관)에 참여  
《2인전(이남규 · 조영동)》(서울, 신문회관) 개최
- 1968년~1970년 오스트리아 슈리어바흐 수도원 스테인드글라스공방 및 프랑스 파리 연수
- 1970년 상파울로비엔날레 참가(브라질)에 참가  
《아시아현대미술전》(일본 도쿄)에 출품  
《제1회 개인전》(프랑스 파리, 오파베화랑) 개최
- 1970~1990년 《가톨릭미술협회전》에 출품
- 1971년 《제2회 개인전》(서울, 국립공보관) 개최
- 1971~1975년 원광대학교 미술과 교수로 재직
- 1971~1976년 《창작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2년 《4인전(이남규, 김진태, 조영동, 이지휘)》(서울, 명동화랑)에 참여
- 1972~1975년 서울 중림동 약현성당에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75년 공주사범대학 미술과 교수로 임용
- 1975~1979년 《서울 현대미술제》(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6년 공주 중동성당, 인천 간석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78년 《제3회 개인전》(서울, 선화랑) 개최  
서울 혜화동성당, 전주 노송동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79년 《제4회 개인전》(서울, 한국화랑) 개최  
서울 시흥동성당과 부평 가르멜수도원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80년 《한국판화드로잉대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이스라엘 나사렛 성모 영보성당에 〈한국의 성모자상〉(모자이크) 제작
- 1980~1984년 명동대성당 스테인드글라스 복원
- 1981년 《한국 미술 '81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2년 서울 경동교회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82~1984년 서울 역촌동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82~1988년 《한국현대작가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3년 《이탈리아현대미술제》(이탈리아 밀라노)에 출품  
대전 성모국민학교, 여주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84년 《한국종교미술전》(이탈리아, 로마)에 출품  
서울 대방동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85년 《제5회 개인전》(서울, 서울미술관) 개최  
서울 성심수녀회, 서울 절두산순교자성지, 인천 용현성당, 목호성당, 광주예수고난교회 명상  
의집, 광양 정우석탄화학사옥, 수원 지동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85~1986년 서울 가르멜여자수도원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86년 《창작미협 30주년 초대전》(서울, 문예진흥원미술관)에 출품  
《SICA대전》(이탈리아 로마, 스테파노토론토성당)에 참여  
대전 동정성모회, 이리 성모의원, 부산 주례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87년 《제6회 개인전》(서울, 샘화랑) 개최  
《한국화랑협회전》(서울, 수화랑 / 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인천 가좌동성당, 서울 성심수도회, 서울 잠원성당, 전주 전동성당, 서울 서초동성당, 안산  
원곡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88년 《세계현대미술제》(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한국 현대회화전》(대만, 역사박물관)에 출품  
《아시아국제미술전람회》(일본, 후쿠오카)에 출품  
광주 성요한성당(공군비행장 내), 서울 봉천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서울 동정성모회 수련소, 서울 논현동성당, 인천 해안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서울 가좌  
동성당 스테인드글라스 및 14처(부조) 제작
- 1988~1991년 가톨릭 미술가회 회장 역임
- 1989년 《한국성, 현대성 초대전》(서울, 서미갤러리)에 출품  
《한국 현대미술 초대전》(서울 / 말레이시아)에 출품  
서울 논현동성당, 대전 유성성당, 서울 당산동성당, 서울 천주의 십리 수녀원, 서산 동문성  
당, 마산 갈르멜수도회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89~1990년 서울 도봉 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90년 《예술의전당 개관 기념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횡성 도미니끄 수련원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90~1991년 서울 응암동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91년 《제7회 개인전》(서울, 금호미술관) 개최  
서산 운상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4월 뇌경색 발병
- 1993년 3월 작고



## 강나루(1932~)



강나루, 《추색(秋色)》, 1993, 캔버스에 유채, 46×53cm, 소장처 미상  
(출처: 『1993대전미술-대전의 빛전』, 한국미협 대전시지부, 1993)

본명 강현서(姜顯瑞). 강나루는 1932년 충청남도 부여 장암면 출생으로 5대째 훈장을 하던 집안에서 성장했다.<sup>1</sup> 고려대학교(당시 국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교사 임용시험을 거쳐 충남 태안 남면국민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25년간 있었고, 7권의 수필집과 8권의 시집을 출간했다.<sup>2</sup> 1966년 강경상업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동주 시인의 추천을 받아 『새한신문』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sup>3</sup>

강나루는 1970년대부터 《충남미협전》, 《백제문화제기념미협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1998년 대전시문화상을 수상했다. 주로 단체전에 참가하다가 전의중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임을 한 후 2002년 3월 고회를 기념해 한림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평생 키워온 미술에 대한 열망을 고회가 되어서야 펼쳐보인 강나루는 “문학 활동을 수시로 했지만, 개인전을 연다는 것은 어렵게 화가의 꿈을 실현시켜온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전시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sup>4</sup> 1970년대부터 2002년까지 제작한 60여 점이 전시된 이 전시에는 몇 점의 자화상과 정물화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작품은 여행지에서 얻은 소재를 감각적인 색채와 터치로 그려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풍경화였다.<sup>5</sup>

두 번째 개인전은 2018년 시집 『보슬비 속 우산 하나 떨어져 가고』의 출판 기념회를 겸한 《미수기념 작품전》으로 개최되었다.<sup>6</sup> 이 전시에는 16점의 회화가 전시되었는데, 2000년대 제작

1 김영배, 「강나루, 그人間과文學」, 『강나루 수필집: 그리움의 영마루에서』(한국문학도서관, 1991), p. 248.

2 강나루는 1998년 대전시 문화상을 수상 했는데, 문학계 활동을 통한 수상 내역으로 김시습문학상 본상, 대전문학상, 국제문화예술상 등이 있다. 첫 시집은 등단 후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 77세 때인 2009년 『일식사년(日蝕四年)』(분지출판사)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시·소설은 인고의 세월을 거쳐 탄생돼야」, 『대전일보』(2009. 3. 27).

3 양동길, 「양동길의 문화예술 들춰보기-강나루 미수기념 작품전」, 『중도일보』(2018. 9. 14).

4 「50여 년 만에 첫선 보이는 미술 선생」, 『중도일보』(2002. 3. 19).

5 강나루, 「유화 개인전 유감」, 『강나루 수필집: 그날 그린 자화상』(한국문학도서관, 2005), p. 188.

6 「강현서 작가 “88세지만 지금도 잠 줄여가며 창작활동 몰두”」, 『중도일보』(2018. 9. 9).

된 전국 명산의 풍광을 담은 작품들로 꾸러졌다. 이외에도 《대전미술 50년전》, 《한·일미술교류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강나루는 교육자이자 화가이며, 수필가, 시인으로 다방면에서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 충남의 예술인이다.

## 연 보

- 1932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고려대학교(당시 국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
- 1966년 강경상업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  
『새한신문』에 시인으로 등단
- 1972~1981년 《충남미협전》에 출품
- 1976~1978년 《백제문화제기념미협전》에 출품
- 1983~1989년 《우경회전(牛耕會展)》에 출품
- 1983~1989년 《도내 중등교사작품전》에 출품
- 1984~1985년 《충남북교류전》에 출품
- 1984~1989년 《한밭제기념 대전미술인초대전》에 출품
- 1988년 《대전직할시 승격기념 대전미협전》에 출품
- 1998년 《중견작가초대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에 출품  
대전시 문화상 수상  
전의중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임
- 1999년 《대전미술50년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1년 《한·일미술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2년 《개인전》(대전, 한림갤러리) 개최  
《스승의날기념초대전: 대전미술의 향기를 찾아서》(대전, 현대갤러리)에 출품
- 2002~2005년 《대전 원로미술인 초대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 2005년 『강나루 수필집: 그날 그린 자화상』(한국문학도서관) 출간(유화 작품 수록)
- 2009년 첫 시집 『일식사년(日蝕四年)』(분지출판사) 출간
- 2010년 《강나루 풍경전》(대전, 롯데갤러리) 개최
- 2018년 《강나루 미수기념 작품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문우식 (文友植, 1932~2010)



문우식, 〈성당 가는 길〉, 1957, 캔버스에 유채, 129.5×97cm, 《현대미술가협회 창립전》 출품작

193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난 문우식은 황해도 해주에서 해방을 맞이했으나, 해방 직후 가족이 남하해 서울에서 성장했다.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1948년 서울 흑석동에 있는 남관미술연구소를 다니며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배운 실력으로 1952년 부산 피난 시절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 입학해 이종우, 김환기의 지도를 받았다. 1954년 서울 장안동 홍익대학교 미술학부에서 열린 《제1회 홍익미술전》에서 학부장상, 《대한미협전》에서 미협위원장상을 연이어 수상하고, 같은 해 《제3회 국전》에 〈남하여담(南下餘談)〉이 입선하며 대학교 3학년 때 화단에 데뷔했다.

문우식이 한국미술계에 이름을 알린 것은 1956년 ‘현대미술가협회’ 창립 준비 중 박서보·김충선·김영환과 함께 《4인전》을 열면서다. ‘반(反)국전’을 선언한 《4인전》에서 대상의 재현보다는 주관적인 색채와 독특한 화면구성으로 주목을 받았던<sup>1</sup> 문우식은 1957년 ‘현대미술가협회’ 창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새로운 미술을 주창하며 기성화단에 반기를 들었던 ‘현대미술가협회’ 창립전에 김창렬과 함께 선언문을 작성했던 문우식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 10점을 출품했다.<sup>2</sup> 그러나 ‘현대미술가협회’에는 창립전 이후 참여하지 않고 회원으로만 남았다. 대신 조선일보사에서 주최한 《현대작가초대전》에 6회까지 참여했다. 문우식은 《제1회 현대작가초대전》에 대담한 색채와 다시점을 이용한 〈무명교를 위한 구도〉, 〈소녀가 있는 공방〉, 〈비둘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출품했다.

문우식의 화풍이 대담한 변화를 보인 것은 1959년경이다. 《제3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7점의 작품을 출품했는데, 〈엉덩이를 자랑하는 말〉, 〈황색을 위하여 발광하는 말〉, 〈태양과 말과 인간〉, 〈납북되는 가족과 말〉, 그리고 1961년 《국제자유미술전》에 출품한 〈馬·A〉, 〈馬·B〉 등

1 이경성은 문우식에 대해 “재간 있는 작가”라고 했고, 한묵은 “문우식의 색은 감각적이며 선도 감정에 따라 왜곡시켜간다. 그는 무게보다도 신선한 노래로서 ‘나이프’한 형태미의 구성을 기획한다. 외형 묘사에서 가끔적 내면 표출에의 노력이 엿보인다. 다른 세 사람에 비해 좀 더 장식성을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평했다. 한묵, 「4인전을 보고」, 『조선일보』(1959. 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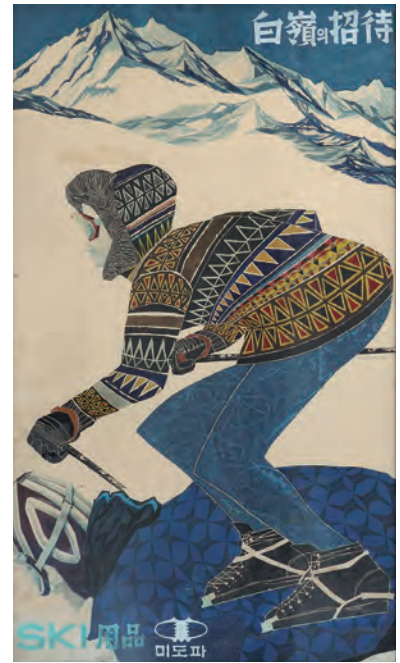
2 창립전에 이중섭 작품 3점이 소개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문우식의 〈성당 가는 길〉이 대표작으로 『서울신문』에 실렸다. 『서울신문』(1957. 4. 7).

모두 말을 그린 작품들로 제목과 표현 방식이 독특하다. 문우식의 1950년대 작품은 당시 유행하던 앵포르멜 계열과 달리 구상적인 면을 지니면서도 강렬한 색채의 사용, 면을 분할하고 재구성하는 등 포비즘적인 요소와 큐비즘적 요소를 융합하여 현대회화의 길을 모색했다.<sup>3</sup>

1960년대는 구상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순수추상으로 나아갔는데, 1962년 《현대작가미술전》에 출품한 〈석기시대의 유물〉, 〈왕가의 최후〉 등은 대상을 전면적으로 해체하여 화면에는 기하학적인 형태만 남았다. 문우식은 1962년 조직된 '신상회(新象會)<sup>4</sup>'의 창립멤버로, 황토색과 갈색, 흰색 등 색면구성 중심의 추상 작품을 출품했을 뿐만 아니라 창립전의 로고와 리플렛, 현수막, 포스터도 디자인했다. 이 시기 작품들은 단색의 색면이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때로는 모래와 같은 이물질들을 섞어 두터운 마티에르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미술단체를 통해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한편, 1961년 이대원의 소개로 오류동에 있던 미군 일간지 '성조지(星條紙, The Stars and Stripes)'에서 삽화와 신문, 잡지 편집 일을 하면서 신문과 잡지에 많은 컷을 남겼다.<sup>5</sup> 성조지에서 활동하던 중 문우식은 미군속으로 1961년 시카고 공과대학 현대조형미술연구원에서 판화를 수학하고 돌아와 판화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1962년에는 명동 국립극장 개관기념 벽화 작업을 하였으며, 1967년 제4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 카드섹션 도안을 하는 등 순수회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

1964년부터 1970년대까지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에 참가하여 산업화와 국제화 시대에 맞는 포스터 도안 작업을 하며 〈대관령 스키장〉(1964), 〈백령의 초대(白嶺의 招待)〉(1965) 등의 관광포스터를 남겼다. 그래픽포스터 제작으로 명성을 얻으며 공예가 유강열의 권유로 1962년부터 홍익대학교와 홍익공업전문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문우식은 1966년 9월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부임했다. 1979년까지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홍익대학교 디자인과가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디자인실험작가협회 고문, 대한산업미술가협회 이사 및 심사위원, 경주 보문단지 한국관광센터 상임실행위원, 대한민국 체신부 우표 심의위원을 역임하는 등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문우식, 〈백령의 초대〉, 1965, 종이에 수채, 102×60.5cm, 유족 소장

3 김이순, 「한국현대미술사의 또 다른 우회로-문우식의 1950-60년대 회화」, 『이경성 앤솔로지』(미진사, 2021), pp. 294~295.

4 '신상회(新象會)'는 특정 이념을 내건 그룹은 아니지만, 아카데미한 화풍은 물론 앵포르멜 미술과도 일정 거리를 둔 모더니스트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5 『성조지(星條紙, The Stars and Stripes)』는 미국방부가 미군들을 위해 발행하는 군사 전문 일간지이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잘했던 문우식은 홍익대 산악회의 지도교수를 맡아 마크 디자인, 한국등산학교 심볼을 제작했다. 또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열린 국제스키대회의 한국스키선수단장으로 참가하는가 하면 대한스키협회 전무이사, 전국대학체육대회 집행위원, 서울특별시 사회체육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수채화신작과회’, ‘대한민국수채화작가협회’ 고문 겸 회원으로 주로 수채화를 제작하며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전통에 얽매이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미술의 창작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문우식의 작품은 동시대 앵포르멜의 즉흥적이고 비정형적인 조형어법과는 다소 벗어나 있다. 이로 인해 한국 현대미술사의 계보에서 배제되었으나 1950~1960년대 그의 활동은 한국 현대미술의 모색기에 중요한 측면을 보여준다.<sup>6</sup> 또한 순수회화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디자인 분야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일찍부터 교육계와 현장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2010년 11월 3일 세상을 떠난 문우식은 작업실이 있던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선산에 묻혔다. 2018년 4월, 가족들이 힘을 모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에서 문우식의 첫 유작전 《그리움의 기억》전을 개최하여 문우식의 화업을 재조명했다.

## 연보

- 1932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48년 흑석동에 있는 남관미술연구소에서 수학
- 1952~1956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입학 및 졸업
- 1954년 《1회 홍익미술전》에 〈돌아온 아버지〉로 학부장상 수상  
《대한미술협회전》에 〈풍경〉으로 협회장상 수상  
《제3회 국전》에 〈남하여담(南下餘談)〉 입선
- 1956년 박서보 · 김충선 · 김영환과 함께 《4인전》(서울, 동방문화회관) 개최
- 1957년 《현대미술가협회 창립전》(서울, 미국공보원)에 출품  
아세아재단 후원 《자유미술초대전람회》(서울, 공보실 공보관)에 출품
- 1957~1962년 제1~6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에 출품
- 1958년 《한국현대미술전》(뉴욕, 월드하우스갤러리)에 〈Still Mill No.1〉 출품  
《대한민국 아시아반공미술전》(서울, 반공회관)에서 공보실장상 수상
- 1960년대 《문우식 유화 개인전》(서울, 중앙공보관 / 일본 오사카, 우메다화랑)에 출품  
《충북문충지부 초대전》에 출품
- 1960년 《한국현대작가미술전》(순회전, 동남아)에 출품
- 1961년 시카고 공과대학 현대조형미술연구원에서 관화 수학

6 김이순, 『한국현대미술사의 또 다른 우회로-문우식의 1950-60년대 회화』, 『문우식, 그리움의 기억』(2018).

- 1962년 《국제자유미술전》(일본 동경 / 부산 영보백화점)에 〈馬·A〉, 〈馬·B〉 출품  
《5.16혁명 백일기념미술전》(서울, 중앙공보관)에 출품  
명동 국립극장 개관기념 벽화 작업
- 1962~1967년 《국제자유미술전》(서울, 경북공미술관)에 출품  
《제5회 판화회전》(중앙공보관)에 출품
- 1962~1967년 《신상회미술전》(1~6회)(서울, 경북공미술관 / 중앙공보관)에 참여
- 1964년 《강원도 관광전》(서울, YMCA화랑)에 출품
- 1964~1970년대 《대한산업미술가협회전》(서울, 중앙공보관 / 디자인포장센터 / 명동화랑)에 참여
- 1965~1970년대 《일요화가회 회원전》(서울, 미도파화랑)에 참여
- 1966~1979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
- 1966년 《한국현대미술전》(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출품
- 1967년 영빈관 실내장식 디자인  
《민족기록화전》(서울, 경북공미술관)에 출품  
제4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식, 카드섹션 도안
- 1969년 한국판화협회 주최 《현대판화 10년전》(서울, 향성화랑)에 출품
- 1970년 전국대학미술전 집행위원 및 심사위원, 전국대학예술축전 상임집행위원
- 1971년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한국판화협회전》(한국판화미술관)에 출품
- 1990년대 《한국수채화신작파회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 문예진흥원 등)에 출품  
《한국의 이미지전》(일본 벳부, 토기바백화점)에 출품
- 1994~1996년 《장안회전》 참여
- 1996년 《문우식 수채화 초대전》(서울, 롯데화랑) 개최  
《한국 디자인 실험작가 벳부 관광포스터전》(일본 벳부)에 출품
- 1996~2000년 《한국선면화협회전》(백악예술원, 유성 홍인갤러리, 문예진흥원)
- 1997년 일한친선협회 주최 《문우식 수채화 초대전》(일본 벳부)에 참여  
《심갤러리 수채화 초대전》(서울, 심갤러리)에 출품
- 2000년 《한국현대미술시원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2~2006년 《대한민국 수채화작가협회전》(서울갤러리, 세종문화회관미술관)에 참여
- 2010년 11월 3일 작고

## 송용달 (宋龍達, 1932~ )



송용달, 〈얼굴〉, 1958, 종이에 먹과 수채, 79×55cm, 대전시립미술관



송용달, 〈나무〉, 2002, 종이에 파스텔, 29.5×44cm(출처: 『한발미술의 여정Ⅱ-이동훈과 대전화단』, 대전시립미술관, 2003)

1932년 대전에서 태어난 송용달은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을 졸업했다. 1946년 무렵 대전사범학교에 입학해 이동훈의 영향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sup>1</sup> 1960년대에는 충남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1962년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창립전》에 참여했다. 그리고 《예총회관개관기념전》, 《충남미술협회전》 등의 단체전에 출품했다.

송용달은 파스텔로 작업을 많이 했는데, 1997년 서울 문덕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하던 해에 《송용달 파스텔전》과 함께 파스텔화 작품집을 출간했다.

대전시립미술관 소장의 〈얼굴〉(1958)은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미술로 유명한 화가 프란츠 클라인(Franz Kline, 1910~1962)과 다다이즘 화가 한스 아르프(Hans Arp, 1887~1966)의 작품을 접한 후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sup>2</sup> 송용달은 한자의 초서와 같은 필세로 그린 프란츠의 작품과 한스 아르프의 구겨진 종이 위에 그린 작품을 보고 그들의 화풍을 시도했다고 한다.<sup>3</sup> 즉 이 작품은 스승 이동훈에게 배운 서양화 기법에다가 동양적 서체의 선묘 형태를 차용해 표현함으로써 인물화지만 독특한 화면이 완성되었다.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Ⅱ》에서 선보인 〈나무〉는 파스텔을 이용해 동화의 한 장면처럼 커다란 나무를 화면 가득 채운 작품이다. 정년퇴임 후 전업 작가로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송용달은 유화, 파스텔화 재료의 구분 없이 부드러운 질감으로 주변의 자연 풍광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1 『검이불우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9), p. 40.

2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daejeon.go.kr/dma/DmaArtworksList.do?menuSeq=6093>

3 『대전 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55.

## 연보

- 1932년 대전 출생
- 1946년 무렵 대전사범학교 입학
- 1962년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창립전》(충남공보관)에 참여  
《5.16혁명기념 미전》(충남공보관)에 출품
- 1963년 《충남미술협회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65년 《5.16혁명 2주년기념 예술제》(대전문화원)에 참여  
전국사대·교대부속국민학교 연합미술교육 연구 발표(경북사대부교)
- 1967년 《예총회관개관기념전》(대전, 예총회관화랑)에 출품
- 1969년 충남교육연구원 연구사 역임
- 1994~1997년 제3회~제6회 《강동초미연전》(강동 초등학교 미술교사 교육 연구 회원진)에 참여
- 1997년 《1회 파스텔 개인전》(서울, 송파구민회관) 개최  
서울 문덕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 II-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8년 《대전 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11~2020년 《상미술회전》에 연속 출품



## 육명심 (陸明心, 1932~ )



육명심, 〈검은모살뚝 시리즈-제주도 삼양〉, 1983/2017, 디지털 잉크젯 프린트, 50.7×76.2cm, 국립현대미술관

1932년 9월 10일 대전에서 출생한 육명심은 일곱 살이 되던 해에 부친의 사망으로 편모 슬하에서 자랐다.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시골로 행상을 다니느라 외아들인 작가를 친척집에 자주 맡겨 어린 시절부터 홀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한다.<sup>1</sup> 1946년 대전 삼성국민학교를 졸업한 육명심은 곧바로 대전 사범학교(6년제)에 입학하였다. 이때부터 연극과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1956년 『연희춘추』 신춘문예에 출품한 「항아리」가 선외가작(選外佳作)에 당선되는 밑거름이 되었다.<sup>2</sup> 대전사범학교 졸업 후, 1952년 서산 대산국민학교의 교사로 부임하였지만, 학업에 대한 갈망으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하여 영문학을 전공하였다.

육명심의 본격적인 작품활동은 1966년 《제1회 동아국제사진살롱》에 〈백수〉로 입선하면서 시작되었다. 육명심은 1960년대 한국 사진계의 주류를 형성했던 패권적이고 천편일률적인 리얼리즘에 대항하여 ‘프레임 낮설게 하기’, 즉 한 가운데를 텅 비우거나 주변을 잘라버리는 등 과감한 화면구성을 통해 기존의 기록사진들과는 다른 파격성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인상 (印象)》 시리즈를 포함한 초기사진들로, 육명심의 사진 속 풍경들은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했다.

1972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에 부임하면서 무용, 미술, 영화, 문학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과 개성을 사진 속에 담아낸 《예술가의 초상》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연세대학교 영문과 재학시절 은사였던 시인 박두진(朴斗鎭, 1916~ 1998)을 시작으로 구상(具常, 1919~2004), 김기창, 김충현 등의 예술가를 촬영하여 《예술가의 초상》 연작을 제작했다.

1970년대 초·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육명심은 사라져가는 한국적인 정체성과 미감을 찾고

1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는 육명심의 출생연도를 1933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호적상이고, 실제로는 1932년 9월 10일이다.

2 이 글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 사업에 수록된 글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https://www.k-artmarket.kr/kada/portal/singl/writer/criticism.do?menuNo=200046&writrNo=2>

자 ‘우리 것 3부작(Korean Trilogy)’이라 불리는 《백민》, 《장승》, 《검은 모살뚝》 연작을 시작하였다. 이는 작가적 관점에서 근대화·산업화의 진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통과 민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발현이었다. 《백민》에는 무당, 촌로들, 농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승려, 청학동의 아이들, 전통 조상(彫像) 등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한국 전통 ‘토박이’의 초상을 담았으며, 《장승》에는 이 ‘토박이’들이 만든 자기 초상이자, 한국적인 정신세계와 미감이 담긴 대상으로서 장승의 모습을 담았다. 《검은 모살뚝》은 뜨거운 한여름 제주도의 검은 모래사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래찜질 장면을 촬영한 작품으로, 무덤과 같은 모래찜질 속에 들어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괴로움을 참으며 자식을 기르고 지켜온 한국 어머니들에게 내포된 강렬한 생명력을 표현하였다.

육명심이 표현하는 한국적, 전통적 정신성은 1997년부터 라마불교를 종교적 문화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티베트를 비롯한 라다크, 부탄 등지를 촬영한 《라마불교》 연작으로 확장된다. 이 나라들은 작가 자신이 추구해 온 ‘생명의 문화’의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지닌 곳이자 ‘꿈꾸던’ 서방정토이며 아버지의 땅이었다.

육명심은 한국인의 정서와 정체성을 탐구해 온 한국사진의 원로작가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대상과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한국적인 것, 우리 정서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장면들을 포착해 왔다. 1997년 서울예술대학 정년퇴임 기념전시 《하늘 아래 첫 땅: Tibet》을 개최하였으며, 2016년에는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하였다.

## 연보

- 1932년 대전 출생
- 1946년 대전 삼성국민학교 졸업  
대전사범학교 입학
- 1952년 대전사범학교 졸업 후, 서산 대산국민학교 교사로 부임
- 1955~1960년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입학 및 졸업
- 1956년 『연희춘추』 신춘문예에 시 「항아리」가 선외가작(選外佳作)에 당선
- 1964년 서양화가 이동훈의 딸, 이명희와 결혼
- 1969년 《제4회 동아국제사진살롱》에서 〈백수〉로 은상 수상
- 1972년 서라벌예술대학 사진과 교수로 부임
- 1973~1976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미술사학과에서 「근대미술에 있어서의 사진의 문제」로 석사학위 취득
- 1974년 《제12회 동아사진콘테스트》에서 〈사별〉로 특선 수상
- 1975~1980년 신구대학 사진과 조교수로 부임
- 1978년 『한국현대미술사』 총서 중 『한국현대미술사-사진』을 최인진과 공동 집필

- 1980년 《제15회 동아사진사진살롱》 심사위원 역임
- 1981년 역서, 와타나베 쓰도무(渡邊勉) 著 『사진의 표현과 기법』(사진과 평론사) 출판
- 1981~1999년 서울예술전문대학(현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창설, 교수로 부임
- 1983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진과에서 ‘세계사진사’ 강의
- 1984~1986년 한국사진작가협회 17대 이사
- 1994년 《민중미술 15년전: 1980~1994》에 〈장승작업(93)〉 출판
- 1997년 《라마불교》 연작을 위해 티베트, 라다크, 인도, 부탄, 몽골 촬영  
《'97 광주비엔날레》에 출판
- 1999년 서울예술대학 정년퇴임 기념전시 《하늘 아래 첫 땅: Tibet》(서울, 덕원미술관) 개최
- 2000년 상명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로 사진사 및 작가론 강의
- 2004년 《육명심 초기 사진전》(대전, 사진화랑-Photo Class) 개최
- 2006년 홍순태, 한정식, 육명심의 사진전 《3인의 교수-백민(白民)》(한미사진미술관) 개최
- 2007년 《현대사진의 풍경》(서울시립미술관)에 출판
- 2016년 《한국현대미술작가 시리즈: 육명심》(국립현대미술관)에 출판  
‘2016년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로 선정, 은관 문화훈장 수훈
- 2021년 리움미술관 기획전 《인간, 일곱 개의 질문》에 〈예술가 시리즈〉 출판

## 이인영 (李仁榮, 1932~2021)

이인영은 1932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으로, 정규 교육이 아닌 독학으로 미술에 입문했다.<sup>1</sup> 논산국민학교를 첫 발령지로 교사의 길에 들어섰고, 1954년 대전 원동국민학교로 부임하면서부터 대전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sup>2</sup> 1956년부터 1967년까지 대전 소재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1967년부터 1975년까지 대전 공업고등전문학교 및 청주교육대학 강사로 출강했다. 1975년 한남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부임해 1997년 정년퇴임했다.



이인영, 〈가을〉, 1975, 캔버스에 유채, 112.5×145.6cm, 대전시립미술관

이인영은 충남미술협회가 발족되었던 1953년부터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1976년 충남미술가협회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한밭중학교에 근무하던 1957년 미공보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수채화로만 두 차례 개인전을 열었던 이인영은 충남미술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부터 유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1963년 국전에 첫 입선을 하며 중앙화단에 진출한 이인영은 1964년부터 1967년까지 국전에서 4회 연속 특선을 수상했다. 특히 1966년 《제13회 국전》에 〈오후〉를 출품해 국회의장상(서양화부 대상)을 받은 일은 지역 화단에 큰 경사였다.<sup>3</sup> 1968년 국전 초대작가가 된 이인영은 구상미술 작가들의 동호회인 '목우회' 회원으로 1965년부터 1986년까지 목우회전에 참여했다.

이인영은 1970년대 들어 자연을 대상으로 한 목가적인 풍경화를 그리며 화풍의 변화를 모색했다. 〈가을〉(1975)은 이전의 작품 경향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전환기 작품이다.<sup>4</sup> 인물이나 풍경 등 소재는 이전과 같지만, 형태를 생략하거나 축약하며 향토색 짙은 서정성을 담아냈다. 한편, 이인영은 민족기록화 작가로 선정되어 〈서희의 안용진 담판〉과 〈대민사업과 한월친선〉 등의 대작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인영은 1981년 목우회 회원들의 《르 살롱전(파리)》을 계기로 유

1 『충남근현대예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 39.

2 이인영의 생애 정보는 다음의 글을 주로 참조했다. 황효순, 「거대한 산과 목가적인 전원에서 색채의 화음을 노래한 화가」, 『원로작가 초대전: 이인영, 색채의 화음(和音)을 노래한 화가』(대전시립미술관, 2017), p. 13.

3 류철하, 「색채의 탐미-자연의 빛을 따라간 화가」, 『원로작가 초대전: 이인영, 색채의 화음(和音)을 노래한 화가』(대전시립미술관, 2017), p. 5.

4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daejeon.go.kr/dma/DmaArtworksList.do?menuSeq=6093#close>



이인영, <금강산>, 2000, 캔버스에 유채, 81×117cm, 개인소장

럽을 다녀오게 되는데 인상과 화가 모네의 그림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sup>5</sup> 모네 작품을 본 감명은 이후 점묘와 다채로운 색채로 표현된 《산》 시리즈로 나타나게 된다.

1990년대 후반에는 <금강산>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제작했는데, 이것은 남북 회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면서 금강산을 세 차례나 방문한 결과물이었다. 만년에 이르러 이인영은 한국의 산들

을 대상으로 한 풍경화에 주력했다. 2000년을 전후한 작품들은 점묘법을 사용해 그가 동경하던 자연과 고향에 대한 이상향이 화폭에 집약되었다. 이인영은 이처럼 한국 전역의 산야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으로 일관했던 화가다.<sup>6</sup> 1957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약 30회의 개인전을 열면서 대전 화단의 원로 작가로서, 충남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했던 이인영은 2021년 2월 13일 9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sup>7</sup>

## 연보

- 1932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51년 강경상업중학교 졸업
- 1955~1969년 강경중학교, 한밭여자중학교, 대전 성모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57년 《수채화 개인전》(대전, 미국공보원) 개최
- 1959년 《수채화 개인전》(대전, 대전문화원) 개최
- 1963년 《제12회 국전》에 <실내(室內)>로 입선
- 1964년 《제13회 국전》에 <답파는 여인(女人)>으로 특선
- 1965년 《제13회 국전》에 <추일(秋日)>로 특선  
《목우회 공모전》에서 모나미상 수상,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 1965~1986년 《목우회원전》에 출품
- 1966년 《제15회 국전》에 <오후(午後)>로 국회의장상 수상
- 1969년 《개인전》(대전, 예총화랑) 개최, 대전공업전문학교 출강
- 1973년 《한국 현대작가 100인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5 황효순, 앞의 글, p. 17.

6 김동창, 「자연의 화가」 이인영의 작품세계, 앞의 도록(대전시립미술관, 2017), p. 151.

7 「색채의 마법사 '이인영 화백' 별세」, 『중도일보』(2021. 2. 17).

- 1974년 청주교육대학교 출강
- 1975년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75~1997년 한남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재직
- 1979년 《유화 개인전》(대전, 신신화랑) 개최
- 1981년 《한국의 자연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유럽지역 미술관 견학(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네델란드 등)
- 1983~1992년 《한국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6년 《한국대표작가 100인전》(서울, 전경련회관)에 출품
- 1987년 《이인영 유화전》(서울, 동숭미술관) 개최
- 1988년 《서울 올림픽 기념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9년 《서양화6인전(김동창·신현국·심웅창·이인영·임립·임봉재)》(대전미술관)에 출품
- 1991~1992년 《움직이는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3년 《예술의전당 개관초대전》에 출품
- 1994년 《서울국제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5년 《유화 개인전》(서울, 홍인갤러리) 개최
- 1997년 한남대학교 정년퇴직, 명예교수 역임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초대전》에 출품
- 1999년 《현대미술 '99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금강산전》(대전, 현대갤러리)에 출품
- 2001년 《한발미술의 여정》(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2년 《유화개인전》(대전, 롯데화랑) 개최
-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II - 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6년 《아트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7년 《서양화 원로작가 초대전》(서울, 부남미술관)에 출품
- 2009년 《금강미술대전 초대전》(대전 MBC)에 출품
- 2013년 《유화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2017년 《원로작가 초대전 이인영: 색채의 화음을 노래한 화가》(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2021년 2월 13일 작고

## 이희세 (李喜世, 1932~2016)



이희세, 〈성균관 내(內) 공자문묘〉, 1957(출처: 『동아일보』, 1957. 10. 2)

1932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출생한 이희세는 1942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과에 입학하여, 1957년 제1회로 졸업하였다.<sup>1</sup> 이응노의 조카인 이희세는 미술대학 재학 중 《제6회 대한미술협회전》과 《홍대 창립9주년 기념미전》에서 각각 ‘대한미술협회장상’과 ‘학부장상’을 수상했고, 제4회와 제5회 《국전》 동양화부에서 연속 입선을 하였다.

이희세의 작품은 많이 남아있지 않으나 미국대사관 직원이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강사였던 A. 맥타가트(A. McTaggart)가 1955년 《홍대 창립9주년 기념미전》에 출품한 이희세의 작품 〈양(羊)〉, 〈오리〉, 〈토끼〉을 보고 “백색의 지면 공간을 잘 살린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한 기록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홍대미대 3회전》을 관람한 박고석은 이희세의 작품에 대해 “화격(畫格)으로나 기교에 있어서도 무리 없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sup>2</sup> 이희세는 1960년과 1961년 두 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하며 한국화단에서 주목을 받았고, 《현대 미술전》 준비위원으로 화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1964년 이희세는 프랑스로 떠나 파리동양미술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응노를 도우며 낯선 이국에 정착하였다. 프랑스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이희세는 1966년 《제1회 파리 개인전》을 열어 프랑스 제1방송에 방영되기도 하였다. 또 1973년부터 1974년까지 프랑스 문화예술 보존작업의 핵심이었던 라스코 동굴벽화 제작 사업에 참여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쳤다.<sup>3</sup> 그러나 고국의 정치 상황은 이희세가 화가로서 삶을 펼치는데 장애물이 되었다. 이응노가 한국전쟁 때 월북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베를린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방문한 것이 화근이 되어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자, 이희세는 베를린과 쾰른, 파리를 오가며 이응노를 위한 구명활동

1 근대한국의 학력 엘리트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이희세는 1942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제12회)하였다. 함께 명기된 자택 주소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이다. 근대한국의 학력 엘리트 데이터베이스. [http://waks.aks.ac.kr/rsh/dir/rview.aspx?rshID=AKS-2016-KFR-1230002&callType=srch&datalD=AKS-2016-KFR-1230002\\_TEXT@127199](http://waks.aks.ac.kr/rsh/dir/rview.aspx?rshID=AKS-2016-KFR-1230002&callType=srch&datalD=AKS-2016-KFR-1230002_TEXT@127199)

2 A. 맥타가트, 「현대적인 硯試圖-홍대미술전을 보고」, 『조선일보』(1955. 7. 3); 박고석, 「대견한 미술교육」, 『동아일보』(1956. 7. 24).

3 당시 라스코 동굴벽화 제작 사업에 참여했던 모니크 페이트랄(Monique Peytral)은 이희세에게 라스코 벽화작업을 제안했고, 두 사람은 벽화작업을 위한 도면을 만들며 벽화자체의 표면성을 살리기 위해 연구했다고 한다. Luc Heintze, 「Lascaux II: où l'art rencontre la science」, 『Histoire de la recherche contemporaine』(2016), pp. 182~192.

을 펼쳤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희세는 사회활동가의 길에 뛰어들게 되었으며, 1974년 ‘재불 한국 자주통일추진회’를 창립, 기관지 『통일조국』을 발간하였다. 1977년에는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약칭 한민련) 결성대회에 참가하며 유럽지역 본부 회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1980년에는 프랑스 사회당과 함께 김대중 전(前)대통령 구명 집회를 개최하는 등 미술가로서보다는 사회 활동가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희세가 자문위원으로 있던 한민족 유럽연대가 제공한 약력에 따르면 화가로서 이희세의 약력은 라스코 벽화 모사 제작 사업 참여가 마지막이며 이후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하였다.<sup>4</sup>

## 연보

- 1932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54년 《제6회 대한미술협회전》〈꽃집〉 출품, 대한미술협회장상 수상
- 1955년 홍익대학교 《창립 9주년 기념미전》에 〈매점(賣店)〉으로 학부장상 수상  
《제4회 국전》 동양화부에 〈소〉 입선
- 1956년 《대한미술가협회공모전》에서 장려상 수상  
《제5회 국전》 동양화부에 〈설경〉, 〈소〉 입선
- 1957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학과 졸업(제1회 졸업생)
- 1958년 《제2회 현대작가미술전》에 〈생리(生理)〉, 〈열(熱)〉, 〈무제(無題)〉 출품
- 1960년 《제1회 이희세 개인전》 개최, 〈산정(山亭)〉 외 50점 전시
- 1961년 《제2회 이희세 개인전》 개최, 〈젊은 열들〉 외 14점 출품
- 1963년 현대미술전 준비위원, 공모전 부분 심사위원 역임  
《제1회 청도회전》(서울, 중앙공보관)에 출품
- 1964년 이용노와 함께 도불, 이용노가 설립한 파리동양미술학교에서 학생 지도
- 1966· 1969년 《제1·2회 프랑스 파리 개인전》(프랑스, 프랑소와 베스타르트 화방)
- 1973~1974년 프랑스 라스코 동굴벽화제작 사업 참여
- 1973년 한국자주통일 추진회 결성, 기관지 『통일조국』 발간
- 1977년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회’(약칭 한민련) 결성
- 1980년 김대중 대통령 구명 집회 개최
- 1982년 민족문제연구회를 창립, 『민족』 발간
- 2001년 8·15민족대축전(평양) 참가
- 2005~2011년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
- 2016년 작고

4 이희세의 삶을 다룬 영화와 생전 인터뷰 영상이 남아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iHRVTNlay8>; 《코리아 돈키호테, 이희세》(감독: 최현정,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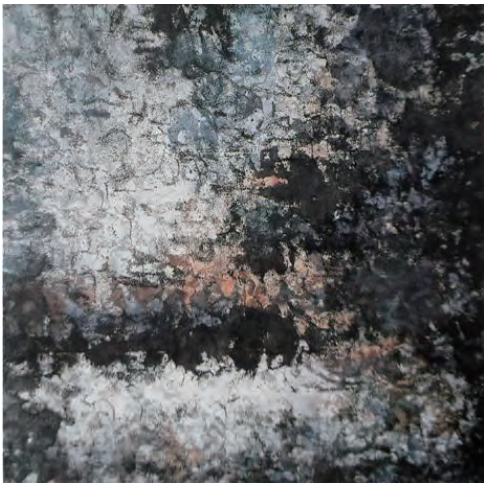


## 조평휘 (趙平彙, 1932~ )



조평휘, 〈소녀와 닭〉, 1959, 《제8회 국전》 입선작

호는 운산(雲山). 1932년 황해도 연안(延安)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또래보다 한 살 늦은 나이에 연백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6학년 때 열병을 심하게 앓아 15세가 되어서야 보통학교를 졸업했다. 보통학교 시절 조평휘는 미술 선생님인 서양화가 김진명이 이젤을 펼쳐놓고 그림 그리는 광경을 본 후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발발로 인천으로 남하해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하며 인천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조평휘는 미술 교사가 되기 위해 195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중등교원양성소에 들어가 2년 과정을 마쳤다. 195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3학년으로 편입하여 이상범과 김기창을 사사하였다.<sup>1</sup>



조평휘, 〈지운(地運)〉, 1971, 종이에 수묵채색, 89.5×89.5cm(출처: 『구름과 산-조평휘전』, 국립현대미술관, 2014)

1958년 재학 중 《제7회 국전》에 〈여인좌상〉을 출품해 첫 입선을 하였다. 의자 등받이에 한쪽 팔을 걸치고 비스듬히 앉아 있는 양장차림의 여인상을 그린 이 작품은 작가 스스로 '서울대풍'이라고 밝힌 바 있듯이<sup>2</sup>, 당시 국전에서 서울대 출신의 신진작가들이 추구하던 간결한 구성의 여성인물화였다. 다음 해에도 이러한 선묘 위주의 인물이 중심에 서있는 〈소녀와 닭〉을 《제8회 국전》에 출품하였다. 내심 특선을 기대했으나 스승 이상범과 김기창의 알력으로 입선에 그치지 조평휘는 이후 더 이상 국전에 출품하지 않았다. 대신 1960년 대학을 졸업

하던 무렵 화단에 불어닥친 앵포르멜의 열풍 속에서 인천의 《앙탱팡당전》과 홍익대학교 출신의 작가들이 모여서 만든 '신수회(新樹會)'에 참여하며 전통적인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에서 벗어나

1 신수경, 「구술사적 분석을 통한 한국 현대 수묵화 읽기-조평휘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22(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1), p. 157.

2 신수경, 위의 논문, p. 158.



조평휘, <계룡산 장군봉>, 2007, 종이에 수묵담채, 160×455cm(출처: 『구름과 산-조평휘전』, 국립현대미술관, 2014)

다양한 질감 효과와 표현방식을 시도하며 추상성이 강한 작품들을 제작했다. 1971년 작 <지운>은 ‘땅의 소리(地韻)’라는 제목처럼 물감을 찍는 소리가 정사각형의 화면에 울려 퍼지듯 일정한 크기의 무수히 많은 물감 자국들이 겹쳐져 있다.

1970년대 들어 조평휘는 추상화에서 사경산수화로 점차 변화를 꾀했다. 1970년대 전반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산수화로의 전환을 모색하던 조평휘는 1976년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의 교수로 임용되어 대전에 정착**하면서 사경산수화를 본격적으로 제작했다. 주말이면 대전 근방의 산을 여행하며 산수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큰 산에 구름이 있지, 야산에 구름이 머무르겠냐”며 스스로 지은 ‘운산(雲山)’이라는 호를 이때부터 작품 속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스케치 여행을 하면서 제작한 산수화로 1977년, 나이 마흔 여섯에 생애 첫 개인전 《조평휘 동양화전(東洋畵展)》을 개최하였다. 첫 개인전의 서문에 오광수는 “청전 이상범에게서 한국 산수의 묘를 그리고 윤보 김기창에게서는 운필의 다이내미즘을 터득한 작가로 흔히 산수화가 지니는 통념의 서정적 유약성에 비해 대담한 필선과 강한 농묵, 그리고 거기에 어울리는 활달한 구도 전개로 박진감이 있는 화면을 펼쳐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1980년대 들어서 조평휘는 진경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현대적 미감을 확보하기 위해 계룡산, 대둔산 등 충청도 근처의 계곡과 산을 비롯해 월악산, 속리산 등을 수십 차례에 오르내리며 산수화를 제작했다. 1980년대 후반 조평휘의 산수화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그리고자 하는 경관에 주목하여 나머지 부분은 과감히 생략한 산수화이며, 다른 하나는 대형 화면에 구체적인 지명을 작품 제목으로 채택해 답사했던 곳의 산세와 구름, 바위와 물살, 나무 잎사귀까지 충실하게 담아내는 대관산수이다. 그러나 특정 장소의 묘사에 얽매이기보다는 대상에서 받은 느낌을 강조한 호방한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1960년대의 조형실험에서 얻은 현대적인 표현감각이 바탕이 되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농묵의 표현과 거침없는 붓의 운용, 역동적인 화면 구성 등이 어우러진 결과다.

1990년대에 이르러 장엄한 ‘운산산수(雲山山水)’ 양식을 정립한 조평휘가 40여년 넘게 수

묵 산수화를 그리면서 가장 많이 소재로 삼았던 곳은 대전 인근의 명산인 계룡산과 기암절벽과 단애가 밀집된 ‘대둔산(大菴山)’이다. 오랫동안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수없이 오르고, 여러 각도에서 스케치한 계룡산을 소재로 끊임없이 새로운 조형어법을 모색하는 것은 조평휘에게 계룡산은 제2의 고향인 대전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소재였기 때문이다.

조평휘는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에서 오랫동안 제자들을 양성하며 전국대한미전 심사위원을 비롯해 충남미술대전, 동아미술제, 금강미술대전, 인천미술대전, 《미술대전》의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대전, 충남 한국화단에 기반을 마련한 조평휘는 미술교육자일뿐만 아니라 노령에도 대작을 제작하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많은 미술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 연보

- 1932년 황해도 연안 출생
- 1950년 연안중학교 졸업
- 1955년 인천공업고등학교 졸업
- 195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중등교원양성소 졸업
- 1958~1960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회화과(동양화 전공) 3학년으로 편입, 졸업
- 1958년 《제7회 국전》에 〈여인상〉 입선
- 1959년 《제8회 국전》에 〈소녀와 닭〉 입선
- 1963~2000년 신수회 회원, 제1~40회 《신수회(新樹會)》에 참여
- 1963~1967년 인천 대건고등학교 교사
- 1965년 인천 대건고등학교 재단이사장 표창
- 1967~1976년 김포 성서중학교, 성서상업고등학교, 삼선중학교, 덕수상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70년 문교부장관 표창(모범교사)
- 1971~1975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출강
- 1974년 《동양화 6인전》(서울, 신세계백화점)에 출품
- 1975년 《현대동양화철인전》(서울, 신세계백화점)에 출품  
《한국현역작가초대전》(서울, 양지화랑)에 출품  
《한국원로중진작가 미술전》(서울, 국립공보관)에 출품
- 1976 · 1988년 《아시아현대미술전》(일본, 도쿄미술관)에 출품
- 1976~1999년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 1977~2000년 제3~26회 《목원대학교 교수 작품전》에 참여
- 1977년 첫 개인전 《조평휘 동양화전(東洋畫展)》(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1978년 《조평휘전》(대전, 남계화랑) 개최
- 1979년 《동양화가의 눈으로 본 한국의 자연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1년 《조평휘 작품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1983년 충남한국회회 회장 역임  
《창립충남한국화협회전》(대전, 신신화랑)에 출품
- 1986년 신목회 회장 역임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한국화 100년전》(서울, 호암갤러리)에 출품
- 1987년 《조평휘 전》(서울갤러리) 개최
- 1987 · 1990년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 1989년 《한 · 중 미술교류전》(대만국립역사박물관)에 출품  
대전 한국화회 회장 역임
- 1989~1991년 제1~3회 《대전 한국화회전》에 출품
- 1989~2000년 제1~12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전》에 출품
- 1990년 《예술의 전당 전관개관 기념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동아일보사 후원으로 동서양화단의 원로 및 중진작가들과 백두산 스케치 기행
- 1991년 동아일보사 창간 70주년 기념 《백두산 실경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2년 금강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1993년 《조평휘 개인전》(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최  
운사회(雲思會) 회장 역임
- 1994년 《오원화랑초대 조평휘 수묵산수화전》(대전, 오원화랑) 개최
- 1995년 《한국전통산수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9년 《제1회 한림미술관 원로작가 초대전》(대전, 한림갤러리)에 출품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 2001년 《겸재미술상 수상 기념전》(갤러리 창) 개최
- 2001~2005년 운보미술관 초대관장 역임
- 2004년 《초대개인전 '운산 조평휘'》(대전, 롯데화랑) 개최
- 2006년 《대전미술의 지평: 조평휘, 안치인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7년 《한국화1953~2007》(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2010년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미술인상
- 2011년 《20세기 한국수묵산수화단체전》(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출품
- 2012년 《운사회》(서울, 인사아트센터)에 출품
- 2014년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구름과 산-조평휘전》(국립현대미술관) 개최
- 2021년 제19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수상

## 최종태 (崔鐘泰, 1932~)



최종태, 〈회향〉, 1970, 청동, 160.2 × 41 × 38.5cm, 작가소장

1932년 충청남도 대덕군 회덕면에서 4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한 최종태는 회덕국민학교 4학년 때 일본인 선생으로부터 서예를 접하고 대덕군 내 국민학교 글쓰기대회에서 일등상인 천상(天賞)을 받았다.<sup>1</sup> 1947년 대전사범학교 2학년 때 부임한 서양화가 이동훈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림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대전에 위치한 미국문화원에서 개최한 《충청남북도 학생미전》에 작품을 출품해 2등상을 받았다.<sup>2</sup> 당시 최종태는 그림, 서예와 함께 문학에 심취하여 문학동인과 시동인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쌓은 탄탄한 문장력으로 자신의 예술관과 작품에 관한 글을 막힘 없이 쓸 수 있는 작가로 성장했다.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약 6개월간 삼성국민학교 분교에서 재직했다. 이후 이동훈의 추천으로 모교인 대전사범학교부속 국민학교에 발령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대전사범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다. 당시만 해도 미술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없었으나 1953년 잡지 『문화세계(文化世界)』에서 우연히 본 김종영의 〈나상(裸像)〉에 깊은 감명을 받은 최종태는 1954년 국민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22세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에 입학했다.<sup>3</sup> 1958년 대학교 졸업 후 숙명여자중학교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던 중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군미필(軍未畢) 신분으로 더 이상 공립학교에 있을 수 없었다. 다행히 사립학교는 취업이 허가되어 천안고등학교, 대전 대성고등학교 등에서 교직생활을 하며 작품 활동을 병행했다. 1966년에 공주교육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6개월 후 다시 서울로 올라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약 3년을 재직했다. 이후 송영수의 후임으로 197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부임해 1998년 정년퇴임하였다.<sup>4</sup>

최종태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후 1960년 《제9회 국전》에서 석고로 제작

1 강명주, 『최종태 조각에 관한 연구』(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6~7.

2 최태만, 「제1차 구술채록문: 성장과 교육배경」,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286: 최종태』(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원, 2018), p. 53.

3 최종태, 『예술가와 역사의식』(지식산업사, 1986), p. 91. 강명주, 앞의 논문, p. 9에서 재인용; 황효순, 「대전 미술의 선구자들」, 『대전문화』26호(대전광역시, 2017), pp. 112~114.

4 대전시립미술관, 『대전미술 둘-공예·조각』(대전시립미술관, 2009), p. 18.

한 〈서 있는 여인〉으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sup>5</sup> 제10회와 11회 국전에 〈어머니와 아들〉(1961)과 〈앉아있는 여인〉(1962)으로 연이어 특선을 수상하며 추천작가가 되었다. 1970년 《제19회 국전》에서는 한국적 정서를 품는다는 의미를 지닌 〈회향(懷鄉)〉으로 추천작가상을 수상했다. 추천작가상의 부상(副賞)으로 100일간 세계일주를 떠나 직접 세계미술사를 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조각가 페리클레 파치니(Pericle Fazzini, 1913~1987)를 만나 그의 작업실에서 작품과 작품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sup>6</sup>

최종태는 1964년 조각이 전무했던 대전에서 최초로 조각 개인전을 열었다. 첫 개인전 이후 10여년 만에 《제2회 개인전》을 개최한 데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IAC 85》와 《FIAC 85》, 뉴욕의 엘리코 나바라(Enrico Navara gallery)등 세계적인 화랑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조각가이면서 파스텔 그림을 즐겨 그리며 1982년 《파스텔 그림전》도 열었다. 이후 조각과 파스텔화를 함께 제작하며 2014년에는 파스텔화만으로 《빛·사랑·기쁨》전을 열었다. 또한 1986년 『예술가와 역사의식』을 시작으로 『형태를 찾아서』(1990), 『불혹에서 이순까지』(1998), 『고향 가는 길』(2001) 등의 저서를 발간했다.

1958년 요셉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 전형적인 성당조각상의 형태를 답습하지 않고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 대신에 승리의 월계관을 씌우는 등 독창적인 양식으로 예수상을 제작했다.<sup>7</sup> 가톨릭교회를 위한 조각상을 주로 제작하던 중 2000년에는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에 파격적인 형상의 〈관음상〉을 제작하였다. 최종태는 고요하고 단순한 형태의 한국적인 인체조각의 전형을 확립시킨 조각가로 평가된다.<sup>8</sup> 3차원의 입체 조각 작품을 제작하면서도 한국의 사찰이나 마을입구에 서있던 장승이나 이집트 조각에서 보이는 부동성이나 정면성을 자신의 조각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

제작의 한계를 느끼던 30대 초반 백제의 반가사유상을 보고 한국 조각가로서 추구해야 할 평생의 길을 찾았다는 최종태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1962년 대전시 대흥동에 설치한 12사도 중 6사도와 〈한복 입은 성모마리아상〉, 〈순교자를 위한 기념상〉(1973) 등 종교 조각의 제작을 통



최종태, 〈성모자상〉, 2000. 청동, 113×32×31cm, 미상(출처: 『최종태 영혼과 본질의 탐구』, 대전시립미술관, 2005)

5 작가는 당시 아리스티드 마운(Aristide Maillot, 1861~1944)이나 앙투안 부르델(Emile Antoine Bourdelle, 1861~1929) 등의 양식을 답습하던 풍조에서 벗어나 지도교수였던 김종영 형식으로 제작하였다고 전했다. 최태만, 「제2차 구술체록문: 조각가로서의 삶」, 앞의 책(2018), p. 74.

6 최태만, 「4) 이탈리아 조각가 파치티와의 만남」, 앞의 책, pp. 81~82.

7 최태만, 「종교와 예술에 대한 생각」, 소재 근처에 있는 피정의 집에 14처를 조각하면서 예수의 머리에 가시관을 대신 월계수 가지를 씌우는 파격을 선보였다. 김수환 추기경이 이 모습을 보고 승리가 예고된 사형수의 표현에 적절하다는 칭찬을 한 일화가 전한다.

8 『한국근대미술명품도록』, 호암미술관, 1992, p. 169.

해 한국 가톨릭교회 조각의 현대화와 토착화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였다.<sup>9</sup> 2000년대 이후부터 최종태는 나무 조각에 채색을 하고 있다. 나무의 흙을 가리는 방편으로 채색을 시작했는데 외국의 성상조각에도 채색이 된 점을 참고하여 한국적인 원색을 칠한 것이 특징이다. 조각을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편으로 소묘, 목판화와 파스텔, 매직마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작품을 하고 있다.

최종태는 우리나라 종교 조각에 보이는 정면성과 부동상을 자신만의 조형의식으로 해석한 소녀와 여인상을 평생 제작해왔으며, 종교와 예술의 동행을 작품으로 구현해온 작가이자 교육자이다.

## 연보

- 1932년 대전에서 출생
- 1946~1952년 대전사범학교 입학 및 졸업
- 1952~1954년 대전사범학교부속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
- 1954~195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입학 및 졸업
- 1958~1966년 공주고·천안여고·숙명여고·천안고·대전대성고 교사로 재직
- 1959년 《제8회 국전》에 〈입상(立像)〉으로 입선
- 1960년 《제9회 국전》에서 〈서 있는 여인〉으로 문교부장관상 수상
- 1961년 《제10회 국전》에서 〈어머니와 아들〉 특선 수상
- 1962년 《제11회 국전》에서 〈앉아있는 여인〉 특선 수상. 국전추천작가  
대전 대흥동 성당 외벽에 〈12제자상〉을 동기 이남규와 함께 작업
- 1964년 《제1회 개인조각전》(대전문화원) 개최 / 충남문화상 수상
- 1966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 1967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부임
- 1968년 서울대학교 출신 조각가 6명과 조각그룹 ‘현대공간회’ 창립
- 197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부임 / 《국전》에서 〈회향〉으로 추천작가상 수상
- 1973년 〈순교자를 위한 기념상〉(서울, 양화진 성당) 제작
- 1975년 《제2회 개인전》(서울, 미국문화센터) 개최
- 1976년 《조각, 파스텔 그림 개인전》(서울, 문헌화랑) 개최
- 1980년 〈십자가〉, 〈십자가의 길〉(서울, 한강성당) 제작  
《한국 판화 드로잉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1년 《조각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1982년 〈김대건 신부상〉(서울, 한강성당) 제작
- 1983년 〈십자가의 길〉(서울,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 제작

9 「관음의 미소는 성모를 닮았다.」, 『한겨레 21』(2000. 6. 1).

- 1984년 <성모상>과 <콜롬바와 아네스>(서울,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 제작
- 1985년 《현대미술 40년전》(국립현대미술관) / 《FIAC85》(프랑스 파리, Grand Palace)에 출품
- 1986년 저서 『예술가와 역사적식 : 현실과 이상, 순간과 영원사이』(지식산업사) 출간
- 1987년 <예수성심상>(명동성당) 제작
- 1988년 《초대개인전》(서울, 호암갤러리) 개최
- 1989년 서울시문화상 수상
- 1990년 《한국 현대미술 오늘의 상황》(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조각 · 파스텔 그림》(서울, 가나화랑) 개최
- 1991년 한국건축문화상 수상
- 1992년 저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고 싶다』(민음사) 출간
- 1993년 《최종태 · 이종수 우정의 만남》(대전문화원) 개최
- 1994년 《개인전》(뉴욕, 엔리코 나바라 갤러리(Enrico Navarra Gallery)) 개최
- 1998년 저서 『나의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 최종태 예술 이야기』(열화당) 출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정년퇴임, 서울대 명예교수  
《영혼의 빛깔전》(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에 출품
- 1999년 저서 『회상, 나의 스승 김종영』(가나아트) 출간
- 2000년 《한국조각 그 천년의 단면전》(서울, 가나아트센터)에 출품
- 2001년 저서 『고향 가는 길 : 이순의 사색』(햇빛출판사) 출간
- 2002년 김종영미술관 관장으로 취임
- 2003년 《서울특별시 원로 중진작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5년 《최종태》(서울, 갤러리 현대 두가헌) 개최  
《영원과 본질의 탐구》(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2006년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 2007년 《개인전》(서울, 가나아트센터 / 파주, 갤러리 로터스 / 서울, 갤러리 선) 개최  
《구도의 여정》(서울, 가나아트센터) 개최
- 2008년 기톨릭미술상 특별상과 은관문화훈장 수상
- 2009년 《조각을 읽는 즐거움》(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에 출품
- 2010년 『최종태 얼굴 그림 2009~2010』(열화당) 출간
- 2011년 저서 『산다는 것 그린다는 것 - 조각가 최종태의 신앙 이야기』(바오로딸) 출간  
《개인전》(서울, 가나아트센터 / 대구, 대백프라자갤러리) 개최  
《한국조각 다시 보기展》(서울, 소마미술관)에 출품
- 2014년 《대한민국 예술원 개원 60년 어제와 오늘》(덕수궁미술관)에 출품
- 2015년 《개인전》(국립현대미술관) 개최
- 2018년 《개인전-영원의 갈망》(서울, 가나아트센터) 개최
- 2020년 『최종태, 그리며 살았다』(김영사) 출간



## 민경갑 (閔庚甲, 1933~2018)

호는 유산(酉山). 1933년 8월 1일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한 민경갑은 1953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3년 피난지인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한국화 전공)에 입학하여 노수현과 장우성에게 동양화 수업을 받았다. 1957년 서울대학교 졸업 후 낙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지내다가 1972년부터 영남대학교 교수, 1979년부터 동덕여자대학교, 1990년부터는 원광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2000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2001년 서울시 문화상, 2002년 은관문화훈장 수상했다.

미술대학 재학 중인 1955년 〈밤거리의 여상〉으로 국전에 입선하기 시작해, 1956년 대학 졸업반 때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주하는 인물화 〈시청(試聽)〉으로 특선을 받았다. 1961년부터 한국화 분야에서 처음으로 국전에 추상작품을 출품하여 연속 3회 특선을 수상했으며, 1963년 추천작가, 1972년 초대작가를 거쳐, 1974년부터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1960년대 초, 민경갑은 동양화의 전위운동을 표방한 ‘묵림회’ 창립에 가담하여 〈강강수월래〉(1957), 〈동열〉(1959)과 같이 형태를 해체한 추상 작품을 선보이며 한국화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sup>1</sup> 그러나 이 무렵 민경갑은 ‘한국화는 서양화와 다른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는 한국화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한국인의 정서와 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한국화의 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으로 평생을 동행한 주제가 바로 ‘자연(自然)’이었다.

민경갑은 1960년대 몰두했던 추상적인 작업에서 1970년대 초반 들어서면 사실적인 풍경화로 회귀하여 자연을 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발묵과 번지기 효과를 이용



민경갑, 〈월 95-2〉, 1995, 종이에 수묵담채, 210×575cm, 국립현대미술관

<sup>1</sup> 김병기, 「제10회 국전을 이렇게 본다」, 『동아일보』(1961. 11. 19).

하여 전통적인 동양회화의 소재인 산수·여성 인물·화조 등 다양한 소재를 탐구하기 시작해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중심 화제로 삼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이르면 민경갑의 작품은 진한 채색과 강렬한 색채 대비를 통한 평면적인 화면으로 다시 바뀐다. 이 시기 작품은 화려한 원색의 사용과 면을 분할하고 형태를 평면화시켜 단순하면

서도 감각적인 화면이 특징이다. 이러한 색채는 한국적 정신성의 원형에 대한 관심을 색으로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sup>2</sup> 1995년 제작한 <얼 95-2>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대상을 극도로 단순화시키고, 진한 채색과 함께 적색-청색-녹색이 대비를 이루는 평면적인 화면을 통해 ‘산’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작업은 2000년대 제작한 ‘자연 속으로’라는 주제로 귀결되어 조화와 공존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 온 민경갑의 예술을 대표하는 소재가 되었다. 그러나 민경갑은 자신의 작품에 더 이상 한국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음을 느끼고 <자연> 시리즈를 중단하고 새로운 작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반에 제작한 <무위(無爲)자연> 연작은 이와 같은 자기반성에서 시작한 작품으로, 이미 자연의 섭리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를 담아 자연에 대해 정서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를 발판삼아 2010년~2013년에는 <진여(眞如)> 연작을 제작했다. 진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색을 최소화하는 대신 먹을 주로 사용하여 동양적 정신세계를 표현했다. 2010년 제작한 <진여 10-4>는 <진여> 연작 중 하나로, 기하학적 조형 언어를 이용하여 자연의 이미지를 울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민경갑은 먹이 종이에 번지듯 스며드는 선염 기법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기하학적 형태들의 윤곽이 부드럽게 흠어지도록 묘사했다.<sup>3</sup> 본디 있는 그대로의 자연 또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진여>가 추구하는 조형미가 무엇일지를 겨냥하고 있는지 명료하게 보여주었다.<sup>4</sup>

‘자연’이라는 대주제 아래 민경갑은 1980~1990년대 초반 <자연과의 조화>, 1990년대 중후반 <자연과의 공존>, 2000년대 초반 <자연 속으로>, 2000년대 <무위(無爲)자연>, 2010년대 <진여>



민경갑, <진여 10-4>, 2010, 화선지에 먹, 채색, 172×273cm(출처: 『MIN KYOUNG KAP』, 연미술, 2012)

2 『광복 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대전시립미술관, 2015), pp. 35~36.

3 민경갑은 <진여> 연작에서 하얗게 비워둔 부분에 강한 흑색 대비에 의해 빛이 쏟아지는 듯한 효과를 주어 성황당에서 나무끼는 천 자락을 모티브로 했음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해 “내가 산을 좋아해서 산을 타곤 하는데 성황당에서 실 때 마다 바람에 나무끼는 하얗고 빨간 천들을 보면 그 순간에 참 섬찝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어. 그게 바로 한국적인 거 아니겠는가. 저걸 내가 승화시켜야겠다 했던 거야.”라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진여 11-6C> 작품 소개 참고. <https://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Detail.do?wrkMngNo=KO-08454>

4 신형섭, 『유산 민경갑의 조형세계』(영남대학교 출판부, 2012), p. 291.

《眞如》 등 일련의 연작들을 선보이며, ‘자연’의 외경을 그리는 것을 넘어 자연과의 일체를 이루기 위한 시도를 계속 이어갔다.<sup>5</sup> 화선지와 묵, 천연 안료라는 재료의 전통성을 고수하면서 ‘자연’이라는 주제에 꾸준히 천착함으로써 한국적 정서와 특성을 강화했다. 민경갑은 한국화의 전통적 특질을 이어가는 동시에, 현대적인 조형감각으로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유기적인 화면구성을 구축했고, 유화의 색감을 넘어서는 투명하고 깊이 있는 한국화의 색감을 만들어냈다.

## 연보

- 1933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53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53~195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한국화 전공) 졸업
- 1955년 《제4회 국전》에서 〈밤거리의 여상〉으로 입선
- 1956년 《제5회 국전》에 〈시청(試聽)〉으로 특선
- 1959~1961년 낙양고등학교(현 중앙대학교부속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60~1961년 《목림회전》에 출품
- 1961년 《일본자유국제전》(일본)에 출품  
《제10회 국전》에 〈과생(派生)〉 특선
- 1962년 《제11회 국전》에 〈부(剖)〉 특선
- 1963년 《제12회 국전》에 〈요(凹)〉 특선  
《국전》 추천작가로 위촉
- 1969년 《상파울루 비엔날레》(브라질) 출품
- 1972~1979년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재직
- 1974~1979년 《국전》 심사위원으로 위촉
- 1976년 《한국현대동양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7년 《미국 뉴욕한국센터갤러리 초대전》(미국 뉴욕, 한국센터 갤러리) 출품
- 1979년 《현대화랑 초대전》(서울, 현대화랑) 출품  
《한국의 자연전-실경산수》(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9~1982년 동덕여대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 1980년 《한국현대미술 195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3년 《한국현대서화전》(대만국립역사박물관)에 참여
- 1985년 《광복 40주년 현대미술4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6년 《한국화 100년전》(서울, 호암갤러리)에 참여
- 1987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객원교수로 재직
- 1990~1997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5 《민경갑-자연에 길을 묻다》(2012. 5. 8~ 6. 3) 전시소개 참고.

- 1992년 《한국현대미술전》(대만국립역사박물관)에 참여  
《IAA 서울 기념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3년 《'93 오늘의 한국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4년 《서울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5년 《한국미술 '95질 · 량 · 감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6년 《제30회 한국미술협회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 1997년 《대한민국 원로작가 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 출품
- 2000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선출  
《세계평화미술제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2001년 서울시 문화상 수상
- 2002년 은관문화훈장 수훈  
《Unesco 초대 개인전》(프랑스 파리) 개최
- 2004년 대한민국 예술원상 수상  
한 · 일 우정의 해 2005 자문위원(외교통상부) 역임
- 2006년 《동양화 새천년 한국화의 힘》(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몽마르뜨 비엔날레 한불대표작가전》(프랑스 파리)에 참여
- 2010년 대한민국 미술인상 수상
- 2011년 《청풍명월-墨香》(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한국화의 재발견》(성남아트센터)에 참여
- 2012년 《민경갑-자연에 길을 묻다》(서울시립미술관) 개최
- 2013년 《감성과 영혼의 세계-민경갑展》(서울, 슈페리어 갤러리) 개최  
《친절한 현대미술 II-추상은 살아있다》(경기도 미술관)에 참여  
《서학비상: 한국 근현대 학 그림》(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참여
- 2014년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15년 《세기의 동행》(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16년 《백두산을 그리다: 한국 현대 백두산도展》(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참여
- 2018년 작고

# 이우성 (李又性, 1933~2010)



이우성, <'88올림픽성화봉>, 1988, 황동·구리·플라스틱, 505 × 100mm, 무게 1,000g

1933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한 이우성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였다. 1978년 한국 디자인계의 발전을 위해 결성한 '한국디자인학회'의 창립에 참여해 부회장을 지냈으며, 경기공업전문학교 공예과 교수를 거쳐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미술과 교수 및 학장을 역임하였다.

1981년 《제16회 국전》에는 초대작가로 <조명기기>를 출품하였으며, 산업사회에 적합한 이미지의 창조와 아이디어의 발전을 위해 결성된 한국디자이너협회의 《창립기념전》에도 참여하였다. 1987년과 1991년 《디자인 대전》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이우성의 가장 기념비적인 작품은 1988년 서울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성화봉'을 제작한 것이다. 전통적인 '화로(火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상부에 24개의 불구멍을 뚫어 제 24회 올림픽을 상징하였다. 1996년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디자이너 100인에 선정되었다.

## 연보

- 1933년 충청 보령에서 출생
- 1976년 《송도회(松島會) 회원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sup>1</sup>
- 1977년 《우수공예가 초대전》에 출품
- 1981년 《제16회 국전》 초대작가로 <조명기기> 출품  
《한국디자이너협회 창립기념전》(서울, 디자인포장센터전시관)에 출품
- 1983년 《삼성굿디자인전》에 출품 / 『디자인 개론(概論)』(도서출판 대광서림) 출간
- 1987년 《'87디자인 대전》(서울, 한국디자인포장센터)심사위원장
- 1988년 '88서울 올림픽 공식 성화봉 제작
- 1991년 《'91 디자인 대전》(서울,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심사위원
- 1993년 숙명여대 산업디자인연구소장
- 1996년 《가족전시회》(서울, 동방플라자미술관) 개최 / 한국의 산업디자이너 100인에 선정

<sup>1</sup>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제7회 입학 동문들이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발족한 화가 모임으로 권오선, 김세환, 김수석, 김완진, 박광호, 박금자, 안재후, 유윤진, 윤민걸, 이인실, 이제세, 이학영, 전성권, 정병숙, 최경한이 참여하였다. 『조선일보』(1976. 5. 9).

## 임봉재 (林奉宰, 1933~ )

1933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난 임봉재는 9살 때 가족과 함께 만주로 이주했다가 8·15해방을 맞아 귀국했다.<sup>1</sup>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당시 한밭중학교 미술교사였던 김기숙의 권유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다.<sup>2</sup> 이후 대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했으나 어려운 경제 형편과 신장병으로 3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중도에 그만두었다. 대전으로 내려와 1957년 **대전공업고등학교 강사를 시작으로** 대전 일대의 미술교사로 근무했고, 진잠중학교, 가수원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했다. 1982년 제11회 전국 소년체전에 대전 시내 8개 남자중학교 학생 4,550명이 만화, 민화 등을 삽입하여 2,027개 화면을 그려내는 대규모 카드섹션을 총지휘해 호평을 받았다.<sup>3</sup>



임봉재, 〈작품〉, 1968, 캔버스에 유채, 73×60.8cm, 대전시립미술관

임봉재는 1998년 개관한 대전시립미술관의 초대 관장을 맡아 미술인으로서 다져온 예술관과 교육자로서의 경륜을 바탕으로 예술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sup>4</sup> 이외에도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5대 회장 및 고문, 대전구상작가협회 고문,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충청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화연회 회장 등 충남의 미술단체를 위한 미술행정을 맡아 일했다.

1966년 《제15회 국전》을 시작으로 1974, 1978년 세 차례 입선했으며, 1962년 'KS'마크 디자인상, 1972년 충청남도 미술대전 대상, 1982년 대통령 표창, 2018년 제16회 이동훈미술상(본상) 등 많은 수상경력이 있다.

1961년 개인전까지는 수채 풍경화를 선보였고,<sup>5</sup> 1950년대 말부터 유화를 시작해 대담하면

1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40.

2 이용호, 「임봉재(林奉宰) 이야기」, 『임봉재: 제16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수상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2019), p. 80.

3 「한밭 原頭에 새싹의 축제」, 『매일경제신문』(1982. 5. 19); 「만화·民畫까지 그려」, 『조선일보』(1982. 5. 20).

4 박정규, 「한 겨울을 녹이는 훈풍...中」, 『대전원로작가회 아카이브 I : 임봉재·故김치중화백 회고전』(원로작가회 화연전, 2017), p. 22.

5 신형섭, 「임봉재의 작품세계: 개별적인 형식을 향한 여정, 그 출발점」, 위의 도록, p. 14.



임봉재, 〈군상〉, 1985, 캔버스에 유채, 130×97cm  
(출처: 『임봉재』, 대전시립미술관, 2019)

서도 짜임새 있는 화면구성과 향토적 색채를 보여주었다.<sup>6</sup> 1960년대에는 모더니즘 경향의 서양 미술과 한국의 전통을 동시에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반구상 경향의 작품을 제작했다. 대전시립미술관 소장 〈작품〉(1968)은 판잣집을 모티브로 화면을 구성한 작품으로, 대상의 해체와 재구성이 뚜렷해 입체파의 회화원리를 수용하고 실험했던 작품이다.<sup>7</sup>

1970~1980년대에는 추상표현을 심화해 나가면서 풍경과 인물을 더욱 과감하고 단순한 화면구성으로 담아냈다. 그리고 1980년 초 이례적으로 단순화된 화면에 꾸밈없는 간결한 붓 터치로 여인 누드를 그린 《군상》 연작을 제작하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또 다른 경향으로 《향(郷)》 연작을 통해 자연과 인물의 해체와 단순화,

그리고 재조합으로 화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에는 여백이 많은 푸른색 계열의 작품이 등장하면서 이전 시기 황토색 위주의 색조에서 과감히 변모했다. 임봉재는 “나의 그림은 자연에서 출발한다”고 하면서 가난으로 고생하다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의 환영을 지울 수 없어 ‘여인 군상’을 그린다고 했다.<sup>8</sup>

2019년에는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제16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수상작가전》을 통해 임봉재의 작품 세계 전반이 조명된 바 있다. 임봉재는 40여 년 동안 교직에서 제자 양성에 힘쓰면서 꾸준히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작가로, 대전지역 구상미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sup>9</sup>

## 연보

- 1933년 충청북도 옥천 출생
- 195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중퇴
- 1957년 《수채화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57~1996년 대전공업고등학교 출강, 강경상업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충남고등학교, 연산중학교, 충남 여자 고등학교 미술교사, 장평중학교, 봉산중학교, 갈마중학교 교감, 진잠중학교, 가수원중

6 김민기, 「제16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임봉재」, 앞의 도록(2019), p. 8.

7 박정구, 「순수한 참 그림의 참 화가, 임봉재 선생의 회화전」, 『임봉재展』(대전시립미술관, 2010), p. 10.

8 임봉재, 「작가노트(2015, 1. 30)」, 앞의 도록(2019), p. 28.

9 『검이불루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9), p. 38.

학교 교장 역임

- 1961년 《수채화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62년 KS 마크 디자인전 디자인상 수상
- 1965년 《수채화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66년 《제15회 국전》에 〈오후〉로 입선
- 1970년 《개인전》(대전, 예총화랑) 개최
- 1972년 《제2회 충청남도 미술대전》에서 대상 수상  
《청미회 창립전》(대전, 예총화랑)에 출품
- 1973년 《개인전》(대전, 산강화랑) 개최  
《제3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도지사상(최고상) 수상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 1974년 《제23회 국전》에 〈추경(秋景)〉 입선  
《제5회 임봉재 유화전》(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최, 〈화석(化石)〉 등 32점 출품
- 1976년 《개인전》(대전, 홍명미술관) 개최
- 1977년 충남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위촉
- 1977~1985년 《충남작가 초대전》에 출품
- 1977~1991년 《충남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 1978년 《제27회 국전》 서양화부(구상)에 〈추경(秋景)〉 입선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 지회장
- 1978~1982년 《목원대학교 교수작품전》에 출품
- 1979년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81년 《이신희 창립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82년 《개인전》(대전, 공간사랑) 개최  
갑년체전 카드섹션 원화 제작 연출 공로로 대통령 표창  
한국미술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전 금상 수상
- 1983년 《반도화랑개관초대전》(대전, 반도화랑)에 출품
- 1984년 《형상전 창립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 1986년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ASIA 수채화 교류전》에 출품  
《프랑스 파리 수채화 교류전》(프랑스)에 출품
- 1987~2003년 《목우회전》에 출품
- 1989년 《이동훈화백 추모전》(대전문화원)에 출품  
《서양화6인전(김동창·신현국·심웅창·이인영·임립·임봉재)》(대전미술관)에 참여
- 1990년 《유화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한국신구상화 파리전》(대구 정화랑, 프랑스 파리)에 출품
- 1991년 《대구 국제 비엔날레》(대구, 동아미술관)에 출품



- 1992년 《12인 판화전》(대전, 홍인미술관)에 출품
- 1993년 《유화개인전》(서울, 조형갤러리) 개최  
《환갑기념 유화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94년 《우정의 만남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95년 《한국의 얼굴전》(대전, 홍인미술관)에 출품
- 1997년 《한국수채화 100주년 기념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
- 1997~2000년 대전시립미술관 초대관장 역임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0년 《서울대학교 창립 50주년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1년 《한발미술의 여정》(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MBC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역임
- 2002년 《현대화랑 개관17주년 초대전》(대전, 현대화랑)에 출품  
황희문화예술상 대상 수상
-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 II - 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6년 《공주국제미술제》(공주, 임립미술관)에 출품
- 2007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 2008년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9년 《개인전》(대전 중구문화원) 개최
- 2010년 《원로작가초대전 - 임봉재》(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2015년 《제17회 개인전》(대전, 중구문화원) 개최
- 2018년 제16회 이동훈미술상(본상) 수상
- 2019년 《제16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수상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임상묵 (林庠默, 1933~1998)

1933년 8월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에서 출생한 임상묵은 천안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5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에 들어갔다. 대학교 졸업 후 대전 보문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여 대전지역에서 도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임상묵은 자신이 전공한 산업 디자인보다는 대학교 졸업 후 개인적으로 기법을 공부하며, 연구한 도자기를 주로 제작했다. 평소 도자기에 대한 매력과 한국적인 예술을 강조한 임상묵의 도자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작품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도자기는 <무제>(1979)처럼 수수하고 소박하지만 짜임새 있는 맵시가 잘 드러나며, 표면의 발색에서 엿보이는 은근한 색조의 변화와 회화적인 깊이감이 모든 일에 섬세함을 아끼지 않았던 작가의 삶의 태도를 연상시킨다는 평가를 받았다.<sup>1</sup>

1980년에 접어들어 작품에 변화를 보였는데 이전과 달리 다양한 기형에, 표면의 질감도 거친 형태를 자연스럽게 그대로 드러냈다. 1990년대에는 <무제>(1994)와 같이 독특한 형태의 기형들을 선보였다. 줄기가 잘린 고목을 연상시키는 형태와 표면에 세월의 흔적을 담았으며, 전통적인 도자기의 형태에 새로운 색감과 질감을 더해 현대적인 도자기의 모던함을 동시에 추구했다.

미술작품 창작 이외에도 지역미술 발전을 위한 단체 활동과 미술 교육자로 활동하였다. 1968년 청주여자초급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한 뒤 청주교육대학 미술교육과를 거쳐 1976년부터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재직하며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임상묵, <무제>, 1979, 40×18×15cm, 개인소장(출처: 『임상묵』,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8)



임상묵, <무제>, 1994, 37×18×13.5cm, 개인소장(출처: 『임상묵』,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8)

<sup>1</sup> 윤우학, 「고 임상묵 유작전에 부쳐」, 『임상묵』(충북대학교 박물관, 1998).

##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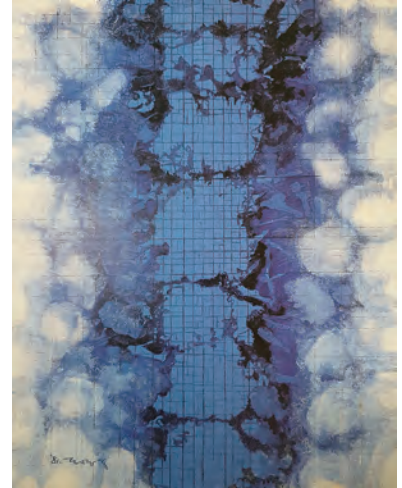
- 1933년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에서 출생
- 195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입학
- 195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졸업  
대전 보문고등학교 교사로 부임
- 1968년 청주여자초급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부임
- 1969년 청주교육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부임  
《제2회 GRAPHIC DESIGN 개인전》(청주문화원) 개최
- 1971년 《제10회 충청북도미술협회전》(청주문화원)에 출품
- 197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전》(대전, 중도일보사) 참가
- 1974년 《제16회 충북예술제 작품전》(청주문화원)에 출품
- 1975년 《한국 미술협회 충북지부 회원전》(청주문화원)에 출품
- 1976년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이직
- 1977년 《제13회 미협 충북지부전》(청주문화원)에 출품  
《재청작가 초대전》(청주문화원)에 출품
- 1978년 《제14회 미협 회원전》(청주문화원)에 출품
- 1981년 《제1회 교수작품 초대전》(청주문화원)에 출품  
《제6회 충청북도 도전》(청주문화원) 초대작가로 〈흑유기〉 출품
- 1983년 《임상묵 도예전》(청주, 청담화랑) 개최
- 1984년 《오늘의 충북작가전》(청주, 청담화랑)에 출품
- 1985년 《제10회 충북미술대전》(청주예술관)에 출품
- 1986년 《충남 디자인협회전》(대전, 쌍인미술관) 〈오각의 선〉 출품
- 1987년 《충북공예가회 창립전》(청주예술관)에 출품
- 1988년 《제13회 충북미술대전》(청주예술관)에 출품
- 1990년 《충북작가초대전》(청주예술관)에 출품
- 1994년 《충북미술대전 초대작가전》(국립청주박물관)에 〈녹유〉 출품
- 1996년 《제21회 충북 미술대전 초대작가전》(청주예술관)에 〈검은나무〉 출품
- 1998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작고

## 조영동 (趙榮東, 19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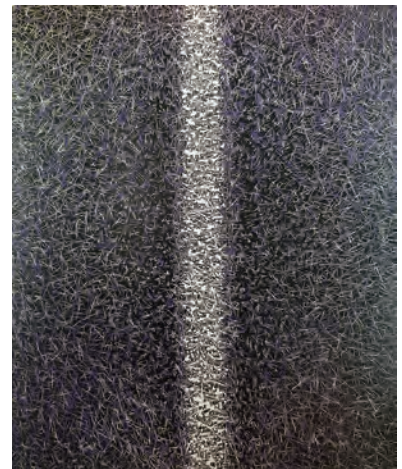
조영동은 1933년 충청북도 음성 출생으로, 195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논산 대건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965년까지 **충남지역에서 교직**에 몸담았다. 1965년 목포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가 1967년 공주교육대학교로 옮겨 학생들을 지도했다. 1984년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 교수로 부임해 1998년 퇴임할 때까지 재직하며 한국미술협회 이사·감사·상임이사를 역임했고, 한국 예총 이사, 대한민국미술대전 분과위원장 등 미술 단체에서 활약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을 맡았다.<sup>1</sup>

조영동은 1961년 《제10회 국전》에서 〈푸른교회〉로 입선했으며, 1971년 《제1회 충청남도 미술대전》에서 특선(예총지부장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에는 도지사상을 차지했고 1973년 《제3회 충청남도 미술대전》에 초대작가로 참여했다.<sup>2</sup> 1973년에는 미국 휴스턴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있었으며, 미국 체류중이었던 1974년 케이코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었다. 귀국 후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대전화단에서 추상미술을 전개시켰다.<sup>3</sup> 이 무렵 ‘유동(流動)’을 주제로 한 일련의 작품에 이어, 1975년부터 1984년까지 《점(點)》 연작을 제작했다. 줄곧 추상 작업을 했던 조영동은 국내외에서 총 11번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전시 때마다 화풍의 변모를 시도했다.<sup>4</sup>

조영동의 《유동(流動)》 연작은 밝은 원색의 색채가 흘



조영동, 〈점(點)〉, 1981, 90×71.5cm(출처: 『한국현대미술가-조영동』, 도서출판 미술공론사, 1990)



조영동, 〈공-상(空-想)〉, 1987, 100×80cm(출처: 『한국현대미술가-조영동』, 도서출판 미술공론사, 1990)

1 그 외에도 충북도전, 충남도전, 경남도전, 전북도전, 강원도전, 교원미전, 전국 노동자협회 미전, 전국교도소 미전 등에서 심사위원을 맡았으며 한국예총 이사,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42.

2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 대전미술의 새물결』(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2013), p. 64.

3 『광자진취狂者進取 대전미술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2020), p. 67.

4 조영동의 셋째 딸 조윤신은 아버지의 화업을 정리해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조윤신은 아버지를 “한국의 일제강점, 한국전쟁, 독재, 인권박탈, 저항, 민주주의라는 시대를 통과하며 이 모든 현실을 추상으로 승화시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평한다. 조윤신, 「나의 아버지 조영동 화백」 참조. <https://blog.naver.com/newspainpato/221360356139>

어지는 형태를 보이는가 하면, 흐르고 움직이며 형상이 변화한다.<sup>5</sup> 《점(點)》 연작에는 빈 곳에서 점이 생겨나고 흐름과 연결을 의미하는 생동감을 지닌 선(線)이 발생하며, 또 그 위에 면이 나타나므로 모든 기본 형태가 화면 위에서 어우러진다. 1985년부터는 <공-상(空-想)>이라는 주제로 칼로 긁어낸 많은 선의 흔적을 통해 선이 만들어내는 고유한 형상을 보여주었다. 조영동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외부적 사건이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신을 파헤치면서 내시경으로 속속들이 들여다보듯이 갈구해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힌 바 있다.<sup>6</sup> 노년에 이르러 그의 작품은 종교에 천착해갔고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을 주제로 한 작품을 비롯해 천지창조나 순교자의 얼굴 등으로 주제가 변화했다.<sup>7</sup> 당뇨합병증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활동을 지속한 조영동은 2015년 가톨릭미술가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9회 가톨릭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 연보

- 1933년 충청북도 음성 출생
- 195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57~1965년 논산 대건고등학교 · 안성 안법고등학교 · 대전 동중학교 · 공주시범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61년 《제10회 국전》에 <푸른교회> 입선
- 1964년 《수요동인전》(대전문화원)에 참가
- 1965년 《개인전》(목포, 예총화랑) 개최
- 1965~1967년 목포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 1967년 《개인전》(목포, 예총화랑) 개최
- 1967~1984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
- 1967년 한국카톨릭미술가협회 부회장
- 1968년 《5인작가전》(이남규, 이민희, 이지휘, 최종태)에 참여
- 1971년 《제1회 충청남도 미술대전》에서 예총지부장상 수상
- 1972년 《청미회(淸美會) 창립전》(대전, 예총화랑)에 출품  
《제2회 충청남도 미술대전》에서 도지사상 수상  
『현대미술, 전국교대미술과교재』(학문사) 공저자로 참여
- 1972~1976년 《제17회 창작미술협회전》(서울 국립중앙공보관화랑)에 출품
- 1973년 《조영동 도미전(渡美展)》(서울, 명동화랑) 개최  
《제3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

5 임영방, 「작가 조영동(趙榮東)과 그의 작품세계」, 『한국현대미술가: 조영동』(도서출판 미술공론사, 1990), p. 50.

6 조영동, 「내 그림의 길」, 위의 도록, p. 59.

7 「조영동 화백의 삶과 예술과 신앙」, 『가톨릭신문』(2018. 9. 16).

- 1973~1974년 미국 휴스턴대학교 미술대학 객원교수로 재직
- 1974년 《개인전》(서울, 명동화랑) 개최
- 1975~1980년 《서울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79년 《개인전》(서울, 문예진흥원미술회관) 개최
- 1980~1982년 한국미술협회 이사 역임
- 1982년 《제5회 인도 트리엔날레》(인도 뉴델리)에 참가
- 1983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회화예술의 단순화 연구」로 석사학위 취득
- 1982~1992년 《한국현대작가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3~1985년 한국미술협회 감사 역임
- 1984년 《국제 종교미술제》(이탈리아 로마, 바티칸현대미술관)에 출품  
공저, 『미술교육, 공주교대미술교재』(형설출판사) 발간
- 1984~1998년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
- 1985년 《이태리 현대미술제》(밀라노)  
《오늘의 한국작가 초대전 프랑스 순회전》에 참가
- 1986년 《개인전》(서울, 문예진흥원미술회관) 개최  
《SIAC 초대전》(이탈리아 로마, 스테파노토론토)에 참가
- 1987년 《개인전》(서울, 샘화랑) 개최  
학술논문 「점의 조형성」, 『産業美術研究』(성신여자대학교 산업미술연구소) 게재
- 1989~1992년 한국미술협회 상임이사 및 한국예총 이사 역임
- 1992년 《개인전》(서울, 조선화랑) 개최  
대한민국 《미술대전》 분과위원장 역임
- 1993년 《개인전》(일본 삿포르, Taito 갤러리) 개최
- 1995~1996년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장 역임
- 1997년 《개인전》(서울, 상갤러리) 개최
- 1998년 《개인전》(성신여대미술관) 개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 2001년 《한발미술의 여정》(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1~2005년 《한국 종교 연합전: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에 출품
-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 II-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조영동 고회전》(대전신청사 전시실) 개최
- 2008년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15년 제19회 가톨릭미술상 수상

## 강신철 (姜信哲, 1934~1993)



강신철, 〈태석(苔石)〉, 1981(출처: 『한국현대수묵화전』, 국립현대미술관, 1981)

호는 춘강(春岡). 1934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출생해 195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하여 장우성에게 사사받았다. 1961년 《제10회 국전》에 〈과초 앞 여인〉으로 입선한 후, 이듬해 1962년 5.16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신인예술상’ 동양화 부문에서 〈화조(花朝)〉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1965·1966년 《제14회 국전》과 《제15회 국전》에는 지금까지 출품해오던 동양화 부문이 아닌 서예 부문에 〈흑난(黑蘭)〉과 〈묵죽(墨竹)〉을 출품하여 입선을 거두었다. 이와 같은 행보는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구성 때문에 그림의 입문과정으로 여겼던 사군자화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강신철은 전통적인 소재인 ‘떡’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전통수묵화에 천착했다. 뿐만 아니라, 1968년 한국회화의 정통성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화’의 창립에 가담하며 고집스러운 만큼 떡의 특성을 실험하며 재료의 한계를 허물어갔다.<sup>1</sup> 1970년대에 들

어서면 동양회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수묵의 물성을 실험한 수묵추상화 경향이 나타난다.<sup>2</sup> 강신철은 검은 떡을 사용하여 번짐, 흘림 효과를 통해 형상을 허물어가는 작업에 집중했다. 특히 1973년 《제22회 국전》에서는 진리나 근원을 깊이 사유하는 마음을 뜻하는 불교 교리 중 하나로, 직관할 수 없는 단어인 ‘심심(深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 〈심심〉을 출품하였다.

1969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로 부임한 강신철은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지방작가 초대전》, 《한국현대수묵화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또한 1975년 《대학미전》 심사위원, 《충남도립미술전》의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충남 한국화단의 부흥에 일조하였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89년 제33회 충남문화상을 수상하였다.<sup>3</sup>

1994년 사후 1주기를 맞이하여 열린 《유작전》에는 공주교육대학 재직시절 제작한 산수, 금

1 「우리 미술 정통성 정립 모색-7회 한국회화전」, 『경향신문』(1973. 8. 30).

2 송희경, 「1960년대 동양화의 해의 체험-일본 전시의 참여와 그 출품작을 중심으로」, 『미술문화연구』 20(동서미술문화학회, 2021), p. 134.

3 「내고장 동정(動靜)」, 『조선일보』(1989. 1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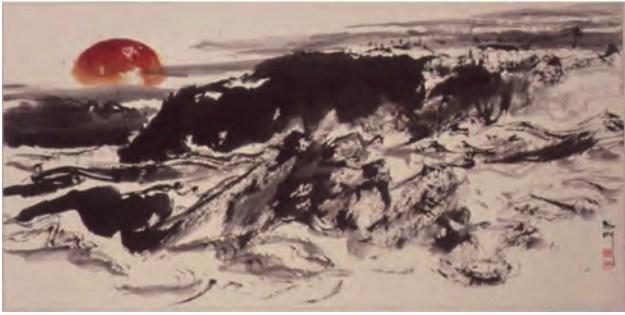
강과 같은 풍경과 컴퓨터를 이용한 추상작업 등이 전시되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화를 확장시키고자 했던 강신철의 작품세계가 재조명되었다.

## 연보

- 1934년 경상북도 안동 출생
- 1959~196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동양화) 입학 및 졸업
- 1961년 《제10회 국전》 동양화 부문 〈파초 앞 여인(女人)〉 입선
- 1962년 〈화조(花朝)로 제1회 신인예술상 장려상 수상
- 1964년 《제8회 목립회전》에 참가
- 1965년 《제14회 국전》 서예 부문 〈흑난(黑蘭)〉 입선
- 1966년 《제15회 국전》 서예 부문 〈묵죽(墨竹)〉 입선
- 1969~1993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역임
- 1970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백제문화제' 미술전시회》(대전, 예총화랑)에 출품
- 1971년 《제1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대전문화원)에 출품
- 1973년 《제22회 국전》 동양화 비구상 부문에 〈심심(深心)〉 입선
- 1975년 《지방작가 초대전》에 출품  
《제6회 전국대학문화예술축전-대학미전》 심사위원 역임
- 1976년 《한성기(韓性祺) 시화전》에 〈입추〉 외 27점 출품
- 1977~1990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1980년 《제14회 한국화회전》(서울, 미술회관)에 〈풍경〉 출품
- 1981년 《제15회 한국화회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한국현대수묵화전》(덕수궁미술관)에 출품  
《월전 장우성 동문전》(서울, 현대화랑)에 출품  
《동양화 7인초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82년 《일본 아시아현대미전》에 참여
- 1983년 《제1회 충남한국화협회전》(대전, 신신화랑)에 출품
- 1984년 《충남한국화전》(대전, 공간사랑)에 출품
- 1985년 '86 아시아 경기대회 및 제4회 한밭제 기념 《제5회 공주·대전·서산·천안 4개지부 연합 전시》(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9년 제33회 충남문화상 수상
- 1993년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기념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작고



## 장선백 (張善栢, 1934~2009)



장선백, 〈부활〉, 1986, 종이에 수묵담채, 69×139cm, 국립현대미술관

호는 한메(一山).<sup>1</sup> 1934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나 195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장선백은 대학에서 본래 서양화를 전공하였으나 《국전》에는 동·서양화부를 넘나들며 작품을 출품했다.<sup>2</sup> 대학에 입학하던 1953년 《제2회 국전》 서양화부에 〈고적풍경〉, 〈국화〉, 〈해바라기〉가 입선되었으며 1956년 《제5회 국전》에는 동양화부와 서양화부에 동시 입선했다. 재학시절 인상파와 야수파 등의 화풍에 심취해 있었던 장선백은 동양화의 지·필·묵의 관념에서 벗어나 화선지 위에 대담하게 유화로 그리는 등 과격적인 시도를 선보였다.

1957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던 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뉴욕월드하우스 초대전》에 작품이 선정되어 참가하였고, 이듬해인 1958년 서울 중앙공보관에서 《장선백 개인전》을 열어 〈부활〉, 〈인왕산〉, 〈십자가〉외 25점을 전시했다. 1959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미술가들의 모임인 《목림회 창립전》에 작품을 출품했고, 목림회가 해체된 이후에도 박노수, 안상철 등과 함께 ‘청토회(靑土會)’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장선백은 1950년대부터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며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했다.<sup>3</sup> 1979년 개최된 《제11회 장선백 개인전》에서는 붉게 타는 태양과 그 빛을 받은 듯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연상케하는 뾰족뾰족한 기암절벽으로 대표되는 작품을 선보였다. 같은 해 3월에는 뉴욕전람회 개최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농담을 적절히 구사한 여백에 추상화적인 선을 그어 흥취를 돋군 산수, 화조화 등 30여 점을 전시하여 한층 성숙된 면모를 보였다.<sup>4</sup> 1973년부터 영남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1982년부터 동덕여자대학교로 옮겨 미술학부 교수와 예술대학장을 역임했다.

장선백의 작품은 빠른 필치와 함께 검은 먹만을 사용하여 표현한 바다와 붉은 해로 특징지을 수 있다. 농묵으로 단숨에 휘갈긴 듯 힘차고 빠르며 대범한 운필로 함축되는 그의 작품은 수

장선백의 작품은 빠른 필치와 함께 검은 먹만을 사용하여 표현한 바다와 붉은 해로 특징지을 수 있다. 농묵으로 단숨에 휘갈긴 듯 힘차고 빠르며 대범한 운필로 함축되는 그의 작품은 수

1 장선백의 호(號)인 ‘한메’는 한자의 음이 아닌 ‘뜻’을 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은 일(一)을 뜻하며, ‘메’는 산(山)을 뜻한다. 음(音)으로는 ‘일산’이지만, 뜻으로 부르면 ‘한메’이다.

2 「장선백 화백 개인전 성료」, 『가톨릭신문』(1972. 12. 3).

3 김남수, 「獨自的 절대성과 獨創的 추구」, 『현대한국화명작집』(韓國文藝社, 1983), p. 106.

4 「장선백작품전」, 『경향신문』(1979. 2. 19).

묵의 표현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활〉(1986)은 이와 같은 장선백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sup>5</sup> 장선백은 더 나아가 산과 떠오르는 해의 형태를 더욱 단순화시키고 묘사적인 이미지를 배제했다. 1997년 제작한 〈부활〉은 검은색과 붉은색의 대비와 더욱 대담해진 굵은 먹선이 강렬한 인상을 준다. 서양화에서 시작했지만, 종지와 먹이라는 전통재료를 다루면서, 사실상 동서양화의 장벽과 기존질서를 무너뜨리며 작업했던 작가라고 볼 수 있다.



장선백, 〈부활〉, 1997, 종이에 수묵담채, 98×137cm(출처: 《장선백展》 팸플릿, 조선일보미술관, 2007)

이처럼 장선백은 수묵을 기반으로 하면서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표현의 깊이와 폭을 넓혀 갔다. 생전에 작가는 “어제의 틀을 깨고 새 틀을 짜야 하는 오늘이 있을 뿐이다. 어제 같은 오늘이나 오늘 같은 내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며,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며 ‘나다운 작업’을 담아내기 위해 부단히 힘썼다. 이러한 노력은 17회에 걸쳐 개최된 개인전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2012년 열린 《한때 장선백 작고 3주기 유작전》에서 미술평론가 김상철은 “한국화, 특히 수묵을 작업 화두로 삼았지만 결코 전통의 나락에 들어 안주하는 것을 용인치 않았다. 거칠고 강하며 거침없는 수묵의 표현을 통해 작가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신의 내면에 충만해 있는 본질을 현대리는 시공 속에서 표출하고자 했다”고 평가했다.<sup>6</sup>

## 연보

- 1934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
- 1953년 《제2회 국전》 서양화부에 〈고적풍경〉, 〈국화〉, 〈해바라기〉 입선
- 1955년 《제4회 국전》 서양화부에 〈정물〉 입선
- 1956년 《제5회 국전》 동양화부에 〈여인〉 입선  
《제5회 국전》 서양화부에 〈여명〉 입선
- 195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뉴욕월드하우스 초대전》(미국 뉴욕, World house Gallery)

5 신상섭, 「현대수묵화의 표현영역의 확장」, 『장선백展』(조선일보미술관, 2007).

6 김상철, 「장선백 작고 3주년」, 『뉴스』(2012. 4. 16).

- 1958년 《제7회 국전》 서양화부에 〈장미〉 입선  
《장선백 개인전》(서울, 중앙공보관), 〈부활〉 외 25점 전시
- 1959년 《제8회 국전》 서양화부에 〈청관〉 입선  
《제8회 국전》 동양화부에 〈제물포〉 입선
- 1960년 《제9회 국전》 동양화부에 〈제물포〉 입선  
《제9회 국전》 서양화부에 〈대열〉 입선  
《목림회 창립전》(서울, 중앙공보관) 참여
- 1961년 《제10회 국전》 동양화부에 〈다리〉에 입선
- 1963년 박노수, 안상철 등과 함께 ‘청토회(靑土會)’ 창립
- 1972년 계성여고 교사로 재직  
《제6회 장선백 개인전》(서울, 신세계화랑)에 〈부활〉, 〈성지〉 등 한국화 20점, 유화 20점 전시
- 1973~1979년 영남대 교수로 재직
- 1974년 매일경제신문 후원 《장선백 자선미술전》(서울, 미도파화랑) 개최
- 1975년 《제8회 장선백 동양화전》(서울, 현대화랑) 개최
- 1977년 《장선백 개인전》(서울, 동산방화랑) 개최
- 1978년 《동양화16인전》(서울, 길화랑)에 출품  
《78. 15인전》(서울, 동산방화랑)에 초대작가로 참여
- 1979년 《제11회 장선백 개인전》(서울, 한국화랑) 개최  
3월 초, 뉴욕전람회 개최를 위해 도미(渡美)
- 1982년 《제15회 장선백 한국화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1982년 《동덕미술관 재개관 기념 초대전》(서울) 개최
- 1982~1998년 동덕여자대학교 미술학부 교수 및 미대학장, 동덕미술관장 역임
- 1983~1991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6년 《17회 개인전》(서울, 현대백화점 본점 미술관) 개최
- 1990년 《한국미술-오늘의 상황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4년 《서울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8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장선백 정년퇴임 기념작품전》(동덕아트갤러리) 개최
- 2000년 《한국현대미술의 시원》(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07년 《장선백 60년 회고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최
- 2009년 작고

## 김동수(金東洙, 1935~2011)

호는 대산(對山). 1935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출생했다. 196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였으며 이상범을 사사했다. 졸업 후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동문이었던 조평휘, 하태진, 오태학, 이용휘 등과 함께 1963년 '신수회(新樹會)'를 조직해 활동했다.<sup>1</sup>

1970년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1971년 《제2회 한국미술대상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1976년에는 《한국미술대상전》의 심의위원을 역임하였다. 김동수는 당시 미술가들 대부분이 교편생활을 하며 작업을 했던 것과 달리 작업에만 몰두했다.

'산을 대한다'는 뜻의 호 '대산(對山)'에 걸맞게 1960년대부터 김동수는 스케치를 바탕으로 실경의 산수화를 제작하며 한국 산야의 서정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1963년 《신수회전》에 출품한 작품은 "시원스러운 운필"과 "추상적이며 동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2</sup> 1960년대 작품이 앵포르멜의 영향 속에 추상적인 분위기를 냈던 데 비해, 1974년 《김동수 동양화전》에 나온 산수화 30여점에 대해서는 "산수화의 개성이 뚜렷하며 조잡한 기교가 보이지 않아 한국 산수화가 자랑하는 정기를 계승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sup>3</sup> 대체로 1970년대 전반 김동수의 작품은 자연경의 일부를 앞으로 당긴 근경 중심이었던 데 비해, 1970년대 중·후반에는 자연경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산수를 바라봄으로써 산세가 풍부해지는 게 특징이다. 즉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산속으로 깊숙이 시선을 옮겨가며 계곡과 바위, 수목, 잡풀 등을 놓치지 않고 자연을 구성했다.<sup>4</sup> 1976년 3번째 개인전 《김동수 동양화전》에 선보인 〈속리산〉은 담채와 수묵의 농담을 사용하여 한국 산야의 맑은 대기감을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김동수, 〈대둔용문곡〉, 1987, 종이에 수묵담채, 127×169cm, 국립현대미술관

1 신수경, 「구술사적 분석을 통한 한국 현대 수묵화 읽기-조평휘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22(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1), pp. 161~162.

2 「젊은세대의 동양화가들, 청토회와 산수회화전」, 『경향신문』(1963. 11. 20).

3 「김동수 동양화전」, 『경향신문』(1974. 5. 4).

4 이정진, 「한국 현대 실경산수화 연구: 1970년대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p. 47.

1980년대에 들어서자 치밀하게 묘사되었던 대상들을 차츰 부드럽게 처리하고, 변화보다는 안정감 있는 화면을 추구했다. 1987년 《동산방화랑 김동수 초대전》을 개최하며 김동수는 “산은 내 작업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다른 소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그림의 전통이 산수화에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황한 산세보다는 멀리서 바라본 여유 있는 화면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라고 밝히며 특히 현장답사에서 그린 스케치를 밑그림으로 한 실경산수화를 선보였다.<sup>5</sup>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의 <대둔용문곡(大菴龍門谷)>(1987)은 작가가 새로운 형식의 산수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단체전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던 김동수는 1995년 동산방화랑에서 이영찬과 함께 2인전을 개최했다. 최병식은 이 전시에 나온 작품을 보고 “김동수는 산수를 정제되고 담백한 분위기로 구사하며, 꾸준한 사생을 통해 전국의 명산을 섭렵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6</sup>

1970년대부터 사생을 근간으로 실경산수화를 추구했던 김동수는 자연을 단순히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동양정신으로 수렴하여 한국 산세의 아름다움을 독특한 필법으로 담아냈다. 또한 대상에 충실하게 접근하기 위해 전 국토를 답사하며 진경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7</sup>

## 연보

- 1935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
- 196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1963년 《신수회전》(중앙공보관)에 참여
- 1970년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 최우수상 수상
- 1971년 《제2회 한국미술대상전》 특별상 수상
- 1972년 《납량(納涼) 부채전》(서울, 미도파화랑)에 출품
- 1973년 《동양화 7인작가전》(서울, 조선호텔)에 출품
- 1974년 《대산 김동수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1975년 《동양화 중견 7인전》(서울, 현화랑)에 참여
- 1976년 《한국미술대상전》 심의위원 역임  
《제3회 김동수 동양화전》(서울, 동산방화랑) 개최  
《선화랑 개관기념 동양화가 3인(송수남, 김동수, 하태진) 초대전》 참여
- 1978년 《중앙미술대전》 심의위원 역임
- 1979년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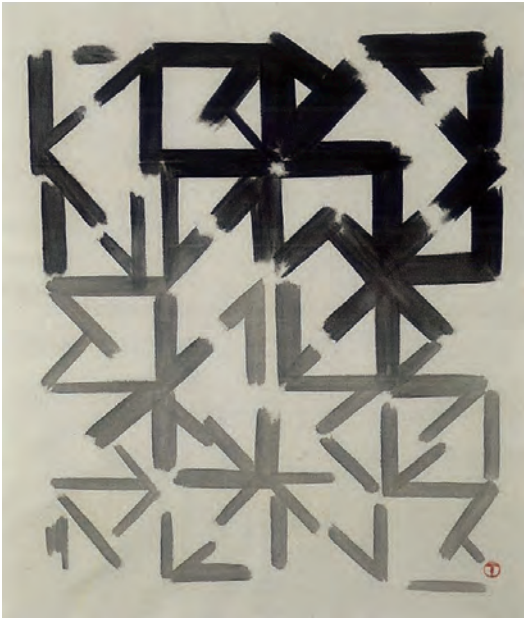
5 「60년 작업 결산 동양화전 갖는 김동수씨, 산야의 포근한 사계 담아」, 『경향신문』(1987. 3. 12).

6 「이영찬-김동수 회갑전」, 『조선일보』(1995. 11. 26).

7 장재진, 「실경 산수화의 운율과 감흥 물씬, 김동수 작품전」, 『파이낸셜뉴스』(2005. 5. 10).

- 1980년 《김동수 동양화전》(서울, 동산방화랑) 개최
- 1981년 《한국미술 '81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한국현대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2년 《'82한중 현대서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3~1987년 《'83-'85-'87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6년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한국화 100년전》(서울, 호암갤러리)에 참여  
동아미술제 심사위원 역임
- 1987년 《동산방화랑 김동수 초대전》(서울) 개최
- 1988년 《'88-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0년 《한국미술-오늘의 상황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1년 《한국화중진 6인초대전》(서울, 대림화랑)에 출품
- 1992년 《'92-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3년 《전관개관기념 현대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한국자연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4년 《'94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서울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5년 《2인전 : 김동수, 이영찬 회갑전》(서울, 동산방화랑) 개최
- 1996년 《한국현대미술의 조망과 미래전》(서울, 고운미술관)에 참여  
《오늘의 한국화-그 맥락과 전개전》(서울, 덕원미술관)에 참여
- 1998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대전 · 충청지역정부 소장 미술품특별전: 중원미술의향기》(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5년 《김동수전》(서울, 동산방화랑) 개최
- 2007년 《안전과 현대 미술의 만남展》(서울, 경향갤러리)에 참여
- 2011년 작고

## 신영상(辛永常, 1935~2017)



신영상, <율(律)5011>, 2005, 천에 수묵, 117×100cm(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호는 노석(老石). 1935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태어난 신영상은 서양화가였던 부친을 통해 자연스럽게 그림을 접하면서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sup>1</sup> 1954년 서산농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산에 머물면서 서령국민학교의 촉탁교사로 있었다. 195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미술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대학교 졸업 직후 서울 한영고등학교 강사로 지내다 1964년부터 서울사대부속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196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동양화) 전임강사로 출강하기 시작한 신영상은 198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부임하여 2001년 정년퇴임했다.

《아세아 현대미술전》, 《새한국화의 단면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1988년 미국 알파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2001년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40여 년 간의 화업을 정리한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다. 한국미술협회 고문, 한국회화 대표, MBC미술대전·중앙미술대전·한국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신영상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1961년 《제10회 국전》에 <소개>를 출품하여 첫 입선을 하였다. 이후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62년 《제11회 국전》에서 <여추>로 특선, 1964년 《제13회 국전》에서 <72군동(群童)>으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화업 초기에는 인물, 소, 말, 조류 등을 소재로 수묵담채의 필치와 발묵기법을 통한 서정적인 화면구성을 보여주었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무렵 서울대학교 회화과 동양화 전공 화가들의 모임인 ‘묵림회’에 가입하여 ‘전통회화의 현대화’를 목표로 실험적인 작업에 몰두했다. ‘묵림회’와 ‘한국회화’에서의 활동은 《문살》과 《양지》 연작에서 어느 정도 남아있던 형태를 완전히 해체하고 《율(律)》 연작으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sup>2</sup>

1 부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해방 이후 서산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 신영상 구술·왕신연 채록, 『한국 근현대미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 20세기 한국 서화전통의 변모와 현대화 1, 신영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2 왕신연, 위의 자료집, pp. 1~19.

2005년 제작한 <울>은 문살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인 몇 개의 길고 짧은 획만이 질서있게 화면을 차지하고 있다. 신영상은 1986년도 제9호 『조형』에 발표한 「문살을 주제로 한 작품연구」라는 글에서 “문의 세계는 삼라만상의 존재를 주관적 심상으로 투영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닫힌 세계를 위한 표상이 아니라 열린 세계의 상징이며 자연공간과 내적 공간, 개체와 주체와의 만남을 이루게 함으로써 철저한 부정의 그 어느 쪽에도 서지 않고 양자를 공유하려는 동양적 슬기가 숨어 있는 것이다. (중략) 내밀한 밖의 세계를 음영과 소리로서 체험케 함으로써 사물을 관조하게 하는 내면적 의식을 일깨우게 하는…” 이라며 문살이라는 소재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한 공간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이처럼 <울>은 전통적인 소재를 통하여 현대적인 조형성, 즉 평면성을 시도하였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sup>3</sup>

신영상은 일관되게 ‘사생(寫生)’이 아닌 ‘사의(寫意)’를 화두로 삼았으며,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격’이라고 후학들에게 가르쳤다.<sup>4</sup> 즉 “말하는 것도, 그림도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 신영상은 문인정신을 구심점으로 설정하고 파격을 시도한 한국 현대작가의 고뇌와 실험정신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신영상은 국전 초대작가와 심사위원 등 화단의 중진으로 활약하는 한편, 민족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백마산성훈련>(1976)을 제작하였으며, 표준영정사업에도 참여하여 <최무선 영정>(1986)을 제작하였다.

## 연보

- 1935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
- 1948~1954년 순천국민학교, 면천중학교, 서산농림고등학교 졸업
- 1954년 서령국민학교 촉탁교사로 출강
- 1961년 《제10회 국전》<소개> 입선
- 196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제1회 신인예술상 입선  
《제11회 국전》에 <여추> 특선 수상
- 1962~1963년 서울 한영고등학교 강사로 재직
- 1963년 제2회 신인예술상 특선(장려상) 수상  
《현대작가 초대전》(경북공미술관)에 참여  
《제7회 목림회전》(서울, 중앙공보관)에 참여
- 1964~1969년 서울사대부속중학교 교사로 재직

3 정형민, 「신영상의 근작전」(2011), DA-Arts 신영상 홈페이지(아르코예술기록원).  
<http://www.art500.or.kr/blog/shinyoungsang.do?pageNumber=2>

4 이지란, 「〔특별기획〕 화가의, 화가에 의한, 화가를 위한 미술 단체 “G·ART(지아트)”」, 『서울문화투데이』(2021. 7. 14).



- 1964년 《제13회 국전》〈72군동(群童)〉 특선(문교부장관상) 수상
- 1967~1968년 제 1~2회 《한국화회전》(서울, 신문회관)에 참여
- 1969~198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출강
- 1970년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경북공미술관)에 참여
- 1971년 《인디아 트리엔날》(인도 뉴델리)에 출품
- 1973년 충남향우회 창립20주년 《초대작가서화전》(서울, 코스모스화랑)에 출품
- 1974년 《아세아 현대미술전》(일본 도쿄)에 출품
- 1975~1979년 국전 초대 작가, 심사위원 역임
- 1977년 《동양화초대전》(서울, 신세계미술관)에 참여
- 1981년 《제15회 한국화회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1~200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역임
- 1982년 《이태리 현대미술대전》(이태리 밀라노)에 출품
- 1983년 《새 한국화의 단면전(한·영·독 수교100주년 기념 순회전)》에 참여
- 1985년 《'85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6년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8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운영위원 역임  
《Shin, Young Sang》(미국, 알파인 갤러리) 개최
- 1989년 《'89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서울시 예술위원 역임
- 1993년 《제27회 한국화회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93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전통과 혁신' 서울대학교 현대미술 반세기전》(서울대박물관)에 출품
- 1996~1998년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6년 《제15회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1997년 《서울시립미술관 소장작품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대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8년 《베세토국제서화전》(일본 도쿄)에 출품
- 2001년 황조근정 훈장 수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역임  
《SHIN YOUNG-SANG》(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2008년 《한국현대회화 2008》(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2009년 《新오감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15년 한국미술 아카이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에 참여
- 2017년 작고

## 이종수 (李鍾秀, 1935~2008)

1935년 대전시 동구 신안동에서 5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대전공업중학교 건축과에서 미술반 활동을 하면서부터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종수는 대전 초기화단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기숙과 사제지간으로 만나면서 미술에 더욱 흥미를 갖고 미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하였다. 195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도예를 접하였다. 그림에 재능이 있어 군복무 시절 방첩포스터 공모전에서 일등상을 받았으며, 제대 후에는 『대전일보』의 삽화를 그리기도 했다.<sup>1</sup>

1962년 《제11회 국전》에 화병류 3점을 출품해 모두 입선하였다. 1963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이종수는 《제12회 국전》에 출품한 〈명팅구리병〉으로 입선을 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요업을 배우기 위해 홍익대학교에 들어가 요업디자인을 공부했다. 홍익대학교에 들어간 이듬해인 1964년 대전실업초급대학에 교수로 부임하여 1974년까지 재직하였다. 1975년부터는 도예과가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다가 전업 도예가의 길을 걷기 위해 1979년 교수직을 사임하였다.

이종수는 갑천변 신대리에 너와집을 짓고 작업실 이름을 ‘수출재(守拙齋)’라 칭했다. 이곳에서 작업에만 몰두했는데, 그는 현대 도예에서 흔히 사용되는 가스 가마가 아닌 전통적 방식으로 손수 제작한 흙벽 오름새가마(登窯)를 고집했다. 옛 도공처럼 직접 장작을 때서 작업하며 ‘이



이종수, 〈잔설의 여운〉, 1996, 43×43×37cm(출처: 『이종수』, 가나아트센터, 2003)



이종수, 〈마음의 향〉, 2001, 점토질 장작가마소성, 21×21×16cm(출처: 『이종수-마음의 향』, 두원, 2013)

<sup>1</sup> 황효순, 「대전미술의 선구자들-공예」, 『대전문화』제24호(대전광역시, 2015), p. 66.

중수식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전통 가마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종수는 “자신이 익숙해서 그렇다”는 말과 함께 “노변(爐變 불의 조화)이 주는 스틸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sup>2</sup>

이종수의 도자기는 디자인적인 도안에서 출발해 조형적인 특징을 지닌 부류와 추상 충동을 느끼게 하는 자유로운 형태로 구분된다. 1960년대에는 그릇(器)의 기본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작은 크기의 항아리와 병을 주로 제작했으나, 1970년대부터는 기형의 변화보다는 표면의 표현에 천착했다. 이 시기 도자기는 문양을 넣은 것과 터진 형태로 구분된다. 잔의 디자인에 인물의 옆얼굴 또는 새의 깃털을 응용한 듯 변화를 추구했다. 대학 3학년 때부터 ‘겉이 터진 항아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이종수는 어릴 적 봤던 갈라진 논바닥이나 터진 메주에 대한 기억을 도자기에 담았다고 한다.<sup>3</sup> 1980년대부터 도자기의 기형과 색, 문양이 다양해졌으며 유약 칠에도 덤핑 기법을 적용하여 보다 다양성을 추구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 유백색의 항아리, 철화와 갈라진 항아리가 주를 이룬다. 이 시기에는 전형적인 도자의 형태에서 벗어난 기형(奇形) 도자의 제작도 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97년 신대리 주변에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작업장을 금산 추부면 용지리로 옮겼다.

이종수는 전통적인 제작방법과 그릇(器)의 기본적인 형태를 간직하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도자기에 동시대의 정신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종수는 20세기 한국미술사에서 도자기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 올린 도자 예술가로 평가된다. 일편단심 그릇 만드는 데 열정을 쏟았던 작가는 2008년 생애 마지막 전시가 된 《겨울열매展》을 끝으로 폐암으로 작고했다. 사후 2009년 이화익 갤러리에서 《A Homage to Lee Jong-Soo》전이 열렸으며 임동식의 작품과 함께 이종수의 대표적인 백자 달 항아리 《잔설의 여운》 연작을 포함 21점이 전시되었다.

## 연보

- 1935년            대전에서 출생
- 1948년            대전공업중학교 건축과 입학
- 1954년            대전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1954~1963년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 졸업
- 1962~1981년    《국전》공예부 특선 2회, 입선 17회
- 1964~1975년    대전실업대학 생활미술과 교수 역임
- 1969년            대전 목척교 난간 설계도 작성  
대전시장 감사장 수상,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2 「[편원식이 만난 이 시대의 풍류] ‘흙으로 시를 굽는 도예가’ 이종수», 『세계일보』(2008. 4. 25).

3 황효순, 앞의 글, p. 66.

- 1974년 충청남도지사 감사패 수상
- 1975년 《한국현대공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교수로 부임
- 1979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교수를 사임하고 전업작가의 길을 택함
- 1982년 《도자기 개인전》(서울, 고려화랑 / 대전, 신신화랑) 개최
- 1984년 《도자기 개인전》(대전, 반도화랑) 개최  
《한국 미술문화 대상전》 초대작가상 수상
- 1984~1989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6년 《도자기 개인전》(서울, 서울갤러리) 개최
- 1987년 《도자기 개인전》(서울, 정송갤러리) 개최
- 1988년 대전시 미술대전 초대 작가상 수상  
《도자기 개인전》(일본 도쿄, 한국문화원) 개최  
《도자기 개인전》(서울, 정송갤러리) 개최
- 1989년 《도자기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90년 《한국미술:오늘의 상황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0~1997년 《개인 도자기전》(서울, 정송갤러리) 개최
- 1993년 《한국현대도예전》(미국 샌디에고, 하이드갤러리(Hyde Gallery))에 참여
- 1994년 《뉴욕국제미술제》(미국 뉴욕, 단 갤러리(Dan Gallery))에 참여  
《한국현대도예 30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8년 《개관기념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9년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한국 가톨릭 미술상 본상 수상  
《국제도자전》(중국 경덕진, 도자아카데미)에 참가
- 2000년 《개인전-마음의 향》(일본, 한국도산학술연구원 소에다오구홀) 개최
-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 : 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기획 개인 초대전》(서울, 가나아트센터) 개최  
《한국도예의 전통과 변형》(미국, 샌디에고시립대학) 개최
- 2005년 《개인전-달을 품은 어머니》(대전, 아주미술관) 개최
- 2008년 대전광역시 시민대상 수상  
《개인전-겨울열매》(대전시립미술관) 개최  
문화의 달 대한민국 보관문화훈장 수상  
작고

## 남철 (南徹, 1936~2017)



남철, <꿈속의 날개>, 1990, 청동, 84×24×130cm, 남철미술관소장

호는 청암(靑岩). 1936년 대전에서 태어난 남철은 토목을 전공한 기술공무원 아버지를 따라 함경북도 길주에서 길주국민학교를 다녔다. 국민학교 2학년 때 대전으로 이사해 대흥국민학교로 전학을 했다. 이때 그리기와 창의적 만들기에 재능을 보여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에디슨이란 별명을 받았다.<sup>1</sup> 국민학교 졸업 후 부친의 뜻에 따라 대전공업중등학교 기술과에 입학해 다니던 중, 학제개편으로 5년제 학교에서 한발중학교와 대전공업고등학교로 분리되면서 한발중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에서 스승 김기숙으로부터 정식으로 데생과 그리기를 배우면서 미술대학 진학의 꿈을 키웠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 입학해 재학 중 1961년 《제10회 국전》에서 <환상(幻想)>으로 특선을 수상하였다. 한국에서 용접조각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송영수에게 직접 용접조각을 배워 아상블라주(Assemblage) 방식으로 드럼통의 철판과 양철과편, 금속 파이프, 기계 부속품 등 다양한 철물을 결합한 용접조각을 제작하였다.

대학교를 졸업한 196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전에 참여하여 제17회(1968년)까지 매년 특선을 수상하였으며, 1969년에는 국전 추천작가 반열에 올랐다.<sup>2</sup> 1969년부터 계명대학교 미술공예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나 1981년 위암이 발병하면서 사직하였다. 모친이 있는 고향 대전에서 요양 중 1982년 충남대학교에 미술과가 생기면서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89년 조각과를 창설하였다. 1985년 '대전현대조각회'의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었으며, 1989년에 한남대, 충남대, 목원대 교수들과 '대전조각회'를 창립하였다.

1960년부터 1970년대 중반은 예술에 관한 관념론적 이상주의에 젖어있던 시기였다. '영혼의 전율을 느끼게 하는 한없는 감동을 감각적으로 가시화하는 과정'에 몰두한 남철은 그것을 담는 형식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1970년대 말부터 예술이란 경험의 축적을 통한 정신적 성취의 기호이며 형식과 내용은 동일선상에서 연결되는 통합적, 일원론적임을 깨달았다고 한다.<sup>3</sup> 사색을 통해

1 황효순, 「금속성에서 생명의 매커니즘을 추구한 대전의 조각가 남철」, 『대전예술』 250호(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2016), p. 73.

2 황효순은 남철이 1967년 초대작가가 되었다고 하였다. 황효순, 위의 글, p. 73.

작품을 구상하는 성향을 가졌던 남철은 조각가로써 드물게 대학원에서 철학과에 진학하였다.

1978년 계명대학교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던 무렵 제작한 〈조건반사(條件反射)〉·〈잔해(殘骸)-인간(人間)〉·〈탄생이전(誕生以前)〉 등의 용접조각에는 전자제품의 기계부속품들이 서로 엉키듯 결합되어 있다. 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기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작가의 기호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1970년대 제작한 《지각변이(地殼變異)》 연작은 지층의 단면을 자른 것처럼 알루미늄판에 수평으로 선을 그은 작품이다. 같은 시기에 제작한 《공간흡인(空間吸引)》 연작 역시 작가의 엉뚱한 공상이 작품으로 구현된 듯 우주선 또는 호자(虎子)를 연상시킨다.



남철, 〈상그릴라의 한숨〉, 2012, 철·구리·아연, 55×30×70cm, 남철미술관 소장

1980년대에는 1970년대에 비해 청동·스테인리스강·화강암 등 다양한 소재를 작품에 이용했다. 특히 석재(화강암)와 스테인리스강이라는 이질적인 재료를 면과 선의 형태로 결합시켜 변화 속에서 조화를 찾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혼돈과 질서〉, 〈자연의 질서〉, 〈21세기를 위한 Monument〉 등이다. 〈꿈의 환상〉, 〈대지의 힘〉, 〈꿈속의 날개〉 등에서는 비구상의 추상적인 형상 속에서 조화와 균형미를 구현하였다. 1990년대 이후 비구상 계열의 작품, 특히 생명이나 우주 질서 등을 주로 표현하였다.<sup>4</sup>

## 연보

- 1936년 대전 출생
- 1961년 《제10회 국전》(경북공미술관)에 〈환상(幻想)〉 특선 수상  
《제2회 한국미협전》(서울, 경북공미술관)에서 특선 수상
- 196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인천 대건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제2회 한국미술협회전》 신인예술상 수석상  
《제11회 국전》(경북공미술관)에 〈O嬢〉을 무감사 출품
- 1965년 《제14회 국전》에 〈영원의 대화〉 특선 수상
- 1966년 《제15회 국전》에 〈영원의 합창〉 특선 수상
- 1967년 《제16회 국전》에 〈빙점(氷點)〉 특선 수상
- 1968년 《제17회 국전》에 〈구름〉 특선 수상

3 남철, 「작가의 변(창작과 사색)」, 『남철 조각전』(청담미술관, 1990).

4 박기성, 「[작가의 산실](29) 조각가 남철」, 『중도일보』(2005. 6. 23).

- 1969년 계명대 미술공예학과 교수로 부임 / 《제18회 국전》에 〈인력〉 특선 수상, 국전 추천작가로 위촉
- 1971년 《제5회 이상회전(以象會展)》(대구, 대백화랑)에 출품
- 1973년 《제1회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5년 《제1회 문예진흥원 초대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76년 《제25회 국전》에 〈철새 II〉 출품
- 1977년 《제26회 국전》에 〈지각변이(地殼變異)〉 출품
- 1978년 《제27회 국전》에 〈역류(逆流)〉 출품 / 계명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경북녹화기념(慶北錄化記念) Monument〉 동해고속도로에 제작 설치
- 1979년 《제28회 국전》 초대작가로 〈공간흡인(空間吸引)〉 출품
- 1980년 《제29회 국전》에 〈비몽(飛夢)〉 출품  
교육부 후원으로 《제1회 개인전》(대구, 동서문화연구소) 개최
- 1981년 위암으로 계명대학교 사직
- 1982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부임<sup>5</sup>
- 1982~1992년 《현대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83년 《충남향토작가 초대전》에 참가
- 1985년 미국 Western Michigan University 초청 연구(동서예술비교 연구)  
《제1회 대전현대조각전》에 참여
- 1986년 《제1회 한국·독일 미술가협회전》(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참여  
《제1회 한·중예술가 협회전》(대만, 타이페이)에 참여
- 1988년 '88 올림픽 기념 조형물 3점 제작(대전, 한밭종합운동장)  
《'88 올림픽 기념 세계미술대전》에 초대출품
- 1989년 《제1회 대전현대조각가협회전》에 출품  
《제2회 한국·독일 미술가협회전》(독일 본)에 참여  
《제2회 한·중예술가 협회전》(대만, 타이페이)에 참여
- 1990년 《남철 개인전》(서울, 청담미술관) 개최 / 교육부 후원 《남철 개인전》(대전, MBC문화공간) 개최
- 1993년 대통령 표창장 수상
- 1993~1995년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초청교수, 프랑스 파리 국립8대학 교환교수 역임
- 1999~2002년 《세계미술교류협회전》(세종문화미술관)에 출품
- 1999년 《대전미술 50년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0년 《개관기념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한국현대미술의 시원》(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1년 남철미술관(대전 서구 괴정동 129-16) 개관<sup>6</sup>
- 2002년 충남대학교 정년퇴임 / 황조근정훈장 수상
- 2009년 《마음의 행로전》(대전, 롯데화랑)에 출품
- 2017년 작고

5 「작가의 산실(29) 조각가 남철」, 『중도일보』(2005. 6. 23)에는 1982년 충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부임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6 남철미술관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73-1.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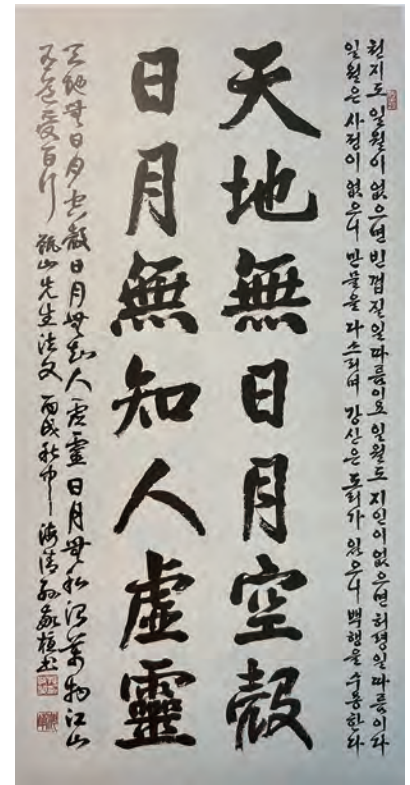
## 손경식 (孫敬植, 1937~ )

호는 해청(海淸). 손경식은 1937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딸만 다섯을 둔 집안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다섯 살 때부터 한학자였던 부친에게 글을 배웠고, ‘글씨를 잘 쓴다’라는 소문으로 ‘소년 서예인’이라 불리었다.<sup>1</sup>

18세가 되던 해인 1955년 충남도청 인사계에 특채로 입사하였으며 1957년에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경사승진시험에 합격하였다. 근무 중, 국무원(國務院) 사무국에 발탁되어 상훈 사무를 담당하며 당시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서한 회호를 맡았다. 1959년 《제8회 국전》에 첫 입선하였고 제18회부터 제20회 《국전》에 〈고시처세명(古詩處世銘)〉, 〈희수문선생 영소시〉, 〈송회암선생찬문부시(宋晦菴先生贊丈夫詩)〉으로 3회 연속 특선을 수상하며 추천작가·초대작가를 거쳐 심사위원 자리에 올랐다.

1977년 동서고금의 철인명구(哲人名句)의 소재를 전서·예서·행서·해서·초서 및 한글서체를 폭넓게 구사한 〈전예행주병(篆隸行註屏)〉, 〈단군대성조천부경(檀君大聖祖天符經)〉 등 55점으로 《손경식 서예전》을 열어 중후하며 활기에 차있는 필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sup>2</sup>

손경식은 국내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서화가들을 결집시키고 침체된 국내 서화인들의 구심점이 되기 위하여 ‘한국서화원로총연합회’를 설립하였다. 2004년 서울 창천동에 ‘해청갤러리(구 해청미술관)’를 설립하여 서예·서도인의 화합을 이끌었다. 2010년, 평생을 연구한 ‘해청행서체’를 개발하여 컴퓨터용 글꼴로 제작했으며, 일생에 걸쳐 수집·보존해 온 250여 점의 작품들을 전시하여 일반 대중과 예술작가들 사이의 가교역할을 하였다.



손경식, 〈증산선생(龜山先生) 법문(法文)〉, 연도 미상, 140×72cm(출처: 『한국미술작가명감-한문서예』, 한국미술협회, 2016)

1 이희민, 「서화는 자화상이다」, 『위클리피플』, pp. 12~14; 전상수, 「손경식 관장, 미술관에 홍익이념 걸다」, 『경제풍월』(2011. 1. 18).

2 「손경식서예전」, 『동아일보』(1977. 3. 18).



## 연보

- 1937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55~1979년 충남도청, 총무처, 노동부, 국무원사무국에서 24년 근무
- 1959년 《제8회 국전》에 〈주회암팔찬문(朱晦菴八贊文)〉 입선
- 1961년 《제10회 국전》에 〈자성반성의 이치〉 입선
- 1965년 《제14회 국전》에 〈주천자가훈(朱天子家訓)〉 입선
- 1966년 《제15회 국전》에 〈최고운선생시(崔孤雲先生詩)〉 입선
- 1969년 《제18회 국전》에 〈고시처세명(古詩處世銘)〉 특선
- 1970년 《제19회 국전》에 〈희수문선생 영소시〉 특선
- 1971년 《제20회 국전》에 〈송회암선생찬문부시(宋晦菴先生贊文夫詩)〉 특선  
〈주회암선생 찬문부시(朱晦菴先生贊文夫詩)〉 입선
- 1977년 《손경식 서예전》(서울, 출판문화회관) 개최
- 1978~1995년 《국전》, 《한국서가협회전》, 《시도전》 심사위원 역임
- 1981~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전》 6회 출품
- 1984년 《손경식서예전》(서울, 세종문화회관) 개최
- 1985년 『5체(體), 7체백림문(七體百林文)』 출판
- 1985~1998년 《근로자미술대전》, 《공무원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88~1999년 《서울특별시 초대전》 11회 출품
- 1990~1995년 《예술의전당 초대전》 3회 출품  
민족통일협의회 지방회장 및 중앙이사 역임
- 1992년 《손경식 서예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최
- 1995년 대통령 표창,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 1995~2005년 민주평통자문위원 및 상임위원(종교 문화) 역임
- 1993~2014년 사단법인 현정회 이사, 일월서단 고문
- 2001년 『홍익삼경(弘益三經)』 출판
- 2003년 해청미술관 관장, 해청갤러리 회장 역임
- 2004년 『홍익삼경선해(弘益三經選解)』 출판
- 2005년 대한민국 서예문인회 원로총연합회 창립회장 역임
- 2006년 『천부경 해역』, 『충효진리』 출판
- 2010년 해청 행서 컴퓨터용 글꼴 제작

## 신권희 (申權熙, 1937~1995)

1937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해 홍익대학교 공예학부 공예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대학교 재학 중 《제11회 국전》에서 〈책상〉으로 특선을 수상했다.

1970년부터 1976년까지 경기공업전문대학 교수로 있었으며, 1980년부터는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1986년 『조형연습』(서울산업대학교출판부)을 집필해 수업 교재로 사용하였다.

소소한 꽃병이나 티스푼과 같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장신구와 봉구리, 소쿠리, 골구리 등 토속적인 소재를 금·은·동 등 다양한 금속으로 제작하였다. 금을 사용해 섬세한 무늬를 표현하는 누금세공(鏤金細工)에 뛰어나 작품의 표면에 화려한 문양을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이다.

1970년 이후 국내에서 칠보를 사용한 제품이 많이 제작되었지만, 수입품에 비해 국산 유약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양질의 칠보유약을 생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했다.<sup>1</sup> 작가 스스로 “한국 자연미를 조형으로 근본으로 하면서 누금세공의 기술과 기법을 연구발전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고 했듯이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누금세공과 칠보기법을 작품에 적용하여 당시 금속공예 분야에서 인정받았다.<sup>2</sup> 1995년 생애 첫 개인전을 준비하던 중 건강 악화로 작고하였다. 이후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작가를 추모하는 《신권희 유작전》을 개최했다.



신권희, 〈화병〉, 1979, 동·칠보, 10×20×30cm  
(출처: 『신권희 금속작품집』, 최 갤러리, 1995)

1 이우성, 신권희, 「한국 칠보공예품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논문집』 제5집(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1972), pp. 253~281.

2 신권희, 『오늘을 대표하는 금속공예8인전』(호암갤러리, 1988).

## 연보

- 1937년        충남 보령에서 출생
- 1962년        《제11회 국전》에 〈책상〉 특선 수상
- 1963년        《제12회 국전》에 〈팔괘문갑(八卦文匣)〉 입선
- 1970~1976년  경기공업전문대학 교수로 재직
- 1975년        《한국현대공예대전》(덕수궁미술관)에 〈은제(銀製) 꽃병〉 출품
- 1979년        《한국귀금속디자인회 창립전》(서울, 리빙아츠)에 참여  
                   《제6회 한국공예가회》(서울, 미도파화랑)에 참여
- 1980년        《제2회 한국귀금속디자인회》(서울, 통인화랑)에 한국산 백옥 작품 출품
- 1980~1995년  서울산업대학교 교수로 재직
- 1981년        《티스폰전》(서울, 하얏트호텔 2층 전시장)에 각종 재료와 독특한 문양의 티스폰 출품  
                   《홍익(弘益)금속공예전》(서울, 신세계미술관)에 〈촛대〉 출품
- 1982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제9회 한국공예가회》(서울, 디자인 포장센터)에 참여
- 1983년        《칠보(七寶)공예회》(서울, 신세계미술관) 창립전에 참여
- 1986년        『조형연습』(서울산업대학교출판부) 출판  
                   《한국현대미술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 출품
- 1987년        《공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88년        《현대금속공예전》(서울, 위커힐 미술관)에 참여
- 1989년        《오늘을 대표하는 금속공예 8인전》(서울, 호암갤러리)에 참여  
                   금속공예 전문 화랑인 《갤러리빙 개관기념 금속공예 작가 초대전》에 참여
- 1990년        《한국미술오늘의 상황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1~1993년  《서울공예대전》에 참가
- 1995년        대한민국 목양공예상 수상  
                   작고

## 이용휘 (李容徽, 1937~2016)

호는 우남(牛南). 1937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하여 1958년 부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용휘는 작가의 꿈을 펼치기 위해 농부였던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에 입학하여 김기창과 이상범에게 그림을 배웠다. 1962년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조평휘, 하태진, 오태학 등과 함께 '신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서울 용산여자중학교와 용산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자의 길을 걸었다. 이후 1983년 군산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정년퇴임 전까지 약 50여 년간 후학을 양성했다.

1978년 서울 신세계미술관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5년 《자랑스러운 미술인상 수상 기념전》까지 15회의 개인전과 200여 회의 기획, 초대전에 참가하였으며 《미술대전》, 《충남도전》,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2002년에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과 대통령상을 받았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제작된 이용휘의 초기작은 고향 풍경과 민담을 소재로 한 풍속화로 이는 그의 화업을 관통하는 키워드이자 정체성이다. 당시 이용휘는 새로운 조형을 탐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신수회에서 활동했으나 추상화의 유행에서 벗어나 '한국화의 전통'을 찾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sup>1</sup> 1978년 개최한 《제1회 개인전》에서 농촌이나 일상의 한 정경(情景)을 삽입한 부드러운 수묵산수의 작품세계를 보여주며 <정월(正月)>, <강촌(江村)>, <어악(漁樂)> 등 40여 점을 출품했다.<sup>2</sup> 또한 같은 시기에 제작한 <귀로>와 <추억>을 통해 작품 속 소재들의 진원지가 한결같이 고향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sup>3</sup>

인물, 풍속화를 중심으로 진행된 작품세계는 1980년대에 이르러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는 고향의 자연 풍광으로 확장되었다. 대부분 풍경의 깊이보다 넓이를 우선하는 수평 구도를 사용하여 가로로 넓게 퍼진 횡축의 작품을 주로 제작했으며 파노라마식의 화면에 주변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을 배치시켜 조화로우미를 표현했다. 또한 고원(高遠)이나 심원(深遠)



이용휘, <귀로>, 1970년대, 종이에 수묵채색, 130×92cm(출처: 『우남, 이용휘』, 미술세계, 2015)

1 오광수, 「인물, 풍속에서 산수로-우남 이용휘의 회화적 역정」, 『우남, 이용휘』(미술세계, 2015).

2 「이용휘(李容徽) 동양화전」, 『조선일보』(1978. 5. 26).

3 오광수, 앞의 글.



이용휘, 《한수》 8곡 병풍, 2012, 종이에 수묵채색, 136×394cm(출처: 『백제후에-오늘의 부여 미술 초대전』, 부여문화원, 2015)

산수 대신, 야산을 중심으로 고요하게 펼쳐지는 들녘의 정경은 평화롭기 그지없는 '청전산수'의 전형으로 평가받기도 했다.<sup>4</sup> 1980년 후반에는 <호반(湖畔)>, <귀어(歸漁)> 등 실경을 담은 수묵 산수와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풍속을 포착한 <춘여(春興)>, <여인(女人)>, 그리고 생활정경을 소재로 한 <하동(夏童)>, <추억>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여 한국적인 정서를 보여주어 한국화의 새로운 양식정립에 꾸준히 노력해 온 작가로 평가되었다.<sup>5</sup> 2000년대 이후, 이용휘는 고향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는 동시에,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상생을 추구하며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의 산수화를 제작하여 2012년 《자연 그리고 인간-공존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했다.<sup>6</sup> 이용휘의 작품세계는 초기부터 근작까지 심한 변화나 굴곡 없이 중심을 지키며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이는 꾸준히 자기 일에 몰두해 왔다는 증거이자 자기를 향한 중심이 그만큼 든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연보

- 1937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58년 충남 부여고등학교 졸업
- 196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1963년 '신수회(新樹會)' 결성
- 1965년 《동양화 11인전 초대》(서울, 중앙공보관)에 참여
- 1962~1966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66~1969년 문산중·농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69~1973년 서울 용산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73~1976년 서울 광희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75년 《한·일 미술교류전 초대》(서울, 미도파화랑)에 참여

4 이종근, 「자연 닮은 자유로운 삶 그리다」, 『새전북신문』(2015. 1. 25).

5 「한국화가 우남전(牛南展)」, 『조선일보』(1988. 3. 29).

6 이규대, 「숲에서 피워낸 '자연과 인간' 공존의 미학」, 『시사저널』(2012. 4. 28).

- 1976~1980년 서울 용산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78년 《제1회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동양화 중견작가 6인전 초대》(서울, 신세계미술관)에 참여
- 1979년 《미술단체 연립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0년 《제2회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1980~1983년 목원대학교 출강
- 1981년 《제3회 개인전》(대전시민회관) 개최 / 《동양화 7인전 초대》(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2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학 석사 졸업  
《제4회 개인전》(서울, 석화랑) 개최 / 《현역작가 11인전》(서울, 롯데화랑)에 참여
- 1983~2002년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 1984년 《신목회 창립 및 동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6년 《서울 현대미술제》(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7년 《한국화 모색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88년 《한국화가 우남전(牛南展)》(전북예술회관) 개최
- 1989년 《한국화 9인전》(서울, 열화랑)에 참여 /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심사위원 역임
- 1990년 《한국화 상황모색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충남도립미술전》 심사위원 역임
- 1992년 《문인화 정신과 현대회화전》 추진위원 역임 / 군산대학교 현대미술연구소장 역임
- 1993년 《한국의 자연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제12회 미술대전》 운영위원 / 《금강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93~1994년 군산대학교 예술대학장 역임
- 1994년 《서울 국제현대미술제 초대》(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제13회 미술대전》 심사위원
- 1995년 《한국 전통산수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6년 《한국의 현대미술 '현대와 미래전'》(홍대미술관)에 참여
- 1998년 《제8회 개인전》(서울, 덕원미술관) 개최  
《대전시립 미술관 개관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0년 《수목화 새천년의 오늘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1년 《제1회 운사회전》(서울, 운보갤러리)에 참여
- 2002년 옥조근정훈장 수상 / 군산대학교 총장 공로패 수상
- 2005년 《향토작가 초대전》(국립부여박물관)에 참여
- 2006년 부여고등학교 총동창회 공로패 수상
- 2008년 《대전미술 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11년 《운보 10주기 추모기념 초대전》(청주, 운보미술관)에 참여  
《개인전》(군산시민문화회관) 개최
- 2012년 개인전 《자연 그리고 인간-공존의 미학》(서울, 인사아트센터) 개최
- 2015년 미술세계 선정 자랑스러운 미술인상 수상
- 2016년 작고

## 이종각(李鍾珪, 1937~ )



이종각, 〈레일-L 형 II〉, 1975(출처: 『이종각조각전』, 현대화랑, 1976)

1937년 충청북도 청원에서 태어난 이종각은 **천안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를 졸업하였다. 1970년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여 2003년 정년퇴임하였다. 1979년에 덴마크 정부 초청으로 약 2년간 왕립 미술대학교에서 수학했다. 김세중 조각상, 김수근 문화상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07년부터 충청남도 천안 유량동에서 **리각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sup>1</sup>

대학교 재학 중인 1960년 《제9회 국전》에 용접조각 〈하품하는 여인〉으로 입상한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철판 조각을 모아 용접 조각작품을 제작하였다. 1968년 처음으로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작품 〈구름〉을 《제17회 국전》에 출품하였다. 작가 개인의 감정을 실어 개성적인 표면의 질감을 조성하는 이전의 용접방

식에서 벗어나 스테인레스강과 같은 새로운 재료에 개인이 용접하기 어려운 아르곤가스를 활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기하학적인 금속조각의 시원이 되었다.<sup>2</sup>

1973년부터 1978년 사이 제작한 《레일(Rail)》 연작은 토막 난 레일을 자유자재로 유형화한 것으로, 레일이라는 강철의 본질적 속성을 변형시켜 안정된 형태로 새롭게 탄생시킨 작품이다. 작가는 이 시기 작품을 광택 나고 매끈하게 다듬어진 공예품 같은 작품이라고 회상하였다.<sup>3</sup>

《레일》연작 이후 이종각은 산소로 철사를 녹여가며 인체를 데포르름(deformar)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군무〉·〈사랑〉·〈가족〉·〈곡예〉에는 뼈대만으로 인물을 형상화하였는데, 리듬감 있으면서 역동적인 자세를 보여주며, 인체의 형태와 함께 조성되는 공간이 중요한 요소로 자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45번지에 있다. 1985년 3월 충청북도 청원에 이종각 야외조각 미술관 개관. 1993년 12월 충청남도 천안으로 미술관 이전. 1997년 1월 '리각미술관'으로 명칭 변경. 2007년 1월 17일 1종 전문미술관으로 등록하였다.  
홈페이지 <http://ligakmuseum.co.kr/>

2 김이순, 『전후의 용접조각』(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232.

3 이종각, 『이종각조각전』(현대화랑, 1984).

리 잡고 있다.<sup>4</sup>

이종각은 1979년 덴마크왕립미술학교의 초빙으로 연수를 갔다온 후 조각관에 결정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 작가는 윌리 웨르스코브 교수의 “조각은 평면적 면(面)이 아니라 덩어리(mass)”라는 말을 가슴 속 깊이 되새기게 된다. 또한 귀국 길에 방문한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중국 《주대 청동기전(周代 靑銅器展)》에 전시된 작품들을 보고 공예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육중



이종각, 〈擴散空間〉, 1990, 청동, 66×58×43cm(출처: 『이종각조각전』, 호암갤러리, 1990)

함과 대범한 존재감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한다.<sup>5</sup> 이 두 가지 경험은 이종각이 조각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작가는 양식화된, 즉 장식적인 조각형태를 포기하고 공간과 대결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 박스형과 파이프형의 청동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구조체 형태의 《확산공간(擴散空間)》 연작을 진행하였다. 몇몇 단위의 덩어리가 합쳐진 작품들은 그 사이에 내재적이고 유기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작품에 사용한 재료의 질감을 최대한으로 드러냄으로서 얻어지는 육중함이 강조되었다.<sup>6</sup> 작품의 표면에 광택을 입힌 《레일》 연작과 달리 표면을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둔 대범한 면 처리가 오히려 고졸한 멋을 드러낸다.

1990년대에서는 작품을 지면에 놓았던 1980년대와 달리 구조적 형태를 배제하고 덩어리 자체에 집중하였다. 육중한 구조물이 진흙더미를 밀고 나갈 때와 같이 서로 대조되는 물성의 차이가 빚어내는 극적 긴장감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즉 분화구에서 분출된 용암의 잔형을 연상케 하는 거친 표면을 통해 외부로부터 물리적 힘이 가해지는 순간의 변화와 물체 내부에서 작용하는 운동이나 생명력을 형상화하였다.

철사를 이용한 웰딩 기법, 《레일》 연작에 이어서 두 번의 변화를 보여주는 《확산공간》 연작까지 이종각은 추상미술을 입체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물성의 육중함과 공간감의 조화를 모색한 조각가이다. 현재 리각미술관을 운영하며 ‘응축형과 변주’라는 새로운 주제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4 이정근, 「조각가 이종각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3권 제2호(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7), p. 512.

5 이종각, 앞의 도록.

6 이일, 「擴散空間과 收縮空間-李鍾珪의 근작 조각에 대하여」, 『李鍾珪彫刻展』(현대화랑·한국미술관, 1984).



## 연보

- 1937년 충청북도 청원에서 출생
- 1958~1981년 《국전》 특선 3회 및 입선 5회
- 1963년 조선일보 주최 《현대작가초대전》에 출품
- 1964년 《원형회전》에 출품
- 1969년 《한국현대조각가 9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에 출품
- 1970년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한국미술대전》(서울, 한국일보사)에 출품  
《현대화랑 개관 기념전》(서울, 현대화랑) 초대 출품
- 1971년 《상파울로 비엔날레》(브라질 상파울로)에 참가
- 1972년 《한국근대미술6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3년 《한국현대조각회전》에 출품 / 《日韓현대조각전》(일본 고베)에 참가
- 1974~1981년 국전 추천 · 초대작가 · 심사위원 역임
- 1975년 《현대화랑 개관5주년 기념전》(서울, 현대화랑)에 출품  
《제1회 조각개인전》(서울, 현대화랑) 개최
- 1976년 《중앙미술대전》 초대 출품
- 1977년 《한국미술 오늘의 방법전》(서울, 문예진흥원)에 출품  
《현대조각 초대전》(서울, 중앙국립극장)에 출품
- 1979년 덴마크 왕립미술 아카데미 초빙 연수
- 1980년 《오늘의 조각 13인전》(부산, 유나화랑)에 출품
- 1981년 《한국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2~1985년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2년 《중진조각가 19인전》(서울, 선화랑)에 참가
- 1983년 《이태리한국현대미술대전》(이태리 밀라노)에 참가
- 1984년 장보고 제패 기념상 제작 / 《제2회 조각개인전》(서울, 현대화랑 / 한국미술관) 개최
- 1986년 《관훈미술관 초대작가 100인전》(서울, 관훈미술관)에 출품
- 1988년 《국제야외조각 심포지엄》(올림픽조각공원)에 참가
- 1990년 김세중 조각상 수상 / 《이종각 조각전》(용인, 호암미술관) 개최
- 1991년 김수근문화상 미술상 수상
- 1993년 《제3회 개인전》(용인, 호암미술관) 개최 / 《개인전》(서울, 갤러리 현대) 개최
- 1997년 《미술의 해 유네스코 파리전》에 참가
- 1999년 《한국조각 50년전》(서울, 갤러리 현대)에 출품
- 2000년 《현대미술의 시원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3년 경희대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정년퇴임 / 옥조근정 훈장 수훈
- 2018년 《이종각, 조각을 모으다》(천안, 리각미술관) 개최

# 전영기 (田榮淇, 1937~ )

호는 야원(野園). 1937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출생하여 논산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78년 심원 조중현을 사사하였으며, 충남지역에서 활동했다.

전영기는 대학에서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스승으로부터 배운 방식으로 공필채색의 화조화를 주로 그려 조중현 문하생다운 면모를 보였다.<sup>1</sup> 대표작 중 하나인 <추심>을 보면 배경을 푸른색 계열로 열게 선염으로 처리하고, 정교한 필치와 화려한 색채로 압수 한 쌍의 꿩을 묘사했다.

화단에 입문한 1978년부터 《충남동양화작가전》과 같은 단체전에 꾸준히 참가하였고, 1982년 《충남도립미술전》의 초대작가, 1985년부터 《충남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2005년에는 대전미술협회에서 주최하는 대전미술발전의 토양이 된 지역의 원로미술인들을 위한 《제4회 대전원로미술인 초대전》에 조평휘, 권탁원, 김세원 등과 함께 참가하였다.



전영기, <추심>, 1991, 종이에 수묵담채, 71.5×73cm, 대전시립미술관

## 연보

- 1937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충남 논산농업고등학교 졸업
- 1974년 《충남 녹수회전》(대전, 송아지다실)에 참여
- 1978년 심원 조중현 사사
- 1982년 《충남도립미술전》 초대작가로 위촉
- 1985~1986년 충남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 1988년 《대전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군작도> 출품
- 1991년 《대전미술대전》에 초대작가로 <풍요> 출품
- 1992년 《대전미술대전》에 초대작가로 <송학(松鶴)> 출품
- 2005년 《제4회 대전원로미술인 초대전》(대전시청)에 참여

1 전영기의 약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작성하였다(전화인터뷰: 2021. 9. 24).

## 정관모(鄭官謨, 1937~ )



정관모, 〈기념비적 운목〉, 1978(출처: 『鄭官謨 彫刻-紀念碑的인輪木』, 청년작가회관, 1978)

1937년 대전시 동구 인동에서 정인풍의 4남 3녀의 넷째로 태어났다. 1943년 만주 후신 천혜소학교 교장으로 발령 받은 아버지를 따라 가족과 함께 만주로 이주하였다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대전으로 돌아왔다. 대전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공주농업중학교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 이후 대전중학교에 편입했다. 중학교에서 미술부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미술교사가 이중학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말 진로를 고민하다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 평면보다 입체가 자신에게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1956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에 진

학했다.

대학교 3학년 때 김정숙 교수의 실기시간에 홀로 “인체 조각에서 형태의 단순화와 곡면과 곡선의 융화에서 생동감 또는 생명감이 느껴지는 중량감을 유출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런 의도로 완성한 작품 중 하나를 조선일보사 초대 《공모전》에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했다.<sup>1</sup> 연이어 《제 1회 신인예술상》의 조각부에서 차석상과 상금을 받았다. 4학년 때 김경승 교수가 제작하는 4.19 기념탑 작업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참여했다.

대학교 졸업 후 성신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면서 동시에 모교인 홍익대학교 1학년 수업인 소조와 소묘 강의를 맡았다. 1966년 9월 중앙공보관 뒤뜰에서 ‘갈망에서 체념, 체념에서 다시 생의 의미까지’라는 주제로 생애 첫 개인전을 열어 테라초(Terrazzo) 기법 중에 표면을 갈아내지 않고 쪼아서 손맛을 살려낸 작품 29점을 선보였다.<sup>2</sup> 이듬해 여름, 한국 신문회관 전시실에서 〈...사념은 섭리, 의미, 집념 그리고 갈등으로...〉라는 제목의 목조작품 29점으로 두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1965년 조각 작업의 한계를 그림으로 보완하기 위해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에 진학하

1 정관모, 「갈망에서 체념, 체념에서 다시 생의 의미까지」, 『정관모 자전문집: My Obelisk』(미술문화, 2012), pp. 18~19.

2 인조석의 일종으로 대리석·석회암의 세밀한 색채를 골재로 하여 시멘트로 혼합해서 평평히 발라서 굳히고 표면을 갈아서 광택을 낸 건축재료이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

였으며, 대학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떠나 1968년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 오브 파인아트 조소과에 입학했다. 1971년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Cranbrook Academy of Arts) 조각과에 다시 입학해 이례적으로 1년 만에 졸업했다. 1973년 5년 2개월 만에 미국에서 귀국하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1969년 9월, 필라델피아 제퍼슨 갤러리(Jefferson Gallery)를 시작으로, 1972년 뉴욕의 알티미스 이스트 갤러리(Artemis East Gallery)까지 총 7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정관모는 1960년대 중반까지 전형적인 모더니즘 추상 조각을 제작했으나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둥근 형태가 중심이 되는 유기적인 추상조각 《생의 의미》 연작을 통해 생명의 기원을 표현하였다. 자연물을 소재로 깎고 파내어 만든 둥근 형태를 통해 유기체와 같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sup>3</sup>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모더니즘 추상조각의 영향에서 벗어나 재래 놀이 기구인 윤목(輪木)이 지닌 구조적인 단순성과 토속적인 재질감을 차용한 《윤목》 연작을 제작했다. 윤목은 5년 동안의 미국 유학생생활을 통해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인 감각과 접목시키는 것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국적 현대조각으로 구현한 첫 연작이다.<sup>4</sup> 이런 목표를 세우고 민속유물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발견한 윤목의 형태미와 속도감이 현대조각의 속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sup>5</sup> 이러한 깨달음을 현대조형어법에 맞춰 〈기념비적인 윤목〉이라는 명제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1984년 초부터 민속유품이라는 구체적 형상성을 강조하는 조형방법에서 벗어나 관념적 형상성에서 사물이나 사건의 이미지를 찾아내는 조형방법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코리아 판타지(Korea Fantasy)》라는 명제로 작업했다. 《윤목》 연작과 같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조각이라는 조형매체로 표현하면서 작가가 겪었던 1945년 8.15 해방, 6.25 한국전쟁, 4.19, 5.16에 이어 1988년 서울올림픽 등 한국사의 역사적인 사건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sup>6</sup> 폐자재들을 활용해 우리 민족이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느꼈을 고통, 기쁨 등의 감정을 추상화된 조각의 형태로 변조한 것이다.

1990년 이후 나무나 돌로 조성된 기둥형태에 각종 표상들을 음각(陰刻) 하거나 난간 기둥목에다 표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각종 오브제를 부착하는 두 가지 패턴으로 제작한 《표상과 의식의 현현(顯現)》 연작을 선보였다. “작품에 나타난 표상(문양의 확대개념)을 살펴보는 이들이 자신의 의식을 짚어보고 인생을 관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작품을 제작했다고 하였다.<sup>7</sup> 이후

3 유재길, 「코리아니즘과 생명의 근원을 모색하는 조각」, 『정관모 조각전-표상과 의식의 현현』(진화랑·진아트센터, 1997).

4 정관모, 「미국, 미국, 미국」, 앞의 책(2021), pp. 74~77.

5 정관모, 「기념비적인 윤목」, 앞의 책(2021), pp. 100~103.

6 「작가의 말」, 『KOREA FANTASY BY CHUNG, KWAN-MO』(문예진흥원미술회관, 1990).; 정관모, 「Korea Fantasy」, 앞의 책(2021), pp. 134~136.

7 정관모, 「나의 조각 《표상-의식의 현현》전을 열며 Note5」, 『표상-의식의 현현』(진화랑 미술회관, 1997).; 정관모, 「표상·의식의 현현」, 앞의 책(2021), pp. 137~139.



정관모, 〈코리아 환타지〉, 1989, 나무에 채색, 160×60×265cm(출처 『정관모 코리아 환타지』, 문예진흥원미술회관, 1990)

한국문화의 밑바탕을 무속신앙으로 보고 무속인들이 그리는 부적 문양과 기독교 문양을 접목시켜 이집트 오벨리스크와 같은 〈My Obelisk〉를 완성했다. 커다란 통나무 또는 그것을 반으로 켜낸 반쪽나무 기둥에 검은색을 입히고 덧새긴 문양들은 빨간색으로 칠해 강한 대비감을 주면서 주술적인 느낌을 창출했다.<sup>8</sup>

1973년부터 재직했던 성신여자대학교를 정년퇴임한 이후 2005년 경기도 양평에 C아트뮤지엄을 열었다. 정관모는 교육, 연구, 창작활동에 머물지 않고 ‘한국미술청년작가회’를 약 20년간 이끌면서 학연, 지연, 인맥을 떠나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며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미술협회 13대 이사장으로 전국 회원전의 활성화, 정기적인 지부장 회의 등을 통해 미협이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국적인 소재를 차용해 《윤목》과 《코리아 판타지》, 《표상과 의식의 현현》연작 등을 통해 우리 고유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조각가다.

## 연보

- 1937년 대전 출생
- 1956년 공주고등학교 졸업
- 1962년 《제6회 조선일보 초대 공모전》에 출품 장려상 수상  
신인예술상 차석상 수상
- 1963~1965년 《12회, 13회 14회 국전》 3회 특선
- 196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성신여자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 1965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입학
- 1966년 《제15회 국전》에서 〈섭리(攝理)〉 문교부장관상 수상  
《제1회 개인전》(서울, 중앙공보관) 개최
- 1967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제2회 개인전》(서울, 신문회관 화랑) 개최
- 1968년 Pennsylvania Academy of Fine Art 조각과 입학

<sup>8</sup> 정관모, 『My Obelisk』, 앞의 책(2021), pp. 140~141.

- 1969년 《개인전》(미국 필라델피아, 제퍼슨 갤러리(Jefferson Gallery)) 개최
- 1971년 《개인전》(뉴욕, 뉴욕 갤러리(Newark Gallery)) 개최  
Cranbrook Academy of Arts 조각과 입학
- 1972년 《개인전》(뉴욕, Artemis East Gallery) 개최  
Cranbrook Academy of Arts 조각과 졸업
- 1973년 성신여자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 부임  
《개인전》(서울, 명동화랑) 개최
- 1974년 《제10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 1974~1994년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창립 초대 회장, 《창립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75~1976년 해프닝 〈물고기를 위한 십자가 I, II〉(안면도, 꽃지 해변) 작업
- 1977년 《개인전》(서울, 청년작가회관) 개최
- 1979년 《앙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0년 문집 『기념비적인 윤목』(대원출판사) 출간
- 1983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취임
- 1985년 《현대미술4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6년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7년 제주 조각공원 신천지미술관 건립
- 1988년 『정주목의 모뉴멘탈리티』(미진사) 출간
- 1990년 《정관모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93년 교육부장관상 수상
- 1994년 미국 엘론(Elon) 대학 명예 미술학 박사학위 취득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상 수상  
한국예총예술문화상 공로상 수상
- 1998년 《대전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0년 《한국현대미술의 시원》(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2년 대한민국 기독교미술상 수상  
국전 운영위원장 역임
- 2009년 문화예술선교대상 수상  
제22회 김세중 조각상 수상
- 2010년 보관문화훈장 수상
- 2011년 《개인전-속과 병의 병존》(서울, 서울미술관) 개최
- 2014년 《그림 개인전-New Icon》(청주, 예심 갤러리) 개최
- 2015년 《New Icon》(청주예술의전당 대전시실) 성화 전시회에 참여
- 2017년 제31회 예총예술문화상(서울, 예총회관) 대상 수상
- 2021년 《정관모, 김혜원 부부 특별전》(서울,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 개최

## 정영복(鄭永福, 1937~ )



정영복, 〈갑사〉, 1990, 캔버스에 유채, 45.5×53.0cm  
(출처: 『잠언의 붓: 정영복작품집』, 평청당, 2016)

정영복은 1937년 충청남도 공주 금정리에 서 출생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참외정물〉을 그려 충청남도 교육감상을 수상하며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1959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미술과 야간반에 입학했다.<sup>1</sup> 대학에 입학하던 해 청양문화원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대학 재학시절 서라벌예술대학에 출강하고 있던 노수현의 동양화 수업을 듣기도 했지만, 미술 재료를 사기 힘들 정도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대학을 중퇴했다. 1964년 홍성의 광흥여자중·고등학교 강사로 나가면서 교직에

몸담기 시작했다. 1968년 고등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고시 미술과에 합격해 대전 둔산여고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36년간 미술 교사로 지냈다.

1977년 대전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면서 대전으로 이주한 정영복은 이해에 대전지역 남녀 고교 미술부 학생들의 모임인 '미상록'의 지도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1964년(27세) 두 번째 개인전을 가졌던 정영복은 세 번째 개인전은 20여 년 만인 1981년 개최했다. 이후 1984년까지 해마다 개인전을 열었으나, 이후 20여 년간은 주로 단체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예우회', '이신회' '충남수채화협회' '지움회' 등 충남지역 미술단체 결성에 힘쓰며 지역미술 발전을 이끌었다.<sup>2</sup> 이 외에도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 '대전 사생회', '대전 구상작가회', '이형회'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고, 대전미술대전 초대작가, 대전구상작가회 고문 등으로 활약했다.

1960~1970년대 정영복의 작품들은 주로 사생을 바탕으로 한 풍경화들로, 견실한 화면구성과 안료의 질감이 강조된 화풍을 보여준다.<sup>3</sup> 이 시기 세간의 삶과 회화에 매료되어 붓의 터치로써 면을 만들어내며 화면을 구성했고, 실제로 찾아다닌 자연 풍광을 화폭에 담았다. 1980~1990년대 정영복의 작품은 대상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굵은 붓 터치로 대상이 서로 유기

1 정영복의 생애 정보와 작품활동 관련 내용은 다음의 문헌 참조. 정영복, 『잠언의 붓: 정영복작품집』(평청당, 2016), pp. 170~172.

2 김구희, 「정영복 화백, 그림인생 팔십 '잠언의 붓'에 담다」, 『충청데일리』(2017. 4. 28).

3 정영복의 시기별 작품 경향에 대해서는 이순구, 「부드러운 풍경-도원향(桃園鄉)」, 『잠언의 붓: 정영복작품집』(평청당, 2016), pp. 38~39 참조.

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화면을 구성했다. ‘눈 내린 갑사’ 풍경을 그린 작품은 설경이지만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가 구현했다. 특히 겨울나무나 고즈넉한 기와집, 그리고 눈 덮인 언덕과 바위들을 화면에 잘 어우러지게 배치해 튼튼한 짜임새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인 화면은 조금씩 해체되었고, 풍경의 대상이 놓여준 특히 과수원 등으로 옮겨가며 더욱 소박하게 자연을 담아냈다. 2000년대 이후 작품에는 평범한



정영복, 〈복사꽃〉, 2004, 캔버스에 유채, 72.7×90.9cm, 작가소장

주변 풍경에 사람을 가끔 등장시키고 있는데, 화면 속 사람들은 한가롭고 평화롭게 풍경과 어우러져 있다. 이 시기 정영복의 작품들은 흰색을 많이 섞어 부드럽고 화사하다.

정영복은 자신의 작품 경향에 대해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나 세련된 기교는 없지만 촘스럽고 어리숙한 표현 속에서 끈적이는 우리의 정(情)과 혼(魂)이 전해지길 소망한다”<sup>4</sup>고 밝혔다. ‘2020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구술채록집 『대전의 예인(藝人)』 그리고 예술(藝術): 정영복<sup>5</sup>이 발간되었다. 정영복은 교편생활을 하며 대전 미술의 기틀을 마련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서정적인 시골의 정취를 담은 풍경화를 꾸준히 그리고 있다.

## 연보

- 1937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59년 서라벌예술대학 미술과 입학  
《제1회 개인전》(청양문화원) 개최
- 1963년 서라벌예술대학 중퇴
- 1964년 충남 홍성군 광흥여자중고등학교에 강사로 재직  
《제2회 개인전》(홍성, 광천5가 다방) 개최
- 1968년 문교부 시행 고등학교 준교사 자격검정고시 미술과 합격  
예산군 덕산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 1970년 《한국미협 충남지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74년 《예우회 창립전》(대전, 산강화랑)에 참여
- 1977년 ‘미상록’ 지도교사로 활동

<sup>4</sup> 앞의 도록, p. 42.

<sup>5</sup> 김용민(채록연구원), 『대전의 예인(藝人) 그리고 예술(藝術): 정영복』(대전문화재단, 2020).



- 1978년 《충남의 자연전-창립전》(대전, 신신화랑)에 참여
- 1979년 《이신회 창립전》(현 구상작가회)에 참여
- 1981년 《제3회 정영복 유화전》(대전, 신신화랑) 개최
- 1983년 《제4회 개인전》(대전, 공간사랑) 개최
- 1984년 《제5회 개인전》(대전, 반도화랑) 개최
- 1985년 《충남 수채화협회 창립전》(대전, 반도화랑)에 참여
- 1986년 《한·일전》(한국, 문예진흥원 미술관 / 일본, 도쿄미술관)에 참여
- 1987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 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1년 《구상작가 100인전》(대전 구상작가회 / 광주, 무등회 / 대구 한유희 합동전)에 참여
- 1993년 《한국구상미술의 새 방법전》(대전, 한밭도서관 전시실)에 참여
- 1995년 《대전미술 50년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7년 《대전문화원기획-우정의 만남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99년 《아! 대한민국전》(서울, 갤러리 상)에 참여
- 2000년 《아름다운 우리강산 전》(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참여
- 2001년 《한밭미술의 여정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3년 《한국회화조명 특별 초대전》(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참여
- 2004년 《제6회 개인전》(대전, 현대갤러리) 개최  
《故 이동훈 화백 20주기 추모 기념전》(대전갤러리)에 참여  
《대전미술제 Vision 2004》(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6년 《제7회 개인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개최
- 2007년 《지움회 창립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에 참여
- 2008년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개관기념전-It's Daejeon》(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10년 《제4회 대한민국 크리스찬 아트페스티벌》(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참여
- 2013년 《대전미술의 새 물결 전》(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에 참여
- 2015년 《제8회 개인전》(대전, 갤러리 웃다) 개최
- 2016년 《제9회 개인전》(서울, 가나아트스페이스) 개최
- 2017년 《정영복 초대전》(대전, 이공갤러리) 개최
- 2018년 《정영복·신현국 아카이브전》(대전중구문화원)에 참여
- 2020년 ‘2020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대상 작가로 선정  
구술채록집 『대전의 예인(藝人) 그리고 예술: 정영복』(대전문화재단) 출간

## 제정자(諸靜子, 1937~ )

1937년 대전에서 태어난 제정자는 글을 쓰고 수묵화를 그리던 아버지로부터 예술적 감수성을 물려받아 대전여자중·고등학교 재학시절 미술부 반장을 지냈다. 196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했으며, 졸업 후 10년만인 1972년 신세계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25회의 개인전과 《여류작가 초대전》, 《그랑팔레 한국미술대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12년 ‘이브갤러리’ 관장을 맡아 70대에 접어든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려진 《70's RENAISSANCE》와 《60's NEW VISION》 등 중견 작가들의 작품발표 장을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sup>1</sup> 또한 세계미술교류협회 회장, 《한중수교 17주년 특별기획전》 운영위원장, 《한일 현대미술전》 운영위원장, 홍익대 동문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미술평론가 오광수는 제정자의 작품 경향을 2000년대를 경계로 전기와 후기로 대별하고 전기는 《세월의 소리》, 《기운의 소리》, 《선(線)과 면(面)》 시리즈로, 후기는 《정(精)과 동(動)》 시리즈로 구분하였다. 전기와 후기의 구획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전기가 자유로운 운필을 기본으로 한 추상적인 화면이라면, 후기는 구체적인 모티브의 설정과 그것의 변주에 의한 구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sup>2</sup>

제정자의 작품세계는 약 10년 단위로 바뀌는 작품명에 따라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되는데,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등장하는 《세월의 소리》 연작은 서예적인 필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율동적인 필선과 여백을 통한 유기적인 화면공간을 통해 동양적인 고담한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필력이 발현됐던 것 같다”고 작가는 밝히기도 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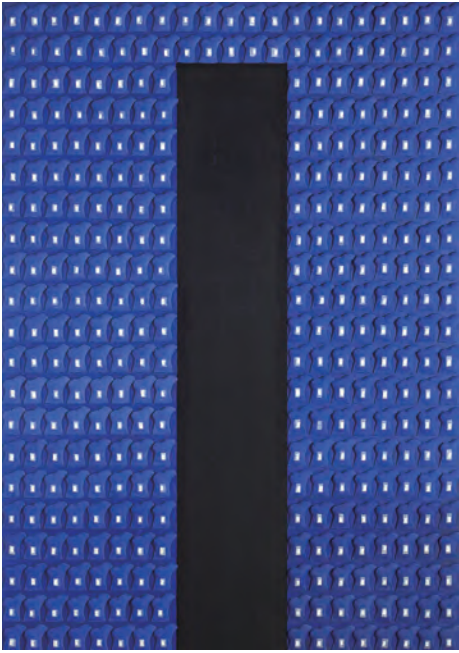


제정자, 〈선과 면〉, 1987, 캔버스에 아크릴, 194×130cm, 작가소장

1 제정자는 1997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 들어가 이곳에서 만난 동창 고춘홍(주이브자리 대표)의 제안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관장직을 맡았다.

2 오광수, 「표현적 추상에서 미니멀리즘으로: 제정자의 작품 세계의 편력」, 『JE JUNG JA』(월간미술, 2016), p. 14.

3 이은영, 「특별인터뷰/원로화가 제정자 화백」, 『서울문화투데이』(2016. 5. 17).



제정자, <정과 동>, 2010, 캔버스에 아크릴과 면, 210×140cm, 작가소장

1990년대 들어 추상적인 필선이 은은하게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화면 한쪽에 새나 빈 배, 산, 혹은 사모관대, 성장(盛裝)한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 이러한 형상이 하나의 강조점을 이루면서 기(氣)와 운(韻)의 힘을 이루는 《기운의 소리》 연작을 선보였다. 세 번째 단계인 《선과 면》 연작은 부드럽고 추상적인 필선이 교차되는 공간 속에 최소한의 형태인 선과 점을 배치한 연작이다. 적색이나 백색의 엄격한 수직선은 화면에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박래경은 이 《선과 면》 연작은 이미 1980년대 아크릴 그림이나 유화에서 등장하던 ‘선과 면’이 일으킨 변이를 표제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다.<sup>4</sup> 실제 제정자는 공간 설정에 결정적인 선과 점이 꼭 있어야 할 곳에 흔적을 남김으로써 시원스럽게 트인 공간을 만들었다. 작가는

운필을 바탕으로 했던 3단계까지의 작품경향을 ‘단색화 계보’에 속한다고 설명했다.<sup>5</sup>

네 번째의 단계는 2000년대 들어 지속하고 있는 《정(靜)과 동(動)》 연작으로, 우아한 곡선과 때로는 에로틱한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버선을 통해 한국 고유의 정서와 미, 나아가 한국 여성의 정체성과 애환을 표현하였다. ‘제정자’하면 ‘버선 작가’로 불릴 정도로<sup>6</sup> 근 20년 가까이 버선을 모티브로 작업하면서 다양한 변주를 보여주고 있다. 초기에는 버선을 화면 한쪽에 단순한 이미지의 표상으로 그렸으나, 다음 단계에서는 버선을 오브제로 붙이는 콜라주 작업을 시도했다. 이후 작은 버선을 직접 만들어 일정한 공간 속에 빼곡히 채우기도 하고, 시점을 살린 버선을 일정한 띠를 이루도록 나열하여 음과 양을 표현했다. 또한 오브제로서의 버선과 배경에 그려진 버선을 나란히 등장시켜 실상과 허상의 공간구조를 은유하기도 하고, 원색의 병치를 통해 색상을 대비시키는 등 계속 변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반 입체적인 콜라주 형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버선의 곡선미를 흰 대리석 조각에 구현함으로써 콜라주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미술평론가 박래경이 제정자의 작품에 대해서 “한국성이 늘 근간으로 지켜지고 있으면서도 현대라는 시대성을 한시도 잊지 못하는 강한 의지의 예술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했듯이 제정자는 버선이라는 전통적인 소재를 공간구성과 색채대비, 콜라주, 입체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한국의 미를 표현한 작가로 평가받는다.<sup>7</sup>

4 박래경, 「유기적 생명성이 쉬는 숨으로 가득한 화면 공간」, 『JE JUNG JA』(월간미술, 2016), pp. 10~11 참조.

5 이은영, 앞의 글.

6 이은영, 앞의 글.

7 박래경, 앞의 글, p. 11.

## 연보

- 1937년 대전시 대흥동에서 출생
- 196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 《국제자유미술전》(서울, 경북공미술관)에 출품
- 1972년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1975년 《개인전》(서울, 조선화랑) 개최
- 1977년 《한·일 미술교류전》(서울, 미도파화랑)에 출품
- 1977·1981년 《여류작가 초대전》(서울, 회화랑 / 신세계미술관)에 출품
- 1982·1985년 《서울현대미술제》(서울, 미술회관 / 문예진흥원)에 출품
- 1984년 《Grand et jeunes D'aujourd' Hul》(프랑스 파리)에 참가  
《개인전》(미국 LA, 갤러리 스킵) 개최
- 1985년 《그랑팔레 한국미술대전》(프랑스 파리)에 출품
- 1987년 《국제 IMPACT미술제》(일본, 교토미술회관)에 출품 / 《발파라이소 비엔날레》(칠레)에 참가
- 1987~1993년 《한·독미술협회전》(서울 / 독일 본)에 출품
- 1987·1990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9년 《현대미술의 단면》(일본, 교토국제예술센터)에 출품
- 1989~1993년 《문우회전》(서울, 서울갤러리)에 참가
- 1990~1996년 《홍익전》(서울, 미술회관)에 참가
- 1990~1992년 《한국 수채화 작가전》(서울, 동방프라자 / 신세계미술관)에 참가
- 1991년 《한국의 미전》(서울, 아미화랑)에 출품
- 1992년 《한국 현대 미술전》(러시아 모스크바) / 《한국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3년 《예술의전당 개관기념 초대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4~1996년 《문전》(서울, 서울갤러리)에 출품 / 문전회장 역임
- 1995~1996년 《한·독미협전》(서울시립미술관 / 독일)에 출품
- 1996, 1999년 《한·일 현대미술전》(서울, 운현궁미술관 / 서울갤러리)에 출품
- 1997년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개인전》(일본 도쿄, 아트뮤지엄 긴자) 개최  
《운(韻)의 세계전》(일본, 갤러리하나미도 / 오다와라)에 출품
- 2001~2013 《세계미술교류협회전》(서울)에 출품
- 2003년 《미주 이민 100주년 기념전》(미국 LA, 한국문화원)에 출품
- 2004년 《개관기념 한국현대작가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에 참가
- 2008년 《개인전》(서울, 이브갤러리) 개최
- 2009년 《중·한수교 17주년기념 특별기획교류전》(중국 베이징, 상상국제미술관)에 출품
- 2012~2015년 이브갤러리 관장으로 재직
- 2013년 《개인전》(서울, 이브갤러리) 개최
- 2015년 《한국 추상화가 15인의 어제와 오늘》(양주, 안상철미술관)에 출품
- 2016년 화업 50년 특별전 《선조의 영혼》(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2017년 서울문화투데이 제8회 문화대상 미술부문 대상 수상

# 최병상(崔秉尙, 1937~ )



최병상, 〈오늘과 내일Ⅲ〉, 1990, 청동, 스테인리스강, 20×70cm(출처: 『90현대조각전2부:비구상전』, 조형갤러리, 1990)



최병상, 〈봄〉, 1999, 스테인리스강, 홀로그램, 60×35×78cm(출처: 『제3회 최병상 작품전』, 선화랑, 2007)

1937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한 최병상은 대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58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2학년 때, 처음으로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보일러 공장에서 용접을 배운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용접조각을 제작하고 있다.<sup>1</sup>

1959년 철판을 용접으로 붙인 작품 〈대지〉로 《제8회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하였다. 대학교 재학 중 공모전에서 특선과 입선을 거듭하며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7년간 서울 경신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지냈으며, 1971년 이화여자대학교로 옮겨 2002년 정년퇴임하였다.

1950년대에는 용접기법을 활용해 전통기법에서 벗어난 실험적이고 순수조형의 형태를 탐구하는 추상조각을 제작했다. 이후 1960년대에는 철판을 잘라 용접한 추상적인 작품에 자신이 직접 겪은 한국전쟁, 독재와 부정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판의식 등 시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sup>2</sup> 아울러 《국전》과 《현대공간회》 등 단체전을 통해 다양한 형상의 용접조각을 선보였다.

금속 용접 조각을 통해 조각 영역에서 새로운 공간 표현의 가능성을 연 작가는 1990년 이후 과학을 접목한 새로운 작품을 시도했다. 작품 소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철, 동과 유리, 알루미늄에서 스테인리스강에 이어 레이저와 LED, 홀로그램까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였다.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을 연마하여 거울과 같

1 학교를 오가는 길에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고철을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해 처음 용접조각을 시작 하게 되었으며, 구성 시간에 배운 구성의 원리에 따라 철판을 구부려 돌에 꽂은 첫 용접작품 〈작품〉으로 1959년 《제8회 국전》에 입상하였다. 김이순, 『전후의 용접조각』(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 142~143.

2 김이순, 위의 논문, pp. 187~188.

은 광택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표면에 담아내거나 색채를 입혀 금속의 물질성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1992년에는 조각가 12명과 함께 홀로그램을 이용한 첫 전시 《한국의 HOLOGRAM과 미술》을 열었다. 홀로그램의 적용은 조각의 물리적 부피감을 빛의 표면 뒤로 사라지게 하며,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지개 빛깔의 홀로그램 이미지들은 관람자의 상상력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또한 관람자를 창작과정에 직접 개입시키는 효과를 야기해 주목을 받았다.<sup>3</sup>

최병상은 예술과 과학의 만남 속에서 금속이라는 물질과 빛이라는 비물질의 이원적 결합을 통해 지각과 환영, 실재와 가상, 현실과 초월 등 두 영역 사이를 오가며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실험하고 있다.

## 연보

- 1937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태어남
- 195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입학
- 1959년 《제8회 국전》에서 〈대지〉로 특선 수상
- 1960년 《제9회 국전》에 〈격언〉과 〈地音〉 출품
- 1963~1970년 경신고등학교 미술교사 역임
- 1968년 《현대공간회 창립전》에 〈선과 악의 대화〉 출품
- 1971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부임
- 1974년 《제1회 개인전》(덕수궁 야외전시장) 개최  
《한국현대조각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2년 인도 트리엔날레(인도 뉴델리)에 참여
- 1982~1992년 《제7회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83년 《현대공간회전》(대만, 국립역사박물관 국가화랑)에 참여
- 1984년 국립현대미술관 위촉으로 야외조각작품 제작(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1986년 《현대공간회 Tokyo전》(일본 도쿄, 한국문화원) 참여
- 1988년 제2회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 수상
- 1992년 《한국의 HOLOGRAM과 미술》(서울, 갤러리21)에 참여  
IAA 한국위원회 주최 《'92 IAA 서울기념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가
- 1993년 '93 대전 EXPO 《HOLOGRAM KOREA》(국제관)에 참여
- 1995년 《한국미술50인 유네스코 초대전》(프랑스 파리, 유네스코회관)에 참여
- 1996년 제9회 기독교문화대상 수상

3 박숙영, 「서문」, 『제3회 최병상 작품전』(선화랑 선아트센터, 2007), pp. 2~3.

- 1997년 《한국의 HOLOGRAM 빛의 미래》(서울시립미술관)에 참가  
《현대조각의 단층》(서울, 일민미술관)에 출품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대전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가
- 2000년 《한국현대미술의 시원》(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2002년 황조근정훈장 수상
- 2003년 서울미술협회주최 《제1회 서울특별시 원로중진작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2004년 《현대미술정상 31인초대전》(서울, 정동 경향갤러리) 초대 참여  
서울미술협회 주최 《서울현대미술 로마전》(이태리 로마, 로마건축가협회 하우스)에 참여  
《COLOR EXPO 2004 국제 HOLOGRAM작가전》(서울, 코엑스)에 참여  
김종영기념사업회 주최 《김종영 조각상 수상 기념전》(서울, 김종영미술관) 개최
- 2005년 《대한민국현대미술작가초대전-KAF2005》(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 참여
- 2007년 《개인전》(서울, 선화랑) 개최
- 2011년 《한국조각 다시 보기》(서울, 소마미술관)에 참가

## 권탁원 (權卓遠, 1938~ )

호는 정재(靜齋). 1938년 대전에서 출생한 권탁원은 1956년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직후 진잠국민학교를 시작으로 대전 자양국민학교, 문화국민학교의 교사로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다.

대전사범학교 재학 시절 미술교사였던 이동훈의 권유로 당시 대전공업고등학교 교사였던 조중현의 화실에 다니며 그림에 입문했다.<sup>1</sup> 1960년 《제9회 국전》에 출품한 〈타조〉를 비롯하여 《제10회 국전》에 출품한 〈젓 짜는 소〉, 《제12회 국전》의 〈산양〉과 같이 스승 조중현의 영향으로 영모(翎毛)화를 그려 입선하였다. 교사생활을 하며 《대전미협전》 등에 꾸준한 작품을 출품했으나, 1969년 교사직에 충실하기 위해 잠시 화업을 접기도 했다.

1980년대 들어 다시 붓을 잡은 권탁원은 자신이 추구해온 채색화에 꾸준히 천착하며, 현대적인 감각과 구도를 기반으로 탄탄한 화면을 구축했다. 또 이전에 다루었던 화조, 영모화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광〉, 〈환희〉와 같이 종교적인 주제에 채색을 더욱 강하게 가미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였다. 이는 작가가 학생 시절부터 여러 작가들의 채색화를 보며 훈련하고, 수묵과 산수, 인물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오랫동안 실력을 다져온 결과였다.

정년퇴임 이후 개인전을 열며 그림에 더욱 정진했고, 2004년에는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문화생들에게 한국화를 지도했다. 또한 학업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 여든의 나이에 충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동훈의 제자로 참여한 《이동훈 화력 50주년 기념전》을 비롯해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여류작가회》, 《대전원로 미술인전》 등 크고 작은 전시에 참여했으며, 심향 박승무 선양위원회 등에 참여하며 대전의 여류화가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sup>2</sup>



권탁원, 〈타조〉, 1960, 한지에 수묵담채, 178.5×149.5cm, 《제9회 국전》 입선작, 대전시립미술관

1 최중태, 「작은 생물에 대한 사랑-권탁원展에-」, 『권탁원회고전』(대전현대갤러리, 2002), p. 2.

2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대흥동 예술가들 195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1), p. 48.



## 연보

- 1938년 대전 출생
- 1956년 대전사범학교 졸업  
대전 진삼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 1960년 《제9회 국전》에 〈타조〉 입선  
《미술동인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61년 《제10회 국전》에 〈짓 짜는 소〉 입선
- 1962년 《대전미협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63년 《제12회 국전》에 〈산양(山羊)〉 입선  
《대전미협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69~1971년 논산 두마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 1970년 《대전미협전》(대전예총화랑)에 참여  
미협 주최 학생미술 실기대회 개최
- 1971~1977년 대전 자양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 1977~1980년 대전 문화국민학교 교사로 재직
- 1988년 《안견 탄생 570주년기념초대전》(충남, 서산미술관)에 참여
- 1999년 《한국의 진경정신 북한산전》(서울, 공평아트센터)에 참여
- 2001년 《한발미술의 여정1》(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2년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권탁원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한발미술의 여정2》(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3년 《권탁원 개인전》(서울, 공평아트센터) 개최
- 2004년 대전시립미술관 한국화지도 출강
- 2005년 《개관20주년기념 초대전》(대전현대갤러리)에 참여  
《대전 원로미술인 초대전》(대전시청)에 참여
- 2017년 충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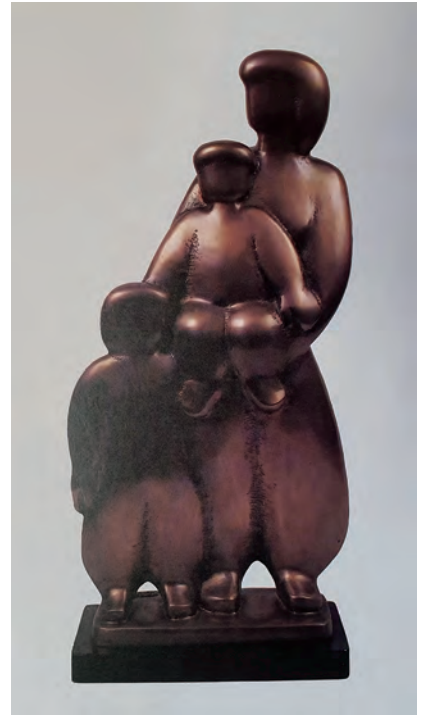
## 김창희 (金昌熙, 1938~ )

호는 당진(當津). 1938년에 충청남도 당진에서 출생한 김창희는 인천사범학교 재학 중 1957년 인천 만국공원에서 열린 맥아더 장군 동상 제막식에서 조각가의 위대함을 처음으로 깨닫고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홍익대학교 조각과에 진학했다. 대학교 재학 중인 1964년 《제13회 국전》에 〈요정〉으로 입선을, 이듬해 열린 《제14회 국전》에서 〈귀로(歸路)〉로 특선을 수상했다. 1966년에 열린 《신상회공모전》에서 〈출항〉으로 차석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다. 1977년 《제26회 국전》과 1978년 《제27회 국전》에서 연이어 문공부장관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추천작가의 반열에 들어갔다.

1978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환경과 조형의 조화를 도모하는 환경조각과를 창설하는데 기여했으며, 김창희 자신도 외부 환경에 조형물로 역할을 지닌 환경조각을 다수 제작하였다. 1996년 프랑스 출판사에서 『김창희 조각 작품집』을 발간했으며, 『LE BENEZIT- 세계 예술가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2004년 정년퇴임 후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으로 고향인 당진에 4000여 평의 미술관을 조성하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에 제작한 작품 〈선율〉(1984), 〈비상〉(1985)에는 인체로 재현할 수 있는 동작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역동성을 추구했다. 인체의 조형적 구조로 보아 일반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무용가들의 동작으로 보인다.

김창희가 제작한 환경조각에는 주로 가족이 등장하는데, 한국사회에서 가족이 갖는 의미를 재현하며, 인물들



김창희, 〈환상가족〉, 1990, 청동, 78×40×13.5cm(출처 『'90현대조각전』, 조형갤러리, 1990)



김창희, 〈고향마을〉, 1991, 청동, 380×210×190cm(출처 『현대미술작가 선집 Ⅲ』, 미술시대, 1989)

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거나 한가로이 누워 있는 모습을 하여 편안함과 화목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1990년대에 들어서 인물들의 상세한 표현을 생략하여 인체의 개체성을 해체했으며, 재료의 매끈한 질감 처리는 부드러움을 증가 시킨다.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고향마을>(1992)은 구체적인 인물이나 지형물 보다는 지극히 단순화되고 관념화된 소재들로 한국 사회의 가족 모습을 구현하였다. <고향마을>에 등장하는 사람, 산, 나무들이 모두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지니면서 서로 연결되어 일체화되어 있다. 구체적 형상의 구현보다는 사람 같은, 산 같은, 나무 같은 형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환경과 인물 설정에서 연극적 무대를 재현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up>1</sup>

김창희는 환경조각과를 창설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조각을 제작한 점에서 환경조각의 선구자로 평가되며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사실적인 표현을 주로 하였다.

## 연보

- 1938년 충청남도 당진에서 출생
- 196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입학
- 1964년 《제13회 국전》에 <요정>으로 입선  
 <크리랜드 장군 및 가이사 중사상>(경기도 가평, 가이사중학교(현 가평중고등학교)) 제작
- 1965년 《제14회 국전》에 <귀로(歸路)>로 특선 수상
- 1966년 《신상회공모전》에서 <출항>으로 차석상 수상
- 196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졸업  
 <김태영 선생상>(안성, 안성중학교) 제작
- 1969년 <김영순 장군상>(서울, 환일중학교) 제작
- 1974년 《초대개인전》(일본 도쿄, 한국문화원) 개최  
 《개인전》(서울, 표화랑) 개최  
 《한국현대조각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7년 《제26회 국전》에 <약동(躍動)>으로 문공부장관상 수상
- 1978년 《제27회 국전》에 <상승(上昇)>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중앙미술대상전》 특선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부임  
 《제1회개인전》(서울, 선화랑) 개최
- 1979년 《국전》 추천작가 위촉
- 1980년 《한국구상조각회》(이태리 로마)에 출품  
 《한국현대조각 10인초청전》(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화랑)에 참가

1 최승훈, 「당진 김창희의 혈친 조각 '고향마을'」, 『현대미술작가선집 III』(미술시대, 1989), pp. 11~15.

- 1981년 《개인전》(서울, 선화랑) 개최  
《한국미술81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3년 《바로셀로나 국제화랑 10인초대전》(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화랑)에 출품  
서울시립대학교에 환경조각과 창설
- 1984년 《'84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85년 《미술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위촉
- 1986년 《도쿄한국문화원초대 개인전》(일본 도쿄, 한국문화원) 개최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90년 《한국미술 오늘의 상황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가
- 1991년 《모스크바 국립동양예술박물관 초대 개인전》(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동양예술박물관) 개최
- 1992년 《초대 개인전》(일본 오사카, 대한민국총영사관) 개최
- 1993년 《초대 개인전》(뉴욕, 한국문화원) 개최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에 <고향마을> 설치
- 1994년 《한국조각 '94전》(뉴욕, 패터슨미술관)에 출품
- 1996년 『김창희 조각 작품집』(프랑스 노세라출판사) 출간  
《파리 기테화랑 초대 작품집 출간기념전》에 참여  
『LE BENEZIT 세계예술가 인명사전』에 수록  
《개인전》(서울, 롯데갤러리) 개최
- 1997년 《'97도쿄아트페어》(일본 도쿄, 아키에 아리치갤러리)에 참가
- 2002년 《제33회 세계미술교류협회전》(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 참가
- 2003년 《개인전》(서울, 청작화랑) 개최
- 2004년 서울시립대학교 정년퇴임  
대통령표창 수상

## 김한(金漢, 1938~2008)



김한, 〈인테리어 3〉, 1967, 캔버스에 유채, 162×131cm, 국립현대미술관

김한은 1938년 경상남도 마산 출생으로, 1957년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경남대학교 상경대학에 입학해 1964년 졸업한 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다시 들어가 1967년 졸업했다. 1967년 결성된 청년미술단체 'WHAT'의 창립멤버로 활동했고,<sup>1</sup> 1968년과 1969년 연이어 《현대작가초대전》에 출품했다. 1970년 결성된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의 창립멤버로 1975년에 해체될 때까지 활동했다. 1971년부터 1974년까지 한국미협 서양분과위원을 지냈으며, 전국대학미전 심사위원, 까뉴국제회회제 커미셔너 등으로 활약했다. 197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논문으로 앵포르멜 운동에 관한 논문을 제출했다.

**1973년부터 1976년까지 목원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했고, 1977년에는 1년간 강의만 진행했다.<sup>2</sup> 1974

년 교수 작품전인 《제1회 목원대학 미술교육과 전람회》에 참여했고, 1975년 《제2회 목원미전》에는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출품했다. 1978년 목원대학교 선후배를 중심으로 한 미술인 12명이 '대전 78세대'라는 그룹을 결성할 때, 당시 'AG 그룹' 창립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던 김한은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김한은 "살롱전에 작품을 내는 것은 참 예술을 하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대상을 보는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예술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었다.<sup>3</sup> 특히 거문고, 창문, 한국의 소리 같은 것을 회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학생들이 한국적 정신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김한은 1970~1980년대 '아방가르드 미술운동'과 '서울방법전'을 주도한 화가로, 1973년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래 1990년대 초반까지 거의 매년 개인전을 열었다. 1970년대 초부터 먹줄 작업을 지속하며 다양한 변주를 통해 독특한 추상 화풍을 구축했다. 캔버스가 아닌 한지 위에 아크릴, 먹과 같은 재료를 사용했던 김한의 먹줄 작업은 전통적으로 건축 현장에서 사용되던 측량

1 'WHAT'는 홍익대 졸업 및 재학생의 모임으로 신학철, 김진석 등이 참여했다. 『매일경제』(1984. 1. 19)

2 조상영, 「이건용, 목원대 미교과 초빙교수 되다」, 『중도일보』(2011. 8. 1).

3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p. 113.

도구를 미술 작품에 도입한 것이다.<sup>4</sup> 팽팽하게 당겨진 먹줄을 한껏 당겼다가 한지 위에 강력한 흔적을 남기는 방식은 먹이 튀는 과정에서 기하학적인 선과 함께 예기치 않은 우연의 효과를 시도한 작업이었다. 《인테리어》 연작 중 하나인 〈인테리어 3〉(1967)은 《WHAT 창립전》에 선보였던 작품이다. 검은 바탕에 원색의 선과 면, 그리고 4개의 원이 화면 안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확보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



김한, 〈가야금 산조〉, 1990, 한지에 혼합재료, 110×110cm(출처: 『金漢 작품전 “통김” 1972~1990』, 미술회관, 1990)

1980년대 중반 이후 김한은 《가야금 산조》 연작을 시도했다. 물감이 듬뿍 뻐 먹줄과 찢어 붙인 한지 조각들이 어우러진 수경을 보여주는 이 연작은 전통악기인 가야금 산조를 듣는 것 같은 리듬감을 화면에 형상화한 작업이다.<sup>5</sup> 전통음악을 이미지로 구현한 이 작업에 대해 프랑스의 미술평론가 제라르 슈리게라(Gérard Xuriguera, 1936~)는 “유연하고도 감상적이며 치장되지 않으면서도 절제되어 있다”고 평가했다.<sup>6</sup> 작고하기 한해 전인 2007년 개인전을 열어 가야금 산조 가락의 멋을 ‘움동하는 색과 형’으로 화면에 재현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 연보

- 1938년      경상남도 마산 출생
- 1957년      마산고등학교 졸업
- 1964년      경남대학교 상경대학 졸업
- 196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WHAT 창립전》(서울, 조흥은행본점)에 참여
- 1969년      《현대작가초대전》(경북공미술관)에 참여
- 《한국작가6인초대전》(일본 도쿄, 도끼와화랑)에 참여
- 1970년      《한국미술대상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A.G전》(국립공보관)에 참여
- 1971년      《파리비엔날레》(프랑스 파리)에 참여
- 1971~1974년    한국미협 서양화분과위원 역임
- 1972년      《프로렌스국제판화전》(이탈리아 플로렌스)에 참여

4 김영재, 「자문과 文氣의 言語-김한의 예술과 인간」, 『金漢 작품전 “통김” 1972~1990』(미술회관, 1990).

5 후가노 오사무, 「바람과 물의 리듬-金漢 個人展에 부쳐」, 『金漢 個人展』(후쿠오카 ESPACE19, 1989).

6 「제라르 슈리게라의 평(1987. 12)」, 위의 도록(1989) 참조.

- 1973년 《개인전》(서울, 명동화랑 / 태인화랑) 개최
- 1973~1976년 목원대학교 출강
- 1974년 《제2회 홍대동문전》(대전, 경암화랑)  
《목원대 교수전람회 창립전》(대전, 산강화랑)에 참여
- 1975년 「韓國에 있어서 앵포르멜(Informel) 運動의 定着과 그 展開에 관한 연구」로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목원미전》(대전, 목원대학교 전시실)에 참여
- 1976년 전국대학미전 심사위원 역임
- 1977년 《개인전》(태인화랑 / 서울화랑) 개최  
《서울방법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한국현대서양화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9년 《개인전》(서울, 그로리치화랑) 개최
- 1980년 《초대 개인전》(프랑스 파리, 리아그랑빠에 화랑) 개최  
《80년 서울 방법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1년 《개인전》(일본 동경미술관) 개최
- 1982년 《한국현대미술초대전》(이탈리아 밀라노)에 참여
- 1983년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83~1992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4년 《2인전 : 김한 · 이성자》(프랑스 파리)에 참여
- 1985년 《개인전》(서울, 우정미술관) 개최  
《한국현대미술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7년 《제7회 개인전》(서울, 우정미술관) 개최
- 1988년 《개인전》(서울, 조선화랑) 개최
- 1989년 《개인전》(일본 후쿠오카, ESPACE19) 개최
- 1990년 《김한 작품전: 통김 1972~1990》(서울, 미술회관) 개최  
《한국미술-오늘의 상황전》(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2년 《개인전》(일본, 由布院미술관) 개최  
《개인전》(일본, NTT 후쿠오카지점) 개최  
《초대 개인전》(갤러리 서호) 개최  
《서울국제방법전: 일본 · 중국 · 한국》(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93년 《초대 개인전》(대구, 시공갤러리) 개최
- 1994년 《서울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07년 《김한 개인전》(서울, 서호갤러리 / 한국문화세상갤러리) 개최
- 2008년 작고

## 송진세 (宋鎭世, 1938~ )

1938년 대전에서 태어난 송진세는 집안의 가학을 이어 선양서당(仙陽書堂)에서 한학(漢學)을 배우다가 해방 무렵 대전 동광국민학교에 입학했다.<sup>1</sup> 대전사범학교에서 만난 스승 이동훈의 영향으로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공예과에 들어가 공부한 뒤, 40대 초반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 들어갔다.

1957년 《충남미술교육전》에 〈교회보이는 풍경〉을 출품해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1959년 천안에 거주하던 김화경, 김성재와 함께 ‘청포도회’를 조직했다. 또한 1960년대 대전에 화실을 마련해 미술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지도했으며, 1964년에는 충남교육회 주최 ‘충남미술특별공로상’과 대한교육연합회에서 수여하는 ‘푸른 기장상(旗章賞)’을 수상했다. 고등학생들로 조직된 미술연합 동아리인 ‘미상록’이 결성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까지 ‘미상록’에 참여한 학생을 지도하며 대전지역 미술인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1967년부터 1982년까지 문교부 교육과정의 미술과 심의위원으로 활동했고,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상공부공업표준(KS) ‘미술색채’ 전문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미술대전》, 무등미술대전, 이인성미술상 등 여러 공모전의 심사위원과 목우회, 서울미술협회, 월드컵공원 설치미술전 등의 자문위원을 비롯해, 《이동훈 탄생 100주년 회고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현대작가초대전》(1963) 입선, 《제15회 국전》(1966) 입선, 《목우회 공모전》(1968) 특상, 《아시아현대미술전》 입선 등의 수상경력이 있다.

1970년경 상경해 신세계미술관에서 발표전을 가진 후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했으며, 1995년에 화업 40년을 정리하는 개인전을 서울갤러리에서 열었다. 작가는 자신의 작품세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었는데, 1959년부터 1969년까지를 ‘모색과 시도의 시기’, 1970년부터 1989년까지를 ‘사실주의 연마기’, 그리고 1990년 이후를 ‘의미 추구기’로 구분했다.<sup>2</sup>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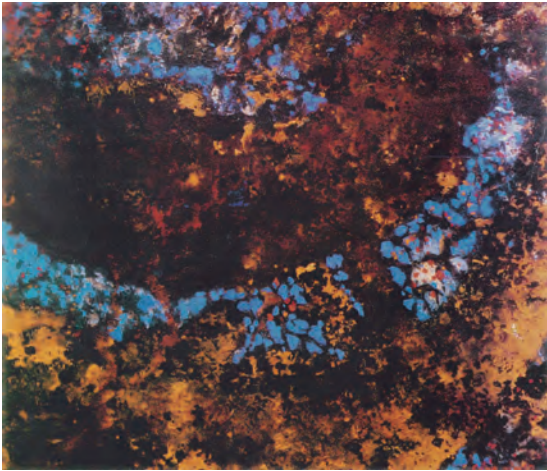


송진세, 〈서정〉, 1962~1964, 패널에 유채, 130×194cm, 대전시립미술관

1 『宋鎭世 繪畫 40年展』(서울갤러리, 1995).

2 이규열, 「주시되는 연작, 〈환생(還生)〉의 집중성-宋鎭世 繪畫 40年展에 부쳐-」, 위의 도록.





송진세, 〈환생-세월〉, 1993, 캔버스에 혼합재료, 91.9×83.0cm(출처: 『송진세 회화 40년전』, 서울갤러리, 1995)

서 3단계는 사실주의 정신과 방법의 틀 속에서 벗어나 추상으로 전환한 시기다.

초기 작품인 〈서정〉(1962~1964)은 ‘대전 극장통’으로 일컬어지는 곳에서 화실을 운영할 때 제작한 작품이다. 당시 벽 재료로 흔하게 사용되던 합판을 떼어내어 그 위에 거칠게 색을 칠한 후 덧발라 가며 3년간에 걸쳐 제작한 이 작품은 대전에 실제 존재했던 허름한 음식점의 풍경을 담고 있다.<sup>3</sup> 거칠고 두터운 마티에르와 화면 전체가 어두운 색채로 뒤덮여 있어 서민들의 애환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1970~1980년대에는 스케치 여행과 답사를 다니면서 풍경을 사실적 기법으로 충실하게 재현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작가가 ‘의미 추구기’라고 표현했듯이 추상회화를 추구하며 윤회(輪廻) 사상과 연관시킨 심의(心意)를 작품에 담았다. 1990년대 초반 제작된 ‘환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보면 물질과 형태의 실험에 몰두한 화가의 다양한 시도와 화풍의 변주가 드러나 있다. ‘구상적 추상, 혹은 추상적 구상’ 형식을 지닌 송진세의 작품은 형상의 세계를 떠나 우주 자연의 섭리를 그림으로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4</sup>

## 연보

- 1935년           대전 출생  
                  동광국민학교, 대전사범학교  
                  서라벌예술대학 공예과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1957년           《충남미술교육전》(선화전람회장)에서 〈교회보이는 풍경〉으로 최고상 수상
- 1959~1966년   《동남아 순회전》(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홍콩, 한국)에 참여
- 1959년           《청포도회전》(대전, 자연다방화랑)에 참여
- 1963년           조선일보 주최 《현대작가초대전》(서울, 경북공미술관) 입선
- 1963~1971년   《목우회전》에 연속 참여
- 1964년           충남교육회 주최 충남미술특별공로상 수상  
                  대한교육연합회에서 푸른 기장상(旗章賞) 수상
- 1964~1990년   《미상록전》 창립지도 및 출품

3 『검이불루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대전시립미술관, 2019), p. 42.

4 장준석, 「진리를 담아내는 꿈의 예술가」, 『미술과 비평』(2009. 6).

- 1965~1985년 한국일보사 미술지도상 수상
- 1966년 《제15회 국전》에 〈목장의 아침〉 입선
- 1967~1982년 문교부 교육과정 미술과 심의위원 역임
- 1968년 목우회 공모전에서 특상 수상
- 1970년 《개인전》(서울, 신세계백화점 화랑) 개최
- 1970~1992년 《한국미술협회전》에 연속 출품
- 1980년 《아시아 현대미술전》에서 입선
- 1981~1985년 《한·중·일 교류전》에 참여
- 1983년 《프랑스 파리 미협회장 초대전》에 참여
- 1985년 《한·일 국교 20주년 기념초대전》(일본 도쿄, 한국문화원)에 참여  
《미국 Sierra Gallery 초대전》(미국 LA)에 출품
- 1987~1989년 《한국 목우회·일본 북해도전》(국립현대미술관 / 일본근대미술관)에 출품
- 1988~1994년 《대한민국회화제》 창립 및 초대대표 역임, 매년 출품
- 1989년 《한·일작가전》(일본, 오사카미술센터)에 참여
- 1994년 《현대작가 특별전》(운현궁미술관)에 출품
- 1995년 《송진세 화업 40년 전》(서울갤러리) 개최
- 1998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아름다운 서울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2~2003년 광주비엔날레 《한국중진작가전》에 참여
- 2003~2004년 《원로 중진작가 초대전》에 참여
-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 II - 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8년 《대전미술 - 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9년 《한국미술 대표작가 초대전》(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2011년 한국미술 1-2세대 초대전 《스페인 정열의 꿈전》(스페인 마드리드)에 참여
- 2013년 Korea Art Festival 광주비엔날레 출품
- 2016년 안산국제아트페어 《국내유명작가 20인 초대전》에 출품  
《이종무화백 100주년 기념: 당림미술관 7인작가 초대전》(송진세, 이종상, 오태학, 신현국, 송번수, 남철, 이종각)에 참여

## 신현국(申鉉國, 1938~ )

신현국은 충청남도 예산 출생으로, 예산국민학교 3학년 때 김두환에게 스케치와 데생을 배우면서 미술을 시작했다.<sup>1</sup> 이후 예산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다녔다. 홍익대학교에서는 스승인 남관과 김환기의 영향을 받아 비구상에 몰두하였고 1962년 대학을 졸업했다. 1960년대 앵포르멜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던 신현국은 1980년경 계룡산에 작업실을 마련하면서부터 구상과 비구상의 세계를 넘나드는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다.

1964년 첫 번째 개인전 《잃어버린 고향》을 서울 신문화관에서 개최한 이후 2021년까지 48회에 가까운 개인전을 가졌다. 1970년대에는 동중학교, 보문중·고등학교에서 재직했고, 1974년 대전에 홍명미술관을 개관해 이동훈, 이마동, 남농 허건 등의 작품을 전시했다.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해 《고교미술 Art 창립전》을 대전문화원에서 열기도 했다.

1960년 문교부장관상을 받은 이래, 《한국미술대상전》에서 초대작가상(1982, 1988), 국제미술대상(일본, 1995), 2016년 대한민국 미술인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청년비엔날레 심사위원장, 세계미술교류협회(구, 한독미술가협회) 이사,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홍익대학교 문우회장, 한국전업미술가 자문위원, 대전시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운영위원, 대한민국회화제, 상형회 등 많은 미술 단체와 대회에서 대표를 맡거나 심사·운영위원·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한국현대미술의 발전에 기여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직후 화가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구상작품으로만 10여 회



신현국, 〈계룡산〉, 2008, 캔버스에 아크릴, 130.3×324.4cm, 대전시립미술관

1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 대전미술의 새물결』(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2013), p. 69.

에 이르는 개인전을 치르며 1980년대 후반까지 작가적인 입지를 다졌다.<sup>2</sup> 당시의 비구상작업에는 구체적인 형태가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이나 사립문 등 고향 풍경을 연상시키는 자신의 체험적 삶과 연관이 깊은 이미지가 담겼다. 이후에는 계룡산을 주제로 산 그림 연작을 선보이며 ‘계룡산 화가’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신현국, 〈산의 울림〉, 2010, 캔버스에 아크릴, 162×130cm, 작가소장

신현국은 별칭 그대로 오랫동안 그려온 계룡산 중심의 풍경화들을 통해 생동적이고 표현주의적인 선명한 색채와 자유로운 선묘가 특징인 화

면을 창조해 냈다.<sup>3</sup> 〈계룡산〉(2008)은 사계절 중 겨울을 그린 작품으로, 가로로 길게 펼쳐진 화면은 그가 오랫동안 지켜본 계룡산의 이야기가 서사시로 펼쳐지듯 산세의 웅장함이 화면에 표출되었다. 평론가 신항섭은 신현국의 작품에 대해 “산의 외형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체로서의 산이 들려주는 소리, 즉 내적인 언어를 표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sup>4</sup> 미술평론가 장준석은 “단순히 산을 그리기보다는, 산을 통해 자연의 본성을 다루는 소중한 체험을 형상화”한다고 설명하면서 체험과 사색의 시간이 그림에 담겨있다고 평했다.<sup>5</sup>

단체전에 850회 이상 참여하며 노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고 있으며, 신현국은 2018년 월간 『미술세계』에서 수여하는 ‘제15회 미술세계상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기념 초대전에서는 이전의 작품들에서 보였던 두꺼웠던 마티에르가 얇아지며 이전과 다른 미감이 구현된 《계룡산》 연작을 전시했다. 2019년 《신현국: 자연의 생명력과 조형적 교감》이라는 부제를 단 전시에서 평생을 그려온 계룡산의 모습을 소품에 담아 전시했으며, 2021년 개인전에서도 “늘 산과 더불어 조용하며 산과 더불어 숨쉬는 듯한” 계룡산 그림들을 선보였다.<sup>6</sup>

## 연보

- 1938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60년 《전국대학미술전》에서 문교부 장관상 수상
- 196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1964년 《개인전》(서울, 신문화랑) 개최

2 신항섭, 「생명의 아름다움에 순응하는 거인적인 산의 설화」(2014). 이 평론은 신현국의 작품활동 이력이 정리된 신현국의 개인 블로그 ‘신현국의 작품세계’에서 참고했다. <https://blog.naver.com/withahri/220377721423>.

3 이구열, 「自然畫의 자유로운 白象化」(1990). 위의 블로그 ‘신현국의 작품세계’ 참조. <https://blog.naver.com/withahri/120073084416>

4 신항섭, 앞의 글.

5 장준석, 「산을 향한 생명의 노래를 가슴으로 담아낸 정열의 화가」, 『자연의 생명력과 조형적 교감: 신현국』(공주문화원, 2019), pp. 42~43.

6 장준석, 「계룡산 화가: 신현국 展」, 『월간 전시가이드』184호(2021. 9), p. 24.

- 1970년대 동중학교, 보문중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 1974년 대전에 홍명미술관 개관
- 1975년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76년 《개인전》(서울, 미도파화랑) 개최  
《문공부 문화예술진흥원 초대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Custom House Gallery 초대전》(미국 캘리포니아)에 참여
- 1978년 《고교미술 Art 창립전》(대전문화원) 지도교사로 참여
- 1980년 《신현국전》(대전, 홍명화랑) 개최  
《예산향토작가초대전》(예산, 友利전시실)에 출품
- 1982년 《국제미술문화 대상전》(일본 나고야, Joir 갤러리)에 참여  
《살롱 드 메 초대전》(프랑스 파리)에 참여
- 1982 · 1988년 《한국미술문화대상전》 초대작가상 수상
- 1987년 《한국현대미술전》(미국 LA, 한국대사관)에 참여
- 1989년 《서양화6인전》(대전미술관)에 참여
- 1994년 《한 · 러 초대작가 교류전》(서울, 백상갤러리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시관)에 참여
- 1995년 《'95 회화제》(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서울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국제미술대상(IAOCA Grand Prize)’ 수상(일본)
- 1997년 《한독미술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파리국제예술위원회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1년 《여름속의 겨울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5년 《Cheltemhem OVG 초대전》(미국 필라델피아)에 참여
- 2008년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 대전, 갤러리사비) 개최
- 2009년 《개인전》(당립미술관) 개최  
《한국미술의 대표작가 초대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가
- 2010년 《당대 중한우수미술작품전》(중국 북경, 789)에 참여  
《Celvi시 초대전》(프랑스)에 참여
- 2012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2014 《개인전》(예산문예회관) 개최
- 2015 《개인전》(대전, 롯데갤러리) 개최  
《미술과 비평 초대작가전 ACAF》(서울, 예술의전당)
- 2016년 ‘제10회 대한민국 미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미술인상 본상’ 수상
- 2018년 《신현국 초대전-제15회 미술세계상 수상기념》(서울, 갤러리미술세계) 개최
- 2019년 《자연의 생명력과 조형적 교감: 신현국》(공주문화원갤러리) 개최
- 2021년 《신현국-산의 울림》(서울, 갤러리인사아트) 개최

## 오태학(吳泰鶴, 1938~ )

호는 산동(山童). 1938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한 오태학은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줄곧 부여에서 자랐다. 오태학은 다니던 부여고등학교에서는 석고 데생을 배울 수 없어, 석고상이 있던 이웃 강경여고의 미술 실기실에서 방과 후 교육을 받으며 화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 후 1년만인 1958년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하여 김기창, 이상범의 지도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했다.



오태학, 〈전우〉, 1961, 종이에 채색, 180×271cm, 국립현대미술관

대학 3학년 재학시절인 1960년 《제9회 국전》에서 〈닭장〉으로 특선을 받았고, 이어 4학년 때 《제10회 국전》에서 〈군우(群牛)〉로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후 1962년 《제11회 국전》에서 〈회(回)〉를 출품하여 연이은 세 번의 특선을 거치면서 그 이듬해인 1963년 25세의 나이에 국전 추천작가가 되어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국전 출품작 중에서 〈회(回)〉는 200호가 넘는 큰 화면에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성 누드 군상으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1907)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오태학의 20대는 지필묵을 다루면서도 서구 미술 사조에 심취해 사실과 추상을 반복했던 회화 수업기였다.<sup>1</sup>

1963년, 오태학은 홍익대학교 동기인 하태진, 이용휘, 최재종과 선배 조평휘, 김동수와 함께 6인의 창립멤버로 '신수회'를 결성하고 첫 전시회를 열었다. 당시 앙포르멜의 영향을 받아 실험성이 강한 작품을 시도했던 동료들과 달리, 오태학은 수묵을 매개로 자연과 인간, 사실과 추상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했다.<sup>2</sup> 이 시기 제작한 〈전우〉는 오태학의 군생활 경험을 토대로 완성한 인물화로 인체 형상을 일부 변형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허물며 수묵과 채색을 혼용하면서 구상에서 비구상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sup>3</sup>

1 송희경, 「오묘한 색상으로 창출된 사람들-산동 오태학 작품에 표현된 인물 형상」, 『산동 오태학의 작품세계』(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8), p. 29.

2 강민기, 「시간을 역류하는 설화세계의 형상화: 산동 오태학의 작품세계」, 위의 도록, pp. 13~14.

3 송희경, 앞의 글, p. 30.



오태학, 〈소와 아이들〉, 2003, 지본암채, 136×346.5cm(출처: 『오태학의 작품세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8)

1960년대까지 수묵을 위주로 한 추상화 작업은 1970년대 초를 지나면서 점차 반추상의 인물 군상들이 형상화 되기 시작하여 전형적인 오태학 양식의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며 동시에 〈불심(佛心)〉, 〈서행(西行)〉, 《허상》 연작들이 제작되었다. 특히 1973년에 그린 〈허상〉은 그의 전기 작품세계에 큰 전환기를 보여주었다. 인천에 소재한 여고의 미술 선생으로 재직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한 〈허상〉에서 오태학은 인물상의 구체적 묘사를 생략한 후 인체의 구성요소를 해체하고 재조합했다. 화면 중앙에 판자 담벼락을 시각화한 하얀 사각형을 줄지어 배치하고 해질 녘 판자 담벼랑 너머로 하교하는 여학생의 인상을 토대로 인물들의 머리와 발을 표현했으며 붉은 해를 강조했다.<sup>4</sup>

《허상》 연작은 오태학 작품세계에 있어서 ‘석채화’라는 새로운 기법을 탐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비구상화 작업과 더불어 집중적으로 연구된 채색방법은 두껍고 질긴 장지 위에 얇은 채색을 여러 번 중첩하는 장지기법으로 발전되었고, 이는 재료의 새로운 개발과 적용이란 단계를 거치며 지본암채(紙本岩彩)로 바뀌기 시작했다.<sup>5</sup> 암채(岩彩)를 두껍게 도포한 특유의 질감과 효과는 오태학의 독자적인 회화세계라 할 수 있으며, 운보 김기창은 “화선지와 석채를 매재로 하여 토속적인 한국의 이미지를 반구상기법으로 화폭에 표출하는 산동의 회화예술은 이제 그만의 독자적인 것”이라고 언급하며 오태학만의 작품세계가 확립되었다고 평가했다.<sup>6</sup>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오태학은 강가에서 보낸 아름다운 유년기의 기억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제작했다. 〈풍어〉, 〈천렵〉, 〈목마〉 같이 소년들의 놀이가 익살스럽게 표현된 그림들은 작가의 추억이 녹아있는 집단 초상화다. 여기에 백제 지역 미술 문화 연구의 권위자인 홍사준(洪思俊, 1905~1980)과 함께 부여 지역 답사를 다니면서 보았던 부여의 고분벽화, 불상, 석탑 등에 영

4 송희경, 앞의 글, p. 32.

5 지본암채(紙本岩彩)란 색이 있는 암채분말 즉 돌가루로 채색하는 그림으로 화선지를 여러 겹 발라 장지와 같은 두꺼운 배지를 만든 후 원색의 암채분말로 도포하고, 날카로운 송곳 같은 기물로 예리한 선획을 구사해서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6 오광수, 『현실과 설화: 산동 오태학의 작품세계』, 앞의 도록, p. 130.

감을 얻어 〈천수(天壽)〉, 〈오동자〉처럼 우리의 설화나 신화를 연상시키는 환상적인 인물화를 다수 제작했다. 1990년대에도 오태학 그림에서 소년상은 여전히 중요한 소재였지만 소년을 표현한 외곽선이 강해진 점, 둥글둥글해진 형태, 뚜렷해진 이목구비의 묘사가 이전 시기와 대별되는 부분이다. 〈소와 아이들〉은 요철 장지를 토대로 강하고 거친 마티에르를 구현하여 투박하면서도 천진난만한 소와 아이들의 심성을 그대로 전달한 대작이다. 커다란 황소 위에는 벌거숭이 소년들이 올라탄 채 피리나 나팔을 불고 있으며 이는 어린 시절 오태학과 그의 친구들이 누렸던 즐거운 추억의 표상이다.

오태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작가이다. 1999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도 오랜 재활 과정을 거쳐 장애를 딛고 왼손으로 그림을 그렸다. 완숙기의 실험적 과감함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붓을 잡은 어색한 왼손으로 수없이 칠하고 또 칠했다. 최근에는 실험적인 새로운 작업 보다는 과거 자신이 했던 작업을 되돌아보며 삶을 관조하는 무심함이 보이는 작품들로 깊이 있는 만년기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sup>7</sup>

## 연보

- 1938년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외리 출생
- 1955~1958년 부여고등학교 졸업
- 1958~196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1960년 《제9회 국전》에 〈닭장〉으로 특선
- 1961년 《제10회 국전》에 〈군우(群牛)〉로 문교부장관상 수상
- 1962년 《제11회 국전》에 〈회(回)〉 특선
- 1963~1977년 제1회~15회 《신수회전》에 참가
- 1963~1964년 《현대작가전》에 초대 출품
- 1963~1974년 《국전》 추천작가로 위촉
- 1964~1967년 홍익대학교 출강
- 1965~1967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수료
- 1967~1969년 동덕여고 교사로 재직
- 1969~1978년 경희대학교,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 출강
- 1973년 《한국현대작가100인전》(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 출품
- 1975~1980년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역임
- 1976~1978년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 미술과 교수 역임
- 1977~1979년 《중앙미술대상전》에 초대 출품 및 심사위원 역임
- 1978~2003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학과 교수 역임

<sup>7</sup> 강민기, 앞의 글, p. 26.



- 1980년 《한국현대미술대전》에 출품
- 1981~1986년 《구상전》에 출품
- 1982년 《개인전》(미국 LA, 한국화랑) 개최
- 1986년 《개인전》(서울갤러리) 개최
- 1988~1990년 《현대한국화대전》(용인, 호암갤러리) 운영위원 역임
- 1991년 《중앙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1992~1993년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1994년 《표화랑 오태학 초대 개인전》(서울, 표화랑) 개최
- 1996년 《목시갤러리 초대 개인전》 개최
- 2003년 《개인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최
- 2005년 《예림을 걷다-시대와 함께, 작가와 함께》(서울올림픽미술관)에 참여
- 2013년 《운보 탄생 100주년 기념전》(서울, 인사아트센터)에 참여
- 2014년 《오태학전》(서울, 흰물결갤러리) 개최  
‘부여 100년을 빛낸 인물’에 선정
- 2015년 《백제의 후예 오늘의 부여미술 초대展》(부여문화원)에 참여
- 2018년 《오태학전》(이천시립월전미술관) 개최
- 2020년 《낮선 전쟁》(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21년 《2021 띠그림전: 소》(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참여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우희춘 (禹熙春, 1938~2020)

호는 석당(石堂). 1938년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에서 출생한 우희춘은 1966년 서라벌예술대학 동양미술학과를 졸업했다. 재학 시절, 서양화풍의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1962년 한국미술협회의 창단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화 창작활동에 전념했다. 이후 1962년 《제1회 신인예술상》에서 〈사군자〉로 입선했고, 연이어 《제11회 국전》에 〈매(梅)〉를 출품하여 입선했다. 1997년 《미술대전》 심사위원장과 국내 각종 미술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으로도 활동했다. 40여 년간 미술교육에 헌신하며 제자 양성에 반평생을 바친 우희춘을 위하여 1988년 제자들이 ‘창석회(創石會)’를 발족시켰다.



우희춘, 〈옹기문토기〉, 2007, 한지 수간채색, 66×66cm(출처: 『21한국화전』, 한국화회, 2007)

우희춘은 초기에 〈추정(秋情)〉(1962)이나 〈핑〉(1972)과 같은 문인화풍의 산수화나 화조화를 제작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당시 화단의 주류로 급부상했던 앵포르멜 계열의 비구상 작업을 시도해 국전에 출품하기도 했지만, 1975년에 개최한 《제3회 개인전》에서는 〈화조팔곡병풍(花鳥八曲屏風)〉, 〈매조(梅鳥)〉, 〈헌수도(獻壽圖)〉와 같은 문인화풍의 작품을 선보였다. 1980년대로 넘어서면서 비구상보다는 구상작업을, 수묵담채보다는 채색화 작업에 몰두하며 점차 자신만의 정교한 화풍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수묵담채에서 채색으로 이행한 우희춘은 폭넓은 소재와 장르를 아우르며 소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화면을 통해 발산시켰다.<sup>1</sup> 또한 마치 칼로 재단한 듯한 깔끔한 필선을 구사하여 군더더기 없이 단정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을 더해주었다.

우희춘의 채색화는 단순히 소재의 아름다움만을 주시하는 데 머물지 않았다. 말년에 시도한 《古》 연작은 토기와 같은 전통적인 소재를 현대적인 조형 개념 속으로 끌어드림으로써 새로운 시각적 체험을 가능케 했다. 《古》 연작은 토기나 청자, 백자, 분청 등의 도자기류를 중심소재로 하여 한국적인 미의 원형인 동시에 전통적인 생활 기물 속에 내포된 한국인의 정서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공공박물관 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전시된 국보나 보물급 미술품을 직접

1 신항섭, 「한국적인 미의 원형과 현대성 사이에서」, 『석당 우희춘』(아티스트, 2006), pp. 10~11.

관찰하고 선택하여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sup>2</sup> 이처럼 유희춘은 민족의 예술혼을 극사실화로 재현 해온 작가로, 한국화 화단의 채색화 분야에서 기초를 세운 화가로 평가받는다.

## 연보

- 1937년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읍 출생
- 1944년 강경 산양 국민학교 입학 / 충남 강경중학교 졸업 / 서울 동북고등학교 졸업
- 1957년 동국사상연구회 주최 《전국 서화미술 공모전》에서 〈불상(문수보살)〉으로 입선
- 1962년 《제1회 신인예술상》(경북국미술관)에서 〈사군자〉로 입선  
《제11회 국전》에서 〈매(梅)〉로 입선
- 1964~1966년 서라벌예술대학 동양미술학과 수학
- 1965년 《제1회 개인전》(충남, 강경) 개최
- 1970년 《제2회 개인전》(미국, EDDISOL ART GALLERY) 개최
- 1972년 《제3회 개인전》(서울미술회관) 개최 / 《동양화 5인전》(서울중앙공보관)에 참여
- 1973년 《창립회창립전》(국립공보관)에 참여
- 1975년 《제5회 개인전》(미국 L.A, 한인화랑) 개최
- 1977년 《한일 미술교류 작품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8년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특별상 수상
- 1979년 《한국의 자연전(실경산수화)》(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 출품
- 1984년 《한국 대표작가 100인전》에 초대 출품
- 1989년 KBS 특별 기획 TV미술관 《초대작가전》(신세계미술관)에 출품
- 1992년 《문인화 정신과 현대 회화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3년 《오늘의 한국 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5년 《제10회 개인전》(백악 미술관) 개최
- 1996년 《한발 회향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1997년 《제16회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98년 《안중근 의사 순국 86주기 기념 초대전》(일민미술관)에 참여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0년 《미의식의 표상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1년 《제1회 충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한국 국제 문화 미술대상전 심사위원 역임
- 2002년 《제21회 현대한국화협회전》(2002 월드컵 기념 서울 주변 풍경전)에 참여
- 2006년 《제11회 古稀 화집 발간 기념 개인전》(공평아트센터) 개최  
《한국 산하의 진경전》(공평아트센터)에 참여
- 2020년 작고

2 김두호, 「고미술의 예술혼을 현대회화로 일깨운 한국화가 유희춘」, 『인터뷰365』(2010. 3. 8).

## 이명희 (李明熙, 1938~ )

1938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출생한 이명희는 7세가 되던 해에 서양화가였던 부친 이동훈을 따라 대전으로 이주하여 유년시절을 보냈고, 이후, 1956년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했다. 1966년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 약 10여년을 대전에서 국민학교 교사로 지냈으며, 1964년에는 부친의 제자이자 사진가인 육명심과 혼인하였다.

1960년 《제9회 국전》에서 〈칠면조〉로 입선을 수상한 이명희는 스승이었던 조중현의 영향을 받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가적이고도 향토적인 경물을 배치한 화조를 소재로 삼아 향토적 감흥을 보여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후 1963년 《제12회 국전》까지 연속 4회 입선하였다. 1960년에는 부친 이동훈과 조중현 그리고 조중현 화실의 제자였던 권탁원 등과 함께 대전문화원에서 《미술동인전》을 개최하였다.

이후 1966년 배재고등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하게 된 남편 육명심을 따라 상경한 이명희는 서울 소재의 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지냈으며 이후 서울 대도국민학교 교감 재직 중인 1976년 『현대시학』에 기고한 「낮달」, 「묘지에 내리는 비」가 한성기 시인으로부터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하였다.<sup>1</sup>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여류문학인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예술적 감흥을 자아성찰의 순수한 의지를 담은 시(詩)를 쓰며 마음껏 풀어냈다.

시집으로는 『삼월』(1959), 『모든 것은 서쪽으로 기울고 있다』(1990) 등이 있으며, 1987년 서울시장 표창, 1992년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명희, 〈칠면조〉, 1960, 《제9회 국전》 입선작

1 이명희 작가 전화 인터뷰(2021. 9. 23).

## 연보

- 1938년 서울 서대문구 출생
- 1945년 7살 때부터 대전 거주
- 1956~1966년 대전사범학교 졸업  
대전 유성국민학교 재직  
대전 삼성국민학교 재직  
대전 원동국민학교 재직
- 1959년 『삼월』 발간(출판사 미상)<sup>2</sup>
- 1960년 《미술동인전》(대전문화원)에 참여  
《제9회 국전》에 〈칠면조〉로 입선
- 1961년 《제10회 국전》에 〈칠면조〉로 입선
- 1962년 《제11회 국전》에 〈秋日和〉로 입선
- 1963년 《제12회 국전》에 〈닭장〉로 입선
- 1964년 육명심과 결혼
- 1966년 서울로 이주하여 대도국민학교 교감 역임
- 1976년 『현대시학』에 기고한 「낮달」, 「묘지에 내리는 비」로 문단에 등단
- 1987년 서울시장 표창 수상
- 1990년 『모든 것은 서쪽으로 기울고 있다』(혜화당) 발간
- 1992년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

2 1959년 발간한 『삼월』의 출판사는 한국시집박물관에도 미상으로 밝혀져 있다.

## 이종상(李鍾祥, 1938~ )

호는 일랑(一浪). 1938년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출생했다.<sup>1</sup> 국민학생 시절, 태평양미술학교 출신의 조봉연에게 도화를 사사받으며 화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sup>2</sup> 대전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이철주, 유희영 등과 함께 미술부에서 교사 김철호의 지도를 받아 '루-블 미술동인'에서 활동하며 화가의 꿈을 키워나갔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로 입학한 이종상은 1960년 2학년 2학기, 동양화과로 전과를 하여 196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196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부임했으며, 서울대학교 12대 박물관장 및 초대 미술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3년 정년퇴임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상명대학교 석좌교수로 위촉되었다. 1979년 동국대학교에서 비교미학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1989년 동양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61년 대학교 재학시절 《제10회 국전》에서 〈장(匠)〉으로 특선을 차지하고, 제11~12회 《국전》에서 각각 내각수반상과 문교부장관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이후 《제1회 신인예술상》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1964년 26세의 젊은 나이에 국전 추천작가가 되었다. 1977년에는 오천원권 화폐에 율곡 영정을 그려 세계 최연소 화폐작가가 되었고, 2009년 오만원권의 화폐에 신사임당 영정을 제작하며 최연소이자 최초의 모자(母子) 영정화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종상의 초기작인 1960년대 전반 작품은 국전 양식을 따르는 구상적인 인물화에 속한다. 〈장(匠)〉, 〈작업〉, 〈장비〉의 특색은 전통적인 동양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노동과 일상의 현장을 택했다는 점이다. 특히 〈작업〉은 관람자의 시선을 압도하는 거대한 크기의 캔버스에 소 편자를 바꾸는 젊은이들의 활력 넘치는 모습을 과감한 구도와 실험적인 선염법을 통해 묘사함으로써 밀도 높은 리얼리즘(Realism)을 구현했다.<sup>3</sup>



이종상, 〈장비〉, 1963, 종이에 수묵담채, 290×205cm, 국립현대미술관

1 김형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동양화 이종상』(한국미술아카이브, 2015), p. 130.

2 김형숙, 위의 글, p. 15.

3 국전에 출품되었던 이종상의 작품들은 국전 역사상 가장 최대 크기였다. 그러나 당시 경북궁미술관의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입선작을 제한할 수



이종상, 〈취상1〉, 1987, 종이에 수묵, 117×117cm, 서울 시립미술관

그러나 이종상의 작업이 이처럼 사회, 정치적인 참여 의식의 표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는 대학 시절 초반부터 지속해온 고대벽화에 대한 이론적·기법적 연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작업과 정부에서 추진한 민족기록화 사업 참여 및 표준영정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작업 방식을 보여주었다.<sup>4</sup>

1970년대 중반을 전후로 이종상은 검재의 진경산수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진경'을 주제로 한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특히 1977년 동산방화랑에서 개최한 《이종상 진경전》에 독도를 주제로 그린 〈독도유흥〉, 〈독도귀어〉, 〈氣-독도〉를 출품

하여 《독도》 연작의 시작을 알렸다. 초기에는 수묵과 채색이 어우러진 활달하면서도 간결한 필치로 독도의 전경을 드러냈으며 후반에는 〈취상1〉(1987)과 같이 최소한의 획과 발묵으로 안개가 내려앉은 듯한 어스름한 독도의 풍경을 묘사했다.<sup>5</sup>

이종상은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 미술의 '자생성'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화란 늘 살아 숨 쉬며 동시에 다른 이질 문화와 만나 충돌과 접변을 일으키는 유기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1980년대 후반 《원형상》 연작을 제작하여 우리 미술의 '자생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작품에 구현했다.

《원형상》 연작은 마치 이 땅의 산하를 단순하게 표현한 고지도처럼 기호적, 상징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적, 청, 황, 흑, 백 등 오방색을 기조로 다양한 기법과 재료적 실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원형상》 연작이다. 삼각형 혹은 지그재그 형태의 선묘로 상징화된, 산과 길을 암시하는 점선, 가늘고 긴 필선으로 표현된 내(川)등이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재료는 양지에 수묵, 장지에 수묵, 순지에 수묵, 순지에 수묵 천연색, 동판에 유약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으며 약 20여 년이란 기간에 걸쳐 시도되었다.

이렇듯 이종상은 문화인으로서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섰다. 고구려 벽화 연구를 하며 문화영토론을 주창하였고, 1977년 처음 독도 땅을 밟은 이래 지금까지 30여 차례 독도를 드나들며 독도 지킴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03년에는 은관문화훈장을 수상하였고, 4·19혁명 당시 민주화에 앞장선 공로로 2010년 건국포장을 받았다.

밖에 없었고, 작품의 크기가 컸던 이종상의 작품은 의도치 않게 입선작의 수를 줄여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이종상의 작품으로 인해 1963년부터 국전작품의 규격제한이 생기게 되었다. 김형숙, 위의 글, pp. 46~47.

4 이민수, 「1980년대 송수남의 한국화, 전통과 현실 사이의 표상」, 『미술사논단』(한국미술연구소, 2015. 6), p. 115.

5 이민수, 위의 글, p. 116.

## 연보

- 1938년 충청남도 예산군 발연리 출생
- 1945년 충남 서산군 공립유치원 졸업
- 1956년 대전보문중학교 졸업
- 1959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60년 《재경충남출신 화가전》(충남예총)에 참여
- 1961년 《제10회 국전》에 〈장(匠)〉으로 특선  
《제1회 신인예술상》 최고상(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회의 의장상) 수상  
《제11회 국전》에 〈작업(作業)〉으로 무감사 특선(내각수반상) 수상  
《제1회 Saigon 국제미술전람회》(베트남, Saigon Museum)에 초대 출품
- 196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동양화) 졸업  
《제12회 국전》 무감사 특선(문교부장관상 수상)  
《제1회 도쿄국제미술전》(일본 도쿄, 우에노미술관(上野の森美術館)에 초대 출품
- 1964~1980년 《국전》(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 출품
- 1965~1998년 국전 추천작가 · 초대작가 · 심사위원 역임
- 1966~200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역임
- 1969년 《한국미술대상전》(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 출품
- 1977년 《이종상 진경전》(서울, 동산방화랑) 개최
- 1978년 《제1회 중앙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초대 출품, 심사위원 역임
- 1978~2004년 한국벽화연구소장 역임
- 1979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비교미학) 석사 졸업
- 1980년 《제1회 한국현대미술대전 중진작가 150인전》(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 출품
- 1981년 《한국현대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 출품 운영위원 역임
- 1982~2004년 사단법인 한국돈황학회 창립회원 및 정회원
- 1983년 《한국현대미술전》(이탈리아 밀라노, Viscontia Hall)에 초대 출품
- 1984~1998년 《'84~'98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초대 출품 및 운영위원(장) 역임
- 1985년 《광복 40주년기념 현대미술 4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 출품
- 1988년 올림픽기념 《제24회 국제현대회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 출품
- 1989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 박사 졸업(동양철학 전공)  
《1989 현대한국회화전》(서울, 호암미술관) 초대 출품 및 운영위원 역임
- 1990년 《1945~1990 판문점과 브란덴부르크전》(서울, 시공화랑)에 초대 출품
- 1990~1992년 《서울국제미술제》(SAFEC) 부이사장 역임
- 1991년 《이종상 원형상전》(서울, 가나화랑) 개최
-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현대회화 특별전 - The Tiger's Tail》(이탈리아 베니스, Mudima미술관)에 초대 출품



- 1996년 《96 서울 베세토 국제서화전》(서울시립미술관)에 초대 출품
- 1996~1998년 제2회 광주 비엔날레 조직 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1997년 프랑스 문부성 초청, 《설치벽화 개인전》(프랑스, 루브르박물관) 개최
- 1998년 《대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초대 출품
- 1998~2000년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위원장 역임
- 1999년 《100년의 경계-오늘의 대전미술》(대전시립미술관)에 초대 출품  
《한국화 어제와 오늘전》(용인, 한국미술관) 개최
- 2001년 《수목의 향기 수목의 조형-한·중·일 현대수목화》(국립현대미술관)에 초대 출품  
《역사와 의식-독도》(서울대학교박물관) 현대미술특별전 전시기획 및 초대 출품
- 2003년 《제1회 북경 Biennale》(중국, 북경박물관)에 초대 출품  
은관문화훈장 수상
- 2003~200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명예교수  
서울대학교미술관 자문위원 역임
- 2004년 《예술원회원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4~2005년 올림픽미술관 상임고문(국민체육공단) 역임
- 2004~2006년 상명대학교 석좌교수 역임
- 2004~2008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선임
- 2007년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종상》(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2010년 대한민국 미술인상 수상
- 2012년 안전기념사업회 주최 《제1회 꿈 몽유도원전》(서울, 자하미술관)에 참여
- 2017년 《포스트모던 리얼》(서울대학교 미술관)에 참여  
순교자미술관(충남 당진군)에 작품(그림 13점과 다섯 성인의 영정) 기증
- 2018년 《책 속의 화가》(성북구립미술관)에 참여
- 2021년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이종환(李鍾煥, 1938~ )

이종환은 **대전 출생**으로 대전사범학교를 나왔다. 1972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982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 입학해 1984년 「개념과괴를 통한 아동화의 창의적 표현」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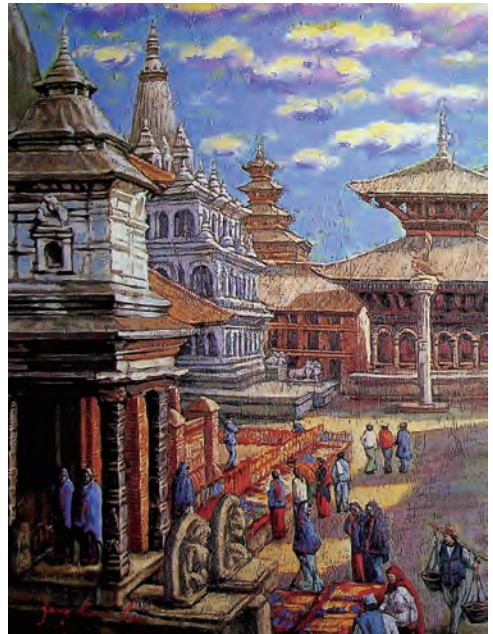
1979년 덕수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후, 《앙데팡당전》(1977), 《대한미술원 회원전》(1981~1984), 《회화제》, 《신기회 회원전》, 《한국 중견작가 New York 초대전》, 《상미술회 회원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996년 외국여행의 기록을 담은 유화들로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4년에는 60대 이후 제작한 풍경화로 《이종환 유화전》을 가졌다.

홍익 M.A.E.회 초대회장, 서울아카데미 운영위원, 한국미술협회 기획위원, 신기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5년부터 이동훈의 제자들이 모여 만든 '상미술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민국 회화제 고문, 한국미협 상임고문, 이동훈미술상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등 충남지역을 비롯한 한국의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했다. 그리고 미술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1963년 내각수반상, 1994년 교육부장관상, 1998년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1986년 《한국미술문화대상전》에서 2018년 한국 교육 문화상 '미술대상', 2019 대한민국 미술인상 원로 작가상 등 수상경력이 상당하다.

이종환은 자연 풍광을 사실적인 풍경화로 담아내는 화가로, 자연에 대한 겸허한 자세와 관조의 미학을 부드러운 터치로 드러낸다.<sup>1</sup> 1992년 개인전까지는 주로 한국의 명산을 두루 다니며



이종환, 〈석양의 농촌〉, 1970, 캔버스에 유채, 60.6×72.7cm(출처: 『한발미술의 여정 II 이동훈과 대전화단』, 대전시립미술관, 2003)



이종환, 〈네팔의 사원〉, 2001, 캔버스에 유채, 90.9×72.7cm(출처: 『李鍾煥 油畫展』, 서울갤러리, 2004)

<sup>1</sup> 신항섭, 「李鍾煥 作品展에」, 『이종환 작품전』(서울갤러리, 1996).

사계절의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았으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1990년대 들어 해외 곳곳을 여행하며 이국의 낯선 풍경과 각국의 생활상을 화면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유럽 여러 나라를 비롯해 중국·태국·네팔·미국·캐나다·호주 등지를 여행하며 사색한 각국의 풍광과 풍물들을 작품에 담아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사색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미적 감흥과 인상을 중요시했던 1990년대 작품들은 대체로 정밀한 묘사를 지양하고 순간적인 미적 감흥을 표출시켰고, 그로 인해 필치가 매우 활달한 것이 특징이었다.<sup>2</sup> 2000년대 이후에는 풍경 속에 인물과 건축물을 등장시키고, 화면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에 치중하면서 치밀한 세부묘사와 사실성 돋보이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 연보

- 1938년            대전 출생  
                      대전사범학교 졸업
- 1977년            《개인전》(부여문화원) 개최
- 1976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졸업
- 1977년            《앙데팡당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9년            《개인전》(서울, 덕수미술관) 개최
- 1981~1984년    《대한미술원 회원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1984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졸업
- 1984~1990년    《한국사실회 회원전》에 참여
- 1985년            홍익 M.A.E.회 초대회장 역임
- 1986년            《미국SF국제미술초대전》(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에 참여  
                      한국미술문화대상전 KBS 사장상(추천작가상) 수상
- 1987년            《동경아시아현대미술제》(일본 도쿄)에 참여
- 1987~1997년    《신기회전》(서울, 서울갤러리) 연속 출품
- 1988년            《개인전》(서울, 서울갤러리) 개최
- 1989년            《이동훈 화백 추모 초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91년            《한국미술문화대상전》KBS 사장상(초대작가상) 수상
- 1992년            《개인전》(서울, 롯데미술관) 개최  
                      《아름다운 서울전》(서울, 예총회관)에 참여
- 1993년            《중국 천산산맥 답사 기행전》(서울, 이콘갤러리)에 참여  
                      《한국의 명산전》(서울, 롯데미술관)에 참여  
                      유럽스케치 여행
- 1994년            《한국중견작가 뉴욕 초대전》(미국 뉴욕, 뉴요커호텔 / 한미문화원)에 참여

2 신항섭, 「사실주의 기법에 대한 새로운 발견」, 『李鐘煥 油畫展』(서울갤러리, 2004).

- 교육부장관상 수상
- 1995년 《히말라야 풍물전 참가》(서울, 서울갤러리)에 참여  
미국, 캐나다 일대 스케치 여행
  - 1996년 《개인전》(서울, 서울갤러리) 개최
  - 1997년 《한국의 뿌리전》(서울, 대한갤러리)에 참여
  - 1998년 국민훈장 동백장 대통령 표창 수상
  - 1999년 《2002년 월드컵유치 특별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한국유명화가 150인 특별전》(서울, 롯데백화점)에 참여
  -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II-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한국회화 특별 초대전》(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 참여
  - 2004년 《개인전》(서울, 서울갤러리) 개최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06년 고양시 원로 작가 및 감사
  - 2010년 《대한민국 원로작가 초대전》(고양, 킨텍스)에 참여
  - 2015년 상미술회 회장  
이동훈미술상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역임
  - 2016년 대한민국회화제 고문 역임
  - 2018년 한국교육문화상 '미술대상' 수상  
《한국전업미술가협회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18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고문  
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역임
  - 2019년 대한민국미술인상 '원로 작가상' 수상
  - 2020년~현재 《미술대전》 조직위원  
코리아 아트 페스타 고문

## 이청자(李清子, 1938~ )



이청자, 〈승무〉, 1987, 캔버스에 유채, 116.8×91cm(출처: 『이청자유회전』, 동덕미술관, 1987)

이청자는 1938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사범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에서 교직 생활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다가 66세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 진학해 판화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교직경력으로는 서울의 연철국민학교, 동교국민학교, 신길국민학교 교장 등을 역임했으며, 1974년에는 미술교육 공로로 문교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1995년 국제문화상과 1998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1980년 《제2회 한국미술문화대전》에서 특선을 차지했으며, 그해의 《목우회전》에서 입선한 후 21회~25회까지 여러 번 입선했다. 개인전은 1987년 동덕미술관에서의 첫 전시 후, 조선화랑(1988), 현대화랑(1991),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판화 개인전, 2004) 등에서 40여 회 이상 개최했다. 개인전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전에 참여한 이청자는 이동훈의 제자로서 1989년 《이동훈화백 5주기 추모전》에 출품했고,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 II-이동훈과 대전화단》 전시에 참여하며 충남지역 화단에 작품을 선보였다.<sup>1</sup>

1987년 첫 개인전에서 이청자는 100호가 넘는 크기의 대작을 상당수 발표했고 주로 풍경과 정물을 소재로 한 작품을 제작했다. 이 전시의 출품작 중에서 〈승무〉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춤》 시리즈와 연결이 된다. 1993년 개인전에서는 꽃과 풍경을 아우른 화폭들을 선보였고, 2004년에는 자유로운 선과 색채로 구성주의 시각을 담은 판화작품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주로 인물 중심으로 작업의 변화를 도모해 춤의 역동적인 동작을 화폭에 담고 있다. ‘춤’은 우주적 생명력의 정수를 드러낼 수 있는 맞춤 소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2년 개인전에서는 전통춤을 형상화한 작품을 많이 선보였다.<sup>2</sup> 《throb》이라고 불리는 시리즈에는 오방색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전통복식을 입은 무용수들과 화면에 함께 배치해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준다. 이처럼 이청자는 집중적으로 몇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도 다양한 화풍의 변화를 시도했다. 2019년(81

1 『한발미술의 여정 II 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 2003).

2 조성기, 「『춤』의 역동성, 또 다른 생명력을 길어 올리다」, 『피플 투데이』(2012. 9. 24).

세)에는 서울 조선일보미술관에서 화업을 정리한 회고전을 개최해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50여 점을 전시한 바 있다.<sup>3</sup>

## 연보

- 1938년 대전 출생
- 1957~1963년 《충남미술협회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0~1988년 제17회, 제21~25회 목우회 공모전 입선
- 1984년 《제2회 백제미술대전》 입선
- 1985~1987년 《미술대전》 입선
- 1986년 《서울미술제》 서울미술상 수상 / 한·미 미술협회주최 국제전 금상 수상  
《'86 대만 아시아 미술대전》 특상 수상
- 1987년 첫 개인전 《이청자 유화전》(서울, 동덕미술관) 개최
- 1988년 《초대 개인전》(서울, 조선일보화랑 / 서림화랑) 개최  
5주기 기념 《이동훈화백 추모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9~2003년 《상형전》(서울 갤러리) /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0~1995년 《회화제》(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1년 《백두산실경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개인전》(서울, 현대화랑) 개최
- 1992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3년 《개인전》(서울, 진아트센터) 개최
- 1994년 《서울 국제 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5년 국제문화상 수상 / 《Korea Peace Art Fair》(일본 도쿄)에 참가
- 1997년 《구상미술단체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7~2003년 《국제창조회전》(일본 교토, 국제교류회관)에 참여
- 1998년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 1999년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99~2003년 《이원전》(일본 도쿄, 도쿄도미술관)에 참여
- 200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관화과 입학
- 2005년 《개인전》(서울, 선화랑) 개최 / 《한국 현대관화전》(스웨덴 스톡홀름, 인플란미술관)에 참여
- 2007년 《개인전》(미국 뉴욕, 훈갤러리) 개최
- 2008년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개최
- 2009년 《한국미술 대표작가 100인의 오늘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2014년 《개인전》(미국 뉴욕, 플러싱 GLF뉴욕센터) 개최
- 2019년 《이청자회고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최

3 「22일부터 서양화가 이청자 회고전, 『조선일보』(2019. 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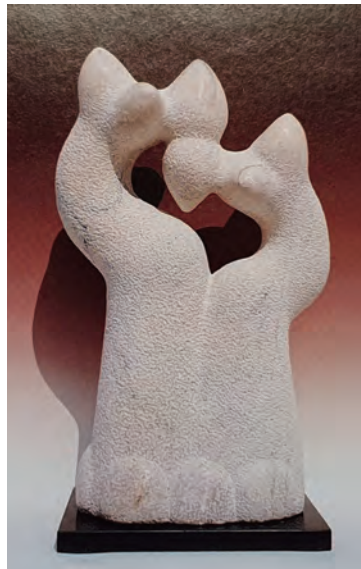
# 최국병 (崔國炳, 1938~ )

1938년 서울에서 출생한 최국병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였다. 1978년부터 연속으로 3년간 《국전》에 특선과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여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충청남도와의 인연은 1981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교수로 부임**하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제작한 《의지(意志)》 연작에서 볼 수 있듯이 조각에서 선호하는 재료인 청동이 아닌 스테인리스강을 작품에 활용하였다. 매끈하고 차가운 성질의 금속성을 강조하면서 중량감을 더해 건축구조물을 연상시키는 구축적인 개념의 조각을 주로 제작하였다. 또한 흙으로 빚어



최국병, 〈意志(아침의 나라 79)〉, 1979, 스테인리스강, 55×40×220cm, 작가 소장(출처: 『최국병조각 초대전』, 동서화랑, 1985)



최국병, 〈의지(意志)(꿈나무 II)〉, 1990, 대리석, 70×41×22cm(출처: 『최국병 조각전』, 동숭아트센터, 1990)

구운 테라코타 작품에서는 모자·가족 등을 소재로 따뜻한 인간미를 담고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앞서 차가운 금속제의 구조물로 제작했던 《의지》 연작을 재해석하여 자연과 인간의 재구성을 통해 삶에 대한 의지와 인간애를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의지(意志)〉, 〈꿈나무 II〉(1990)은 새로운 재료인 돌을 활용해 부드러운 곡선미를 강조하여 인간의 본질과 의미를 담으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 연보

- 1938년 서울 출생
- 1957년 서울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 196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1969년 《문화공보부 초대전》(서울, 중앙공보관)에 참가
- 1975년 《미술단체 대표작가 초대전》(서울, 현대화랑)에 출품

- 1976년 《5.8전》(서울, 미술회관)에 참가
- 1978년 《제27회 국전》에서 특선 수상
- 1979년 《제28회 국전》에서 <의지(意志)>로 문공부장관상 수상
- 1980년 《제29회 국전》에서 특선 수상
- 1981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문화공보부 초대기념전》(서울, 중앙공보관)에 참여  
《춘천MBC 현대미술초대전》(춘천 MBC 사옥)에 참여  
《한국미술 81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82~92년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2년 《서울조각회 파리전》(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 참가
- 1983년 《국전출신 작가전》(서울, 미술회관)에 참가  
《한국조각 10인 초대전》(스페인 바로셀로나)에 참가
- 1985년 《제1회 개인전》(서울, 하나로 미술관) 개최  
《초대 개인전》(서울, 동서화랑) 개최
- 1986년 《개국기념 초대전》(대전 MBC 전시실)에 참가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87년 《개관 기념전》(서울, 연희조형관)에 참가  
《한·중 예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88년 《한국 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9년 《한국 현대미술 80년대의 정황》(서울, 동숭아트센터)에 참가
- 1990년 《초대 개인전》(서울, 동숭아트센터) 개최  
《한국미술-오늘의 상황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가
- 1992~1994년 《서울 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가
- 1992년 《한국현대미술 80년대의 정황》(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4년 《서울 국제 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98년 《대전, 공간 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예술의전당 개관기념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제16회 58동문전》(서울, 조형갤러리)에 참가
- 2001년 《최국병 조각전》(서울, 본화랑) 개최
- 2002년 《제3회 개인전》(서울, 본화랑) 개최
- 2003년 한남대학교 정년퇴임  
대한민국 홍조근정훈장 수상



## 하태진 (河泰晋, 1938~ )



하태진, <나무구성>, 1964, 종이에 수묵담채, 32×32cm  
(출처: 『하태진의 예술세계, 심수상응(心手相應)』,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7)

호는 석운(石暈). 1938년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2학년 때 대전으로 이사해 중·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보냈다. 한국전쟁 중에 아버지를 여의는 불행을 겪었지만 어머니와 조부모의 각별한 보살핌으로 그림에 매진할 수 있었다. 이후 고향인 금산을 떠나 195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에 입학하여 당시 미술대학 교수였던 천경자, 김기창, 이상범의 지도를 받았다.<sup>1</sup>

1963년 《제12회 국전》에서 <청계천>으로 입선하였으며, 같은 해 《제1회 백양회 공모전》에 특선을 수상했다. 1965년부터 1974년까지 한영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했으며, 197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강사를 거쳐 1980년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교수로 부임했다. 1986년에는 대만의 원묵회(元墨會)와 《수묵연립전(水墨聯立展)》을 열며 교류했다. 2003년 홍익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하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하태진의 대학시절은 전후 추상미술이 전개되었고 ‘열병’ 같았다고도 하는 앵포르멜 시대로 들어선 때였다. 이상범, 김기창의 수업을 수강하던 시기였지만 하태진은 《야경》 연작이나 《청계천》 연작, <무제>와 같은 추상화 작업을 시도하며 대학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평휘, 김동수, 오태학, 이용휘, 최재종과 함께 결성한 ‘신수회(新樹會)’는 현대적이고 새로운 감각의 동양화를 추구하던 이 시기 하태진의 작화방식을 대표한다. 《제1회 신수회전》을 관람한 이구열은 하태진의 작품에 대해 “기술적으로 화선지를 적시며 묵색을 자연적인 효과에 맡긴다. 그리고 복잡한 이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노력한다”고 평했다.<sup>2</sup>

1965년 신수회를 탈퇴한 하태진은 국전과 그룹전 그리고 1970년대 성행한 여러 공모전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한영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 19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추상화 작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현실적 수묵산수화에서 실험적 기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1964년 제작한 <나무구

1 강민기, 「묵향을 머금은 자연이 백리를 굽이 돌아: 석운 하태진의 작품세계」, 『하태진의 예술세계, 심수상응(心手相應)』(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7), p. 12.

2 이구열, 「젊은 세대의 동양화가들 청토회와 신수회화전」, 『경향신문』(1970. 10. 15).

성)이 자연적 표현보다 먹의 변화에 집중한 작품이다. 1967년 제작한 <추경>은 앞으로 이어질 실경산수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하태진은 이 작품에 ‘침출법(浸出法)’을 사용하여 수묵화가 가질 수 있는 단조로움 속에서 시선을 머물게 하는 재미를 주었다. 진한 발묵으로 처리된 산은 하나의 큰 덩어리처럼 자리하고 있고



하태진, <비금도(飛禽島)>, 2002, 종이에 수묵담채, 70×137cm(출처: 『하태진의 예술세계, 심수상응(心手相應)』,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7)

사이사이에 위치한 계곡, 바위, 나무 등이 화선지를 비집고 나오는 듯한 느낌을 자아냈다.<sup>3</sup>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하태진의 작품은 오랫동안 실험해 왔던 발묵법은 거의 사라지고 사생적 필선과 현실 경치가 주를 이루는 실경산수화로 점차 변모했다. 또한 <산>, <산사>, <산과 달> 같은 불특정한 제목은 덕소, 한계령, 북한산, 삼각산, 소금강, 정선, 속초 같은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지명들이 작품 제목으로 등장했다. 이처럼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 전반기까지 하태진은 철저한 사생을 통해 현실경치를 정직하게 표현했다. 대개 부드러운 산세보다는 날카로운 바위가 우뚝 솟은 다이내믹한 산세를 그렸다. 1980년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교수가 되면서 화단에서 입지가 더욱 공고해진 하태진은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호방한 수묵산수화풍을 만들었다.

1980년대 중엽부터 2000년대까지 하태진은 발묵과 파묵으로 실경을 융합시키며 마치 20대에 시도했던 수묵의 기법적 모색기로 돌아간 듯 다양한 필묵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84년경부터 1988년까지 실경보다는 농묵의 번짐 효과를 통해 수묵화로서의 맛을 살린 그림들을 제작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그린 <정> 시리즈는 하태진의 작품세계에서는 매우 독특한 소재, 기법, 구도를 보여준다. 세로로 긴 화면은 길이가 200cm가 훨씬 넘는 것이 있으며 바위와 물, 흑과 백의 대비가 확연히 드러난다.<sup>4</sup>

2010년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산> 연작은 그의 창작 열정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 등성이에 보이는 파묵과 발묵의 응축된 덩어리는 농익은 붓질로 찍고 휘두르고 멈추고 다시 돌아나가는 수묵의 필획을 만나 긴장감 넘치는 유기체를 만들어냈다. 하태진은 거의 전 생애에 걸쳐 산수화를 일관되게 그려왔으며, 이 과정에 그는 ‘동양화의 현대화’를 위해 자신만의 ‘침출법(浸出法)’이란 독자적인 기법을 만들어내는 결실을 이루었다. “언제나 미완성이고, 해도 해도 끝이 없는 매력 있는 수묵의 세계를 탐구하고 오늘도 승화된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하는 하태진은 작품의 완성이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임을 말하고 있다.<sup>5</sup>

3 강민기, 앞의 책, p. 17.

4 강민기, 앞의 책, pp. 22~24 참고.

## 연보

- 1938년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읍내리 출생
- 1958년 대전 보문고등학교 졸업
- 1958~196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1963년 《제12회 국전》에 〈청계천〉 입선 / 《제1회 백양회 공모전》(서울, 미술회관)에서 특선
- 1963~1965년 제1회~3회 《신수회전》(서울, 국립도서관 화랑)에 참여
- 1965년 《제1회 하태진-강재순부부전》(서울, 중앙공보관) 개최
- 1965~1974년 한영중 ·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67년 《제2회 하태진-강재순부부전》(서울, 중앙공보관) 개최
- 1971년 《하태진 미술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회화 오늘의 한국전: 30개의 얼굴들》(서울, 명동화랑) 개최
- 197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출강
- 1980~2003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역임
- 1981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미술교육) 석사 졸업
- 1985년 《'85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광복 40주년-현대미술 40년전 초대》(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6년 《홍익대학교-오사카대학교 교수 작품전》(일본, 오사카시립미술관)에 참여
- 1988년 《원목화회-신목회 수목연립전》(대만, 국립역사박물관)에 참여
- 1994년 《'94 서울 미술대전 초대》(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서울정도 600년기념 서울미술대전 초대》(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9년 서울시립미술관 이전 추진위원 / 대전시청사 미술장식품 심사위원 역임
- 2000년 《움직이는 미술관 초대》(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01년 《중국 스케치전: 계림, 황산, 장가계를 찾아서》(서울, 남산도서관 갤러리)에 출품
- 2002년 《충남도립미술전》(충남, 천안) 심사위원 역임
- 2003년 옥조근정훈장 수상 / 《하태진화백 퇴임기념전》(공평아트센터)에 출품
- 2009년 겸재 정선 미술대전(서울, 겸재미술관) 심사위원 역임
- 2010년 《수목 · 사유의 경계》(강릉시립미술관)에 출품
- 2011년 《수목, 새롭게 노닐다》(서울, 한전아트센터)에 출품
- 2014년 《신목 · 원목회 교류전》(대만중정기념관)에 출품
- 2016년 《한국근대산수화》(전주, 전북도립미술관)에 출품  
《백두산을 그리다-한국현대백두산도》(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출품
- 2017년 《심수상응-석운하태진의 예술세계》(이천시립월전미술관) 개최  
《먹의 멋과 맛: 현대 수목화 다시보기전》(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출품
- 2019년 소장품 특별전 《사유, 여정을 담다》(서울, 한원미술관)에 참여

5 하태진, 「수목화의 멋과 철학」, 『河泰晋』(明立美術, 2010), pp. 122~125.

## 황규태 (黃圭泰, 1938~ )

1938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난 황규태는 1963년 동국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재학시절 신인사진단체인 '현대사진연구회' 발족에 참여하여 《제2회 현대사진연구회》에 〈길〉, 〈숲속의 아침〉 등 7점을 출품하였고, 1963년 《제2회 신인예술상》 사진 부문에서 〈길〉이라는 작품으로 수석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미국의 사진 잡지인 『US Camera』가 개최한 국제사진

대회 《US 카메라 콘테스트》에서 〈숲속의 아침〉으로 4위를 차지했다. 이후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경향신문사 사진기자로 활동했으며 1965년 2월 사진을 공부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sup>1</sup>

미국으로 이주한 황규태는 컬러 사진현상소에서 암실 기사로 일하며 새로운 사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흑백사진을 예술사진으로 여겼던 한국 사진계와 달리 컬러사진이 예술사진의 표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국에서 직면한 상이한 환경은 낯설게만 느껴졌다. 또한 이러한 양식과 더불어 몽타주를 비롯한 다양한 표현기법이 함께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황규태는 국가를 뛰어넘는 공동의 예술 감각을 모색하기 시작했다.<sup>2</sup>

이 같은 고민의 결과, 황규태는 흑백사진에서 컬러사진으로 이동하며, 리얼리즘 사진이 선호하던 외부 세계의 다양한 양상보다는 자신의 내부 세계를, 현실보다는 초현실을, 객관적 세계보다는 주관적 세계를 더욱 탐구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 시기 제작한 〈차 안에 있는 부영이〉는 차에 대한 황규태의 주관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운전하는 도중 내 차를 지나치는 많은 차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고 밝히며 거대한 올빼미가 차를 몰고 가는 것으로 자신이 느낀 감정을 공포의 이미지로 표현했다. 몽타주, 이중노출, 다중노출, 필름 태우기, 확대, 왜곡 등과 같은 실험 기법을 적극 도입하며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컬러 사진 작업에 매진했다.<sup>3</sup>



황규태, 〈만병통치〉, 2001, 《황규태 Contemporary Photography》(아트선재센터) 전시 전경, 작가 제공

1 박상우, 「황규태의 1960~70년대 초기 사진 연구」, 『월간사진』(2021. 8), p. 34.

2 「해외에 사는 한국인(73), 로스앤젤리스의 사진작가 황규태씨(2)」, 『경향신문』(1976. 11. 3).

3 박상우, 앞의 글, p. 38.



황규태, 〈픽셀〉, 2001, 200×120cm(7), 칼라 사진, 국립현대미술관

1973년 고국을 떠난 지 8년 만에 귀국한 황규태는 신문회관 화랑에서 《제1회 황규태 칼라 사진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회에는 미국에서 작업한 다양한 컬러 실험 사진 56점과 창조 출품된 9점의 작품 등 총 65점이 전시되었다.<sup>4</sup> 사진가 이명동은 동아일보에 「황규태 사진전을 보고」라는 글을 게재하여 “사진예술의 색다른 측면을 보여준 뜻 있는 전시”라고 평가했다.<sup>5</sup>

이후 1990년대부터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본격화하여 스캐너와 포토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합성과 편집,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주의 문화를 비판하거나 풍자했다. 《복제》 연작은 생명 공학의 발달로 인위적 조립과 복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인체와 생명을 주제로 한다. 디지털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강렬한 화면을 구성하는 이 연작은 인간의 욕망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암울한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또한 같은 시기 우리가 소비하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픽셀로 이루어져 있음에 착안하여 픽셀 자체를 주제로 한 《픽셀》 연작을 발표했다. 〈만병통치〉(2000)는 픽셀을 사진의 전면면에 드러냈던 1990년대 《픽셀》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대상을 초근접 촬영하여 실제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큰 사이즈의 픽셀을 재조합하는 《픽셀》 연작처럼, 〈만병통치〉에 등장하는 작은 알약도 극단적으로 확대되었다. 인체 크기와 흡사한 160cm 높이의 거대한 알약은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감각적인 색채와 구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각예술작품으로 변환되었다. 이처럼 황규태는 대상의 본질 자체를 치환하고 의미를 변형시키는 작품을 선보이면서 실존하는 대

4 당시 동아일보에는 “황규태는 대부분의 작품형성과정에서 고도의 테크닉을 시도하여 아름답고 현란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자유로운 몽타주와 실험적인 트릭이 사진의 또 다른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실렸다. 「재미교포 황규태씨 칼라사진전」, 『동아일보』(1973. 1. 17).

5 이명동, 「황규태 사진전을 보고」, 『동아일보』(1973. 1. 23).

상을 상대로 하는 사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했다.

언제나 실험 사진의 최전방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온 황규태는 2021년 NFT(Non-Fungible Token)를 이용한 NFT ART 《PIXEL PIXIE》 개최했다. 이는 익숙한 갤러리나 미술관이 아닌 메타버스(가상공간)를 이용한 전시로 20년 넘게 탐구한 픽셀 사진이 전시되었다. 이를 통해 태생 자체가 디지털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픽셀 사진은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계의 근원에 대한 미학적 탐구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연 보

- 1938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61년 현대사진연구회 발족에 참여
- 1962년 《제1회 신인예술상》(서울, 중앙공보관)에 입선
- 1963년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1963~1965년 경향신문사 사진기자로 활동
- 1963년 《제2회 신인예술상》(서울, 중앙공보관)에 〈길〉로 수석상 수상  
《제2회 현대사진연구회전》(서울, 중앙공보관)에 〈길〉, 〈숲속의 아침〉 등 출품
- 1964년 《현대사진연구회전》(서울, 중앙공보관)에 출품
- 1970년 《로스엔젤레스 사진가 협회전》(미국, 자연사박물관)에 출품
- 1973년 《제1회 황규태 칼라 사진전》(서울, 신문회관) 개최
- 1974년 《개인전》(일본 도쿄, Pentax 갤러리) 개최
- 1975년 《개인전》(미국 로스엔젤레스, Shinno 갤러리) 개최
- 1984~1992년 미주동아일보 대표 역임
- 1992년 《Nikon Salon 개인전》(일본) 개최
- 1993년 《한국 현대 사진, 관점과 중재》(서울, 한가람미술관)에 참여
- 1994년 《신소장품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한국 현대 사진의 흐름 1945~1995》(서울, 한가람미술관)에 참여
- 1995년 《한국 미술 95 질, 양, 감》(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사진 오늘의 위상》(경주, 선재미술관)에 참여
- 1997년 《우리문화유산》(서울, 성곡미술관)에 참여  
《삶의 경계》(광주비엔날레)에 참여  
《사진의 본질, 사진의 확장》(서울, 위커힐미술관)에 참여
- 1998년 《황규태 Photography》(서울, 금호미술관) 개최  
《한국사진백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9년 《서울사진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0년 《새천년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0년 《사진의 거짓, 혹은 참》(서울, 서남미술관)에 참여  
《복제 Reproduction》(서울, 성곡미술관) 개최
- 2001년 《황규태 Contemporary Photography》(서울, 아트선재센터) 개최  
《사진페스티벌》(서울, 가나아트센터)에 참여
- 2002년 《한국의 색》(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3년 《I, YOU, US》(서울, 성곡미술관)에 참여
- 2004년 《사진 그 투명성의 신화》(대전시립미술관) 개최  
《화가와 여행》(서울대학교박물관)에 참여  
《한국 모더니즘 미술-시선의 확장과 공존》(서울, 금호미술관)에 참여  
《여섯 사진작가-여섯 개의 코드 읽어보기》(서울, 성곡미술관)에 참여
- 2005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특별전, 《황규태, 1960년대를 만나다》 개최  
《패스트포워드: 한국으로부터의 사진 메시지》(독일, 꼬뮤날(Kommunal) 갤러리)에 참여  
《쿨&웜, 성곡미술관 개관10주년 기념전》(서울, 성곡미술관)에 참여
- 2011년 《iRobot》(서울, 조선일보 미술관)에 참여
- 2013년 《꽃들의 외출》(서울, 신세계갤러리) 개최
- 2014년 《사진 이후의 사진》(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개최
- 2016년 《bLow UP aMeriKa》(서울, 한미사진미술관) 개최
- 2020년 《황규태: 한국-러시아 30주년 기념전시》(러시아 상트페테부르크, 국립러시아박물관) 개최
- 2021년 《낮익은 해후: 충남 작가 소장전》(충남 아라리오 갤러리)에 참여  
부산국제사진제 《Anthropocene II: See Our Planet》에 참여  
NFT ART 《PIXEL PIXIE》 개최

## 강광식 (姜光植, 19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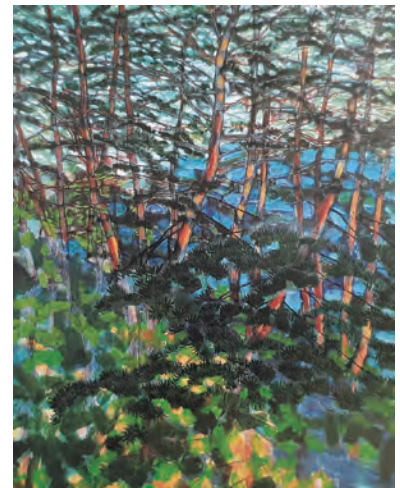
1939년 서울에서 출생한 강광식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1년 《제10회 국전》에서 〈숲〉으로 입선했고,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청주 사범대학교와 **승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승전대학교 재직 당시 학생들을 독려해 《승전미전》을 열었고 《승전대학교 교수 작품전》에도 참여했다. 대학교수로 대전지역 미술 인재를 양성해오다가 2005년 정년 퇴임했다.



강광식, 〈송청(松情)〉, 1998, 캔버스에 유채, 91×72.7cm  
(출처: 『대전공간확산전』, 대전시립미술관, 1998)

퇴임 이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명예교수로, 한국 기독교 미술인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열었던 개인전은 예총화랑(1977)과 동덕아트갤러리(2002)에서의 전시가 있으며, 대전에서는 2005년 현대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아시아현대미술전》을 비롯해 《공간확산전》, 《이형전》, 《한국기독교미술인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981년부터는 《기독교미술인협회 회원전》에 참여해 왔으며, 《대전기독교미술인회 회원전》에도 1998년 창립 전시 때부터 동참했다. 1983년에는 육군사관학교에 기록화를 제작한 이력이 있으며 1989년부터는 구상작가들의 모임인 ‘이형회(以形會)’의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sup>1</sup>



강광식, 〈생명(生命)〉, 2000, 캔버스에 유채, 72.7×60.6cm(출처: 『대전미술문화조망전』, 대전롯데화랑, 2000)

강광식은 주로 한국의 자연과 멋을 생명력 가득한 풍경으로 재현한다. 그리고 다채로운 색상의 변화를 화면에 구현해내며, 강렬한 색채 사용으로 단순하고 절제된 선과 함께 자연 형상을 화폭에 채워낸다. 2005년 한남대학교를 정년퇴임하며 가졌던 김세원 교수와 함께한 2인전에서는 대한민국 국토 방방곡곡에서 볼 수 있는 우거진 수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sup>2</sup> 자연풍광 외에도 기독교 성상들을 주제로 많이 다루었는데, 그리스도를 비롯한 성경 속 인물들을

1 『대전미술문화조망전』(대전롯데화랑, 2000).

2 「두 巨匠 작품세계 조망」, 『대전일보』(2005. 3. 22).



소재로 종교화를 제작하기도 했다.<sup>3</sup> 강광식의 작품에는 계절의 변화에도 의연한 소나무의 푸름이 자유분방하게 표현되었으며, 숲과 나무의 형상이 분명하게 드러난 화면을 짙은 채색으로 구성하면서도 추상성이 가미된 것이 화풍의 특징이다.

## 연보

- 1939년 서울 출생
- 1961년 《제10회 국전》에서 <숲>으로 입선
- 1973~2005년 청주사범대학교, 한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 1976년 《서양화30인 초대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77년 《개인전》(서울, 예총화랑) 개최
- 1977~1987년 《한·일미술교류전》(서울, 미도파화랑 / 일본, 도쿄미술관)에 참여
- 1981년 《대한기독교미술인협회 회원전》 참여
- 1982년 《아시아현대미술전》(일본, 도쿄도미술관)에 참여
- 1983년 육군사관학교 기록화 제작
- 1984년 《이형회》에 출품
- 1989년 《회화제》에 출품
- 1990년 《강광식·서정순전》(청담미술관) 개최
- 1993년 《대학미술의 흐름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98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  
《대전기독교미술인회 회원전》에 출품
- 2001년 《대전중견작가전》(대전, 대덕문화회관)에 참여
- 2000년 《교수초대전》(대전, 갤러리 C2)에 참여  
《대전미술문화조망전》(대전롯데화랑)에 참여
- 2002년 《개인전》(서울, 동덕아트갤러리) 개최
- 2003년 《갤러리 화소 개관기념 초대전》(대전, 갤러리화소)에 참여
- 2005년 《개인전》(대전, 현대갤러리) 개최  
《김세원·강광식 교수 정년퇴임 초대전》(대전, 현대갤러리) 개최
- 2006년 《한남대학교 교·강사 축하 기념전》(대전, 현대갤러리)에 참여  
《한국기독교미술 상황전》(대전, 선화기독교미술관)에 참여
- 2008년 《원로작가 초대전》(대전, 대미(大美)갤러리)에 참여
- 2019년 《제36회 이형회 작품전》(서울, 인사아트프라자)에 참여<sup>4</sup>

3 김민영, 「화폭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 『중도일보』(2006. 10. 13).

4 '안젤리미술관' 블로그. <https://blog.naver.com/kwonjj12/221654040355>

## 김배희 (金培熙, 1939~ )

김배희는 1939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으로, 경기도 안성에서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전쟁 때 보령의 큰 아버지 집으로 피난해서 대천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sup>1</sup> 1959년 서라벌예술대학 미술과에 입학해 박영선, 장리석, 최영립 등에게 그림을 지도받았고 군시절부터 김배희가 아닌 '김배희'라는 한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sup>2</sup>

1962년 《신상미술전》에 〈소망〉을 출품해 입선했고, 1963년 국전에서 〈뒷뜰〉로 입선한 이래 1965년과 1967년에도 국전에 참가해 총 3번 입선했다. 1963년 중학교 준교사 자격을 받고 충남 보령중학교 미술교사로 임용되었으며, 1965년부터 1986년까지 보령 진산여중, 금산 고등학교, 진산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근무했다. 배재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에 출강했고, 대전·충남지역 미술단체 일원으로서 충남미술대전, 대전미술대전, 목우회 공모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목우회, 대전구상작가회, 대전사생회, 대전수채화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1966년(27세)부터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으며, 1971년(32세) 대전 유정다방에서 첫 개인전인 《김배희 유화전》을 열었다. 1972년 《충남미술대전》에서 〈고향의 봄〉이 특선을, 〈강변오후〉가 입선을 받았다. 그리고 이 해에 《전국교육자료전》에서 특선을 차지하고 중등학교 미술교사 자격시험에도 합격했다. 1974년에는 《충남미술대전》에서 〈산〉으로 특선을 받았으며 1976~1979년 충남미협 부지부장을 맡았고 1980년에 《충남미술대전》 심사위원을 맡아 활동하며 충남미술의 발전에 기여했다. 1985년 《충남미술교사전》에 작품 〈보문산〉으로 최고상을 수상한 후 현대화랑에서 개인전을 갖는 등 교육계와 미술계를 넘나들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다가 1986년 교직을 그만두고 대전 시내에 작업실을 마련해 전업작가로 나섰다.

1993년에는 제1회 오원미술상을 수상해 수상기념 초대전을 대전문화원에서 가졌고, 《화연



김배희, 〈8월〉, 1999, 캔버스에 유채, 191.5×128.5cm, 대전시립미술관

1 『김배희 작품집』(디오, 2009).

2 서지영, 「백발 노장의 붓끝은 닳을지언정 마르지 않는다」, 『대전일보』(2018. 8. 29).



김배희, 《공암마을》, 2007, 캔버스에 유채, 72.7×91cm  
(출처: 『김배희 작품집』, 디오, 2009)

전》의 모태가 된 《오원화랑 초대 중견 8인 작가전》에 참여했다.<sup>3</sup> 이후 '95 미술의 해 대전시 조직위원, 1996년 《금강미술대전》 운영위원, 1999년 대전구상작가협회 회장을 맡아 충남미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김배희의 작품세계는 1980년대 이전의 인상주의 경향을 보여준 작품과 1990년대 중반 이후 녹색 계열의 색채가 중심이 된 작품, 그리고 2000년대의 다채로운 색채가 강조되는 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 1990년대 중반

부터 시작된 일련의 청록색 계열의 작품에는 채도와 명도 그리고 순도의 차이를 활용한 푸른 화면이 많이 구현되어 '녹색 작가'라고 불리기도 했다. 1999년작 〈8월〉을 보면, 해바라기가 핀 8월의 시골 풍경을 묘사한 구상회화이면서도, 구체적인 사물의 재현보다는 녹색의 색조가 두드러진 색면 회화를 연상시키며, 시원하게 내리그은 붓질에서 자유롭고 호방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sup>4</sup>

계룡산 근처로 거처를 옮긴 2000년대에는 색채가 한층 풍부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따뜻한 색 계열의 유채색이 증가하고 현실에 더 가까운 색채 이미지를 구현했다. 이는 다양한 색채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색채포럼'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sup>5</sup> 2016년 임림미술관에서 유병호, 이택우, 임립과 함께 《4人4色전》에 참여했으며, 2021년 7월 대전갤러리에서 《정명희미술관 초대 김배희전》을 열어 근작들을 선보였다.<sup>6</sup>

## 연보

- 1939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
- 1959년 서라벌예술대학 미술과 입학
- 1962년 《신상미술전》에서 입선
- 1963년 중학교 준교사자격 획득  
보령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교직생활 시작  
국전에서 〈뒤틀〉로 입선
- 1965 · 1967년 국전 입선
- 1971년 첫 개인전 《김배희 유화전》(대천, 유정다방) 개최

3 《오원화랑 초대 중견 8인 작가전》(1993)의 초대작가는 권영우, 김배희, 김치중, 이택우, 임봉재, 정명희, 정영복, 정철곡이었다.

4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dma/DmaArtworksList.do?menuSeq=6093#close>

5 신항섭, 「김배희의 작품세계-풍부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형상 및 색채포럼」, 『김배희 작품집』(디오, 2009), p. 6.

6 김용복, 「〈문화 특〉 역시 김배희」, 『중도일보』(2021. 7. 25).

- 1972년 《청미회전》(대전, 예총화랑)에 참여
- 1972~1974년 《충남미술대전》에서 특선 3회 수상
- 1974년 《일요스케치회 창립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76년 《구상작가 15인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76~1979년 충남미술협회부지부장 역임
- 1979년 《이신희 창립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1년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83년 충남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85년 《충남미술교사전》에 〈보문산〉을 출품해 최고상 수상
- 1986년 교직에서 은퇴  
서울신문사 초대 《서양화 300호전》(서울갤러리)에 참여
- 1987년 충남예술인 도지사상 수상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1990년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전》(천안, 아라리오갤러리)에 참여  
《'90회화제》(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1년 《오원화랑 초대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개최
- 1993년 제1회 오원미술상 수상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오원화랑 초대 중견 8인 작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95년 《50인의 인물, 풍경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제7회 대전시 문화상(예술부문) 수상
- 1996년 《금강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1997년 《개인전》(대전, 중구문화원) 개최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9년 대전구상작가협회 회장 역임  
《신작전 300호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00년 《대전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 2003년 목우회 · 파키스탄 작가 합동 전시 《아시아의 혼》(서울 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4년 오원화랑 초대 개인전 《양지마을에서 만난 풍경전》(대전, 오원화랑) 개최
- 2005년 《한국구상대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08년 금산 청산아트홀 개관 기념 초대 《개인전》 개최
- 2009년 보령문화예술회관 기획 초대 《개인전》 개최
- 2016년 《4人4色전》(공주, 임립미술관)에 참여
- 2021년 《정명희미술관 초대 김배희전》(대전갤러리) 개최

## 김영배 (金寧培, 1939~ )



김영배, 〈점묘(四角의 辨)〉, 1997, 캔버스에 아크릴, 72.7×60.6cm(출처: 『김영배화집-한점의 그림을 찾아서』, 2008)

김영배는 1939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한국전쟁 중에 강화도로 피난을 해서 강화 선원국민학교와 강화중학교를 다녔다.<sup>1</sup> 1960년 인천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해 김홍수의 화실에서 그림을 연마했다. 대학 재학 때 국전을 비롯한 공모전에서 4회 입선했고 그룹전에도 참여했다. 1964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에 들어가 1974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이었던 1973년 관동대학교 교수로 발령을 받아 강릉으로 갔고, 이듬해에 강릉문화원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1977년 관동대학교를 사직한 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공채에 합격해 1978년부터는 초중등학교 미술과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체제 개선안 연구’에 참여했다.

김영배는 1980년 대전실업전문대학 조교수로 부임하면서 대전에서의 생활을 시작했고, 1982년 창설된 충남대학교 미술학과에 강사로 출강했다가 다음 해인 1983년 서양화 전공 전임교수로 부임했다. 충남대학교 재직 중 작품 창작을 하면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해 총 13편의 연구 논문을 저술했다. 대학미전 심사위원, 한국전업작가협회, 대전현대미술협회, 현대미술교류협회, 대전기독교미술인협회 회원으로 미술 단체에서 활동했다. 《충남중견작가초대전》, 《충남 오늘의 만남》, 《현대미술교류회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출품했으며, 정년퇴임 때 미술교육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1970년대 후반 권영우의 추천으로 대전 ‘르-뽀동인회’에 동참했고 1982년 《대전3그룹연합전》, 1984~1985년 《대전실험작가회 명예회원 초대전》 등 비구상작가들의 전시에 참여했다. 1989년 비구상미술계열 작가들이 모였던 ‘현대미술교류협회’ 결성에 참여해 대전·충남북 지역 작가들과 함께 협회전을 해마다 열었다. 1982년 대전 영상화랑에서 《제2회 개인전》(1982)을 연 이후 충남대학교 전임교수로 자리를 옮긴 첫해인 1983년 ‘물리적인 추상’이라는 주제로 《제3회

1 김영배, 『金寧培畫集-한점의 그림을 찾아서』(2008), p. 3.

개인전》을 가졌다. 1999년에는 《회갑기념초대전》을 개최했으며, 2001년에는 ‘물의 해’를 맞아 ‘물의 영상’이라는 주제로, 동해와 서해를 답사해 촬영한 다음에 컴퓨터 합성 작업으로 완성한 작품을 개인전에서 선보이기도 했다. 2005년에는 40여 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대전에서 《퇴임기념 초대전》을 열었다.

김영배의 1970년대 작품에는 한국전쟁기의 상처가 비구상의 언어로 표현되었는데, 전쟁 때 불타버린 집의 흔적은 《상흔(傷痕)》 연작에서 물감의 얼룩으로 드러나 있다. 또 사람의 생(生)은 점에서 시작해 점으로 끝난다고 말하는 김영배는 1982년 개인전 출품작들에 대해 “기본 조형 언어의 반복형태로 서법성(書法性) 이미지가 있는 추상표현주의 회화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2</sup> 이후에는 “수차례에 걸친 밀칠하기의 반복, 그 위에 고무풀, 루버시멘트 등을 바르고 모노톤의 아크릴로 덮고 또 칠하고 긁고 뜯어내어 우연의 증발 현상과 같은 점이나 선, 파편들의 흔적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해나갔다.<sup>3</sup> 1990년대 중반에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추상화된 이미지로 보여주기도 했으며, 1990년대 말 이전에 천착했던 《선획(線劃)》 연작과 점묘와 선묘 등의 화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회귀했다. 2005년 퇴임 기념전에서는 그동안 주로 발표했던 서법 추상 20점과 기독교 이미지를 담은 추상화 10점을 선보였다. 이처럼 김영배는 1980년대 이후 충남의 비구상화단을 이끌었으며, 후진 양성에서도 공로가 크다.



김영배, 〈빛의 총만〉, 2007, 캔버스에 유채, 65.1×53.5cm(출처: 『김영배화집-한점의 그림을 찾아서』, 2008)

## 연보

- 1939년 서울 출생
- 1960년 인천사범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입학
- 1964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입학
- 1968~1970년 《창작미술협회전》에 출품
- 1973년 관동대학교 교수로 발령
- 1974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석사 졸업

2 김영배, 앞의 도록, p. 24.

3 남철, 「김영배: 물리적 구조체의 신추상」, 1983(위의 도록에 재수록).

- 1974년 《제1회 개인전》(강릉문화원) 개최
- 1977년 관동대학교 사직 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공채에 합격
- 1978년 초중등학교 미술과의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체제 개선안 연구'에 참여
- 1979년 《서울회화 15인전, 60년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80년 대전실업전문대학 조교수로 부임
- 1981~1984년 《르브 동인회전》에 참여
- 1982년 《제2회 개인전》(대전, 영상화랑) 개최  
《대전실업전문대학 교수전》에 출품
- 1983년 충남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부임  
《제3회 개인전》(대전, 반도화랑) 개최
- 1983~1988년 《서울현대미술제》에 출품
- 1985년 《충남작가초대전》(서울, 경인미술관)에 출품
- 1986년 《충남중견작가 초대전》(대전MBC)에 출품
- 1989년 '현대미술교류협회' 결성에 참여  
《제4회 개인전》(대전MBC 문화공간)  
《제5회 개인전》(서울, 백송화랑) 개최
- 1995년 《제6회 개인전》(대전, 갤러리 쉼) 개최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9년 《회갑기념초대전》(대전, 오원화랑)에 참여
- 2000년 《대전미술문화조망전》(대전, 롯데화랑)에 참여
- 2001년 '물의 해'를 맞아 '물의 영상'이라는 주제로 《개인전》 개최
- 2005년 《퇴임기념 초대전》(대전, 이공갤러리)  
녹조근정훈장 수훈
- 2006년 《대전현대미술협회 명예회원 초대전》(대전, 우연갤러리)에 출품
- 2007년 《충남대학교 개교 55주년기념 교수작품전》에 출품

## 백현옥(白顯鈺, 1939~ )

1939년 충청남도 장항에서 출생한 백현옥은 196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였다.<sup>1</sup> 1968년 학교 은사인 김세중이 광화문에 세울 이순신 장군상을 제작할 당시 조수로 참여하였다. 1973년 《제22회 국전》에서 〈신천지〉로, 1974년 《제23회 국전》에서 〈비(飛)〉로, 문공부장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여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1973년에 이화여자대학교 미술과 강사로 학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1977년 숭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를 거쳐 1980년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해 정년퇴임하였다.

초기 작품은 당시 국전에서 유행하던 추상 양식으로 일관했으나, 점차 합성수지·스티로폼·아크릴 판 등 새로운 재료를 이용해 기존의 조각 재료인 청동과 석재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백현옥은 자신의 미적 이념이나 주제의식을 표현하는 데는 구상적 표현이 적합하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였다.<sup>2</sup>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인물 구상작업을 주로 하였다. 작품 속 인체의 아름다움은 불상이나 토우 같은 전통 조각에서 찾았으며, 구조미는 불탑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였다.<sup>3</sup> 봉덕사종의 비천상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 〈비(飛)〉를 출품해 1974년 《제23회 국전》에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86년 전시에서는 청동·대리석·나무·테라코타·폴리에스터르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였다. 〈남매〉·〈모자〉·〈가족〉 등에는 등장인물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돋보이며, 이들과 여인이 만들어내는 원형에서 느껴지는 울동감이 잘 어우러진 〈풍전(風前)〉, 모자상으로 제작한 〈보릿고개〉 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작품화하였다. 이러한 구상작품에는 향촌, 모자상, 동심 등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품은 인물상을 주로 구현



백현옥, 〈동지〉, 1981, 폴리에스테르, 60×50×120cm (출처: 김세중미술관 홈페이지)

<sup>1</sup> 서천 출생이라는 기록은 가나아트 이호재 기증 동판에 기재된 내용이다. <https://blog.naver.com/0406jini/221524956696>

<sup>2</sup> 윤덕한, 「백현옥의 조각 세계」, 『미술과 비평』(미술과 비평사, 2018. 1), p. 17.

<sup>3</sup> 윤덕한, 위의 글, p. 17.





백현옥, 〈다문화가족〉, 2014, 무늬대리석, 청동, 45×12×55cm(출처: 『미술과 비평』, 미술과비평, 2018)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동천가족〉(1993)에 보이는 것처럼 인체를 조형적으로 동전과 같은 원형의 형상으로 단순화시켜 인물의 형상이 구상에서 다시 추상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계에 의존하는 사회의 변화를 인체에 적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인체는 2000년대 이후에는 〈다문화가족〉(2014)에 보이듯 계란의 형상으로 더욱 단순화 하여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상징하는 인체 특징은 사라지고 네모와 동그라미로 형상화하였다.<sup>4</sup>

백현옥의 작품에는 회화작품을 보는 것처럼 서사가 담겨 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초기의 인물 형상은 변했으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는 기본은 그대로 작가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sup>5</sup>

## 연보

- 1938년 충청남도 장항에서 출생
- 196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각과 졸업
- 1973년 《제22회 국전》에서 〈신천지〉로 문공부장관상 수상
- 1974년 《제23회 국전》에서 〈비(飛)〉로 문공부장관상 수상
- 1977~1980년 숭실대학교(현 한남대학교) 교수 역임
- 1978년 《일본 초대 한국작가 2인전》(도쿄, 공업구락부)에 참가
- 1979년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 1980년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부임
- 1981년 《바로셀로나 옥션하우스초대 10인전》(스페인 바르셀로나, 옥션하우스)에 참가  
《서울조각회 파리전》(파리, 한국문화원)에 참가  
《오늘의 작가전》(서울, 미술회관) 선정 기념 전시
- 1982~1988년 《현대미술관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3년 《인천시 개항 100주년 기념전》(인천문화원)에 참가  
《한국 조각가 10인전 초대전》(바르셀로나, National Gallery)에 참가

4 서길현, 「백현옥의 조각 세계」, 『미술과 비평』(미술과비평, 2018. 8), pp. 12~15.

5 윤덕한, 앞의 글, p. 8.

- 1984년 《한국인어체조각전》(용인, 호암미술관)에 출품
- 1985년 《서울신문사 신축 개관전》(서울, 서울신문사)에 출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1986~1994년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가
- 1986년 《서울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전》(서울대학교 체육관)에 출품  
《제1회 백현옥개인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한·일 조각전》(서울, 예화랑)에 참여  
《한국 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8년 《'88 한국 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백현옥, 진송자, 이명학 3인전》(서울, 삼청화랑)에 참여
- 1989년 《'89 한국 조각미술대전》(한국무역센터)에 참여
- 1990년 《동방의 빛》(인도, 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4년 《정도600년기념 도시의 환경조각전》에 참여
- 1997년 《낙우조각회전》(서울, 공평아트센터)에 출품
- 1998년 《5인조각전》(서울, 줄리아나 갤러리)에 참가  
《대전, 공간 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9년 《마스터피스 99 명품전》(서울, 줄리아나 갤러리)에 참여
- 2004년 《월간 미술세계 창간 20주년 기념 초대전》(서울, 갤러리상)에 참여  
《정년 퇴임전》(경기 남양주, 모란갤러리) 개최
- 2013년 《뉴칼레도니아 호텔 아트페어전》에 참여
- 2014년 《홍콩 호텔아트페어전》에 참여
- 2021년 제35회 김세중조각상 수상  
《김세중미술관 기획초대-백현옥》개최

## 임명철 (林明喆, 1939~ )



임명철, 《온고지신》, 1980, 캔버스에 유채, 116.8×80.3cm, 목우회 입선작(출처: 『임명철』, 대전 중구문화원, 2018)

1939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난 임명철은 서천중학교와 군산사범학교를 졸업했다.<sup>1</sup> 졸업 후 고향 서천의 문산국민학교를 시작으로 4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았다. 1972년 검정고시로 중등학교 미술교사자격을 취득했고 1978년 방송통신대학교 농과를 졸업한 뒤, 1989년(51세)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sup>2</sup> 2000년 오정중학교 교감으로 교직에서 은퇴할 때까지 한산중고등학교, 둔산중학교, 서천고등학교, 충남여자고등학교, 부여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

퇴임 후 한국미술협회, 대전구상작가회, 대전 기독교미술인회 등의 단체 활동을 하면서 화업에 열중했다. 그리고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 《제13회 대전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운영위원으로

도 활약했다. 태안과 대전에서 개인전을 3차례 개최했고, 《대전미술제》, 《제3회 대전원로 미술인 초대전》, 《이동훈 추모전》 등의 단체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였다. 교직에 충실했던 교육자로서 1995년 모범공무원 국무총리상, 2000년 대통령상(홍조근로훈장) 등 많은 상훈을 받았으며 화가로서도 충남예총 지부장상, 목우회 공모전 입선, 백제미전 특선, 한국미술문화대상전 금상 등을 수상했다.

1974년 유화 30점으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주로 단체전을 통해 작품을 선보였다. 1988년 ‘한국 미술문화 대상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1980년대 후반에는 《목우회전》에 출품해서 입선한 작품인 《온고지신》(1980)과 같이 전통 기물을 주제로 한 사실적 화풍의 정물화를 많이 그렸다. 교직을 은퇴한 뒤에는 야외스케치를 다니면서 대청호 풍경을 화폭에 담아냈으며, 종교적 주제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임명철은 2018년 팔순을 기념한 작품전을 대전중구문화원에서 열어 그동안의 화업을 정리

1 임명철의 생애와 작품세계에 관한 정보는 대전중구문화원에서 개최되었던 팔순전 도록 참조. 『임명철』(대전 중구문화원, 2018).

2 졸업 논문의 제목은 「청소년 정서 순화에 미치는 미술작품 제작과 전시 활동에 관한 연구」이다.

했다.<sup>3</sup> 팔순전 도록에 평론을 쓴 화가 정작직은 임명철의 작품세계에 관해 “자연과 정물의 이름  
다움을 직관적으로 간파하고 이를 풍부한 색채와 독특한 등가적 조형성을 구현해 왔다”고 평한  
다.<sup>4</sup> 팔순전 이후 인체소묘와 크로키를 연마해 2020년에는 누드화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 연 보

- 1939년 2월 26일 충청남도 서천 출생
- 1955년 군산사범학교 졸업
- 1972년 중등 검정고시 미술과 합격
- 1974년 《제1회 개인전》(태안, 월궁다실) 개최
- 1979년 충남예총지부장상 수상  
《제2회 林明喆 유화展》(대전, 오원화랑) 개최
- 1983년 《목우회전》 입선
- 1986년 《충청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출품
- 1988년 《제1회 한국미술문화대상 전람회》 금상 수상
- 1989년 《제7회 백제미술대전》 특선 수상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입학
- 1995년 모범공무원 국무총리상 수상
- 2000년 오정중학교 교감으로 퇴임, 홍조근정훈장 수훈  
《Korea christian Art Festival》(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참여
- 2004년 《제2회 “대전미술의 향기를 찾아서”》(대전갤러리)에 참여
- 2009년 대전구상작가회 《한밭지평전》(대전중구문화원)에 참여
- 2013년 《제3회 대전 원로미술인 초대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2015년 《대전미술 150인 초대전》(대전예술가의 집)에 참여
- 2017년 《대전미술제》(대전예술가의 집)에 참여  
《제10회 심향맥전》(대전예술가의 집)에 참여
- 2018년 《팔순전 기념 개인전》(대전중구문화원) 개최
- 2019년 《임명철유화전》(대전중구문화원) 개최
- 2020년 《임명철누드전》(대전, 대흥동 카페 ‘봄’) 개최  
《티움展》(K-water본사 전시실)에 참여

3 서지영, 「40년 스승의 붓질. 임명철 선생 팔순전」, 『대전일보』(2018. 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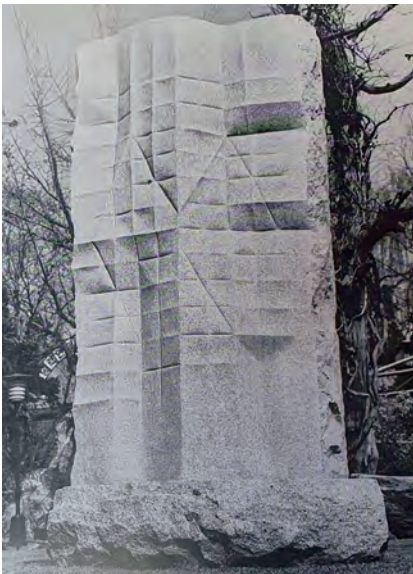
4 정작직, 『임명철』(대전 중구문화원, 2018), p. 1.

## 조성묵(趙晟默, 1939~2016)

1939년 대전에서 출생한 조성묵은 1958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조소과에 입학하였다.<sup>1</sup> 1960년 대학교 재학 중 《제9회 국전》에서 머리와 팔이 생략된 〈여인상〉으로 특선을 수상하였다. 창작활동 중 변신을 거듭한 작가는 '원형회'와 'AG그룹' 같은 단체 활동을 통해 전위적인 작품을 발표했다.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한 작가의 미술세계를 일목요연하기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1960~1970년대는 모색과 실험기, 1980년대는 형상을 통한 《메시지》 연작의 시기, 1990년대는 설치를 통한 《메신저》 연작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2</sup>

1960~1970년대는 조각과 오브제를 활용한 독자적 조형 실험의 시기로 1960대 전반에 유행 하던 철 용접으로 완성하는 추상조각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돌맹이를 한지에 싼 후 노끈으로 묶어 캔버스에 매다는 독특한 방식으로 일종의 오브제 작품을 새롭게 완성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정종병, 음료수캔, 신발, 그물, 의자 등 산업생산물을 작품에 이용해 사물이 지니는 본래의 기능을 제거하여 미술의 영역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였다.

1980년 《동아미술제》에서 종이를 접었다가 펼쳤을 때 생긴 기하학적 주름을 커다란 화강암



조성묵, 〈MESSAGE'80〉, 1980, 화강석, 200×140×40cm, 인촌기념관, 《동아미술제》 대상(출처: 『조성묵 메시지전』, 문예진흥원, 1981)



조성묵, 〈빵의 진화〉, 2008, 폴리우레탄, 90×40×40cm(출처: 『조성묵 멋의 맛』, 국립현대미술관, 2016)

1 네이버 인물정보와 김달진미술연구소 인물자료에는 1940년생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조성묵의 전시도록에는 모두 1939년으로 기입되었다.

2 김이순, 「메신저로서의 작가, 메신저로서의 미술: 조성묵의 작품세계」, 『멋의 맛 조성묵』(국립현대미술관, 2016), pp. 10~17.

에 사실적으로 묘사해 환상을 유도하는 〈메시지'80〉으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메시지》 연작에서는 화강암 표면의 접힌 자국이 사라지고, 소조기법을 이용해 닥지를 손으로 주물러서 유기적인 형상을 만들었다.

1990년대 《커뮤니케이션-메신저》 연작은 우연히 길에 버려진 낡은 의자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작가의 말처럼 등받이와 앉는 판이 없는 의자가 오브제로 펄프, 나무, 라디오와 같은 전자 제품까지 다양한 재료로 형상을 만들었다. 프레임이 강조된 의자의 활용으로 의자의 형상에서 얻어지는 선과 그 의자가 놓인 공간이 조각의 조형요소로 들어오게 되었다.<sup>3</sup> 이외 쇠그물, 거울, 책, 네온 등 다양한 오브제가 활용되어 하나의 설치작품을 탄생시켰다. 메신저 연작에 등장하는 의자는 사물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서 인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간의 대리자이자 작가의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한다.<sup>4</sup>

조성묵의 작품은 전위적인 요소가 강해 기존의 일반적인 조각상식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생존 시 미술계와 거리를 두고 작업실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했던 작가는 메시지와 메신저 연작을 통해서 항상 관람자들과 소통을 시도하였다.

## 연보

- 1939년 대전에서 출생
- 1958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조소과에 입학
- 1960년 《제9회 국전》에서 〈여인상〉 특선 수상
- 1963년 《新象展 공모전》 조각부문 수석상 수상  
《제12회 국전》에서 〈6S | M〉 특선 수상  
《조선일보 초대 공모전》 수석상 수상
- 1971년 《A.G.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2년 《독일문화원 초대 조각 3인전》(서울, 독일문화원)에 출품
- 1975년 《제3회 앙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79년 《프랑스문화원 초대전》(서울, 프랑스문화원)에 참가
- 1980년 《동아미술제》 조각부문 〈메시지〉 대상 수상
- 1981~1993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1년 《제16회 상파울로 비엔날레》(브라질)에 참가  
《메시지전》(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최
- 1983년 《이태리 한국 현대미술 초대전》(이탈리아 밀라노)에 참가  
《한일 현대조각 교류전》(일본 후쿠오카)에 참가

3 김이순, 앞의 글, p. 14.

4 김이순, 위의 글, p. 16.

- 1984년 《L.A올림픽 한국 현대미술전》(L.A, 한국문화원)에 출품  
《피에르가르맹 화랑 초대 오늘의 한국미술》(프랑스 파리, 피에르가르맹 화랑(Pierre Cardin Gallery))에 참가
- 1985년 《오늘의 한국미술 프랑스 순회전》(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 참가  
《'85 메시지전》(서울, 후화랑) 개최
- 1986년 《한국현대미술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7년 《한국조각의 오늘전》(장흥, 토탈미술관)에 출품
- 1988년 《독일 초대 국제종이비엔날레전》(독일, 듀렌미술관)에 참가
- 1989년 《국제 종이비엔날레》(일본 도쿄)에 참가
- 1990년 《'90 도쿄 아트페어》(일본 도쿄)에 참가  
《베니스 비엔날레》(이탈리아 베니스)에 참가  
《메신저전》(서울, 서미갤러리) 개최
- 1992년 《NICAF》(일본 요코하마)에 참가
- 1993년 《'93 현대작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94년 제8회 김세중 조각상 수상  
조성묵 순회개인전 《메신저전》(서울, 토탈미술관 / 키엘미술관 / 한선갤러리) 개최
- 1995년 《현대미술5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9년 《제4회 샤프자 아트비엔날레》(아랍에미레이트) 조각부문 2등상 수상  
《커뮤니케이션전》(서울, 박영덕 화랑 / 대구, 갤러리 신라) 개최
- 2000년 《커뮤니케이션전》(서울, 표화랑) 개최
- 2003년 《하와이 이민 100주년 기념전》(하와이, 하와이 대학 전시관)에 출품
- 2005년 《한국현대미술 뉴질랜드전-일상의 연금술》(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아트 갤러리 (Christchurch Art Gallery)) 참여
- 2006년 《서울미술대전: 한국현대구상조각의 흐름》(서울시립미술관) 참여
- 2010년 《빵의 진화》(서울, 금호미술관) 개최
- 2012년 《메신저&커뮤니케이션전》(제주현대미술관) 개최
- 2016년 작고

## 황교영 (黃敎泳, 1939~1986)

1939년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화양리 용골에서 차남으로 출생한 황교영은 1955년 경기공업고등학교에 입학했다. 1958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과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부모님 몰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 입학했다. 당시 지도교수는 김종영이었으며, 입학 동기들로는 강정식, 김봉구, 신석필, 송계상, 최승덕 등이 있다. 입학 동기들과 함께 '마이아트 클럽(My art club)'을 조직하고, 후에 최국병, 엄태정까지 합류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sup>1</sup> 1963년에 '마이아트 클럽'은 지도교수 김종영의 조언으로 '낙우회(駱友會)'로 개명하였다.

196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1964년 강원도 양구중·농업고등학교에 임시교사로 부임하고, 1년 후 다시 태백공업고등학교로 옮겼다. 반년 후 서울로 올라와 성정여자중·고등학교에서 약 4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였다. 1969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충남과 인연을 맺었다.

1963년 서울 중앙공보관에서 서울대 조소과 출신들이 결성한 《낙우회 창립전》을 열었으며, 스승인 김종영과 김세중이 참석해 개막식 테이프를 끊었다. 창립전에 추상작품 2점과 구상작품 2점을 출품하였으며, 작고하기 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낙우회 전시에 작품을 출품하는 열정을 보였다.

1963년 《제2회 신인예술상전》에서 여인 입상 〈봄〉으로 차석상을 수상했는데, 이 작품은 소장가가 청동으로 다시 제작해 보관하고 있다. 이 시기 구상 중심에서 비구상으로, 소조에서 철조와 목조로 재료와 제작 기법에 변화를 보였다. 초기 추상작품은 주로 매스(mass)와 매스의 결합체로 조성되었으며, 고향 평택 용골에서 대추나무와 같이 단단한 나무를 구하기 수월했기 때문에 목조를 많이 제작하였다.<sup>2</sup>

1981년 문예진흥원에서 '고리'를 주제로 《제1회 개인전》을 열었다. '고리'를 주제로 한 연



황교영, 〈고리 80-9〉, 1980, 폴리에스테르, 45×15×68cm(출처: 『고리와 섬리(攝理)』, 황교영선생기념사업회, 1988)

1 정찬국, 「정열과 사랑의 고리」, 『조각가 황교영- 고리와 섬리』(황교영선생기념사업회, 1988), p. 114.

2 신석필, 「황교영의 작품세계」, 위의 책, p. 93.





황교영, 《攝理》, 1985, 화강석, 65×100×188cm, 부여 구드래 조각공원

작은 공주박물관에서 본 무녕왕릉의 금제 목걸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황교영 작품의 주된 주제였다. 고리를 선정한 배경에 대해 작가는 “우리 인간 뿐 아니라 모든 것들은 고리에 얽혀서 산다”라고 설명했다.<sup>3</sup> 초기작은 두 개의 개체들이 고리로 연결된 형태로 구성적으로,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후에 파이프 모양의 긴 원통이 십자가 형태로 중앙에 자리를 잡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독교 사상에 심취했던 작가의 신앙이 반영된 결과이다.

1985년 《낙우회전》에는 《고리》 연작으로, 화강석으로 크게 제작된 〈섭리(攝理)〉를 출품했다. 상단부는 직선과 평면으로 된 직사각형을 세워놓고 둥근 원이 중심에 부조된 형상으로 우주관적인 공간감을 준다. 하단부는 여러 개의 고리가 엉켜있는 듯 또는 뱀들이 서로 엉킨 듯 이중적으로 보인다. 작가는 석

재·목조·주물과 합성수지인 폴리코트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고리에 얽혀 있는 듯 보이는 형상을 주로 제작하였다.

황교영은 ‘고리’와 ‘섭리’를 주제로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며 작품 활동에 매진한 조각가로 1960년 이후 국전에 매년 입상을 하였다.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학생들을 아끼는 선생이었으나 아깝게 불의의 사고로 작고했다. 1988년 지인과 동료, 후학들이 ‘황교영선생기념사업회’를 결성하고 황교영의 작품을 모아 『고리와 섭리(攝理)』을 발간했다.

## 연보

- 1939년 경기도 평택에서 출생
- 1958년 경기공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지도교수 김종영) 입학
- 1960년 《제9회 국전》에 〈여인〉을 출품해 입선
- 1962년 《제11회 국전》에 〈女人〉과 〈가을〉 2점을 출품. 〈가을〉 입선
- 196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서울대 조각과 졸업생 모임인 낙우회(駱友會) 창단 동인으로 참여  
제2회 《신인예술상전》에서 작품 〈봄〉으로 차석상 수상

3 신석필, 앞의 글, p. 93

- 1965년           성정여자중 ·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66~1981년   《한국미술협회전》에 출품
- 1969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과 출강
- 1970년           《제1-2회 한국미술대상전》(국립현대미술관) 입선  
《현대작가연합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4년           ‘충남조각회(청조회)’ 창립  
《한국현대조각대전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5년           《전국조각가 초대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 1977년           《제26회 국전》조각-비구상 부문에 〈합비(合飛)〉로 입선
- 1979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 1979~1985년   《충남도전》초대작가, 심사 · 운영위원 역임
- 1981~1983년   《한국미협 공주지부전》(공주문화원)에 참여
- 1981~1984년   《충남조각회전》에 출품
- 1981년           《황교영조각전》(서울, 한국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최  
《제6회 향토작가초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한국미술 '81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2년           《제17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출품
- 1983년           《한 · 불 미술가 협회전》(서울, 동덕 미술관)에 참가  
《제8회 향토작가초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4~1985년   《'84~'85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6년           전국교육대학 미술교육연구회 회장 역임  
작고

## 김세원 (金世源, 1940~ )



김세원, 〈그리움〉, 1999, 화선지에 수묵담채, 116×91cm(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호는 남이(藍夷). 1940년 평안남도에서 출생한 김세원은 1959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하여 박노수를 사사하였다. 1966년부터 1979년까지 국전에 참여하여 〈한나절〉, 〈하동(夏童)〉, 〈한일〉, 〈환희〉로 입선하였으며, 1964년 《제2회 신인예술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1976년부터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했다. 충남미술대전 운영위원과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심사위원에 위촉되어 지역미술의 확장과 정착에 기여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서울대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김세원은 화단에 유행하던 추상화와는 거리를 두고 일관된 태도로 ‘한국화의 전통’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섬세한 공필화와 수묵담채를 혼용한 인물화에 천착했다. 1966년 《제15회 국전》에서 입선을 차지한 〈한나절〉은 좌측에 묘사된 두 여인의 신체를 담채로 간결하게 선염하고, 아래로 향하는 시선처리 등에서 서울대 재학시절 스승인 장우성의 영향이 엿보인다.<sup>1</sup>

김세원은 인물화뿐만 아니라 강한 묵선을 강조한 수묵산수화 제작에도 몰두했다. 1976년, 《제1회 김세원 동양화전》을 소개한 글에는 〈하동(夏童)〉, 〈승무〉, 〈계곡〉 등 ‘인물화 및 산수화 20여점 출품’했다는 기록과 함께 “산수화는 석양을 연상케 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박력 있는 외곽선에 의해 묘사된 바위는 서양화적인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는 감상평이 실렸다.<sup>2</sup>

그러나 1980년대 접어들면서 김세원은 인물의 동세를 따라 정확하게 묘사한 의습선이 강조된 〈승무〉, 〈春日〉, 〈그리움〉을 제작하며 세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필법을 작품에 구사했다. 특히 〈그리움〉(1999)에 펼쳐진 무한한 여백과 특유의 깔끔한 선들은 소리 없이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승무의 동작에서도 느껴지며 적절히 사용된 채색과 먹색은 단조로운 구성에서 벗어나 작품에 생동감을 더 했다. 김세원은 전통 민속놀이를 주된 소재로 삼아 한국적 선의 표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작가이다.

1 송희경, 「1950년대 전통화단의 ‘인물화’」, 『한국문화연구』28(한국문화학회, 2015), p. 139.

2 「김세원 동양화전」, 『동아일보』(1976. 1. 17).

## 연보

- 1940년 평안남도 출생
- 1959~196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동양화 전공) 입학 및 졸업
- 1964년 《제2회 신인예술상》 장려상 수상
- 1964~1996년 제4~37회 《청토전》(서울, 중앙공보관)에 참여
- 1966년 《제15회 국전》에 〈한나절〉 입선
- 1973~1974년 《제22회 국전》에 〈하동(夏童)〉 입선  
《제23회 국전》에 〈한일〉 입선
- 1976년 《제1회 김세원 동양화전》(서울, 그로리치화랑) 개최  
《10인 초대작가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76~2005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 1978~1988년 제8~10, 14~15, 18회 《충남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83~1998년 제13·28회 《충남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1990~1998년 제2·7·10회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92년 《문인화정신과 현대회화》(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5~2001년 제5~6, 9, 11회 《MBC 금강 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 1997년 《한국미협 대전광역시 지부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제9회 대전한국화회전》(대전, 현대화랑)에 참여  
《제27회 충남도전 초대작가전》(천안시민회관)에 참여
- 1998년 《한발미술의 오늘》(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99년 《금강미술대전 특별기획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0년 《제3회 안건미술대전》 운영위원  
《21C 대전미술의 미래 모색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1년 《제13회 한국화회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제31회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전》(천안문화회관)에 참여  
《원로작가100인》(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2003년 《선화기독교미술관 미술상 수상작가전》(선화기독교미술관)에 참여
- 2004년 《제1회 안건미술대전 수상작가 및 초대작가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출품
- 2005년 《김세원 개인전》(대전, 현대갤러리) 개최  
황조근정훈장 수훈임
- 2006년 《현대한국화 4인4색전》(대전, 현대갤러리)에 참여
- 2021년 《정중동의 미학: 한국 현대 춤 그림》(이천월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김인중(金寅中, 1940~ )



김인중, 〈무제(Sans titre)〉, 2003, 캔버스에 유채, 210×205cm

1940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난 김인중은 신흥국민학교와 대전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6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송병돈에게 지도를 받았고, 재학 당시 1962년 《제11회 국전》에서 〈소지(素地)〉로 특선을 차지했다.<sup>1</sup> ROTC 1기로 군복무를 마친 다음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다. 대학원을 졸업하던 1967년 가톨릭에 귀의한 김인중은 1969년 유럽으로 떠나 스위스 프리부르그대학 및 파리 카톨릭연구소에서 수학하고 난 뒤, 1974년 성(聖) 도미니코 수도회의 신부가 되었다. 1975년 이후부터 파리에 거주하며

신부이자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sup>2</sup>

1965년 서울 신문회관화랑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1973년 파리 자크 마쉴 화랑에서 해외 첫 개인전을 열며 유럽에서 화업을 이어나갔다. 유럽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1994년과 2000년 서울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전시를 열어 그간 작업해왔던 ‘빛과 색채로 구성된 신비로운 조형 세계’를 한국에도 선보였다.<sup>3</sup> 그리고 한국 전시인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 《대전·공간확산전》을 비롯해 프랑스 파리의 루앙 대성당 《모네 탄생 170주년 기념 개인 초대전》과 리옹 대성당 《그림과 스테인드글라스 초대전》 등 다수의 단체전 및 초대전에 참여했다.

김인중은 1989년 앙굴렘 세례요한성당, 1999년 에브리대성당, 2006년 샤르트르대성당 등 프랑스의 여러 성당에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제작했다. 2010년 프랑스 정부에서 수여하는 문화예술 공로 훈장인 오피시에를 받았고, 2019년 프랑스 앙베르(Ambert)에 시립 ‘김인중 미술관’이 설립되었다.<sup>4</sup> 2020년 《김인중 화업 60년 회고전-빛의 꿈》 전시가 열려 50여 년간의 화업이 조명되었다.

1 「국전심사(國展審査) 종반(終盤)에」, 『동아일보』(1962. 10. 5).

2 프랑스 김인중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kimenjoong.com/>; 김인중의 동생인 김억중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의 작업실이 있는 공주에 김인중 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재불 스테인드글라스 대가 김인중 신부, 중도일보에 작품 기증식」, 『중도일보』(2020. 6. 10).

3 방상훈, 「김인중 초대전을 개최하며...」, 『조선일보 창간 80주년 김인중 초대전: KIM EN JOONG』(조선일보사, 2000), p. 5.

4 손진석, 「김인중 미술관’ 프랑스 앙베르서 개관」, 『조선일보』(2019. 6. 19).

김인중은 유화, 스테인드글라스, 도자기 등에 화려한 색채의 추상으로 성서 이야기를 풀어 내며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펼치고 있다. 프랑스 미술사학자인 드니 구타뉴(Denis Coutagne)는 김인중에 대해 ‘회화에서는 인상파 폴 세잔느, 스테인드글라스에서는 야수파 헨리 마티스, 도자기에서는 입체파 파블로 피카소를 계승했다’고 평했다.<sup>5</sup> 또한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인 줄리앙 그린(Julien Green, 1900~1998)도 “색과 선의 율동 폭을 극대화한 동양화이자 서양화”라고 소개한 바 있다. 유럽에서 50여 년간 200여 회의 전시회를 개최하며 저술 활동과 언론매체 출연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연보

- 1940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62년 《제11회 국전》에서 <소지(素地)>로 특선 / 《현대작가초대공모전》 장려상 수상
- 196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64년 《신인예술전》 장려상 수상
- 1965년 《개인전》(서울, 신문회관) 개최
- 196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졸업
- 1969~1976년 스위스 프리부르크대학 및 파리 카톨릭 연구소 수학
- 1973년 《제1회 개인전》(프랑스 파리, 자크 마쉴 화랑) 개최
- 1974년 프랑스 도미니크수도회에서 사제 서품
- 1989년 프랑스 앙굴렘 세레요한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1996년 《세계미술대상전》 최우수상 수상
- 1998년 《대전·공간확산》(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9년 프랑스 에브리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제작 / 저서 『우물 속에 뜨는 별』(여백출판사) 출간
- 2003년 《개인전》(프랑스 파리, 노트르담대성당) 개최
- 2004년 《개인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최
- 2008년 저서 『빛은 춤을 춥니다』(여백미디어) 출간
- 2009년 《모네 탄생 170주년 기념 개인 초대전》(프랑스, 루앙 대성당)에 참여
- 2010년 《개인전》(조선일보미술관) 개최 / 저서 『희망과 기도』(여백) 출간  
프랑스 정부 문화 예술 공로 훈장 오피시에 수훈
- 2011년 《피카소, 한스 하루땡과 5인전》(이탈리아 몬테카시노)에 참여
- 2013년 브르쥬(Bourges)시 주최 《메시앙 서거 20주년 페스티벌》에 참여
- 2019년 프랑스 앙베르에 시립 ‘김인중 미술관’ 설립
- 2020년 《김인중 화업 60년 회고전-빛의 꿈》(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5 한성일, 「[한성일이 만난 사람] 재불화가 김인중 신부」, 『중도일보』(2020. 5. 31).

## 유희영 (柳熙永, 1940~ )



유희영, 〈99-x〉, 1999, 캔버스에 유채, 220×220cm, 대전 시립미술관

유희영은 1940년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 재학 중 대전지역 최초의 고교미술 동아리인 '루-불미술동인'의 창립멤버로 활동했다. 196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198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재학 중이었던 1960년 《제10회 국전》에 입선을 시작으로, 1961년 《제10회 국전》에서 〈가두의 인상〉으로 특선을 받았으며, 1969년 《제18회 국전》에서 〈잔상〉으로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1974년까지 총 6번의 특선을 차지했다. 특히 1974년 《제23회 국전》에서 〈부활〉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1979년 국전 추천

작가상을 받았다. 1971년 대전문화원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2018년까지 11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카누 국제회화제》, 《한국추상회화 1958~2008》,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등 많은 단체전에 참여했다.

1972년부터 1983년까지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1984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했다. 1995년 문예진흥원 운영위원장,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위원장,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서울시립미술관장을 역임했으며, 2006년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2005년 황조근정훈장, 2009년 대한민국 미술인상, 2013년 5·16 민족상(학예부문) 등을 수상했다.

유희영의 초기 회화는 국전 입상작 〈가두풍경〉(1961), 〈귀로〉(1964)처럼 '일상사'를 입체과적인 양식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의 《수렵도》 연작에서는 운필과 색면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전통 설화나 풍습에서 받은 영감을 화면을 가로지르며 채우는 유동적인 색면으로 구성하며 '내면의 응시'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sup>1</sup> 1980년대 중반부터 화면을 분할하고, 그 안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색을 도포하는 '색면추상'을 추구했다. 같은 색조에 채도를 달리하여 그 위에 색막대를 두어서 색의 매스를 좌우로 배치시키는 다양한 패턴을 시도했다. 특히 전통 건축

1 서성록, 「유희영, 화면에 내려앉은 내면의 빛」, 『유희영의 색면추상』(현대화랑, 2018).

물의 단청에서 영감을 얻어 초록색과 빨간색의 문양이 대비되는 추상 작업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더욱 확대된 색면과 간결해진 띠가 균형을 이루는 작업을 선보였다.<sup>2</sup> 2000년대 이후 유희영의 작품에는 필선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순연한 색면이 두드러진다. 몇 개의 수직 띠에 의해 화면이 나누어지고, 서넛 이상 혼합하는 조색의 결과로 탄생한 색채가 화면을 뒤덮는 절제된 형태와 구성미를 보여주었다.<sup>3</sup>

유희영의 화업을 통틀어 보면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대신 사유와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의 조형세계를 탐색하는 데 매진했던 작가다.<sup>4</sup> 그의 회화에 대해서 ‘사대부 화풍’(정병관), ‘정신의 창’(오광수), ‘생명형식’(유준상), ‘내면의 빛’(서성록)과 같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미술과 구별되는 동양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당대의 주류에 편승하지 않고 초연하게 자신의 작품세계를 추구해온 작가다.<sup>5</sup>

## 연보

- 1940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
- 1958년 《제1회 루-불 미술동인전》(대전문화원)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60년 《제9회 국전》에 입선
- 1961년 《제10회 국전》에 〈가두의 여인상〉 특선
- 196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69년 《제18회 국전》에 〈잔상〉으로 문공부장관상 수상
- 1971년 《제21회 국전》에 문공부장관상 수상  
《제1회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72~1983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역임
- 1973년 《서양화 7인전》(서울, 조선회랑)에 참여  
《제3그룹전》(서울, 신문회관)에 참여
- 1974년 《제23회 국전》에서 대통령상 수상
- 1977년 《개인전》(신세계백화점 미술관) 개최
- 1978년 국전 추천작가상 수상
- 1978~1981년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운영위원 역임
- 1979년 《개인전》(서울, 선화랑) 개최
- 1980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2 『SeMA Collection 200』(서울시립미술관, 2015).

3 서성록, 「유희영, 화면에 내려앉은 내면의 빛」, 앞의 도록(2018).

4 서성록, 위의 글.

5 아르코예술기록원의 「미술작가 500인: 유희영」 참조. <http://www.art500.or.kr/blog/ryuheeyoung.do>



- 1980~1993년 국전 및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85년 《한국 현대작가전》(미국 뉴욕, 록화랑)에 참여
- 1986년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7년~현재 《아시아 국제미술전》에 참가
- 1988년 《88올림픽 대만 역사박물관 초대 한국현대미술전》(대만, 국립역사박물관)에 참여
- 1990년 《'90현대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1년 《개인전》(갤러리현대) 개최  
《한국현대회화전》(용인, 호암갤러리)에 참여
- 1993년 《한국현대회화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4년 《개인전》(프랑스 파리, 갤러리 에티엔 코정) 개최  
《아시아국제미술전》(싱가포르,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참여
- 1995년 《카뉴 국제회화제》(프랑스 카뉴)에 참여
- 1995~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학장 역임
- 1996년 《아시아국제미술전》(필리핀 마닐라, 메트로폴리탄시립미술관)에 참여  
아시아국제미술전람회 한국위원회 회장 역임
- 1997년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1999년 《개인전》(미국 뉴욕, 월터위카이지갤러리) 개최
- 2000년 《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역임  
《새천년 3.24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0~2003년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자문위원장 역임
- 2003년 개인전 《정신의 창으로 색면》(서울, 갤러리현대) 개최
- 2005년 황조근정 훈장 수훈
- 2006년 《개인전》(미국 뉴욕 첼시) 개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추대
- 2007~2012년 서울시립미술관장 역임
- 2008년 《한국추상회화 1958~2008》(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3.1 문화상 수상 / 서울시 문화상 심사위원장 역임
- 2009년 《부산국제비엔날레전》(부산시립미술관)에 참여  
대한민국미술인상 수상
- 2010년 《한국현대미술 중심에서》(서울, 현대화랑)에 참여
- 2011년 《한국현대작가전》(대만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12년 이중섭미술상 심사위원장 역임
- 2013년 5·16 민족상 학예부문 수상
- 2014년 대한민국예술원 개원 60주년 기념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30년 특별전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에 참여
- 2018년 개인전 《유희영의 색면추상》(갤러리 현대) 개최
- 2020년 《한국의 추상회화전》(서울, 신도문화공간)에 출품

## 이근신 (李根伸, 1940~ )

1940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난 이근신은 1958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수석으로 입학해 한묵, 이종무 등으로부터 그림을 배웠다. 1965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중앙고등학교에서 21년간 교사로 재직했으며, 홍익대학교·상명여자대학교·강남대학교에 출강했다. 1980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이듬해에 동덕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신기회》, 《문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미술대전》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자문위원, 《상형전》 고문, ‘국제문화예술친선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2010년에 제자들이 마련한 고회기념 회고전은 “화가라면 자유와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던 이근신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sup>1</sup>

1960년대는 화면의 통일과 조화를 탐구하던 시기로 기하학적 추상, 즉 옵티컬 아트(Optical Art) 계열의 작품을 제작했다. 이후 단체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하던 1970년대는 우주 이미지를 탐색했으나 1981년 《제1회 개인전》에서는 토속적인 이미지와 함께 일그러진 자화상을 그린 작품을 발표했다. 첫 개인전에서는 강렬한 색채대비와 굵은 선 등 마티에르를 강조한 ‘자화상’을 선보였다면, 1986년 《제2회 개인전》에서는 ‘문명 비판적 인간상 탐구’를 주제로 작업했다.<sup>2</sup> 1990년대에는 사각의 기본 형태 안에서 단일 색조의 톤이 지배하는 다양한 색면(色面) 추상작품들을 제작했다. 2000년대 초반 ‘가족과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에서는 스크래치 기법과 마티에르가 강조된 작품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2010년 열린 고회기념 회고전에서는 불교의 선(禪)과 초월적 이미지를 색면회화로 구현해 변화를 시도했다.

이처럼 이근신의 작품세계는 개인전을 가질 때마다 다양하게 변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는 「방법론으로서의 오토매티즘(Automatism)에 관한 연구」(1985)와 「키네틱 아트(Kinetic Art)



이근신, 〈인연(因緣)〉, 2009, 캔버스에 유채, 162.2×130.3cm(출처: 『이근신 70번째 생일 축하 개인전』, 1024think, 2010)

1 《이근신 70번째 생일 축하 개인전》은 화가가 오랜 기간 재직했던 중앙고등학교의 미술반 동문회인 “계미회”에서 스승을 위해 마련한 전시였다. 신주현, 『이근신 70번째 생일 축하 개인전』(1024think, 2010).

2 김인환, 「박제된 허상인간」, 위의 도록, p. 101.

와 미니멀 아트(Minimal Art)』(1988)와 같은 논문을 발표하며, 미술이론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다. 또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0회에 걸쳐 「예술과 사람」이라는 칼럼을 『예술세계』에 게재했고 자신의 수업 강의록을 정리해 『한담록』(2003)이라는 에세이집을 발간했다. 여러 차례 작품의 변화를 시도한 이근신은 작가로, 미술교육자로, 저술가로 다방면에서 활약했던 작가이다.

## 연보

- 1940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58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수석 입학
- 1965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1966~1968년 《신기회전》에 출품
- 1969년 《COSMO 3인전》(서울, 신문회관화랑)에 참여
- 1972~2003년 《문전(門展)》에 출품
- 1980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1981년 《개인전》(서울, 동덕미술관) 개최
- 1983년 《서양화 3인전》(서울, 동덕미술관)에 출품
- 1983~2003년 《상형전》에 출품
- 1984년 《한국, 러시아 초대작가 교류전》(서울, 백상갤러리 / 러시아 생페테부르그, 미술가동맹 전시관)
- 1986년 《개인전》(서울, 우정미술관) 개최
- 1987년 《아시아 현대미술전》(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출품
- 1990년 《김철호 선생 정년퇴임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91~2005년 《대한민국 회화제》에 6회(1991, 1996, 1998, 1999, 2001, 2005) 출품
- 1992년 《개인전》(서울갤러리) 개최
- 1996년 제14회 한밭문화제 《한밭회향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 《대전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대한민국 구상미술 단체연합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03년 《개인전》(서울, 서울갤러리) 개최
- 2010년 《교회 기념 초대전》(서울, 갤러리라메르) 개최
- 2011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각) 개최
- 2016년 당림 이종무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전시 《이근신 초대전-색과 형상의 이종주》(대전, 당림미술관)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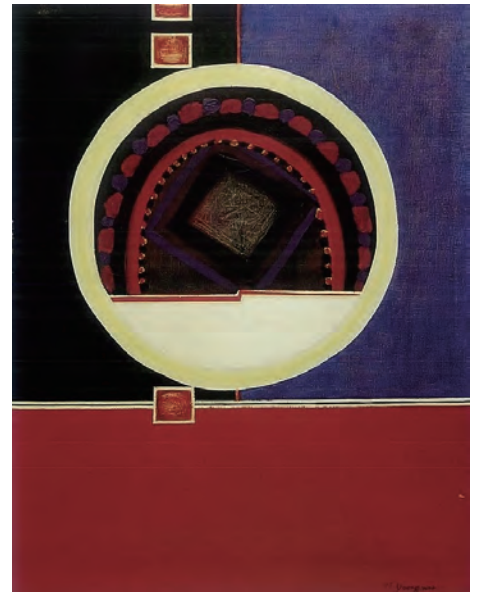
## 권영우 (權寧祐, 1941~ )

1941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난 권영우는 1959년 공주사대부고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했다. 홍익대학교 재학 중 1963년 《제1회 재경 충남미술 학우회 미술전》에 참여했다. 196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이해에 결성된 'ORIGIN'의 창립멤버로 활약하며 한국 미술의 정체성에 대한 반성과 새로움을 향한 진취적 창조를 모색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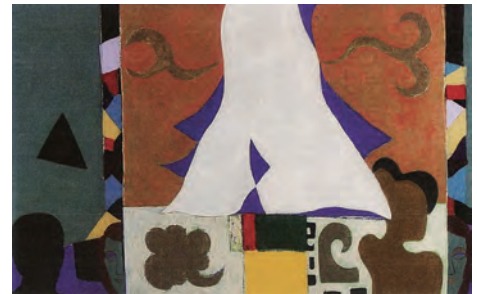
1970년대 들어 대전에 정착한 권영우는 1973년 개관한 산강화랑의 《제1회 초대전》에 비구상부문 작가로 초대받았다.<sup>2</sup> 1974년 진보적인 추상미술 그룹 '르뽀'를 결성하는 등 대전화단에 추상미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시기 중심 역할을 했다.

목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미술협회, 대전시 미술대전 및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독립전 회원 등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창작에 열정을 쏟던 중 2007년 뇌경색이 발병해 오른손과 발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다시 창작에 임해 2010년 쌍리갤러리에서 25점의 작품을 개인전을 열었다.<sup>3</sup>

권영우의 〈Work〉(1973)는 빨강·파랑·노랑의 삼원색에 검은색을 더해 가운데 부분의 원형을 중심으로 화면을 과감하게 네 부분으로 구획했다. 1970~1980년대에는 한국적 정체성 탐구에 몰두해 전통적인 소재를 응용한 작품들을 제작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자연과 인생을 주제로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데, 〈이야기 1〉(1987)은 전통적인 색채를 사용해 면과 색으로 구성된 작품이



권영우, 〈Work〉, 1973, 캔버스에 유채, 100×80.3cm(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권영우, 〈이야기 1〉, 1987, 캔버스에 유채·아크릴, 60×100cm, 대전시립미술관

1 『충남근현대미술사: 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 89.

2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대전미술의 새물결』(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2013), p. 62.

3 박은희, 「뇌경색 역경당고 25점 전시... 일상소재에 역동적 표현 더해」, 『중도일보』(2010. 3. 3).

다. 이 시기에는 오방색의 사용과 보색 대비를 적극적으로 구사하며 물성과 이미지를 기호화한 양상을 보여준다.<sup>4</sup> 1995년 개인전에서는 작가의 마음속 이야기들을 낭만적이면서 환상적인 이미지로 담아 동화를 연상시키는 작품을 선보였다.<sup>5</sup> 2000년대 이후 꽃과 새, 여인의 실루엣 등을 소재로 자주 활용했는데, 일상적인 소재가 주는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추억이 관람자들에게 전달되게끔 익숙한 소재를 간략하게 형상화해 화폭에 담아냈다. ‘동심을 그리는 작가’로 불리는 권영우는 2002년 논산의 농가를 개조해 화실을 만들고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 연보

- 1941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59년 공주사대부고 졸업
- 1963년 《제1회 재경충남미술학우회미술전》(대전방송국 공보관화랑)에 참여
- 196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64년 《ORIGIN 창립전》에 출품
- 1973년 《제1회 산강화랑 초대전》(비구상부문)에 참여
- 1974년 《서울비엔날레》에 출품  
《제1회 홍대동문전》(대전, 경암빌딩화랑)에 참여
- 1974~1984년 《르뽀동인전》창립 주도, 활동 지속
- 1977~1993년 《목원대 교수 작품전》에 출품
- 1980~1985년 《서울방법전》에 출품
- 1981~1991년 《제작전》에 출품
- 1991~1999년 《독립전》에 출품
- 1995년 《개인전》(대전, 갤러리 쉽) 개최
- 1998년 대전일보 비호대상 수상
- 1992년~ 《화연전》창립부터 출품 지속
- 2001년 《한국현대미술의 전개 “전환과 역동의 시대”》(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개인전》(대전, 갤러리 C2) 개최
- 2010년 《제6회 개인전》(대전, 쌍리갤러리) 개최
- 2015년 《대전미술의 모더니즘》(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 출품

4 『광자진취狂者進取 대전미술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2020), p. 87.

5 「전시」, 『중도일보』(1995. 5. 25).

## 김철성 (金徹性, 1941~ )

호는 미산(岬山). 1941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하였으며, 1964년 홍익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졸업 이후, 1966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이듬해인 1967년부터 1975년까지 경희중학교와 영동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대학교 재학시절인 1962년 《제11회 국전》에 〈여름〉을 출품하여 첫 입선하였고, 이후 1977년 《제26회 국전》까지 총 7회 동안 입선하였으며, 《제28회 국전》에서는 〈엄원〉으로 특선을 차지했다. 또한 《백양회 공모전》에서 ‘백양회상’을 수상했고, 《제9회 백양회 공모전》에서는 ‘동아일보 사장상’을 수상했다.<sup>1</sup> 1975년 경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강사를 거쳐 1978년부터 인덕전문대학교 응용미술과 교수, 그리고 1990년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를 역임했다.

김철성은 1960년대 초반, 대상의 면을 분할하고 형태를 단순화시킨 반추상적인 양식을 시도했다. 1962년 작 〈여름〉에서 화면 뒷쪽 손수레에 보이는 단순한 형태와 여러 각도에서 본 사물에 홍익대학교 재학시절 스승인 김기창의 영향이 감지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김철성은 이러한 입체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대상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기 힘든 ‘혈(血)’, ‘회상’, ‘추회(追懷)’와 같은 단어들을 제목으로 선택하여 추상적인 양식을 시도했다. 또한 한국화의 재료적 특성을 활용했던 1960년대와 달리, 1970년대에는 먹의 ‘번지기’ 기법을 주로 이용했다. 이후 김철성은 전통회화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화의 한정된 재료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표현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들어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연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자 이러한 흐름에 동조해 1986년 《한국의 자연전》에 〈설원이야기〉, 〈초부귀로(樵夫歸路)〉를 출품했다. 전통적인 수지법이 아닌 거친 필선과 먹의 농담 변화를 통해 겨울의 분위기를 표현한 〈설원이야기〉처럼 김철성은 개성있는 필치와 구성으로 이루어진 현대적 산수화를 구축해 나갔다.



김철성, 〈설원이야기〉, 1997, 한지에 수묵담채, 95×65cm(출처: 『대전공간확산전』, 대전시립미술관, 1998)

1 「백양회상 수상결정」, 『조선일보』(1970. 11. 24).

## 연보

- 1941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6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1962년 《제11회 국전》에 〈여름〉 입선
- 1963년 《제12회 국전》에 〈유월(六月)〉 입선
- 1965년 《제14회 국전》에 〈팔월(八月)〉 입선
- 1966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석사 졸업
- 1967~1974년 경희중학교 교사로 재직
- 1970년 《초청화가 17인전》(당주동 쪽샘주점)에 참여
- 1971년 《제6회 백양회 공모전》에 출품
- 1972년 《신수회전》(서울, 신세계화랑)에 참여
- 1974~1975년 영동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75~1976년 경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출강
- 1976년 《제25회 국전》에 〈血〉 입선 / 《아시아 현대미술전》(일본)에 참여  
《제15회 신수회 그룹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1977년 《제26회 국전》에 〈회상〉 입선
- 1978년 《제27회 국전》에 〈추회(追懷)〉 입선
- 1978~1990년 인덕전문대학교 응용미술과 교수로 재직
- 1979년 《제28회 국전》(비구상부문)에 〈염원〉 특선
- 1980년 《제29회 국전》에 〈승화〉 입선
- 1981년 《제30회 국전》(비구상부문)에 〈하일〉 입선 / 《한국 현대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2년 《3인전》(서울, 석화랑)에 참여
- 1983년 《김기창 고회(古稀)기념 문하생展》(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 1986년 신목회 주최 《86한국의 자연전》(중앙청역 지하전시실)에 참여
- 1989 · 1991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0~1999년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 1991 · 1993년 제10 · 12회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92년 《'92 서울현대한국화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6년 《신목회 북경 초대전》(중국 북경, 중앙미술학원)에 출품
- 1998년 《충청지역정부소장 미술품특별전-중원미술의향기》(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9~2000년 단국대학교 예술대 미술학부 학부장 /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역임
- 2007년 《21세기 안전회화 정신전》(서울, 경향갤러리)에 참여
- 2013년 《한국화 한지 민예품전-전통 등, 부채展》(공주문화원)에 참여
- 2014년 《양평-오늘, 한국미술의 동향》(양평군립미술관)에 참여

## 박승배 (朴勝培, 1941~ )

호는 송산(松山)·안석(安石). 박승배는 1941년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출생하여 한학자였던 백부(伯父)의 권유로 이웃 한문서당에 나가 천자문, 동몽선습, 소학 등을 배우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청년기에는 문인이면서 서예에 조예가 깊었던 조달순(趙達淳)을 사사하여 서예를 익히다가 30대에 접어들자 송성용을 사사하였다. 성실하고 꾸준히 공부하며 격이 높은 글씨를 쓰는 득의제자(得意弟子)의 한 사람으로 송성용의 촉망을 받았다.

1979년 대전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이름을 딴 ‘송산서예원’을 개원하여 36년째 운영하며 후학 양성과 새로운 서체 연구에 매진해 왔다.

1982년 《제1회 미술대전》 한문서예부분에 입선을 시작으로 1985년 《제4회 미술대전》에서 예서(隸書)인 〈설봉궁사시(薛逢宮詞詩)〉, 1988년 《제7회 미술대전》에서는 초서(草書)인 〈양촌선생시(陽村先生詩)〉로 특선을 수상했다. 특히 ‘행서와 초서에서 독자적인 경지를 이룩했다’고 평가받았다.<sup>1</sup>

박승배는 1992년 서예대전 단일화 선언대회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미술협회(美協)’로부터 한국서단의 독립을 위해 ‘한국 서단 화합추진 위원회’를 설립하였다.<sup>2</sup> 이와 같은 시도는 작품 선정 과정에서 서단의 인맥과 학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 1997년 개최된 《세계 서예 전복 비엔날레》에는 작품성만으로 선정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sup>3</sup> 2018년 ‘서도 60년’을 기념한 《송산 박승배 서전(書展)》을 개최했다.



박승배, 〈백락천구(白樂天句)〉, 1999, 30×136cm(2)  
(출처: 『송산박승배』, 한림갤러리, 1999)

1 「목향과 함께 한 서예 외길, 서체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 『스포츠서울』(2015. 3. 4).

2 “‘미협으로부터 서예부문의 독립’, ‘양분된 서단의 통합’, ‘서예대전의 단일화’, ‘서단 운영의 민주화’ 등을 당면과제로 결의하며 각기 나뉘어 있는 한국서예 단체를 통합하여 화합의 길을 모색했다.” 『서예(書藝) 단체 통합 박차』, 『매일경제』(1992. 2. 21).

3 「전북 ‘세계 서예비엔날레’ 창설」, 『경향신문』(1997. 1. 13).



송성용에게 배운 탄탄한 기본기와 필력을 바탕으로 박승배는 전서·예서·행서·해서·초서 등 오체를 두루 섭렵하며 다양한 운필법을 구사했다. 특히 박승배의 초서와 행서는 조형미가 탁월하고 필선이 유려하며 품격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서예평론가 김병기는 “그의 서체는 부드러우면서도 골기(骨氣)가 충만하다”며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나 옥과 같은 글씨가 아니라 너럭바위와 같은 장독대 위에 실팍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무겁게 앉아있는 옹기 항아리 같은 글씨”라고 평가했다.<sup>4</sup>

## 연보

- 1941년 전라남도 무안군 출생
- 1979년 대전으로 이사, 송산서예원 개원
- 1982년 《제1회 미술대전》한문서예부에 입선
- 1984년 《제3회 미술대전》에 입선
- 1985년 《제4회 미술대전》〈설봉궁사시(薛逢宮詞詩) 특선
- 1986년 《제5회 미술대전》에 입선
- 1987년 《제6회 미술대전》에 입선
- 1988년 《제7회 미술대전》〈양촌선생시(陽村先生詩)〉 특선
- 1989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선정
- 1991년 《제1회 개인전》(대전, MBC문화공간) 개최
- 1992년 ‘서예대전 단일화 선언대회’에 부위원장으로 참여
- 1997~2007년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 창설, 초대작가로 참가
- 1998년 《목향 30년》 연목회 기념전 참여
- 1999년 《제2회 개인전》(대전, 한림갤러리 / 서울, 백악예원) 개최
- 2003년 《제3회 개인전》(대전, 한림갤러리) 개최
- 2015년 《송산 박승배 회수기념전》(대전갤러리) 개최
- 2018년 서도60주년 기념 《송산 박승배 서전(書展)》(대전중구문화원) 개최

<sup>4</sup> 김효숙, 「서예가 송산 박승배 선생 고회전」, 『대전일보』(2018. 11. 20).

## 박영숙 (朴英淑, 1941~ )

1941년 충청북도 진천에서 박일동(朴一東)과 유육남(柳六男)의 3남 5녀 중 첫째로 출생한 박영숙은 1956년 **대전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1959년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였으며 대학 2학년 때 황규태, 정범태 등과 함께 아마추어 사진 동호회 '살롱 아루스(Salon Ars)'를 창립했다. 4학년 때는 숙명여자대학교 사진동아리 '숙미회(淑美會)'를 결성하여 초대 회장을 맡았다.<sup>1</sup> 1962년 《신인예술상 사진진시회》에 〈설목〉을 출품하여 공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98년에는 '한국여성사진가협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지냈다. 2005년 페미니스트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고정희상'을, 2020년 제32회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하였다.



박영숙, 〈미친년 프로젝트-미친년들 #7〉, 1999, C-Print, 150×120cm, 국립현대미술관

1980년대 말 민중계 페미니스트로 등단한 이래 오늘날까지 실천적·의식적 페미니스트로 '사진'과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고유의 작품세계로 구축해나갔다. 그 시작은 《여성의 해》 기념전과 여성미술전시 《우리 붓물을 트자: 여성 해방 시와 그림의 만남》(1988)이었다. 이 전시를 통해 여성주의적 관점을 본격화시켰으며, 1999년부터 제1회 여성 미술제 《팔쥐들의 행진》의 운영위원 및 참여 작가로 활동하면서 《미친년 프로젝트》(1999) 연작을 7년간 진행하였다. 《미친년 프로젝트》 작업은 언론계에서 억울하게 해고당한 작가 개인의 경험을 담은 작품으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가 속박해온 '여성'에 대한 관념들을 전복시키는 효과를 자아냈다. 박영숙은 “《미친년 프로젝트》는 이러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억압당하며 살다 간 옛 여인들을, 그리고 여전히 미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여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들의 몸짓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몸 언어의 시각화가 필요했다”라고 회고하였다.<sup>2</sup>

이후 《간힌 몸 정처 없는 마음》(2002), 《화폐 개혁 프로젝트》(2003), 《헤이리 여신 우마드

<sup>1</sup> 이 글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 사업에 수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숙미회'는 당시 여자대학으로서 독보적이었으며 이후 사진 분야의 여성 전문가를 배출하는 중요한 산파 역할을 맡았다.

<sup>2</sup> 박영숙, 『Mad Women Project』(경기문화재단, 2009).

(WOMAD)-21세기 여신들》(2004)등 여성의 성 역할과 성 정체성을 시각화 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외에도 《레즈비언 결혼식》(2003), 《무슈버터플라이》(2003), 《오사카와 동경의 페미니스트》(2004) 등 당시 사회적으로 터부시되었던 젠더 이슈, 아시아 여성의 문화적 성 역할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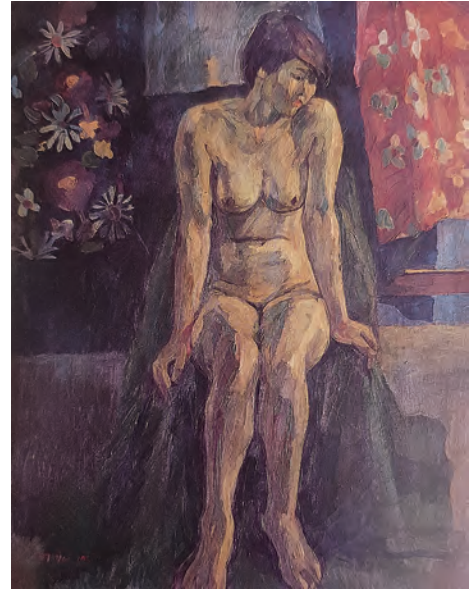
한국 페미니즘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사진작가로 알려진 박영숙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진전문 갤러리 ‘트링크’를 열어 신진작가 발굴에 힘쓴 기획자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사진작가, 기획자, 페미니스트 활동가, 강연자, 기고가 등으로 활동하며 페미니스트 1세대 작가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다.

## 연보

- 1941년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에서 출생
- 1956~1959년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1959~1963년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 1960년 황규태, 정범태 등과 함께 아마추어 사진 동호회 ‘살롱 아루스(Salon Ars)’ 창립
- 1962년 ‘숙미회(淑美會)’ 조직 / 《제1회 숙미회전》(서울, 중앙공보관) 개최  
《신인예술상 사진전시회》에 〈설목〉으로 공보부장관상 수상
- 1966년 한국 여류사진작가 최초로 《박영숙 소품전》(서울, 중앙공보관) 개최
- 1981년 《36인의 포트레이트》(서울, 공간사랑 갤러리)에 참여
- 1988년 《우리 붓물을 트자: 여성 해방 시와 그림의 만남》(서울, 그림마당 민)에 참여
- 1989~1992년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포토저널리즘 강의 / 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에서 사진학 강의
- 1992년 《여성과 현실》(그림마당 민)에 윤석남과 합작한 〈자화상〉 출판
- 1998~2003년 ‘한국여성사진가협회’ 창립, 초대회장 역임
- 1999년 서울사진대전, 《사진은 우리를 바라본다》(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팔쥐들의 행진》(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2002년 《광주비엔날레 ‘멈춤. 止. PAUSE’-제3프로젝트》에 〈미친년 프로젝트 2001〉과 〈간헐 몸 정 처없는 마음〉 출판  
《제2회 여성미술제: 동아시아 여성과 역사》에 〈흐름을 여행하는 힘〉 출판
- 2004년 《Borderline Cases-Women On The Borderlines》(일본, 동경)에 참여
- 2005년 ‘고정희상’(페미니스트 예술가상) 수상 / 《미친년 프로젝트》(서울, 성곡미술관) 개최
- 2006년 《미친년 프로젝트 Mad Women Project》(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개최
- 2008년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국립현대미술관)에서 〈36명의 포트레이트〉 발표
- 2010년 《Cry Crack Crazy 미친년 프로젝트 Mad Women Project》(서울, 고은사진미술관) 개최
- 2014년 《‘86~’88 : 한국 다원주의 미술의 기원》(서울, 소마미술관)에 참여
- 2020년 제32회 이중섭미술상 수상

## 유재일 (俞財一, 1941~ )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난 유재일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고 1966년과 1967년 국전에 입선했다. 1973년 《제20회 한국미협 충남지부 회원 작품전》에 참가했으며, 1973년에 개관한 산강화랑의 《제1회 초대전》(구상부문)에 김철호, 이인영 등과 함께 참여했다.<sup>1</sup> 1969년부터 서울 동부여자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5년간 근무하다가 1974년 대전 성모여자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하면서 대전에 정착했다. 대전예술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1979년 대전 지역 구상미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립된 '이사회'의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1981년 대전 신신화랑에서 《유화 개인전》을 가졌다.<sup>2</sup> 《계룡8경 선정기념전》, 《목우회 회원전》, 《전업작가 위상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991년에는 'MBC 주최 아름다운 금강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듬해 대전시민회관에서 대상 수상 작가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환기의 제자인 유재일은 2016년 '김환기 국제미술제전-남풍'에서 홍익대학교 제자들 프로젝트 《홍익인간전》에 참가했다.



유재일, 〈실기실의 O양〉, 1967, 캔버스에 유채, 116.8 × 91cm(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1960~1970년대 초기작은 데생 실력을 바탕으로 정물과 인물을 소재로 한 구상회화를 주로 제작했다. 1967년 작품인 〈실기실의 O양〉은 《목우회 공모전》에 출품해 '광신화학 사장상'을 수상한 작품이다.<sup>3</sup> 거친 붓질로 대상을 파악하면서도 여성의 누드 양쪽으로 드리워진 커튼에 장식적인 문양을 첨가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지역의 강과 호수풍경을 밝은 색채로 담은 풍경화를 많이 창작했다. 1990년대에는 반복적인 짧은 붓 터치와 파스텔 색조를 드러내는 채색기법을 사용해 점묘화 같은 느낌을 주는 풍경화를 제작했다. 2000년 미술교육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1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 대전미술의 새물결』(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2013), p. 62.

2 『광자진취狂者進取 : 대전미술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2020), p. 161.

3 『충남근현대미술사: 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 98.

## 연보

- 1941년 서울 출생
- 196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입학
- 1966·1967년 국전 2회 연속 입선
- 1967년 목우회 공모전에서 광신화학 사장상 수상
- 1969~1973년 서울동부여중 미술교사로 재직
- 1973년 《제1회 산강화랑 초대전》(구상부문)에 참여
- 1974년 대전 성모여고 교사로 부임
- 1981년 《유재일 유화전》(대전, 신신화랑) 개최
- 1983년 《충남의 자연진 창립전》(대전, 신신화랑)에 참여
- 1985년 《목우회 회원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1년 MBC 문화방송 ‘아름다운 금강 공모전’ 대상 수상
- 1992년 《아름다운 금강전 대상 작가 개인전》(대전시민회관) 개최
- 2000년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 수훈
- 2003년 《히말라야, 네팔 여행전》 개최
- 2004년 《계룡 8경 선정 기념전》에 참여
- 2005년 《전업작가 위상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9년 《서구문화원 초대전》(대전서구문화원)에 출품
- 2011년 《안전미술 모색전》(대전, 아트존)에 출품
- 2012년 《홍익대학 61학번 동문전》(충주문화원)에 출품
- 2013년 《대전 중구문화원 60주년 기념 초대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 2016년 《김환기 국제미술제전-남풍》의 홍익대학교 제자들 프로젝트 《홍익인간전》(서울, 갤러리 이양)에 참여
- 2019년 《3·1 운동 100주년 기념 100인 전시회》(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 이철주(李澈周, 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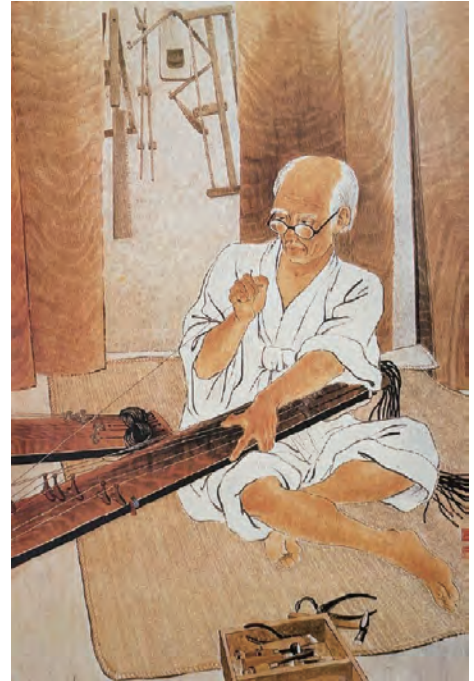
호는 일초(逸初). 1941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출생해 예산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대전고등학교에 진학해 미술반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sup>1</sup> 이철주는 196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며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에 들어섰다.

서울대학교 재학 중 《신인예술전》에서 특상을 받았으며, 1974년 《제23회 국전》에서 〈명장(名匠)〉으로 국무총리상, 1976년과 1977년 연이어 〈영일(寧日)〉과 〈모운(暮韻)〉으로 문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982년과 1992년 두 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1988년부터 중앙대학교 한국화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6년부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이철주의 작품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명장(名匠)〉과 같이 전통문화를 계승한 명장이나 예술인, 〈영일(寧日)〉·〈모운(暮韻)〉에 보이는 서민들의 생활상, 〈서울역〉·〈종로 풍경〉·〈부두〉와 같이 개발과 건설이 한창인 도시의 모습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 작품들은 현실에 밀착된 소재로 동시대의 현장을 기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철주는 《제23회 국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명장〉의 제작 배경에 대해 “사라져 가는 인간문화재와 도시화에 파묻힌 향토미를 화폭에라도 담아두고 싶어 작품화 했다”고 설명했다.<sup>2</sup> 현실을 취재하는 카메라맨처럼 이철주는 현실 깊숙이 파고드는 소재에 천착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사실성에 뿌리를 둔 수묵담채의 인물화에서 벗어나 ‘우주’라는 상상의 세계를 그리면서 비구상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1992년 금호미술관에서 개최한 《이철주 초대전》은 구상에서 추상으로의 전환과정을 보여주는 전시였다. 가장 큰 변화는 현실의 재현이나 현상의 모방이 사라지고, 상상에 의한 심상(心象)의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또한 정형화되지 않은 필선의 율동은 지금까지 이철주가 보여주었던 단정하고 예리한 필선에서 일탈



이철주, 〈명장(名匠)〉, 1974, 한지에 수묵채색, 163×112cm, 《제23회 국전》 국무총리상 수상작(출처: 『이철주』, 고희출판사, 2004)

1 송희경, 「일초 이철주(逸初 李澈周, 1941-)의 한국화」, 『한국문화연구』 32(이화여자대학교, 2017), p. 113.

2 「전통미 재창조 집념대단 국무총리상 이철주씨」, 『경향신문』(1974. 9. 24).



이철주, <무제>, 2005, 한지에 수묵채색, 100×100cm  
(출처: 『LEE, CHEOL JOO』, 연미술, 2007)

한 전혀 다른 세계를 보여주었다.<sup>3</sup>

1989년 작 <세월>을 시작으로 추상화를 시도한 이철주는 ‘획(劃)’에서 파생된 문자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면회화 양식을 추구하거나 같은 도형의 셀을 재조합하는 《우주로부터》 연작을 제작했다.

2001년 금호미술관 기획 초대로 열린 《이철주展》에서 이철주는 또 한 번의 변화를 시도했다. 표현은 단순화되고, 필선은 더욱 절제되었으며 화려한 색상은 흑백으로 수렴되고, 물상은 사라졌다. 작품의 제목 역시 ‘무제’, ‘소우주’로 좁혀졌다. 이는 표제에 의해 작품의 가치가 달라져 그

진면목이 드러나지 못함을 경계한 것이다.<sup>4</sup>

이처럼 이철주의 작품세계는 크게 일상의 세계를 모티브로 현실을 반영한 작품과 선과 면 같은 조형적 요소를 통한 추상회화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철주의 작품은 양식적으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통을 지키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한 여러 방법론을 모색했던 현대 한국화의 복합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sup>5</sup>

## 연보

- 1941년 충청남도 청양 출생
- 196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66년 《신인예술전》 최고 특상 수상
- 196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동양화) 졸업
- 1974년 《제23회 국전》에서 <명장(名匠)>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 1976년 《제25회 국전》에서 <영일(寧日)>로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 1977년 《제26회 국전》에서 <모운(暮韻)>으로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 1975년 《한국현대동양화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5~1988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 1976년 《동양화중견작가 21인전》(서울, 동산방화랑)에 참여
- 1978년 《15인초대전》(서울, 동산방화랑)에 참여

3 김백균, 「획을 통한 회화의 이상 추구와 자유 실현」, 『LEE, CHEOL JOO』(연미술, 2007), pp. 7~8.

4 김백균, 위의 글, p. 7.

5 송희경, 위의 글, p. 109.

- 1979년 《한국현대서화가전》(대만역사박물관)에 참여  
《오늘의 방법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세종대학교 교수로 재직
- 1981년 《한국현대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2년 《제1회 개인전》(서울, 동산방화랑) 개최
- 1984년 《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85년 《한국현대서화전》(대만역사박물관)에 출품
- 1986년 《동방연서회 파리서화전》(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 출품  
《한국화100년전》(용인, 호암미술관)에 참여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7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8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
- 1990년 《예술의전당 개관기념초대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2년 제2회 개인전 《이철주 초대전》(서울, 금호미술관) 개최
- 1994년 《서울국제 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5년 《한· 중미술교류전》(북경)에 출품
- 1996년 《도시와 미술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1년 《21C현대한국미술의 여정》(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금호미술관 기획초대 《이철주展》(서울, 금호미술관) 개최
- 2003년 《한국현대미술의 오늘》(조선대학교미술관)에 참여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04년 《현대미술전》(이탈리아 로마, 대한민국 대사관)에 참여  
《금강미술대전 특별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5년 예총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북경비엔날레》(북경)에 참여
- 2006년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옥조근정훈장 수상  
《한· 중 현대미술전》(서울, 금호미술관)에 출품
- 2007년 《제7회 개인전》(서울, 금호미술관) 개최  
개인전 《꽃은 아름다워》(미국 LA, 갤러리 웨스트) 개최
- 2011년 《셀프카메라: 근대적 자아 자리 바꿔보기》(창원성산아트홀)에 참여
- 2012년 《꿈, 몽유도원도 무계정사 문화축제》(서울, 자하미술관)에 참여
- 2016년 《이천시 한국화 프로젝트전 '접점'》(이천아트홀)에 참여
- 2018년 《유유산수, 서울을 노닐다》(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2021년 《이철주 기증 작품전, 꽃보다 아름다워라》(서울, 동덕여자대학교박물관) 개최



## 황만영 (黃滿泳, 1941~2015)



황만영, 〈청머래〉, 2005, 닥종이에 채색, 75×101.5cm, 대전시립미술관

호는 석정(石庭). 1941년 인천 송림동에서 출생한 황만영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1975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약 10년간 인하대학교, 배재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다가 1985년부터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수차례의 개인전과 《아시아현대미술전》, 《국제조형미술협(IAA)서울전》과 같은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국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1979년 제18회 경기도문화상을 수상했다.

황만영의 초기 작품은 《제10회 국전》 입선작인 〈정박(停舶)〉처럼 주로 사생을 바탕으로 건물이나 인체를 묘사한 것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앵포르멜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형식과 참된 가치를 부여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해 1980년대 접어들면서 일관되게 ‘화훼(花卉)’를 소재로 독자적인 양식을 정립해나갔다. 먹과 담채를 사용한 전통 선화나 문인화풍의 ‘화훼화’와 달리 다양한 색을 사용한 단일한 화훼가 화면 전체에 마치 문양처럼 차지하는 회화를 창출했다.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망개’와 같은 넝쿨식물을 소재로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색과 형태로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담아왔는데, 〈청머래〉는 특유의 사의성과 사실성을 잘 보여주는 수목담채화다. 소밀(疏密)의 집합을 이루는 꽃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여백을 적절히 배치해 운치가 있다.<sup>1</sup>

이와 같은 ‘화훼화’는 옛 필법을 계승했다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적 정서에 기초한 모색에서 얻어진 것으로, 조평휘는 황만영을 “어떤 유행에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자기세계를 일관되게 지켜오는 작가”라고 소개하며 “동양화의 생명인 선의 표현”을 황만영 작품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sup>2</sup>

1 황상희, 『황만영 작품전』(미술세계, 2006).

2 이경모, 「인천미술인-〈28〉 石庭 황만영」, 『인천일보』(2002. 1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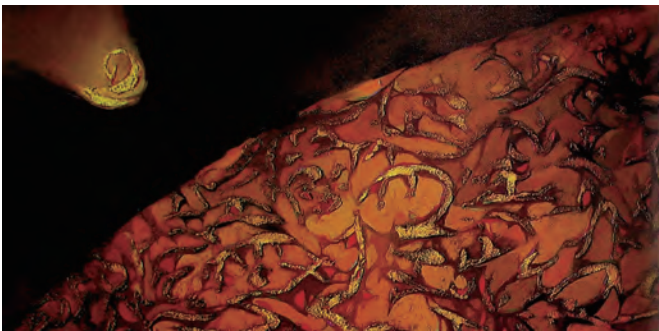
## 연보

- 1941년 인천 송림동 출생
  - 1959년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1959~1963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61년 《제10회 국전》에 〈정박〉 입선
  - 1963년 《청토회 창립전》에 참여  
《경기미협전》(인천공보관)에 참여
  - 1971년 《개인전》(인천, 소월화랑) 개최
  - 1972년 《새마을 미전》(서울, 중앙공보관)에 참여
  - 1975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 졸업
  - 1977~1980년 한국미술협회 인천시지부 지부장 역임  
《제13회 한국미협전》 특별상 수상
  - 1978년 《아시아 현대미전》(일본, 도쿄도미술관)에 참여  
제14회 인천시민의 날 표창 수상
  - 1979년 문화상 《수상작가전》에 참여
  - 1980년 《인천 출신 교수작품전》에 출품
  - 1981년 《인천미술 30년전》(인천공보관)에 참여
  - 1981~1984년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출강
  - 1982년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전》(인천공보관)에 참여  
《개인전》(인천, 몽마르뜨화랑) 개최
  - 1982~1986년 《인천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 1985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  
《목원대학교 교수 작품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86년 《한국화 중견작가 초대전》(대전, 오원화랑)에 참여
  - 1989년 《대전 한국화회 창립전》(대전, MBC문화공간)에 참여
  - 1998년 《대전 공간 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9년 《한국 현대미술 100인 초대전》(서울, 종로갤러리)에 출품
  - 2003년 《한국·인도 현대미술 교류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2005년 《평화의 연그림 축제》(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출품
  - 2006년 《황만영전》(서울, 갤러리우림) 개최
  - 2008년 《대전현대미술100년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13년 한국·인도 수교 40주년 그림전시회 《형태의 정신(Spirit of Forms)》(인도 뉴델리 / 한국문화원)에 참여
  - 2015년 《대전미술의 모더니즘展》(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 참여
- 작고

## 김수평 (金水平, 1942~1989)

김수평은 1942년 대구시 대봉동에서 출생해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대구 대륜고등학교 교사로 1년간 근무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해 미술교육을 공부했고 대학원을 졸업하던 1970년 서울신문회관 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sup>1</sup> 1971년 청주사범대학교(현 서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전임강사로 부임한 후 이후 조교수로 재직했다. 청주사범대학교 재직 시절 마르크 샤갈(M. Chagall)과 칸딘스키(W. Kandinsky)의 작품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sup>2</sup> 1974년부터 1978년까지 **승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1976년 《제1회 승전대학 미술교육과 졸업전》을 이끌었다.<sup>3</sup> 저서 『조형의 원리』(1976)와 「창조적인 소묘력의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1976), 「조형예술 양식론」(1978) 등을 집필하며 작품 창작뿐만 아니라 이론적 토대를 함께 구축했다.

1980년대 빛의 화가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던 김수평은 1978년부터 1986년까지 승전대학교를 휴직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체류하며 독일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 미술대학교와 독일 기센(Giessen)대학교 객원교수, 오스트리아 현대미술관 객원연구원(미술관 정책담당)으로 재직했으며 오스트리아 빈(Wien) 대학교에서 미술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김수평은 서울과 도쿄, 브라운슈바이크, 기센, 빈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마닐라, 뉴욕, 시애틀, 빈, 마드리드 등에서 열렸던 다수의 국제전에도 참가했다. 8년간의 유럽(독일, 오스트리아) 체류 후 1986년 승전대학교 교수로 다시 복귀해 재직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여의 투병 끝에 만 47세로 생을 마감했다.<sup>4</sup>



김수평, <대림(Advent)>, 1985, 캔버스에 유채, 50×100cm(출처: 김신자, 『김수평과 그의 예술』, 1995, 예맥출판사)

김수평의 작품세계는 1970년대 중반 반추상의 시기를 거쳐, 1970년대 후반에는 ‘뿔나는 기법’을 활용한 순수추상을 시도했다. 1980년대 초반에는 화면에 칸을 나누고 뿌리는 창작 방식을 시도하면서 상징적인 조형 언어를 담아냈다. 독일

1 조재근, 「고 김수평, 또 다시 화가로 환생 꿈꾼 영원한 청년(책: 조형예술과 시대정신)」, 『교수신문』(2020. 8. 20).

2 김신자, 『김수평과 그의 예술』(1995, 예맥출판사), p. 195.

3 『대전미술 어제와 오늘』(한국미협 대전시지회, 1995), p. 49.

4 서종철, 「김수평 예술세계 한눈에」, 『매일신문』(1995. 12. 21).

에서 활동했던 당시 유럽의 평론가들은 동양 철학의 지혜와 그리스도교 신앙의 세계가 놀라운 기교로 형상화되었다고 평가했다.<sup>5</sup>

## 연보

- 1942년 대구 남구 대봉동 출생
- 1961년 대구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6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회화과 졸업
- 1968년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입학
- 1970년 《제1회 개인전》(서울, 신문회관) 개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졸업
- 1970~1971년 서울 금란여고 교사로 근무
- 1971~1974년 청주사범대학교(현 서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전임강사 및 조교수로 재직
- 1971년 《시애틀 국제전》에 출품
- 1972년 「마르크 샤갈(M. Chagall)의 작품세계」(청주사대 논문집) 게재
- 1973년 「칸딘스키(W. Kandinsky)의 작품세계」(청주사대 논문집) 게재
- 1974~1978년 송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교수 및 미술교육학과 주임교수로 재직
- 1976년 《제2회 개인전》(서울, 그로리치 화랑) 개최 / 저서 『조형의 원리』 출간  
「창조적인 소묘력의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7집에 게재
- 1978년 《제3회 개인전》(서울, 그로리치 화랑) 개최
- 1978~1980년 독일 브라운슈바이크(Braunschweig) 미술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 1980년 《개인전》(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미술대학 화랑) 개최  
《개인전》(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그뤼네반트(Gruenewand) 화랑) 개최  
《개인전》(독일 브라운슈바이크, 필너 화랑) 개최
- 1981~1983년 독일 기센대학교 미술교육학 연구소 객원교수 역임
- 1983년 《개인전》(독일 기센, 오버하임 화랑) 개최
- 1984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 미술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 1985년 오스트리아 현대미술관 객원연구원 역임  
《개인전》(오스트리아 빈 시립미술관 분관) 개최
- 1986년 《개인전》(오스트리아, 특허청 전시관) 개최  
8월, 귀국 후 송전대학교 미술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 1987년 《개인전》(오스트리아 빈, 카톨릭문화회관) 개최
- 1988년 《뉴욕 국제작가 초대전》 참가
- 1989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투병하다가 10월 6일 작고

5 「미술은 시대의 거울」... 철학자, 예술을 말하다 (책을 읽읍시다)», 『파이낸셜뉴스』(2020. 12. 10).

## 박명규 (朴明奎, 1942~ )

1942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난 박명규는 1961년 공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때 스승이었던 최종대의 영향으로 미술에 입문했으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에 입학해 1965년 졸업했다. 1969년부터 1988년까지는 논산중학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조치원 여자중·고등학교, 충남중학교, 용전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1983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이후 1984년부터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출강했다.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한남대학교, 충남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지역대학의 미술교육자로서 큰 역할을 했다.

1964년 공주문화원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고 1973년 산강화랑, 1980년 대전시민회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며 대전·충남지역 추상회화의 확산과 보급에 기여했다. 1971년과 1973년 《충청남도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차지한 바 있으며, 1972년 ‘청미회’의 창립멤버로 활약했다. 또한 1976년 ‘대전 구상 현장에 새로운 물결을 넣어보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되었던 ‘르뽀동인회’의 창립멤버였다.<sup>1</sup>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대전지부장, 한국 조형미술협회 이사장,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고문, 남부현대미술협회 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 제10대 회장으로 활약했다. 2018년까지 9번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화가인 부인 이명자와 함께 6번의 부부전을 열었다.<sup>2</sup> 수상경력으로는 제1회 대전광역시 예술부문 문화상(1989),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상(2003), 한국전업미술 공로상(2009), 대전예술가의 상(2010) 등이 있다.

초기 작품들은 1960년대 《녹색추상》 연작에 이어 1970년대 기하 도형을 등장시킨 추상의



박명규, 〈Red and Blue〉, 1974, 캔버스에 유채, 각 72.7×60.6cm, 대전시립미술관

세계를 보여주었다. 〈Red and Blue〉는 세 개의 캔버스에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채색한 기하학적인 도형들로 구성된 작품이다. 1980년대에는 15년간 《똥속의 靈》 연작을 제

1 1975년 창립해 1990년까지 15회의 전시를 개최했던 ‘르뽀동인회’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책 참조.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 기프트, 2009), p. 57.

2 박명규가 홍익대학교에 재학했던 당시는 회화과가 구상반과 추상반 전공으로 나뉘었는데, 그는 추상반이었고 그의 아내 이명자는 구상반으로 이후에도 박명규는 추상작품을 이명자는 구상작품을 선보였다. 『충남근현대미술사: 제2편 미술사』(충남문화재단, 2016), p. 93.

작했다.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진 이 시리즈는 화면에 한지를 발라서 겹겹이 올리고 그 위에 일정한 찢기와 뚫기를 반복해 적·청·황의 색채들이 바탕에서 스며 나오도록 하는 작업이었다.<sup>3</sup>



박명규, 《새천년의 축제》, 2000, 캔버스에 유채, 162×391cm, 대전시립미술관

2000년대에 들어서는 《기쁨과 슬픔의 祭》 연작과 더불어, 색점과 기하 도형을 재등장시킨 《한국의 얼》 연작을 선보였다.<sup>4</sup> 2014년 대전 LH 아트갤러리에서 가졌던 개인전에서는 태극문양이나 혼례복의 화려한 색채가 드러난 소품들을 전시했다.<sup>5</sup> 2018년 대전중구문화원에서 열렸던 부부전에서도 《한국의 얼》 연작을 통해 유동적인 색 점과 기하학적 패턴을 활용해 ‘한국의 혼’을 이미지로 구현한 작품들을 보여주었다.<sup>6</sup> 박명규는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로운 붓질이 두드러진 추상작품을 꾸준히 창작하고 있으며, 대전·충남 지역의 추상화 1세대로 평가받는다.

## 연보

- 1942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62~1963년 《신상전》 및 《신인예술전》에 출품
- 1964년 《제1회 개인전》(공주문화원) 개최
- 1965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 1969~1988년 논산중학교, 충남기계공고, 조치원여자중학교, 충남중학교, 용전중학교 교사로 근무
- 1972년 ‘청미회’ 창립에 참여
- 1972~1973년 《충청남도미술전람회》에 참여하여 특선 2회 수상
- 1973년 《제3회 충청남도미술대전》에서 예총지부장상 수상  
《제1회 부부전》(대전, 산강화랑) 개최
- 1975년 부터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충남대 출강
- 1975~1990년 ‘르뽀동인회’ 창립 및 초대회장 역임
- 1976년 《대전추상작가 구상전》(대전, 홍명미술관)에 출품
- 1980년 《제2회 부부전》(대전시민회관) 개최
- 1983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3 「미술가의 삶과 예술」, 『박명규작품전』(서울 조형갤러리·대전 롯데화랑, 2000) 도록 서문.

4 임동식, 「박명규의 그림에 대한 사춘기와 후기사춘기-회춘」, 『박명규 화집』(오늘의문학사, 2009).

5 김민영, 「캔버스에서 만난 동양과 서양」, 『중도일보』(2014. 10. 29).

6 임효인, 「(공연전시) 박명규·이명자 부부 개인전」, 『중도일보』(2018. 1. 11).

- 1986년 《제2회 개인전》(대전, 영상화랑) 개최
- 1986년 《제3회 부부전》(대전, 쌍인미술관) 개최
- 1987년 《제23회 아시아현대미술전》(일본 도쿄)에 출품
- 1987년 《제4회 부부전》(서울, 서울갤러리) 개최
- 1988년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장 역임
- 1989년 ‘제1회 대전광역시 문화상’ 수상
- 1991년 《제5회 부부전》(대전, MBC문화공간) 개최
- 1993년 《제3회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개최
- 1996년 《한국현대미술의 모색전》(미국 뉴저지, 르네상스갤러리)에 출품
- 1998년 《대전·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0년 개인전 《박명규작품전-기쁨과 슬픔의 祭 시리즈》(서울, 조형갤러리 / 대전, 롯데화랑) 개최
- 2003년 《제6회 부부전》(대전, 현대갤러리) 개최
- 2003년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 2003년 한국미술협회 초대지회장 추대
- 2007년 《제6회 개인전》(대전, 굿모닝갤러리) 개최
- 2009년 《제7회 개인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 개최
- 2009년 한국전업미술 공로상 수상
- 2010년 ‘대전예술가의 상’ 수상
- 2014년 《제8회 개인전》(대전, LH아트갤러리) 개최
- 2018년 《제9회 개인전》(대전, 중구문화원) 개최

## 성창경 (成昌慶, 1942~ )

호는 소원(小園). 1942년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증왕리에서 태어난 성창경은 1967년 서라벌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1978년 동아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 ‘현대화회(現代畫會)’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원 초청 교환교수로 재직했으며, 1996년부터 1999년까지는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장을 역임했다.

서라벌예술대학 재학시절 《제15회 국전》에 〈언덕〉으로 첫 입선을 하였으며, 이후 〈작품74〉, 〈작품75(Ⅰ)〉으로 연속 입선했다. 1976년 《제25회 국전》에서 〈작품76-2〉를 출품하여 문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성창경의 초기 작품은 평범한 야산과 들을 수묵담채로 그린 산수화가 주를 이룬다. 《제15회 국전》에서 입선한 〈언덕〉과 1967년 작인 〈노포동 풍경(부산)〉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들이다. 특히 〈노포동 풍경(부산)〉은 3m가 넘는 횡폭의 병풍에 섬세한 필치로 농가와 밭 등 가을 풍경을 담채로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8년 뒤인 1974년 《제23회 국전》에 입상한 〈작품74〉는 제목에서 추상성을 감지할 수 있듯이 ‘동양화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추상성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작품을 제작했다.<sup>1</sup> 이 시기 성창경은 ‘현대화회’에 참여하여 동양화의 근간을 이루는 화선지 대신 장판지나 캔버스, 또는 갈대, 동전, 돛자리를 이용한 파격적인 작품들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실험정신은 성창경의 《문》



성창경, 〈노포동 풍경(부산)〉, 1967, 120×345cm(출처: 『小園 成昌慶』, 미술과 비평, 2021)

1 『30대 동양화가 현대화회 창립전, “추상 토대 현대 감각 살려”』, 『경향신문』(1974. 6. 26).





성창경, 〈Door94-V〉, 2002, 70×68cm(출처: 『2002 INDIA-KOREA Contemporary Art Exhibition』 팸플릿 수록작)

시리즈로 자연스럽게 발전되었다.

《문》시리즈는 전통 한옥의 문고리와 낡은 문살을 오브제로 우리 문화와 삶의 방식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작가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화의 새로운 조형세계를 개척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지의 유연성과 쇠로 만든 문고리를 대비시켜 이질감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물질적인 상호 갈등은 문 창살의 중성적 촉감으로 인해 해소된다. 성창경은 《문》시리즈 제작을 위해 2년 정도 부식시킨 문고리와 직접 짠 문창살을 사용한다. 이는 하나의 작품을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뜻이며 다작

(多作)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성창경은 《문》시리즈를 통해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나무 창살이 서로 얽혀 하나의 튼튼한 문이 되듯 개개인보다는 서로 함께 사는 공동체 삶을 중시했던 우리 조상들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자 했다.<sup>2</sup>

2003년 취용예술관 고문을 역임하였고, 2004년 사단법인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자문위원, 한국미술협회 회원을 역임했다.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2021년에는 성창경의 60년 화업을 정리한 화집을 발간했다.<sup>3</sup>

## 연보

- 1942년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출생
- 1966년 《제15회 국전》에 〈언덕〉 입선
- 1967년 서라벌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제1회 개인전》(서산문화원) 개최
- 1974년 《현대회화(現代畵會) 창립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제23회 국전》에 〈작품74〉 입선
- 1975년 《제23회 국전》에 〈작품75( I )〉 입선  
《제2회 개인전》(부산, 탐미술관) 개최
- 1976년 《제25회 국전》에 〈작품76-2〉 문공부장관상 수상
- 1978년 《제3회 개인전》(부산, 국제화랑) 개최

<sup>2</sup> 신정희, 「20년간 문 시리즈 작업 화가, 성창경씨 전통적 문창살이 작품 소재」, 『매일경제』(1992. 1. 25).

<sup>3</sup> 성창경, 『소원 성창경』(미술과비평, 2021).

- 1978년 동아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부임
- 1987년 제2회 안건미술문화상 수상
- 1988년 《제4회 개인전》(서울, 경인미술관) 개최
- 1990년 《제5회 성장경 초대전》(피테연구소미술관) 개최
- 1998년 한국화 《새모습전》(유갤러리)에 참여  
《'98 조형작가 23인의 초대전》(경기도 양평, 갤러리 아지오)에 참여  
《유럽스케치전-월간아트코리아 창간1주년 기념전》(운현궁미술관)에 참여
- 1999년 《Kunst Aus Korea》(독일 베를린)에 참여
- 2000년 《프로아트전》(서울, 백상기념관)에 참여
- 2001~2003년 《동양화 새천년전》(서울, 공평아트센터)에 참여
- 2002년 《대한민국회화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역임  
《INDIA-KOREA Contemporary Art Exhibition》에 참여  
《성장경 작품전》(서울, 마로니에미술관) 개최  
《21세기 한국화가 초대전》(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출품  
《한국현대미술 독일초대전》(독일 뒤셀도르프, 주정부시문화원)에 참여
- 2003년 《한·인 국제현대미술교류전》(서울, 세종문화예술회관별관)에 참여  
취용예술관 고문 역임
- 2004년 《제7회 초대 개인전》(서산문화회관) 개최
- 2004~2005년 (사단) 국가보훈문화예술협회 자문위원 역임
- 2005년 《제8회 초대개인전》(독일, 볼프스부르크성) 개최
- 2007년 녹조근정훈장 수상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명예교수
- 2008년 《한국현대회화 2008》(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09년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15년 '미술과 비평' 주최 《ACAF 2016》(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21년 『소원 성장경』(미술과 비평) 발간

## 신동주(申東柱, 1942~2006)



신동주, 〈현상계+관계〉, 1995, 캔버스에 유채·석분, 116.5×90.5cm, 대전시립미술관

1942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난 신동주는 196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sup>1</sup> 1972년 정의여고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고 1991년 유성중학교를 마지막으로 교직을 떠났다. 1973년 비구상계열 홍익대 출신 화가들이 모여 대전 산강화랑에서 《서양화 12인전》을 열었을 때 참여했으며, 1974년 《충남미술대전》에서 예총지부장상을 수상했다. 이후 1998년까지 한국미협 대전지부 전시에 연속 출품했다.

1976년 권영우, 박명규, 유근영, 박봉춘과 함께 ‘르뽀동인회’ 창립에 참여했다. 1979년 《충남미술대전》에서 교육감상을 받았으며, 1980년 한국미협 대전지부 제7대 회장을 맡았고 그 해에 대전문화원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2006년 타계하기 전까지

90여 회의 각종 단체전에 참여했고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심사위원·운영위원도 역임했다.

신동주는 재료가 갖는 농촌의 향토적 이미지와 색감이 갖는 도시의 이지적인 화려함을 한 화면 위에서 조화롭게 구성하고자 했다.<sup>2</sup> 1980년 첫 번째 개인전에서는 벌이나 파리 등이 곤충을 소재로 한 극사실주의 화풍을 선보였고, 1983년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사물을 묘사하고 그 사물을 지워나가는 기법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에는 《현상계+관계》 연작을 통해 시각적 효과와 촉각적인 효과가 대립하는 지점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화면에 표현된 마티에르는 유년 시절에 체득했던 흙과 고향의 이미지를 추구한 것으로, 이 연작에서는 추상과 구상의 두 가지 상반된 요소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sup>3</sup>

2000년대는 전설과 신화를 이미지로 형상화했던 시기로, 2001년 개인전에서는 《신화기행》 연작을 통해 민족 정서를 화폭에 담았다. 이 연작들에서는 이전 시기에 보여주었던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풀어지면서 표면의 질감과 색이 비정형적인 형상으로 화면에 펼쳐졌다. 이후 신화

1 「작가의 산실-서양화가 신동주 화백」, 『중도일보』(2005. 8. 18).

2 「서양화가 신동주 10년만의 개인전」, 『중도일보』(1995. 10. 26).

3 조광석, 「현상계+관계」, 『申東柱』(현대화랑, 1995).

적인 표현에서 나아가 조선시대 화초당 무늬를 현대 감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이 작업은 작고한 다음 해인 2007년 유작전 《꽃의 신화전展》에서 다채로운 재료와 기법으로 표현된 꽃과 나비들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시도와 화풍 변화를 통해 개인전을 열 때 마다 실험적인 작품들을 선보였던 신동주는 대전·충남지역에서 추상회화가 정착·발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작가이다.

## 연보

- 1942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
- 196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73년 《12인전》(대전, 산강화랑)에 참여
- 1974년 《제1회 서울비엔날레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제4회 충남미술대전》예총지부장상 수상
- 1976년 《르뽀창립전》창립멤버로 참여
- 1980년 《서울방법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제1회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81년 《제1회 아시아 현대 미술제》(일본, 도쿄도미술관) 이사장상 수상
- 1982년 《대전'78세대·르뽀·19751225 연합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883년 《제2회 신동주 개인전》(대전, 공간사랑) 개최
- 1984년 대전 실험작가회 기획 《금일의 상황전》(대전, 반도화랑)에 출품
- 1987년 《오늘의 만남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88년 《충남 어제와 오늘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제4회 남부 현대 미술제》(전북예술회관)에 출품
- 1994~1998년 《현대미술 교류회전》에 출품
- 1995년 《제3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1996년 《화연전》(대전, 오원화랑) / 《대전미술 50년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 1997년 《동양타임월드 개관 초대전》(대전, 타임월드갤러리)에 출품
- 1998년 《한발미술의 오늘전》(대전시민회관) /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에 출품  
'문화의 날 행사 기념 충남도지사상' 수상
- 1999년 《제4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2001년 《제5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중견작가 초대전》(대전, 갤러리대덕)에 출품
- 2002년 《충남대 개교 50주년 기념전》에 출품
- 2003년 《대전 중구문화원 창립50주년 기념전》(대전 중구문화원)에 출품
- 2004년 《고 이동훈 화백 추모 20주기 기념전》(대전갤러리)에 출품
- 2005년 《대전시전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6년 《현대미술 교류협회전》(대전시청 전시실)에 출품  
10월 작고

## 신양섭 (申養燮, 1942~ )



신양섭, 〈하얀 추억〉, 1989, 캔버스에 유채·혼합재료, 130.3×162.0cm, 대전시립미술관

1942년 충청남도 서천에서 태어난 신양섭은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했다. 1962년 《제1회 신인예술상전》과 《제6회 현대작가초대공모전》에서 입선한 것을 시작으로, 1973년부터 1981년까지 국전에서 특선 4번과 입선 4번을 차지했다.<sup>1</sup> 1981년 《제30회 국전》에서 〈토착별곡〉으로 서양화 구상부문 대상을 받았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충남미술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 출강했다.

1971년 천안 아카데미다방에서 가졌던 첫 번째 개인전을 시작으로 꾸준히 전시를 열었으며, 2020년에는 노화랑에서 9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목우회 회원전》, 《현대미술초대전》, 《서울미술대전: 한국현대구상회화의 흐름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초기 작품들은 사실적 경향과 향토적 분위기가 느껴지며<sup>2</sup>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는 《하얀 추억》 연작을 집중적으로 선보였다. 이 연작을 통해 한국적인 흙의 정감을 표현하는 작업을 지속했으며, 초기의 사실주의적 표현보다는 화면의 색조와 재료 실험, 표면 효과를 강조한 작업에 몰두했다. 고향과 농촌, 농민의 정서를 표현한 신양섭의 작품들은 화면에 흐르는 기조가 흰색이어서 ‘순백의 화가’로 불린다.

2010년 개인전에서 보여준 《내 안의 풍경》 연작들은 물고기·사람·나무·새·산·집 등의 형상을 단순화해 얇은 천 조각으로 콜라주한 뒤 천 밑에서 색이 배어 나오도록 하는 기법을 구사했다.<sup>3</sup> 이 기법은 마치 흙벽의 푸근한 질감을 연상케 하며 시골의 담이나 부엌의 연기에 그을린 아궁이처럼 정감이 가득 찬 화면으로 구현되었다.<sup>4</sup> 2020년 개인전에서는 한지의 주재료인

1 국전에서 입선은 22, 23, 24, 26회에 수상했고, 특선은 27회부터 30회까지 연속으로 받았다.

2 《낮익은 해후: 충남 작가 소장전》(천안아라리오 갤러리, 2020. 10~2021. 4) 전시해설문 참조.

3 이광형, 「흰색으로 표현한 일상의 풍경 - 신양섭 화백 8년 만에 개인전」, 『국민일보』(2010. 6. 13).

4 오광수, 「내안의 풍경-신양섭의 근작에 대하여」, 『신양섭』(도서출판 노, 2010), p. 2.

다을 죽처럼 물에 개어 캔버스에 붙이거나 눌러 덮는 형식의 ‘다 그림’들을 선보였다. 다을 재료로 쓰게 된 계기는 유화물감을 두껍게 발라 작업했던 1980년대 그림에 모두 균열이 가 있는 것을 보고 난 뒤, 유화물감 대신 다죽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sup>5</sup> 이처럼 다죽에 색을 입혀 캔버스에 붙이는 기법을 활용해 단순하고 간결한 이미지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 연보

- 1942년 충청남도 서천 출생
- 1962년 공보부 주최 《제1회 신인예술상전》에 입선  
조선일보사 주최 《제6회 현대작가 초대공모전》에 입선
- 1970년 한국일보사 주최 《제2회 한국미술대상전》에 입선
- 1971년 《개인전》(천안, 아카데미다방) 개최
- 1973~1977년 22회-24회, 26회 국전에서 4번 입선
- 1977~1980년 충남미술가협회 부회장 역임
- 1978~1981년 27-30회 국전에서 특선 4번 수상
- 1981년 《제30회 국전》에서 대상 수상
- 1982년 천안시 문화상 수상 / 국전 추천작가로 추대  
《목우회 회원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3년 《국전 출신 작가회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 1984년 《유화 5인 초대전》(서울, 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7년 《한국서양화초대전》(서울, 서울신문사) / 《화랑미술제》(용인, 호암갤러리)에 출품
- 1988년 《한국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일본 북해도 목우회 초대전》(일본, 북해도립근대미술관)에 출품
- 1989년 《신양섭 작품전》(서울, 선화랑) 개최
- 1990년 《한국미술: 오늘의 상황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한미 9인전》(미국, 로스앤젤레스문화원) / 《한독 미술협회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1991년 《신양섭작품전》(서울, 인화랑) 개최
- 1994년 《서울 국제 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5년 《한국미술 50인 유네스코초대전》(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 출품
- 2002년 《신양섭 초대 개인전》(부산, 유나갤러리) 개최
- 2008년 《서울미술대전: 한국현대구상회화의 흐름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9년 《화가의 30년, 그 아름다운 변화》(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2010년 《개인전》(서울, 노화랑) 개최
- 2020년 《제9회 개인전》(서울, 노화랑) 개최

5 오현주, 「[시대잡인] “뺨고 또 뺨내니 뭐가 남더냐…허영고 퍼런 닥죽”」, 『이데일리』(2020. 2. 18).

## 이건용 (李健鏞, 1942~ )



이건용, 〈신체 드로잉 76-2(화면을 뒤에 놓고)〉, 1976, 합판에 매직, 71.3×118×(3)cm, 국립현대미술관

1942년 황해도 사리원에서 출생한 이건용은 개신교 목사였던 부친과 간호사였던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다. 1945년 해방 이후, 서울 제기동에서 거주하다가 1950년, 청량리 근방으로 이주하였다. 그러나 이건용의 가족은 한국전쟁 발발로 부산과 제주도에 피난생활을 보내며 이 과정에서 여동생이 홍역에 걸려 죽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집을 떠나는 일이 적었고, 소풍 같은 야외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덕분에 독서가였던 아버지의 서재에 자주 들락거리며 문학, 철학, 종교학, 교육학과 같은 책을 접할 수 있었다. 배재고등학교 재학 시절 유달리 철학에 매료되어 비트겐슈타인, 노자, 장자와 같은 철학자들의 책을 읽고 토론하기를 즐겨했던 것도 이러한 연유였다.<sup>1</sup>

1956년 중암초등학교와 배재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재학 당시 미술부에 들어가 처음 붓을 잡은 것이 계기가 되어 서울예고 진학을 희망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배재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196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였으며, 1960년 후반부터 한국 미술계에 신체를 이용한 퍼포먼스 작업을 선보임으로써 탈회화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현상을 이끌었다. 1970년에 이론가 김복영과 함께 창작과 조형 예술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는 'S.T(Space and Time) 조형미술학회'를 창립하였으며, 1978년 **목원대학교 출강시절 '대전'78세대**와 '87'트리엔날레'에 깊숙이 관여하며 본격적인 탈(脫)장르를 이끌어냈다.<sup>2</sup>

이건용의 독특한 회화언어는 《신체 드로잉》 연작을 통해 발현된다. 〈신체드로잉 76-2(화면을 뒤에 놓고)〉에서 반복적으로 그려진 선의 궤적들은 '선의 본질'과 같은 조형적 실험뿐만 아니

1 당시 배재고등학교는 명문기독교학으로 상당한 수준의 철학수업을 운영했는데, 이건용은 1학년 철학 수업에서 비트겐슈타인 등의 철학사상에 입문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 p. 37.

라 기존의 평면회화 작업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의 드로잉은 화면을 뒤에서, 옆에서, 등지며 혹은 누어 놓은 채 신체의 움직임에 제한시킨 상태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반복적으로 새겨진 신체의 흔적은 ‘행위’가 가지는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켜 주었다.<sup>3</sup>

《신체 드로잉》연작은 1979년의 《제15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달팽이 걸음〉으로 대단원을 맺게 된다.<sup>4</sup> 〈달팽이 걸음〉은 작가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작품으로 자연 속 달팽이의 느린 걸음을 통해 디지털 시대 문명의 빠른 속도를 가로질러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느리면서도 꾸준한 달팽이의 궤적처럼 작가가 평생 일구어온 삶과 작품세계를 연상하게 한다.

평면회화가 주를 이루던 1960~1970년대 한국 미술계에서 실험미술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되는 이진용은 1960년대 후반부터 현대미술에 대한 이론적 탐구와 실제 미술작업의 실천을 긴밀히 연결시키고자 ‘S.T 그룹’ 외에 또 다른 중요 집단이었던 ‘아방가르드 그룹(AG)’에도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한국현대미술의 최전선에서 개념미술, 행위미술, 설치작업 등등 새롭고 색다른 여러 가지 시도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작가 개인만의 특별한 생각과 그 생각의 실현이야말로 창조적인 세계와 작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경험하고 사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5</sup> 결국, 이러한 이진용의 개인적인 경험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작가의 행보를 만들었으며, 이는 작품에 크게 작용하였다.

## 연보

- 1942년 황해도 사리원에서 출생
- 1945년 해방 이후, 서울 제기동 이주
- 1950~1951년 한국전쟁 발발로, 부산과 제주도에 피난생활
- 1956년 중암초등학교 졸업
- 1959년 배재중학교 졸업
- 1963년 배재고등학교 졸업
- 1963~196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 전공 졸업
- 1969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수학
- 1971년 ‘S.T. 조형미술학회’ 창립
- 1971년 《S.T. 조형미술학회 창립전》(서울공보관) 참여
- 《한국미술협회》(국립현대미술관)에 〈신체항-71〉 출품
- 동대문 교회에서 당시 서라벌 예술대학에 재학중이던 송연례와 혼인.

3 강혜승, 「1970년대 이진용의 행위예술과 몸의 복권」, 『미학예술학연구』59(한국미학예술학회, 2020), p. 121.

4 이진용, 『달팽이 걸음』(국립현대미술관, 2012), p. 122.

5 김미한, 「있는 그대로의 이진용」, 『Noblesse』(2019. 9. 9). <https://www.noblesse.com/home/news/magazine/detail.php?no=8906>



- 1972년 《제1회 양태팡당전》에 〈관계항〉 출품
- 1973년 《제8회 파리비엔날레》(파리, 시립현대미술관)에 〈신체항-71〉, 〈관계항〉 출품
- 1975년 《'75 오늘의 방법전》에서 〈이벤트, 현신〉을 발표
- 1976년 《제4회 AG전》(국립현대미술관), 〈이리 오너라〉, 〈내가 보이느냐〉 발표
- 1978년 《한국현대미술 20년의 동향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8~1980년 목원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
- 1979년 상파울로 국제비엔날레(브라질)에 참여  
《LIS '79리스본 국제 드로잉전》(리스본 시립미술관) 대상 수상
- 1980년 《아시아현대미술전》(후쿠오카시립미술관)에 참여
- 1981년 《리스본 국제전》(리스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81~2007년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
- 1982년 계명대학교 미술교육대학원 졸업
- 1986년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9~2000년 미술대전 심사위원 · 운영위원 역임
- 2001년 《한국현대미술의 전개》(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07년 《신체의 사유전》(서울시립미술관) 개최  
《작가제조명전》(소마미술관)에 참여  
《한국행위미술 40주년 기념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이인성미술상 수상
- 2008년 국제아트페어-아트대구(대구엑스포관)에 참여  
《이건용 · 신체의 사유 (bodyscape)》(아산갤러리) 개최
- 2009년 《아르코미술관 개관 30주년 기념전》(아르코미술관)에 참여
- 2014년 《달팽이 걸음\_이건용》(국립현대미술관) 개최
- 2016년 이건용 《Event-Logical》(서울, 갤러리현대) 개최
- 2017년 《Lee Kun-Yong: Equal Area》(시드니 Centre for contemporary Asian Art) 개최
- 2019년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 연구지원 사업 작가 선정
- 2021년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로 위촉  
《이건용 : Bodyscape》(서울, 갤러리현대) 개최

## 이석구 (李錫九, 1942~ )

호는 이석(爾石). 1942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충북 청주에서 성장했다. 1960년 청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상경하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했다.<sup>1</sup> 1961년 《제10회 국전》에서 〈자학(自虐)〉으로 첫 입선했으며, 1963년 《제12회 국전》에서 〈파초〉로 특선을 수상했다.

1990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여 2007년 정년퇴임하였다. 《제23회 충청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상과 2007년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이석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 전통적인 수묵화와 채색화 기법을 폭

넓게 익히며 인물·자연·풍경·동물 등의 주제에 열중했다. 《국전》에 출품한 〈자학(自虐)〉과 〈파초〉는 이석구의 초기 화풍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한 후, 1975년부터 추상화 제작에 몰두하며 한국화단의 추상작가로 부상했다. 더욱이 1980년 《제29회 국전》 동양화부에서 대상을 수상한 〈잔영(殘影)〉은 이후 추상·반추상 작업인 《흔적》 연작으로 이어졌다.

이석구의 《흔적》 연작은 옛 궁궐이나 사찰건물의 단청과 창살구조 등 한국의 전통적인 각종 조형물과 장식 문양을 자유롭게 변용 또는 재구성한 작업이다.<sup>2</sup> 이석구는 이 작업에 대해 “동양화의 전통성 위에 민족의 혼을 추상적으로 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추상화 작업에 더욱 매진할 것을 예고했다.<sup>3</sup>

1990년대에 들어서면 이석구 작품에 고구려 고분벽화의 유동적이면서 생동적인 구름 문양과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관의 당초무늬 등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석구가 공주대학교 교수로 부임하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백제의 고분에서 감화를 받았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이석구는 현대와 전통, 구상과 추상의 경계선에서 한국화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확장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2010년대 들어 전통적인 수묵 기법으로 산수화를 제작하며, 다시 전통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열린 《먹의 멋과 맛 : 현대 수묵화 다시보기》와 2020년 《눈으로 떠나는 여



이석구, 〈흔적84-8〉, 1984, 종이에 수묵채색, 100×92cm(출처: 『이석구, Lee Seok-ko』, 2002)

1 이석구, 『이석구』(예서원, 2002).

2 이규열, 「이석구의 회화정신, 한국미 전통에의 애착」, 위의 도록, pp. 4~5.

3 「동양화추상 이석구」, 『조선일보』(1980. 9. 23).

행: 화가의 여행 그리고 풍경》에 출품한 작품에는 파격적인 선과 구성을 시도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이석구의 작품은 한국화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묻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연보

- 1942년 서울 출생, 청주에서 성장
- 1960~1964년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입학 및 졸업
- 1962년 《이명구, 이석구 시화전》(청주) 개최
- 1963년 《제7회 현대작가초대전》(서울, 경복궁미술관)에 출품  
《제2회 신인예술상전》에 입선
- 1974년 《제10회 한국미술협회전》에서 문공부 장관상 수상
- 1977년 《현대동양화 30대작가 초대전》(서울, 미도과화랑)에 참여
- 1978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졸업
- 1978~1979년 제1~2회 《경남도전》(진주)에 출품
- 1978~1994년 《충북작가전 및 초대순회전》출품
- 1980년 《제29회 국전》에 〈잔영(殘影)〉 대상 수상
- 1981년 《7인 동양화전》(대전문화원)에 출품  
《한국미술 81전 및 한국 현대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3~1994년 제1~10회 《충남 한국회화전》(공주문예회관)에 참여
- 1985년 《아름다운 금강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85~1986년 《Salon des Artistes Francais》(프랑스 파리, 그랑팔레)에 참여
- 1986년 《한국화 100년전》(서울, 호암갤러리)에 참여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8년 《한국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9~1993년 《서울현대한국화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89~1996년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동양화과 출강
- 1990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 1998년 《제23회 충청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 1999년 《이석구 사생화전》(공주문예회관) 개최
- 2007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개관 초대전》(이천시립미술관)에 참여  
국립공주대학교 정년퇴임,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 황조근정훈장 수상
- 2009년 중진구상작가 초대 《사랑의 붓질전》(충북, 청주문화원)에 참여
- 2017년 《먹의 멋과 맛 : 현대 수묵화 다시보기》(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참여
- 2018년 충북 원로작가 11인 《동시적 울림전》(청주대학교, 청석갤러리)에 참여
- 2020년 《눈으로 떠나는 여행: 화가의 여행 그리고 풍경》(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참여

## 이영길 (李英吉, 1942~ )

1942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영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격을 바꾸기 위해 미술반에 들어갔고, 당시 추상화를 그리던 김경을 만나면서 조각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sup>1</sup>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 입학해 재학 중인 1965년 《제14회 국전》에 입선하였다. 1965년부터 1981년까지 《국전》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해 특선 2회와 입선 13회 성적을 거두었으며 1981년 추천작가로 선정되었다. 《앙데팡당전》과 《한국현대조각대전》 등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며 모더니즘 조각의 제작에 집중했다. 1979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충남과 인연을 맺었으며, 2007년 정년퇴임하였다.

“조각이 인체의 형태를 떠나 자유로운 조형언어의 역할을 하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형태이면서 또한 이로부터 모든 변형이 시작될 수 있는 근본적인 형태는 무엇일까? 본질적인 형태로 환원시켜 사물의 본질을 가장 밀도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무엇일까? 점, 직선, 곡선, 원, 사각형 이것의 조각적인 변모는 바로 원구, 기둥, 구불구불한 기둥, 고리형 등이 아닌가. 이러한 형태를 연결시키다보니 우연히도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는 기호와도 일치된다. 바로 정자와 난자이다. 이 일치는 우연이라기보다 오히려 필연적인 귀결이리라. 그리고 이들의 결합으로 비로소 생명이 창조된다”<sup>2</sup>는 작가의 글처럼 이영길은 구·기둥·고리 등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따로 또는 서로 결합시켜서 새로운 형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행위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해왔다.



이영길, 〈원형질〉, 1993, 스테인레스강·신주·동, 32×12×83cm(출처: 『이영길 조각전』, 갤러리 아미, 1993)

1 전진식, 「(나의삶 나의예술)이영길 조각가 · 목원대 교수」, 『충청투데이』(2004. 12. 10).

2 이일, 「삶의 근원적 형태를 찾아서」, 『이영길 조각전』(아미갤러리, 1993).

## 연보

- 1942년           서울에서 출생
- 1965~1981년   《국전》(국립현대미술관) 특선 2회 및 입선 13회
- 196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뽀아그룹전》(서울, 신문회관)에 참여
- 1970년           《제19회 국전》〈무제〉 특선 수상
- 1971~1989년   《홍익조각회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1972~1973년   《한·일 현대조각교류전》(서울, 서울화랑)에 출품
- 1973~1974년   《양태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74~1989년   《한국현대조각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가
- 1975년           《전국조각가초대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 1976년           《한국 현대조각가 초대전》(서울, 국제화랑)에 출품
- 1978년           《제1회 중앙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9년           목원대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로 부임
- 1981년           국전 추천작가로 추대 / 《한국미술'81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2~1991년   《한·일 현대조각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에 출품
- 1983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 전공으로 석사 졸업
- 1988년           《'88 한국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 참가
- 1989년           《'89 한국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참가
- 1990년           《제2회 대전조각가협회전》에 출품  
《제9회 한·일 현대조각전》(일본 후쿠오카)에 출품  
《'90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1년           《제3회 대전조각가협회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제7회 한국조각가협회전》(서울, 문예진흥원)에 출품  
《제10회 한·일 현대조각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2년           《목원대학교 미술학부 교수작품전》(대전문화원) 참가
- 1993년           《초대 개인전》(서울, 아미갤러리) 개최  
《예술의전당 전관개관기념 현대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4년           《서울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 참가
- 1998년           《대전공간 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2년           《제2회 개인전》(대전, 롯데호텔 갤러리) 개최
- 2004년           《진해 환경 조각대전》(진해조각공원) 참가
- 2005년           충남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역임  
《제3회 개인전》(서울, 큐브스페이스) 개최
- 2007년           목원대 조소과 교수 정년퇴임 / 홍조근정훈장 수훈

## 전래식 (全來植, 1942~ )

호는 백강(白江). 1942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한 전래식은 서라벌예술대학교(현 중앙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였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화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5년 《제14회 국전》에서 〈노점〉으로 첫 입선을 하였으며, 1982년 《제1회 미술대전》에서 〈여정(餘情)〉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와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였고, 《서울현대미술제》(1985), 《한·일현대예술제》(2005) 등 국내외 다양한 전시에 참여하였다. 2008년 동아대학교를 정년퇴임하고 명예교수로 위촉되었다.



전래식, 〈산〉, 1995, 비단에 수묵·아크릴, 105×120.5cm, 국립현대미술관

전래식의 초기 화풍은 선묘 중심의 인물화로 1965년 《제14회 국전》에서 입선한 〈노점〉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자 재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유기적으로 사각형을 병렬, 중첩시키는 화면을 구성했다. 이러한 시도는 1972년 《제21회 국전》에 입선한 〈전설〉에서부터 감지된다. 이후 《제1회 미술대전》에서 〈여정(餘情)〉으로 대상을 수상하며 수묵과 음양 조화, 여백의 의미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1</sup> 전래식은 “색채를 억제시키려고 애썼다. 이번 작품도 먹과 담채로 은은함을 강조하기 위해 퇴색한 벽을 소재로 선과 각을 살렸다”고 밝히며 먹과 은빛 담채를 선염하여 작품의 긴장감을 해소시켰다.<sup>2</sup> 이후 1980년 중반까지 돌이나 돌담을 소재로 한 비구상 작품을 제작했다. 1984년 《제1회 전래식 작품전》과 1987년 《제4회 전래식 작품전》에까지 이러한 화풍이 이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전래식은 《신조형 산수화전》을 통해 새로운 산수를 선보였다. ‘신조형 산수’는 ‘산수’를 현대적 의미로 새롭게 변형시킨 개념으로, 한지 위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구성을 통해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를 시도한 작업이다. 수묵을 이용해 실경을 그리는 산수화에서 벗어나 마음속에 비친 심상의 풍경으로, 화면에는 노란색 구름과 흰색의 산, 소나무가 등장한다.

1 「한국화 부문 전래식씨」, 『경향신문』(1982. 9. 27).

2 「한국화 전래식씨」, 『동아일보』(1982. 9. 27).

전래식은 ‘색채와 먹의 조화와 과감한 공간 구도를 보여줌으로써 전통과 현대를 융합시킨 파격적인 산수를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sup>3</sup> 뿐만 아니라 ‘신조형산수’를 통해 장르의 경계를 넘어 재료를 개방적으로 쓰면서도 현대적 감흥을 주는 조형산수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sup>4</sup>

## 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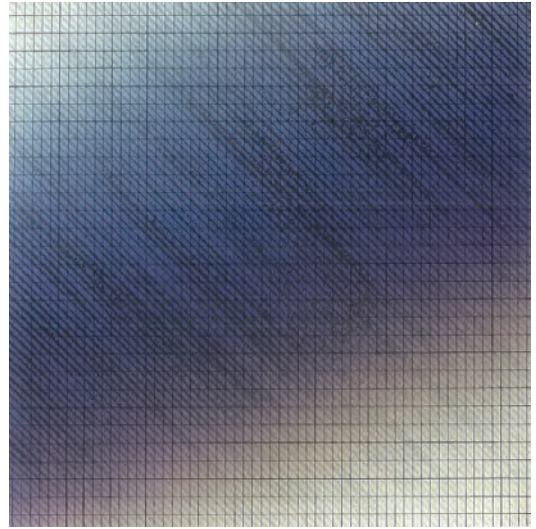
- 1942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서라벌예술대학교 동양화과 졸업 / 중앙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석사 졸업
- 1965년 《제14회 국전》에 〈노점〉 입선
- 1980년 《강원도 미술 초대전》(춘천)에 출품
- 1982년 《제1회 미술대전》에서 〈여정(餘情)〉으로 대상 수상
- 1982~1992년 《창립회전》 참여
- 1984년 《제1회 전래식 작품전》(서울, 롯데미술관) 개최
- 1985년 《국제기독교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5~1991년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6년 《현대한국채목화-동서의식의 만남》(프랑스 파리)에 참여
- 1987년 《제4회 전래식 작품전》(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최
- 1989~1991년 《서울현대한국화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89년 《‘동방의 빛’ 전 I》(독일, 베를린 시립미술관 / 헝가리, 부다페스트 갤러리) 출품
- 1993년 《예술의전당 전관 기념 현대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5년 《서울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향기의 맥전》(대전문화회관)에 참여
- 1996년 《제1회 국제채목화전》(대만, 대중시립미술관)에 참여  
《후소회 창립 60주년 기념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7년 《한국현대회화 초대전》(루마니아, 국립미술관)에 참여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9년 《제11회 전래식 작품전》(서울, 공평아트센터) 개최
- 2008년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정년퇴임
- 2010년 《전래식전》(서울, 선화랑) 개최
- 2013년 《전래식전》(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2015년 《백제의 후에 오늘의 부여미술 초대전》(부여문화원)에 참여
- 2019~2020년 《은빛나래》(고양, 아람미술관)에 참여

3 「전래식 '신조형산수전」, 『경향신문』(1991. 11. 20).

4 「전래식 9번째 개인전」, 『경향신문』(1995. 10. 5).

## 하동철 (河東哲, 1942~2006)

하동철은 1942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나 대전중·고등학교를 나왔다. 1961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했고 196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졸업 후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사로 부임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만둔 후, 여러 대학교에 출강하며 국전과 앙데팡당전 등에 참여했다. 대학 재학시절이었던 1962년 《제1회 신상전》에서 입선한 것을 비롯해 1963년 《제12회 국전》에 입선, 1964년 《제3회 신인전》 장려상 등을 받은 바 있으며, 1964년부터 1975년까지 국전에서 특선을 6번 차지했다. 그리고 1974년 《제23회 국전》에서는 〈환원〉으로 서양화 비구상 부문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하동철, 〈빛 84-95〉, 1984, 캔버스에 아크릴, 56×56cm, 개인 소장

1976년 미술회관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고, 미국 화가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 1925~2008)의 작품을 접하면서 미국으로 유학 계획을 세워 1977년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 템플대학교 타일러 스쿨 오브 아트 대학원 판화과에 들어가 1979년에 졸업했다.<sup>1</sup> 1977년 《한국현대서양화대전》(국립현대미술관), 1980년 미국에서의 《롱아일랜드 판화협회 초대전》, 2000년 호주에서의 《한국현대판화 초대전》 등 많은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한국 최초로 1986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가했다.<sup>2</sup> 그리고 ‘제9회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심사위원회 위원장, 국립현대미술관 이사,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작고할 때까지 개인전을 16차례 가지면서 서울예술고등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제자 양성에도 힘썼다. 특히 성신여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국내 첫 판화과와 판화전공을 개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빛을 주제로 회화·드로잉·판화·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창작했던 하동철은 빛이 우주 질서를 상징하는 불변의 요소이자 생명의 근원이라고 보았다.<sup>3</sup> 평생 ‘빛’을 화두로 근원적

1 최은주, 「작가 하동철과의 인터뷰」, 『하동철 5주기전: 빛』(공아트스페이스, 2011), p. 98.

2 《하동철 5주기전》(공아트스페이스, 2011. 10. 12~10. 25) 도록의 작가 약력 참조. 위의 도록, pp. 100-105.

3 김지훈, 「학교재, ‘빛의 작가’ 하동철을 그리워 하며」, 『머니투데이』(2016. 11. 9).



이고 영원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다가 2006년 4월 12일 타계했다. 타계 후 서울대미술관에서 2008년에 열렸던 유작전을 비롯해 2011년 하동철 5주기 추모전 《빛》(서울, 공아트스페이스), 2016년 추모전 《헌정: 기리고 그리다》(학교재갤러리), 《빛과 색 그리고 形(형)》(충북문화관 숲속갤러리) 전시 등이 있었다.

## 연보

- 1942년 충청북도 옥천 출생
- 1961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62년 《제1회 신상전》에 입선
- 1964년 《제3회 신인전》에서 장려상 수상
- 196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서양화 전공) 졸업
- 196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 1964~1975년 국전 특선 6회(1964, 1965, 1970, 1973, 1974, 1975)
- 1974년 《제23회 국전》에서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 1976년 《제1회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77년 《제2회 개인전》(서울, 선화당) 개최  
《한국현대서양화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8년 《제3회 개인전》(미국 펜실베이니아, 랭맨갤러리) 개최
- 1979년 《제6회 개인전》(미국 필라델피아, 펜로즈갤러리) 개최  
미국 템플대학교 타일러 스쿨 오브 아트 대학원 관화과 졸업
- 1980년 《통아일랜드 관화협회초대전》(미국 뉴욕, 통아일랜드 프린트 클럽)에 참여
- 1981년 국전 심사위원회 위원 및 초대작가로 출품
- 1985년 《제10회 개인전-회화》(서울, 미술회관) 개최  
《제11회 개인전-관화》(일본 삿포르, 다이포화당) 개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교수로 부임
- 1986년 제42회 베니스 비엔날레(이탈리아 베니스, 기아르디니성) 참가
- 1987, 1988, 1997년 제12회~14회 개인전 개최
- 1997년 《대전고등학교 창립 80주년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0년 《한국현대관화 초대전》(호주 멜버른, RMIT 미술관)에 출품
- 2002, 2004년 제15회, 16회 개인전
- 2006년 작고

## 송번수 (宋繁樹, 1943~ )

1943년에 충청남도 공주군 계룡면 월암리에서 출생한 송번수는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림을 그리며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부친의 권유에 따라 대전상업고등학교에 진학 후 미술반을 만들고, 각종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이런 실력을 인정받아 1960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제1회 개인전》을 열고 미술계에 입문했다.<sup>1</sup>

196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부 공예과에 입학했는데, 공예과를 선택한 것은 향후 작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에 대한 지식과 활용기법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2</sup> 당시 홍익대학교 공예과의 전공과목은 금속·목공·도자기·염직으로 나뉘어 개설되었는데, 주로 유강열에게 염직과 판화 기법을 배웠다. 적성에 잘 맞는 판화에 심취해 대학교 재학 중 《제3회 신인예술상전》(문화공보부주최)에서 수석상을 받으며 일찍부터 미술계에서 주목을 받았다. 입주 가정교사로 어렵게 학교를 마친 작가는 현역으로 군대에 다녀와서부터 본격적으로 판화작업에 몰두하였다.<sup>3</sup>

1970년부터 5년간 국립 경기공업전문대학(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1978년 홍익공업전문대학 공예과를 거쳐, 1980년에는 홍익대 미술대학 공예과 섬유미술과 교수로 부임했다. 1991년 풀브라이트(Fulbright) 교환교수로 미국 로체스터(Rochester) 공과대학에서 1년간 연구기간을 가졌다. 2008년 홍익대학교 섬유미술과 교수에서 정년퇴임했다.

1970년대 초 발표한 《판토마임(Pantomime)》 시리즈는 시간성과 사물의 변화에 주목하여 실크스크린 스텐실 기법인 세리그라프(serigraph)를 이용해 제작한 연속사진과 같은 시퀀스(Sequency) 작품으로 침묵 속의 시간적 연속성을 시각화 것이다. 작가는 세리그라프 판화기법



송번수, 《상대성원리》, 1994, 아크릴 평직, 187×187cm(출처: 『송번수 타피스트리 1986~1994』, 토탈미술관, 1994)

1 「작가 연보」, 『송번수\_50년의 무언극』(국립현대미술관, 2017), p. 253.

2 정경연, 피경지, 「한국 현대 타피스트리 작가 연구: 송번수」, 『조형디자인연구』19호(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16), p. 118.

3 학부에서 전공한 염직공예가 아닌 판화제작에 매진한 것은 당시 판화가 각광을 받았던 시대적 상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장동광, 「전복을 향한 끝없는 도전, 송번수의 판화와 섬유예술 반세기」, 『송번수\_50년의 무언극』(국립현대미술관, 2017), p. 197.



송번수, 〈이카르스에서 온 편지〉, 2006, 모사·평직, 205×202cm, 작가소장(출처: 『송번수\_50년의 무언극』, 국립현대미술관, 2017)

을 활용한 작품으로 국내 관화계 공모전을 석권하여, 1968년에 《한국현대관화가협회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1970년 한국일보사 주최의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 관화부에서 우수상을, 1971년 명동화랑이 주최하는 《현대관화그랑프리전》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1972년에는 동아일보사 주최 《제2회 서울국제관화 비엔날레》에 출품한 〈판토마임〉으로 한국작가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송번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목판·실크스크린·동판화·석판화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실험적 시도와 주제의 변화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다. 1977년에는 석판화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해 교수 자리를 사임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파리국립미술학교에서 석판화를, 그라픽아트기술대학에서 실크스크린을 경험하였다.<sup>4</sup> 작가는 공장 같이 파이프가 노출된 파리 풍피두센터의 외관을 보고 자신이 갖고 있던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장미의 꽃 보다 가시에 주목하게 되었고, 평생의 주제이자 소재인 '가시'를 탄생시켰다. 특히 파리 북부 지역에 있는 보베(Beauvais)의 국립 태피스트리 갤러리에서의 감동은 송번수를 태피스트리의 세계로 이끌었다.<sup>5</sup>

1980년대에는 어린 큰아들을 잃은 슬픔을 순백의 종이부조로 표현한 《가시》(1981~2006) 연작과 둘째 아들의 탄생의 기쁨을 전원 교향곡의 오케스트라에 빛낸 밝고 원색적인 색감이 돋보이는 태피스트리 작품 《생의 오케스트라》(1983~1988) 연작을 선보였다. 애도·상실을 의미하는 순백의 종이부조로 표현한 《가시》 연작과 달리 《생의 오케스트라》 연작은 프러시안 블루를 배경으로 빨강·노랑·초록·파랑 등 강렬한 원색의 색채대조가 인상적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생에 대한 본능적 욕구와 생명력의 원천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sup>6</sup> 이후 작가 스스로 인생에 있어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주를 다룬 작품 《상대성 원리》(1988~1995) 연작을 소개했다. 《상대성 원리》 연작은 관화로 작업한 다음 동일한 이미지를 태피스트리로 발표했는데, 기존에 작업해온 단순한 도형과 달리 구체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태피스트리를 배운 지 15년이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극사실적 표현과 그라데이션의 번짐 효과를 표현하는 기법을 익히고, 우주를 중심으로 태양이 발산하는 붉고 강렬한 빛을 표현한 〈우주-빛이 있으라〉(1993)를 선보였다. 1980년대 초반 종이 부조로 표현한 '가시'는 태피스

4 장동광, 앞의 글, pp. 199~201.

5 강민영, 앞의 논문, p. 178.

6 정경연, 피경지, 앞의 논문, pp. 120~121.

트리에 다시 등장하는데, <미완의 면류관>(2002~2003)에서 명암과 그라데이션 효과를 더해 드라마틱한 효과를 연출하였다. 능평성당의 제단용 작품을 의뢰받고 ‘십자가’의 형상을 대신할 만한 형태를 모색하던 작가는 둥근 ‘원’을 떠올렸는데, 이는 기독교 도상에서 예수의 수난을 상징하는 가시면류관의 원으로 이어졌으며 다시 연결되지 않은, 끊어진 형태의 원으로 변형되어 걸작 <미완의 면류관>을 탄생시켰다. 송번수에게 있어 가시는 자아의 표현, 사회 비판, 운명의 극복 그리고 종교적 영역에서 제의적 의미를 지닌 작가만의 독창적인 회화적 언어이다. 2001년 《형가리 개국 1000년 기념 태피스트리 전》에서 <논리와 이성> · <절망과 가능성> 두 점을 출품해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최고상을 수상하여 섬유예술가이자 판화가로 입지를 굳건히 하였다. 2006년에는 이라크 전쟁에서 들려오는 자살폭탄테러와 같은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담은 《이라크에서 온 편지》 연작을 비롯해 《십계명》 연작을 새롭게 선보였다.

송번수는 판화작업으로 화단에 등단한 이후 태피스트리, 판화, 종이부조, 환경조형물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해 인생, 사회, 종교, 전쟁과 재난 등 폭넓은 주제를 담은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작가는 1984년 용인에 건립한 마가미술관을 1998년부터 대중에게 공개하고, 능력은 있으나 발표 기회를 갖지 못한 젊은 작가들을 위한 기획전을 지원하며 판화와 섬유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연보

- 1943년            충남 공주에서 출생
- 1959년            《제1회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64년            《제3회 신인예술상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판화작품 <통(痛)>으로 수석상 수상
- 1968년            《제1회 한국판화전》(서울, 국립중앙공보관)에서 <화집점 L/A-302>으로 최고상 수상
- 1970년            《제1회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국립현대미술관) 참가
- 1970~1975년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현 과학기술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 1971년            《현대 판화그랑프리전》(서울, 명동화랑)에서 《판토마임》연작으로 은상 수상
- 1972년            《제2회 서울국제판화 비엔날레》(국립현대미술관)에서 《판토마임》연작으로 대상 수상  
《송번수 판화초대전》(서울, 주한독일문화원) 개최
- 1973년            《세계판화전》(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참여
- 1974년            《개인전》(서울, 명동화랑) 개최
- 1975년            《송번수 · 박길웅 판화2인전》(서울, 그로리치화랑) 개최  
《개인전》(서울, 현대화랑) 개최 / 《제1회 에플드서울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제3회 앙데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제7회스위스목판화비엔날레》(스위스, 프리버그미술관(Freeberg gallery)에 출품
- 1976년            《아티스트77 Union Carbide Bld》(뉴욕, 아티스트(Artist) 77)에 출품  
《제2회 에플드서울》(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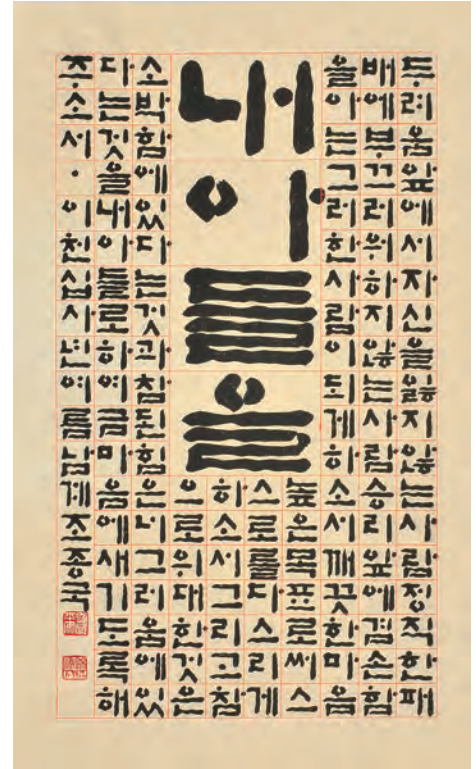
- 1977년 프랑스 파리 유학, 프랑스국립미술대학(Ecole Nationale Supérieur des Beaux Arts)에서 석판화, 그래픽아트기술대학(College d'Enseignement Technique d'Art Graphique)에서 실크스크린을 익힘 / 《개인전》(스웨덴, 스톡홀름 한국문화원) 개최
- 1978년 《'78 국제문화예술제》(이란 테헤란)에 참여
- 1979년 《한국현대판화 10인전》(미국 샌프란시스코, ADI갤러리)에 참여
- 1980년 《제6회 발파라이소 비엔날레》(칠레 발파라이소)에 참여  
《한·독미술전》(독일, Museum Alexander Koning)에 참여
- 1980~2008년 홍익대 미술대학 공예과 섬유미술과 교수로 부임
- 1981년 《서울국제판화교류전》(서울, 미술회관)에 참여 / 《개인전》(광주, 현대화랑) 개최
- 1982년 《개인전》(서울, 관훈미술관) 개최
- 1983년 《개인전》(서울, 예화랑) 개최
- 1984년 《한국현대성화전》(이탈리아, 산마르코화랑)에 출품
- 1985년 《개인전》(대구, 맥향화랑 / 서울, 서울갤러리) 개최  
《현대판화 어제와 오늘전》(용인, 호암미술관)에 참여
- 1986년 동경 나가가와 케니칼 주최 《제4회 CS디자인전》(일본 도쿄) 국제부문 금상 수상  
《한일판화교류전》(일본, 시모노세키 시립미술관)에 참여
- 1987년 《국제임팩트전》(일본, 도쿄시립미술관)에 출품
- 1989년 《개인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최
- 1989년 《한국섬유예술의 오늘》, 서울·도쿄·뉴욕·로스엔젤레스·파리 순회전 참가
- 1991년 《제19회 류브리어나 국제판화비엔날레》(유고슬라비아 류브리어나)에 출품
- 1993년 《한국현대판화 40년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한일 현대조형작가 교류전》(일본 오사카, 이타미공예센터)에 참여
- 1994년 《Tapestry 1986~1994》(서울, 토탈미술관) 개최
- 1998년 《대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경기도 용인에 '마가미술관' 건립  
《실제적 예술의 비교전》(프랑스, 에스파스 에펠-브람리)에 참여
- 1999년 《개인전》(서울, 일민미술관 / 일본 이타미시립공예센터) 개최  
《바다를 건너: 송변수&후쿠모토 시게키 엄직 2인전》(서울, 일민미술관) 개최
- 2000년 《국제현대 섬유예술제》(중국 북경) / 《개인전》(일본 이타미 크라프트센터)  
국민포상 훈장 대통령상 수여
- 2001년 《헝가리 개국 1000년기념 국제 타피스트리》(헝가리, 부다페스트 미술관) 〈논리와 이성〉 대상 수상
- 2005년 《타피스트리의 어제와 오늘전》(헝가리, 부다페스트 미술관) 참가
- 2009~2010년 대전시립미술관장 역임
- 2017년 《송변수\_50년의 무언극》(국립현대미술관) 개최
- 2020년 《박석원·박장년·송변수 그룹전》(서울, 갤러리 바톤) 개최
- 2021년 《개인전-나침반》(담양 대담미술관) 개최

## 조종국(趙鍾國, 1943~)

호는 남계(南溪). 1943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출생한 조종국은 다섯 살 때부터 조부에게 천자문과 소학을 배우며 서예에 입문하였고, 본격적인 서예는 정환섭을 사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2세가 되던 1965년에 일찍이 《제1회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1977년 《제26회 국전》에서 〈전서대련(篆書對聯)〉 입선, 이듬해 1978년 《제27회 국전》에서 재입선되었다. 1982년 《미술대전》에서 〈방공전(龐公伝)〉으로 특선을 수여하여, 1984년 12월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로 지정되었다. 한국예총 충남지부와 대전지부 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전국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2021년 현재는 대전광역시 의정회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조종국의 서예에는 정치적인 견해, 사회적 의무감, 현재 처한 현실 등을 붓글씨를 통해 드러나 있다. 이는 1970년대 서울신문사 사회부기자로 활동하면서 유신정권에 항거하는 언론활동을 벌이다 옥고를 치루었던 것이 조종국의 작품세계에 영향을 주었다. 조종국은 감상을 위한 예술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예술을 탄생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외에도 고전 속 귀감이 되는 문장들을 서예예술로 담아냄으로써 관람자와 함께 호흡하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같은 조종국의 서예 예술은 서체와 그것을 이루는 획에서도 드러나 있다. 외형적으로는 필선에 부드러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지만, 그 안에 강인한 기풍이 서려 있어 구성력이 돋보인다.<sup>1</sup> 대전시립미술관 소장의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1994)와 심훈(沈薰, 1901~1936)의 시를 차용한 〈그 날이 오면〉(2012)은 이러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조종국은 자신의 50년 서예인생을 총정리한 《남계 조종국 서예전》(2012)을 개최하며 “드라마 로고, 상품명 글씨, 광고판 글씨 등 이미 서예는 대중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그러나



조종국, 〈내 아들들〉, 2014, 90×55cm, 작가소장

1 박수영, 「원로서예가 조종국, 15년만에 전시」, 『중도일보』(2012. 4. 11).

여기서 더 나아가 젊은이들에게도 아날로그의 감성을 살린 한글 캘리그래피를 선보여 서예의 새로운 전망을 시민들과 교류하고자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연보

- 1943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65년 《제1회 서예 개인전》(부여문화원) 개최
- 1968년 《제2회 전각 서예전》(부여문화원) 개최
- 1969년 《제3회 서예 개인전》(대전) 개최
- 1970년 《제4회 서예 개인전》(대전) 개최
- 1972년 《제6회 서예 개인전》(논산) 개최
- 1974년 《제8회 서예전》(대전) 개최
- 1975년 《제9회 서예개인전》(천안) 개최
- 1976년 《제6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에서 특선 수상
- 1977년 《제26회 국전》〈전서대련(篆書對聯)〉 입선  
《제7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금상 수상
- 1978년 《제8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최우수상, 교육감상 수상
- 1980년 《제14회 서예개인전》 개최
- 1981년 사학가 연재 홍사준선생 시비회호(부여군 제작)  
《충남 향토작가 초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사육신 박팽년유허비(朴彭年先生遺墟碑) 회호
- 1982년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운영위원 역임  
《제1회 미술대전》〈龐公伝(방공전)〉 특선  
《제5회 한국미술문화 대상전》 추천작가로 출품
- 1983년 《제13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운영위원
- 1984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위촉
- 1986~1988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 수료
- 1992년 《남계 조종국 서예전 1992》 개최
- 1995~2002년 대전광역시의회 부의장, 의장
- 1997년 《남계 조종국 서예 1997》 개최
- 2012년 《남계 조종국 서예전》(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 개최
- 2016~2020년 《한·중(대전·소주·성도)당대서화명가》(대전·소주·성도시미술관)에 참여
- 2017~2020년 《한·중(대전·우한)서화교류전》(대전-우한미술관)에 참여
- 2019년 『청산은 나를 보고』 출간
- 2021년 대전광역시 의정회장 / 한·중문화교류회장  
(사)국제펜한국본부 이사 / (사)국제펜한국본부 문예정책 위원장  
(사)한국예술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재직

## 지치우 (池治宇, 1943~ )

1943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지치우는 해방 직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  
가 1968년 대전으로 이주했다. 1972년부터 화실 ‘충남미술연구소’를 운영했으며, 1980년대 초반  
대전시민회관, 영상화랑, 반도화랑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988년 금산군 추부면에 화실을 마  
련해 전업작가로서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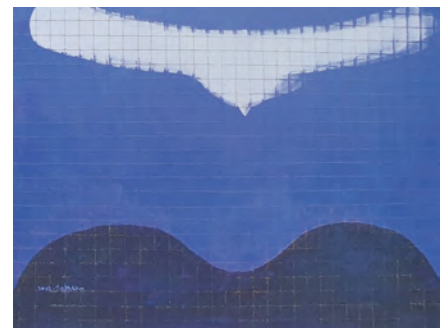
1982년 ‘르뽀동인회’ 제3회 전시부터 동참했고, 1985년 창립했던 《OPUS 그룹전》을 비롯해,  
《서울현대미술제》,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회원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980년 첫 개인전 이후 종이를 사용해 다양한 시도를 선보였고 크레파스화로 개인전을 열  
기도 했다. 캔트지를 담뱃불로 지저 구멍을 낸 후 면도칼로 칼질을 하거나 조명을 이용해 입체감  
을 나타내는 등 종이로 할 수 있는 갖가지 방법들을 시도했다. 무덤·새·여자·느티나무 등 구  
상적 대상을 작품 소재로 삼았지만, 화면에는 대상물들이 비구상적으로 전환되어 담겼다.<sup>2</sup> 1990  
년대에는 종이를 물에 불린 후 찢어 붙이거나 종이가 찢어지는 효과를 활용해 화면의 질감을 표  
현했다. 캔버스에 실을 격자로 붙이고 그 위에 종이를 덧붙여 종이가 마른 후 실을 떼어내면 그  
흔적이 종이 위에 남게 되는데, 이 방법으로 실을 뜯어낼 때 찢기는 종이의 울퉁불퉁한 질감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창호지로 만든 문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매년 한 차례씩 개인전을 개최하며 ‘자연(自然)-사계(四界)’와 같  
은 자연현상에서 얻은 이미지로 화면구성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시기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모  
티프는 나무인데, 파란색이나 초록색 등 선명한 색상의 화면은 바둑판처럼 분할돼 있다.<sup>3</sup>



지치우, 〈Work〉, 2000, 캔버스에 혼합재료, 122×244.4cm, 대전시립미술관



지치우, 〈Vatality〉, 2002, 캔버스에 혼합재료, 94.3×120.3cm(출처: 2002년 《개인전》 팸플릿)

1 「난해함보단 “단순·변형” 주력», 『중도일보』(1995. 1. 12).

2 박기성, 「작가의 산실(25): 서양화가 지치우씨», 『중도일보』(2005. 4. 7).

3 엄은화, 「자연을 대상으로 한 생각들», 『중도일보』(2001. 12. 11).



지치우는 1960년대부터 충남에서 전업작가로 활약하며 자연의 생성과 소멸의 이미지를 탐구하고 있다. 특히 작품 표면의 질감 효과를 위해 니스나 고운 모래로 덧칠하는 등 다양한 창작 방법을 실험하며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추구한 작가이다.

## 연보

- 1943년 함경북도 청진 출생
- 1968년 대전으로 이사
- 1972년 충남미술연구소 운영
- 1974년~ 《미협전》 참가
- 1980년 《제1회 개인전》(대전시민회관) 개최
- 1978년 《제3회 르뽀그룹전》 / 《현대작가 15인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2년 《2회 개인전》(대전, 영상화랑) 개최
- 1983년 《3회 개인전》(대전, 영상화랑) 개최
- 1985년 《4회 개인전》(대전, 반도화랑) 개최
- 1986~1998년 《OPUS 창립전 및 그룹전》에 참여
- 1991년 《5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1993년 《6회 개인전》(시나위) 개최
- 1995년 《대전미술 50년전》에 출품
- 1998년 《대전미협 창립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0년 7회 개인전 《METHOPE》(대전, 현대화랑) 개최
- 2001년 8회 개인전 《자연(생)》(대전, 이공갤러리) 개최
- 2002년 9회 개인전 《자연-새》(대전, 갤러리 프리즘) 개최
- 2003년 10회 개인전 《자연-산》(대전, 중구문화원) 개최  
《한발미술의 여정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4년 11회 개인전 《자연-사계》(대전, H-B갤러리) 개최
- 2006~2007년 《현대미술의 위상전》(대전, 우연갤러리)에 출품
- 2008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 2013년 《대전중구문화원 개관 60주년 기념 초대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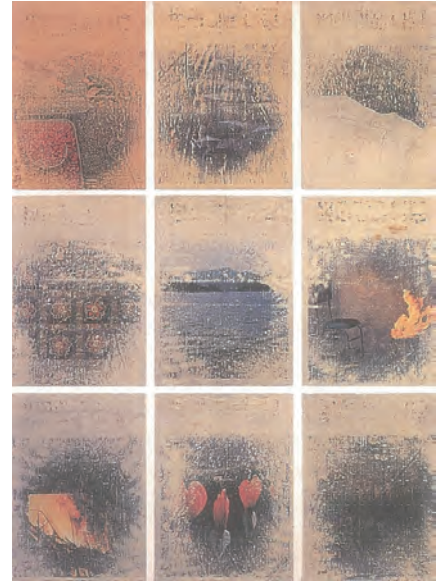
## 최태신 (崔台新, 1943~ )

최태신은 1943년 서울 출생으로, 196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고 1982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64년 《제2회 신상전》에서 특선을 수상하며 대학 재학 시절부터 실력을 인정받았고 《논꼴동인전》, 《서울현대미술제》, 《서울방법전》, 《목원대학 교수작품전》 등 많은 단체전에 참여했다. 1977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총 9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1981년에는 프랑스에서 열렸던 '제13회 카뉴 국제회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1986년부터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재직했고 미술대학장과 명예교수를 역임했다. 2008년 목원대학교에서 정년으로 퇴임할 때 제자들이 개인전을 마련해 주었고 화집도 발간했다.<sup>1</sup> 2016년에는 '김환기 국제미술제전-남풍'에서 홍익대학교 제자들 프로젝트인 《홍익인간전》에 참가했다.<sup>2</sup> 충남미술대전과 대전미술대전 심사위원·운영위원 등을 맡아 대전·충남의 미술이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1970년대에는 신문지의 활자와 사진을 지워가는 작업을 주로 했고, 1980년대부터는 민화에서 유래된 전통 문양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화풍이 변모했다.<sup>3</sup> 〈작품80-7〉(1980)은 인쇄된 이미지인 신문

지의 활자를 일일이 지워가는 작업과 1980년부터 선보인 전통 문양의 현대적 재해석 작업 사이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그림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전통 문양과 단청을 주제로 「음과



최태신, 〈작품 80-7〉, 1980, 캔버스에 혼합재료, 116.5×90.3cm, 대전시립미술관



최태신, 〈장생(長生)〉, 1995, 캔버스에 유채, 259×194cm  
(출처: 《최태신 초대전》 팸플릿, 갤러리썬, 1995)

1 이시우, 「아주 특별한 사은 展」, 『중도일보』(2008. 2. 20).

2 정상래, 「대학로 갤러리 '이양', '김환기국제미술제전: 남풍」, 『국제뉴스』(2016. 8. 16).

3 전진식, 「[나의 삶 나의 예술] 최태신 목원대 미대교수」, 『충정투데이』(2004. 11. 26).

양」의 원리를 그림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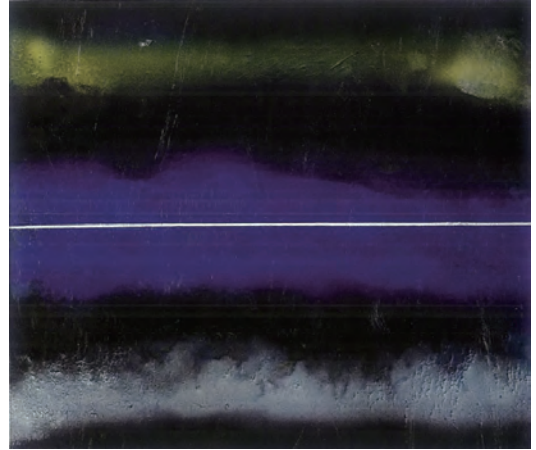
한국 추상화 1세대에 속하는 최태신은 단청 무늬와 같은 전통 문양을 음양오행에 따른 오방색으로 구성했는데, 우리 민족의 무의식에 내재된 상징적인 전통 문양을 현대적인 회화 기법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보

- 1943년 서울 출생
- 1964년 《신상전》 특선 수상
- 196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65~1966년 1·2회 《논꽃전》(서울, 신문회관)에 참여
- 1970년 《제2회 한국일보 대상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4년 《제1회 서울비엔날레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7년 《제1회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78년 《현대미술 20년 동향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개인전》(광주, 전일미술관) 개최
- 1981년 카뉴 국제회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프랑스 카뉴)
- 1982년 《현대미술 80년대 조망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졸업
- 1983년 《국회개원 35주년 미술초대전》(국회의사당)에 출품
- 1985년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91년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 1994년 《서울 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5년 《최태신 초대전》(대전, 갤러리썬) 개최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0년 《21세기 한·일 미술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1년 《최태신 작품전》(대전, 한림갤러리) 개최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 전환과 역동의 시대》(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7년 《근현대 인천 미술의 궤적과 방향전》(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출품
- 2008년 목원대학교에서 정년퇴임  
《정년 기념 개인전》(대전, 갤러리이안) 개최

## 강성열 (姜聲烈, 1944~2005)

1944년 함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난 강성열은 대전 보문중·고등학교를 다녔다.<sup>1</sup> 196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해 1968년에 졸업한 이후, 논산 기민중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1969년부터 은행동에서 '현대미술연구소'를 운영하며 대전지역 학생들에게 미술 실기 지도를 했고, 이후 '상선(像先) 화실'로 이름 변경해 2000년경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화실을 운영했다.<sup>2</sup> 기민중학교, 대전예술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으며 배재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에 출강했다.<sup>3</sup>



강성열, 〈작품 85-E〉, 1985, 혼합재료, 45.5×53.0cm, 유족 소장

1970년 결성되었던 '충남청년미술인회'의 1, 2회 전시회에 모두 출품했고 1973년 《산강화랑개관 초대전》에 비구상부문 작가로 초대되어 전시에 참여했다. 1974년 《홍대동문전》에 동참했으며, 1975년에는 《제2회 한국미술 청년작가회전》에 출품했고 이후 제19회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충남지역 비구상 작가들의 모임인 '르뽀 동인회'에도 1978년 제3회 전시부터 참가했다. '르뽀 동인회'가 대전의 다른 미술가들의 모임과 연합해 1982년 《대전'78세대·르뽀·19751225 연합전》이 대전시민회관에서 개최되었을 때에도 동참했다. 이 외에도 《현대작가 15인전》(1978), 《향토작가 100인 초대전》(1984), 《르뽀 동인회 창설 15주년 기념 100호전》(1990)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1985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88년 한국미술협회 논산지부 창립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을 때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도 있다.<sup>4</sup>

배재대학교에 출강했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 미학을 강의했으며, 강의 방식은 주입식이 아니라 미학이나 미술사를 철저히 조사해서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는 형식의 참

1 강성열의 출생지는 『제7회 르뽀동인회전』(반도화랑, 1984. 2. 12~2. 19) 도록에는 부여로 기재되어 있지만, 동생 강성애 작가로부터 함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난 것을 확인했다.

2 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강성열의 작품은 수해로 대부분이 유실되어 현재 전하는 작품이 많지 않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작가의 작품세계 전모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전화 인터뷰: 2021. 9. 16).

3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대전미술의 새물결』(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2013), p. 39.

4 디지털논산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nonsan.grandculture.net/nonsan/toc/GC02002466>

여석 토론 위주의 수업이었다.<sup>5</sup> 강성열의 작품은 현재 전하는 것이 적지만, 〈작품 85-E〉(1985)는 서정성이 깃든 추상작품으로, 가운데 그어진 흰 선을 중심으로 화면이 아래위로 나뉘어 마치 물 빛에 의해 반사된 것 같은 한 폭의 밤 풍경을 연상시킨다. 강성열은 대전미술의 2세대 작가들과 함께 추상미술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했던 작가이다.

## 연보

- 1944년 함경북도 길주 출생
- 1968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학사 졸업
- 1969~1992년 현대미술학원 운영
- 1973년 《산강화랑개관 초대전》(대전, 산강화랑)에 참여
- 1974년 《홍대동문전》에 출품
- 1975~1984년 《백제 문화제》에 출품
- 1975~1985년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창립전부터 연속 출품
- 1976~1985년 《향토작가초대전》에 출품
- 1978년 《제3회 르뽀 동인회전》에 출품  
《현대작가 15인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78 · 1979년 《현대미술제》(강원 · 진북)에 출품
- 1981년 《현대작가 17인 초대전》(대전, 청년작가회관)에 출품  
《제4회 르뽀 동인회전》(대전, 여일미술관)에 출품
- 1982년 《한국미술청년작가회 명예회원전》(대전, 공간미술관)에 출품  
《제5회 르뽀 동인초대전》(대전, 근대화랑)에 출품  
《대전'78세대 · 르뽀 · 19751225그룹 연합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84년 《제7회 르뽀동인회전》(대전, 반도화랑)에 참여  
《현대화랑 개관초대전》(대전, 현대화랑)에 출품
- 1985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 석사 졸업  
《한국미술청년작가명예회원 초대전》(서울, 공간화랑)에 출품  
《여일미술관 신개관기념 충남작가 초대전》(대전, 여일미술관)에 출품
- 1990년 《르뽀 동인회 창설 15주년 기념 100호전》(대전MBC 문화공간)에 출품
- 2005년 2000년경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다가 작고

5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 p. 182.

## 김회직 (金會直, 1944~ )

1944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난 김회직은 강경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전국 고등학교 포스터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조각실기대회에서 입선하며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았다.<sup>1</sup> 이후 서라벌예술대학에 들어가 박영선, 장리석, 최영립, 박창돈 등의 작가로부터 그림을 배웠다. 대학 4학년이었던 1966년 국전에서 <노상의 상>으로 입선했으며, 《신인예술상전》, 《목우회전》 등에서도 입상을 했다. 1979년 대전지역 구상미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신회'가 창립전을 열었을 때 참여하기도 했다.<sup>2</sup> 그리고 1982년 원광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김회직, <산바람>, 2013, 캔버스에 유채, 65.1×53.0cm, 개인 소장

2004년 교감으로 정년퇴임을 하기까지 30여 년간 중등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옥조근정훈장, 교육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1988년 한국미협 논산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sup>3</sup> 《충남구상작가회전》, 양지영데병 《프랑스국제미술전》, 《월간미술세계 충남작가초대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국문화예술연구회, 예우회, 대전구상작가회, 한국미술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했고 한때 배재대학 미술교 출강하기도 했다.

작품세계는 인상주의 기법으로 표현되는 인상적 이미지 시기를 오랜 기간 구현해오다가 서정적 이미지, 구조적 이미지, 추상적 이미지까지 넘나드는 등 다양한 화풍을 선보였다. 2000년대 초까지 30여 년간 인상적 이미지를 구현했고, 이후 전통적인 수묵 기법의 번짐 효과에 착안해 유화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주조색 위에 단계별로 색을 입혀나가는 '습윤유채(濕潤油彩)'의 표현 기법을 발전시켰다.<sup>4</sup> 2017년 임림미술관에서 열렸던 《산의 두 얼굴》 전시에 소개된 《산바람》 연작에서 '습윤유채'의 표현기법이 집약된 작품들을 선보였다. 임림미술관 신은주 수석큐레이터는

1 유환동, 「논산 미술 발전의 선구자」, 『2020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2』(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20), p. 342.

2 『광자진취狂者進取: 대전미술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2020), p. 161.

3 디지털논산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nonsan.grandculture.net/nonsan/toc/GC02002466>

4 김회직은 '습윤유채' 기법에 대해 "색점을 찍고, 긁고, 덧칠하는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소멸시키거나 또는 은밀하게 침투하면서 다양한 색깔의 껍적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김회직, 『목요일에 만나는 사람』(책과 나무, 2019), p. 211.

김희직의 《산바람》 연작에 대해 “산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산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기운, 산을 형성하고 존재하게 하는 힘, 산이 품고 있는 자연의 운동력을 ‘바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평했다.<sup>5</sup> 이후에는 종이 죽에 천연염료로 색을 입히고 접착제로 화면에 붙여나가는 방식을 활용해 산 그림 작업을 발전시켰다.

김희직은 칠순이 넘어 2010년 첫 개인전을 연 작가로, 2019년에는 수필집 『목요일에 만나는 사람』을 출간해 교단에 충실하면서도 화가로서 창작 정신을 꾸준히 발현해냈던 자신의 삶과 작품 이야기를 풀어냈다.

## 연보

- 1944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66년 《제15회 국전》에서 <노상(路商)의 상(像)>으로 입선
- 1979~1991년 《충남구상작가회전》(대전문화원, MBC문화공간)에 출품<sup>6</sup>
- 1980년 《충남작가15인초대전》(대전문화원) 참가
- 1980~1985년 《조형작가회전》(서울, 관훈갤러리 · 경인미술관) 참가
- 1982년 원광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논문: 「遠近法の 無限性に 關한 研究」)
- 1985~1990년 《아름다운금강전》(대전MBC 문화공간) 참가
- 1986년 《월간미술세계 충남작가 초대전》(서울, 경인미술관) 참가
- 1987년 《프랑스국제미술전》(프랑스, 양지앵데벵) 참가
- 1988년 초대 한국미협 논산지부장 역임
- 2004년 교감으로 정년퇴임
- 2010년 《제11회 향토작가초대전》(대전, 임립미술관)에 출품  
첫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2014년 《제15회 향토작가초대전》(대전, 임립미술관) 참가
- 2017년 개인전 《산의 두 얼굴》(대전, 임립미술관) 개최
- 2019년 《백제의 숨결전》(논산문화예술회관) 참가

5 신은주, 「김희직의 산바람전 평문」(2017). 임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limlip3.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st&wr\\_id=88&page=8](http://limlip3.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st&wr_id=88&page=8)

6 1979년 창립한 ‘충남구상작가회’는 1988년 대전과 충남이 분리되면서 ‘대전구상작가회’로 잠시 명칭을 개칭했다가, 1992년 ‘이신희’로 이름을 바꾸고 7년간 운영되었다. 이후 1998년부터는 현재의 ‘대전구상작가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구상미술40년, 대전 미술역사를 되새기다」, 『충청매거진』(2019. 11. 2).

## 성능경 (成能慶, 1944~ )

1944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출생한 성능경은 유년 시절 사촌 형 성찬경(成贊慶, 1930~2013) 시인에게 받은 예술적 영향으로 홍익대학교 서양 화과를 입학하게 되었다.<sup>1</sup> 대학을 졸업한 후, 1968년 평론가 이일의 추천으로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현대 작가 초대전》을 통해 화단에 공식적으로 등단하였다.

성능경은 앵포르멜 이후 단색조 회화가 국내 화단을 지배하던 1970년대 초, 서구의 개념미술에 주목했던 'S.T 그룹'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해프닝, 이벤트로 불리던 행위 미술을 시도했다.

이 시기 성능경은 신문이나 잡지가 국가 및 문화 권력의 메시지 자체로 기능하던 현실에서 해당 메시지를 새로운 맥락에 위치시켜 그 의미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1974년 제3회 《S.T》전에서 선보인 〈신문: 1974.6.1 이후〉는 전시 기간 동안 해당 날짜의 신문을 직접 소리 내어 읽고, 먼도날로 신문 기사를 오려내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유신시대의 언론 탄압을 비판한 작품으로 성능경을 한국 전위 미술 1세대로 각인시켰다. 작가는 이 작업에서 삶과 예술에 대한 태도, 예술성과 사회성의 조건에 대하여 질문함으로써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79년 발표한 〈현장 1〉 역시도 공적 메시지를 사적으로 전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신문의 편집자가 가지는 권력의 의도를 전도시켰다.<sup>2</sup>

1980년대에 접어들며 성능경의 사진 설치와 퍼포먼스 작품은 날것 그대로인 개인사적 일상



성능경, 〈위치〉, 1976, 흑백사진, 잡지, 브로마이드, 47.2×26.2cm(9), 국립현대미술관

<sup>1</sup> 성능경은 인터뷰를 통해, 미술의 직접적인 기법 등을 성찬경에게 배운 것은 아니나 감수성, 예술적 분위기를 감득했다고 회고했다. 아시아문화연구소, 『해프닝과 이벤트: 1960-70년대 한국의 행위예술』(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6), pp. 254~255.

<sup>2</sup> 성능경은 '이건용의 이벤트' 좌담회를 통해 당시 미술계 상황을 회고하며 1970년대의 사회적 배경이 자신의 작품이 많은 영향이 있었음을 고백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이건용의 이벤트' 좌담회」, 『국립현대미술관 연구논문』, 제6집(2014), p. 159.





성능경, 〈현장1〉, 1979, 흑백사진, 브로마이드, 60.5×46cm(10), 국립현대미술관

을 예술과 호환함으로써 기성 예술의 허위를 폭로하고 삶을 예술의 지위로 승격시키는 정치적 성격을 선명히 드러냈다. 그렇게 작가는 예기치 못한 삶의 수많은 사건을 예술화하는, 그러나 예술의 경계 밖 삶의 조건과 체계에 대해 질문하기에 말 그대로 ‘망친 예술’인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꾸준히 정립했다.<sup>3</sup>

성능경의 작품들은 권력의 재검열, 육체성의 회복, 일상에의 주목, 반(反)미학적 성격이라는 특징으로 1990년대 이후 등장하는 한국적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경향을 일찍이 견인하며 오늘의 미술 현장에까지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나아가 예술세계는 기존의 미적 질서에서 새롭게 감각을 분할해 내는 이른바 ‘정치적인 것으로서의 미술’의 한국적 선구로서, 근대화 시기 한국 사회의 구조와 구성체 간 갈등의 재현에 주력했던 현실주의 미술과는 또 다른 정치적 미술의 선례를 미술계에 제공해주었다. 이처럼 작가 성능경은 나이가 팔순에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반(反)예술의 정치를 수행하면서, 기성 미술을 ‘망친 예술’로 창조해나가며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적 아방가르드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연보

- 1944년 충청남도 예산 출생
- 1967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 학사 졸업
- 1968년 조선일보사주최, 《현대작가 초대전》에 참여
- 1970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석사 졸업
- 1973년 《제2회 S.T전》(명동화랑)에 〈상태성〉 출품
- 1978년 《한국 현대미술 20년의 동향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0년 《한국관화, 드로잉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1~2020년 계원예술고등학교 미술과 강사로 재직
- 1985년 개인전 《현장》(서울, 관훈갤러리) 개최
- 1988년 《성능경의 행위예술, 행위 예술가협회 기획》(서울, 청파소극장) 개최
- 1991년 《S씨의 자손들-망친 사진이 더 아름답다》(대구, 삼덕갤러리) 개최
- 1994년 《새야 새야 파랑새야: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전》(서울, 예술의전당) 참가
- 1995년 《한국 현대미술의 표현매체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3 이 글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원료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 사업에 수록된 글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 《미술 핫볼 대제전》(독립기념관) 참가
- 《삼백초 스포트 행위》(터갤러리)에 출품
- 《미술과 음악의 사이》(전주대학교)에 참여
- 《광복 50주년기념 민속종합예술제》(경북공미술관)에 참여
- 1996년 《'96 환경과 예술전》(서울, 롯데월드 민속관화랑)에 참여
- 1997년 《'97 월미도 행위 예술제》에 참여
- 《한국 모더니즘의 전개》에 참여
- 《'97 군산 허수아비 미술제》에 참여
- 1998년 《'98 KIDS 군산 국제드로잉전》(군산시민문화회관)에 참여
- 《드로잉 횡단전-조각 회화 사진작가들의 드로잉전》(서울, 금호미술관)에 참여
- 《보고서-보고서 0.1세기 새 선언전》(사이갤러리)에 참여
- 1999년 《글로벌 컨셉츄얼리즘 : 기우너의 핵심 1950s~1980s》(뉴욕, 퀸즈(Queens) 미술관)에 출품
- 《제4문화 Performance》(전주민속아트센터)에 참여
- 2000년 《유목 프로젝트 2000》(씨어터제로극장)에 참여
- 《2000 부산 국제아트 페스티벌 : 국제바다미술제》(해운대해수욕장)에 참여
- 《군산대학교 미술관 개관기념전》(군산대학교미술관)에 출품
- 《2000 서울 국제행위예술제》(밀레니엄 플라자)에 참여
- 2001년 한국 현대미술 기획 초대전 《예술은 착란의 그림자-성능경》 개최
-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 : 전환과 역동의 시대》(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헤쳐 모인 예술가들 : 4인4색+1》(다임)에 참여
- 2003년 《한국 실험 예술제》(갤러리 라메르)에 참여
- 2004년 《당신은 나의 태양: 한국 현대미술 1960~2004》(서울, 토탈미술관)에 참여
- 2007년 《한국의 행위미술 1967~2007》(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10년 《1970~80년대 한국의 역사적 개념미술: 팔방미인전》(경기도미술관)에 참여
- 2015년 《한국미술의 거장 3인의 동거동락》(서울, 남산골한옥마을)에 참여
- 2018년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한국현대사진운동 1988-1999전》(대구미술관)에 참여
-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20주년 기념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19년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 연구지원 사업 작가 선정
- 2021년 《코로나19, 재난과 치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양창제 (梁蒼濟, 1944~2019)



양창제, 〈불이문-탄생과 생명수〉, 2002, 캔버스에 유채, 60.6×72.7cm(출처: 특산, 『환치미술』, 레코디지털, 2011)

1944년 함경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양창제는 대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2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충남공보관에서 대전 최초의 디자인 《개인전》을 열었고, 이 해에 고등학생 미술 모임으로 결성되었던 ‘죽미회’에 동참해 《죽미회 5인전》을 열었다.<sup>1</sup> 군 제대 후 무대미술을 제작했고 1960년대 말 대전 최초의 응용미술학원인 ‘현대화실’을 운영했다.<sup>2</sup> 한때 경상북도 구미로 가서 구미 중앙유치원 원장과 구미 중앙미술학원 원장으로 있었으며, 구미문화원과 한국

미협 구미지부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

1980년대 말부터는 구미와 대전을 오가며 작업을 하다가 대전화단에서 《대전미협전》과 《대전구상작가 협회전》에 참여하며 대전에 정착했다. 1978년경 불교에 입문했던 양창제의 법명(法名)은 ‘득산(得山)’으로, 스님 화가로서 ‘생활불교미술’ 장르를 창안해 보급했고 1997년 ‘대전불교미술협회’를 창립했다.<sup>3</sup> 대전미협, 대전전업미술가, 한국조형미협, 대전구상작가, 경북구상작가 회원으로 활동했다. 타계하기 전까지 스무 번이 넘는 개인전을 열었는데 그중에서 2004년 《42-42-42전》은 42년생이 42년간 그린 42점의 작품을 선보인다는 뜻을 제목에 담아 연 전시였다.<sup>4</sup> 2011년에는 구미문화회관에서 《고희기념 개인전》을 개최했고 작품과 글을 담은 화집 『환치미술』을 출간해 ‘생활불교미술’ 작품 외에도 풍경화, 인물화 등을 소개했다.

양창제는 불교 입문 후 사찰미술에 갇힌 불교미술을 생활 속에서 접목해 가정에서도 쉽게 접

- 1 ‘죽미회’는 대전공업고등학교, 한밭상업고등학교의 미술반 학생들이 대나무처럼 우정이 변하지 말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자는 의지를 담아 만든 단체이다. 1회 전시회 이후 대학 진학으로 더 이상 전시를 개최하지 못했다. 1962년 《죽미회 5인전》이 충남공보관 화랑에서 개최되었다. 참여자는 김릉(대전공고 3년), 정명희(대전공고 3년), 양창제(대전공고 3년), 임양수(한밭상고 2년), 이영수(한밭상고 1년)이다.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대전시립미술관, 2012), p. 24.
- 2 임양수, 「『竹美術』의 어제와 오늘」, 위의 도록, pp. 72~73.
- 3 양창제는 ‘생활불교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찰에서 사용하는 그림 외의 그림으로 경전이나 법문의 구절을 물체와 색으로 표현시킨 그림으로, 가정에서 소장하고 감상할 수 있는 유화로 그린 불교미술’로 정의하고 있다. 특산, 『환치미술』(레코디지털, 2011).
- 4 「불에 태우고 물로 씻어낸 그림들」, 『법보신문』(2004. 12. 22).

할 수 있는 미술을 추구하고자 했던 인물이다. <불이문-탄생과 생명수>(2002)는 연꽃을 중심으로 화면 상단에는 누워 있는 여인을 그려 넣어 출산과 모성애로 자식을 키우는 여성의 위대함을 표현한 작품이다. 유화로 그린 그림을 색이 완전히 사라지기 바로 직전까지 불로 태운 다음, 물에 잘 씻어서 바람 속에 한참을 두고 건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이 작업은 ‘불화(火畵)’로 불리기도 하는데, 환생을 의미하면서 소박하고 토속적인 벽화의 질감을 떠올리게 한다. 한 줌 재로 사라지기 직전의 그림을 물로 씻어내고 바람에 건조한 이 기법은 붓끝이 아닌 불과 바람에 의해 완성되는 것으로 독창적 화법 탐구의 결과이다.<sup>5</sup>

## 연보

- 1944년 함경남도 맹산 출생
- 1962년 《양창제 개인전》(대전, 충남공보관) 개최  
《죽미회 5인전》(대전, 충남공보관) 창립 기념전에 참여
- 1960년대 대전 최초 응용미술학원 ‘현대화실’ 운영
- 1970년 월간지 『충청』 편집위원 역임
- 1992년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개최
- 1993년 《임봉재 환갑기념 유화전》에 출품
- 1997년 ‘대전불교미술가회’ 창립
- 2001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남부현대미술제》에 출품
- 2003년 개인전 《달마와 연꽃전》(합천, 해인사 구광루 갤러리) 개최  
개인전 《인생은 쉬었다가 갈 수 없듯이》(구미예술회관) 개최
- 2004년 개인전 《42.42.42》(구미문화예술회관) 개최  
개인전 《보리달마존자와 포대화상의 만남》(구미, 모델갤러리) 개최
- 2006년 개인전 《머물바 없이-구름따라, 바람따라》(대전, 에스-닷 갤러리) 개최  
개인전 《득산 달마전》(대전, 다향각) 개최
- 2007년 《경화개인전》(대전, 대덕문화전시관) 개최  
개인전 《불이문전》(대전, 대청문화전시관) 개최
- 2009년 개인전 《생활불교미술전》(대전, 에스-닷갤러리) 개최  
개인전 《삼보전에》(대전, 토지사랑갤러리) 개최
- 2010년 개인전 《무아》(대전중구문화원) 개최
- 2011년 25번째 개인전 《생활불교환치미술 개인전》(구미문화예술회관) 개최
- 2013년 《죽미회 50주년 기념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5 「바람이 스민 유화 그리고 달마」, 『법보신문』(2006. 5. 3).

## 이영수(李寧秀, 1944~ )



이영수, 〈넋의 원류를 찾아서〉, 1989, 한지에 채색, 162 × 130.3cm, 국립현대미술관

호는 우담(雨潭). 1944년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출생한 이영수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나왔다. 재학시절 《제14회 국전》에 〈작업〉으로 첫 입선을 하였으며, 1966년 《제2회 백양회 공모전》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1975년 《제24회 국전》에 〈상혼〉을 출품해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받았고, 1976년 국전의 추천작가와 초대작가를 거쳐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1966년부터 5년간 장훈중·고등학교 미술교사, 1972년부터는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있었으며 1973년부터 경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이영수의 초기 작품은 주로 소나 말, 비둘기 등을 소재로 경물을 서로 겹쳐지거나 교차시켜 중첩된 듯한 형상을 묘사했다. 단순한 구도에 농묵의 선

을 사용해 화면에 운동감을 부여했다. 그러나 1970년대 접어들면서 작품의 주된 소재였던 소나 말은 화면에서 사라지고, 선의 쓰임 못지않게 강렬한 색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점차 추상성이 강해진다.<sup>1</sup> 다양한 조형적 실험을 거친 끝에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영수는 석채화 작업에 주력했다. '석채'를 이용한 강한 색채와 조형성을 탐색하면서 한국의 민화나 전통적인 회화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다루었다. 〈넋의 원류를 찾아서〉는 초기 사실주의 표현양식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정신성을 나타내는 '넋'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마치 부적같이 여러 가지 기호가 그려진 빨강, 파랑 원색의 휘장들을 통해 가장 원초적인 것을 찾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영수의 이러한 실험정신에 대해서 김기창은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는 작가로 "오랫동안 동양화가 안고 있는 한국적인 내용과 색채의 문제를 적절하게 극복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sup>2</sup> 이영수는 이러한 작품 활동과 함께 『한국민화전집』(전4권), 『한국의 민화』(전6권) 등의 저서를 발간하여 민화의 미적 가치를 알리고 대중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1 임두빈, 「원초적 고향의식과 사물의 빛남」, 『이영수와 그의 예술』(미술공보사, 1990), p. 384.

2 임두빈, 위의 글.

## 연보

- 1944년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출생
- 1964년 《제3회 신인예술상》 입선
- 1965년 《제14회 국전》에 〈작업〉 입선
- 1966년 《제2회 백양회공모전》 최고상 수상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1966~1971년 장훈 중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67~1990년 제5회~44회 《신수회전》에 참여
- 1970년 《국립현대미술관 개관기념 초대전》에 출품
- 1970~1977년 제20~26회 《백양회 회원전》에 참여
- 1971년 《제20회 국전》에 〈비상〉으로 입선 / 《이당 김은호선생 80회 생진기념전》에 참여
- 1971~1983년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동문전》
- 1972년 《제21회 국전》에 〈잔영〉 특선 /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73년 《제22회 국전》에 〈유산〉 특선
- 1973~1978년 경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 1974년 《이영수 개인전》(일본, 한국공보관) 개최
- 1975년 《제24회 미술전람회》에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
- 1975~1976년 부산대학교 출강
- 1976년 《한국현대 동양화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6~1981년 국전 추천작가,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 1978~1979년 세종대학교 출강
- 1979년 《한국의 자연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1년 《한국현대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3년 《운보 김기창선생 고회기념 문하생전》(서울, 문예진흥원)에 참여
- 1983~1984년 《한국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4년 《이영수 개인전》(대구, 현대미술관) 개최
- 1985년 《국제수묵화 초대전》(중국, 대북시립미술관)에 출품
- 198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 《한국화 100년전》(호암갤러리)에 참여  
《한국, 독일미술협회전》(독일, 프랑크 푸르트)에 참여
- 1987년 《석채화전》(서울신문사) 개최 / 《'87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8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0년 《서울신문사 초대전》(서울, 프레스센터)에 참여
- 1994년 《이영수 작품전》(서울, 공평아트센터) 개최
- 2004년 《개관기념 6인전》(서울, 정동경향갤러리)에 참여
- 2005년 《평화의료재단 기금마련展》(서울, 정동경향갤러리)에 참여
- 2018년 『한국민화전집』(전4권) 발간
- 2020년 『한국의 민화』(전6권) 발간

## 김관호(金瑄鎬, 1945~ )



김관호, 《정토》, 1984, 캔버스에 유채, 91.0×116.8cm  
(출처: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1945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난 김관호는 공주고등학교를 나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남대학교와 배재대학교에 출강했고 경원대학교 응용회화과 교수로 재직했다. 경원대학교에 재직했던 2006년 『수채풍경스케치-빛과 그림자의 테크닉』(조형사)을 편역하기도 했다.<sup>1</sup>

김관호는 ‘르뽀동인회’ 전시에 제4회부터 참여해 대전화단의 추상화 정착에 기여했다.

1979년 《한국미술협회 대전지부전》과 1980년 11월 공주 금강 백사장에서 펼쳐졌던 《제1회 금강현대미술제》를 비롯해, 1982년 《대전'78세대·르뽀·19751225그룹 연합전》 등에 참여하며 대전미술의 2세대 작가들과 함께 활동했다. 이외에도 《현대화랑 개관기념 초대전》, 《여일미술관 신개관기념 충남작가 초대전》 등의 전시에 작품을 선보였다. 또 1984년에 결성된 ‘갑자전(甲子展)’ 회원으로 활동했고, 대전 미술을 견인하고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온 대전원로작가 모임인 ‘화연전(畫緣展)’에도 참여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한민국 회화대전 초대작가전》, 《한국현대미술의 발현전》, 《아트 엑스포 뉴욕》, 《오사카 아트페어》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국미협 대전지부 비구상분과 위원장, 보호문화예술협회 이사, 우리문화연구원 이사, 국전 심사위원장, 《모란현대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1975년 이후 주로 삼베와 마에 색면과 선이 번지는 독특한 작품들을 창작했다. 색면과 선이 번지는 효과를 화면에 담아낸 평면의 회화뿐만 아니라, 1980년 금강의 모래사장에서 펼쳐졌던 《제1회 금강현대미술제》에서는 〈흙 놀이〉라는 야외 작업을 통해 흙덩이 크기에 따라 길고 짧게 굴린 흔적이 모래 위에 다르게 남는 현장을 보여주었다.<sup>2</sup>

1980년대 이후 《정토》 연작을 통해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이며 맑고 깨끗한 자연이면서 동

1 이가라시 요시히코, 김관호 편역, 『수채풍경스케치-빛과 그림자의 테크닉』(조형사, 2006).

2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다빈치기프트, 2009), p. 138.

시에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세계'가 화면에 구현되었다.<sup>3</sup> 1991년 서울 청작미술관에서 열렸던 개인전에서는 '극히 단순한 필치와 거친 질감과 부드러운 색감의 묘한 어울림 속에 향토적인 것이 부드럽게 삼베에 표출된' 작품들을 선보였다.<sup>4</sup>

## 연 보

- 1945년 충청남도 논산 출생
- 1975~1979년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에 참여
- 1978년 《백제문화미술제청년작가 초대전》(공주)에 출품
- 1979년 《한국미술협회 대전지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현대작가 15인전》에 참여  
《비구상작가 11인전》에 참여
- 1980년 《제1회 금강현대미술제》(공주, 금강백사장)에 참여
- 1981년 《제4회 르브동인회전》(대전, 여일미술관)에 참여
- 1981~1985년 《충남 향토작가초대전》에 출품
- 1982년 《대전'78세대 · 르브 · 19751225 연합전》(대전시민회관)에 참여
- 1984년 《한발제 '84대전미술인 작품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현대화랑 개관기념 초대전》(대전, 동아전시관)에 출품  
《향토작가 백인(百人) 초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개인전 《김관호 전》(대전, 반도화랑) 개최
- 1985년 《여일미술관 신개관기념 충남작가 초대전》(대전, 여일미술관)에 출품
- 1991년 개인전 《김관호 전》(서울, 청작미술관) 개최
- 2005년 《오늘의 한국회화 시대흐름전》(서울, 인사아트프라자)에 출품  
《오사카 아트페어》(일본 오사카)에 출품
- 2006년 《인천 아트페어 2006》(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 출품
- 2007년 《아트 엑스포 뉴욕》(미국 뉴욕, Jacob Javis convention center)에 출품  
《한 · 중 현대미술의 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대한민국 회화대전 초대작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2018년 《제26회 화연전》(대전, 중구문화원)에 출품

3 『대전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한다』(대전시립미술관, 2008), p. 89.

4 1991년 열렸던 개인전인 《김관호 전》(1991. 5. 24~6. 2, 서울, 청작미술관) 팸플릿 참조.



## 김홍주(金洪疇, 1945~)



김홍주, 〈무제〉, 2002, 캔버스에 아크릴릭, 234×206cm

1945년 충청북도 보은에서 태어난 김홍주는 1969년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이후 1981년 동대학원을 졸업했다.<sup>1</sup> 1981년부터 2010년까지 목원대학교의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1978년 한국일보사 주최 《한국미술대상전》에서 최우수 프론티어상을 수상했고, 1980년 프랑스 ‘카뉴 국제회화제’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1988년 서울미술관이 주관한 ‘1987년의 문제작가’로 선정되었으며 1991년 《토탈미술대상전》에서 토탈미술관장상을 수상했다. 이후 2005년 이인성미술상(대구광역시), 2006년 파라다이스상(파라다이스 재단), 2010년 이 중섭미술상(조선일보사) 등을 수상했다.

김홍주는 1973년 ‘S.T. 그룹’에 가입하면서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당대 전위적 경향을 따라가는 개념적 오브제 작업을 시도했으나, 1975년 즈음부터 실물 오브제와 그려진 이미지를 결합한 작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극사실주의 경향의 작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1978년 첫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오브제와 이미지의 결합형식에서 벗어나 인물이나 풍경 등을 주요 소재로 하여 밀도감 높은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후반 사이에는 흙덩이·지형·건축물·글자·배설물 등의 이미지가 하나의 단위 요소가 되고 이들 단위 요소들이 모여 전체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중층적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여러 가지 조형적 실험이 시도되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커다란 화폭에 클로즈업된 꽃 한 송이를 세밀한 붓 터치의 집적(集積)으로 채워 도상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촉각적 감각을 극대화한 회화를 제작했다. 2000년대부터는 특유의 세필 기법을 심화시켜 나갔고, 2010년대부터는 털 몇 개로 이루어진 동양화용 세필이 캔버스 표면의 울 하나하나에 부딪힐 때 느껴지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 몸으로 느껴지는 접촉 감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촉지적 회화’ 작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김홍주는

<sup>1</sup>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 참조. <https://www.k-artmarket.kr/kada/portal/singl/writer/subMain.do?menuNo=200034&writrNo=50>

독특한 아이디어와 극사실적인 기법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인물, 풍경, 꽃 등을 표현한다.<sup>2</sup> ‘꽃의 화가’, ‘화가들의 화가’로 잘 알려진 김홍주는 독자적인 예술성을 인정받아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의 ‘2020 원로작가 디지털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사업’ 대상 작가로 선정되었다.

## 연 보

- 1945년 충청북도 보은 출생
- 1960년 청주사범학교 입학
- 1963년 청주사범학교 졸업, 경북 상주 내서국민학교 교사로 부임(1965년까지 재직)
- 1965~1969년 홍익대 서양화과 졸업
- 1971~1972년 충주중학교 교사로 재직(8월까지)
- 1972년 서울 은광여자고등학교에 부임
- 1973~1977년 《S.T 그룹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5년 《제1회 서울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서울 대광고등학교에 부임
- 1978년 《제1회 개인전》(서울화랑) 개최  
《한국현대미술20년동향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한국일보사 주최 《한국미술대상전》 일반공모부문 최우수 프론티어상 수상
- 1979년 《신예작가12인전》(관훈갤러리)에 참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전공 입학
- 1980년 ‘카뉴 국제 회화제(프랑스, Cagne-sur Mer)’ 특별상 수상
- 1981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전공 졸업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 1983년 《개인전》(서울, 그로리치화랑) 개최
- 1985년 《아시아미술전》(일본, 후쿠오카시립미술관)에 출품
- 1987년 《개인전》(윤갤러리) 개최
- 1988년 서울미술관 주관 ‘1987년의 문제작가’로 선정  
《1987년 문제작가 작품전》에 출품
- 1989년 《개인전》(서울, 수화랑) 개최
- 1991년 《개인전》(서울, 수화랑) 개최  
《제1회 토탈미술대상전》 ‘토탈미술관장상’ 수상
- 1992년 《미술과 사진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3년 《개인전》(서울, 수화랑) 개최
- 1994년 《2인전》(독일 만하임, Galerie Bamberger) 개최

2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엮음,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국립현대미술관, 2019), p. 418.

- 1995년 《질·양·감전-한국미술'95》(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6년 《개인전》(서울, 수화랑) 개최
- 1997년 《개인전》(서울, 금호미술관) 개최
- 1999년 《개인전》(서울, 국제갤러리) 개최
- 2001년 《전환과 역동의 시대》(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개인전》(울산, 현대예술관) 개최
- 2002년 《개인전》(서울, 국제갤러리) 개최  
《Flowerpower》(프랑스 릴, 현대미술관)에 참여  
《바벨2002》(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03년 《사계의 노래, 8인의 한국작가》(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관)에 참여
- 2004년 《일상의 연금술》(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05년 개인전 《김홍주-이미지의 안과 밖》(서울, 로댕갤러리) 개최  
제6회 '이인성미술상(대구광역시 주관)' 수상
- 2006년 '파라다이스상(파라다이스 그룹 주관)' 문화예술 부문 수상
- 2008년 《개인전》(서울, 가나아트갤러리) 개최  
《김홍주·정광호2인전》(서울, 가나아트센터) 개최
- 2009년 《김홍주전-시공간의 빗장풀기》(서울, 아르코미술관) 개최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10년 《개인전》(서울, 국제갤러리) 개최  
제22회 '이중섭미술상(조선일보사 주관)' 수상
- 2015년 《개인전》(서울, 국제갤러리) 개최
- 2019년 《개인전》(일본, 도쿄화랑) 개최
- 2020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2020 원로작가 디지털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사업' 대상작가  
로 선정

## 오세열 (吳世列, 1945~ )

1945년 서울에서 태어난 오세열은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부 교수**로 정년퇴임 후, 현재는 전업 작가로 작품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오세열은 1965년부터 1980년까지 《국전》에 입선 9회와 특선 5회를 수상했으며, 1971년 《구상전(具象展)》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1960년대는 전형적인 정물화를 주로 제작했으나 1970년대 작품은 1960년대까지의 구상계열의 재현적인 미술에서 벗어나 반추상적인 어두운 배경에



오세열, 〈무제〉, 1972, 혼합매체, 113×113cm  
(출처: 『오세열: 무구한 눈』, 학고재, 2017)

대상의 형체를 왜곡하거나 해체하여 작가의 의도를 암시적으로 드러냈다.<sup>1</sup> 〈무제〉(1972)는 엄마의 하얀 치마저고리를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배경처럼 펼쳐지고, 그 주변으로 말을 탄 아이와 여인, 꽃, 나무 등 목가적인 소재를 그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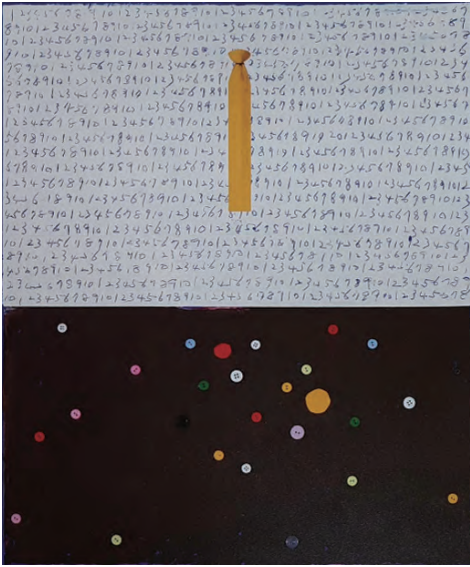
1980년대는 1970년대의 반추상적인 화면에서 더욱 추상적인 화면으로 변화하는데, 아이들이 칠판이나 벽면에 백묵으로 낙서하듯 화면에 숫자와 그림을 일정한 규칙 없이 그려 작가의 감정을 화면에 반영했던 시기다.<sup>2</sup> 다소 무거운 회색이나 차가운 푸른색 배경에 유령처럼 서있는 인간의 형상은 암울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1990년대 작품은 인물의 형상이 이전 시기에 비해 더 단순하고, 색채가 화려해지면서 화면이 한결 경쾌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반면 화면 속 인물은 정형화된 묘사에서 벗어나 얼굴과 팔다리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 관람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다. 낙서 혹은 암호 같이 아라비아 숫자들을 규칙 없이 화면에 표기한 이러한 작업에 대해 오세열은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낙서이자 공부가 숫자이며, 물질적인 것에만 매달리는 현대사회에서 소멸해가는 소중한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sup>3</sup> 오세열은 날카로운 도구로 화면 바탕을 긁어 추상적인 형상의 아라비아 숫자를 쓰거나, 동그라미 또는 네모의 형태를 만들고 그 위

1 김복기, 「'무구'한 눈」, 『오세열』(학고재, 2017), pp. 7~9.

2 김아미, 「오세열 작가 “포스트단색화가? 이것은 단색화가 아니다”」, 『뉴스one』(2017. 2. 19).

3 김아미, 위의 기사.



오세열, 〈무제〉, 2017, 혼합매체, 73×60cm  
(출처: 『오세열-암시적 기호학』, 학교재, 2017)

에 자연소재인 꽃·풀·나무·과일, 또는 모자, 넥타이, 떨어진 단추, 플라스틱 포크, 크레파스 조각, 치간 칫솔 등 일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제들을 작품에 붙였다. 화면에 무작위로 배치한 오브제들은 모두 하나의 생명체로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무제〉(2017)는 독특한 캔버스에 노란 넥타이와 색칠한 단추를 붙여놓은 작품이다. 오세열은 이 작품에 대해 “넥타이가 여기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그림은 완전히 달라진다. 딱 있어야 할 자리에 이 넥타이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sup>4</sup> 즉 무작위로 놓인 듯 보이지만, 캔버스에 등장하는 작은 오브제 하나 하나가 모두 있어야 할 제 자리에 놓여 있고, 각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오세열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특정한 비율 없이 기름기를 뺀 유화 물감을 섞고, 7~8번 화면에 덧발라 두꺼운 질감을 만든다. 그리고 나서 붓 대신 면도칼이나 칼로 표면을 긁어내는 작업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화면을 구축한다.<sup>5</sup> 작가는 발상과 표현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이며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평생의 고민거리라고 말하는 오세열은 단순히 잘 그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작품의 숙성된 밀도를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실험을 하는 화가이다.

## 연보

- 1945년 서울에서 출생
- 1965~1980년 《국전》 특선 5회 및 입선 9회
- 1969년 서라벌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구상전(具象展)》 은상 수상
- 1971년 《구상전(具象展)》 금상 수상
- 1972년 《구상전(具象展)》 은상 수상
- 1974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수료
- 1975년 《오세열 작품전》(서울, 조선회랑) 개최  
《공간미술대상 초대공모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76년 《제3회 한국일보사 주최 한국미술대상전》(국립현대미술관) 최고상 수상
- 1977년 《제2회 개인전》(서울, 문화회랑) 개최

4 김아미, 앞의 기사.

5 정형모, 「작가는 발상과 표현으로 싸움하는 사람: 나이프와 면도날의 작가, 오세열」, 『포브스코리아』 219호(2021. 5), p. 203.

- 1979년 《한국미술 오늘의 방법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 1981년 《청년작가 10인 초대전》(서울, 신세계미술관)에 출품
- 1982년 《제3회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제5회 인도트리엔날레》(인도 뉴델리) 초대 출품
- 1983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4년 서울 진화랑 선정 FIAC 84(프랑스 파리, FIAC) 참가
- 1985년 《제1회 아세아국제미술전람회》(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까뉴국제회화제》(프랑스, Cagnes-Sur-Mer)에 출품
- 1986년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제5회 개인전》(서울, 진화랑) 개최
- 1987년 《갤러리 현대 개관전 '80년대 작가전》(서울, 갤러리 현대) 참여
- 1988년 《한국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1989년 《SEOUL-KYOTO 3인전》(일본, 교토미술관) 참여
- 1990년 《한국미술-오늘의 상황》(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1년 《한국현대미술의 한국성 모색》(서울, 한원갤러리)에 참여
- 1992년 《오세열 · 안토니 까마라사 2인전》(서울, 샘터화랑) 개최  
《Tokyo Art Expo-오늘의 7인전》(일본 도쿄, 하루미Harumi)에 참여
- 1993년 《대학미술의 흐름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94년 《서울 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  
《예화랑 추천작가전》(서울, 예화랑)에 참여
- 1996년 《'96 뉴델리 국제회화전》(인도, 뉴델리 National Gallery) 출품
- 1997년 《개인전》(서울, 예화랑) 개최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9년 《한국미술의 자생적 비평》(서울, 포스코미술관)에 참여
- 2000년 《오세열개인전》(서울, 샘터화랑) 개최
- 2003년 《내안의 풍경들》(부산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7년 《오세열 · 유중호 2인전》(서울, 샘터화랑) 개최
- 2008년 《개인전》(서울, 샘터화랑) 개최  
《한국현대구상회화의 흐름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9년 《아티스트전》(서울, 예화랑)에 참여
- 2015년 《오세열-신작전》(프랑스 파리, 보두앙르봉갤러리) 개최
- 2016년 《기억의 층위》(상하이, 학교재 갤러리 / 파리, 한국문화원 / 브뤼셀, 한국문화원)에 참여
- 2017년 《오세열: 무구한 눈》(서울, 학교재 갤러리)  
《오세열: 암시적 기호학》(서울, 학교재 갤러리) 개최
- 2021년 《오세열 개인전 '은유의 섬'》(서울, 학교재 갤러리) 개최

## 이환영 (李桓英, 1945~ )



이환영, <기억의 저편>, 1999, 순지, 수묵 채색, 60×56cm(출처: 『이환영전』, 1999. 6)

호는 오천(吾泉).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나 홍주국민학교, 홍성중학교, 광천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미술반 활동을 하였으나 미술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1970년 30대 중반에 유천 김화경을 사사했다. 김화경을 통해서 ‘후소회’와 ‘백양회’에 입회하면서 본격적으로 화단 활동을 시작했다. 1972년부터 《백양회전》에서 5회 연속 입선, 1976년에는 특선을 차지했다. 또 1977년 《제26회 국전》에 시골집의 마당에 보이는 흙벽과 향토적 정취를 질박한 질감으로 표현한 <향가(鄕家)>로 입선했다.

이 무렵 중·고등학교 교사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해 1974년부터 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했으나 1980년 교사직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1980년 광천에서 해동화랑 초대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1985년부터 1994년까지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서산문화원, 홍성문화원 등 자신의 고향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 시기는 《아름다운 서산실경전》, 《향토실경전》과 같은 전시명에서 드러나듯이 고향 홍성과 서산 일대의 풍광을 수묵담채로 재현한 실경산수화가 중심을 이룬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실경산수화에서 벗어나 ‘기억의 저편’이라는 표제를 붙인 연작을 발표했다. 이환영은 1980년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가 주최하는 ‘원곡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신앙심을 바탕으로 1990년 《예수-그의 나라와 구원전》를 개최했다. 이러한 종교적 주제는 향토적 소재와 함께 이환영 작품의 양 축을 이룬다. 《기억의 저편》연작에는 소와 닭, 연, 초가집, 수양버들과 같이 고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과 예수상을 비롯한 종교적 도상을 소재로 검은 선으로 면을 구획하고, 화려한 색채를 가미해 마치 스테인드글라스 같은 효과를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화랑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1999년 개최한 개인전에서 선보인 《기억의 저편》연작은 풍부한 색감과 기하학적인 화면구성이 일견 샤갈의 작품과 같은 동화적 상상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sup>1</sup>

<sup>1</sup> 최태만,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는 겸손한 작업」, 『이환영』(무역센터 현대백화점 현대아트갤러리, 1999).



이환영, <홍주무진도>, 2012, 비단에 채색, 각 170×330cm, 홍성군청 소장

또한 《기억의 저편》 연작은 순지 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수차례 채색을 가해 마치 벽화와 같은 독특한 질감이 느껴지는데, 재료에 대한 이환영의 관심은 초기 산수화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이환영은 토분이나 연탄재 등을 이용한 새로운 제작방법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2005년 《수원화성 조선 1794년 이후》전에서는 화성 성벽의 표현에 스티로폼에 아크릴을 사용하여 오랜 역사의 무게를 지닌 돌의 재질감을 재현했다. 옛 성벽의 석축미를 소재로 ‘유산’이라는 단일 명제를 붙인 이 전시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 《KPAM 반차도 Representation》, 《정조 화성에 오다》와 같은 전시로 계속 이어졌다.

나아가 그는 고향의 역사성을 명승지를 통해 재현한 《홍주성, 충절을 그리다》전을 열어 주목받았다. 이 전시에 선보인 <홍주무진도(洪州無盡圖)>는 작가의 고향인 홍성을 대상으로, 홍주성과 그와 관련된 문화유산, 역사인물들과 유적들을 세 폭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특히 화면 중앙의 백월산의 표현에 궁중황실 그림인 일월오악도를 차용하고, 검재의 준법으로 산을 묘사하는 등 전통적인 요소들을 각 화면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였다.<sup>2</sup>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작가의 예술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역사의식을 접목한 역사화라 할 수 있다.

이환영은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역사적 소재 외에도 손곡 이달의 시세계를 그림으로 옮긴 《적선(謫仙) 손곡 이달 400년만의 귀향》, 다산 정약용의 시를 회화적으로 재해석한 《다산(茶山)의 꿈 함께 그리다》와 같이 옛 것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에 매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고전적인 필묵을 계승한 산수화부터 세필의 청록산수, 다소 과장된 몸짓과 표정으로 이루어진 민화풍의 인물화까지 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했다. 작가는 수원 화성을 재현하기 위해 의례를 공부

2 서성록, 「이환영, 역사의식이 접목된 회화」, 『홍주성, 충절을 그리다: 이환영』(이환영 한국화연구소, 2012).



하고, 시의도 제작을 위해 글씨를 따로 익히는 등 끊임없이 연구하며 그림을 그렸다. 이환영은 자신의 고향 문화와 옛 전통을 어떻게 계승하고, 예술적 자양분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작가라 하겠다.

## 연보

- 1945년 충청남도 홍성 출생  
홍주국민학교, 홍성중학교, 광천상업고등학교 졸업
- 1970년 유천 김화경 사사
- 1972~1977년 《백양회전》 5회 입선
- 1974년 서울 송곡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76년 《백양회전》 특선
- 1977년 《제26회 국전》에 〈향가(鄕家)〉로 입선
- 1977~1980년 서울 덕성여자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80년 첫 개인전 《해동화랑 초대전》(광천, 해동화랑) 개최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 주최 원곡미술상 수상  
《WARC 세계총회 기념전》(서울, 연세대학교박물관)에 출품
- 1980~2015년 《한국기독교 미술인협회전》에 출품
- 1982~1995년 《한국미술협회전》 참여
- 1982~2005년 《후소회전》에 출품
- 1983년 《한국정예작가초대전》(서울, 백악미술관)에 출품
- 1985년 개인전 《향토실경산수화 초대전》(서산문화원) 개최  
《ASIA 기독교 미술전》(장로회신학대학)에 출품
- 1988년 개인전 《아름다운 서산실경전》(서산문화원) 개최
- 1989년 개인전 《향토실경전》(홍성문화원) 개최
- 1990년 개인전 《예수-그의 나라와 구원전》(서울, 경인미술관) 개최
- 1992년 《제1회 향토작가초대전》(홍성문화원)에 출품
- 1994년 개인전 《아름다운 서산실경전》(서산문화원) 개최
- 1994~1996년 서울 성서신학원 수료, 후소회 총무 역임
- 1995년 《전국 동서양화중진작가 초대전》(인천문화회관)에 출품  
《미술의해 기념 제2회 향토작가초대전》(홍성문화원)에 출품  
《한국화의 현대적 해석과 이미지 표출전》(서울, 종로갤러리)에 출품
- 1996년 《한밭 회향전》(대전시민회관)  
《후소회창립 60주년 기념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7년 개인전 《기억의 저편연작전》(서울, 종로갤러리) 개최  
자랑스런 충남인상 미술부문 본상(JC특우회) 수상

- 1997년 후소회 감사
- 1998~2000년 한국화랑협회 사무국장 역임
- 1998~현재 이환영 한국화연구소 개소, 운영
- 1999년 《이환영 전》(서울,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현대아트갤러리) 개최
- 1999~2019년 《한국기독교미술인 협회전》에 출품
- 2000년 《뉴욕 한국화전》(인타코갤러리)에 출품
- 2001~2002년 운보갤러리(인사동) 관장 역임
- 2002~2014년 《운사회전》에 출품
- 2003년 문화관광부장관(문화관광부) 표창 수상  
《새천년 깃발전》(국립중앙극장)에 출품
- 2004년 《이환영 한국화 : 서산의 정신전》(서산시 문화회관) 개최
- 2005년 《이환영: “수원화성 · 조선 1794년 이후”》(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개최
- 2007년 《KPAM 반차도 Representation》(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2008년 《이환영 특별전 : 반차도 Representation 정조 화성에 오다》(수원미술전시관) 개최
- 2012년 《이환영: 홍주성, 충절을 그리다》(홍성, 홍주문화회관) 개최
- 2014년 《오천 이환영 진경산수\_무유(無有)를 품다》(서울, 겸재정선미술관) 개최
- 2015~2016년 《적선(謫仙) 손곡 이달, 400년만의 귀향: 오천 이환영 詩意畫展》(홍성, 홍주성역사관) 개최
- 2015~2018년 고암 이용노생가기념관 운영위원 역임
- 2018년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다산의 꿈 함께 그리다》(남양주, 실학박물관) 개최

## 임동식 (林東植, 1945~ )



임동식, 〈일어나: '1981년 공주 금강에서 일어나'의 재현작〉  
2019~2020, 캔버스에 유채, 104.5×149cm, 서울시립미술관

1945년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에서 태어난 임동식은 공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196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했다. 1981년 독일 국립 함부르크 미술대학 (Staatliche Hochschule Fur Bildende Kuenste Hamburg Freie Kunst Bei)으로 유학을 떠나 1988년 졸업했다. 졸업 후 독일에서 작품 활동을 지속하다가 1993년 귀국했다.

1974년 '한국미술청년작가회'의 창립멤버로 야외 현장에서 자연물을 이용한 행위와 설치 미술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1980년에는 금강에서 대규모 야외 전시인 《제1회 금강현대미술제》를 기획해 대전과 충청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자생력 있는

미술행사로 이끌었다.<sup>1</sup> 이듬해 열린 《제2회 금강현대미술제》는 장소를 바꿔 대전문화원 실내에서 진행하였다. 임동식은 1981년 여름, 대전에 국내 최초의 야외설치미술 그룹운동인 '야투(野投)자연미술연구회'를 결성하고, 공주와 금강 백사장 인근에서 전시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1981년 공주 금강에서 일어나〉는 1981년 8월 14일까지 열린 《야투-야외현장미술연구회 창립전》에서 임동식이 행한 퍼포먼스이다. 금강에 떠내려 온 폐목을 우연히 발견하고 일으켜 세워 고정시키는 이 행위는 '뜻을 세운다'는 의미를 지녔다.

1981년 독일 함부르크 미술대학 재학 중 자유미술학과 버플러(Claude Boehmer) 교수에게 한국에서 가져간 도록과 슬라이드로 '야투'의 작업을 소개하였다. 버플러 교수의 주선으로 한국에서 했던 《야투전》을 독일에서 재연하여 유럽 화단에도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는 1991년 해외 작가들과 금강에서 《국제자연미술전》을 개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3년 귀국 후, 3년간 작업에 몰두하고자 충남 공주군 신평 원골마을에 작업실을 짓고, 원

1 《금강현대미술제》는 대전권의 참여를 위해 홍명섭과 임동식의 공동기획 형식이 되었다. 참여작가는 고승현, 고창환, 강희순, 곽남식, 김관호, 김영호, 김용익, 박인규, 신동국, 송일영, 안치인, 오자영, 유근영, 유동조, 유병호, 이종협, 이정훈, 이윤구, 이은철, 임동식, 장금자, 정작직, 정길호, 정광호, 정덕영, 조성모, 지식철, 허진권, 홍명섭 등이다. 임재광, 「1970~80년대 대전미술: 주요미술활동을 중심으로」, 『광자진취狂者進取: 대전미술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2020), p. 23.

글 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1998년부터 동네 주민들과 《예술과 마을》을 기획해 전시를 개최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본춘이와 화가 아저씨-봄, 여름, 가을, 겨울〉(1995~2002)은 독일에서 귀국한 작가가 원골에서 공부를 가르치곤 하던 옆집 소년 본춘이와 자신의 모습을 7년에 걸쳐 계절 별로 동일한 장소에서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그린 작품이다. 7년의 기간 동안, 화면 속 소년이 점점 성장하는 반면 화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즉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임동식, 《본춘이와 화가아저씨-봄, 여름, 가을, 겨울》, 2002, 캔버스에 유채, 131×162cm(4), 대전시립미술관

임동식은 2005년부터 현장의 자연물과 함께 야외 자연미술 현장에서 실행한 실제 퍼포먼스를 찍어놓았던 사진을 그림으로 재생하거나 환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 자연 속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를 그림으로 환원하는 것은 재연을 넘어 시대를 통찰하는 새로운 해석으로 평가된다. 임동식은 자연, 삶, 예술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행위예술가로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여 한국미술계에서 자연현장미술가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연보

- 1945년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방축리 출생
- 1964년 공주고등학교 졸업
- 1967년 《개인전(유화)》(공주문화원) 개최
- 197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창립전》(서울, 서울미술회관)에 출품
- 1977년 《개인전(드로잉)》(서울, 청년작가회관) 개최  
《개인전(파스텔)》(청주, 문화원 화랑) 개최
- 1980년 《금강현대미술제 창립 야외전》(공주, 금강 백사장)에 참여
- 1980~1998년 《야투자연미술연구회 창립야외전》(국내 및 독일 야외자연공간) 74회 참여
- 1981년 《오오(五悟)현대미술동인전》(공주문화원)에 참여<sup>2</sup>
- 1984년 《개인전(휴지 위에 드로잉)》(독일 함부르크, 팜센 도서관) 개최

2 오오(五悟) 즉, 다섯 명이 진리를 깨닫는다는 의미의 전시이다. 공주 연고의 임동식, 지석철, 유동조, 고승현, 허진권 등 다섯 명이 따로 전시를 했다. 임재광, 앞의 글, p. 23.

- 1985년 독일 함부르크 알톤미술상(Kunstpreis Altona-Lebensqualitaet Rathaus ltona, Hamburg) 수상
- 1987년 《미술과 자연 심포지움 Kunst-Natur Symposium》(독일 노이베르크87) 참여  
《개인전(드로잉)》(대전, 중앙갤러리) 개최
- 1988년 독일 국립 함부르크미술대학 자유미술학과 졸업  
《개인전(음향설치, 사진, 자료)》(독일, 함부르크미술대학 전시관) 개최  
《귀국 개인전(음향설치)》(대전문화원 화랑) 개최
- 1991년 《금강 국제자연미술전&심포지움》(공주, 금강, 대전, 청주 일원)에 참여
- 1993~2003년 자연미술 심포지움 《예술과 마을》(공주, 신봉 원골마을)에 참여
- 1994년 《Identitaet》(헝가리 부다페스트, 에른스트미술관(Ernst Museum) / 러시아 세인트피터스버그)에 참여
- 1995년 《금강 국제자연미술전&심포지움》(공주, 금강, 대전, 청주 일원)에 참여
- 1998년 《'예술과 마을' 마을미술제》(공주, 신봉 원골마을) 참여  
《금강 국제자연미술전&심포지움》(공주, 금강, 대전, 청주 일원) 참여
- 2000년 미디어시티서울 지하철 프로젝트 참여
- 2002년 《개인전(임동식 80년대 드로잉)》(대전, 이공갤러리) 개최
- 2005년 《개인전(유화, 설치, 드로잉)》(서울, 아르코미술관) 개최
- 2006년 《드로잉 에너지》(서울, 아르코미술관)에 참여  
《개인전(유화)》(대전, 롯데화랑) 개최
- 2008년 《개인전(유화)》(서울, 이화익갤러리) 개최
- 2009년 《플랫폼 인 기무사》(서울, 구 기무사 터)에 참여
- 2011년 《임동식 비단장사 왕서방》(서울, 이화익 갤러리) 개최
- 2013년 《사유의 경치Ⅱ》(서울, 이화익갤러리) 개최
- 2014년 《지연과 비단장사 왕서방기》(창원, 서호 갤러리) 개최
- 2016년 《임동식 동방소년 탐문기》(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2017년 《삼라만상: 김환기에서 양푸둥까지》(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2020년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서울시립미술관) 개최  
제5회 박수근미술상 수상
- 2021년 《사유의 경치》(서울, 이화익갤러리)에 참여

## 임립 (林立, 1945~ )

1945년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에서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임립은 1964년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에 진학해<sup>1</sup> 장리석, 최영립, 박항섭의 지도를 받았다. 1966년 《국전》과 《신인예술전》에 첫 입선을 시작으로 1967년 《목우회전》 특선, 1975년과 1980~1981년 《국전》에서 특선을 하며 국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1969년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낙향하여 보문중·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약 10년간 재직했다. 1979년에 배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4년 후 1983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로 자리를 옮겨 2012년 정년퇴임하였다. 1996년 공주에 임립미술관을 개관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립은 기본적으로 구상계열의 작가지만, 형상을 재현하지는 않는다. 그의 작화기법은 캔버스에 두텁게 물감을 칠한 다음, 기본적인 형상과 구도를 잡고 나이프로 과감하게 물감층의 일부를 긁어낸다. 그 위에 덧칠을 가하거나 선을 긋는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통해 물감이 벗겨진 부분과 물감을 두껍게 칠한 부분, 균열이 생긴 선에서 새로운 형상이 드러나는 효과를 얻는다.<sup>2</sup>

초기에는 임립 자신이 어릴 적 살았던 농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초가지붕의 집과 토담, 부뚜막의 토기,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가는 아낙네들의 모습, 시골 농가 마당에서 노니는 닭, 토담 벽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아이들과 전봇대 줄에 나란히 앉아 있는 새 등을 소재로 두텁고 거친 질감과 토속적인 색채로 구현했다.

1990년대에 이르면, 자연물의 구체적인 형상이 화면에서 점점 희미해지며 단순화된다. 〈연〉, 〈자연〉 등에 물고기와 연꽃이 함께 등장하는데 연꽃의 온전한 형상은 사라지고 긴 줄기와 넓은 잎 등 특징만을 표현하였다. 두터운 물감층을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마티에르를 구성하던



임립, 〈풍요〉, 1976, 캔버스에 유채, 162.2×130.3cm  
(출처: 『임립회고전』, 두원, 2012)

1 유성웅, 「畫家 林立과 그의 藝術」, 『林立 回顧展』(두원, 2012), p. 22.

2 유성웅, 위의 글, pp. 22~25.



임립, 〈연〉, 2010, 캔버스에 유채, 31.8×40.9cm  
(출처: 『임립회고전』, 두원, 2012)

표현기법에서 탈피하여 바탕층이 얇아지고 번짐 효과를 적용하여 수묵화풍의 아련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품의 주된 주제는 대화, 동심, 자연으로, 아이들과 새, 물고기가 주요 소재로 화면에 등장하였다.

2000년대에 선보인 《자연과의 대화》와 《회화의 세계-蓮》 연작에서는 반추상적인 화면을 추구했으나 2010년 이후 제작한 《회화의 세계-蓮》 연작에서는 연꽃을 완전히 해체해 연잎의 잎맥으로만 화면을 채웠다.

임립의 작품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마을의 정취를 떠올리게 하는 토속적 이미지와 소재들이 항상 등장하여 동화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임립은 화가이자, 교육자이면서 박물관 관장으로 충남 미술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연보

- 1945년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출생
- 1964년 제38회 공주고등학교 졸업
- 1966년 《제15회 국전》에 첫 입선  
《신인예술전》 입선
- 1967년 《목우회》에 특선
- 1969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 1969~1979년 대전 보문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70~1971년 《충청남도미술대전》에 특선
- 1974~1975년 《구상전》에 특선
- 1975년 《국전》에 〈가을의 노래〉로 특선 수상
- 1976년 《개인전》(대전, 홍명미술관) 개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1979년 배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 1980년 《개인전》(대전문화원) 개최  
《제29회 국전》에 〈고가의 정답〉으로 특선 수상
- 1981년 《제30회 국전》에 〈한가위와 아이들〉로 특선 수상
- 1983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부임
- 1984년 《개인전》(대전, 반도화랑) 개최
- 1985년 《개인전》(서울, 여의도미술관) 개최

충청남도 문화상 수상

- 1986년 《한국미술문화대상전》 초대작가상 수상
- 1987년 《개인전》(대전, 대전미술관) 개최
-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기념 《한국현대미술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9년 《서양화6인전(김동창 · 신현국 · 심웅창 · 이인영 · 임립 · 임봉재)》(대전미술관)에 참여
- 1990년 《개인전》(대전, 미술회관) 개최  
저서 『한국현대미술가』(미술공론사) 발간
- 1994년 《개인전》(대전, 경암미술관 / 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1995년 《개인전》(공주문화원화랑) 개최  
《움직이는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6년 임립미술관 개관
- 1998년 《중원미술의 향기 · 대전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2년 월간미술시대 제13회 한국미술작가상 수상
- 2003년 《개인전》(대전, 현대갤러리) 개최
- 2005년 《회갑기념 개인전》(공주, 임립미술관) 개최
- 2006년 스승의 날 기념 대통령표창 수상  
대전 MBC 한빛대상 수상
- 2009년 《한국미술 대표작가 100인의 오늘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 2010년 대한민국미술인상 수상  
러시아국립극동인문대학 명예 미술학 박사학위 받음



## 정명희(鄭莫熙, 1945~ )



정명희, 〈자유여정 21-1〉, 2021, 한지에 수묵·색지, 139×118cm(출처: 『정명희미술관 개관10주년 기념전』, 정명희미술관, 2021)

호는 기산(箕山), 일청(一淸). 1945년 1월 15일 강원도 평강에서 태어났으나 본적지는 충청남도 홍성이다.<sup>1</sup> 1957년 공무원이던 부친을 따라 대전으로 이사하여, 대전 대흥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대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제41회 전국체육대회 포스터 공모전》에 1등으로 당선되었으며, 대입 재수 중이던 1962년 임양수, 양창제, 이영수 등과 미술 동인 ‘죽미회(竹美會)’를 결성하여 《죽미회 창립전》을 개최했다.

1964년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과에 입학하였으나 1966년 중퇴하고, 이후부터는 ‘충남청년미술인회’를 조직하거나 《제1회 충남도전》, 《백양회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또한 중

등교원검정고시를 통해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강경여자중·고등학교, 대신중·고등학교, 동명중학교의 교사로 재직했다. 1993년 ‘대전광역시 문화상’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대전시교육청에 자신의 작품 1,300여점을 기증했고, 2011년 ‘정명희 미술관’을 개관했다.

정명희의 작품은 수묵에서 채색으로 이행하는 현대 한국화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sup>2</sup> 초기 작에 속하는 1970년대 제작한 《죽보》 연작은 지그재그로 표현한 묵선과 동심원, 반복되는 조형적 효과를 통해 역사적 흐름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업이다.<sup>3</sup>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보다 구체적인 현실을 담기 위해 금강과 대전 곳곳을 두루 다니며 공사장 풍경과 같이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된 현대적 실경 산수를 화폭에 담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홍수로 범람한 금강의 모습, 공장의 건설과 폐수로 더럽혀진 현장을 극명하게 묘사한 작품을 선보이며 ‘금강의 작가’로 불렸다. 1985년 개최한 개인전 《금강 4계승》에서 이러한 변화를 보였던 정명희는 이후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금강을 그리던 안타까운 마음을 금강의 부활, 재생의 메시지로 확장시키며 《부활하는 강》, 《사야(史野)금강》 연작을 제작했다.

1 고영호, 「한국화가 기산 정명희 초대전」, 『충청일보』(2015. 11. 18).

2 한성일, 「금강화가 기산 정명희의 삶과 예술」, 『중도일보』(2018. 4. 12).

3 허나영, 「기산 정명희의 예술로 보는 현대 한국화의 흐름」, 『정명희미술관개관 10주년기념』(정명희미술관, 2021), p. 29.

《史野금강》 연작은 물비늘이 반짝이는 수면 위로 낮게 날고 있는 검은 새 한 마리와 그 뒤로 펼쳐지는 야트막한 산 그림자가 그림의 전부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먼 곳을 향해 날고 있는 작고 검은 새는 정명희 작품에서 삶과 죽음을 은유하는 매개체이다.<sup>4</sup> 이후 《한잔의 물》, 《geumgang(R. diary)》, 《금강홍변주(錦江虹變奏)》 연작을 연달아 발표하며 금강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새를 위해 금강은 반짝이고〉는 2002년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교육적, 미술사적 가치와 함께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2020년대 들어 수묵화의 원류이자, 화업의 시작이었던 수묵으로 되돌아가 《Rhapsody in Sumuk》 연작을 제작했다.<sup>5</sup> 깨끗한 강에서만 서식하는 새를 검은 먹색과 신문 등 다양한 작업 방식을 통해 회화화 시켰으며,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환경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작품에 담아냈다. 또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통해 꿈을 향해 비상하는 작업의 여정을 표현했다.

정명희는 1970년대 추상미술에 심취했으나 1980년대부터 한국화의 정체성을 찾아 실경산수로 회귀하였으며, 1990년대 채묵 산수로 다시 변신을 꾀했다. 2000년대를 맞아 반추상화를 시도하는 등 다양한 변모를 보이며 치열한 작가정신으로 일관해왔다.

## 연보

- 1945년 강원도 평강 출생(본적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수란리)
- 1962년 《죽미회 창립전》(충남공보관화랑) 개최
- 1971~1982년 《백양회》·《중앙미술대전》·《충남도전》 참가, 특선 및 대상 수상
- 1975·1977년 《일청(一淸) 정명희 작품전》(대전, 홍명미술관) 개최
- 1978~1998년 목원대학교·배재대학교 출강
- 1979~1998년 《대전·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 1981년 《기산 정명희전》(서울, 관훈미술관) / 《기산 정명희 작품전》(대전시민회관) 개최
- 1982년 《정명희전》(대전, 공간사랑) 개최
- 1983년 《기산 정명희전》(서울, 동덕미술관) 개최
- 1983~1995년 경원대·한남대·서원대 출강
- 1985년 《금강 사계송전》(서울갤러리) / 《금강 사계송전》(대전시민회관) 개최  
《1000리 금강 송전》(대전, 공간사랑)에 참여
- 1987년 《동방수묵대전》(홍콩 중문대학)에 참여
- 1987~1996년 《현대미술초대전》 및 《움직이는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8년 《올림픽기념 한국현대미술전》 및 SEOUL ART FESTIVAL 등 출품

4 윤철규, 「'금강의 화가' 정명희 화풍 변신...죽어간 새들을 위하여」, 『중앙일보』(1998. 2. 17).

5 작가의 근작에 관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 전달받았다(인터뷰: 2021. 10. 15).

- 1989년            안전 미술상 수상  
                  《안전 미술상 수상기념전》(대전문화원)에 참여  
                  기산 정명희 작품세계 KBS-TV미술관 출연
- 1990년            《미술대전》심사위원 역임  
                  《동방의 빛 전》(독일·헝가리)에 출품  
                  《정명희·장상의·민이식 초대3인전》(서울, 신세계 미술관)에 참여
- 1990~1994년    《한국미술 오늘의 상황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1년            《유네스코 일본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아! 백두산전》(대전, 오원화랑)에 참여
- 1991~1997년    《한국화 그 동질성의 회복전》(대전, 대구, 광주, 전주, 중국 하얼빈) 참가
- 1992년            《한·중 진경산수화 특별전》(서울, 동산방화랑)에 출품  
                  《신 금강전》(서울, 서초갤러리)  
                  《신 금강특별전》(대전, 오원화랑) 개최
- 1992~1996년    《문인화정신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3년            대전광역시 문화상 수상
- 1993~1996년    《한국의 자연 및 도시와 미술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4년            운보 김기창 선생 전작도록 발간위원으로 활동
- 1995년            《금강에서 장강까지 사생리포트》(서울, 대립화랑) 개최
- 1996년            《중국기행전》(대전, 현대화랑)  
                  《후소회 창립 60주년 기념전》(예술의 전당)에 출품
- 1997년            《다시 금강으로 전》(충남, 공주문예회관) 개최  
                  《한국의 미를 찾아서》(서울, 사비나갤러리)에 출품  
                  《독일 프랑크 푸르트 슈발바흐시 초대(KUNST AUS KOREA)전》 참가
- 1998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예술과정 수료  
                  《금강사랑 전국6대도시 순회전》(서울, 사비나갤러리 / 대전, 현대화랑) 개최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대전광역시 지회장 역임
- 2000년            《환경, 생명의 조형언어》(서울, 사비나갤러리) 개최
- 2010년            대전시교육청에 작품 기증식
- 2011년            정명희 미술관 개관
- 2016년            《점과 선과 발목의 세계》(대전, 정명희미술관) 개최
- 2018년            《금강, 그 멈출 수 없는 변주》(서울, 조선일보 미술관) 개최
- 2020년            제1회 GIAF 예술상 수상  
                  《임재우·정명희 2인전》(대전갤러리) 개최
- 2021년            선화 기독교 미술관장으로 재직

## 정해조(鄭解朝, 1945~ )

1945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2남 2녀 중 첫째로 출생했다. 대전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5년 홍익대학교 공예학부 도안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도안과가 도안과와 공예과로 분리되면서 공예과를 선택했다. 1969년 2학년 때 전공실기(목공예) 수업의 '목재와 색상과의 연관성을 모색'하는 과제물로 목재로 만든 전기스탠드에 채색을 하면서 목재와 칠의 연관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칠공예 장인의 공방을 찾아가 익힌 기법으로 완성한 전기스탠드를 《제5회 대한민국상공미전》에 출품해서 입선했다. 197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목칠공예 전공)를 졸업했다.

1980년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1990년 중년의 나이에 1년간 일본 칠공예의 본고장인 가나자와(金沢)미술공예대학 미술공예연구소에서 칠예(漆藝)를 새롭게 공부하였다. 귀국 후 옷칠 공예의 확산을 위해 배재대학교 미술학부에 칠공예 전공을 만들었고, 2004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립학과로 칠예과를 신설했다.<sup>1</sup> 정해조는 공예가이자 교육자로서 또한 옷칠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모색하는 연구자로 연구논문 「전통피태칠기 제작기법과 기술의 정립」으로 2004년 제1회 한국공예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2005년에는 대학교 내 '옷칠테크아트센터'를 설립하여 칠공예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생활화, 상품화를 위해 애썼다. 2006년 베트남 호치민대학교의 칠화 최고 과정을 이수하는 등 칠예의 현대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sup>2</sup> 2010년 배재대학교 예술대학 칠예과 교수에서 정년퇴임을 했으며 현재는 작품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정해조는 자신의 작품의 변화를 입문기, 학습기, 탐구기, 정립기, 응용기로 구분한다. 입문기(1969~1980)는 옷칠을 처음 접한 시기로 나무에 옷칠을 하는 목태칠기 작업을 주로 하였다. 실제 사물을 재현하거나 추상적인 형상에 옷칠을 적용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학습기(1981~1990)는 협저태(紵夾胎)기법을 익힌 시기로, 작가는 한국의 전통 칠기 제작법 중 모시나 삼베를 지지



정해조, 〈색광율(色光律)0909〉, 2009, 협저태칠기, 51.4×51.4×37(h)cm, 대전시립미술관

1 2011년 아쉽게 배재대학교는 경제논리를 내세워 칠예과를 폐지하였다.

2 황효순, 「대전미술의 선구자들3」, 『대전문화』24호(대전광역시, 2015), p. 71.



정해조, 〈오색광율〉, 2013, 옷칠·삼베, 12×12×12cm(5)  
 (출처: 『대전미술100년-미래의 시작』, 대전시립미술관, 2018)

대로 삼아 옷칠액과 함께 굳히는 헝저태기법을 주로 쓰고 있다. 이 방식은 작품의 크기에 비해 가벼운 장점이 있으나 다른 기법에 비해 공정이 까다롭고 어려우며 제작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탐구기(1991~2000)는 일본으로 떠나 칠예를 익히고 옷칠한 매체의 굴곡진 표면에서 일어나는 빛의 난반사(亂反射)를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실험하는 《색광율》 연작의 초기 단계이다. 이후 정립기(2001~2010)는 초기 《색광율》 연작을 발전시켜 흑색·적색·오방색으로 옷색의 변화와 대상의 외형에 굴곡을 만들어 빛의 난반사를 다각도로 극대화시켰다. 2011년 이후는 앞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얻은 색상과 기형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형의 작품을 제작하는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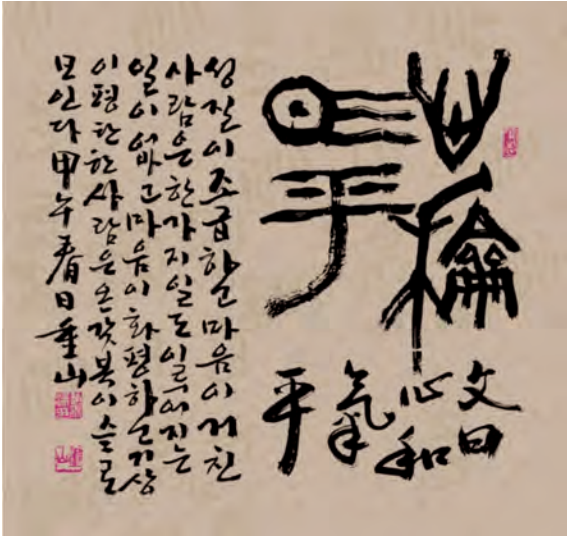
정해조의 작품은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발하는 빛의 난반사로 인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강렬한 리듬감과 운동감을 자아낸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정해조의 작품은 옷칠의 한국 전통미를 지니면서도 빛의 난반사라는 과학의 원리를 접목해 현대적 감각을 새롭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2013년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과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에서 작품을 매입해 소장하고 있다. 2021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오색광율(五色光律)〉을 증정했다.

## 연보

- 1945년 충청북도 옥천에서 출생
- 1970년 대한산업미술가회 《제6회 전국공모전》 특선  
《제5회 대한민국상공미전》에 입선
- 1971년 《제2회 전국대학미술전람회》(전국대학 문화예술축전 대회장) 입선
- 197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목칠공예전공) 졸업  
《제3회 홍전》(대구백화점 화랑)에 참여
- 1976년 《홍익대학 동문전》(대전문화원)에 참가
- 1978년 《제42회 대전미술협회 충남지부전》(대전, 남계화랑)에 참여
- 1979년 《충남디자인협회 창립전》(대전, 남계화랑)에 참여
- 1980년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 1981~2020년 《한국공예가회 회원전》에 참가
- 1982년 《정해조 문양화 작품 초대전》(대전공간사랑) 개최
- 1990년 일본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칠예전공 수학
- 1994년 《한·중 漆藝交陸서울전》(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에 참여
- 1995년 《국제칠예심포지움》(영남대학교)에 참여
- 1996년 《한·중칠예학술연토회》(중국, 중앙공예미술대학)에 참여
- 1998년 《세계칠예심포지움 및 전시》(대만, 대중문화센터)에 참여
- 1999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국제초대작가전》(청주, 예술의전당)에 참여  
《한일 옷칠관련 공동심포지움》(진주, 전북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에 출품
- 2001년 《대전공예2001》(대전, 롯데화랑)에 참가  
《예술과 과학 국제작품전》(중국, 중국미술관)에 출품
- 2002년 《The Korean Ott painting&Craft Art》(미국, 오클랜드 중앙아트홀)에 출품
- 2004년 『전통피칠기 제작기법과 기술의 정립』(『한국공예논총』 제6집 제1권, 한국공예학회, 2003. 8)로 제1회 한국공예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 2006년 일본 한국 칠예 세미나(일본 동경예술대학) 발표  
베트남 호치민 미술대학 칠화 최고과정 수료
- 2007년 『나전장』(국립문화재연구소) 출간
- 2008년 한국공예가협회상 수상  
《일상의 목향》(서울, 우덕갤러리)에 참여  
《정해조 옷칠아트전》(서울, 인사아트센터) 개최  
《정해조 옷칠조형 특별초대전》(통영옷칠미술관) 개최
- 2009년 《정해조 개인전》(미국, 펜실베이니아 컨벤션 센터(Pennsylvania Convention Center)) 개최  
《정해조 옷칠아트 개인전》(코엑스 A홀) 개최
- 2010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배재대학교 예술대학 칠예과 정년퇴임
- 2012~2014년 중국 강서사범대학 과학기술학원 객좌교수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표창장 수상
- 2015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 옥관문화훈장 수상
- 2016~2019년 중국 천진 칠예연구소 특별초대 연구원으로 위촉
- 2016년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상 수상  
《정해조 옷칠아트전》(중국, 강서성 남창국제전람회센터) 개최
- 2017년 《정해조 옷칠 아트전》(미국, 펜실베이니아 컨벤션 센터) 개최
- 2018년 《Lacquer Friend of the World》(독일 Munster, Museum of Lackkunst)에 참여
- 2021년 《정해조 옷칠 공예전》(서울, 분더샵 청담) 개최  
《DNA ;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국립현대미술관)에 <적광울 0808>(2008) 출품

# 조태수 (趙泰洙, 1945~)



조태수, 〈심화기평(心和氣平)〉(출처: 『조태수의 서예이야기』, 『금강일보』, 2015. 12. 15)

호는 중산(重山). 1945년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용흥리에서 태어난 조태수는 유년시절 조부의 영향으로 서예에 입문하였다. 조부의 소개로 민경갑이 운영하던 동양화연구실(東洋畵研究室)에서 수학하였으며 1964년 고등학교 재학시절에는 《충청남도 학생 실기대회》에서 특선을 차지하며 서예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65년 홍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을 졸업하였다.<sup>1</sup>

1980년대부터 대전 선화동에서 중산서실(重山書室)을 운영하며 약 40여 년 동안 작품활동과 후진 양성에 매진해왔다. 또

한 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한국서도협회 대전충남지회’에서 회장을 역임하며 신인 서예가 발굴과 작가들의 작품활동을 돕는데 힘썼다. 이에 대한 공로로 2012년 대전광역시 유공 예술인 표창을 받았다. 2014년에는 충청남도과 홍성군의 지원을 받아 《중산 조태수 초대전》을 개최하여 약 7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평소 ‘글씨는 곧 사람이라는 뜻’을 담은 ‘서여기인(書如其人)’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태수는 글씨 자체가 갖는 조형미나 예술성뿐만 아니라 글 속에서 발견되는 인품과 기상에 더욱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sup>2</sup> 이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고사성어나 명시의 시대적 배경과 의의를 연구한 『한묵기행(翰墨紀行)』을 발간하여 전문서예인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명언·명구의 뜻을 전하고자 하였다. 2011년 발간된 『한묵기행』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6회에 걸쳐 「조태수의 서예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금강일보』에 게재된 글을 묶은 책으로, 전문 서예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서예문화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

1 조태수 에세이집 『벼루에 고인 세월』(오늘의문학사, 2019)의 블로그 서평 참고. <https://blog.naver.com/hs2980/221727960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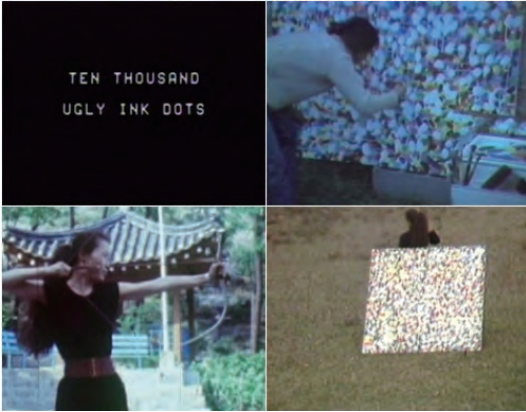
2 조태수, 『평생 붓 들고 살아온 삶 행복, 서예로 고향에 기여하고자』, 『홍주일보』(2014. 9. 18).

## 연보

- 1945년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용흥리 출생
- 1964년 《충청남도 학생 실기대회》에서 특선
- 1965년 홍성고등학교 졸업(19회)
- 1967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예술대학) 2년 수학
- 1988년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1997년 《미술대전》 우수상
- 1998년 《대한민국 서예 전람회》 특선
- 2008년 대전광역시 유공 예술인 표창(시장상) 수상
- 2009년 《제1회 개인전》(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 개최
- 2011년 신인문학 작품상 수상(수필 등단)  
『한묵기행(翰墨紀行)』(오늘의문학사) 발간
- 2011~2015년 『금강일보』에 「조태수의 서예이야기」라는 제목으로 56회 기고
- 2012년 문학사랑협의회 주최 '문학사랑 예술발전 공모상' 수상  
한국서도협회 주최 '한국서도 문화상' 수상
- 2014년 《중산 조태수 초대전》(대전갤러리/홍성문화원) 개최
- 2017년 《오늘의 한국서예전》(서울, 예술의전당) 참가
- 2018년 《제13회 충청서도초대작가전》(대전 예술가의 집)에 참여  
『중산 조태수 수필집』(오늘의문학사) 발간
- 2019년 자서전 『벼루에 고인 세월』(오늘의문학사) 발간



## 김순기 (金順基, 1946~ )



김순기, 〈만개의 더러운 먹물자국〉, 1975-1982, 단채널 비디오, 컬러, 무음, 2분52초, 국립현대미술관

김순기는 1946년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붓글씨를 즐겨하는 외조부와 어머니 밑에서 전통문화를 배웠으며, 일본에서 사진을 공부하고 영화제작을 했던 외삼촌에게서 영상 매체를 배웠다.

김순기의 작품은 크게 도불(渡佛)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도불 이전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무용가 이애주(李愛珠, 1947~2021)와 조각가 최종태를 만나 동양사상, 전통예술, 국악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였는데 이는 초기 작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sup>1</sup>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 춤, 무속신앙, 종교 등도 이 시기 이애주와의 관계를 짐작케 한다. 또한 간송미술관 설립자 전형필의 아들로 미국에서 현대작가로 활동한 바 있는 전성우는 김순기의 일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전성우의 수업을 들으며 만다라와 전통 색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의 배려로 성북동 간송미술관에서 서화를 직접 실견하면서 동양미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회화과(서양화 전공)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수료한 김순기는 1971년 니스 국제 예술교류센터의 초청작가로 선발되어 프랑스로 건너갔다.<sup>2</sup> 이후 니스 국립장식미술학교(École nationale des Arts Décoratifs de Nice)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4학년에 편입하였다가 1972년 전국 미술대학 우수졸업생 36인 중 한 명으로 선발되어 파리에서 개최된 전시에서 작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도불 당시부터 비디오 장치에 의한 영상 제작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김순기는 1974년 장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자마다 프랑스 모나코 해변에 〈조형상황 II〉 설치-이벤트 작업을 했다. 이는 작가의 첫 비디오 작업으로 해변에서 열기구와 연을 날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작업 이후로 김순기는 ‘퍼포먼스’를 위주로 영상을 기록했으며, 비디오는 퍼포먼스와

1 이 글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연구지원」 사업에 수록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유진상, 「김순기 비평글」, 출처: <https://www.k-artmarket.kr/kada/portal/singl/writer/criticism.do?menuNo=200046&writrNo=12>(2021. 10. 23).

2 김순기는 어린 시절부터 파리행을 꿈꿨다. 어머니의 소개로 가희동 성당의 프랑스인 신부님과 잦은 교류를 통해 대학 시절 프랑스어를 익힐 수 있었다. 김순기, 『게으른 구름』(국립현대미술관, 2019), p. 8.

완전히 통합된 재료로 사용되었다.

1977년 김순기는 플럭서스 운동의 중심인물이었던 존 케이지(John Milton Cage Jr, 1912~1992)를 만나면서 커다란 전환을 맞게 되었다. 이후 생트 본 문화센터(Center Culturel de la St. Baume)에서 존 케이지의 〈4' 33'〉와 〈O' O' O'〉를 연주했으며, 존 케이지와의 관계는 1979년 백남준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 1889~1951), 존 케이지, 백남준 이 세 사람은 김순기의 예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다.

김순기는 1960년대 후반 회화 전체에 흰 물감을 덮어 회화를 해체하고 전시실이나 미술관과 같은 예술 공간이 아닌 일상 공간에 작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1980년대에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매료되었던 국궁, 활쏘기를 이용하여 영상 〈만 개의 더러운 먹물자국〉(1982)을 제작했다. 이처럼 김순기는 퍼포먼스의 선구자로서 〈시간과 공간〉이란 퍼포먼스를 기획하였으며, 1983년 파리의 한일관에서 백남준과 공동 퍼포먼스를 가졌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 작업은 〈봉주르 백남준 II〉를 탄생시켰다.

김순기는 언제나 경계와 한계, 편견을 넘어 무한한 열림을 모색했다. 유유자적 느리지만 유희가 가득한 그의 작품들은 동서양 문화와 철학이 공존하고, 학제와 장르를 넘나드는 융합이 이뤄지고 과학기술과 예술이 연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2011년 디종 국립고등미술학교(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 de Dijon) 교수직에서 은퇴한 이후 1986년부터 거주한 파리 근교 작업실에서 작업과 집필 활동을 이어나갔다. 2014년에 열린 《달, 어디에, 시장을 넘어서, 침묵》(아트선재센터), 《인피니트 챌린지》(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2019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게으른 구름 - 김순기》를 통해 창작의지를 보여주었다.

## 연보

- 1946년 충청남도 부여 출생
- 1966~1970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서양화 전공) 졸업
- 1970년 〈소리 I, II〉(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야외 공간 설치)
- 1970~197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수학
- 1971~1972년 니스 국립장식미술학교(École Nationale d'Art Décoratif de Nice) 회화과 졸업
- 1974~1975년 니스 국립장식미술학교(École Nationale d'Art Décoratif de Nice) 교수로 재직
- 1974~2000년 마르세이유 고등미술학교(École Supérieure des Beaux-Arts de Marseille) 교수로 재직
- 1975년 《김순기 미술제》(서울, 미국문화원) 개최
- 1977~1978년 엑상프로방스 대학교(Université d'Aix-en-Provence) 기호학, DEA(Diplomad'Études Approfondies) 학위 취득
- 1978년 〈4' 33'〉, 〈O' O' O'〉 존케이지 작품 해설(프랑스, Centre Culturel de St. Baume)

- 1982년 Bonjour Paik Nam June, 인터뷰(뉴욕, 백남준 아뜰리에) 발표  
Chang Tai Tien, 중국화가 장대천(대만)과 인터뷰 발표
- 1983년 Bonjour Paik Nam June II, 백남준과 퍼포먼스(프랑스 파리, 한일관) 발표
- 1985년 《Ten thousand ugly ink dots》(독일 베를린, DAAD gallery) 개최
- 1987년 Japan 87 International Video Television Festival(일본 동경) 음향상 수상
- 1989년 《존케이지와 김순기(2인전)》(캐나다 몬트리올, Graff 갤러리) 개최
- 1989~1994년 니스대학교(Université de Nice-Sophia Antipolis) 미학과 졸업
- 1991년 〈O Time〉(프랑스 니스 현대미술관) 개최
- 1995년 〈Quality, Quantity, Sensation〉(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9년 《일화 굿기》(서울, 토탈미술관) 참여
- 2000년 《디자인 혹은 예술》(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주식거래 II(Stock Exchange II)》(서울, 아트선재센터) 개최
- 2001~2011년 프랑스 디종 국립고등미술학교(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 de Dijon) 교수 역임
- 2001년 《Stock Exchange III》(프랑스) 개최
- 2006년 《Soun Gui Kim/Films》(파리, The Film Gallery) 개최
- 2007년 《백남준 1주기 추모전 : 부퍼탈의 추억》(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2008년 《Platform Seoul》(서울, 아트선재센터)에 출품
- 2010년 《서울 미디어 시티》(서울역사박물관)에 참여
- 2012년 파리 3대학과 7대학 주관 《Cage Transatlantique Transatlantic Cage》(파리, 꼴베르 갤러리)에 출품
- 2013년 《Beating the market : Soun-Gui Kim in dialogue with Cage, Derrida, and Nancy》(필라델피아, Slought Foundation) 개최
- 2014년 《달, 어디에, 시장을 넘어서, 침묵》(서울, 아트선재센터) 개최
- 2015년 《아시아 필름 비디오 아트 포럼》(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백제의 후예, 오늘의 부여미술 초대전(부여문화원)에 출품
- 2016년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백남준 10주기 추모전 : 백남준 ∞ 플릭서스》(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2017년 《일화 One Stroke of Painting》(서울, 아라리오 뮤지움) 개최
- 2018년 《김순기 : 0 TIME》(서울, 아라리오 갤러리) 개최
- 2019~2020년 《게으른 구름 - 김순기》(국립현대미술관) 개최
- 2020년 《Unexpected Time in Hometown》(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에 출품  
《Dancing Queen》(천안, 아라리오 갤러리)에 출품
- 2021년 《Another Energy: Power to Continue Challenging - 16 Women Artists from around the World》  
(일본, 모리(Mori) 아트 미술관)에 출품
- 2021~2022년 《게으른 구름 - 김순기》(독일, ZKM, Karlsruhe) 개최

## 김여성 (金如星, 1946~ )

1946년 대전에서 태어난 김여성은 대전공업고등학교 시절부터 《미술사진연합전》(1964), ‘미술록’(1965~1966) 등 미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미술학과에 입학하여 1970년 졸업하였다.

틀에 얽매인 구상표현 중심의 대전화단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정명희, 이영수 등과 함께 1970년 ‘새롭자’는 구호를 앞세워 ‘충남청년미술인회’를 창립하고 《창립전》을 개최했다.<sup>1</sup> 1970년 대학교 졸업 후 대전 성모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약 3년간 근무했다. 1971년 서울 중앙공보관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으며 197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를 졸업했다.

뉴욕 프리아데스 화랑 전속화가로 활동하며 개인전을 통해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다. 2002년 배재대학교의 초청으로 일시 귀국해 1년간 교환교수로 대전에 머물렀다. 이후 고등학교 시절 함께했던 ‘미술록’ 회원들과 만나 《미술록과 친구들》, 《화연전》 등에 참여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스타트뉴스』의 고정칼럼니스트로 「김여성의 그림일기」를 총 7회 연재하며 작품과 일상 관련 이야기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였다.<sup>2</sup>

김여성은 흔히 볼 수 있는 잡지 광고의 이미지를 화면에 재구성하는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 ‘콜라주 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sup>3</sup> 전형적인 콜라주 기법을 변형시켜 부분적으로 색을 칠해 화면 전체의 경계를 객관화하고, 중첩된 종이들 사이로 드러나는 공간을 통해 인간 형상의 변형을 구축하였다.<sup>4</sup> 시간차가 있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한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삶에서 느끼는 시간의 흐름, 흐릿해지는 기억들 등 여러 의미를 부여했다.

2008년 개인전에서는 콜라주 기법의 변형으로 다양한 색과 크기의 하트를 화면 가득 그린



김여성, 〈작품〉, 1971, 캔버스에 유채, 130.3×162.2cm, 개인소장

1 1971년 《한국미술대상전》에서 비구상계열의 김환기의 작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랴〉가 대상을 받을 정도로 국내화단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당시 대전에서는 설치작품이나 비구상작품은 발표하기 어려울 만큼 여전히 구상이 강세였다. 1회 전시 때 이영수는 〈사망〉이라는 설치작품을 출품하여 원로작가들에게 비판을 받았다. 김여성은 캔버스에 오브제를 붙여 만든 비구상 작품을 출품했고, 김치중은 구상작품을, 박명규는 비구상 작품을 출품했다.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 대전미술의 새물결』(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2013), pp. 67~68.

2 「재미화가 김여성의 그림일기」, 『스타트뉴스』(2018. 9. 12).

3 김구희, 「김여성 작가의 개인전, 소우주를 여행하다」, 『충청데일리』(2013. 12. 23).

4 이철휘, 「[예술토크] 재미화가 김여성씨, 겹겹이 쌓아올리는 기억 한 조각」, 『아시아뉴스통신』(2018. 12. 30).



김여성, 〈지도그리기〉, 2018, 골판지·아크릴물감 콜라주, 53.3×40.6cm, 작가소장

다음, 그 위에 진한 흰색 물감을 흘뿌려 놓았다. 이전 작품에서 종이 조각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던 여백의 효과를 흰 물감으로 대체한 듯하다. 〈지도그리기〉(2018)는 1970년대 화단에 당당하게 맞서 사회적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시도이다. 화면에는 잡지에서 가져온 이미지들과 그림이나 텍스트가 있는 종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접어서 골판지 형태로 만들어 배치하였다. 〈지도그리기〉를 통해 작가는 낯선 타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지내온 시간을 회상하듯 보여주었다.

## 연보

- 1946년            대전 출생  
                      대전공업학교 건축과 졸업
- 1964년            《미술사진연합전》 참가
- 1965년            충남대전지역 고등학생들의 모임인 《미상록전》에 2회 참여
- 1970년            서라벌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1970·1972년     ‘충남청년미술인회’ 창립 및 전시 참여
- 1970~1973년    대전 성모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 재직
- 1971년            《일요스케치회 우정의 만남》에 참여
- 1971년            《개인전》(서울, 중앙공보관) 개최
- 1974년            미국 뉴욕으로 이주
- 1980~2008년    Snug Harbor Contemporary Fine Art(SOHO 뉴욕) 전속 작가
- 1984년            《개인전》(뉴욕, 한국문화원) 개최
- 1994년            《개인전》(뉴욕 브루클린, 프랫대학교 미술관) 개최 /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개최
- 1996~2005년    《개인전》(뉴욕, 프리아데스화랑 / 스넹하버 문화센터 / 뉴저지, F.G.S 화랑 등) 개최
- 2002~2003년    배재대학교 교환교수 자격으로 일시 귀국
- 2008년            《개인전》(대전, 우연갤러리) 개최
- 2011년            《개인전》(뉴저지 포트리, 갤러리 움즈) 개최 / 《미상록과 친구들》(대전중구문화원)에 참여  
                      《그림으로 맺은 인연-화연전》(대전시청 2층 갤러리)에 출품
- 2012년            《고교미술 활동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미상록작가들》(대전 중구문화원)에 참가
- 2013년            《개인전》(대전, 우연갤러리) 개최 / 《초대전》(대전, 이공갤러리) 개최
- 2018년            스타트뉴스의 고정칼럼니스트로 김여성의 그림일기 총 7회 연재(2018. 9. 12~2019. 4. 4)

## 김정헌 (金正憲, 1946~ )

1946년 평양에서 출생한 김정헌은 1972년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1975년부터 1980년까지 약 5년간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197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서양화 전공)를 졸업했다. 1980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충남과 인연을 맺었으며 이때부터 농민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79년 군사독재 정권 시절 결성한 '현실과 발언'의 창립멤버이며 '전국민족미술인연합회' 대표를 지냈다. 1980년대에 본격화된 거대 도시문화 환경 속에서 개인의 삶을 투박한 색조, 비정형의 인물, 거친 붓질 등을 통해 특유의 유머와 현실비판적인 시각으로 표현했다.<sup>1</sup> 1980년대 초에는 주로 TV, 신문 등에

나오는 이미지를 차용하여 대중문화와 사회 비판적인 작업을 했다. <풍요한 생활을-럭키 모노톱>(1981)은 상품 광고 위에 농촌의 현실을 노출시킨 몽타주 기법을 적용한 작품으로 광고 카피 뒤에 숨은 자본의 민낯을 표현했다.

1986~1987년에는 민중미술의 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분단을 넘어서>와 <노동자 가족>을 선보였다. 1988년 이후 민중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내가 갈아야 할 땅>, <소나무 아래서>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1990년대 초 《땅의 길, 흙의 길》연작에서는 소유 개념의 땅과 자연물인 흙이 통합된 세계를 한 화면에 담기 위해 흙 위의 생명체와 함께 그들의 조화로운 삶을 그렸다.

1997년 《4번째 개인전》에서 관객과의 소통 부재를 개탄하며, 잠시 화필을 중단하고 정치적 변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로 결성한 '문화연대'의 상임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공주대학교 미술교육과에서 20여 년 간 교수를 하면서 작가로서, 교육자로서의 경계에서 고민을 하였다. 즉 예비교사 양성과 예비 미술가 배출 사이에서의 고민을 통해 실기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 기능주의 식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시각적 해석력을 위주로 하는 시각문화교육을 주창하였다. 작가의 이



김정헌, <풍요한 생활을-럭키 모노톱>, 1981, 캔버스에 아크릴, 91×73cm(출처: 『김정헌』, 핵사곤, 2017)

1 『1980년대 리얼리즘과 그 시대』(가나아트센터, 2001), p. 40.



김정현, 〈아몰랑 구름이 떠있는 수상한 옥상〉, 2015, 캔버스에 아크릴, 93×93cm, 작가소장

런 고민은 관객들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백년의 기억》 연작을 통해 구현되었는데, 2004년 《백년의 기억》에서는 〈체포 압송되던 날 녹두장군 사진 찍히다〉, 〈장수하늘소, 파리 그리고 의병〉, 〈반지와 3·1 독립만세〉 등 1884년 동학혁명부터 2002년 월드컵까지 근 백년 동안 근대화 과정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과 그를 기록한 사진들을 허구의 이야기와 함께 배치하여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있었던 익명의 민중의 모습에 집중하였다. 일반적인 전달이 아니라 ‘교육미술전’으로 관객들이 감상을 통해 역사와 더불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아가 ‘문화교육’ 운동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는 작가의 마음을 담았다.<sup>2</sup>

김정현은 2010년부터 4년간 충북 제천의 폐교를 얻어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를 위한 ‘마을 이야기 학교’를 운영했다. 주변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젊은 예술가들이 주민들에게 한글교실, 미술교실 등 워크숍을 진행해 지역 노인들이 말하는 삶의 역사를 듣고 이를 잡지와 달력으로 제작하는 일련의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공동체의 삶과 밀착된 이 프로젝트는 이후 ‘이야기청’ 프로젝트로 연결되었다.

2016년에 12년만의 개인전 《생각의 그림 · 그림의 생각: 불편한, 불온한, 불후의, 불륜의, ... 그냥 명작전》을 열었다. 2010년 작가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패러디한 〈‘아몰랑’ 구름이 떠 있는 수상한 옥상〉(2015)은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완곡한 표현기법을 통해 무책임한 위정자를 빗댄 작품이다. 2016년 전시에서 김정현은 자신의 예전 그림에 낙서를 하듯 덧칠을 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였는데 작가는 전시 기획단계에서 예전에 작품을 그릴 때와 지금의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덧칠을 하였다고 설명했다.<sup>3</sup>

2019년에 열린 전시 《어쩌다보니, 어쩔 수 없이》에서는 1970년 작품 〈산경문전〉, 〈산동네 풍경〉부터 2019년 최신작인 〈어쩌다보니,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너나〉 등이 소개되었다.

‘현실과 발언’에서 사회에 대한 생각을 그림이라는 매체를 빌어 표현하고자 한 김정현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표현방법에 변화를 보이거나 근본적으로 스토리텔링 또는 쌍방 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민중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민중작가이다.

2 김정현, 「나의 그림 이야기」, 『김정현 백년의 기억』(공주문예회관, 2004), p. 19.

3 고재열, 「그림, 조용히 내뿜은 ‘지금, 여기, 우리’의 기록: 12년만의 개인전 연 미술가 김정현」, 『문화+서울』제111호(2016. 5), pp. 20~25.

## 연보

- 1946년 평양 출생
- 1964년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 1972년 서울대학교 회화과 졸업
- 1975~1980년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 197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서양화 전공) 석사 졸업  
《개인전》(서울, 견지화랑) 개최
- 1979년 민중미술 동인 '현실과 발언' 창단 참여
- 1980~1990년 전국민중미술인연합 대표 역임
- 1980년 《현실과 발언 창립전》(서울, 동산방 화랑)에 참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 1984년 《문제작가 작품전 1981~1984》(서울, 서울미술관)에 참여
- 1985년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1988년 《개인전》(서울, 그림마당 민) 개최  
《민중의 아시아전》(일본 도쿄미술관)에 참여
- 1990년 《한국미술: 오늘의 상황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1992년 《90년대 우리미술의 단면전》(서울, 학교재)에 참여  
《오늘의 삶: 오늘의 미술전》(서울, 금호미술관)에 참여
- 1993년 《땅의 길, 흙의 길》(서울, 학교재) 개최
- 1994년 《민중미술15년 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5년 《해방40년 역사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제1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상 수상
- 1997년 《개인전》(서울, 학교재갤러리) 개최 / 광주비엔날레 전시자문위원 역임
- 1999년 문화연대 상임공동대표 역임
- 2004년 《백년의 기억》(서울, 인사아트센터) 개최
- 2005년 《The Battle of Visions》(독일 다름슈타트(Darmstadt), 쿤스트할레(Kunsthalle))에 참여  
《Berlin 장벽에서 DMZ까지》(서울올림픽미술관)에 참여
- 2006년 황조근정훈장 수상
- 2007년 《민중의 힘과 꿈: 청관재 민중미술컬렉션》(서울, 가나아트센터)에 참가
- 2010년 《현실과 발언 30주년》(서울, 인사아트센터)에 참가
- 2010~2014년 예술과 마을 네트워크 진행
- 2012년 제4대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역임  
《유체이탈: 유신 40주년 전시》(서울, 아트스페이스 풀)에 참가
- 2015년 《광복70주년기념전》(국립현대미술관) 참가
- 2016년 《생각의 그림 · 그림의 생각》(서울, 아트스페이스 풀) 개최
- 2019년 《초대전: 어쩌다보니, 어쩔수없이》(서울, 김종영미술관) 개최



## 유영교 (劉永敎, 1946~2006)



유영교, 〈구도자〉, 1996, 대리석, 24×24×100cm, 유족소장

1946년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에서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유영교는 청풍국민학교, 충주중학교,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64년 홍익대학교 건축과에 응시했다가 낙방한 후 이듬해 건축과에 응시하여 제2지망으로 선택한 조각과에 합격했다. 당시 조소과 교수였던 전퇴진의 석조 수업을 특히 좋아해, 석조에 전념한 결과 대학교 2학년이던 1966년 《제15회 국전》에 첫 입선을 하였다.

1969년 홍익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작품활동을 병행했다. 군 제대 후 명지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1973년, 《제22회 국전》에서 〈운영(雲影)〉으로 국무총리상을, 1974년에는 〈운무(雲霧)〉로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목우회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JP상을 수상하며 조각가로서 입지를 다졌다. 1975년과 1976년에도 국전에서 특선을 수상해 추천작가, 1977년부터 1981년까지는 초대작가로 활동했다.

197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에 들어가 1976년 「조선시대 왕릉의 석인석수상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해 대학원 입학 동기로 미술사를 전공한 이은기와 결혼을 했다. 1977년 첫 개인전을 개최한 후, 1978년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나 로마 국립미술대학(Accademia Di Belle Arti, Rome)에 진학해 2년 동안 이 학교에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구상조각가인 에밀리오 그레코(Emilio Greco)와 페리클레 팻찌니(Pericle Fazzini)를 사사했다. 그 후 대리석 산지이며 르네상스시대부터 조각의 메카가 된 이탈리아 북서쪽의 카라라(Carrara)로 이전하여 세계 각지로부터 모여든 조각가들과 함께 6~7년간 작업하면서 각종 돌의 성격을 파악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감각을 키웠다.

1987년 귀국 후 부인 이은기가 목원대학교의 교수로 발령받자 **대전에 집을 정하고, 충청남도 연기군에 작업장을 마련한** 후 작고할 때까지 이곳에서 작품을 제작했다. 전업 작가의 길을 선택한 그는 서울·부산·밀라노 등지에서 17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2001년부터는 ‘문화공간건축학회(전 박물관건축학회)’의 회원으로 미국·일본·캄보디아·러시아·동유럽 등을 여행하며 미술관 건물을 비롯한 건축, 단독 조각, 도시 공간 속의 조각 등을 관찰하고 탐구하였다. 2006

년 6월 12일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성환천주교공원묘원에 묻혔다. 2008년 《유영교 추모전》이 서울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유영교의 작품은 국전에서 입선과 특선을 거듭하던 1966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초기에는 서정적이고 고전적인 완결성이 돋보이는 여인상을 주로 제작했다. 그러나 국전 추천작가가 된 후부터는 좀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해 1977년과 1978년 개인전에는 인체의 단순화와 원형적 조형, 명상적인 수도승을 다룬 작품을 선보였다. 이 시기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던 시기라면, 이탈리아에서 유학하던 1980년대는 이전보다 작품의 크기가 더 커지고, 석고 모형을 그대로 옮겨서 돌 조각으로 만드는 뾰(punta) 기법, 모형보다 확대시켜 제작하는 컴퍼스(Compass) 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시도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유영교는 30여 년 간 돌을 이용한 조각을 하면서 화강암·대리석·사암 등의 재질을 두루 다루었다. 주제도 초기에는 다양한 자세의 여인상을 제작했으나 점차 부부·모자·자매 등 가족으로 확장시켰다.<sup>1</sup> 특히 시대와 장소를 넘어선 '내적인 울림과 정신적인 소통'에 관심을 가졌던 유영교는 종교적인 테마에 끊임없이 천착했다.<sup>2</sup> 기독교·불교·도교, 그리스 다신교 등 여러 종교의 모티브를 교차, 융합시키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그는 인간 내면의 갈등과 그 갈등을 넘어서려는 투쟁과 명상의 모습들을 다루었다. 1996년의 개인전은 그때까지 해 온 작품생활의 결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모자상>과 <합(合)> 계열의 작품에서는 형태의 유기적인 조화를 다루었고, <구도자>나 <선승> 등의 주제를 통해서도 삶의 종교적인 추구를 작품화하였다. 즉 조형성의 추구와 구도자적 지향의 두 가지 성향을 보여 주었다.

1997년 대전 SAY백화점에 움직이는 철제 조형물인 <만개 I>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유영교는 조각을 환경의 매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구사하던 석조의 조형언어가 현대적인 도시공간에 적합하지 않음을 고심하던 그는 공간에 표정을 붙여넣기 위해 조각의 재료로 철조를 선택했다. 그리고 동력을 이용해 건축 공간과 하나가 되는 움직이는 조각을 시도했다. 1999년 《움직이는 조각전》은 그 결실을 선보인 전시로, <만개 I>, <요요한 바람>, <이른 봄> 등은 재료와 규모에 큰 변화를 주었음에도 여전히 자연 친화적이고 따뜻한 성격을 유지하였다.

철조로의 외도 후에도 그는 물에 젖은 돌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여 2000년 갤러리 현대에서 <샘>을 통해 거친 돌 위에 매끈한 돌을 올려 샘을 실내에 들여놓은 것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 이 전시에는 무용가 김명숙이 작품이 설치된 공간을 무대로 춤을 추는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유영교는 평소 조각작품은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이는 공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를 발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sup> 야외에 설치한 <환희>, <나비 2003-3>, <에어 조이> 등의 작품

1 김달진미술연구소, '네이버 미술백과-유영교'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73719&cid=63854&categoryId=63854>

2 김이순, 「유영교의 조각: 시적인 울림을 통한 휴머니티의 교감」, 『유영교 Yoo, Young-Kyo』(가나아트, 2008).

3 이은기, 「조각을 매개로 한 총체적 경험」, 『유영교』(갤러리 현대, 2003), pp. 22~23.



유영교, 《에어 조이(Air Joy)》, 2005, 서울 청계천

에서 그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유압 전동장치를 이용해 꽃, 열매, 곤충 등 자연에서 가져온 소재를 움직이는 조각으로 제작했다. 2005년경부터는 베어링(bearing)을 정교하게 설치해 인공의 유압 시스템 없이 자연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작품을 제작했다. 2005년 청계천 복원을 축하하는 의미로 청계천 2가와 3가 사이의 물 위에 흔들리는 잠자리를 추상화한 〈에어 조이〉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유영교는 40여 년 동안 조각가로 활동하며 실험적인 미술과 추상조각이 유행하던 때에도 구상 작품이나 구체적인 형태에서 변형시킨 조각으로, 전통적인 표현 방식을 고수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작품의 주제와 표현 양식

에 있어 인간의 내면세계와 정신성, 인간과 자연에 대한 휴머니즘적 태도를 일관되게 실천한 작가라 할 수 있다.

## 연보

- 1946년 충청북도 제천 출생
- 1965년 홍익대학교 건축과에 응시하여 제2지망으로 선택한 조각과에 합격
- 1966년 《제15회 국전》에 첫 입선 수상
- 1969년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 서울 동구여자고등학교 재직
- 1973년 명지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목우회 공모전》에서 문공부장관상 수상  
《제22회 국전》에서 〈운영(雲影)〉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 1974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입학 / 《목우회 공모전》에서 JP상 수상  
《제23회 국전》에서 〈운무(雲霧)〉로 국회의장상 수상  
《한국 현대조각 초대 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75년 《제24회 국전》에서 특선
- 1977년 《제1회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77~1981년 국전 추천작가로 활동
- 1978년 《제2회 유영교 조각전》(서울, 진화랑) 개최  
이탈리아 로마 국립미술대학(Accademia Di Belle Arti, Rome) 입학

- 1979년 《제3회 개인전》(로마, Galleria Astrolabio) 개최  
《평론가 10인이 추천한 신예작가 초대전》 초청으로 작품 출품
- 1980년 진화랑 개관8주년 기념 《제4회 유영교 조각전》(서울, 진화랑) 개최  
《한국구상조각회》(이탈리아 로마, Galleria Agostionians) 참가
- 1981년 《국제청년작가 야외전》(이탈리아 밀라노, Fondazione Pagani) 참여
- 1982년 《제5회 개인전》(이탈리아 밀라노, Galleria Pagani) 개최  
《Scultura alla Versiliana (베르실리아의 조각)》(Pietrasanta, Villa Versiliana) 참여
- 1983~1989년 목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홍익대학교 출강
- 1983년 《제6회 유영교 조각전》(서울, 현대화랑) 개최
- 1984년 《13 Scultori Coreani(한국조각가 13인전)》(Pietrasanta, Chiostro di S. Agostino) 참가  
《Mostra Scambiale degle Scultori Itaniani e Coreani(한·불 조각가 교류전)》(Camaioere) 참가
- 1985년 《Giovane Scultura Internazionale(국제 청년조형작가)》(Massa, Castello Malaspina) 참여
- 1986년 《MASSA-Scultura Internazionale (Massa : 국제조각전)》(Massa, Castello Malaspina) 참가  
《유영교 조각전》(서울, 현대화랑·한국미술관) 개최
- 1987년 대전에 집을 정하고,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작업장 마련  
《한국조각가 협회전》(미술회관)에 출품
- 1988~1996년 제9회~13회 《개인전》(서울, 현대화랑 / 동아갤러리) 개최
- 1989~1999년 충남대학교, 목원대학교 대학원 출강
- 1996년 《제13회 개인전》(서울, 동아갤러리) 개최
- 1997년 대전 SAY백화점에 움직이는 조형물 설치
- 1998년 《국제 조각심포지움》(김포시)에 참여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9년 《부여 국제 조각 심포지움》(부여시)에 참여 / 충주시 조각공원 조성 참여  
움직이는 조각들로 《제14회 개인전》(서울, 가나아트센터) 개최
- 1999~2006년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2000년 작품 〈샘〉으로 《제15회 개인전》(서울, 갤러리현대) 개최
- 2001~2005년 문화공간건축학회 회원들과 미국·일본·러시아·동유럽·그리스·터키·이집트 등 여행
- 2002년 《제16회 개인전》(프랑스 Paris, Galerie Gana-Beaubour) 개최
- 2003년 《봄이 오는 소리》(서울, 가나아트센터)에 참여  
《제17회 개인전》(부산, 갤러리수가) 개최  
《조각가 평화를 말하다》(연세대학교박물관) 참여
- 2004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Air Joy, 2004〉 전시
- 2005년 서대전 시민광장에 〈Air Joy, 2005-1〉 전시  
청계천 2-3가에 〈Air Joy, 2005-2〉 전시
- 2006년 《난지야의환경조각전》(서울시립미술관)에 〈Air Joy, 2006〉 전시  
6월 12일 담도암으로 작고

## 이택우(李澤雨, 1946~ )



이택우, 〈울릉도 여정〉, 1999, 종이에 수채, 91.0×116.8cm, 작가소장

1946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출생한 이택우는 중·고등학생 때 미술반 활동을 통해 그림실력을 연마했다. 1965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미술학과에 입학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1976년부터 충청남도 유성여자고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해 2008년 정년퇴임하였다. 이후 현재는 전업작가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1985년 대전 현대화랑에서 수채화 개인전을 가졌고, 《대한민국 수채화 초대작가전》, 《한국, 터키미술교류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한국미술협회, 한국수채화협회, 대전구상작가회, 대전구상작가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울릉도 여정〉(1999)처럼 현장사생을 통해 한적한 포구의 풍경을 주로 그렸다. 1993년 대전엑스포에서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토속미술과 원시미술의 조형미에 매료되어 목조각과 장식품을 그린 《풍물》 연작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조각상, 마스크, 장신구들을 균형미 있게 화면에 배치하여 화려한 색채를 강조하기보다는 각각의 모티브가 지닌 특성에 주목하여, 그 특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다. 이택우는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도적으로 어떤 가공을 하기 보다는 물체에 내재된 고유성을 찾아서 삶과 연결해 풀어내고 있는 작가이다.<sup>1</sup>

<sup>1</sup> 「문화& in 서양화가 이택우 선생님 인터뷰」, 『충청투데이』(2008. 11. 12).

## 연보

- 1946년 전라남도 장흥 출생
- 1965년 서라벌예대 미술학과 입학
- 1975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서라벌 예술대학이 통합됨)
- 1976~2008년 충청남도 유성시 유성여자고등학교 재직, 정년퇴임
- 1985년 《수채화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1985~1991년 《대전 구상작가회전》에 참여
- 1986~1990년 《아시아 수채화전》(서울, 중국 텐진)에 참여
- 1987년 《한·중·일 수채화교류전》(중국)에 참여
- 1988년 《서울 올림픽기념 국제수채화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0년 《움직이는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아세아수채화전》(중국 천진)에 참여
- 1992~2002년 한남대학교 조형예술학부 회화과 출강
- 1996년 《예우 40년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1년 《대한민국 회화제》(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 2002년 《월드컵기념 수채화 대축제》(대구문화예술회관)에 출품  
《대한민국 수채화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5년 《굿모닝 갤러리 개관 초대전》(대전, 굿모닝갤러리)에 참여
- 2006년 《금강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7년 《한국수채화협회전》(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여  
《한국·터키미술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8년 《현대미술 32인전》(공주, 임립미술관)에 참여  
《아세아수채화연맹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참여
- 2011년 《화연전-그림으로 맺은 인연》(대전시청 갤러리)에 참여
- 2016년 《4人4色전-김배희, 유병호, 이택우, 임립》(공주, 임립미술관)에 참여  
《봄 그리고 시작》(유성문화원)에 참여
- 2018년 《제26회 화연전》(대전중구문화원)에 참여
- 2019년 《백제의 숨결전》(논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참여
- 2021년 《제37회 대전수채화협회전》(대전, 갤러리M)에 참가

## 이효숙(李孝淑, 1946~ )



이효숙, <정물>, 1976, 캔버스에 유채, 162.2×112.1cm, 작가소장



이효숙, <풍경>, 1986, 캔버스에 유채, 112.1×145.5cm  
(출처: 『한발미술의 여정전 II』, 대전시립미술관, 2003)

(擬古主義)적인 전통 유물과 도자기나 식물 등을 소담하게 담아낸 정물화 등이었다. 이 개인전에 선보였던 1976년 작 <정물>은 반다지 위에 놓인 삼국시대 토기와 조선시대 백자를 그린 정물화로, 각각의 정물을 섬세한 필치로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1946년 대전에서 태어난 이효숙은 대전사범학교 병설중학교와 충남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중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1968년 수도여자사범학교(현 세종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수도여자사범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1970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졸업 후 1974년까지 수도여자사범학교의 전임강사로 있으면서 송의여자대학교와 한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1966년부터 1980년까지 국전에서 13회 연이어 입선한 작가로, 20세에 처음 입선을 한 후 24세였던 1970년에는 특선을 수상하며 국전 초대작가로 활약했다. 대학원에 진학한 1968년 《목우회전》에서는 특상을 받았다. 1970년부터는 《군자회전》 창립멤버로 활동했고, 1973년 《한국여류화가전》의 창립전에도 동참했다. 1975년과 1979년에는 한국미술협회에서 수여하는 이사장상과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후 1980년대에는 대규모 단체전을 통해 작품활동을 이어갔다.<sup>1</sup>

이효숙은 1988년 대전문화원의 초대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sup>2</sup> 이때는 서울에 거주 중이었지만 출신지인 대전에서 20년간의 화업을 정리하는 전시를 열었던 것이다. 전시작은 자연 풍광을 근거리에서 포착한 풍경화를 비롯해 의고주의

1 이효숙의 《현대미술초대전》에 출품 여부는 1996년까지만 확인된다. 『제14회 한발문화제: 한발회향전』(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1996).

2 『李孝淑 作品展』(대전문화원, 1988).

이효숙은 풍경화를 많이 그린 작가로, ‘구도의 탄탄함과 정밀한 묘사의 붓질’이 잘 드러난 1980년대 작품들에는 사물과 자연의 서정적 감성이 세심한 감각으로 구현되었다.<sup>3</sup> 여성 화가가 드물었던 1960년대부터 활발히 활약한 이효숙은 이동훈의 제자로서 대전·충남지역 구상회화의 맥을 잇는 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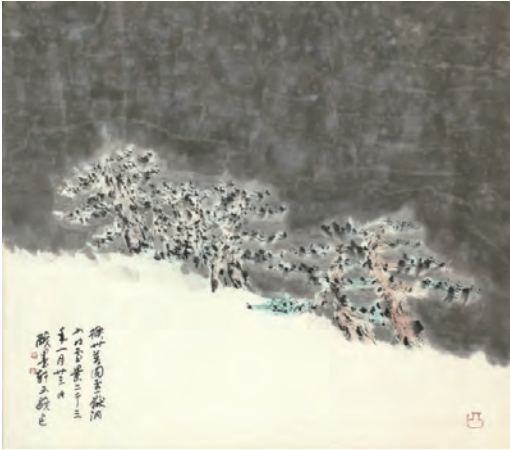
## 연보

- 1946년 대전 출생
- 1964년 대전사범학교 병설중학교, 충남고등학교 졸업
- 1966~1980년 국전 연13회 입선(국립현대미술관)
- 1968년 수도여자사범대학교(현 세종대학교) 회화과 졸업  
목우회 특상 수상
- 1970년 수도여자사범대학교 대학원 졸업  
《제19회 국전》에서 〈여름 날〉로 특선
- 1970~1974년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 1970~1988년 《군자회전》에 참여
- 1973~1988년 《한국여류화가회전》에 참여
- 1974년 《미술회관 개관기념 초대전》에 참여
- 1975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 수상
- 1979년 한국미술협회 은상 수상
- 1980~1981년 《40대 작가 20인 초대전》(서울, 동덕미술관)에 참여
- 1981년 《한국의 자연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4년 《일본문화원 초대전》에 참여
- 1984~1986년 《한국대표작가 100인 초대전》(미술진흥협회)에 출품
- 1984~1996년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86~1987년 《한국 전통미술협회 초대전》에 참여
- 1987년 《한국 전통미술협회 초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 1988년 대전문화원 초대 《이효숙 작품전》 개최
- 1989년 5주기 기념 《이동훈 화백 추모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94~1996년 《움직이는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6년 제14회 한밭문화제 《한밭 회향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 2003년 《한밭미술의 여정 II》(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3 김경량, 「CLASSICAL GALLERY : 작가 이효숙」, 『클래시컬(Classical)』 143호(2020. 5·6), pp. 42~45.



## 인영선 (印永宣, 1946~2020)



인영선, 〈무제〉, 2004, 종이에 수묵담채, 105×96cm, 천안 예술의전당

호는 취묵헌(醉墨軒).<sup>1</sup> 인영선은 1946년 충청남도 아산에서 출생하여, 한문서당을 운영하던 부친에게서 서예를 전수받았다. 그러나 탕정 국민학교 2학년 때 서당공부를 그만두면서 잠시 서예를 멀리했으나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문서예를 자습하며 다시 서예를 시작했다. 임형수 선생에게 개인 지도를 받았으며 천안농업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해 1967년 경희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하였다.<sup>2</sup>

대학교 재학시절 1966년 《신인예술상전》에 입선했으며, 졸업 후 1975년 《충남도립미술전》

서예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또 《제25회 국전》에서 〈난정서(蘭亭敘)〉로 입선을 하였으며, 《향토작가 초대전》, 《천안미협 창립전》 등 충청남도 지역 전시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1984년 현대미술 초대작가로 위촉되었으며, 1991년부터 한국서예협회 상임부이사장을 지냈다. 수훈으로는 1989년 ‘천안시민의 상’과 2014년 ‘제4회 일중서예 대상’을 수상하였다.

1972년 천안에 서실(書室) ‘이묵서회(以墨書會)’를 열고 옛 서체에 충실하면서도 자유분방한 글씨 세계를 알리며 글과 글씨가 어우러진 문인화, 시서화(詩書畫)를 종합한 작품으로 서예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김충현은 인영선의 필의를 “칭정무구한 풍격으로 각 체의 연구에 열성을 다했다”고 평했다.<sup>3</sup> 특히 전서와 행초서에 집중하며 옛 서체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1 인영선은 명리(名利)와 부귀(富貴)를 탐하지 않고 오로지 묵(墨)에 취해 일생을 자오(自癡)한다는 ‘취묵헌’이란 깊은 뜻의 호를 가지고 있다.

2 미술학과 1년을 다니다 국어국문학과가 서예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전과했다.

3 김호정, 「묵향에 취한 한평생, 서예가 취묵헌 인영선 선생 별세」, 『중앙일보』(2020. 5. 19).

## 연보

- 1946년 충청남도 아산 출생<sup>4</sup>
- 1962년 천안중학교 11회 졸업
- 1965년 천안농업고등학교 32회 졸업
- 1966년 《신인예술상전》에 입선
- 1970년 경희대학교 국문학과 18회 졸업
- 1975년 《충남도립미술전》 서예부문 최우수상 수상
- 1976년 《제25회 국전》에 〈난정서(蘭亭絃)〉 입선  
《천안미협 창립전》(천안, 백궁다방)에 참여
- 1977년 《제26회 국전》 입선  
《향토작가 초대전》(서울, 신문회관)에 참여
- 1982년 《개인전》(백상기념관) 개최
- 1984년 《현대미술초대전》 참가
- 1985년 《한일서예교류전》(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참가
- 1986년 《개인전》(백악예원) 개최
- 1987년 《한일서예교류전》(일본, 삼미술관(森美術館)) 참가
- 1989년 천안시민의 상(문화상) 수상 / 《현대미술초대전》 참가
- 1990년 《개인전》(백악예원) 개최
- 1991년 《현대미술초대전》 참가
- 1994년 《개인전》(중국미술관) 개최
- 1996년 《한국서예의 오늘과 내일》 참가
- 1997년 《전각, 초서 초대전》(예술의전당)에 참여  
《한발미술관 개관 초대전》 참가  
《한림미술관 서예 초대전》 참가
- 1997 · 1999년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전북예술회관) 참가
- 2001년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참가  
《퇴계(退溪) 탄신(誕辰) 500주년 기념전》에 참여
- 2002년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2009년 《개인전》(서울, 경인미술관) 개최
- 2014년 일중서예 대상 수상
- 2015년 《취묵헌 인영선 초대전》(천안, 예술의전당) 개최
- 2016년 《일중서예상 대상 수상자 초대전》에 출품
- 2020년 작고

<sup>4</sup> 인영선의 연보는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다. 인영선, 『구보반정묵흔(狗步半程墨痕)』(이화문화출판사, 2002), p. 182; 인영선, 『제4회 일중서예상 대상 수상자 초대전-취묵헌 인영선』(이목서회, 2016), p. 135.

## 임양수(林陽洙, 1946~ )



임양수, 〈목척교 설경〉, 1966, 캔버스에 유채, 60.5×79.2cm, 대전시립미술관



임양수, 〈탁(鑪) '90-E〉, 1990, 캔버스에 유채, 작가소장

호는 오호(五湖). 1946년 대전에서 태어난 임양수는 대전 선화국민학교 4학년 때 특별활동 시간에 수채화로 그린 정물화로 칭찬을 받으면서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sup>1</sup> 1962년 한밭상업고등학교 2학년 때 ‘죽미회(竹美會)’를 결성하고 전시회를 열었다.<sup>2</sup>

1964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 미술과를 졸업한 후 고향 대전으로 내려와 교직에 있으면서 창작활동을 지속하였다. 대전 북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할 때는 방치된 창고를 비워 미술실로 꾸민 ‘북우산실(北友産室)’에서 제자들과 함께 작품을 제작했다.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에 진학해 1993년 졸업했다. 2008년 정년퇴임 후 화가이자 시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2008년 『시세계』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임양수의 초기작인 〈목척교 설경〉(1966)은 대전의 상징이었던 목척교 주변풍경을 담은 작품이다. 왼쪽의 마른 나뭇가지에서 시작한 시선은 스케이트장을 거쳐 멀리 산과 그 아래 건물들로 시선을 유도한다. 화면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독과 수직으로 분할하는 전봇대가 화면에 리듬감을 조성하는 풍경화다.

임양수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미술활동을 한 대전미술 역사의 산 증인이다. 대전미술의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대전미술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95년 『대전미술의 어제와 오늘』(대전예총)에 편집주간으로 참여하였다.

1 한현숙, 「사랑방 초대석 서양화가 임양수」, 『대전예술』(2020. 5), pp. 44~47. [https://online .flip html5.com/](https://online.fliphtml5.com/)

2 ‘죽미회’는 ‘대나무처럼 오랜 우정 변치 말고 아름다움을 창조하자’는 의미이다. 당시 대전공업고등학교 3학년 김룡과 정명희, 양창제와 함께 같은 학교 1년 후배인 이영수 등이 참여하였다. 1962년 10월 1일~7일까지 충청남도 공보관 화랑에서 제1회 전시를 열었다.

## 연보

- 1946년           대전 출생  
대전 선화국민학교 졸업  
대전 중앙중 · 고등학교 졸업
- 1962년           '죽미회' 결성에 참여  
《5인전(득산, 이영수, 김룡)》(대전, 충남공보관) 개최
- 1963~2004년   《개인전》(대전문화원 / 오원화랑 / 대전예술의전당 등) 개최
- 1964년           서라벌예술대학 미술과 졸업
- 1974년           《한국미술협회 충남지회전》(대전, 맥그리거 화랑)에 출품
- 1981년           《동문전》(서울, 미술회관)에 출품
- 1983~2002년   《대전구상작가협회전》에 출품 및 협회 회장 및 운영위원 역임
- 1986년           《미술세계초대 - 충남작가전》(서울, 경인미술관)에 참여
- 1987년           한 · 중 · 일 미술전(세종문화회관) 참여  
프랑스 국제 미술전(프랑스, Eughiem les Barns)에 출품
- 1989~2004년   《형상전》에 참여
- 1991년           《한국미술 교육학회 창립전》 출품 및 창립부회장 역임
- 1993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1995년           『대전미술 어제와 오늘』(대전미술협회) 발간 편집주간 역임  
향토문화발전공로 대전광역시장상 수상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전》에 참여  
《개인전》(대전시민회관 전시실) 개최  
《대전불교미술협회 창립전》 출품 및 회장 역임  
《대한민국회화제》(서울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0년           《형상초대전》(미국 L.A., 모던아트갤러리)에 출품  
《한일미술 교류전》(일본 도쿄, 신정화랑)에 출품
-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수상  
《남부현대미술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2년           《2002 대한민국미술축전》(서울, 한가람미술관)  
《'득산, 오호, 기산' 3인전》(대전, 오원화랑)에 참가
- 2005년           《코리아 아트페어: 월간미술》(서울, 세종문화회관)에 참가  
《개관기념 전국작가 초대전》(대전, 현대갤러리)에 참가
- 2006년           《대전종교미술전》(대전, 현대갤러리)에 참여
- 2007년           《대전 종교미술전: 기독교, 불교, 카톨릭》(대전시립연정국악문화회관)에 출품  
《현대한국회화 발현》(서울, 갤러리PM2)에 참가  
시집 『굿모닝 좋은 아침』 출간

- 2008년 《임양수 선생 정년퇴임 기념 ‘入(입)들’ 테마전&사은전》(대전, 현대갤러리) 개최  
《대전창작센터 개관 기념전 - It's Daejeon》(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월간문학 계간 『시세계』 신인문학상 수상
- 2009년 《우정의 만남전》(김여성, 양창제, 임립, 정명희)(대전중구문화원)에 참여
- 2010년 《모음전》(대전, M갤러리)에 출품
- 2011년 한국미협전 《대한민국미술인의 향연》(서울, Select 화랑)에 출품
- 2012년 《대전불교미술기획전》(대전, L.H 갤러리 / 예산, 수덕사 선미술관)에 출품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대전시립미술관) 참여  
시집 『등대 춤추다』 출간
- 2013년 《대전미술제: 원로작가 초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17년 시집 『오색 물소리』 출간  
제29회 대전시 문화상 수상
- 2019년 《대전여지도 - Mapping Daejeon》(대전창작센터)에 출품
- 2021년 시집 『마중물』 출간
- 2021년 대한민국미술인상 원로작가상 수상

## 김석기 (金奭基, 1947~ )

호는 우송(雨松). 1947년 충청남도 홍성읍 고암리에서 4남매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1966년 홍성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줄곧 홍성에서 자라다가 1967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하면서 상경하였다.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하였고, 졸업 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했다.<sup>1</sup>

1964년 ‘한국미술협회’에서 주최한 《미술실기대회》에서 한국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88년부터 경희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에서 강사 및 겸임교수로 있었으며, 전통적 오방산수의 현대화 작업을 시도해왔다. 그 공로로 2003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970년부터 김석기는 수많은 산을 오르내리며 수묵 산수화를 그려왔다. 작품 제목 역시 소금강, 주왕산, 동학사와 같은 지명을 차용하며 자연의 관찰과 재현을 작품의 주된 형식으로 삼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자연을 단순화시키고 변형시켰는데, 이는 세계화 속에서 수묵이라는 재료와 양식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작품의 표제에서 실제 지명 대신 〈2002-6〉(2002), 〈묵향이 있는 산〉(2007) 같은 제목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또한 산세를 묘사하던 촘촘한 필선은 사라지고 넓은 면으로 처리함으로써 하나의 덩어리로 산을 묘사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2010년대 들어 김석기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는 한국화를 제작하기 위해 매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적 특색을 심분 살린 ‘오방산수(五方山水)’를 선보였다.

한국의 뚜렷한 사계절과 계절마다 두드러지는 색채의 아름다움을 재현한 ‘오방산수’는 한반도의 자연을 입체파적인 양식으로 해체하고, 붓과 먹, 한지라는 재료의 한계에서 벗어나 전통 한지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한국적 특색을 살린 김석기의 ‘오방산수’는 유럽 미술계에도 알려져 《몽테송 아트살롱전》의 초대작가로 선정되었다.<sup>2</sup>



김석기, 〈청색정원〉, 2019, 한지에 아크릴, 80호, 작가소장

1 김석기, 『KIM SEOK-KI』(동양수묵연구원, 2007), pp. 230~235.

2 이윤희, 「동양회화의 새로운, '오방산수'작가 김석기」, 『데일리안』(2021. 3. 3).

## 연보

- 1947년 충청남도 홍성읍 고암리 출생
- 1960 · 1963년 홍성초등학교, 홍성중학교 졸업
- 1964년 한국미협 주최 미술실기대회 한국화부문 최우수상 수상
- 1966년 홍성고등학교 졸업
- 1967~1971년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한국화 전공) 졸업
- 1974~1975년 제1~2회 《제1회 미술교원전》(서천) 개최
- 1977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 1978년 《백제문화제 기념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0~1981년 제1회, 2회 《개인전》(대전, 신신화랑) 개최
- 1982년 《제3회 개인전》(공간사랑) 개최
- 1983년 《충남한국화회 창립전》(대전, 신신화랑)에 참여
- 1984년 《충남작가 100인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85년 서울국제미술대전 금상 수상
- 1988~1989년 한남대학교,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 출강
- 1990년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선정
- 1991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출강
- 1993년 《EXPO 기념전》(대전문화원)에 참여
- 1994년 한국미협 오늘의 작가상,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역임
- 1995년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표창,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운영위원 위촉
- 1998년 《대전 시립미술관 개관 기념전》에 참가
- 1999년 국무총리 표창 수여 / 대전 '화연회' 회장으로 위촉
- 2002년 대전광역시예술작품 심사위원 위촉
- 2003년 대통령 표창 수상  
대전여자고등학교 교감 전직 / 대전미술교육연구회 회장으로 취임
- 2004년 《제1회 공주국제미술제》(임립미술관)에 참여 / 한남대학교미술교육과 출강
- 2006년 동방수목연구원(대전광역시 문화1동 소재) 개원
- 2006~2007년 한국미술교육연구회 부회장 역임
- 2007년 《제20회 개인전》(갤러리 라메르) 개최 / 대전광역시 문화상 수상
- 2011년 《한국의 혼》(서울, 인사아트센터) 개최
- 2012년 《동방의 빛으로 영혼을 그린다》(서울, 백운갤러리) 개최
- 2015년 개인전 《The Dream of the Twilight》(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2016년 《몽테송 아트살롱 초대작가 선정기념전》(프랑스, place roland gauthier)에 참여
- 2017년 개인전 《The Light of East》(갤러리 BDMC)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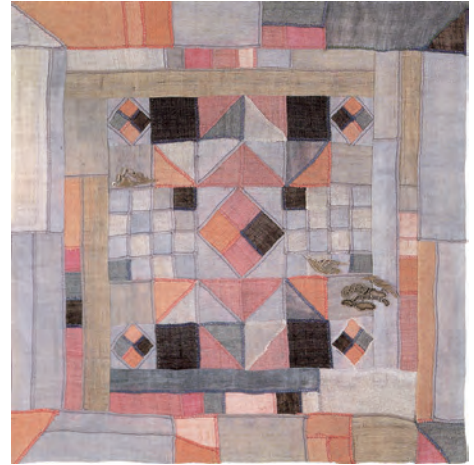
## 김영순 (金榮順, 1947~ )

호는 수안(秀岸). 1947년 서울에서 출생한 김영순은 어릴 적 어머니가 손수 지어 입으신 한복이 아름다워 섬유미술의 길을 택했다.<sup>1</sup>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부 공예과에 재학 중 1966년 《제5회 신상전》과 《제7회 신인전》에서 연이어 특선을, 이듬해에는 《제3회 상공미전》에서 입선을 하며 미술계에 입문하였다. 1978년 《제14회 산미전》 특선을, 1983년에는 《제6회 한국미술문화대상전》 추천작가상을 수상하였다.

1969년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일산업과 에스콰이어제화주식회사에서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실무를 익혔다. 1973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 진학하여 염직을 전공하였다.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미술교육과 강사를 거쳐 1980년부터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과(현 섬유·패션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2년 정년퇴임했다. 재직 중 새로운 무늬 제작기법의 모색을 위해 일본 모토이 공방에서 사라사 기법 연수에 참가하였다.<sup>2</sup>

김영순은 초기에는 주로 직조와 수직류 작업을 했으나 우리의 전통적인 것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조각보의 매력을 발견하고 1984년 첫 개인전 《반석》에서 견사(絹絲) 및 모사(毛絲)로 이루어진 직조작업과 기하학적 형태의 구성을 바탕으로 하는 브로케이드(brocade) 연작을 새롭게 시도하였다.<sup>3</sup>

1988년 《제2회 개인전》에는 우리 선조들이 즐겨 사용했던 ‘조각보’와 ‘보자기’를 접목시킨 평면 보자기 연작 《끝없이 이어지는 손길》을 선보였다. 김영순은 《끝없이 이어지는 손길》에서 한국 고유 전통의 보자기와 창살문에 보이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음양 오행설을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색채 조화를 모색했다.<sup>4</sup> 직접 천연염색한 모시와 비단 실로 직조



김영순, 〈끝없이 이어지는 손길 88-13〉, 1988, 천연염료·모시·자수사·베/패치워크·오버로크·손바느질, 130×130cm(출처: 『김영순』, 예서원, 2011)

1 김영순, 「작가 노트 중에서」, 『김영순』(예서원, 2011), p. 123.

2 사라사 기법은 인도에서 유래된 염색법의 일종으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이는 여성의 의복에 점무늬를 만드는 기법이다. <https://blog.naver.com/cocinam3509/222517424200>

3 김영순, 앞의 책, p. 28.

4 김영순, 앞의 책, p. 40.





김영순, 《손길08-12》, 2008, 천연염료 · 모시 · 아크릴 · 자수사 · 자재 · 비즈, 24×48.5cm(출처: 『김영순』, 예서원, 2011)

한 실크 · 한지 · 고문서를 붙인 콜라주, 색종이로 접은 바지저고리, 은세공의 나비와 꽃, 십장생 등의 구체적인 형상을 띤 이미지, 김소월의 시구를 자수로 놓은 이미지를 패치워크 · 핸드스티칭 · 손자수 · 기계자수 · 은세공 · 사라사 등 여러 기법을 가미

하여 화면에 배치하였다.

1995년부터는 평면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계량용기인 ‘뒷박’을 작업에 활용해 3차원적인 입체로 변화를 시도했다. 프레임 없이 대형보자기를 천장에서 늘어뜨리는 작업을 선보였는데, 이는 보자기를 이용해서 공간을 분할하여 새로운 조형공간을 조성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2006년에 이르러 화면을 나누고 미니멀한 추상적 화면을 유화로 완성하고 기존의 천과 패치워크, 손바느질의 기법을 더하는 《손길》 연작으로 변화를 주었다.

김영순은 전통 보자기의 네모꼴에 조각보에 나타난 기하학적 구성과 추상적 표현방법을 접목시키거나, 다양한 오브제를 첨가해 평면의 조각보에 하나의 소우주를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 연보

- 1947년 서울에서 출생
- 1966년 《제5회 신상전》 특선 수상  
《제7회 신인전》 특선 수상
- 1967년 《제3회 상공미전》 입선
- 1968년 대일산업 주식회사에서 텍스타일 디자이너로 재직
- 1969년 에스콰이어제화주식회사의 디자이너로 근무  
홍익대학교 공예학부 공예과 졸업
- 1976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염직전공 졸업
- 1978년 《제14회 산미전》 특선 수상
- 1980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과(현 섬유 ·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부임
- 1983년 《제6회 한국미술문화대상전》 추천작가상 수상
- 1989년 《초대 개인전》(뉴욕, 루시아 갤러리(Lucia gallery)) 개최
- 1991~1996년 《서울 공예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참가

- 1991년 《대전 섬유조형회 회원전》(대전문화원)에 참가  
《초대 개인전》(대전, 샘화랑) 개최
- 1992~1993년 《한국 텍스타일 디자인협회 회원전》에 참가
- 1992년 《섬유 초대전》(탑스 갤러리)에 참가
- 1993년 《미니어처전》(대전중구문화원)에 참여
- 1994년 《개인전》(서울, 현대 아트갤러리) 개최
- 1995년 《개인전》(일본 교토, 마로니에 갤러리) 개최  
《대전 · 충남작가 초대전》(대전, 한림갤러리)에 출품
- 1996년 《초대 개인전》(대전, 리갤러리) 개최  
《한국 섬유비엔날레 독일 초대전》(독일, 스멘드(SMEND) 갤러리)에 참여
- 1997년 일본 모토이(モトイ) 공방 사라사(サラサ) 기법 연수  
《초대 개인전》(일본, 도야마 Milestone Art Works / 서울, 서호갤러리 / 일본 에도, Sagas-Sagas 갤러리) 개최
- 1999년 《제6회 국제 Contemporary Art Festival 99 : NICAF TOKYO》(서울, 백송 화랑 / 일본, Tokyo Tower Bowling Center)에 참여
- 2000년 《초대 개인전》(타피앤크래프트) 개최
- 2003년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개설30주년 기념 초대전》(대전, 한림갤러리)에 참여  
《부산 텍스타일 디자인대전 초대작가전》에 참여
- 2004년 《한 · 일 작가 생활속의 Image전》(서울, 백송화랑)에 출품  
《흰 눈 속에 이는 꽃 물결전》(서울, 삼성프라자갤러리)에 참여  
《전통성 다시 읽기와 그 일탈 일-조각보》(서울, 조선회랑)에 참여
- 2005년 선화기독교 미술관(대전, 선화기독교미술관) 미술상 수상
- 2007년 《스미소니언 섬유미술관 초대전》(미국 Washington D.C)에 참여
- 2008년 《목남갤러리 초대전》(서울)에 참여
- 2009년 《Milestone Art Works》 초대전(일본 토야마(Toyama))에 참여
- 2009년 《키라니 화랑(Kirani Gallery) 초대전》(일본 타카야마(Takayama))에 참여
- 2011년 《보자기의 손길 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개최  
《Wrapping Traditions : Korean Textiles Now》(미국 샌프란시스코) 참여
- 2012년 《한국현대공예아트페스티벌》(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 출품  
《Korea Japan Fiber Arts Exhibition 2011》(일본 오사카)에 참여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섬유 · 패션디자인학과 정년퇴임
- 2016년 목원공예상 수상

## 김치중(金致中, 1947~2012)



김치중, 〈백마강 서정〉, 1978, 캔버스에 유채, 145.5×112cm, 대전시립미술관

1947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서 5남 3녀 중 일곱째로 태어난 김치중은 1960년 대전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술부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미술교사가 이남규였고, 2, 3학년 때 미술교사는 판화가 정택은이었다.<sup>1</sup> 1963년 충남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동훈이 이끄는 미술부에 가입해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미술실에서 보냈으며, 대전지역 고등학교 미술동아리 모임인 '미상록'에도 참여하였다.

1966년 경희대학교 미술교육학과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 강경여자고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고향 대전에 머물기 위해 사립학교인 대신중학교를 선택했다. 동료인 백승철과 화실 'More'를 공동 운영하며 교직생활과 창작활동을 병행하였다.<sup>2</sup> 1971년에는 '일요스케치회'와 '충남청년미술인회', '청미회' 등

의 결성에 참여해 대전지역 미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973년에는 대신중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양학과에 입학하며 학교 앞에 화실을 열었다. 1974년 대전 신강화랑에서 《제1회 개인전》을 열면서 동시에 화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같은 해 충남미술교사 임용시험을 거쳐 다시 논산농·공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하여 충청남도로 내려왔으며 논산 시장근처에서 '놀이화실'을 운영했다.<sup>3</sup> 이후 1975년 공주중학교로 발령받았으며, 중등미술교사 모임인 '금강미술회'를 발족하여 2회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부여고등학교, 남대전고등학교를 거쳐 1984년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충남관화가협회'를 창립했다. 이듬해에는 '대전수채화협회'를 창단해 지역 예술가들의 단합과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초기 작품은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언덕과 논, 산, 구름 등 자연경치를 주로 화폭에 담았다. 농촌 시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아이들이 강변에서 노는 모습을 그린 〈강변의 아이들〉(1975)와 소와 함께 쉬고 있는 아이의 자연스러운 모습

1 이순구, 『2011 대전미술의 지평』(대전시립미술관, 2011), p. 7.

2 이재호 화백 인터뷰(대전인터뷰, 2016. 4. 17), 유족 자료 제공

3 김승한, 「김승한이 만난 사람」, 『충청투데이』(2012. 5. 28).

을 그린 <소와 아이>(1975)와 같은 작품을 주로 제작했다. 작가가 실제 목도한 자연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실제보다 강렬한 색채와 단순한 선묘로 구성하여 화사하면서도 안정적인 구도로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논산, 공주, 부여를 돌며 금강과 백마강 연작을 제작하며 백마강변의 목가적인 정경을 그린 <백마강 서정>으로 1978년 《충청남도 미술대전》에서 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김치중, <복사꽃>, 2010, 캔버스에 유채, 130.3×162cm  
(출처: 『김치중』, 세종문화회관미술관, 2010)

1980년대에는 원색을 거침없이 사용하면서도 소, 산, 호수 등 한국적인 서정을 담은 작품을 창작했다. 김치중은 한국적인 서정을 그린 것에 대해 “가장 한국적인 정서가 세계적이라는 신념과 자연에도 영혼이 깃들었음을 의식하며 환상을 기본으로 창작하고 그대로 배우거나 훔치지 않는다”는 말로 자신의 작품세계를 정리하였다.<sup>4</sup> 1990년대를 거치면서 자연물의 형태는 더욱 단순화되어 2000년대에 이르면 대상의 특징적인 요소만 강조해 그렸으며, 강렬한 색채를 더해 경쾌한 분위기를 화면에 구현하였다.

1986년 김치중은 처음으로 누드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누드인물을 그리게 된 배경은 인물이 구상미술에서 중요한 소재이며, 극적인 요소가 없는 풍경이나 정물과 다르게 다양한 표정과 몸짓 속에서 이야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5</sup>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상에서 추상으로 표현기법이 변했으며, 형태의 심한 왜곡과 변형이 가해지고, 거친 선과 강렬한 색채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대상을 매끈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보다는 작가의 감성을 이입한 표현주의적 자세를 반영하였다.<sup>6</sup>

김치중은 1995년 한국미술협회 대전지회장으로 선출되어 『대전미술 50년사』 발간했고, ‘미술의 해’ 행사를 진행했다. 평소 “그림은 마라톤이며 끝까지 쉬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sup>7</sup>고 강조한 것처럼 교육자로, 행정가로 바쁜 일정 중에도 꾸준히 전시회를 준비했다. 41년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진정한 의미의 작가로 새로 출발하는 각오를 다졌으나, 2012년 5월에 열었던 정년퇴임기념 《새로운 출발》을 마치고 지병으로 작고했다.

4 박수영, 「삶에 녹여진 심상의 풍경은...」, 『중도일보』(2012. 5. 30).

5 김승환, 앞의 글.

6 조상영, 「고즈넉한 파라다이스를 소망하는 표현주의적 사유」, 『김치중전』(Gallery M, 2012).

7 김승환, 앞의 글.

## 연보

- 1947년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서 출생
- 1963년 충남고등학교 입학
- 1970년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졸업  
대신중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백승철과 함께 화실 'More' 운영  
백승철과 《2인전》(대전문화원화랑) 개최
- 1971년 '일요스케치회'(후에 '대전사생회'로 변경) 결성  
'충남청년미술인회' 결성에 참여
- 1972년 '충남청년미술인회(청미회)' (대전, 충남예총화랑) 결성 및 전시 출품
- 1973년 대신중학교 사직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입학
- 1974년 《제1회 개인전》(대전, 산강화랑) 개최  
논산농·공업고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
- 1975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졸업  
공주중학교 교사로 부임  
'금강미술회(중등미술교사 모임)' 결성에 참여
- 1977년 《제2회 개인전》(대전문화원화랑) 개최
- 1978년 《충청남도 미술대전》〈백마강서정〉 도지사상 수상  
부여고등학교 발령  
'부여군중등미술교사회' 창립에 참여
- 1979년 '이신회(以新會)' 창립에 참여
- 1979~1987년 《충남구상작가회전》에 참여
- 1980년 남대전고등학교로 이직
- 1982년 《제3회 개인전》(대전문화원 화랑) 개최
- 1983년 《개인전》(대전, 신신화랑) 개최
- 1984년 배재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  
'충남 판화가 협회' 창립전(대전, 반도화랑) 참가
- 1985년 '대전 수채화 협회' 결성에 참여  
《제5회 개인전》(대전, 신신화랑) 개최
- 1986년 《개관기념초대전》(대전미술관)에 참여
- 1987년 《제7회 개인전-새로운 서정을 찾아서》(대전, MBC문화공간) 개최  
《개관기념초대전》(대전, 동서화랑)에 참가
- 1991년 《제8회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개최  
국비 해외 교수(프랑스 엑스포로방스) 파견

- 1993년 《화연전》에 참여  
《제9회 개인전-여안》(대전, 오원화랑) 개최
- 1994년 《제10회 개인전》(서울, 압구정현대백화점 아트갤러리) 개최
- 1995년 『대전미술50년사』 발간
- 1995~1997년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장 역임
- 1997년 《제11회 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2001년 ‘대전드로잉회’ 창립에 참여
- 2003년 《제12회 개인전》(대전, 갤러리 프리즘) 개최  
《한발미술의 여정 II - 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4년 《열린미술관 : 색으로 본 내 마음의 풍경》(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7년 《개인전》(대전, 이안갤러리) 개최
- 2008년 ‘대전국제미술협회’ 발족에 참여
- 2011년 《대전미술의 지평 2011》(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12년 《김치중전》(대전, Gallery M) 개최  
《초대 개인전: 대전, 그리다》(대전, Gallery 이즘) 개최  
충남고등학교 주최 창령운상 수상  
대전광역시 문화상 수상  
작고

## 박명규 (朴明圭, 1947~ )



박명규, 〈파도를 헤치고〉, 2000, 나무, 350×300×700cm(출처: 『대전 미술 돌-공예·조각』, 대전시립미술관, 2009)

1947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한 박명규는 공주교육대학에 입학해 당시 교수인 황교영에게 조소를 배웠으며, '청조회(충남조각회)'결성에 참여하였다. 1972년에 공주교육대학을 졸업한 이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학과에 진학하여 1994년 졸업하였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회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였다. 1973년과 1974년 《충청남도미술전람회》에서 연이어 특선을 하였다. 1974년 충남 출신 조각가들의 모임인 '충남조각회'의 초대회장으로 충남지역에 조각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창립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전시에 참여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나무와 함께 가벼운 FRP(섬유 강화 플라스틱)를 재료로 〈여인 II〉와 같은 인물상도 실험적으로 제작하였다. 〈해탈〉(1992), 〈구속〉(1995), 〈작품 98-1〉과 같은 작품에서는 비움과 채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즉 속이 비어 무엇인가 암시하는 작품과 양감 있는 둥근 형태로 속을 채워 충만한 느낌을 주는 작품 등 짝 찬 형태를 뚫어 형태와 공간을 조화롭게 표현한 작품들을 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괴목(槐木)을 주제로 한 〈작품 97-3〉과 〈파도를 헤치고〉(2000)와 같은 목조각과 인체를 단순하게 형상화한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하였다.<sup>1</sup>

단지 나무가 좋아서 목조 작업을 주로 한다는 작가는 추상적이고 단순한 작품에 조화로운 자연현상을 담았으나 2020년 이후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주로 테라코타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박명규의 조각은 작은 삼라만상을 크고 작은 것, 기하학적인 선과 면을 유기적인 것과 조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sup>

1 이창림, 「박명규 교장과 그의 조각작품」, 『박명규초대전』(박명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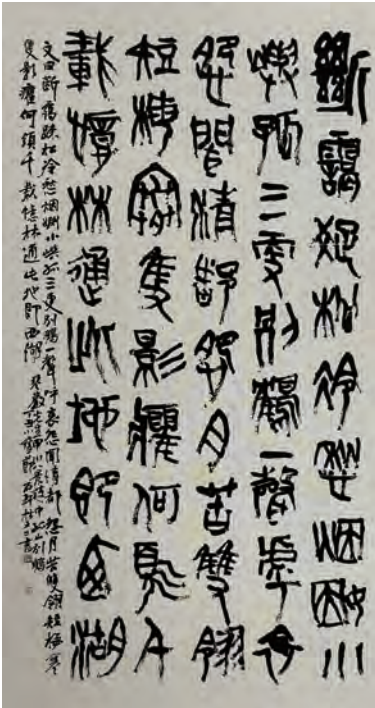
2 이창림, 위의 글.

## 연보

- 1947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
- 1961년 예산 삼교국민학교 졸업
- 1967년 대천중학교 졸업
- 1970년 대천 수산고등학교 졸업
- 1972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1973~1974년 《충청남도미술전람회》 특선 수상
- 1974년 《충남조각회 창립회원전》(공주문화원)에 출품
- 1989년 《대전·충남조각회연립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 1990년 제3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미술분과) 푸른기장 문교부장관 수상
- 1992년 《제60회 한국미술협회 충남지부 예산전》(예산터미널 전시장) 참여
- 1994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제24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한국예총충남도지회) 참여
- 1995년 《제63회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지회 논산전》(논산, 화지산 신헌전시실)에 출품
- 1996년 제1회~제13회 《중원조각회》에 출품  
《제9회 보령예술인회 회원작품전》(보령군청 전시실)에 출품
- 1997년 《제10회 보령예술인회 회원작품전》(보령군청 전시실)에 출품
- 2001년 《보령예술인회전》(대천문화원)에 출품
- 2002년 《중원조각회전》(강원도 원주) 참여
- 2003년 《제30회 충남조각회》(보령, 임해수련원)에 출품
- 2004년 《제3회 충남초등교원미전》(대전, 충남학생회관 전시실)에 출품
- 2009년 《박명규 초대전》(보령문화예술회관) 개최
- 2020년 《제29회 한국미술협회 보령지부전》(온라인 전시)에 테라코타 〈가족〉 출품



## 임재우 (林裁右, 1947~ )



임재우, <갑천팔경 중 고산별학(孤山別鶴)>, 1997, 200×120cm(출처: 『대전공간확산전』, 대전시립미술관, 1998)

호는 석헌(石軒). 임재우는 1947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으로 일찍이 부친 소심재(素心齋) 임형수(林亨洙)로부터 가학(家學)을 통해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부친이 소장하고 있는 고봉주(高鳳柱)의 인장 90과(顆)를 보면서 모각(模刻)하기 시작하였으며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고봉주를 사사하여 전서와 전각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오창석 인장형식을 섭렵하여 전각공부에 대한 토대를 세웠다.<sup>1</sup>

임재우는 지금까지 네 번의 개인전을 통해 서예, 전각, 문인화 등의 작품들을 발표했다. 기존의 작품 경향에서 탈피한 자유로운 문자 배열의 조형미와 고전을 자기화한 구성미를 연출하였다.

1974년부터 《한국전각협회전》, 《근역서가회(槿域書家會)전》 등에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이후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했다. 또한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대전대학교 서예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했다.

1999년 세 번째 개인전 서집(書集) 서문(序文)에서 인영선은 그의 인예(印藝)에 대해 논하기를 “석헌의 도필(刀筆)은 방정(方正)하고 기식(氣息)이 활발하고 윤택하여 고법(古法)을 굳게 지키면서 장법(章法)이 새로우니 초기에는 오창석의 흉중(胸中)을 찾아 익히더니 그 후에는 오양지(吳讓之)의 여러 가지를 다 갖추어 완전하게 하였으며, 50세 이후에는 제백석(齊白石)의 일도봉(一刀鋒), 고새(古璽), 봉니(封泥), 도문(陶文)을 혼용(混融)하니 지금은 고주(古鑄)이로세”라고 평가하였다.<sup>2</sup>

2006년 네 번째 개인전에 정충락(鄭充洛, 1944~)은 임재우의 전각에 대해 “석헌의 전각세계는 고졸(古拙)한 전통의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양식을 확보하였으며 필흔(筆痕)의 맛을 내는데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평(評)을 하였다.<sup>3</sup> 이와 같은 임재우의 인장 예술

1 『석헌 임재우: 2008 대전미술의 지평』(대전시립미술관, 2008).

2 인영선, 「서문」, 『석헌 임재우』(1998).

3 선주선, 「이 시대 으뜸의 서예가, 석헌 임재우」, 『월간서예』446(2018), p. 63.

은 ‘석인자회’(石人子會) 회원들이 이어받아 방촌(方寸) 예술을 심화하는 전시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2020년에는 제7회 ‘일중서예상 대상’을 수상하며, ‘1988년 수상한 원곡서예상’과 함께 서예 대가의 이름을 딴 서예상을 모두 받은 작가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일중 서예상은 대전과 충남 서예 작가 중에는 최초의 수상이기도 하다.

서예뿐만 아니라 문인화, 전각 등 서·화·각(書·畫·刻)을 겸비한 임재우는 공간과 여백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미학을 제시하며 나무, 돌, 옥 등에 전서로 인장(印章)을 새겨 국내 최고의 전각가로 평가 받기도 한다.

## 연보

- 1947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74~1979년 《한국전각협회전》 참여
- 1975~1996년 《근역서가회(槿域書家會)전》 참여
- 1978년 대동서예학원장 역임
- 1981~1996년 《한국전각학회전》 참여
- 1983년 《서예전》(대전, 신신화랑)에 출품
- 1984년 공주대학교, 공주교원대학교 출강
- 1986~1991년 《국제예술문화교류전》(서울·일본) 참여
- 1988년 제11회 원곡서예상 수상  
《원곡서예상 수상작가전》(서울, 세종문화회관) 개최
- 1989년 《89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1990년 《국전30년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1992년 《부채초대전》(대전, 오원화랑)에 출품
- 1994년 《서울 정도(定都) 600년 기념 명사서예대전》(서울, 예술의전당) 참가
- 1997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전북예술회관)에 출품  
《전각·초서의 오늘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8년 《창립30주년 기념 서예전》(서울, 백악미술관) 참여
- 1999년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2017년 《齊白石전》에 참가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기념 한·중·일서예전》 참여
- 2020년 제7회 일중서예상 대상 수상  
《임재우·정명희 2인전》(대전갤러리) 개최

## 장순업 (張淳業, 1947~ )



장순업, 〈我-79〉, 1979, 캔버스에 유채, 112×145.5cm, 《제28회 국전》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작, 국립현대미술관

1947년 충청남도 서산군 성연면 예덕리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한 장순업은 10세에 충남 서산군 교육청에서 실시한 미술실기대회에서 최고상인 군수상을 받았다.<sup>1</sup> 중학교 시절에는 농구에 재능을 보여 농구 특기생으로 서울에 있는 홍익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나, 미술교사의 권유로 미술부에 가입해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미술부 반장이 되었다.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1969년에 비

로소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에 진학하였다. 1974년 대학교 졸업 후 1979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에 진학하여 졸업했다.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2년 정년퇴임했다.

1970년 대학 재학 중 《제1회 전국대학미전》에서 동상을, 《제7회 목우회 공모전》에서 동아일보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듬해인 1971년 《제2회 전국대학미전》에서는 최고상인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제24회 국전》에 입선을 시작으로 제26회·제27회·제29회 국전에서 연속 특선을, 《제28회 국전》에서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30대 초반에 국전 추천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1970년~1980년대는 〈我-79〉(1979)에서 보이는 것처럼 치밀하고 안정된 구성(Composition)에 집중했다. 1992년 프랑스의 미술평론가인 패트릭 질 페르상(Patrick Gilles Persin)의 소개로 프랑스 전국 순회전에 참가하며 프랑스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sup>2</sup> 이를 계기로 1992년 3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약 1년간 파리에 거주하면서 대작과 많은 작품을 제작했다. 이 시기에 제작한 《빛과 시간의 이야기》 연작은 2000년대까지 지속되었는데, 토기·장승·망부석·하루방·당초문과 연와문 전통적인 소재를 새롭게 재해석한 것으로, 이전 시기의 작품들에

1 이영재, 「끊임없는 창작혼을 불사르는 작가: 장순업」, 『장순업 1992~1995』(미술시대, 1995);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는 1951년생으로 기재하였다.

2 페르노사(Pernod)사가 후원하고 베르노(Verno) 미술관이 주최하는 프로젝트이다. 베르노 미술관은 피카소를 비롯한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바있다.

비해 물감의 깊이가 얇아지고 필요한 요소만을 표현하는 절제미를 보여주었다.<sup>3</sup>

1990년대 이후에는 자연의 겉모습 보다는 자연의 본질을 꿰뚫고 살펴보는 작업에 집중했다.<sup>4</sup> 2000년대에도 《빛과 시간의 이야기》 연작의 연장으로, 인물을 포함한 여러 동식물의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작가는 1990년대와 구분하여 이 시기의 작품을 ‘자연의 코러스’라고 부른다.<sup>5</sup> 특유의 퇴색하고 그을린 표면색으로 표현한 1990년



장순엽, 〈빛과 시간의 이야기(비상)〉, 2009, 혼합매체, 80.3 × 116.8cm(출처: 『장순엽초대전』, 서울아트센터, 2009)

대의 《빛과 시간의 이야기》 연작에 등장하는 소재들과 다르게 2000년대 연작에는 파랑, 빨강 등 밝은 색들을 자주 사용해 화면의 장식성을 더했다. 캔버스에 황토와 돌가루를 바르거나, 한지를 붙여 독특한 질감을 만들고, 동양화의 기법인 번지기, 여백, 생략법 등과 서양회화의 방식인 덧칠하기, 긁어내기 등을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 2019년에 인물의 이미지와 눈, 꽃 등 자연물을 함께 조합한 《나는 누구를 바라보나》 연작과 새를 소재로 기존의 화면을 채운 공간 구성에서 벗어나 여백의 미를 느낄 수 있는 《자연으로》 연작을 새롭게 선보였다. 2020년대 들어 시도한 《Fancy Bird Imagery》 연작에는 호랑이, 소나무, 새 등 전통적인 소재와 얼굴을 접목해 표현했으며 코로나 시국을 주제로 한 《Goodbye Corona》 전시를 기획하는 등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sup>6</sup>

명절도 없이 작품을 제작한다는 작가의 말처럼 장순엽은 다작을 하면서 작품마다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여 그의 작품은 구상성과 추상성, 동양화와 서양화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7</sup>

## 연보

- 1947년 충청남도 서산군 성연면 예덕리에서 출생
- 1967년 홍익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졸업
- 1970년 《제1회 전국대학미전》(국립현대미술관) 동상 수상  
《제7회 목우회 공모전》(국립현대미술관) 동아일보사장상 수상
- 1971년 《제2회 전국대학미전》(국립현대미술관) 문교부장관상 수상

3 박容淑, 『張淳業의 作品世界』, 『張淳業 畫集』(菅井汲, 1987).

4 이영재, 앞의 글.

5 서성록, 『장순엽 '자연의 코러스'』, 『장순엽 초대전』(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2009), pp.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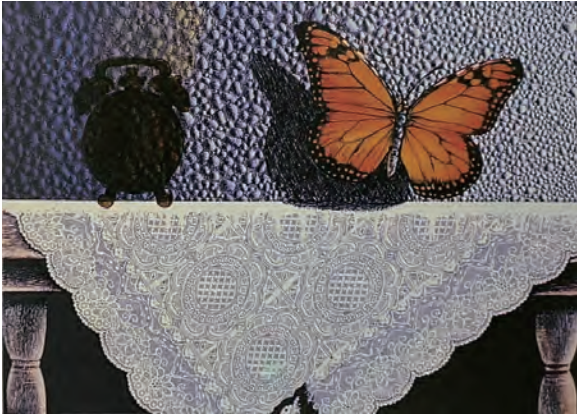
6 작가의 작품세계는 youtube 채널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XzvASCGKH6S8WcYYkiaKw>

7 『미술방송 아트원 TV-남궁원의 스케치북- 나는 대한민국의 화가다 장순엽 작가편』 [https://www.youtube.com/watch?v=rD6LxqF1K-A](https://www.youtube.com/watch?v=rD6LxqF1K-A;); 서성록, 앞의 글, p. 3.

- 1971년 《제8회 목우회 공모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특선 수상
- 1972년 《제3회 구상전 공모전》(서울, 중앙공보관)에서 특선 수상
- 1973년 《제4회 구상전 공모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특선 수상
- 1974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졸업  
《제24회 국전》(국립현대미술관) 입선
- 1975년 《제11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은상 수상
- 1976년 《제25회 국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특선 수상  
《제3회 한국미술대상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일보사장상 수상  
《제7회 구상회 공모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금상 수상
- 1977년 《제26회 국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날> 특선 수상
- 1978년 《정부수립 30주년 기념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참가  
《제27회 국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원> 특선 수상
- 1979년 《제28회 국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我-79>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제1회 중앙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특선 수상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제1회 개인전》(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최
- 1980년 《국전 추천작가전》(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1년 《제2회 개인전》(서울,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최
- 1982년 《제3회 개인전》(서울, 신세계백화점 화랑) 개최
- 1983년 《서미회전》(서산문화원)에 출품
- 1984년 《한독미술가협회전》(서울, 호암미술관 / 독일 뒤셀도르프)에 출품  
《제4회 개인전》(서울, 신세계화랑) 개최
- 1985년 《제5회 개인전》(서울, 신세계화랑) 개최  
《Salon de Mai 초대 출품전》(프랑스 파리)에 출품
- 1986년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제6회 개인전》(서울, 신세계화랑)  
《제7회 개인전》(서울, 동승미술관) 개최
- 1987년 《제8회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개최
- 1988년 《88올림픽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89년 《한일현대미술전》(일본 도쿄, 우에노미술관)에 출품  
《블란서 혁명 200주년 기념 초대전》(프랑스 파리)에 출품
- 1990년 《'90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제11회 개인전》(일본 도쿄, 옴파로스 갤러리) 개최
- 1991년 《일본 현대작가전》(일본 도쿄, 아오야마 갤러리) 참가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참여
- 1992년 《구상의 변형과 확산전》(서울, 예맥화랑)에 출품

- 1993년 《'92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한국적 구상성을 위한 제언》(서울, 롯데화랑)에 출품  
《오늘의 한국회화전》(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립조형미술관) 참가
- 1994년 《아름다운 서울전》(서울시립미술관) 참가  
《지성의 표상》(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초대 개인전》(프랑스, 스와송(Soissons) 시립미술관) 개최
- 1995년 《제16회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시멘트와 미술의 만남전》(서울, 성곡미술관)에 출품  
《미술의 해 기념 한국 미술인의 모습》(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6년 인도국제아트페스티벌(인도 뉴델리)에 출품
- 1997년 《개인전》(서울, 청작화랑) 개최
- 1998년 《개인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최  
《마니프(MANIF) 국제미술제》 대상 수상
- 2004년 《개인전》(유아트스페이스) 개최
- 2008년 《한국현대구상회화의 흐름전》(서울시립미술관) 참여  
베이징국제비엔날레 초대작가 위촉
- 2009년 《개인전》(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개최
- 2010년 《789 Oriental Light Art Space 초대전》(중국 북경) 개최
- 2021년 《희망 그리고 내일을 위한 콜라보레이션 ART전-Goodbye Corona》(서울, 조형갤러리) 기획  
및 출품

## 홍용선 (洪容宣, 1947~ )



홍용선, 〈무제〉, 1994, 종이에 에칭, 에퀴틴트, 40×55cm, 작가소장

1947년에 충청남도 대전에서 출생한 홍용선은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1회 졸업생으로 한남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한국조폐공사에 입사했다. 1980년 오스트리아 조폐공사(Austria National Bank W.F.P.)와 스위스 조폐공사(Swiss De La Rue Giori S.S)에서 1년간 기술연수를 했다. 1983년 조폐공사 발행 만원권에 사용되는 세종대왕상을 그렸으며, 2003년 35년간 재직한 한국조폐공사를 정

년퇴임했다.

1982년 한남대 미술교육과 제1회 졸업생들의 모임인 ‘토우회’를 결성하고, 창립전을 개최하는데 참여했다. 1984년에는 유병호, 정장직, 정길호, 김진, 백철 등과 함께 ‘대전판화협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직을 맡았다. 1990년·1991년 《대전시미술대전》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94년에는 ‘대전가톨릭미술가협회’의 창립에 참여하였다.

1999년 한국조폐공사 디자인연구실 조각팀장으로 《제1회 조폐아트페어》를 개최하여 화폐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판화기법과 조각기법을 선보였다. 특히 홍용선은 정밀함과 세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인그레이빙(engraving)기법에 뛰어나 수조각사(手造刻士)를 개척한 인물로 손꼽힌다. 2002년 세계주화경연대회에서 월드컵기념 주화를 출품해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3년에는 우표 요판작업에 참여해 전통 등기구 〈조족등〉·〈나무등잔〉·〈주칠목 재육각제등〉·〈놋촛대〉를 새긴 우표의 요판을 제작하였다.<sup>1</sup>

화폐를 제작하는데 기본이 되는 판화에 몰두하여 에칭(Etching)과 에퀴틴트(Acquatint)작품이 주로 남아있다. 〈무제〉(1994)는 확대경을 이용해 조각칼로 모든 점과 선을 명암처리를 한 작품으로, 극도의 정교한 기법을 보여주는 판화이다.

2018년에는 한국 교회 첫 순교자인 윤지충(尹持忠, 1759~1791)과 권상연(權尙然, 1750~1791)의 영정을 제작해 대전 진산성지에 봉헌했다. 홍용선은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소에

<sup>1</sup> 요판인쇄(凹版印刷) 또는 오목판 인쇄는 석판 인쇄, 활판 인쇄와 함께 대표적인 인쇄 기법 중 하나이다. 찍어내고자 하는 부분만을 파낸 후 그 홈에만 잉크를 남겨 찍어내는 방식이다. 에칭 등이 대표적인 요판인쇄이다.

서 오랜기간 근무하면서도 정교한 판화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하며 창작활동을 병행했던 작가이다.

## 연보

- 1947년 충청남도 대전에서 출생
- 1968년 한국 조폐공사에 입사
- 1972~1995년 한남대 · 목원대 · 중앙대 강사 역임
- 1974년 《한남대학교전국미전》(대전상공회의소 화랑) 참여
- 1982년 《토우회전》<sup>2</sup>(대전문화원) 참여
- 1983년 만원권 화폐에 세종대왕상 조각  
《서울국제판화교류전》(서울, 미술회관) 참여
- 1984년 《공간국제판화대상전》(서울, 공간화랑) 참여
- 1984~1985년 《대전판화협회 창립전》(대전, 반도화랑) 참가
- 1984~1986년 《프린트미디어전》(서울 · 부산 · 제주) 참가
- 1985~1987년 《국제판화 앙데팡당전》(일본 가나가와)에 출품
- 1990년 《부산국제판화대전》(부산 문예회관)에 출품
- 1990~1991년 《대전시미술대전》 대상 · 우수상 수상
- 1991년 《C.N.U.국제판화기획전》(대전) 참여
- 1994년 ‘대전가톨릭미술가회’ 창립회원 활동
- 1996년 《공간국제판화대상전》(서울, 공간미술관) 참여
- 1999년 《제1회 조폐아트페어》(서울,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전시실) 참여
- 2002년 세계주화경연대회에서 월드컵 기념 주화로 대상 수상
- 2003년 우표 요판작업에 참여
- 2004년 《『豊』Rich+4 版畫展》(대전, 한국 조폐공사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 참가
- 2005년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소 정년퇴임
- 2018년 대전교구 진산성지의 의뢰로 한국 교회 첫 순교자인 윤지충과 권상연 영정 제작

2 송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의 제1회 졸업생들의 모임. 1982년 9월25일-30일까지 대전문화원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창립멤버로 홍용선을 비롯해 김지택, 남건희, 박병희, 유대광, 손부일, 송차섭 등이 참여했다.



## 황용식 (黃龍植, 1947~ )



황용식, 커피세트(출처: 『운광 황용식』, 도원회, 2012)

해 은상을 받았다. 이 작품으로 《대한민국상업디자인전》에서 디자인포장센터 이사장상도 받았다. 1975년에 대학 졸업작품으로 순수 도자가 아닌 산업도자기 커피세트를 제출하자 그게 ‘예술이냐’ 라는 비난도 받았다.<sup>2</sup>

1975년 대학교 졸업 후, (주)진흥요업에 입사해 디자인 사무실이 아닌 도기 생산공장에서 산업도자기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하였다.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좋은 디자인도 점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건조과정에서 수축률과 수축 방향의 차이로 터지며 도자가 구워지는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대학에서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sup>3</sup> 6년간 근속한 회사의 배려로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일본 연수 1년을 제안했으나, 1979년 인하공업전문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1985년 **목원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도자디자인학과 교수**로 옮겨 2012년 정년퇴임하였다. 황용식은 진흥요업 재직 당시 생활용기로서 산업도자기들이 주로 외국제품의 모방으로 제작되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우리 손으로 디자인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대량체제의 산업도자기 전문교육이 대학에서 필요하다고 느껴 4년제 정규 대학에서 최초로 목원대학교에 산업도자디자인 교과과정을 도입하고 정립하였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5년 연속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에서 입선을 했으며, 1987년에

1 조부연, 「대한민국 1세대 도자 디자이너 황용식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대전예술』(대전광역시 2020. 8), pp. 44~47

2 황용식, 『운광 황용식』(도원회, 2012), p. 58.

3 황용식, 위의 책, p. 10.

산업도자 디자이너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 개인전에서는 제작자의 일방적인 의도보다 사용자를 배려한 제품들을 주로 선보였다. 1991년 ‘대전도예가회(도원회)’의 창립을 이끌었다. 당시 대전에서는 대학교 졸업 전시나 공모전 외 도자기 작품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으나 대전도예가회의 탄생으로 도예가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개인전도 활발히 개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황용식, 접시세트(출처: 『운광 황용식』, 도원회, 2012)

황용식은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석고로 원하는 형태를 디자인해 다량 생산이 가능한 주입성형(slip casting)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목원대학교에 산학융합 모델을 도입하는 계기를 제공해 학과기업인 ‘하이안 세라믹’을 창업하였으며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작가는 도자기의 제작에 있어서 무엇보다 실용성과 기능성을 중시하며 시각적 즐거움, 장식적인 효과와 아울러 수직이나 수평으로 수납하기 편리한 구조적 형태의 디자인을 중시하였다. 황용식의 산업도자기는 구(球)와 원통(圓筒)·원뿔 등 기하학적이며 단순한 모델로 2~3가지의 기본 형태를 만들어 그것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접합시켜서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다시 다른 형상으로 변형시킬 수 있게 제작되었다.<sup>4</sup> 즉 누구라도 제작자의 의도와 달리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가변의 여지를 디자인에 부여해 사용자가 창의적으로 변용하여 공감할 기회를 제공해 산업도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 연보

- 1947년 서울출생
- 1974년 《69동인전》 참여
- 1975년 홍익대학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제10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제품디자인 분야) KOPC 이사장상 수상  
《제6회 전국대학미술전》 은상(산업디자인분야) 수상
- 1975~1979년 (주)진흥요업 도기생산부(디자인실)에 근무
- 1976년 《제11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제품디자인 분야) 입선  
《제12회 산업미술가협회 공모전》 은상 수상
- 1977~1979년 《제12~14회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제품디자인 분야) 연속 입선

4 최건, 「흙으로 빛은 혼(魂)」, 『운광 황용식』(도원회, 2012), p. 21.

- 1977년 《공예품대전》에 〈야외용 재떨이 디자인〉 교통부장관상 수상
- 1978년 《한국관광기념품전》에 〈담배함과 재떨이 디자인〉 교통부장관상 수상
- 1979~1985년 인하공업전문대학 공예디자인과 조교수 재직
- 1981년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수료
- 1982년 《개관기념전》(동아미술관) 참여
- 1983~1986년 문교부 1종 도서 편찬 심의위원(요업계측실습, 도자기) 역임
- 1984~1989년 《한국현대도예가회전》 참여
- 1985년 목원대 미술디자인대학 도자디자인학과 교수 부임
- 1985~1991년 《한국미협전》 참여
- 1987년 《개인전》(서울, 토화랑 / 대전, 립화랑) 개최
- 1990년 《한국미술-오늘의 상황》(서울, 예술의전당) 참가
- 1991년 《개인전》(서울, 최갤러리) 개최
- 1992년 《한·독 도예교류전》(독일 München) 참가
- 1994년 《갤러리 쉼 초대전》(서울, 쉼갤러리) 참가
- 1995년 한국공예가협회 '95한국공예가 협회상 수상  
《대한민국 도예대전》에 초대 출품
- 1996년 《이집트 문화부 초대전》(이집트, 이집트 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7년 《이태리 국립 성 안젤로 미술관 초대전》(이태리) 개최
- 1998년 《앨버트 브로세트 센터 초대전》(벨기에, Albert Broschette Conference Center)에 출품
- 1999~2000년 미국 토슨 대학(Toesun university) 교환교수 역임
- 2000년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전 초대작가전》 참가  
《한양문화센터 초대전》(미국 뉴욕, 한양문화센터) 참가
- 2002년 《파리 한국문화원 초대전》(파리) 참가
- 2004년 《일본 오사카 문화원 초대전》(일본) 참가
- 2005년 《한국현대도예초대전》(일본, 관서문화홍보원) 참가
- 2008년 하이안 세라믹 대표 역임
- 2009년 《개인전》(브라질 상파울로, 갤러리 선) 개최
- 2012년 녹조근정훈장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위촉  
《정년퇴임 기념 도원회전》(대전서구문화원) 참가
- 2016년 중국 경덕진 대학교 초빙교수 위촉
- 2020년 대전시 문화상 시각예술부문 수상

## 김영천 (金榮天, 1948~2012)

1948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생한 김영천은 1962년 천안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상경하여 서라벌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1966년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에서 장리석, 박항섭, 최영림 등의 강의를 통해 영향을 받았으며, 대학 재학 중 《동아국제미술전》에서 특선을 수상했으며, 1970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 미술교사로 부임한 이후 2011년 천안 새샘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할 때까지 40여년을 교직에 몸담았다.

교편생활을 하면서도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지속한 김영천은 10여 회의 개인전에 이어 《대전 구상작가회전》,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전》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했다. 교육자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충남미술의 단합과 저변화에 노력하여 1976년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창립 당시 사무장을 시작으로 1993년 충남지회장 재임 시 충남미술을 정리하는 『충남미술사』를 발간하였다.

김영천은 초기 작업에서 인물과 풍경을 주제로 자연의 서정과 인간 삶의 정한(情恨)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천착했다. 토속적인 고향의 정취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던 이 시기를 넘어 80년대에 이르면 사실적인 세계가 해체되어 구상적인 화면을 선보였다. 민화에 대한 작가의 관심은 「현대회화 속에 나타난 민화적 요소」라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어졌다. 우리 전통적인 정서를 현대에 맞게 표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민화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도상과 문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주로 했다.<sup>1</sup> 기법적인 면에서 화면을 둘 또는 셋으로 분할하여 한 면에는 구상적인 형상을, 다른 면에는 추상적인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이질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고구려 수렵도와 신라 기미인물형 토기에 착안, 그것을 화면으로 끌어들이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화면에 그려진 또 다른 대상인 정물들과 조화를 이루어 현재와 과



김영천, 〈잃어버린 시간Ⅱ〉, 1990, 캔버스에 유채, 160.0×130.3cm(출처: 『김영천』, 아라리오 화랑, 1993)

<sup>1</sup> 김영천, 「내이야기를 어디에 놓아둘까」, 『개인전-내이야기를 어디에 놓아둘까』(천안시민회관, 2003).



김영천, <샘이 깊은 물>, 2009, 캔버스에 유채, 27.0×35.0cm  
(출처: 『김영천』, 파랑갤러리, 2009)

거,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비현실, 구상과 추상의 동시적 표현 효과 등 서로 상반된 이중적인 시공(時空)구조를 공존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sup>2</sup> 이질적 요소를 조화시키고 화면에 통일성 있는 시각효과를 주기 위해 그림의 배경 공간 전체를 차분한 갈색조로 처리했다. 이 시기 작품에는 산과 나무, 집, 구름이 등장하는데 이는 작가의 내면세계 즉 자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둔 철학적 의미가 깊게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sup>3</sup>

2000년대 작품에는 과거와 달리 색채가 단순해져 흑백에 가까운 단색조의 화면이 펼쳐지는 것이 특징이다. <샘이 깊은 물>(2009)에서 둘로 나뉜 화면 중에서 한 면은 흑백에 가까운 단색조로 나무와 들에 앉아 있는 새들을 안치하고, 다른 화면에는 강렬한 붉은색을 바탕으로 해와 달과 고구려 고분벽화 속에 나오는 산을 표현하였다.

한국적인 정서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자 노력한 김영천은 고구려 수렵도와 신라 기마인물형 토기 등 역사적인 소재부터, 물고기, 새, 연꽃 등 토속적이고 자연적인 것을 구상과 추상 기법, 화면 분할 등 자신만의 개성적인 조형 어법으로 구현한 작가로 평가된다.

## 연보

- 1948년 충청남도 천안 출생
- 1962년 천안중학교 졸업
- 1966년 서라벌 고등학교 졸업
- 1968년 《동아국제미술전》 특선
- 1967년 《목우회전》 입선
- 1970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과 졸업
- 1974~1976년 《충남미술대전》 3회 특선
- 1975년 《제1회 개인전》(천안, 백궁다실) 개최
- 1977~1980년 《국전》 3회 입선
- 1979~1992년 《대전 구상가회원(이신회)전》(대전시민회관) 개최
- 1979년 《목우회전》 특선 수상
- 1981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2 임두빈, 「김영천의 작품세계」, 『김영천』(아라리오화랑, 1993).

3 임두빈, 위의 글.

- 1981~2007년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전》(예총충남도지회 / 대전문화원 / 천안, 아라리오 화랑) 참여
- 1982~1984년 《충남향토작가초대전》(대전문화원) 참여
- 1982년 《제2회 개인전》(서산문화원) 개최  
서산군 부석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 1983년 서산군문화상 수상
- 1985년 《현대화랑 초대전》(대전, 현대화랑) 참여  
《여일화랑 초대전》(대전, 여일화랑) 참여
- 1986년 《아름다운 금강산》(MBC문화화랑) 개최
-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기념 《아름다운 금강초대전》 참가  
《여일화랑 초대전》(대전, 여일화랑) 참가
- 1989년 《공간사랑 초대전》(공간사랑) 참가
- 1990년 《아라리오 화랑 개관기념 초대전》(천안, 아라리오 화랑) 참가
- 1992년 《천안문화원 신축개관기념 중견작가 초대전》(천안문화원) 참가
- 1993년 《제3회 개인전》(천안, 아라리오 화랑) 개최  
한국미술협회 충청남도 지회장, 『충남미술사』 발간
- 1998년 《제4회 개인전》(천안, 아라리오 화랑) 개최  
함덕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 2001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  
《제5회 개인전-전통으로 밝히는 현대전》(천안문화원) 개최  
충남예술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 2002년 제16회 예총문화예술상 대상 수상  
허균 문화예술상 수상
- 2003년 《제6회 개인전》(천안시민회관) 개최  
서천 서면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 2005년 제49회 충청남도 문화상 (예술부문)수상  
《제7회 개인전》(천안시민회관) 개최
- 2006년 충남예술고등학교 교장 부임
- 2008년 충남 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장 부임
- 2009년 《개인전》(천안, 파랑갤러리) 개최
- 2011년 천안 새샘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 2012년 작고

# 박병희 (朴炳熙, 1948~2019)



박병희, <Karma-가족>, 1991, 청동, 38×26×45cm, (재)수림문화재단소장(출처: 『朴炳熙』, (재)수림문화재단, 2014)

1948년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에서 출생한 박병희는 수학에 재능이 있었지만 학교에서 예체능교사가 더 인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술을 택했다. 1968년 목포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열망으로 전국의 모든 미술대학에 편지를 썼는데 유일하게 **한남대학교**에서 연락을 주면서 충청남도와의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1977년 **한남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던 해에 바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에 입학해 1979년에 졸업하였다.

1970년 《제19회 국전》에서 <얼굴>로 입선을 하였으며, 1974년 《제4회 충청남도전 미술전람회》부터 《제6회 충청남도전》까지 연속 3년간 특선을 수상하였다.

한남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있던 1984년, 일본 츠크바(筑波)대학 대학원 예술연구생(조각 전공)으로 입학할 위해 일본에 있던 하정웅에게 유학생활에 필요한 신원보증을 부탁한 일화가 전한다.<sup>1</sup> 당시 아내와 아이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일본 작품이 자신의 작품과 공통점이 있어서 무리하게 유학을 결심을 했다고 한다. 츠크바 대학에 입학한 박병희는 하정웅의 집에 거주하며 그의 아틀리에에서 작업을 하였다. 1985년 11월, 주일한국문화원에서 2년간의 일본 유학성과를 발표하는 《조각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에는 일본 유행승(遊行僧) 엔쿠(円空, 1632-1695)의 '기원(祈願)'에서 영감을 받아 '기원(祈願)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주변 인물을 모델로 표현한 작품 20점이 소개되었다.<sup>2</sup> 박병희는 감사의 뜻으로 당시 전시한 《기원의 형상》 연작 20점을 모두 하정웅컬렉션에 기증하였다. 일본에서 귀국한 해에 바로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였으며 2013년 정년퇴임하였다.

1983년 《1회 개인전》에서 <여심>과 <소망>을 주제로 작품들을 선보였다. <여심>은 전형적인 구상조각으로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소망>은 동산 혹은 무덤의 봉분을 상기시키는 형태

1 "지금까지 인체를 통한 사실조각 작품을 주로 제작해왔다. (중략) 재료와 기법 그리고 감상을 통해 일본에 있는 작품을 분석하고 또한 일본 조각 교육을 체질에 맞게 받아들여, 그를 통해 얻은 이론과 표현능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인체조각이 갖고 있는 동질성과 이질성을 이해하면서 제작 및 조각교육에 도움이 되고 싶다." 하정웅, 「기원의 형상(기원의 형상)」, 『박병희』(수림문화재단, 2014), p. 6.

2 하정웅, 위의 글, pp. 6~7.

와 인간상의 조합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작품에 등장하는데 생과 사에 대한 사유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전자가 작가의 기술적인 숙련도를 발휘한다면, 후자는 심상의 형상화를 보여준다.<sup>3</sup> 동산 혹은 무덤의 봉분을 상기시키는 형태는 이후 노골적으로 <묘(墓)>, <황천>에서 무덤, 나아가 죽음을 가시화했음을 드러냈다.

인도 델리대학 교환교수로 있었던 해외 체류기간(1991~1992년)은 작업에 다시 영향을 주었다. 인도에서의 시간은 작가로 하여금 인생에 대해 탐구하고 사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점차 한국토속신앙과 불교에서 영감을 받은 상징주의적이고 표현성이

강조된 《윤회(Samsara)》 연작을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윤회》 연작에서 안정된 형태의 반원형의 무덤 위에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해 생사와 윤회를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내면적이고 관념적인 동양의 핵심정신을 부드러운 형상으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작가로 평가된다.<sup>4</sup> 테라코타와 청동으로 제작된 《윤회》 연작은 동양철학의 윤회와 인성주의를 접목한 《업(Karma)》 연작으로 한결 단순화, 추상화되었다. 《업》 연작에서는 무덤이 수직으로 갈라져 그 안에 생명체가 싹트는 일련의 형상을 표현하였다. 《윤회》 연작에서 원형의 고리가 반복되는 형상으로 인체를 감싸던 윤회의 고리가 《업》 연작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뚫고 다시 탄생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표현하였다. 가족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형상화한 작품 <Samsara-가족>와 <Karma-가족>(1991)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과거 '윤회'나 '업'의 주제에서 벗어나 모정, 동심을 주제로 한 구상적 표현의 작품과 생명의 순환을 위한 추상표현주의적 작품을 병행 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작가는 “윤회와 업의 주제를 다루면서 가지게 되는 문제는 이제는 윤회와 업이라는 개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서 특정한 이미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라도 자유롭게 무한하게 윤회와 업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5</sup>라고 말하였다. 2009년에 선보인 《생명의 순환》 연작에는 새들이 소재로 등장하는데, 지상과 천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새의 등장으로 삶과 죽음은 계속 반복되는 생의 한 단면임을 보여 주고 있다.

재료의 변화를 보면 초기에는 청동과 함께 합성수지를 활용했으나, 1990년대부터는 연구실에 가마를 들여놓고 테라코타에 집중하고 있다. 즉 작가는 물·불·공기·흙, 4대 원소의 결합



박병희, <생명의 순환>, 2009, 테라코타, 20×20×25cm, (재)수림문화재단(출처: 『朴炳熙』, (재)수림문화재단, 2014)

3 조은정, 「형상 조각의 자율성과 숭고 의지」, 『박병희』(수림문화재단, 2014), pp. 19~24.

4 문명대, 「끝없는 미궁길의 형상화」, 『오늘의 작가 특집별권 · 미술시대 기획연작: 박병희』(미술세계, 1989), p. 11.

5 민혜란, 「삶과 죽음, 초월과 운명, 자유와 구속의 대위법」, 『박병희』(수림문화재단, 2014), p. 30.



체의 결과물인 테라코타를 생명의 상징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환경조각으로 충남대학교 상징탑(1982), 한남대학교 상징탑(1986), 대전검찰청 상징조각(1998), 서해교전 전적비(2003), 월미공원 해군2함대 사령부주둔기념 조형물(2004), 서울고등검찰청-아름다운 세상(2012) 등 많은 작품이 있다.

## 연보

- 1948년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에서 출생
- 1969년 목포교육대학 졸업
- 1970년 《제19회 국전》 입선
- 1974~1976년 《제4회~제6회 충청남도 미술전람회》에 〈산녀〉, 〈어부의 아내〉, 〈망향〉으로 3년간 연속 특선 수상
- 1977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 《충청남도 미술전람회》(대전시립도서관) 초대작가 위촉
- 1978년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초대작가》(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강당) 참여
- 1979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석사 졸업 / 《목우회 공모전》(국립현대미술관) 특선 수상
- 1980년 《한국구상조각회전》(서울, 관훈미술관) 참여
- 1982년 《예총초대 한발 조각회전》(대전시민회관) 참여
- 1983년 《조각개인전-여심, 소망》(서울, 한국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개최
- 1984~1985년 일본 츠크바(筑波)대 대학원 예술연구과정 수료
- 1985년 《개인초대-기원의 형상전》(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 개최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교수 부임
- 1986년 《쌍인갤러리 개관전》(대전, 쌍인갤러리) 참여
- 1987년 《조각개인전-무덤(Samsara)》(대전, 중앙갤러리) 개최
- 1988년 《충남미술대전》(천안, 아라리오 화랑) 참가 및 초대작가상 수상
- 1991년 《한발조각회전》(대전, 한남타운미술관) 참여
- 1991~1992년 인도 델리대학(Delhi university) 객원교수 역임
- 1992년 《개인초대전-Karma 길》(인도 뉴델리, 아이펙스갤러리(AFCS gallery)) 개최
- 1993년 《대학미술흐름전》(대전문화원) 참여
- 1994년 《조각개인전-Karma 가족》(서울, 도올아트타운 / 대전, 오원화랑) 개최
- 1995년 한국미술작가상 수상
- 1996년 《'95 한국미술작가상 수상기념, Karma 탄생》(서울, 가산화랑) 개최
- 1998년 《대전 :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0~2011년 《개인전-생명의 순환을 위한 작품》(서울, 공평아트센터 등) 개최
- 2011년 《개인전-바람이 되어라》(공주, 임립미술관) 개최
- 2013년 한남대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 역임 / 대한민국 옥조근정 훈장 수상
- 2014년 《박병희 조각전》(서울, 수림문화재단) 개최
- 2019년 작고

## 오정길 (吳正吉, 1948~ )

1948년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에서 출생한 오정길은 197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공업도안학을 전공하였고, 1981년에는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에서 미술학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1976년부터 1981년까지 대한전선 광고선전실에서 근무하였으며 1984년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1997년에는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센터의 『충청남도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제작에 참여하였다.

오정길은 목원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과 교수로서 ‘한국 일러스트레이터 학회’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방콕에서 열린 《국제 초대전》에 참여하며 한국시각디자인의 지평을 넓혀갔다. 작품으로는 〈내 마음의 산〉, 〈우리 동네〉, 〈우리 산〉과 같이 서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작품과 목원대학교 대표 로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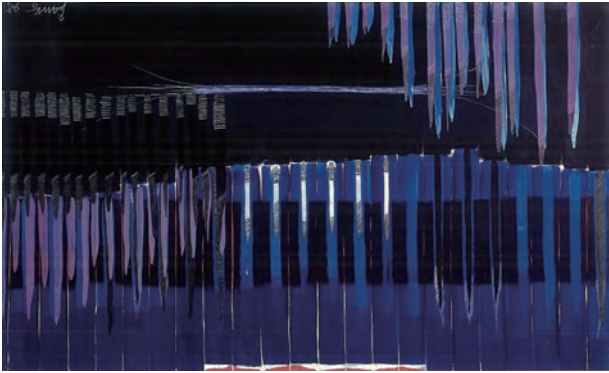


오정길, 〈얼쑤〉, 1993, 84.1×59.4cm, 작가 소장

### 연보

- 1948년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에서 출생
- 197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부 공업도안학 학사 졸업
- 1976~1981년   대한전선(주) 광고선전실 근무
- 1981년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 1984년           목원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부임
- 1995년           《오정길 개인전》(대전, 흥원갤러리) 개최
- 1999년           《오정길 개인전》(대전, 대덕갤러리) 개최
- 2005년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원장 역임
- 2008년           《63인 일러스트레이터 초대전》에 〈내 마음의 산〉 출품
- 2009년           목원대 미술대학교 《교수작품전》(대전, 성갤러리) 참여 / 《제24회 일러스트레이션 회원전》에 〈우리 동네〉 출품 / 《국제 초대전》(방콕)에 〈Image of Korea〉 출품
- 2010년           《제25회 일러스트레이션 회원전》, 〈우리 산〉 출품
- 2020년           목원대학교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명예교수 위촉

## 유근영 (柳根永, 1948~ )



유근영, 〈우주적 공간〉, 1986, 캔버스에 유채, 97.0×162.2cm, 대전시립미술관



유근영, 〈영똥한 자연〉, 2010, 캔버스에 유채, 97×130.3cm  
(출처: 『이동훈미술상 10주년기념전』, 대전시립미술관, 2012)

1948년 대전에서 태어난 유근영은 고향 대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작가이다. 대전고등학교에 진학해 미술부에 들어가면서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진학해 1974년 졸업했다.

〈무제〉(1986), 〈우주적 공간〉(1986)을 통해서 비정형의 세계를 화폭에 구현했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 당시 강세였던 모더니즘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림 그리기’에 대한 원초적인 답을 찾기 위해 홍익대학교 대학원에 들어가 미학을 전공했다. 이후 이념에 갇혀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갖고 고향 대전으로 내려와 꾸준히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풀잎을 연상시키는 패턴이 서로 교차하거나 겹쳐서 이루는 공간을 표현한 《우주적 공간》 연작으로부터 출발한 작품세계는 자연을 소재로 한 화려한 색

채로 표현되었다.<sup>1</sup> 초기의 단순화되거나 기하학적인 구조의 추상적 패턴에서 벗어나 1990년대에 다양한 식물과 꽃 또는 미생물의 형상들이 만드는 자연을 그린 《영똥한 자연 the odd nature》 연작에 이르렀다. 《영똥한 자연》 연작은 독일의 표현주의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데,<sup>2</sup> 이 연작에 등장하는 꽃·풀·나무·산 모두가 낮설고 화려하며 돌출되고, 일그러지고, 휘고 분절되어 있으며 색들이 엉키고 충돌하고 있다. 유근영은 자신의 작업에 대해 설명하기를 “나는 매일 풍경화를 좁은 나의 화실에서 벽을 쳐다보며 그린다. 어릴 때 보았던 길가의 민들레, 어저께 보도블록 사이

1 윤진섭, 「해방의 춤」, 『유근영』(대전시립미술관, 2005), p. 12.

2 김진엽, 「불안의 유미(唯美)」, 『Yoo, Keunyoung The Odd Nature』(터치아트, 2008), p. 8.

를 기막히게 뚫고 나와 피어있던 강아지풀, 오늘 TV에서 보았던 갈대의 숲, 비틀즈의 노래에 나오는 노르웨이의 숲을 그린다. 시간을 그린다. <옥토퍼스의 정원>, <페니레인>도 그린다. 시간의 편린에 묻어있는 모든 것을 그려나간다<sup>3</sup>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처럼 유근영의 추상회화는 작가의 기억에 의존한 상상의 정물화이자 풍경화이며 자신의 세계에 몰입한 결과물이다.

## 연보

- 1948년            대전 출생  
                  대전중학교 졸업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69 · 1975년 《KARHY, MYG》(서울, 예총화랑) 참여
- 197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1976~1978년 《르브동인전》(대전문화원) 창립멤버로 참여
- 1977년            《7인 기획판화전》(대전문화원) 참여
- 1978년            《현대작가 15인 초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80년            《금강현대미술제》(공주, 금강 백사장 일원) 창립멤버로 참여<sup>4</sup>
- 1981년            《제2회 금강현대미술제》(대전문화원) 참여
- 1983년            《금강현대미술연구회 기획 9인전》(대전문화원) 참여
- 1985년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졸업
- 1986년            《서울현대미술제》(서울, 미술회관) 참가  
                  《Hard core 20 대전 CONNECTION》(대전문화원) 참여
- 1987년            《개인전》(서울, 윤갤러리) 개최  
                  《KAN, KAN, KAN-觀感關》(서울, 표화랑 / 일본 고베, 도쿄) 참여
- 1988년            《Hard core 19 대전 CONNECTION》(대전, 동아갤러리) 참여
- 1990년            《현대미술교류회전》(대전문화원) 참여
- 1990~1992년 《Aspect전》(청주예술회관) 참여
- 1992년            《개인전》(대전, 한신코아아트홀) 개최  
                  《Flower Sculpture》(대전, 현대화랑) 개최  
                  《구조와 탈 구조전》(서울, 인데코갤러리) 참여
- 1993년            《박람회 외연전》(대전, 홍인갤러리) 참여
- 1994년            오원미술상 수상
- 1995년            《동세대전》(서울, 관훈미술관) 참여

3 유근영, 「작가노트」, 『유근영전』(유근영, 1993).

4 유근영은 미술제를 감상하기 위해 모인 관람객들에게 풍선을 나누어 준 다음 불계하고 풍선이 꺼내려가지 않도록 물고기 밥을 풍선에 매달아 강 위에 띄우는 관객참여 형식의 작품을 실행하였다. 김영호, 「금강현대미술제의 의의와 역할 고찰-1980 금강현대미술제에 관한 소고」,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p. 151.

- 1996년 《대전가톨릭미술가회 창립전》(대전, 흥인갤러리) 참여
- 1998년 《최선원 · 유근영 2인전》(대전중구문화원) 개최  
《대전시립미술관 개관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1999년 《대전미술 100년의 경계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0년 《롯데화랑 개관기념전》(대전) 참여  
《한림미술관 초대전》(대전) 참여  
《우연갤러리 개관 기념전》(대전) 참여
- 2001년 《한발미술의 여정》(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2년 《식물성의 사유》(서울, 갤러리 라메르) 참여
- 2003년 《개인전》(서울, 갤러리 라메르) 개최  
제1회 이동훈미술상 특별상 수상
- 2004년 《색으로 본 내마음의 풍경》(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5년 《대전미술의 지평 - 유근영 · 이종협전》(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2006년 《개인전》(대전, 이안갤러리) 개최
- 2007년 《동시대현대작가30인전》(서울, 한전아트프라자) 참가
- 2010년 《개인전》(대전, 터치아트갤러리) 개최  
《이것이 대전미술이다!》(대전, 홀스톤 갤러리) 참여
- 2011년 《개인전》(대전, 모리스갤러리) 개최  
《새 생명(인간, 삶, 자연)-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2012년 《금상첨화》(대전, 모리스갤러리)에 출품  
이안갤러리 기획 《회화전(신중덕, 유근영)》(대전) 개최
- 2014년 《개인전》(서울, 아트팩토리) 개최
- 2019년 《15C 철화 now전》(대전, 아트센터 쿠) 참여
- 2020년 《제14회 이코노텍스트전》(대전, 이공갤러리) 참여
- 2021년 《유근영 갤러리 메르헨 기획 초대전》(세종, 홍미당AK점) 개최

## 유병호 (兪丙昊, 1948~ )

1948년 대전에서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유병호는 중학교 때부터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고등학교 재학시절 '미상록'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군 체대 후 당시 대전의 유일한 미술대학인 대전실업초급대학을 진학했다가 졸업 후 4년제인 송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에 편입해 1977년 졸업했다. 한남대학교 재학 당시 '19751225'의 멤버로 활동하며 해프닝과 야외작업 등 실험미술에 몰두했다. 현대미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에 들어가 다양한 형태의 미술을 공부하며 「회화에 있어서 공간해석에 대한 연구」로 1980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중학교 미술교사로 지내다가 1980년대 초 전시공간이 태부족인 대전에 반도화랑을 개관하여 운영했다. 동시에 1980년부터 1983년까지 공주, 대전을 무대로 한 '금강현대미술제'와 '야투(野投)'의 실험적 미술운동에 참여했다. 〈현장의 논리〉는 1980년 《금강현대미술제》출품작으로, 강물과 모래가 인접한 기슭에 강변을 따라가며 미리 준비한 얇은 백지를 펼치는 실험미술이다.<sup>1</sup> 당시 유병호는 이러한 작업 외에도 브라운관에 하얀 잉크를 칠한 설치작업, 한지를 찢어서 나오는 우연의 효과, 목장갑을 찍어서 나오는 울의 흔적 등 물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했다. 이러한 실험정신은 1987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시작한 판화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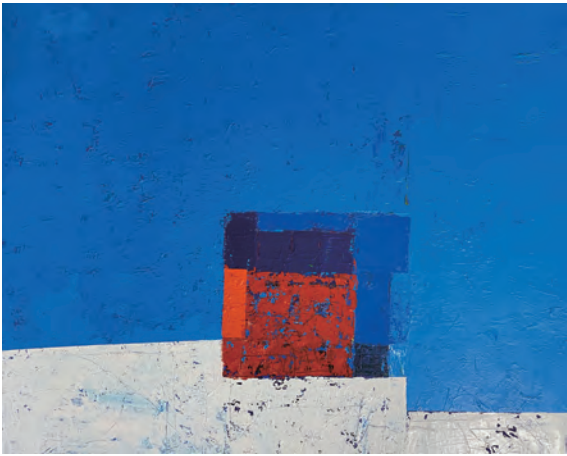
1987년 일본 교토시립미술대학(京都市立美術大學) 대학원에 진학해 1년간의 연구생을 거쳐 1988년 대학원 미술연구과에 들어가 구타이 그룹(Gutai Group)의 멤버였던 요시하라 히데오(Hideo Yoshihara)에게 판화에 대한 다양한 기법과 이론을 배우면서 실험미술을 판화와 접목시켰다. 일본에 있는 동안 3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교토시 미술대전》에서 입선, 《졸업 제작전》에서 교토시장상을 수상했다.

귀국 후 1990년부터 대전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며, 1992년부터 대전예술고등학교와 서대전여자고등학교에서 23년간 교편생활을 했다. 1994년부터 대한민국미술대전과 대전시



유병호, 《현장의 논리》, 1980, 금강현대미술제의 야투 활동 당시, 작가소장

1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p. 166.



유병호, 〈Work2020-blue & jazz 0711〉, 2020, 캔버스에 아크릴, 130.3×162.2cm, 작가소장

미술대전의 운영위원 및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충남미술대전과 대전시미술대전의 서양화부와 판화부의 초대작가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개인전을 30회(대전 15회, 서울 4회, 일본 7회, 공주 1회) 개최했으며, 국내외 단체전 및 공모전에 600여회 참여했다. 2005년부터 대전지역 작가와 러시아·몽골·태국·일본 작가들과의 교류전을 하면서 2011년에는 ‘대전국제미술교류회’ 회장을 맡아 대전미술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공로로 2018년 대전시미술

대전 초대작가상, 2019년 대전신문문화상(시각예술 부문)을 수상했다.

유병호는 드로잉과 판화(실크스크린), 회화 영역을 오가며 작업해 왔는데, 드로잉에는 먹과 색연필, 아크릴 물감, 외국 잡지 등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했다. 드로잉은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외국 잡지를 풀라주하여 잡지 특유의 면과 색을 화면에 합성하거나 먹과 종이의 만남을 통해 즉흥성을 화면에 드러내고자 했다. 우연성과 즉흥성을 중시하는 이러한 태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독특한 조형 언어로 발전되었다. 즉 한국과 일본의 실험미술을 융합하면서도 ‘블루’를 주조로 평면 안에 여러 가지 변주를 시도해왔다.<sup>2</sup> 《blue & jazz》 연작은 “블루에서 나오는 에너지와 재즈라고 하는 변이가 심한 음악을 붙여 작업을 완성한” 것이라고 작가가 밝힌 것처럼 기하학적 형태의 색면들이 서로 강약과 높낮이를 이루며 빚어내는 ‘리듬’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작가는 오랫동안 자연이나 일상에서 얻은 느낌과 경험을 드로잉하고, 그 위에 두텁게 물감을 칠하거나 긁고, 지우며 마티에르를 만들고, 다시 주변의 다른 색면들과의 긴장과 균형 관계에 놓이도록 했던 것이다.<sup>3</sup>

## 연보

- 1948년 대전 출생
- 1965~1967년 대전 시내 고교생 미술씨클 ‘미상록’ 회원으로 활동
- 1975~1977년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서양화 전공)에 편입하여 졸업
- 1978~2020년 《한국미술협회 대전지부전》(대전) 참여
- 1978~1981년 《양테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2 김구희, 「유병호 개인전, 왜 ‘블루 앤 재즈’ 인가?», 『충청데일리』(2014. 6. 15) 참조.

3 허나영, 「자연 속 리듬을 표면에 찍고 그리다」, 『YU BYOUNG-HO, blue & jazz』(평창당, 2020).

- 1978~1992년 《19751225 그룹전》(대전) 참여
- 1979~1981년 《서울 현대미술제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1979~1981년 《금강현대미술전》(대전, 공주) 참여
- 198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회화과 졸업
- 1981~1983년 《'야투(野投)' 야외전》(공주)에 참여
- 1983~1984년 《향토 미술초대전》(대전문화원)에 출품
- 1983~1985년 대전 반도화랑을 개관하여 운영
- 1984~1988년 《충남미술대전》입선 3회, 특선 4회
- 1985~2021년 대전 현대판화가협회 회원, 《대전판화협회 회원전》에 출품
- 1987년 일본 교토(京都)시립예술대학 대학원 연구생
- 1987~1988년 《日本 全國大學生 版畫展》(일본) 참여
- 1988~1990년 일본 교토(京都)시립예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판화전공) 입학 및 졸업
- 1988년 《일본에서의 메시지(物+物質展)》(서울) 참여
- 1988~2020년 《충남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 천안)에 출품
- 1989년 《오사카 현대판화 5인전(大阪現代版畫家5人展)》(서울) 참여
- 1990년 《교토시미술대전(京都市美術大展)》입선, 일본 교토시장상(京都市長賞) 수상
- 1990~2010년 한남대학교 · 충남대학교 · 목원대학교 · 배재대학교 출강
- 1990~2020년 《대전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에 출품
- 1991~2020년 《한국현대판화가협회전》(서울)에 출품
- 1991~1994년 《대전시미술대전》판화부문 특선, 대상 수상
- 1992~1997년 대전예술고등학교 미술부장으로 재직
- 1995~2004년 《한국미술교육연구회 회원전》(대전)에 출품
- 1997~2012년 서대전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2005년 《Power of Asia》(덴마크, 에스바니아미술관) 출품
- 2005~2021년 《향토작가초대전》(공주, 임림미술관)에 출품
- 2006년 《3국 3색전》(러시아, 이르쿠츠크미술관)에 출품
- 2007~2011년 《한국, 몽골전》(몽골 울란바트로 미술관)에 출품
- 2008년 《대전미술 - 그림으로 말하다》(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9~2021년 《대전국제미술교류회전》(대전 / 몽골 울란바트로) 참여
- 2011년 《Finding Beauty of Love and Peace》(두바이) 참여
- 2012년 《판화이후 한일교류전》(대전, 우연갤러리) 참여  
대전예술고등학교 정년퇴임
- 2016년 《기획초대 유명호1985-2016》(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개최  
《동경, 오사카, 니가타 소재 화랑초대 일본순회 개인전》참여
- 2018년 개인전 《blue & jazz》(대전, 갤러리 나) 개최 / 대전시 초대작가상 수상
- 2019년 대전시문화상 수상 및 수상기념 초대《개인전》(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2021년 《기획초대전, 2021 blue & jazz》(대전, 화니갤러리) 개최



## 윤복희 (尹福熙, 1948~ )



윤복희, 〈코스모스〉, 2012,張り 분채, 200×260cm, 작가소장

1948년 충청남도 태안에서 출생한 윤복희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교 회화과에 입학하면서 상경하였다. 1976년 대학을 졸업한 직후, 세종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1978년 한국화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시절, 1972년부터 《대학미전》에 참가하였고, 1973년부터 《백양회전》에 작품을 출품하며 졸업하기 전부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

였다. 1977년과 1980년 《국전》에 입선했고, 1980년대 초 미국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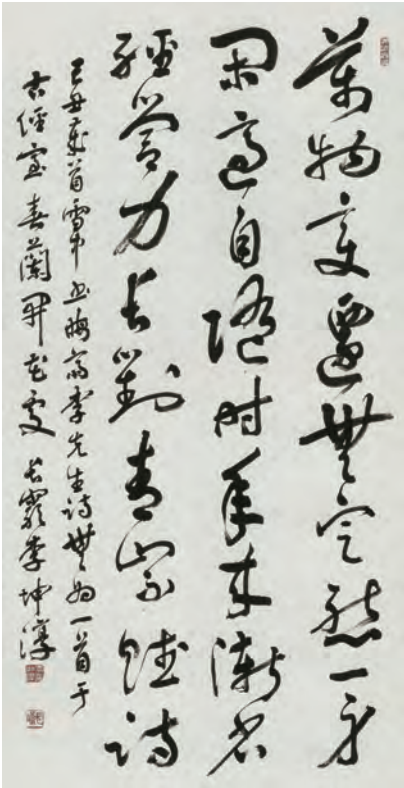
이후 1988년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25년간 경남지역에 머물면서 후학을 양성했다. 윤복희는 수국, 양귀비 등의 '화훼화(花卉畫)'를 주로 그렸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연에서 취한 소재를 작품에 담았다. 2014년에 경남도립미술관의 제5대 관장으로 취임하였으며, 《미술대전》, 《경남도립미술전》, 《목우미술대전》 등 여러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 연보

- 1948년 충청남도 태안 출생
- 1972~1975년 《대학미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1973~1975년 《백양회》(국립현대미술관) 출품
- 1976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한국화전공 졸업
- 1976~1986년 《상미회전》 참여
- 1977년 《창립회》 참여  
《부부전》(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천주교회) 참여
- 1978년 세종대학교 대학원 미술과 한국화전공 졸업  
《세종대 대학원 동문전》(대전, 예총화랑)에 출품
- 1979년 《전라남도전》 특선 수상

- 1978~1979년 《미술단체연립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1980년 《초대 오인전》(미국, 삼일당화랑)에 출품  
《제21회 국전》입선
- 1981년 《초대전》(충남, 서산문화원) 참여  
《전라남도전》입선
- 1981년 《윤복희 개인전》(미국 워싱턴, Eastern Gallery) 개최
- 1982년 《중앙대학교 동문전》참여
- 1982~1983년 《강릉대학교수 작품전》참여
- 1983년 《개관기념전》(서울, 경인미술관) 참여  
《윤복희 개인전》(미국 샌프란시스코, Simon's Gallery) 개최
- 1988년 경남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
- 1991년 《광주시전》최우수상 수상
- 1998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5년 《경남미술전》(대안공간 마루) 참여
- 2008년 《꽃그림전:축제》(부산, 타워갤러리) 참여  
경남대학교 사범대학장 역임
- 2009년 《경남중진, 원로작가 10인 초대전》(거창군문화센터)에 출품
- 2014~2015년 경남도립미술관 관장 역임

## 이곤순(李坤淳, 1948~ )



이곤순, <무위(無爲)>, 2009, 135×70cm  
(출처: 『장암 이곤순 서예관 개관기념전』, 보령박물관, 2020)

호는 장암(長巖). 1948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출생한 이곤순은 대전과 충청지역 현대 서예사의 1세대 작가다. 김충현과 조종업을 사사하였으며, 김충현으로부터 ‘서(書)가 예술이 되기 위한 격조와 안목’을 조종업으로부터는 ‘서예가 단순한 글씨예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는 학문(한학)’을 사사하여 대전과 충청지역 서예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1968년 《한국신인예술전》에 입선하였고 5년 뒤, 《충청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위촉되었다. 이후 《미술대전》에 입선과 특선을 거듭하며 한국 서단에 자리를 잡았다. 또한 「대전서예의 회고와 전망」(1996),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선생의 삶과 예술」과 같은 논문들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체, 한글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서예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예술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고자 「우암(尤菴)선생의 서예가 후대에 미치 영향」과 같은 논고를 썼다.

이곤순은 전서·예서·행서·해서·초서의 오체와 한글체, 국한문 혼용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안진경(王羲之, 709~785)과 왕희지(王羲之, 303~361)를 비롯하여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 등 당대의 명필은 물론 광개토태왕비 금석문 연구는 작가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되었다. 일필휘지의 빠른 속도감으로 쓴 초서에 묻어있는 비백(飛白)의 아름다움과 자유자재로 구사한 묵선의 굵기와 농담은 공감각적인 상황을 연출하며 엉뚱한 자리에 찍혀있는 낙관은 과격함을 주어 글자를 모르는 문외한이라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2020년에는 동양의 전통예술인 서예의 아름다움을 시민과 관광객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자신의 작품 670점과 함께 관련도서 1500권 등 모두 2366점을 보령문화원에 기증하여 문화원 내에 ‘장암서예관’이 설립되었다.<sup>1</sup>

<sup>1</sup> 신진호, 「한국 서예사 1세대 ‘이곤순 선생’ 작품, 보령에 장암서예관 개관」, 『중앙일보』(2020. 7. 29).

## 연보

- 1948년 충청남도 보령 출생
- 1968년 《제7회 한국신인예술전》 입선 / 《제1회 개인전》 개최
- 1970년 《제1회 전국 대학미전》 동상 수상
- 1971년 《제2회 개인전》 개최 / 논저, 『서법개론』 발간  
한글학회 창립50돌 기념 전국회화대회 문교부장관상 수상  
충남대학교 농업대학 축산학과 졸업
- 1973년 《제3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위촉
- 1973~1983년 《국전》 입선, 특선 9회
- 1976년 숭전대학교(현 한남대학교) 미술교육학과(서예) 출강  
논저, 『顏眞卿顏勤禮碑』 발간
- 1980년 《제10회 충남도미전》 서예 심사위원장 역임
- 1981년 『일중선생서집』 편찬위원 역임
- 1984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 위촉
- 1985년 《한·일 서예교류전》(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최)에 출품
- 1986년 《한·중 예술전》(대만역사박물관)에 출품 / 충남대학교 문과대학(서예) 출강
- 1989년 대전직할시 문화예술진흥위원 역임
- 1990년 《제2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92년 《한국서예 100인 초대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4년 충청서단 이사장 역임
- 1995년 《제7회 대한민국 서예대전》 운영위원 역임 / 《대전광역시 서예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1996년 논문, 「대전서예의 회고와 전망」(대전문화원) 발표
- 1997년 《초서와 전각 초대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97세계서예전북 비엔날레》에 초대 출품
- 1998년 대전광역시 문화상(예술부문) 수상
- 1999년 논문, 「우암(尤菴)선생의 서예가 후대에 미친 영향」 발표
- 2000년 《국제서법대전》(중국, 강소성국화원)에 초대출품
- 2001년 보령예술상 수상 / 대전광역시 문화상 심사위원 역임
- 2003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진흥위원 역임 / 《애국지사 어록 회호전》(천안독립기념관)에 초대출품
- 2004년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만해한용운선생기념 서예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 2005년 서울 서예 비엔날레 조직위원 역임
- 2006년 논문, 「일중(一中) 김충현(金忠顯)선생의 삶과 예술」(서예문인화, 12월) 발표
- 2007년 《한·중서화 100인전》(중국 운남성민족박물관)에 초대전 출품
- 2008년 《대전미술 지평전-장암 이곤순전》(대전시립미술관) 개최
- 2020년 장암서예관(보령, 문화의전당) 개관

## 이명자(李明子, 1948~ )



이명자, 〈소녀상〉, 1982, 캔버스에 유채, 130.3×97cm, 대전시립미술관

1942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명자는 한국전쟁 때 피난을 간 대구에서 잠시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자신의 그림이 교실 벽면에 붙고 칭찬을 받은 것이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라고 하였다.<sup>1</sup> 중고등학교 시절 미술반 활동을 열심히 했으며 196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하였다. 대학교를 졸업 후 충청남도 천안중학교 미술교사로 발령을 받아 충청남도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후 논산여자중학교로 옮겨 간 후 그곳에서 대학동창인 서양화가 박명규를 만나 결혼을 했다. 1971년에 남편 박명규가 대전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함께 대전으로 정착하였으며, 여러 학교를 거쳐 문지여자중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1963년부터 1968년까지 《국전》에 6회 연속 입선을 했으며, 《충청남도미술대전》에 특선을 하는 등 교직생활과 작품 활동을 병행했다. 남편 박명규와 부부교사로 1987년 첫 부부전을 개최한 이후, 2년에 한 번씩 부부전을 열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대상에 대한 분석을 위해 작업에 앞서 데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작품의 주제로는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물이나 풍경, 정물 등 자연을 주로 그린다. 이명자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서정(抒情)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읽고 꺼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화가의 몫이라는 예술 정신을 지닌 작가이다.

1 한현숙, 「다시 읽는 서양화가 이명자- 삶과 오늘」, 『대전예술』 315(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 2021), p. 46.

## 연보

- 1942년 서울 출생
- 196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입학
- 1963~1968년 제12회~17회 국전 입선 6회
- 1967년 《목우회 공모전》 장려상 수상
- 1969년 《이동훈 정년퇴임전》 참여
- 1971~1972년 《충남미술전람회》 특선 연속 2회 수상
- 1973년 《충남미술전람회》 초대작가상 수상
- 1979년 《충남미술전람회》 초대작가상 수상
- 1987~2003년 《박명규 · 이명자부부전》(대전, 오원당 화랑 / 현대 갤러리 등) 7회 개최
- 1995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미술교육학 석사 졸업
- 2004년 문지중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임  
홍조근정훈장 대통령 포상 수상
- 2005년 《굿모닝 갤러리개관전》(대전)참가
- 2007년 《육일전》(대전, 굿모닝갤러리) 참가
- 2008년 《2008 우정의 만남》(대전 중구문화원) 참가  
《여성작가초대전》(대전, 갤러리 대미) 출품
- 2010년 《제12회 대전여류화가회》(대전, 타임월드 갤러리)에 출품
- 2012년 《대전여성미술가협회전》(대전 중구문화원) 참가
- 2013년 《사제동행전》(대전, LH아트갤러리) 참가
- 2015년 《대전여성미술가협회전》(대전시청 1층 제1전시실) 참가
- 2018년 《개인전》(대전 중구문화원) 개최
- 2019년 《대전여성미술가협회전》(대전시청 1층 전시실) 참가
- 2020년 《광자진취: 대전미술 다시쓰기 7080》(대전시립미술관) 참가

## 장주봉 (張柱鳳, 1948~ )



장주봉, 〈사유원형-잃어버린 노래〉, 2016, 혼합채색, 91×117cm  
(출처: 『후소회창립80년』, 예술의전당, 2016)

호는 이정(以汀). 1948년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에서 출생하여, 1967년 20세가 되던 해, 서라벌예술대학(현 중앙대학교)에 입학하여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김은호를 사사했다. 김은호는 자신의 아호인 '이당(以堂)'에서 '以'를 사용하여 장주봉의 호를 '이정(以汀)'이라고 지어주었다.<sup>1</sup>

서라벌예술대학에 입학하던 1967년 《신인예술상전》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1967~1968년 《백양회 공모전》에서 특선을 차지했다.

이후 1979년 인천시에 개관한 이당 기념관의 관장을 역임하며, '후소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1995년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회 건축부문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장주봉의 초기작품은 짙은 먹색이 두드러진 산수화로, 1980년 《제1회 성미회 동양화전》에 출품한 〈산수〉는 이 시기 대표작으로 먹의 번짐 효과를 이용해 안개 낀 산의 분위기를 묘사했다. 1990년대로 진입하면서 수묵과 채색을 함께 사용하여 맑은 담체의 맛을 살린 풍경화를 주로 제작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자연을 재해석하여 응집 또는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일컫는 《사유원형》 시리즈를 제작했다. 장주봉은 사유와 감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설득력 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하며, 다양하고 새로운 표현방법을 가미한 과감한 시도를 선보였다.<sup>2</sup> 금강산의 사계 중 비온 후 안개가 서린 장면을 표현한 〈사유원형-금강운해〉를 통해 기존의 한국화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표출시켰으며, 〈사유원형-원무〉에서는 둥글게 춤추고 노래하는 기러기 무리의 모습을 '사랑, 화합, 질서'이라는 주제로 화면에 구현했다.

전통에 안주하지 않으면서도 한국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법을 시도한 장주봉은 '사유'를 통해 자신만의 화풍을 모색했다.

<sup>1</sup> 작가의 호와 근작에 관한 내용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달받았다(전화 인터뷰: 2021. 8. 11).

<sup>2</sup> 정선모, 「이당 김은호의 마지막 제자 '장주봉 화백」, 『일요주간』(2020. 4. 13).

## 연보

- 1948년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에서 출생
- 1966년 《개인전》(경인미술관) 개최
- 1967년 서라벌예술대학교 입학(중퇴), 이당 김은호 사사  
《신인예술상전》에서 최고상 수상
- 1967~1968년 《백양회공모전》에 특선
- 1971년 《제8회 후소회전》(서울, 신세계백화점화랑)에 참여
- 1979년 《한국미술 오늘의 방법전》(서울, 미술회관)  
이당 기념관 개관(인천시 중구 송학동 3가 5), 관장 역임
- 1980년 《제1회 성미회 동양화전》에 〈산수〉 출품
- 1983년 《한·미수교100주년 기념전》에 참여  
《한·일·중교류전》에 참여
- 1986년 《장주봉 작품전》(인천, 이당기념관) 개최
- 1990년 《움직이는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에 참여
- 1992년 《이정 장주봉 작품전》(시민회관) 개최
- 1995년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한국미술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인천광역시건축상 심사위원회 위원
- 1998년 《대전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제4회 미술대전》에 〈차령산〉 출품
- 2008년 《제37회 후소회전》에 〈사유원-잃어버린노래〉 출품
- 2019년 《제38회 미술대전》 비구상부문 1차 분과 심사위원장  
《제15회 출향·향토작가 초대전》(보령, 문화의전당)
- 2020년 《제15회 21세기 한국화전》(서울, 인사아트프라자)



## 조창례 (趙昌禮, 1948~ )



조창례, 〈드로잉〉, 2020(출처: 『대전예술』, 2020)

1948년 대전 대흥동에서 출생한 조창례는 대전여자중학교를 거쳐 1967년 호수돈여고를 졸업하였다. 1964년 대전 시내 각 고등학교 미술반 학생들이 모여 창립한 '미상록(美湘綠)'의 초기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미술에 대한 꿈을 키웠다.<sup>1</sup>

1972년 성남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교직생활을 시작했지만, 더욱 넓은 세상에 대한 배움의 열망과 낮은 외국 문화에 도전하기 위해 1978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대전고등학교 출신 화가 하동철의 추천으로 뉴욕에 있는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순수미술과 판화를 공부하고, 월트 디즈니사(The Walt Disney Company)에 입사하여 사내(社內)의 장학제도를 통해 캘리포니아 대

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 진학하였다.<sup>2</sup> 특히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드로잉 수업은 디즈니사에서 캐릭터 묘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조창례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묘사하기 위해 동물에 관한 다큐멘터리 방송인 'Animal documentary'를 매일 시청하거나 1주에 4회 이상 동물원을 직접 방문하여 동물의 동세(動勢)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애니메이션작업에서 더욱 구체화 되었으며, 〈라이언 킹(Lion King)〉에 등장하는 사자 중, '닐라' 캐릭터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sup>3</sup>

현재는 디즈니사에서 은퇴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자신의 화업의 일부였던 애니메이션을 제작·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개인전을 개최하며, 《미상록 그룹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창례는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회사, 월트 디즈니사에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로 입사한 최초의 한국인으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알라딘(Aladdin)〉, 〈라이언 킹(Lion King)〉, 〈물란(Mulan)〉, 〈타잔(Tarzan)〉, 〈헤라클레스(Hercules)〉, 〈아틀란티스(Atlantis: The Lost Empire)〉,

1 '미상록(美湘綠)'의 의미에 대해서는 "중국에 있는 큰 강장(長江)의 이름으로 이름난 문객이나 화가들이 모여들어 많은 유적과 명작을 남긴 명강(名江)으로 아름다운 절경과 어우러져 명승지가 되어 있다"면서 "이와 같이 훌륭한 작가들로 성장되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미상록이란 미술단체 명을 만천하에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구희, 「고교미술동아리, 52년 전 그 시절을 기억해본다」, 『충청데일리』(2016. 4. 15).

2 최영근, 「재미 화가·애니메이션 아티스트 조창례」, 『대전예술』(2019. 7), pp. 40~43.

3 KBS 다큐멘터리 《한국을 빛낸 사람들-조창례》(1995).

〈노틀담의 꼽추(The Hunchback of Notre Dame)〉 등의 제작에 참여하였다.

## 연보

- 1948년 대전시 대흥동 508번지에서 출생<sup>4</sup>
- 1964년 대전여자중학교 졸업
- 1967년 제40회 호수돈여고 졸업
- 1972~1978년 성남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 1978년 미국 유학
- 1981~1983년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N.Y Pratt Institute, Fine Art) 미술전공
- 1986~1989년 영화 애니메이션 작가(Filmation animation artist Los Angeles)
- 1990~1992년 Cool Production animation artists, 영화 제작
- 1992~2003년 월트 디즈니사(Walt Disney animation) 근무
- 1995년 《한국을 빛낸 사람들》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방영
- 2000~2001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드로잉 수업 참가
- 2005년 프랑스 시테 예술가 빌리지(cite international des arts) 거주, 작품 활동
- 2008년 《개인전》(대전, 우연갤러리) 개최
- 2010년 서울예술전문대학교 디지털융합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
- 2012년 《미상록그룹전》(대전중구문화원) 참여

4 작가의 출생과 학교 졸업년도 등은 전화 인터뷰 후에 메일과 메시지를 통해 작가로부터 전달받았다(전화 인터뷰: 2021. 8. 17).

## 최영근(崔榮根, 1948~ )



최영근, 〈선율(旋律)〉, 1984, 영채칠·옷칠, 52×28×12cm, 《제3회 미술대전》대상 수상작

1948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출생한 최영근은 충남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동훈에게 지도를 받았으며, 대전 시내 고교생의 미술모임인 ‘미상록’에 참여할 정도로 미술에 심취해있었다. 1972년 홍익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논산 기민중학교, 논산 썬밭(Saint paul)여자 중·고등학교, 대전 대신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1978년부터 1년 반, 한국조폐공사 도안실에 근무하고, 1980년 한남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디자인학과(현 아트&디자인 테크놀로지대학 융합디자인학과)의 교수로 부임하여 2013년에 정년퇴임했다.

교사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만든 작품을 출품한 1976년 《충청남도 미술전람회》를 시작으로 최우수상을 3회 수상하는 실력을 발휘하였다. 1979년 《충청남도 미술전람회》에서 대상을, 1984년 《제3회 미술대전》 공예부문에서 〈선율〉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1970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목재를 사용하여 주로 소반, 화병, 향아리 등 실용적인 소품과 가구(家具) 등에 옷칠을 더한 전형적인 목공예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러나 1981년에는 보다 다양한 조형세계를 탐구하고자 새로운 실험을 통해 수성(水性)과 유성(油性)이 서로 분리되는 원리를 응용하여 목재를 염색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영채기법(榮彩技法)’이라 이름을 지었다. 1984년 작 〈선율〉은 나무의 결과 원목의 색깔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목공예 제작기법에서 벗어나, 은행나무를 조각하여 한복의 배래·도련의 곡선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외부 표면은 작가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영채기법’으로 마감하고, 내부는 옷칠로 마감하여 전형적인 목공예가 주류를 이루던 당시 목재에 염색하고, 옷칠을 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았다. 최영근은 영채기법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통 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sup>1</sup>

1990년대부터 작품에 자개·난각(卵殼)·색편을 주로 이용했는데, 자개와 난각은 표현할 수 있는 색감이 제한적이라 다양한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sup>1</sup> 최영근, 「개인전을 열며」, 『최영근의 칠』(이안갤러리, 2009), p. 158.

해 최영근은 ‘색편(色片)기법’을 개발하였다.<sup>2</sup> 작업에 적합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색칠을 한 후, 완전히 굳기 전에 필요한 크기로 절단해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을 통해 원하는 색상과 형태, 크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조형적으로 다양하고 정밀한 표현의 작품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영근, 〈철로변 풍경〉, 2004, 옷칠·난각·칠분, 45.3×33.3×1.3cm, 작가소장

1990년 신세계미술관과 대전문화원에서 열린 첫 개인전에서는 전형적인 목공예 작품과 ‘영채기법’의 작품, 새로 시작한 옷칠 작업, 특히 평면 판넬 작업을 집중적으로 선보여 한국 현대 칠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2002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옷칠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옷칠에 있어서 독보적인 자리를 확보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3년에는 일본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가나자와 세계 미술 공예 특별 초대전인 《현재의 공예-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21명의 예술가》전에 초대되었다.

2009년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공예품의 특징인 실용성이나 입체성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여 2차원적인 평면작품들을 주로 발표했다. 화면에는 나선형(螺線形) 구도와 나선(螺線)이 주로 등장하는데, 나선은 모든 창조물이 형성되는 원리이자 화면의 공간을 원하는 만큼 확대해 보이게 한다. 심화된 색편 기법으로 확대경을 사용해서 재료들을 미세하게 조립하는 행위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반복하며 완성한 〈창세기〉, 〈태초의 에너지〉, 〈빛〉, 〈탄생·빅뱅〉,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태초의 바람〉 등의 작품은 신의 존재, 우주의 창조, 생명의 기원, 영혼의 자유 등의 주제를 담고 있다. 점과 선의 무수한 연결로 완성되는 작품들과 달리 〈철로변(邊) 풍경〉(2001), 〈과수원의 추억〉(2001), 〈유림풍정〉(2005)은 풍경화를 떠올리게 한다. 최영근은 옷칠로 작품을 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굳이 칠화(漆畵)라고 명명하지 않는데, 이는 조형예술을 하면서 회화, 공예, 디자인, 조각 등 장르의 구분에 갇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sup>3</sup>

칠 작품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칠 예술은 시간의 미학이라고 생각하는 작가는 메추라기 껍질을 활용한 〈염화시중의 미소〉를 1998년에 시작해 15년이 지난 2013년에 완성하였다. 최영근의 작업은 점 형태의 작은 난각들이 만나 선을 이루고, 그 선들이 다시 면을 이루는 작업의 반복으로 느림의 철학 속에서 진행된다. 최영근의 작품은 공예와 시각예술의 경계에 있는 ‘공예회화’로 불리기도 한다. 즉 공예품으로 보기에선 공예의 특징인 실용성보다는 감상용이며, 칠

2 최영근, 앞의 글, p. 158.

3 최영근, 위의 글, p. 158.

화로 규정하기에는 재료와 기법이 공예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 칠 공예가들이 사용하는 재료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개발로 시각적 효과를 증대시켰다고 평가받는다.<sup>4</sup>

## 연보

- 1948년 충청남도 청양에서 출생
- 197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부 응용미술과 졸업
- 1976~1980년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최우수상 3회 수상(공예부문, 1976, 1978, 1980)
- 1979년 《충청남도 미술전람회》 대상 수상
- 1980년 한남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디자인학과 교수로 부임
- 1981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미술대학원 졸업 / 《국전》 공예부문 입선
- 1982년 《제1회 미술대전》 공예부 입선
- 1984년 《제3회 미술대전》 공예부문 〈선율〉로 대상 수상
- 1987년 《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서울, 미술회관) 참여
-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기념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1990년 《개인전》(서울, 신세계미술관 / 대전문화원) 개최  
《한국미술-오늘의 상황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2~1994년 한국미술협회 대전광역시지회 지회장 역임
- 1993년 《전관 개관기념 현대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1994~1996년 《한-중 칠예 교류전》(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북경, 중국미술관) 참여
- 1998년 《한·일현대칠예전》(대전 / 일본 교토) 참여
- 2000년 《현실과 공간의 간극》(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2년 《일본 The Isiskawa International Urushi Exhibition 2002》 금상 수상
- 2003년 《한발미술의 여정 II-이동훈과 대전화단》(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8~2011년 중국 칭화대 심천대학원 겸직교수 역임
- 2009년 《최영근의 칠(漆)》(대전, 이안갤러리) 개최
- 2010년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2012년 《최영근의 꽃》(대전, 롯데갤러리) 개최
- 2013년 한남대학교 미술학과 정년퇴임 / 《현묘지예(玄妙之藝)》(대전시립미술관) 개최  
《한국 현대칠예술의 위치》(독일 뮌스터, 칠예박물관)
- 2015년 《한국공예의 범고창신》(이태리 밀라노, La Triennale)에 출품
- 2016년 《2016대한민국 명인명품공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19년 《대전공예가협회 30주년기념전》(대전시청 1층 전시실) 참여

4 김광우, 「최영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최영근의 칠』(이안갤러리, 2009), pp. 6~8.

## 김영대 (金榮大, 1949~ )

1949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출생한 김영대는 196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조소 전공)에 입학하였다. 대학교 3학년 재학 중 《제5회 전국대학 문화예술축전-대학미전》에서 〈와성〉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대학교 졸업 후 바로 동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1981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목원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했으며 1987년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2013년 정년퇴임했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1975년 이후 서울대학교 조각과 졸업생들이 만든 단체인 《낙우회 조각전》에 1985년까지 꾸준히 참여하였다. 1981년 《제30회 국전》에서 입선을 했으며, 1982년 《제1회 미술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했다.

1970년대 유행한 철 조각의 경향을 따라 초기에는 〈기원전(紀元前)-맥(脈) I〉(1985)과 같이 중량감을 강조한 형태의 용접조각에 집중하였다. 1985년 전시에서 선보인 《기원전-맥》 연작은 화산 폭발로 가스가 빠져나가 굳어진 화산암처럼 작은 구멍이 숭숭 뚫린 표면과 이와 상반되는 매끈하고 빛나는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든 표면이 공존하는 형태의 추상조각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주물방법과 용접방법을 접목시킨 주조(鑄造) 용접방법으로 작품을 선보였는데, 기본 원형을 석고로 캐스팅 한 다음에 그 위에 동으로 만든 막대를 불로 녹여서 선을 그리듯 연결시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완성되므로 작가 스스로 자신의 작품은 ‘그려 만든 조각’이라고 부른다.<sup>1</sup> 이 방법을 통한 결과물로 관람자는 불길의 흔적을 고스란히 작품에서 느낄 수 있다. 〈원-Auto〉(1998)는 1991년 처음 선보인 최초의 경자동차를 6개월에 걸쳐서 작품화하였다. 즉 실제 소형자동차인 티코 형태로 석고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동봉(銅棒)을 녹여 선을 그리듯 형태를 완성한 것이다. 불에 녹은 금속의 색조와 작품에 남아 있는 석고의 흔적 역시 그대로 노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시간에 대한 저항으로 삶을 이야기하는 작가의 방식이다. 티코 작품 이후에는 실물크기로 만든 사람들을 모델로, 구리로 결박



김영대, 〈紀元前-脈 I〉, 1985, 청동, 94×84×104cm(출처: 『김영대 조각전』, 동방미술관, 1985)

<sup>1</sup> 박정규, 「조형의 두 형식, 그리고 회화를 담는 조각」, 『金榮大조각개인전』(비비스페이스, 2008).



김영대, 《원(原)-정물 I》, 2007, 동(銅) 용접, 97×117cm  
(출처: 『金榮大조각개인전』, 비비스페이스, 2008)

하는 작업을 실행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대한 저항의 표현이자 우리의 현실 삶속에 시간의 한 면을 담고 있다.

《원(原)-정물》 연작은 〈원(原)-정물 I〉 (2007)에 보이는 것처럼 조소면서 벽에 걸린 정물화처럼 액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경물을 배열하였다. 또 생활 속 일부를 옮긴 것처럼 거실 풍경이나 과일바구니가 놓인 원형 탁자를 재현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동죽(銅竹)》 연작은 사실의 표현에서 발전해 시대의 정신세계

를 담았다. 사군자 중 대나무를 앞선 주조기법으로 제작했는데 문인화에서 대나무를 '친다'는 표현을 작가만의 방식으로 입체화하였다. 회화에 캔버스가 있듯 조각의 틀로 액자를 만들어 그 안에 다양한 조형물을 안치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회화와 조각이 하나로 결합한 형태로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 작가 스스로 '자신의 작업을 그리듯이 만든다'라고 표현한 바와 같이 금속을 용접하여 추상적인, 또는 구상적인 대상을 재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회화가 갖는 이차원적인 평면성에 조각을 더하여 입체화 시켰다.

## 연보

- 1949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출생
- 1967~1975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조소 전공) 졸업
- 1974년 《제5회 전국대학문화예술축전-대학미전》〈와성〉 대통령상 수상
- 1975~1985년 《낙우회》(국립현대미술관 / 서울시립미술관 / 예술의 전당 등) 참여
- 1976년 《제2회 대구현대미술제》(대구, 계명대학교) 참가
- 1977년 《공간대상전》(서울, 공간미술)에 출품
- 1978년 《서울예술고등학교 창립25주년 기념초대전》(서울, 세종문화회관) 출품
- 1979년 《제2회 중앙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입선
- 198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전공 석사 졸업  
《서울조각회 창립전》(서울, 미술회관) 참여  
《제30회 국전》(국립현대미술관) 입선
- 1982년 《제1회 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특선
- 1983년 《83~21전》(서울, 그로리치 화랑) 참여
- 1985년 《개관기념 초대전》(대전, 동아전시관) 참여  
《대전 현대조각회 창립전》(대전, 현대화랑) 참여

- 1986년
  - 《조각 초대전》(대구, 맥향화랑) 참여
  - 《조각개인전》(서울, 동방 미술관) 개최
  - 《개관기념 초대전》(서울, 아르코스모 미술관) 참여
  - 《조각개인전》(대전, 현대화랑) 개최
- 1987년
  - 《한국 조각의 오늘-가을전》(서울, 토탈 미술관) 참여
  - 《충남 향토작가 초대전》(대전문화원) 참여
  -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교수로 부임
- 1988년
  - 《조각5인 신작전》(대전 미술관) 참여
  - 《한국 현대조각전》(춘천 MBC) 참여
- 1989년
  - 《전국 국립대학교수 작품전》(강원도, 인제 미술관) 참여
- 1990 · 1992년
  - 《'90, '92 현대미술 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1년
  - 《전국 국립예술대학 교수 작품전》(대전 문화원) 참여
  - 《제12회 서울 조각회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충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미전》(대전 문화원) 참여
- 1992~1997년
  - 《제30~35회 낙우회 조각회전》(서울, 예술의전당 / 워커힐미술관 / 미술회관 / 모란미술관 / 공평아트센터) 참여
- 1992년
  - 《우성 김종영선생 10주기 추모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1993년
  - 《Ex.position/Out.Position》(대전, 홍인 갤러리) 참여
  - 《대학 미술의 흐름전》(대전문화원) 참가
  - 《제14회 서울조각회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1994년
  - 《조각의 표정전》(서울, 서호 갤러리) 참여
- 1995년
  - 《개관기념전》(대전, 백마아트홀) 참여
  - 《조각개인전》(서울, 나비스 화랑) 개최
- 1997년
  - 《낙우조각회전》(서울, 공평아트센터) 참여
- 1998년
  - 《대전 공간확산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4년
  - 《김영대조각전》(대전, BIBI SPACE) 개최
- 2008년
  - 《김영대조각전》(대전, BIBI SPACE) 개최



## 노광(盧桃, 1949~ )



노광, 〈산창리의 아침〉, 1990, 캔버스에 유채, 41×53cm  
(출처: 『노광』, 서울갤러리, 1990)



노광, 〈나리의 초상〉, 2004, 캔버스에 유채, 60.6×40.9cm(출처: 『노광』, BASS커뮤니케이션즈, 2005)

1949년 충청남도 공주군 우송면에서 출생한 노광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하였다. 평생 아카데미한 사실주의를 고수한 박득순(朴得鎔, 1910-1990)에게 사사받고 2003년 러시아 레핀미술아카데미(Repine Arts Academy)에서 수학하였다.

1984년 《목우회 공모전》에 출품한 〈노리개를 단 여인〉으로 특선을 수상했으며, 《제4회 미술대전》부터 《제7회 미술대전》까지 꾸준히 입선을 하였다. 《제6회 미술대전》

에서 〈9월의 오후〉로 특선을 수상하였으며 제9회·제10회 《미술대전》에도 연이어 특선을 하였다. 1985년부터 서울갤러리, 도쿄 미쓰코시(Mitsukoshi) 아트 갤러리, 갤러리 라메르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러시아 수리코프미술대학 교수 합동전》, 《한국의 누드미술 초대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강사, 상명대학교 사회교육원 지도교수로 재직했고, 미술대전 심사위원, 단원미술제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서양화 제1분과 이사, 안건미술대전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다.

노광은 자연풍경과 인물을 주로 화폭에 옮기면서 화가 자신의 미적 감정을 불어넣기 전에 관찰자의 시선으로 대상을 냉정하게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재현하

였다.<sup>1</sup> 그의 작품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탄탄한 소묘력, 안정된 구도를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고전주의 화풍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공미가 가미되지 않은 휘어지고 구

1 신항섭, 「사실주의 미학개념이 추구하는 진실: 노광 개인전」, 『전시+가이드』131(크라트, 2017), pp. 22~27.

부러진 자연 그대로의 소나무를 직접 보고 그렸다.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치밀한 묘사력 때문에 실물을 보는 듯한 인물화의 화법을 풍경화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2015년 지난 40여 년간의 화업을 한 자리에 전시하는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2021년 《개인전: 뮤즈를 그리는 사무사 시간으로》에서 노광은 풍경은 배제하고 여인의 인물(누드)만을 전시했는데 작품 속의 인물들은 수평, 수직의 구도에 맞춰 안정된 구도로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작품 속의 여인들은 순수와 순결함의 결정체로 투명하게 관객의 시선과 마주한다.<sup>2</sup>

노광은 시대의 유행이나 유풀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구상세계를 고집해왔다. 자신이 실제로 목도한 사물 또는 인물의 진실을 냉정하게 관찰하여 화면에 담는 장인으로 평가된다.

## 연보

- 1949년 충청남도 공주군 우송면 출생  
박득순 사사
- 1984년 《목우회 공모전》(덕수궁 현대미술관)에 〈노리개를 단 여인〉으로 특선 수상
- 1985년 《제4회 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입선 / 《France Le Salon》(파리, 그랑팔레)에 출품
- 1986년 《제5회 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입선  
《한국대표작가 100인 초대전》(서울, 전경련회관) 참여
- 1987년 《제6회 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九月의 肖像〉 특선 수상
- 1988년 《한국인물 작가회 창립전》(서울, 서울갤러리) 참여  
《제7회 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입선
- 1990년 《노광 작품전》(서울, 서울갤러리) 개최  
《제9회 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특선 수상  
《북경 중앙미술대학 초청 30일 중국 미술기행전》(서울, 롯데 미술관)에 출품  
《중국 30일 전》(LG 초대)(서울, 롯데미술관) 참여
- 1991년 《제10회 미술대전》(국립현대미술관) 특선 수상  
《한국의 리얼리즘전》(서울, 잠실롯데 미술관) 참여
- 1992년 《제2회 개인전》(서울, 롯데본점미술관) 개최  
《구상회화의 모색 8인 초대전》(대구, 벽아미술관) 참여  
《오늘의 한국전》(서울, 예술의전당) 장려상 수상
- 1993년 《인물화, 삶의 표정展》(서울, 현대아트갤러리) 참가  
《제3회 개인전》(일본 도쿄, 미쓰코시(Mitsukoshi) 아트갤러리) 개최
- 1994년 《제4회 개인전》(서울, 서울갤러리) 개최  
《서울정도 600주년 기념 서울국제현대미술제》(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1995년 《고구려 발해 '한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미술기행전》(서울, 롯데미술관) 참여

2 김영광, 「뮤즈를 그리는 思無邪 시간으로」, 『News Flix』(2021. 2. 16).

- 1995년 《흙사랑·그림사랑 3인 초대전》(서울, 서울갤러리) 참여
- 1996년 《조선 통신사의 길을 가다》(서울, 롯데미술관) 16일간 역사현장 답사 진행  
《술과 물》(서울, 일민미술관) 참여  
《제13회 신작전》(서울, 서울갤러리) 개최
- 1998년 《제6회 개인전 '솔바람 물소리'》(서울, 서울갤러리 / 부산, 롯데화랑) 개최
- 2001년 《제7회 개인전 환경예술전》(서울, 서울갤러리) 개최  
《개인전-아름다운 구미 풍경전》(구미문화예술회관) 개최
- 2001년 《여름 속의 겨울》(대전시립미술관)에 참여
- 2003년 《제8회 개인전》(서울, 서울갤러리) 개최  
러시아 레핀(Repin)미술아카데미 수학  
《러시아 수리코프(Surikov) 미술대학 교수 합동전》(모스크바, 꾸즈네츠키 모스트 국제 화랑)에 출품  
《한국의 누드미술 초대전》(세종문화회관갤러리)에 출품
- 2004년 《가일미술관 개관전 초대》(가평, 가일미술관)에 출품  
《구상문화의 4계절》(대구시민회관전관)에 출품
- 2005년 《아름다운 초상화》(서울, 갤러리 라메르) 참여  
《한국 구상대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노광』(BASS커뮤니케이션, 2005) 간행
- 2006년 《제9회 개인전》(서울, 갤러리 라메르) 개최
- 2007년 《특별기획 초대전》《자연 그 원초적 그리움》(서울, 갤러리 수) 참여
- 2008년 《특별기획 초대전 자연, 꽃 여인찬미》(파주, 리엔박갤러리) 참여
- 2009년 《평균율(바다, 여인: 그 생명의 파동)》(서울, 인사아트센터) 개최
- 2012년 《가나아뜰리에 입주작가 보고전-Healing camp》(서울, 가나아트센터) 참여
- 2014년 《뮤즈를 그리는 思無邪 시간으로》(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개최
- 2015년 《노광 개인전》(북한산아트홀) 개최
- 2017년 《노광 개인전》(서울, 인사아트프라자) 개최
- 2018년 《노광 초대전 - 풍경의 균제》(서울, 인사아트프라자) 개최  
《노광 초대전》(대전,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개최
- 2020년 《노광 초대전》(보령, 모산조형미술관) 개최
- 2021년 《뮤즈를 그리는 思無邪 시간으로》(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 개최

## 송근호(宋近鎬, 1949~ )

호는 현당(炫堂). 1949년 대전에서 출생한 송근호는 선천성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송근호는 충남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해 미술부에 들어가면서 화가가 되기를 꿈꾸었다. 1971년 홍익전문대학 요업과에 진학을 했으나, 극심해진 청각장애로 인해 꿈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에 전념하였다.



송근호, 〈여름고향〉, 1992, 캔버스에 유채, 80.2×116.8cm, 작가소장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만 하여도 가슴 설레며 고향의 품속 같은 포근함을 느낀다는 송근호는 캔버스에 우물가, 장독대 등 집 마당의 정경을 즐겨 그렸다.<sup>1</sup> 농사를 지으며 틈틈이 홀로 그림 공부를 하던 중 ‘창미회’를 시작으로 ‘대전사생회’ 활동을 하며 그림을 그리면서 당면했던 고민들을 해결했다. 목우회전, 대전미술대전, 충청남도미술대전 등 공모전에 참여하여 입선을 했고, 2003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장애인 올림픽 대회 유화부의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다.

한국적인 서정을 작품에 풀어내며 짙은 녹색과 강한 노란색을 주조색으로 인상파적인 표현을 추구해왔다. 그의 작품에는 논, 밭, 슬레이트 지붕의 집이 있는 시골풍경, 산과 강이 있는 어촌 마을 등이 등장한다. 산과 들, 강을 찾아다니며 자신이 직접 목도한 자연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캔버스 위에 재현되었다.<sup>2</sup> 2005년 《개인전》에서는 그동안 즐겨 그린 자연에서 영역을 넓혀 보이는 대상이 아닌 비구상 작품을 시도했다. 무엇을 그리겠다는 생각 없이 붓에 물감을 묻히고 붓이 가는대로 채색을 하면서 어느 때보다 재미있고 즐거웠으며 행복하다고 하였다.<sup>3</sup>

1 송근호, 「나의 독백」, 『송근호전』(신세계 동방갤러리, 1995).

2 송근호, 「작가노트」, 『宋近鎬』(대전중구문화원, 2002).

3 송근호, 「작가노트」, 『宋近鎬 개인전』(에스닷갤러리, 2005).

## 연보

- 1949년            대전 출생  
대전서중학교 / 충남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9~1970년    홍익전문대학교 요업과 수료
- 1981년            《창미 창립전》(대전, 홍명화랑) 참여
- 1982년            《창미전》(대전시민회관) 참여
- 1986년            《대전사생회 정기 회원전》(대전시민회관) 참여
- 1986~1994년    《충청남도미술대전》출품 입선 6회
- 1987~1988년    《목우회 공모전》출품 입선 2회
- 1990~1994년    《대전미술대전》출품 입선 4회
- 1995년            《제1회 개인전》(서울, 신세계 동방갤러리) 개최
- 1996년            《제2회 개인전》(대전, 홍인갤러리) 개최 / 《이신희 회원전》(대전, MBC문화공간) 참여  
《한밭 어제와 오늘전》(대전, 한밭도서관 전시실) 참여
- 1997년            《한밭 미술의 미래 모색전》(대전시민회관) 참여
- 1998년            《한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 1999년            《대전미술 50년 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서울 삼색전》(서울시립미술관) 참여
- 2000년            《2000년 우정의 만남展》(대전중구문화원) 참여  
《21세기 대전미술의 미래 모색展》(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1년            《한국전업미술가 대전, 충남협회 초대전》(대덕롯데갤러리)에 출품  
《삶터 어울림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대전불교미술협회 회원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2년            《제3회 개인전》(대전중구문화원) 개최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한일 미술교류전》(대전, 오오다시갤러리) 참여
- 2003년            제6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인도, 뉴델리) 유화부 국가대표로 참가  
《한밭미술제》(대전시립미술관) 참여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립미술관)에 출품
- 2004년            《제4회 개인전》(대전, 오원화랑) 개최 / 《한밭과 달구별전》(대전시민회관) 참여
- 2005년            《제5회 개인전》(대전, 에스닷갤러리) 개최  
《아시아미술전》(서울, 세종문화회관) 참여
- 2006년            《제6회 개인전》(대전동구문화갤러리) 개최
- 2007년            《제7회 개인전》(대전, 굿모닝갤러리) 개최 / 《한국·터키 미술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8년            《대한민국 남부현대미술제》(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9년            《개인전》(대전, 롯데화랑) 개최
- 2011년            《개인전》(보령, 모산조형미술관 / 대전, LH아트갤러리) 개최
- 2016년            《炫堂 宋近鎬 작품전-한국적인 풍경이야기》(보령, 모산조형미술관) 개최
- 2021년            《幸福熱茶 행복열차展》(대전, 이공갤러리) 참가

## 신중덕 (愼重惠, 1949~)

1949년 경상남도 거창에서 출생한 신중덕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 및 같은 학교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90년 **한남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2014년 정년퇴임하였다.

1962년 《신상회전》에서 특선을, 1975년 《미술협회전》에서 이사장상을 수상하면서 화단에 입문하였다. 1987년 제1회 개인전에서 《자기회귀(自己回歸)》 연작을, 1989년 두 번째 개인전에서 《물질(物質)에서 생명(生命)으로》 연작을 선보였다. 1980년대 이후

무채색의 거친 질감이 강조된 화면에 생명의 원초적인 힘을 탐구했고, 1990년 세 번째 개인전은 《처음과 같이 이제 영원히(Doxology)》라는 연작으로 ‘순수회화는 신성(神性)을 지녀야 한다’는 명제에서 드러나듯 물질과 표현의 증폭이라는 추상회화의 조형성에서 벗어나 ‘은폐(隱蔽)와 현현(現顯)’이라는 새로운 이미지 세계를 열었다.<sup>1</sup> 탄생과 소멸의 우주적 순환 고리를 유충의 추상화된 모습 또는 구체적인 형상을 통해 은유적으로 담았다. 1991년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 개인전에서는 이전 시기 작품에서 매개체로 주로 등장한 유충을 버리고 과육과 내핵이라는 지구와 유사한 이중 구조를 지닌 열매인 모과만을 조형언어의 기본 단위로 선택했다. 구조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과 많은 습작을 통해 형상화된 모과는 실제 모습과 다르게 추상화되었으나 여전히 그 형태의 유추는 가능하다. 추상에 가까운 구상으로서 다른 추상화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sup>2</sup> 분석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유충과 모과를 조형언어의 기본 모티브로 하면서도 변화를 시도하며 30년 넘게 생명성을 주제로 자신의 회화세계를 구축해왔다. 1998년 《제9회 개인전》에서는 《생명의 숨(Prana)》 연작을 새롭게 선보였다. 작가는 “화면을 생명 탄생의 장으로 설정하여 생명을 위한 사물을 물질(유기적인 구조체인 하나의 생명체)로 변모시켜 그 어떤 잠재적인 에너지로 진동케 하여 스스로의 생명에 눈뜬 물질로서 숨(호흡)을 쉬게 하고 싶다”고 작품의 의도를 내비쳤다.<sup>3</sup>



신중덕, 〈물질에서 생명으로〉, 1989, 캔버스에 유채, 112×145cm(출처: 『신중덕』, 조선일보미술관, 1989)

1 윤진섭, 「신중덕의 회화에 대하여」, 『신중덕초대전』(덕원미술관, 1992).

2 윤진섭, 「제4회 신중덕 개인전의 의미」, 『신중덕 개인전』(예술의전당 미술관, 1991).

3 신중덕, 「『생명성』, 그 은둔과 발현의 〈흔적〉에 대한 단상」, 『생명의 숨』(이브 미술관, 1998).



신중덕, 《만화경(Kaléidoscope)》, 2012, 캔버스에 유채, 45.5×53.0cm(출처: 『신중덕 Kaléidoscope』, 세종갤러리, 2012)

2000년을 기점으로 한층 경쾌하고 밝은 색조의 패턴을 반복, 조합, 중첩시켜 전체 화면을 뒤덮은 단색조 회화의 《생명률》 연작을 발표했다. 2010년 이후에는 꽃, 돌, 사람의 형상을 담아 생명의 리듬을 탐구하다가 긴 여정 끝에 《만화경 (Kaléidoscope)》 연작에 이르렀다. 《만화경》 연작은 미립자로부터 대우주에 이르는 삼라만상이 신기루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생명의 원리와 현상을 조형적으로 구현했으며 이는 구조적인 원리와 현상적인 사태 모두를 포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로 평가된다.<sup>4</sup>

신중덕은 1987년의 첫 개인전에서 비정형에 가까운 추상회화에서 무채색의 거친 마티에르를 강조하며 생명의 원초적인 힘을 탐구하였으며 2000년 전후로 점차 경쾌하고 밝은 색조의 패턴을 반복·조합·중복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치열함을 보여주고 있다.

## 연보

- 1949년 경상남도 거창 출생  
홍익대 서양화과 졸업 /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석사 졸업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수료
- 1962년 《신상회전》에서 특선 수상
- 1975년 《미술협회전》 이사장상 수상
- 1983년 《앙테팡당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1987년 《개인전》(서울, 미술회관) 개최
- 1989년 《개인전》(서울, 조선일보미술관) 개최  
《한국현대미술 80년대의 정황전》(서울, 동숭아트센터) 참여
- 1990년 《개인전》(서울, 동숭아트센터) 개최  
한남대학교 회화과 교수로 부임
- 1991년 《제4회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1992년 《제5회 개인전》(서울, 덕원미술관) 개최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4 정은영, 「만화경 전일적인 세계의 끝없는 변주」, 『신중덕 개인전-만화경(Kaleidoscope)』(세종갤러리, 2012); 「만화경(Kaleidoscope)의 조형세계 생명성 탐구와 우주의 전일적 관계성」, 『이코노미뷰』(2014. 6).

- 1994년 《제6회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개최
- 1995년 《개인전》(서울, 유경갤러리) 개최
- 1996년 《개인전》(서울, 유경갤러리) 개최
- 1997년 《제9회 인도 트리엔날레》(인도 뉴델리, Lalit Kala Academy) 참여
- 1998년 《개인전-생명의 숨》(서울, 이브갤러리) 개최
- 1999년 《100년의 경계: 오늘의 대전미술》(대전시립미술관) 참여  
《MANIF 서울 5! 99》(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2000~2001년 미국 버몬트 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프리맨풀펠로우쉽 Freeman Full Fellowship) 수상
- 2001년 《개인전》(미국, 버몬트 Red Mill 갤러리) 개최
- 2002년 《개인전》(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개최
- 2003년 《생명률 그 회화적 발현》(대전, 롯데화랑) 개최
- 2006년 《제48회 오리지널 현대미술의 환원과 확산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2007년 《개인전》(대전, 이공갤러리) 개최
- 2009년 《한국미술대표작가 초대전 · 오늘》(서울, 세종문화회관 전시실) 참여
- 2010년 《개인전》(중국 베이징, 다산쯔 706갤러리) 개최  
《개인전》(중국 웨이하이, 위해시 아트센터) 개최
- 2011년 《개인전》(프랑스 파리, 89 갤러리) 개최  
《개인전》(터키 앙카라, 제르모템) 개최  
《개인전》(대전, 갤러리 이안) 개최
- 2012년 《개인전》(서울, 세종갤러리) 개최
- 2014년 《개인전 Kaleidoscope》(대전, 갤러리 이안) 개최  
한남대학교 정년퇴임



## 이길원 (李吉遠, 1949~ )



이길원, <외곽지대>, 1980, 작가 제공

1949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태어나 대전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동양화 전공)를 졸업하고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화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추계예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시절 '일연회(一畝會)'라는 동문 모임의 활동을 주도하였는데, 당시 일연회는 다음 세대 동양화의 전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sup>1</sup> 이길원은 1976년부터 1995년까지 《일연회전》에 구상에서부터 비구상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을 출품하였다.

이길원은 구상회화에서 시작하여 점차 화면을 해체시켜 1990년대부터는 순수 추상화를 제작하였다. 1980년 제작한 <외곽지대>는 물질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반영된 작품으로, 서울 번두리에 판자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산허리 풍경을 소재로 하였다. 인물, 정물, 산수, 사군자 등의 수묵화의 범주에서 벗어나 이길원은 대상을 해체하여 점차 단순화된 조형적 구조로 바꾸어 갔다.<sup>2</sup> 이후 1995년 개최한 《제2회 개인전》에서 이길원은 점, 선, 면, 색채, 색면, 흔적 등의 조형적 요소만으로 화면을 구성한 작품을 선보였다. 보다 단순해진 선과 넓어진 색면 등이 화면을 장악하고 화면은 하나의 커다란 사각형으로 강한 시각 효과를 획득하였다.

이길원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무질서한 점들과 흔적들은 다양하고 분방한 양태를 지니고 있지만, 나름대로 질서를 따라 정연한 흐름을 구축하고 있다. 작가의 들숨과 날숨을 반영한 일정한 리듬은 작가가 속한 시대의 삶을 반영하기도 하며, 자신의 사유가 내포된 것이기도 하다. 이길원은 사막 속으로 사라져가는 화려했던 실�크로드 여행에서의 느낌,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사

1 「서울시 향(響), 금년 첫 정기연주회」, 『경향신문』(1979. 2. 24).

2 오병욱, 「순수 조형의지, 한국화의 영역 확대를 위한 실험정신」, 『이길원』(덕원미술관, 1995).

건들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등 나름의 방식을 형상화시켰다.<sup>3</sup> 거창한 담론보다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그리려고 노력했다는 작가의 말처럼 그의 작품은 불가피하게 남겨진 흔적들로 이뤄진 일상의 자연스러움이 핵심이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선을 긋는 행위와 점을 찍는 행위 모두에 충분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이길원에게 그림이란 ‘지난 일들, 가족 이야기, 세상 등을 찍고 뿌리며 회상’하는 매개물일지도 모른다는 이와 같은 철학은 2017년 개최된 《개인전》에서 구체화된다. 격자로 채워진 화면은 유년 시절 직물을 짜던 할머니의 추억을 떠올리며 날틀과 걸틀을 교차시켜 실을 걸어 짜나가는 질서정연하지만 반복적인 과정을 무의식중에 작품에 반영한 것이다.<sup>4</sup>

## 연보

- 1949년 충청남도 공주 출생
- 1968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 1973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동양화 전공) 졸업
- 1976년 《일연회전》에 출품
-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동양화 전공) 석사 졸업
- 1979~1982년 《12월전》에 출품
- 1980년 《Asia 현대미술전》(일본 도쿄) 참여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1981년 《한국현대수묵화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1983년 《향토작가 초대전》(대전시민회관)에 출품
- 1985년 《교수작품전》(동덕미술관)에 출품  
《개인전》(동덕아트뮤지엄) 개최
- 1986년 《재경작가초대전》(대전시민회관) 참여
- 1988년 《현대한국회화전》(호암갤러리) 참여
- 1988~1991년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현대미술과) 강사
- 1989년 《일연회와 목조전》(동덕아트갤러리) 참여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1990년 《현대미술회화전》(호암갤러리) 참여
- 1991년 《서울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 참여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에 출품
- 1992년 《한국현대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1993년 《임봉재선생 작품전 및 제자 작품전》(대전문화원) 참여

3 최유진, 「이길원 작가의 작품세계」, 『문화저널21』(2008. 11. 3).

4 박영택, 「화면 내·외부의 경계에서 이루어진 사건」, 『이길원』(동덕아트갤러리, 2017),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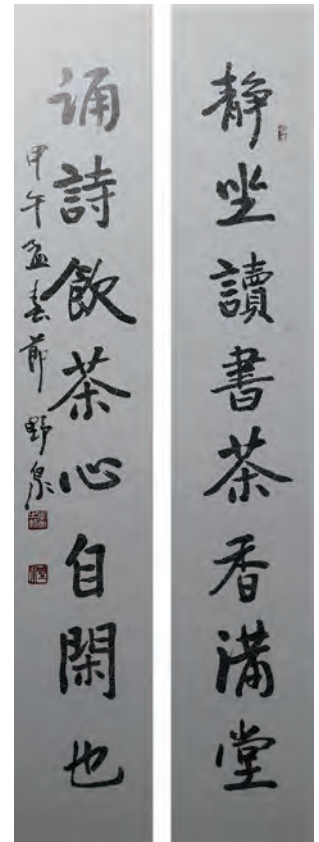
- 1995년 《개인전》(덕원미술관) 개최  
《서울 미술대전》(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향기와 맥전》(대전시민회관) 참여
- 1996년 《제4회 한밭문화재 한밭회향전》(대전시민회관) 참여  
《서울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미술대학 동창전》(서울대학교 박물관) 참여
-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 개관기념전》(대전시민회관) 참여  
《한국화 126인 부채그림전》(서울, 공평아트센터) 참여
- 1998~200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출강
- 1999년 《개인전》(서울, 동덕아트갤러리) 개최
- 2000년 《서울대학교와 새천년》(서울시립미술관) 참여  
《회화2000창립전》(서울, 공평아트센터) 참여
- 2001년 《동양화 새천년전》(서울시립미술관) 참여
- 2001~2002년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과 출강
- 2002년 《동양화 새천년전》(서울, 공평아트센터) 참여
- 2003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Green Liven 창립전》(하나로 갤러리) 참여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덕수궁미술관) 참여
- 2004년 《제1회 안전미술대전 수상작가 및 초대작가》(세종문화회관) 참여
- 200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개교60주년기념 동문전》(서울대학교 박물관) 참여
- 2007년 《한국화 1953-2007》(서울시립미술관)에 출품  
《개인전》(세종문화회관) 개최
- 2008년 《개인전》(서울, 동덕아트갤러리) 개최
- 2008~2011년 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장, 대학원장 역임
- 2009년 《SCAF 2009, 한국미술의 빛》(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2010년 《개교 60주년 기념전 교수작품초대전》(서울, 동덕아트갤러리) 참여  
《제3회 2010 당대 수묵 비엔날레전》 참여
- 2011년 《초대전》(서울, 한전아트센터) 개최
- 2014년 《개인전》(공아트스페이스) 개최
- 2016~2017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국화과 출강
- 2017년 개인전 《회화2000'전》(서울, 동덕아트갤러리) 개최  
《월전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이천시립월전미술관) 참여

## 이동(李東, 1949~ )

호는 야천(野泉). 1949년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회암에서 출생한 이동은 보은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68년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한 작가는 대전 시내를 거닐다 우연히 대전예총의 전시실에서 ‘청서회(靑書會)’의 《서예전》을 감상했다.<sup>1</sup> 평소 서예에 관심이 있던 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1969년 서울 ‘동방연서회’에서 주최하는 전국학생회호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예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충남대학교내에 서예반을 창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1년에는 한글학회가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한글학회 50주년 붓글씨 대회’에 참가해 대학·일반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972년 일본에서 귀국해 서울 파고다 아카데미에서 서실을 운영하고 있던 고봉주로부터 ‘야천’이라는 아호와 전각을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972년 충남대학교를 졸업한 이동은 학생군사교육단(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ROTC)를 하면서 받은 월급을 모두 모아서 서예고전 교과서인 일본 헤이봉샤(平凡社) 간행 『서도전집(書道全集)』 한 세트를 구매할 정도로 명필가의 필법을 익히는데 진심을 다했다.<sup>2</sup> 1975년 서예를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만드는데 노력한 정환섭에게 사사받으며, 1983년 그의 제자들이 결성한 ‘동연회(東硯會)’의 창립전에 참여한 이래 꾸준히 전시에 참여했다. 이동은 고봉주, 정환섭과 만남을 통해 기본적인 필법을 체득한 기초 위에 서예의 현대적인 멋을 더한 자신만의 서체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이동은 《제2회 한국서예 공모전》(1975)에서 우수상을 비롯해, 《전국회호대회》(1977~1978)에서 장려상과 특선, 《충남미술대전》(1982~84)에서 최우수상, 《대한민국서예대전》(1993~1994)에서 특선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국내외에서 100여회 전시에 참여했으며, 전국미술대전 공모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충청서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1975년부터 교



이동, 〈초의선사시〉, 2014, 종이에 먹, 135×34cm(2)(출처: 『野泉李東』, 대전시립미술관, 2014)

1 대전예총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전광역시연합회의 약칭이다. 청서회는 충청남도과 북도에서 서예활동을 하는 20대 작가로 구성된 서예동호회이다.

2 빅홍준,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재주」, 『野泉李東』(대전시립미술관, 2014).

편생활을 시작해 2008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했다.

이동은 성현들의 명언이나 명구 중에 자연을 읊거나 인성을 기르는데 유익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즉 현대인들이 공감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난해한 긴 문장보다는 될 수 있으면 짧은 문장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하였다.<sup>3</sup>

이동의 작품은 작가의 인품을 반영한 듯 청아하면서 절제된 아름다움이 굳세고 강한 필력과 조화를 이룬다.

## 연보

- 1949년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회급 출생
- 1969년 《전국학생회호대회》 참가 입상
- 1971년 《한글학회50주년 전국 붓글씨대회》(국립공보관) 우수상 수상
- 1974년 《제1회 한국서예 공모전》(미술회관) 입선
- 1975년 공주농업고등학교 교사 부임  
《제2회 한국서예 공모전》(미술회관) 우수상(미협이사장상) 수상
- 1977년 《제1회 전국회호대회》 장려상 수상
- 1978년 《제2회 전국회호대회》 특선 수상
- 1981년 《한국서예 천인전》(서울, 세종문화회관) 참여
- 1982년 《동연회전》(서울, 세종문화회관) 참여  
《제12회 충청남도 미술대전》 특선 수상  
《제9회 충남서예협회전》(대전, 신신화랑) 참여
- 1983년 《제2회 미술대전》 입선  
《제13회 충청남도미술대전》 특선 수상
- 1984년 《제2회 미술대전》 입선  
《제2회 기외목립전》<sup>4</sup> 참여  
《시도 미술대전 수상작가전》(서울, 문화예술진흥원) 참여  
《제14회 충청남도미술대전》(시민회관) 서예부문 최우수상 수상
- 1985년 《제19회 한국미술협회전》(국립현대미술관) 참여
- 1986년 《충청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전》(대전시민회관) 참여  
《충청서단전》(대전시민회관) 참여
- 1987년 《제6회 미술대전》 입선
- 1988년 《한국서예청년작가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1993~1994년 《제5~6회 대한민국서예대전》(한국서예협회) 특선

3 서예가 이동과 서면 대화(2021. 10. 28).

4 1983년 창립한 모임으로 서울을 제외한 각 시도에서 국전 및 미술대전에 수상한 경력자 2~3명으로 구성되어, 각 시도 순회전시회를 하고 있다.

- 1993년 《대전 미술대전》 운영위원 역임  
《제23회 충청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충청서예가초대전》(대전시민회관) 참여  
《한글서예 큰잔치 초대전》(서울, 세종문화회관) 참여
- 1994~2000년 《제1, 5~7회 대전광역시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1994년 《충청 서예가 초대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5년 《제2회 한국서예협회 초대작가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1996년 《한글서예의 오늘과 내일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1998년 《한· 중 서법 교류전》(중국미술관) 참여
- 1999년 《대한민국서예대전 초대작가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2001년 《21세기 한국서예문인화가 초대전》(서울,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참여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월간 서예) 심사 참여
- 2003년 《세계서예비엔날레 특별전》(전주, 한국소리의 전당) 참여
- 2004년 《제5회 한국서예협회 초대작가전》(서울, 예술의전당)에 출품
- 2006년 《우정의 만남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 2007~2019년 《한· 중 서예교류전》(대전 / 남경)에 출품
- 2009년 《제21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심사위원 역임
- 2014년 《대전광역시미술대전》 초대작가상 수상
- 2015년 《세계문자대표작가전》(국립세종도서관 자료실) 참여
- 2016년 《한· 중· 일· 대만 국제서예전》(진천 생거관화미술관) 참여
- 2018년 《제2회 야천 이동 개인전》(대전중구문화원) 개최
- 2019년 《대한독립100주년 초대전》(대전중구문화원)에 출품

# 장준문 (張俊文, 1949~)<sup>1</sup>

호는 글가람(文江). 1949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출생한 장준문은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에 입학**하면서 충청남도과 인연을 맺었다. 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소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1981년까지 충남 성남중·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였으나 이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전업작가로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주변 현장에서 조각의 소재를 이끌고 이것을 주제화함으로써 현대조각의 뿌리를 찾고자 하였다. 비무장지대 그룹의 일원으로 1988년~1990년까지 전시에 참여했다. 운주사를 상징하는 거대한 외불과 주변의 암석을 함께 혼합시킨 작품 <유민(流民) 4322-천불산>(1989)을 제작했다. 장자의 호접몽 일화에서 테마를 옮겨 온 《나비의 꿈》(2005)에서 작가는 “창을 통해 외부를 바라본다. 물리적 창이건 심리적 창이건 현실이건 관념이건 창을 통해 나와 객체가, 나와 세계가, 나와 과거가 만나고 소통을 한다. 사유의 창을 통해 외부에 투영된 나비가 된 옛 성인의 꿈속 이미지를 바라본다”라고 하였다.<sup>2</sup> 이러한 생각을

형상화한 듯 좌우 대칭과 비례를 기본 조형 원칙으로 하는 그의 조각은 장자처럼 나비를 통해 복잡한 일상의 현실로부터 초월한 자유와 해방을 느껴보자는 제안 같다.<sup>3</sup>

2007년 거제시 양지암조각공원 공모에 당선된 <꿈꾸는 섬>은 하늘을 향해 누운 소녀의 이마 위에 거제를 상징하는 갈매기 세 마리가 날개짓을 활짝 펼쳐 날고 있는 형상을 통해 미래를 향해 빛나는 거제를 표현했다. 《실류향》(2011)에서는 영주댐 공사로 사라질 자신의 고향 금강마을을 생각하며 조각에서 벗어나 모래판을 캔버스로 하는 회화와 문자조형 작업을 선보였다.

조각 재료로 청동이나 돌에 국한하지



장준문, <뫼mountain>, 1982, 합성수지, 76×29×29cm(출처: 『대전미술-돌-공예·조각』, 대전시립미술관, 2009)



장준문, <실류향 3>, 2011, 판넬, 모래, 아크릴물감, 40×75cm(출처: 『장준문 실류향』, Gallery La Mer, 2011)

1 대전시립미술관이 간행한 『대전미술-돌-공예·조각』 도록에는 1949년으로 되어있으나 김달진미술연구소 인명사전에는 1948년으로 기록되었다.  
2 장준문, 『장준문』(대전 현대갤러리, 2005).  
3 박일호, 「호접몽의 창을 통해 본 정화와 자유」, 『장준문-나비의 꿈』(현대갤러리, 2005).

않고, 나무·합성수지·지점토·모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작품을 제작했다. 아울러 조각가에 머물지 않고 젊어서부터 자신의 사상과 현실에 대한 생각을 수필과 칼럼으로 집필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고 있으며, 수필집 『어머니의 강』(오늘의 문학사, 2020)을 출간하였다.

## 연 보

- 1949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출생
- 1978년 한남대학교 조소과 졸업
- 1979년 충남 성남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출강
- 1981년 공군제2사관학교 강사로 재직
- 1985~1995년 한남대학교 미술학과 출강
- 198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 1989년 《비무장지대전》(서울, 금호미술관) 참여  
《금호미술관 개관기념 80년대의 형상미술전》(서울, 금호미술관) 참여  
《한국현대미술 80년대의 정황전》(서울, 동숭아트센터) 참여
- 1988~1990년 《한국성 그 변용과 가늠전》(서울, 금호미술관) 참여
- 1994년 《'94 전국환경조각대전》(서대전광장) 참여
- 1995년 《개인전-생명유사》(서울, 서경갤러리) 개최
- 1996년 《'97 동계U대회기념 대한민국환경조각대전》(익산, 환경조형예술공원)에 출품
- 1997년 《한국성-그 변용과 가늠 10년전》(서울, 공평아트센터) 참여  
《춘천MBC기획 한국현대조각초대전》(춘천 MBC호반광장)에 출품  
《서울올림픽 9주년기념 조각그룹초대 야외조각전》(서울, 올림픽공원) 참여  
《개인전-비무장지대》(서울, 서경갤러리) 개최
- 1998년 《대전KBS방송총국 신사옥 준공기념 KBS미술초대전》(대전 KBS) 참여
- 1999년 《강원관광엑스포기념 야외조각초대전》(속초, 청초호변) 참여  
《대전 현대미술협회 창립-해학·우연·환경전》(대전 KBS) 참여
- 2000년 《21세기 한·일 미술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제3회 광주비엔날레 특별전》(광주, 중외공원) 참여  
《21C 한·일미술교류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5년 《나비의 꿈》(대전, 현대갤러리 / 서울, 이형아트센터)
- 2007년 거제시 양지암조각공원 공모에 〈꿈꾸는 섬〉이 당선됨
- 2011년 《失流郷-금가이 강변에 적다》(서울, 갤러리 LA MER / 영주, 영주시민회관)에 참가



# 차선영 (車先英, 1949~)



차선영, 〈지난날의 기억들〉, 2008, 캔버스에 유채, 72.7×90.9cm, 작가소장

1949년 대전에서 태어난 차선영은 한밭 여자중학교 시절 수도여자사범대학 주최 사생대회에서 풍경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미술에 입문하였다. 대전여자고등학교 시절 고교미술씨클인 '미상록' 멤버로 활동했다. 수채화에 뛰어났으나 당시 인기학과인 경희대학교 요업공예학과에 진학하였다. 도예를 전공했지만 담백하고 단조로운 도예작품 활동에서 벗어나 1985년부터 유화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차선영은 거친 질감의 독특한 마티에르에 말, 오리, 새나 꽃 등 자연에서 선정한 정물을 속도감 있는 터치와 강렬한 색채로 그려 동화적인 화면을 구현했다.<sup>1</sup>

## 연보

- 1949년 대전 출생<sup>2</sup>
- 1964~1966년 《미상록》에 출품
- 1967년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1972년 경희대학교 요업공예학과 졸업
- 1988년 《충남미술대전》에 특선 수상
- 1990~1999년 《대전사생대회전》에 출품
- 1991년 《제1회 개인전》(대전, 프린스 갤러리) 개최  
《회화신조형전》(부산문예회관)에 출품  
《전국여성미술대전》에 특선 수상
- 1991~1992년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에서 입선 및 특선 수상
- 1992~1993년 《신조형전》(부산 대구) 참여

1 임양수, 「내면의 세계를 '반 구상 조형입체화'시킨 화가 차선영」, 『차선영-그리움의 정원』(대전서구문화원, 2018).

2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대전시립미술관, 2012), p. 91에는 차선영이 1948년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1993~2008년 《대전구상작가협회전》 참여
- 1994년 《한발미술의 오늘과 내일》(대전중구문화원) 참여
- 1995년 《오늘의 한국미술전》(서울, 예술의전당) 참여
- 1996년 《이신회 정기전》(대전, MBC문화회관) 참여
- 1998년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대전회화제》(대전, 한림미술관) 참여  
 《충청남도 미술대전》 특선 수상  
 《한국문화예술문화대상전》 금상 수상  
 《나혜석여성미술대전》에 입선
- 1999년 《한발회향전》(대전시립미술관) 참여
- 2000년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공로상 수상
- 2001년 《미의식 표상전》(서울, 동아갤러리) 참여  
 《창립 20주년 기념 자연숨결전》(대전, 한밭도서관 전시실) 참여
- 2001~2002년 《구상미술대전》 입선 2회
- 2003년 《대전중구문화원 창립50주년 기념전》(대전중구문화원) 참가
- 2004년 《관훈미술가회전》(서울, 유갤러리)에 출품
- 2005년 《소나무가 보이는 풍경전》(대전, 오원화랑) 참여
- 2007년 《구상작가 협회전》(대전, 우연갤러리) 참여
- 2008년 《개인전》(대전, 거산갤러리) 개최  
 《북경올림픽 기념전》(중국 북경, 해동갤러리) 참여
- 2010년 한국전업미술가상 수상
- 2013년 《개인전》(대전, 봄 갤러리) 개최
- 2018년 《차선영: 그리움의 정원》(대전서구문화원) 개최
- 2020년 《제18회 개인전: 세월의 여정》(대전, 나갤러리) 개최
- 2021년 《차선영 초대전-세월의 여정》(대전, Blue Boat Gallery) 개최

## 참고문헌

### 신문기사(연도순)

- 「부흥학교진취」, 『대한매일신보』, 1910.2.13.  
「朝鮮教育會發起」, 『동아일보』, 1920.6.23.  
「공주백일장 入格」, 『매일신보』, 1921.8.20.  
「美展入選의 〈初夏錦江〉의 揮毫-공주 宋秉敦氏의 영예」, 『매일신보』, 1924.6.3.  
「即賣는 十四日」, 『동아일보』, 1926.5.12.  
안석주, 「美展을 보고 (二)」, 『조선일보』, 1927.5.28.  
「이십일부터 열리는 엄색도안강사회」, 『동아일보』, 1928.8.19.  
「공예연구회 창립」, 『동아일보』, 1929.7.22.  
「第九回 協展印象記 (四)」, 『조선일보』, 1929.11.2.  
「第一回東美展合評記 (上)」, 『中外日報』, 1930.4.20.  
「農村 特選」, 『조선일보』, 1930.5.29.  
「書畫協展에서 六氏作品을 特選」, 『조선일보』, 1930.10.21.  
「兩畫伯展覽會」, 『동아일보』, 1931.2.18.  
김주경, 「第十回朝鮮美展評(六)」, 『조선일보』, 1931.6.2.  
윤희순, 「第十回朝鮮美展評」, 『동아일보』, 1931.6.9.  
「서화계의 서광」, 『조선일보』, 1931.9.4.  
「公州繪畫會, 作品展出品」, 『朝鮮新聞』, 1931.11.28.  
「公州繪畫會第一回作品展」, 『朝鮮新聞』, 1932.11.27.  
「洋畫展覽會 夫餘支局主催」, 『동아일보』, 1932.12.21.  
송병돈, 「流行人」, 『조선일보』, 1933.5.7.  
「牧時會 첫展覽會-十六일부터 四日間」, 『조선중앙일보』, 1934.5.8.  
송병돈, 「不時逢變」, 『조선일보』, 1934.6.11.  
배찬국, 「학생전을 보고-중학도화부를 중심으로」, 『동아일보』, 1934.10.4.  
「미술의 가을」, 『조선중앙일보』, 1934.10.20.  
「서험전 내용」, 『매일신보』, 1934.10.20.  
「협전화첩」, 『동아일보』, 1934.10.20.  
「夕影, 제13회 협전을 보고서」, 『조선일보』, 1934.10.25.  
「書道界의 巨星, 유창한 오늘 창신동 자락에서」, 『동아일보』, 1935.4.23.  
「학생작품전 입선자 방문기: 중등도화(상) 졸업 후에는 의학교에-제일 고보 오년 박상욱(십구)」, 『동아일보』, 1935.10.3.  
「협전 명일부터 공개」, 『동아일보』, 1935.10.23.  
「협전진열품(協展陳列品)」, 『동아일보』, 1935.10.26.  
「入選은 意外 今後도 精進, 趙重顯 君」, 『每日申報』, 1936.5.12.  
「전도양양한 천재의 청년 이국진군」, 『매일신보』, 1936.5.13.  
「朝鮮美術의 殿堂 書畫協會展覽會」, 『조선일보』, 1936.11.8.  
「牧時會展 畫新 『홀』에서」, 『每日申報』, 1937.6.1.  
「探秋各題 〈秋晴〉 宋秉敦作」, 『동아일보』, 1937.9.23.  
「彫刻家 李國銓 君 構造社展 入選」, 『조선일보』, 1937.12.22.  
「在東京美術學生綜合展」, 『每日申報』, 1938.4.15.  
김복진, 「第十七回 朝鮮美展評」, 『朝鮮日報』, 1938.6.12.  
윤희순, 「第十七回 朝鮮美術展覽會評」, 『每日新報』, 1938.6.12.  
김화경, 「어린이만화」, 『동아일보』, 1938.10.9~1940.7.14.  
윤희순, 「在東京美術協會 展覽會를 보고(下)」, 『每日申報』, 1939.4.25.  
「李國銓 君 彫刻 主線美展에서 호평」, 『동아일보』, 1939.4.28.  
「新進彫刻家 李國銓 氏」, 『조선일보』, 1939.4.28.  
「송재 조동욱씨 석란 작품전 개최」, 『동아일보』, 1939.10.17.  
「문인서화전 明日 開幕」, 『조선일보』, 1940.1.15.  
「석란, 송재 조동욱, 본사강당 문인서화전에서」, 『조선일보』, 1940.1.17.  
「女人坐像 東京塊人社展覽會第九會展覽會 李國銓 氏 作」, 『조선일보』, 1940.4.5.  
「全朝鮮美術展覽會에 입선자는 三八八인」, 『동아일보』, 1940.6.2.  
「第十九回朝鮮美展-明日 있는 畫家들(東洋畫 〈타조〉 初入選」, 『朝鮮日報』, 1940.6.3.  
李國銓, 「新羅의 綜合」, 『조선일보』, 1940.6.8.  
「후소회전 연일 대성황」, 『매일신보』, 1940.11.7.  
「이국진씨 조소 개진」, 『매일신보』, 1941.11.26.  
「初特選의 기쁨 〈首〉 作者, 李國銓 氏」, 『每日新報』, 1942.5.29.  
윤희순, 「美術의 時代色: 제二一回 朝鮮美展評」, 『每日新報』, 1942.6.10.  
「앞으로 더 工夫 兩度 特選된 李國銓 氏」, 『每日新報』, 1943.5.27.  
윤희순, 「후소회전 평」, 『매일신보』, 1943.10.27.  
「朝鮮文化建設中央協議會」, 『매일신보』, 1945.8.24.  
「朝鮮美術同盟發足, 兩同盟合同遂實施」, 『자유신문』, 1946.11.12.  
「東洋畫七人展」, 『自由新聞』, 1948.9.24.  
「交通部友會美術展 東和畫廊에서 개최」, 『경향신문』, 1949.1.7.  
「홍인표, 황영준 2인전 단평」, 『조선일보』, 1949.1.14.  
김화경, 「屍體의 모델 美術解剖學의 起因」, 『경향신문』, 1949.1.21.  
「大元畫廊에서 油畫新作展」, 『민주중보』, 1949.4.30.  
「李慶培氏 文人畫展」, 『경향신문』, 1949.7.5.  
「하기문화강좌 오늘부터 개강. 미공보원」, 『충청매일』, 1949.8.2.  
「民國美展特選者」, 『경향신문』, 1949.11.22.  
「이인성-국전작품평-제이부 양화편」, 『국제보도』 22호, 1950.1.25.  
황영준, 「조병룡양씨 2인전 개최」, 『연합신문』, 1950.4.9.  
「斗方新作展」, 『東亞日報』, 1950.6.20.  
「二回全國美術展開幕」, 『경향신문』, 1953.11.26.  
「現代美術의 志向精神」(上)·(下), 『동아일보』, 1955.1.7.~1.8.  
「홍대 9주년식」, 『조선일보』, 1955.6.21.  
A. 맥타트, 「現代의인 한 試圖-弘大美術展을 보고」, 『조선일보』, 1955.7.3.  
박고석, 「대견한 미술교육」, 『동아일보』, 1956.7.24.  
「미국에 가는 한국현대미술, 프셋트 여사 101點 선정」, 『경향신문』, 1957.8.25.  
「국전출품심사완료」, 『조선일보』, 1957.10.13.  
장우성, 「대작보다 내용을」, 『경향신문』, 1957.10.16.  
「문화상수상사 선정」, 『조선일보』, 1957.12.3.  
박노수, 「신동양화를 위한 모색」, 『동아일보』, 1958.2.13.  
김병기, 「동양화의 근대화지향 고암 이응노 도불기념전평」, 『동아일보』, 1958.3.22.  
「장선백 개인전 중앙공보관서 6일-13일」, 『조선일보』, 1958.4.8.  
「문화계 소식-綠靑會 發足」, 『경향신문』, 1958.4.9.  
「原谷 書塾展 29일부터 공보관서」, 『동아일보』, 1958.4.26.  
「朴魯壽美展盛況」, 『동아일보』, 1958.6.3.  
「이희세 개인전, 10일부터 중앙공보관서」, 『조선일보』, 1958.6.14.  
「현대작가전 오늘 개막」, 『조선일보』, 1958.6.14.  
「原谷書塾展 개최」, 『동아일보』, 1958.10.9.  
한묵, 「4인전을 보고」, 『조선일보』, 1959.5.24.  
「朴商玉 個人展」, 『동아일보』, 1959.12.9.  
「제9회국전입선자명단」, 『경향신문』, 1960.9.25.  
「이희세 개인전, 8일부터 중앙공보관서」, 『조선일보』, 1961.8.2.  
김병기, 「제10회 국전을 이렇게 본다」, 『동아일보』, 1961.11.19.  
「新人藝術賞 미술·건축부문입상자 결정」, 『경향신문』, 1962.5.12.

- 윤후근, 「虛實한 裝飾이 싫다」, 『대전일보』, 1962.6.19.
- 「젊어지는 한국미술계」, 『동아일보』, 1962.10.4.
- 「동양화단에 새 그룹 청토회서 5월 첫 작품전」, 『동아일보』, 1963.4.22.
- 「육군미술전 당선작 발표」, 『경향신문』, 1963.10.21.
- 「젊은 세대의 동양화가들, 청토회와 산수회화전」, 『경향신문』, 1963.11.20.
- 「세계살롱에 입선한 사진작품」, 『동아일보』, 1964.1.25.
- 「파리에 동양미술학교」, 『조선일보』, 1964.11.10.
- 「石峯 篆刻 書藝展」, 『동아일보』, 1965.9.4.
- 「김성재 개인전」, 『대전일보』, 1966.9.14.
- 「原谷 金基昇著, 『韓國書藝史』」, 『조선일보』, 1967.2.16.
- 「동백림거점으로한 북괴 공작단 검거」, 『경향신문』, 1967.7.8.
- 「제9회 청토전」, 『조선일보』, 1969.4.20.
- 신용석, 「이희세파리전」, 『조선일보』, 1969.5.22.
- 박중길, 「화가 이희세씨 빠리서 개인전」, 『동아일보』, 1969.5.31.
- 「아무 박성섭화백 유화전」, 『대전일보』, 1969.6.2.
- 신봉균, 「충남 청년미술인협의회 창립전을 보고」, 『대전일보』, 1970.6.24.
- 「백양회상 수상결정」, 『조선일보』, 1970.11.24.
- 「韓國畫會 발표회」, 『경향신문』, 1971.5.31.
- 「되 살리는 옛 멋, 국립 공보관서」, 『경향신문』, 1972.2.1.
- 「홍대출신 신수회원전」, 『동아일보』, 1972.10.21.
- 「장선백 화백 개인전 성료」, 『가톨릭신문』, 1972.12.3.
- 「농촌화가 김화경씨의 예찬, “초가집은 훌륭한 공예품”」, 『경향신문』, 1973.2.17.
- 「우리 미술 정통성 정립 모색-7회 한국화회전」, 『경향신문』, 1973.8.30.
- 「忠南 鄉友會 창립기념 초대」, 『경향신문』, 1973.11.10.
- 「초대作家書畫展 忠南 鄉友會 주최」, 『조선일보』, 1973.11.7.
- 「한·중 공동 서예전, 3월 14일 대만서」, 『조선일보』, 1974.2.13.
- 「30대 동양화가 현대화회 창립전, “추상 토대 현대 감각 살려”」, 『경향신문』, 1974.6.26.
- 「대통령상 박영성(서양화), 양진니(서예)씨」, 『조선일보』, 1974.9.24.
- 「原谷 書文集, 김기승 著」, 『조선일보』, 1975.12.2.
- 「환희歡喜 第25回國展受賞者名單」, 『동아일보』, 1976.4.24.
- 조평휘, 「나의 大學生活」, 『목원대 신문』, 1976.6.8.
- 「유창환유묵전」, 『경향신문』, 1976.7.26.
- 「현대미술관에서 우당유창환유묵전」, 『매일경제』, 1976.7.26.
- 「韓日 書芸交流展」, 『매일경제』, 1976.9.17.
- 「韓性棋 시화전-大田」, 『조선일보』, 1976.9.18.
- 조평휘, 「자연의 동경은 인간본능」, 『목원대신문』, 1976.9.25.
- 「大韓美術院 결성」, 『조선일보』, 1977.7.24.
- 「趙平曠씨 첫 個人展」, 『주간경향』 459호, 1977.10.23.
- 「桑林會 창립 회원전」, 『동아일보』, 1977.11.30.
- 「일(日) ‘78現美展’에 韓國畫家 16명 入賞」, 『매일경제』, 1978.4.12.
- 「서예가 김기승씨 古稀 맞아 原谷書藝賞 제정」, 『경향신문』, 1978.6.20.
- 「江山萬里-(13) 天安」, 『경향신문』, 1978.7.12.
- 조평휘, 「樂山樂水」, 『목원대신문』, 1978.9.25.
- 「장선백씨 동양화전」, 『중앙일보』, 1979.2.21.
- 「서울시齋, 금년 첫 정기연주회」, 『경향신문』, 1979.2.24.
- 「제12회 청토전, 신세계 화랑서」, 『조선일보』, 1972.5.18.
- 「상림회 2회전」, 『동아일보』, 1979.6.11.
- 「한국화회전 개최」, 『경향신문』, 1980.9.8.
- 「先賢 표준영정 모두23개 鄭夢周 선생像 지정계기로 본 실태」, 『동아일보』, 1981.6.10.
- 「정향 조병호 서예전」, 『동아일보』, 1981.11.20.
- 「鄉脈 고장 文化의 現場을 찾아 禮山」, 『경향신문』, 1983.2.5.
- 「한국화 전통과 현대의 전환기 작품 재조명 ‘光復 1세대 畫家’들 한자리에」, 『조선일보』, 1984.2.18.
- 「봄 미술대전 입상자」, 『경향신문』, 1984.4.16.
- 「秋史學 예술비 除幕式」, 『경향신문』, 1986.7.3.
- 「秋史體 연구 회원전」, 『조선일보』, 1988.11.17.
- 「이창호 부이사장 중요무형문화재지정」, 『전통공예기능보존협회 회보』, 1989.12.1.
- 「내 고향은 청양-원로 서예가 조병호 선생」, 『청양신문』, 1991.1.1.
- 신정희, 「20년간 문 시리즈 작업 화가, 성창경씨 전통적 문창살이 작품 소재」, 『매일경제』, 1992.1.25.
- 「書藝 단체 통합 박차」, 『매일경제』, 1992.2.21.
- 「老 미술교사에 謝恩의 전시회 미술교사 최중걸씨」, 『동아일보』, 1993.2.3.
- 김세영, 「원로 한학자 조병호翁 전 재산 대전에에 기증」, 『조선일보』, 1993.6.5.
- 「난해함보다 ‘단순·변형’ 주력」, 『중도일보』, 1995.1.12.
- 「서양화가 金哲鎬씨」, 『대전일보』, 1995.5.12.
- 「전시」, 『중도일보』, 1995.5.25.
- 「미술전시회도 가뭄인 8월」, 『중도일보』, 1995.8.20.
- 「서양화가 신동주 10년만의 개인전」, 『중도일보』, 1995.10.26.
- 서종철, 「김수평 예술세계 한눈에」, 『매일신문』, 1995.12.21.
- 「전북 ‘세계 서예비엔날레’ 창설」, 『경향신문』, 1997.1.13.
- 「『김만희 민화전』 40년대 서울 재현」, 『문화일보』, 1997.2.4.
- 「화가 장순업씨」, 『매일경제』, 1997.6.28.
- 「기획시리즈(28)-지역사진작가」, 『중도일보』, 1998.5.7.
- 「새해·새봄맞이 근대 민화·서예전」, 『경향신문』, 1999.1.9.
- 「관음의 미소는 성모를 닮았다」, 『한겨레 21』, 2000.6.1.
- 「한해를 맺는 전시 풍성」, 『중도일보』, 2001.12.6.
- 엄은화, 「자연을 대상으로 한 생각들」, 『중도일보』, 2001.12.11.
- 「50여 년 만에 첫선 보이는 미술 선생」, 『중도일보』, 2002.3.19.
- 전진식, 「나의 삶 나의 예술」 최태선 목원대 미대교수, 『충청투데이』, 2004.11.26.
- 전진식, 「나의삶 나의예술」이영길 조각가·목원대 교수, 『충청투데이』, 2004.12.10.
- 「불에 태우고 물로 씻어낸 그림들」, 『법보신문』, 2004.12.22.
- 박기성, 「작가의 산실(24): 서양화가 권영우씨」, 『중도일보』, 2005.3.17.
- 「두 거匠 작품세계 조망」, 『대전일보』, 2005.3.22.
- 박기성, 「작가의 산실(25): 서양화가 지치우씨」, 『중도일보』, 2005.4.7.
- 장재진, 「실경 산수화의 운율과 감흥 물씬, 김동수 작품전」, 『파이낸셜 뉴스』, 2005.5.10.
- 박기성, 「[작가의 산실] (29) 조각가 남철」, 『중도일보』, 2005.6.23.
- 「작가의 산실-서양화가 신동주 화백」, 『중도일보』, 2005.8.18.
- 「바람이 스민 유화 그리고 달마」, 『법보신문』, 2006.5.3.
- 김민영, 「화폭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 『중도일보』, 2006.10.13.
- 「4월 4일 화제의 전시」, 『한겨레신문』, 2007.4.3.
- 이시우, 「아주 특별한 사은 展」, 『중도일보』, 2008.2.20.
- 「[편완식이 만난 이 시대의 풍류] ‘흙으로 시를 굽는 도예가’ 이종수」, 『세계일보』, 2008.4.25.
- 「시·소설은 인고의 세월을 거쳐 탄생돼야」, 『대전일보』, 2009.3.27.
- 박은희, 「뇌경색 역경뒀고 25점 전시... 일상소재에 역동적 표현 더해」, 『중도일보』, 2010.3.3.
- 이영란, 「화가 장순업이 들려주는 ‘새봄의 코러스」 『헤럴드경제』, 2010.4.1.
- 이광형, 「흰색으로 표현한 일상의 풍경-신양섭 화백 8년 만에 개인전」, 『국민일보』, 2010.6.13.
- 전상수, 「손경식 관장, 미술관에 흥익이념 걸다」, 『경제포털』, 2011.1.18.

김승한, 「김승한이 만난 사람」, 『충청투데이』, 2012.5.28.

박수영, 「자연으로 사생 떠나듯 고이 기소서」, 『중도일보』, 2011.2.17.

박수영, 「추상정경' 기교없는 향기 물씬」, 『중도일보』, 2011.7.5.

조상형, 「이건영, 목원대 미교과 초빙교수 되다」, 『중도일보』, 2011.8.1.

박수영, 「삶에 녹여진 심상의 풍경은…」, 『중도일보』, 2012.5.30.

조성기, 「춤'의 역동성, 또 다른 생명력을 길어 올린다」, 『피플 투데이』, 2012.9.24.

최정우, 「(문화업서) 기성품들의 뒤틀린 콜라주」, 『충청투데이』, 2013.1.14.

김구희, 「김여성 작가의 개인전, 소우주를 여행하다」, 『충청데일리』, 2013.12.23.

\_\_\_\_\_, 「유병호 개인전, 왜 '블루 앤 재즈' 인가?」, 『충청데일리』, 2014.6.15.

조태수, 「평생 붓 들고 살아온 삶 행복, 서예로 고향에 기여하고파」, 『홍주일보』, 2014.9.18.

김민영, 「캔버스에서 만난 동양과 서양」, 『중도일보』, 2014.10.29.

「목향과 함께 한 서예 외길, 서체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 『스포츠톨』, 2015.3.4.

고영호, 「한국화가 기산 정명희 초대전」, 『충청일보』, 2015.11.18.

원세연, 「네 가지 시선으로 본 우리네 세상」, 『대전일보』, 2016.1.7.

김구희, 「고교미술동아리, 52년 전 그 시절을 기억해본다」, 『충청데일리』, 2016.4.15.

이은영, 「특별인터뷰: 원로화가 제정자 화백」, 『서울문화투데이』, 2016.5.17.

정상래, 「대학로 갤러리 '이양', '김한기국제미술제전: 남풍」, 『국제뉴스』, 2016.8.16.

김지훈, 「학교재, '빛의 작가' 하동철을 그리워 하며」, 『머니투데이』, 2016.11.9.

송창희, 「하동철의 빛, 임직순의 색 그리고 유영교의 形(형)」, 『중부매일』, 2016.11.16.

강은선, 「한국화 정체성 치열한 탐구」, 『대전일보』, 2017.2.1.

김아미, 「오세열 작가 '포스트단색화가? 이것은 단색화가 아니다」, 『뉴스one』, 2017.2.19.

김구희, 「정영복 화백, 그림인생 팔십 '잠언의 붓'에 담다」, 『충청데일리』, 2017.4.28.

임효인, 「(공연전시)박명규.이명자 부부 개인전」, 『중도일보』, 2018.1.11.

서지영, 「40년 스승의 붓질 - 임명철 선생 팔순전」, 『대전일보』, 2018.2.21.

임효인, 「(공연전시)임명철 화백 '1939~2018' 팔순전」, 『중도일보』, 2018.2.22.

한성일, 「금강화가 기산 정명희의 삶과 예술」, 『중도일보』, 2018.4.12.

서지영, 「백발 노장의 붓끝은 닳을지언정 마르지 않는다」, 『대전일보』, 2018.8.29.

「강현서 작가 '88세지만 지금도 잠 줄여가며 창작활동 몰두」, 『중도일보』, 2018.9.9.

김여성, 「재미화가 김여성의 그림일기」, 『스타트뉴스』, 2018. 9.12.

양동길, 「양동길의 문화예술 들춰보기-강나루 미수기념 작품전」, 『중도일보』, 2018.9.14.

「조영동 화백의 삶과 예술과 신앙」, 『가톨릭신문』, 2018.9.16.

김슬기, 「15년 만에 유희영 개인전 '그림이란 나이가 들수록 덜어내는 것」, 『매일경제』, 2018.10.14.

왕진우, 「유희영 "같은 그림 같죠? 동일한 색이 나올 수 없는 것이 내 작업"」, 『이코노미투뉴스』, 2018.10.14.

이철휘, 「(예술토크) 재미화가 김여성씨, 겹겹이 쌓아올리는 기억 한 조각」, 『아시아뉴스통신』, 2018.12.30.

「22일부터 서양화가 이청자 회고전」, 『조선일보』, 2019.5.16.

손진석, 「'김인중 미술관' 프랑스 앙베르서 개관」, 『조선일보』, 2019.6.19.

「구상미술 40년, 대전 미술 역사를 되새기다」, 『충청매거진』, 2019.11.2.

오현주, 「(시대藝인) "빼고 또 빼내니 뭐가 남더냐...허영고 퍼런 닥죽"」, 『이데일리』, 2020.2.18.

전지현, 「예술은 어둠 몰아내는 기수-세상 구원할 것」, 『매일경제』, 2020.3.12.

한성일, 「[한성일이 만난 사람] 재불화가 김인중 신부」, 『중도일보』, 2020.5.31.

「재불 스테인드글라스 대가 김인중 신부, 중도일보에 작품 기증식」, 『중도일보』, 2020.6.10.

조재근, 「고 김수평, 또 다시 화가로 환생 꿈꾼 영원한 청년(책: 『조형 예술과 시대정신』)」, 『교수신문』, 2020.8.20.

김경애, 「'인간 탁본 시리즈' 원로 김영덕 화백 별세」, 『한겨레신문』, 2020.12.9.

「미술은 시대의 거울... 철학자, 예술을 말하다 (책을 읽읍시다)」, 『파이낸셜뉴스』, 2020.12.10.

김영광, 「뮤즈를 그리는 愚無那 시간으로」, 『News Flix』, 2021. 2.16.

「색채의 마법사 '이인영 화백' 별세」, 『중도일보』, 2021.2.17.

「동양회화의 새로움, '오방산수'작가 김석기」, 『데일리안』, 2021.3.3.

류환, 「화가, 시인 無空 김정수 작가 시집출간 화제」, 『뉴스봄』, 2021.5.21.

김용복, 「(문화 특) 역시 김배희」, 『중도일보』, 2021.7.25.

## 논저

강나루, 「유화 개인전 유감」, 『강나루 수필집: 그날 그린 자화상』, 한국문학도서관, 2005.

강명주, 『최종태 조각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강민기, 「시간을 역류하는 설화세계의 형상화: 산동 오택학의 작품세계」, 『산동 오택학의 작품세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8.

강민영, 「송변수의 《가시》 연작: 운명을 넘어서」, 『미술사학보』, 제55집, 미술사학연구회, 2020. 12.

강성열, 「Paul Klee의 작품세계에 나타난 아동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85.

강태성, 「조형의 공간 확산」, 『강태성』, 2017.

강혜승, 「1970년대 이건용의 행위예술과 몸의 복권」, 『미학예술학연구』59, 한국미학예술학회, 2020.

고재열, 「그림, 조용히 내뿜는 '지금, 여기, 우리'의 기록:12년만의 개인전 연 미술가 김정현」, 『문화+서울』 제111호, 2016.5.

공광식, 「수묵추상으로 경작한 해정의 한국성」, 『제14회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전-해정 전영화』, 대전시립미술관, 2017.

구경화, 「이순석의 생애와 작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와 미술이론 석사논문, 1999.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 엮음,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300』, 국립현대미술관, 2019.

길진섭, 「해방 후의 조선미술」, 『조선미술』, 평양: 조선미술사 1957.1.

김경연, 『李東勳 評傳: 朝鮮淸 淸경의 畫家 이동훈, 예술과 생애』, 열화당, 2012.

김관호, 「孝悌·文字圖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김광우, 「최영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최영근의 칠』, 대전 이안갤러리, 2009.

김교만, 「관광 포스터를 제작하면서」, 『김교만작품전』, 한국디자인포

- 장센터, 1976.
- 김남수, 『흙'에서 얻은 조형이념의 전개』, 『미술세계』, 1991.
- \_\_\_\_\_, 『獨自의 절대성과 獨創的 추구』, 『현대한국화명작집』, 1983.
- \_\_\_\_\_, 『작가를 찾아서/ 한국정신의 표출에 새로운 확신 심어-한국화가 조평휘』, 『미술세계』 통권 35호, 1987.8.
- 김동창, 『자연의 화가' 이인영의 작품세계』, 『원로작가 초대전: 이인영, 색채의 화음(和音)을 노래한 화가』, 대전시립미술관, 2017.
- 김만희, 『민속도록4』, 상미사, 1975.
- \_\_\_\_\_, 『한국의 문자도』, 상미사, 1984.
- 김미경, 『신(神)을 향한 예술-이남규 10주기전에 부쳐』, 『李南奎 畫集』, 가나아트, 2003.
- 김미정, 『모더니즘과 국가주의의 패러독스 정치·사회적 관점으로 본 전후(戰後) 한국현대미술』, 『미술사학보』 39, 미술사학연구회, 2012.
- \_\_\_\_\_, 『한국 영포르멜과 대한민국미술전람회-1960년대 초반 정치적 변혁기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12,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04.
- 김미한, 『있는 그대로의 이견용』, 『Noblesse』, 2019.9.
- 김병기, 『소나무 한가지에 방불한 글씨』, 『송산 박승배』, 이화문화출판사, 2008.
- 김복기, 『'무구'한 눈』, 『오세열』, 학교재, 2017.
- 김석기, 『KIM SEOK-KI』, 동양수목연구원, 2007.
- 김신자, 『김수평과 그의 예술』, 예맥출판사, 1995.
- 김영배, 『강나루, 그 人間과 文學』, 『강나루 수필집: 그리움의 영마루에서』, 한국문화도서관, 1991.
- \_\_\_\_\_, 『金寧培畫集-한점의 그림을 찾아서』, 2008.
- \_\_\_\_\_, 『김영배 화집』, 2008.
- \_\_\_\_\_, 『自足과 文氣의 言語-김한의 예술과 인간』, 『金漢 작품전 "통김" 1972~1990』, 미술회관, 1990.
- 김영천, 『내이야기를 어디에 놓아둘까』, 『개인전-내이야기를 어디에 놓아둘까』, 천안시민회관, 2003.
- 김영학, 『자서(自序)』, 『김영학 조각전』, 한국등잔박물관 출판부, 1991.
- 김영호, 『금강현대미술제의 의의와 역할 고찰-1980 금강현대미술제에 관한 소고』,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 김이순, 『메신저로서의 작가, 메신저로서의 미술: 조성목의 작품세계』, 『맛의 맛 조성목』, 국립현대미술관, 2016.
- \_\_\_\_\_, 『유영교의 조각: 시적인 울림을 통한 휴머니티의 교감』, 『유영교 Yoo, Young-Kyo』, 가나아트, 2008.
- \_\_\_\_\_, 『전후의 움직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_\_\_\_\_, 『한국현대미술사의 또 다른 우회로-문우식의 1950-60년대 회화』, 『문우식, 그리움의 기억』, 2018.
- 김인환, 『지금 이 작가는/ 조평휘(한국화) 작품론-심미적 생태계의 '산악기상도(山嶽氣象圖)』, 『미술세계』, 1999.2.
- 『김일성 수상을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 국가미술전람회를 참관』, 『조선미술』, 평양: 조선미술사, 1958.10.
- 김재석, 『工藝의 朝鮮의 使命』, 『新文藝』, 1945.12.
- 김재원, 『박물관과 한평생』, 탐구당, 1992.
- 김정현, 『나의 그림 이야기』, 『김정현 백년의 기억』, 공주문예회관, 2004.
- \_\_\_\_\_, 『땅과 흙을 그리면서』, 『땅의 길, 흙의 길』, 학교재, 1993.
- 김정화, 『김유정 신문연재소설의 삽화연구』, 『우리어문연구』 54, 우리어문학회, 2016.
- 김진엽, 『불안의 유미(唯美)』, 『Yoo, Keunyoung The Odd Nature』, 터치아트, 2008.
- 김창석, 『찬란한 민족미술 창건 도상에서』, 『조선미술』, 평양: 조선미술사, 1957.5.
- 김철호, 『목림회 화가들이 말하는 목림회』,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제22집,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1.
- 김학량, 『이응노 회화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김한중, 『1920년대 조선교육협회의 교육운동』, 『충북사학』 8, 충북사학회, 1995.
- 김현주, 『김교만 그래픽 스타일의 형성과 전개』, 『디자인학연구』 33권 2호, 한국디자인학회, 2020. 5.
- 김형숙,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아카이브: 동양화 이종상』, 한국미술아카이브, 2015.
- 김희직, 『목요일에 만나는 사람』, 책과 나무, 2019.
- 남관, 『미술계의 1년』, 『신천지』 22호, 1950.1.
- 남철, 『김영배: 물리적 구조체의 신추상』, 발행처 불명, 1983.
- \_\_\_\_\_, 『작가의 변(창작과 사색)』, 『남철 조각전』, 청담미술관, 1990.
- 남궁운, 『무릉동 이야기』, 『웅진문화』32, 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19.
- 노유니아, 『근대 디자인 개념과 양식의 수용-동경미술학교 도안과 유학생 임숙재(任瑯宰)를 중심으로』, 『미술이론과 현장』 제8호, 2009.
- 도원문화예술연구소, 『충남미술사 간행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2020.
- 劉權俊, 『姜太成의 藝術』, 『SCULPTURE EXHIBITION BY TAI-SUNG KANG』, M.M. SHINNO Gallery, 1980.
- 류철하, 『색채의 탐미-자연의 빛을 따라간 화가』, 『원로작가 초대전: 이인영, 색채의 화음(和音)을 노래한 화가』, 대전시립미술관, 2017.
- \_\_\_\_\_, 『해정 전영화의 작품세계』, 『제14회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전-해정 전영화』, 대전시립미술관, 2017.
- 리국전, 『교시 실천 과정에서 조각 분야가 거둔 성과』, 『조선미술』,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2. 11.
- 리재현, 『조선력대미술가편람(중보판)』,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 리팔찬, 『우리나라에서의 채색화 발전』, 『조선미술』,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2.7.
- 문명대, 『끝없는 미궁길의 형상화』, 『오늘의 작가 특집별권·미술시대 기획연작: 박병화』, 미술세계, 1989.
- 민수홍, 『고려청자 재흥의 선구자, 황인춘(1894~1950)』, 『공예와 문화』3, 공예문화연구소, 2002.
- 민혜란, 『삶과 죽음, 초월과 운명, 자유와 구속의 대위법』, 『박병화』, 수림문화재단, 2014.
- 박래경, 『유기적 생명성이 쉬는 숨으로 가득한 화면 공간』, 『JE JUNG JA』, 월간미술, 2016.
- 박병천, 『특유의 서풍을 창안하고 응용하다』, 『미술관에 올, 한국근현대서예전』, 국립현대미술관, 2020.
- 박상우, 『인용과 확대의 미학』, 『bLow UP, aMeriKa』, 한미사진미술관, 2016.
- 박숙영, 『서문』, 『제3회 최병상 작품전』, 선화랑 선아트센터, 2007.
- 박여일, 『靑山如一』, 여일미술관, 1991.
- 박영선, 『민성(民聲)』, 1950.1.
- 박영숙, 『Mad Women Project』, 경기문화재단, 2009.
- 박영택, 『김영덕-정신적 외상을 거느린 기억의 형상화』, 『미술세계』 67, 2018.
- \_\_\_\_\_, 『화면 내·외부의 경계에서 이루어진 사건』, 『이길원』, 동덕아트갤러리, 2017.
- 朴容淑, 『張淳業의 作品世界』, 『張淳業 畫集』, 菅井汲, 1987.
- 박일호, 『호접몽의 참을 통해 본 정화와 자유』, 『장준문-나비의 꿈』, 대전 현대갤러리, 2005.
- 박정구, 『순수한 참 그림의 참 화가, 임봉재 선생의 회화전』, 『임봉재

- 展』, 대전시립미술관, 2010.
- \_\_\_\_\_, 「조형의 두 형식, 그리고 회화를 담는 조각」, 『金榮大 조각개인전』, 비비스페이스, 2008.
- \_\_\_\_\_, 「한 겨울을 녹이는 훈풍...中」, 『대전원로작가회 아카이브 I : 임봉재 ·故김치중화백 회고전』, 원로작가회 화연전, 2017.
- 박효정, 「백제의 화가, 정성원과 정술원」, 『백제의 화가 정성원과 정술원-유홍준교수 제2회 기증 유물전』, 부여문화원, 2017.
- 박효정, 「현암 정성원과 두산 정술원의 생애와 회화세계」,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백제의 향기와 나의 애장품』, 부여문화원, 2016.
- 박희연, 「근대 한국의 기행사생활연구: 1930년대 『동아일보』 연재 삽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방상훈, 「김인중 초대전을 개최하며...」, 『조선일보 창간 80주년 김인중 초대전: KIM EN JOONG』, 조선일보사, 2000.
- 백지홍, 「설봉 김두환, 근대미술사의 맞춰지지 않은 퍼즐」, 『미술세계』 76, 2018.
- 변상형, 「雲山속 풍경, 風景속 운산」, 『Art & Criticism』, 2001. 6.
- 변종필, 「박돈의 '태고의 신비와 전설, 그 영원을 향한 노정」, 『미술과 비평』, 2012.
- 서길현, 「백현옥의 조각 세계」, 『미술과 비평』, 미술과 비평, 2018. 8.
- 서성록, 「유희영, 화면에 내려앉은 내면의 빛」, 『유희영의 색면추상』, 현대화랑, 2018.
- \_\_\_\_\_, 「이환영, 역사의식이 점목된 회화」, 『홍주성, 충절을 그리다: 이환영』, 이환영 한국화연구소, 2012.
- \_\_\_\_\_, 「장순업 '자연의 코러스」, 『장순업 초대전』, 서울아트센터 공평갤러리, 2009.
- 선주선, 「이 시대 으뜸의 서예가, 석헌 임재우」, 『월간서예』 446, 2018.
- 송근호, 「나의 독백」, 『송근호전』, 신세계 동방갤러리, 1995.
- \_\_\_\_\_, 「작가노트」, 『宋近鎬』, 대전 중구문화원 전시실, 2002.
- \_\_\_\_\_, 「작가노트」, 『宋近鎬 개인전』, 대전 에스닷갤러리, 2005.
- 송지영 · 심지혜, 『성북, 100인을 만나다』, 2015.
- 송희경, 「1960년대 동양화의 해외 체험-일본 전시의 참여와 그 작품작을 중심으로」, 『미술문화연구』 20, 동서미술문화학회, 2021.
- \_\_\_\_\_, 「남정 박노수(藍丁 朴魯壽, 1927-2013)의 국전 출품작」, 『미술사와 시각문화』 18,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6.
- \_\_\_\_\_, 「오묘한 색상으로 창출된 사람들-산동 오태학 작품에 표현된 인물 형상」, 『산동 오태학의 작품세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8.
- \_\_\_\_\_, 「일초 이철주(逸初 李澈周, 1941-)의 한국화」, 『한국문화연구』 32, 이화여자대학교, 2017.
- 신권희, 『오늘을 대표하는 금속공예 8인전』, 호암갤러리, 1988.
- 신석필, 「황교영의 작품세계」, 『조각가 황교영 고리와 십리』, 황교영생생기념사업회, 1988.
- 신수경, 「구술사적 분석을 통한 한국 현대 수묵화 읽기-조평화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2,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2011.
- \_\_\_\_\_, 「김두환-생동감 넘치는 색채의 향연」, 『월성 김두환전』, 진고원갤러리, 2009.
- \_\_\_\_\_, 「운산(雲山)의 기백과 수묵의 활력」,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1: 구름과 산 조평휘전』, 국립현대미술관, 2012.
- \_\_\_\_\_, 『해방기(1945-1948) 월북미술가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신영복, 『넷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돌베개, 2017.
- 신주희, 『이근신 70번째 생일 축하 개인전』, 1024think, 2010.
- 신중덕, 『생명을 그 회화적 발현』, 롯데화랑, 2003.
- 신항섭, 「김배희의 작품세계-풍부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형상 및 색채포름」, 『김배희 작품집』, 디오, 2009.
- \_\_\_\_\_, 「사실주의 기법에 대한 새로운 발견」, 『李鐘煥 油畫展』, 서울 갤러리, 2004.
- \_\_\_\_\_, 「사실주의 미학이 추구하는 진실」, 『Temperament: 저 바다에는 세계, 내 마음에는 평균율』, 우일커뮤니케이션즈, 2009.
- \_\_\_\_\_, 「사실주의 미학개념이 추구하는 진실: 노광 개인전」, 『전시+가이드』 131, 크라트, 2017.
- \_\_\_\_\_, 「李鐘煥 作品展에」, 『이중환 작품전』, 서울갤러리, 1996.
- \_\_\_\_\_, 「한국적인 미의 원형과 현대성 사이에서」, 『석당 우희춘』, 아티스트, 2006.
- \_\_\_\_\_, 「현대수묵화의 표현영역의 확장」, 『장선백전』, 조선일보미술관, 2007.
- 오광수, 「내안의 풍경-신양섭의 근작에 대하여」, 『신양섭』, 도서출판 노, 2010.
- \_\_\_\_\_, 「인물, 풍속에서 산수로-우남 이용휘의 회화적 역정」, 『우남, 이용휘』, 미술세계, 2015.
- \_\_\_\_\_, 「표현적 추상에서 미니멀리즘으로: 제정자의 작품 세계의 권력」, 『JE JUNG JA』, 월간미술, 2016.
- \_\_\_\_\_, 「현실과 설화: 산동 오태학의 작품세계」, 『산동 오태학의 작품세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8.
- 오병욱, 「순수 조형의지, 한국화의 영역 확대를 위한 실험정신」, 『이길원』, 덕원미술관, 1995.
- 유복열, 『한국회화대관』, 교문원, 1969.
- 유성용, 『畫家 林立과 그의 藝術』, 『林立 回顧展』, 두원, 2012.
- 유재길, 「코리아니즘과 생명의 근원을 모색하는 조각」, 『정광모 조각전-표상과 의식의 현현』, 진화랑 · 진아트센터, 1997.
- 유준근, 「姜太成의 藝術」, 『SCULPTURE EXHIBITION BY TAI-SUNG KANG』, M.M. SHINNO Gallery, 1980.
- 유진명, 「국내 혁명 전적지 답사를 끝마치고」, 『조선미술』, 평양: 국립미술출판사, 1961.1.
- \_\_\_\_\_, 「신라조각에 대하여」, 『조선미술』, 평양: 조선미술사, 1957.3.
- 유홍준, 「우당과 일창 작품전을 열며」, 『제4회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부여의 서예가 I』, 부여문화원, 2018.
- 유환동, 「논산 미술 발전의 선구자」, 『2020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2』,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2020.
- 윤덕한, 「백현옥의 조각 세계」, 『미술과 비평』, 미술과 비평, 2018.1.
- 윤범모, 「한국근대 조소예술의 전개양상」, 『근대를 보는 눈-한국근대 미술: 조소』, 삶과꿈, 1999.
- 윤여현, 「공주 근대(近代) 향토작가 지상전(紙上展) -上·下-」, 『웅진문화』 20 · 21, 공주향토문화연구회, 2007 · 2008.
- 윤우학, 「고 임상묵 유작전에 부처」, 『임상묵』, 충북대학교 박물관, 1998.
- 윤진섭, 「신중덕의 회화에 대하여」, 『慎重惠招待展』, 덕원미술관, 1992.
- \_\_\_\_\_, 「제4회 慎重惠 個人展의 意味」, 『慎重惠 個人展』, 예술의전당미술관, 1991.
- \_\_\_\_\_, 「해방의 춤」, 이지호편, 『유근영』, 대전시립미술관, 2005.
- 이 일, 「1995년 7월, 개인전 서문」, 『이중환 화집』, 아프리에, 2001.
- \_\_\_\_\_, 「삶의 근원적 형태를 찾아서」, 『이영길 조각전』, 아미갤러리, 1993.
- \_\_\_\_\_, 「擴散空間과 收縮空間-李鍾珪의 근작 조각에 대하여」, 『李鍾珪 彫刻展』, 현대화랑 한국미술관, 1984.
- 이गर라시 요시히코, 김관호 편역, 『수채풍경스케치-빛과 그림자의 테크닉』, 조형사, 2006.
- 이건용, 『달팽이 걸음』, 국립현대미술관, 2012.
- 이경모, 「김영학, 위기의 시대, 인간애를 표현하다」, 『이경성 앤솔로

- 지], 미진사, 2021.
- \_\_\_\_\_, 「당림 이종무의 삶과 예술」,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이종무 화백 회고전』, 천안 예술의전당 미술관, 2016.
- 이경성, 「고암 이응노의 예술」, 『이응노전』, 서울 신세계미술관, 1976.
- 이규열, 「다단계 변화의 거인적 藝境 구축」, 『한국근대회화선집 한국화 8, 이응노·김영기』, 금성출판사, 1990.
- \_\_\_\_\_, 「이석구의 회화정신, 한국미 전통에의 애착」, 『이석구』, 예서원, 2002.
- \_\_\_\_\_, 「조평휘의 수묵정신」, 『대전미술의 지평-조평휘』, 대전시립미술관, 2006.
- \_\_\_\_\_, 『근대 한국화의 흐름』, 미진사, 1984.
- \_\_\_\_\_, 『화단일경』, 동아출판사, 1968.
- 이규대, 「숲에서 피워낸 '자연과 인간' 공존의 미학」, 『시사저널』, 2012.4.28.
- 이동국, 「우당(愚堂)·일창(一滄) 양세(兩世)의 서예(書藝)세계」, 『제4회 유희준 교수 기증 유물전-부여의 서예가 I』, 부여문화원, 2018.
- 이동원, 『鶴南 鄭恒燮의 書藝 研究』, 대전대학교 대학원 서예학과 석사 학위논문, 2017.
- 이민수, 「1980년대 한국화의 상황과 갈등: 미술의 세계화 맥락에서 한국화의 현대성 논의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39, 2014.
- 이세기, 「광활한 산(山)의 화가 민경감」, 『문화예술』, 2003. 12.
- 이순구, 「무기교의 기교-서체적 음률의 조화」, 『이중학: 제8회 이동훈 미술상수상작가 초대전』, 대전시립미술관, 2011.
- \_\_\_\_\_, 『2011 대전미술의 지평』, 대전시립미술관, 2011.
- 이순석, 「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 『하라 이순석 작품집』,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과 동문회, 1993.
- 이순석·정시화, 「석공예가 이순석의 인간적 생애와 작품」, 『꾸림』 11호, 1978.9.
- 이영준, 『황규태』, 열화당, 2005.
- 이영재, 「끊임없는 창작혼을 불사르는 작가: 장순업」, 『張淳業 1992-1995』, 미술시대, 1995.
- 이용호, 「임봉재 이야기」, 『임봉재: 제16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수상작가전』, 대전시립미술관, 2019.
- 이우성·신권희, 「한국 칠보공예품 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논문집』 제5집,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1972.
- 이은기, 「조각을 매개로 한 총체적 경험」, 『유영교』, 갤러리 현대, 2003.
- 이응규, 「윤영자의 생애와 예술관」, 『한국현대조각 1세대전』, 도서출판 지에이북스, 2021.
- 이재황,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의 철화 안료연구」, 『철화분청사기』, 동산도기박물관, 2007.
- 이정근, 「조각가 이종각의 작품 세계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7.
- 이창림, 「박명규 교장과 그의 조각작품」, 『박명규초대전』, 박명규, 2009.
- 이희민, 「서화는 자화상이다」, 『위클리피플』.
- 인영선, 『구보반정묵흔(狗步半程墨痕)』, 이화문화출판사, 2002.
- \_\_\_\_\_, 『석현 임재우』, 1999.
- \_\_\_\_\_, 『제4회 일중서예상 대상 수상자 초대전-취묵헌 인영선』, 이묵서회, 2016.
- 임동식, 「박명규의 그림에 대한 사춘기와 후기사춘기-회춘」, 『박명규 화집』, 오늘의문학사, 2009.
- 임두빈, 「원초적 고향의식과 사물의 빛남」, 『이영수와 그의 예술』, 미술공보사, 1990.
- 임양수, 「내면의 세계를 '반 구상 조형입체화'시킨 화가 차선영」, 『차선영-그리움의 정원』, 대전서구문화원, 2018.
- 임영방, 「작가 조영동(趙榮東)과 그의 작품세계」, 『한국현대미술가: 조영동』, 도서출판 미술공론사, 1990.
- 임재광, 「1970-80년대 대전미술: 주요미술활동을 중심으로」, 『광자진취狂者進取: 대전미술다시쓰기 7080』, 대전시립미술관, 2020.
- 임홍순, 『임홍순 공예전』, 신세계미술관, 1981.
- 장준구, 「마음과 손이 하나 되다: 석운 하태진의 예술세계」, 『하태진의 예술세계, 심수상응(心手相應)』, 이천시립월전미술관, 2017.
- 장준석, 「산을 향한 생명의 노래를 가슴으로 담아낸 정열의 화가」, 『자연의 생명력과 조형적 교감: 신현국』, 공주문화원, 2019.
- 전상수, 「손경식 관장, 미술관에 흥익이념 걸다」, 『경제풍월』, 2011.1.18.
- 정경연, 피경지, 「한국 현대 타피스트리 작가 연구: 송번수」, 『조형디자인연구』, 한국조형디자인학회, 2016.
- 정관모, 『Mu Obelisk-정관모의 자전문집』, 미술문화, 2021.
- \_\_\_\_\_, 「나의 조각 《표상-의식의 현현》전을 열며 Note5」, 『표상-의식의 현현』, 진화랑 미술회관, 1997.
- 정영복, 『잡언의 붓 정영복작품집』, 평창당, 2016.
- 정준모, 「순진한 눈과 소박한 마음의 작가-무애(無涯) 이동훈의 삶과 예술」, 『탄생100주년 기념 이동훈 회고전 도록』, 대전시립미술관, 2003.
- 정찬국, 「정열과 사랑의 고리」, 『조각가황교영 고리와 섭리』, 황교영선생기념사업회, 1988.
- 정형모, 「작가는 발상과 표현으로 싸움하는 사람: 나이프와 면도날의 작가, 오세열」, 『포브스코리아』 219호, 2021.5.
- 조광석, 「현상계+관계」, 『申東柱』, 현대화랑, 1995.
- 조부연, 「대한민국 1세대 도자 디자이너 황용식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대전예술』, 대전광역시, 2020. 8.
- 조상영, 「대전 현대미술의 패러다임」, 다빈치기프트, 2009.
- 조선화 분과 집체 창작단, 「조선화 <영광의 오늘>을 창작하고서」, 『조선미술』,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1.11.
- 조은정, 「광복 후부터 1950년대까지 한국에서 활동한 외국인이 본 한국미술」, 『미술이론과 현장』4, 한국미술이론학회, 2006.
- \_\_\_\_\_, 「형상조각의 자율성과 숭고 의지」, 『박병희』, 수림문화재단, 2014.
- 조희성, 「한국 현대 수묵채색화단의 태동-백양회, 목림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2007.
- 최건, 「흙으로 빛은 혼(魂)」, 『윤광 황용식』, 도원회, 2012.
- 최근배, 「선전 동양화 평」, 『조광』, 1942.6.
- 최명수, 『민족 수난시기의 회화』, 평양: 평양출판사, 2017.
- 최병식, 「'절대자유'와 회화의 시(詩)」, 『이중학: 제8회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대전시립미술관, 2011.
- \_\_\_\_\_, 「자연주의의 진지함과 원형의 탐구」, 『최덕후전』, 서울시립미술관, 2011.
- \_\_\_\_\_, 「작가연구 10: 조평휘(한국화) 대관·원망을 통한 한국산수의 관류」, 『미술세계』 통권 109호, 1993.12.
- 최 열,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1800~1945 한국미술사전사』, 열화당, 1998.
- \_\_\_\_\_, 『한국현대미술의 역사: 한국미술사전사 1945~1961』, 열화당, 2006. 최영근, 「개인전을 열며」, 『최영근의 칠』, 대전 이안 갤러리, 2009.
- 최영근·조창례, 「재미 화가·애니메이션 아티스트 조창례」, 『대전예술』, 2019.7.
- 최승훈, 「당진 김창희의 혈친 조각 '고향마을」, 『현대미술작가선집 III』, 미술시대, 1989.
- 최유진, 「이길원 작가의 작품세계」, 『문학저널21』, 2008.11.3.
- 최은주, 「작가 하동철과의 인터뷰」, 『하동철 5주기전: 빛』, 공아트스페이스, 2011.



최종태, 『작은 생물들에 대한 사랑-권탁원전에-』, 『권탁원회고전』, 대전 현대갤러리, 2002.

\_\_\_\_\_, 『예술가와 역사의식』, 지식산업사, 1986.

\_\_\_\_\_, 『형태를 찾아서』, 샐터, 1989.2.

최지영·경경연, 「석주(石洲) 윤영자 연구」,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2020. 70호.

최태만,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의 형태」, 『한국현대조각 1세대전』, 도서출판 지에이북스, 2021.

\_\_\_\_\_, 「조화와 질서를 추구하는 검소한 작업」, 『이환영』,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현대아트갤러리, 1999.

하정웅, 「기원의 형상」, 『박병회』, 수립문화재단, 2014.

한국근현대미술기록연구회 편저, 『제국미술학교와 조선인 유학생들』, 눈빛, 2004.

한미사진미술관, 『임응식 녹화물 자료집』, 가현문화재단, 2015.

한상진, 「조선화에 관한 몇가지 문제-8.15 10주년 기념 미술 전람회 조선화 분야를 벗고-」, 『미술』, 평양: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1956.1.

한현숙, 「다시 읽는 서양화가 이명자- 삶과 오늘」, 『대전예술』 315, 한국예총대전광역시연합회, 2021.

\_\_\_\_\_, 「사랑방 초대석 서양화가 임양수」, 『대전예술』, 2020.5.

하나영, 「자연 속 리듬을 표면에 찍고 그리다」, 『YU BYOUNG-HO, blue & jazz』, 평창당, 2020.

허진권, 「운산 조평휘 선생님과 함께 한 4반세기」, 『雲山 趙平彙 畫集』, 목원대학교출판부, 1999.

황부웅, 「단순과 정감으로 대표되는 서정적 스타일리스트 김교만」, 『월간 디자인』, 1993. 9.

홍선표, 「한국적 풍경을 위한 집념의 신화」, 『한국의 미술사 : 이상법』, 삼성문화재단, 1997.

홍성희, 「동경미술학교 조선인 유학생 연구-1909년~1945년 서양화와 졸업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황상희, 『황만영 작품전』, 월간미술세계, 2006.

황효순, 「거대한 산과 목가적인 전원에서 색채의 화음을 노래한 화가」, 『원로작가 초대전: 이인영, 색채의 화음(和音)을 노래한 화가』, 대전시립미술관, 2017.

\_\_\_\_\_, 「금속성에서 생명의 매커니즘을 추구한 대전의 조각가 남철」, 『대전예술』 250호, 한국예총 대전광역시연합회, 2016.

\_\_\_\_\_, 「대전미술의 선구자들2」, 『대전문화』 23호, 대전광역시, 2014.

\_\_\_\_\_, 「대전미술의 선구자들3」, 『대전문화』 24호, 대전광역시, 2015.

\_\_\_\_\_, 「대전조각의 선구자들」, 『대전문화』 26호, 대전광역시, 2017.

\_\_\_\_\_, 「심향 박승무의 작품세계」, 『인물미술사학』 7, 인물미술사학회, 2011.

\_\_\_\_\_, 「외로운 나그네-심향 박승무의 예술세계」, 『심향 박승무』, 대전시립미술관, 2006.

후가노 오사무, 「바람과 물의 리듬-金漢 個人展에 부쳐」, 『金漢 個人展』, 후쿠오카 ESPACE19, 1989.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개화 발전하고 있는 우리 미술」, 『조선미술』, 1960. 9.

「조각 <당을 우러라>를 창작하면서」, 『조선미술』,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1.10.

「조선로동당 제3차전당대회 경축-선전미술전람회」, 『미술』, 평양: 조선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 1956.2.

조선화 분과 집체 창작단, 「조선화 <영광의 오늘>을 창작하고서」, 『조선미술』, 1961.11.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복원: 북으로 간 미술가들 저작목록』,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한국 근현대예술사 미술채록연구 시리즈 140 : 20세기 한국 서화전통의 변모와 현대화 I : 민경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한국 근현대예술사 미술채록연구 시리즈 144 : 20세기 한국 서화전통의 변모와 현대화 I : 신영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한국 근현대예술사 미술채록연구 시리즈 146 : 20세기 한국 서화전통의 변모와 현대화 I : 오태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한국 근현대예술사 미술채록연구 시리즈 151 : 20세기 한국 서화전통의 변모와 현대화 I : 이종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한국 근현대예술사 미술채록연구 시리즈 154 : 20세기 한국 서화전통의 변모와 현대화 I : 전영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한국 근현대예술사 미술채록연구 시리즈 155 : 20세기 한국 서화전통의 변모와 현대화 I : 조평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한국 근현대예술사 미술채록연구 시리즈 157 : 20세기 한국 서화전통의 변모와 현대화 I : 하태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한국 근현대예술사 미술채록연구 시리즈 286: 최종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 도록 및 브로슈어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를 보는 눈 - 한국근대미술: 공예』, 일과알, 1999.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를 보는 눈 - 한국근대미술: 수묵·채색화』, 삶과꿈, 1998.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를 보는 눈 - 한국근대미술: 유화』, 삶과꿈, 1997.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를 보는 눈 - 한국근대미술: 조소』, 삶과꿈, 1999.

『1980년대 리얼리즘과 그 시대』, 가나아트센터, 2001.

『1991 대전미술』, (사)한국미술협회대전직할시지부, 1991.

『1992 대전미술』, (사)한국미술협회대전직할시지부, 1992.

『50년의 무언극-송번수』, 국립현대미술관, 2017.

『갤러리금강 개관기념-이두식 서정대 유영교의 4월전』, 1992.

『김이불루儉而不陋: 대전미술 다시쓰기 1940~1960』, 대전시립미술관, 2019.

『광복 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 대전시립미술관, 2015.

『광자진취狂者進取: 대전미술다시쓰기 7080』, 대전시립미술관, 2020.

『김교만 교수 회갑 기념전』, 신세계미술관, 1988.

『김교만작품전』, 한국디자인포장센터, 1976.

『김배희 작품집』, 디오, 2009.

『金永憲 米壽展』, 미술세계, 2018.

『김영대 조각전』, 동방미술관, 1985.

『김영학 조각전』, 한국등잔박물관 출판부, 1991.

『김철호』, 대전시립미술관, 2007.

『남철 조각전』, 청담미술관, 1990.

『노광』, BASS커뮤니케이션, 2005.

『다산 정약용 해배 200주년 기념: 다산(茶山)의 꿈 함께 그리다오 천 이환영 시가 그림이 된 시의도전(詩意圖展)』, 실학박물관, 2018.

『대전 미술 하나-그림으로 말하다』, 대전시립미술관, 2008.

『대전미술 100년, 미래의 시작』, 대전시립미술관, 2018.

『대전미술 둘 공예 조각』, 대전시립미술관, 2009.

『대전미술 어제와 오늘』, 한국미협 대전시지회, 1995.

『대전미술문화조망전』, 대전롯데화랑, 2000.

『대전미술아카이브 2011 : 대흥동예술가들 1950~1960』, 대전시립미술관, 2011.

『대전미술아카이브 2012 : 1950~60년대 고교미술활동』, 대전시립

미술관, 2012.

『대전미술아카이브 2013 : 대전미술의 새물결』, 대전시립미술관 창작센터, 2013.

『대전미술의 지평, 장암 이근순전』, 대전시립미술관, 2008.

『대전미술의 지평-조평휘, 안치인』, 대전시립미술관, 2006.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 대전시립미술관, 2018.

『대한민국건국십년지』, 대한민국십년지간행회, 1956.

『미술관에 올, 한국근현대사예전』, 국립현대미술관, 2020.

『박명규작품전』, 서울 조형갤러리·대전 롯데화랑, 200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70년사』,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 2016.

『석당 우회춘』, 아티스트, 2006.

『석현 임재우: 2008 대전미술의 지평』, 대전시립미술관, 2008.

『설봉 김두환』, (주)미술세계, 2018.

『소원 성창경』, 미술과비평, 2021.

『송변수 타피스트리 1986~1994』, 토탈미술관, 1994.

『송영수 회고전』, 그로리치 화랑, 1986.

『심원 조중현』, 수문서관, 1993.

『심향 박승무화집』, 동아일보사, 1976.

『오늘을 대표하는 금속공예8인전』, 호암갤러리, 1988.

『오산독성산성소견도 : 이환영』, 이환영 한국화연구소, 2010.

『오세열: 무구한 눈』, 학교재 갤러리, 2017.

『오세열: 암시적 기호학』, 학교재 갤러리, 2017.

『오천 이환영 진경산수 無有를 풀다』, 겸재기념관, 2014.

『우당과 일창 부자 특별전』, 만해기념관, 2020.

『우남 이용휘』, 미술세계, 2015.

『우당과 일창 부자 특별전』, 만해기념관, 2020.

『운광 황용식』, 도원회, 2012.

『운산(雲山) 조평휘 화집(趙平彙 畫集)』, 목원대학교출판부, 1999.

『원곡 탄생 100주년 기념. 말씀대로』,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2009.

『월성 김두환전』, 진고원갤러리, 2009

『유영교 아홉번째 개인전』, 현대화랑, 1988.

『유영교 조각전』, 미술화관, 1977.

『유영교 조각전』, 현대화랑, 1986.

『유영교, 움직이는 조각전』, 가나아트센터, 1999.

『유영교, 움직이는 조각전』, 가나아트센터, 2000.

『이석구』, 예서원, 2002.

『이영수와 그의 예술』, 미술공보사, 1990.

『이종각조각전』, 현대화랑, 1984.

『이종수』, 가나아트센터, 2003.

『이종수 마음의 향』, 두원, 2013.

『이종환유화전』, 서울갤러리, 2004.

『이환영 특별전 : 반차도 Representation 정조 화성에 오다』, 예서원, 2008.

『이환영 : 홍주성, 충절을 그리다』, 이환영 한국화연구소, 2012

『이환영(李桓英)』, 경기도문화의전당, 2005.

『이환영』,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현대아트갤러리, 1999.

『이환영』, 서산시문화회관, 2004.

『일창 유치웅』, 이화문화출판사, 2008.

『임동식 동방소년 탐문기』, 대전시립미술관, 2016.

『임명철』, 대전 중구문화원, 2018.

『임홍순 공예전』, 신세계미술관, 1981.

『장암 이근순 서예관 개관기념전』, 보령박물관, 2020.

『적선(讖仙) 손곡 이달, 400년만의 귀향 : 오천 이환영』, 홍주성역사관, 2015.

『정관모 조각-기념비적인 윤목』, 청년작가회관, 1978

『정관모 코리아 현대지』, 문예진흥원미술회관, 1990

『정명희미술관 개관10주년 기념전』, 정명희미술관, 2021.

『제1회 성미회동양화전』, 이당기념관, 1980.

『제2회 유영교 조각전』, 진화랑, 1978.

『제3회 최병삼 작품전』, 선화랑, 2007.

『제6회 유영교 조각전』, 현대화랑, 1983.

『제7회 르브르동인회전』, 반도화랑, 1984.

『조평휘』, 대전시립미술관, 2006.

『중견조각가5인전』, 다도화랑, 1992.

『진화랑 개관8주년 기념 제4회 유영교 조각전』, 진화랑, 1980.

『창덕궁 대조전 벽화』, 국립고궁박물관, 2015.

『최국병 조각전』, 동숭아트센터, 1990.

『최국병조각초대전』, 동서화랑, 1985.

『충남근현대미술사: 제2편 미술사』, 충남문화재단, 2016.

『탄생100주년 기념 이동훈 회고전 도록』, 대전시립미술관, 2003.

『하라(賀羅) 이순석 石美展』, 푸른동산, 1973.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복원-북으로 간 미술가들 저작목록』,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한국근대미술명품도록』, 호암미술관, 1992.

『한국미술 1900-2020』, 국립현대미술관, 2021.

『한국의 미술가: 이상범』, 삼성문화재단, 1997.

『한국조각의 맥』, 문화갤러리, 1991.

『한국현대미술대표작가선집13, 이종상』, 금성출판사, 1982.

『한국현대미술전집(韓國現代美術全集)』, 한국일보사, 1977.

『한국화 1953~2007전』, 서울시립미술관, 2007.

『한발미술의 여정 II 이동훈과 대전화단』, 대전시립미술관, 2003.

『향기와 맥전, 안건 이후 600년의 충남미술』, 대전일보사, 1995.

『현대미술작가선집 III』, 미술시대, 1989.

『해방 70주년 한국근현대미술특별전』, 대전시립미술관, 2015.

『Chang Ucchin 장옥진』, 마로니에북스, 2011.

『JE JUNG JA』, 월간미술, 2016.

『KOREA FANTASY BY CHUNG, KWAN-MO』, 문예진흥원미술회관, 1990.

『SeMA Collection 200』, 서울시립미술관, 2015.

『YOO, YOUNG KYO EXHIBITION』, 갤러리 신현대, 1994.

『YOO, YOUNG KYO Sculptures 1996』, 동아갤러리, 1996.

『YOO』, GALLERIA PAGANI- MILANO, 1982.

『YU BYOUNG-HO, blue & jazz』, 평창당, 2020.

Luc Heintze, Lascaux II: où l'art rencontre la science, Histoire de la recherche contemporaine, 2016.

Contemporary Korean Paintings, NY: World House Galleries, 1958.

## 기타(웹사이트)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mmca.go.kr/collections>)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id/SJW-K43040240-00300>)

근현대디자인 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designmuseum.or.kr/>)

김달진미술연구소 인명사전 (<http://www.daljin.com/author/5460>)

김달진미술연구소 외부칼럼 (<http://www.daljin.com/column/13521>)

당림미술관 홈페이지 (<https://dangnim.modoo.at/?link=dypo4c20>)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daejeon.go.kr/>)

디지털논산문화대전 홈페이지 (<http://nonsan.grandculture.net/nonsan/toc/GC02002466>)

『만화경(Kaleidoscope)의 조형세계 생명성 탐구와 우주의 전일적 관계성』, 『이코노미』, 2014. 6. <http://www>.

economyview.co.kr/article/view.php?idx=540  
 서양화가 이택우 선생님 인터뷰, 『충청투데이』(2008.11.12.)  
 (https://ccitv.tistory.com/744?category=149540)  
 아르코예술기록원 DA-Arts 기획컬렉션 구술채록 주제사 (https://www.daarts.or.kr/gusool/view/subject/45694)  
 아르코예술기록원, DA-Arts 기획컬렉션 구술채록 생애사 (https://www.daarts.or.kr/gusool/personal\?detail\_type=시각예술)  
 아르코예술기록원 미술작가 500인 (https://www.daarts.or.kr/visual/artist)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홈페이지 (http://www.yangju.go.kr/changucchin/index.do)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 : 김순기' (https://www.k-artmarket.kr/kada/portal/singl/writer/criticism.do?menuNo=200046&writrNo=12)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 : 김홍주' (https://www.k-artmarket.kr/kada/portal/singl/writer/criticism.do?menuNo=200046&writrNo=50)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 : 박영숙' (https://www.k-artmarket.kr/kada/portal/singl/writer/criticism.do?menuNo=200046&writrNo=16)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 : 성능경' (https://www.k-artmarket.kr/kada/portal/singl/writer/criticism.do?menuNo=200046&writrNo=17)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 : 육명심' (https://www.k-artmarket.kr/kada/portal/singl/writer/criticism.do?menuNo=200046&writrNo=2)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 : 이건용' (https://www.k-artmarket.kr/kada/portal/singl/writer/criticism.do?menuNo=200046&writrNo=11)  
 임립미술관 홈페이지 (http://limlip3.cafe24.com/bbs/board.php?bo\_table=past&wr\_id=88&page=8)  
 유튜브, 오픈아카이브, 《코리안 돈키호테, 이희세》(감독: 최현정), 2006년 제작  
 (https://www.youtube.com/watch?v=0iHRVTNlay8:)  
 유튜브, (김달진이 가다) 원로화가 김영덕 화백 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qA8andrTESs)  
 조윤신 블로그: 나의 아버지 조영동 화백 (https://blog.naver.com/newspainpato/221360356139)  
 최덕휴 기념관 홈페이지 (http://choidukhyu.org/critic.html)  
 프랑스 김인중미술관 홈페이지 (https://www.kimenjoong.com)  
 한국미술 다국어 용어사전 (https://www.gokams.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 직원록(1952년) (http://db.history.go.kr/id/jw\_1952\_3759\_0010)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im\_101\_20376)  
 한국진흥원 홈페이지 (https://kapatv.net/%ED%8F%89%EB%A9%B4%EC%9E%91%ED%92%88/view/197299)

## 충남미술가 찾아보기

강광식(姜光植, 1939~)	303	박승배(朴勝培, 1941~)	335
강나루(1932~)	184	박여일(朴如一, 1915~1992)	75
강성열(姜聲烈, 1944~2005)	379	박영숙(朴英淑, 1941~)	337
강신철(姜信哲, 1934~1993)	222	백현옥(白顯钰, 1939~)	311
강태성(姜泰成, 1927~)	150	성능경(成能慶, 1944~)	383
강환섭(康煥燮, 1927~2011)	153	성재경(成在慶, 1920~1997)	108
고봉주(高鳳柱, 1906~1993)	52	성창경(成昌慶, 1942~)	351
구중서(具宗書, 1912~1988)	62	손경식(孫敬植, 1937~)	239
권영우(權寧祐, 1941~)	331	송근호(宋近鎬, 1949~)	491
권탁원(權卓遠, 1938~)	263	송번수(宋繁樹, 1943~)	369
김관호(金瑄鎬, 1945~)	390	송병돈(宋秉敦, 1902~1967)	34
김교만(金敎滿, 1928~1998)	162	송영수(宋榮洙, 1930~1970)	172
김기숙(金基淑, 1924~2002)	124	송용달(宋龍達, 1932~)	190
김기승(金基昇, 1909~2000)	59	송진세(宋鎭世, 1938~)	271
김동수(金東洙, 1935~2011)	227	신권희(申權熙, 1937~1995)	241
김두환(金斗煥, 1913~1994)	64	신동주(申東柱, 1942~2006)	354
김만희(金萬熙, 1931~2018)	175	신봉균(申鳳均, 1929~2000)	167
김배희(金培熙, 1939~)	305	신양섭(申養燮, 1942~)	356
김석기(金奭基, 1947~)	437	신영상(辛永常, 1935~2017)	230
김성재(金星在, 1923~1968)	119	신중덕(愼重惠, 1949~)	493
김세원(金世源, 1940~)	322	신현국(申鉉國, 1938~)	274
김수평(金水平, 1942~1989)	346	양창제(梁蒼濟, 1944~2019)	386
김순기(金順基, 1946~)	416	오세열(鳴世烈, 1945~)	395
김여성(金如星, 1946~)	419	오정길(鳴正吉, 1948~)	465
김영대(金榮大, 1949~)	485	오태학(鳴泰鶴, 1938~)	277
김영덕(金永惠, 1931~2020)	177	우민형(禹民亨, 1906~1978)	54
김영배(金寧培, 1939~)	308	우희춘(禹熙春, 1938~2020)	281
김영순(金榮順, 1947~)	439	유근영(柳根永, 1948~)	466
김영천(金榮天, 1948~2012)	459	유병호(兪丙昊, 1948~)	469
김영학(金永學, 1926~2006)	139	유영교(劉永敎, 1946~2006)	424
김인중(金寅中, 1940~)	324	유재일(兪財一, 1941~)	339
김장한(金長漢, 1928~?)	165	유진명(兪鎭明, 1916~1984)	85
김재배(金栽培, 1919~1994)	100	유창환(兪昌煥, 1870~1935)	10
김재석(金在奭, 1916~1987)	82	유치웅(兪致雄, 1901~1998)	32
김정현(金正憲, 1946~)	421	유희영(柳熙永, 1940~)	326
김창희(金昌熙, 1938~)	265	육명심(陸明心, 1932~)	192
김철성(金徹性, 1941~)	333	윤복희(尹福熙, 1948~)	472
김철호(金哲鎬, 1925~2011)	129	윤영자(尹英子, 1924~2016)	126
김치중(金致中, 1947~2012)	442	윤후근(尹厚根, 1923~2008)	121
김 한(金漢, 1938~2008)	268	이건용(李健鏞, 1942~)	358
김홍주(金洪疇, 1945~)	392	이경배(李慶培, 1898~1960)	26
김화경(金華慶, 1922~1979)	112	이근순(李坤淳, 1948~)	474
김희직(金會直, 1944~)	381	이국전(李國鎔, 1915~?)	77
남 철(南徹, 1936~2017)	236	이근신(李根伸, 1940~)	329
노 광(盧尙, 1949~)	488	이길원(李吉遠, 1949~)	496
문우식(文友植, 1932~2010)	186	이남규(李南圭, 1931~1993)	180
민경갑(閔庚甲, 1933~2018)	208	이 동(李東, 1949~)	499
박노수(朴魯壽, 1927~2013)	156	이동훈(李東勳, 1903~1984)	39
박명규(朴明奎, 1942~)	348	이마동(李馬銅, 1906~1981)	56
박명규(朴明圭, 1947~)	446	이명자(李明子, 1948~)	476
박병희(朴炳熙, 1948~2019)	462	이명희(李明熙, 1938~)	283
박상옥(朴商玉, 1915~1968)	72	이봉영(李鳳榮, 1905~1962)	48
박성섭(朴性燮, 1903~1974)	37	이상범(李象範, 1897~1972)	22
박승무(朴勝武, 1893~1980)	16	이석구(李錫九, 1942~)	361

이순석(李順石, 1905~1986)	49	전영화(全榮華, 1929~ )	169
이영길(李英吉, 1942~ )	363	정관모(鄭官謨, 1937~ )	250
이영수(李寧秀, 1944~ )	388	정명희(鄭冥熙, 1945~ )	408
이완석(李完錫, 1915~1969)	80	정성원(鄭成源, 1881~1962)	12
이용휘(李容徽, 1937~2016)	243	정술원(鄭述原, 1885~1955)	14
이우성(李又性, 1933~2010)	212	정영복(鄭永福, 1937~ )	254
이윤섭(李允燮, 1926~?)	142	정택은(鄭澤殷, 1925~2005)	137
이응노(李應魯, 1904~1989)	43	정해조(鄭解朝, 1945~ )	411
이익용(李翼龍, 1923~2011)	123	정환섭(鄭桓燮, 1926~2010)	146
이인영(李仁榮, 1932~2021)	195	제정자(諸靜子, 1937~ )	257
이종각(李鍾珪, 1937~ )	246	조동욱(趙東旭, 1899~1944)	30
이종무(李種武, 1916~2003)	88	조병호(趙柄鎬, 1914~2005)	70
이종상(李鍾祥, 1938~ )	285	조성묵(趙晟默, 1939~2016)	316
이종수(李鍾秀, 1935~2008)	233	조영동(趙榮東, 1933~ )	219
이종학(李鍾學, 1925~2013)	132	조종국(趙鍾國, 1943~)	373
이중환(李鍾煥, 1938~ )	289	조중현(趙重顯, 1917~1982)	95
이창호(李昌浩, 1926~1990)	144	조창례(趙昌禮, 1948~ )	480
이철주(李澈周, 1941~ )	341	조태수(趙泰洙, 1945~)	414
이침자(李淸子, 1938~ )	292	조평휘(趙平暉, 1932~ )	200
이택우(李澤雨, 1946~ )	428	지치우(池治宇, 1943~ )	375
이팔찬(李八燦, 1919~1962)	102	차선영(車先英, 1949~)	504
이환영(李桓英, 1945~ )	398	최국병(崔國炳, 1938~ )	294
이효숙(李孝淑, 1946~ )	430	최덕휴(崔德休, 1922~1998)	116
이희세(李喜世, 1932~2016)	198	최병상(崔秉尙, 1937~ )	260
인영선(印永宣, 1946~2020)	432	최영근(崔榮根, 1948~ )	482
임동식(林東植, 1945~ )	402	최정수(崔正秀, 1918~1999)	98
임 립(林立, 1945~ )	405	최종걸(崔鍾傑, 1927~2000)	160
임명철(林明喆, 1939~ )	314	최종태(崔鐘泰, 1932~)	204
임봉재(林奉宰, 1933~ )	213	최창식(崔昌植, 1920~?)	110
임상묵(林庠默, 1933~1998)	217	최태신(崔台新, 1943~ )	377
임숙재(任壽宰, 1899~1937)	28	하동철(河東哲, 1942~2006)	367
임양수(林陽洙, 1946~ )	434	하태진(河泰晉, 1938~ )	296
임재우(林裁右, 1947~ )	448	한유동(韓維東, 1913~2002)	68
임홍순(任洪順, 1925~ )	135	홍동식(洪東植, 1926~2003)	148
장선백(張善栢, 1934~2009)	224	홍용선(洪容宣, 1947~ )	454
장순업(張淳業, 1947~ )	450	황교영(黃敎泳, 1939~1986)	319
장욱진(張旭鎭, 1917~1990)	91	황규태(黃圭泰, 1938~ )	299
장주봉(張柱鳳, 1948~ )	478	황만영(黃滿泳, 1941~2015)	344
장준문(張俊文, 1949~)	502	황영준(黃榮俊, 1919~2002)	105
전래식(全來植, 1942~ )	365	황용식(黃龍植, 1947~ )	456
전영기(田榮淇, 1937~ )	249	황인춘(黃仁春, 1894~1950)	20

## 한국근현대미술가 찾아보기

강정식(姜貞植, 1938~)	319	민형식(閔衡植, 1859~1931)	70, 71
고화홍(高和欽, 1923~1999)	121	박광진(朴廣鎭, 1902~?)	112
고희동(高羲東, 1886~1965)	49	박득순(朴得鎔, 1910~1990)	116, 488, 489
공진형(孔鎭衡, 1900~1988)	91	박래현(朴來賢, 1920~1976)	102
구본웅(具本雄, 1906~1953)	80	박병수(朴炳洙, 1914~1973)	88
권순형(權純亨, 1929~2017)	162	박봉춘(朴鳳春, 1958~)	354
권영휴(權寧純, 1921~1968)	80	박생광(朴生光, 1904~1985)	100, 101
길진섭(吉鎭燮, 1907~1975)	106	박서보(朴栖甫, 1931~)	186, 188
김갑용(金甲龍, ?~1973)	144	박수근(朴壽根, 1914~1965)	35, 73, 153, 404
김경승(金景承, 1915~1992)	79, 230	박승구(朴勝龜, 1919~1995)	78
김규진(金圭鎭, 1868~1933)	10, 11, 22, 43, 46	박영선(朴泳善, 1910~1994)	72, 110, 305, 381
김기창(金基昶, 1913~2001)	68, 69, 102, 200, 201, 243, 277, 278, 296, 333, 334, 388, 389, 410	박인경(朴仁京, 1926~)	45, 46
김돈희(金敦熙, 1871~1936)	52	박진환(朴振煥, 1940~)	28
김병기(金秉麒, 1916~)	208, 336	박창돈(朴昌敦, 1928~)	381
김복영(金福榮, 1942~)	358	박항섭(朴恒燮, 1923~1979)	405, 459
김복진(金復鎭, 1901~1940)	43, 77, 78, 79, 96, 112	배 렴(裴濂, 1905~1968)	13, 14, 102
김봉구(金鳳九, 1939~2014)	319	배운성(裴雲成, 1901~1978)	73
김세중(金世中, 1928~1986)	128, 152, 246, 248, 253, 311, 313, 318, 319	백남준(白南準, 1932~2006)	417, 418
김영기(金永基, 1911~2003)	13	백윤문(白潤文, 1906~1979)	68, 69
김영환(金永煥, 1928~2011)	186, 188	변관식(卞寬植, 1899~1976)	14, 17, 22, 25, 27
김용준(金瑑俊, 1904~1967)	49, 156	서세옥(徐世鈺, 1929~2020)	35, 100, 160, 169
김용진(金容鎭, 1882~1968)	26, 52	손응성(孫應星, 1916~1979)	119
김원용(金元龍, 1922~1993)	91	손재형(孫在馨, 1902~1981)	59, 146, 147
김은호(金殷鎬, 1892~1979)	10, 11, 14, 19, 22, 68, 95, 96, 100, 102, 103, 105, 107, 112, 113, 114, 144, 145, 389, 478, 479	송계상(宋桂相, 1939~1968)	319
김응원(金應元, 1855~1921)	30	송성용(宋成鏞, 1913~1999)	335, 336
김정희(金正喜, 1786~1830)	53, 70, 71, 98, 99	송찬형(1930~)	111
김중영(金鍾瑛, 1915~1982)	150, 172, 204, 205, 207, 262, 319, 320, 423, 487	송태회(宋泰會, 1872~1942)	46
김주경(金周經, 1902~1981)	72	신석필(辛錫弼, 1938~2012)	319
김중현(金重鉉, 1901~1953)	80	신홍휴(申鴻休, 1911~1961)	88
김 진(金鎭, 1941~)	454	안상철(安相喆, 1927~1993)	224
김진명(金鎭明, 1916~2011)	200	안석영(安夕影, 1901~1950)	68
김진우(金振宇, 1883~1950)	13	안석주(安碩柱, 1901~1950)	19, 28
김진황(金振璜, 1917~1978)	100	안중식(安中植, 1861~1919)	14, 16, 18, 22, 23
김찬식(金燦植, 1926~1997)	139	엄도만(嚴道晩, 1915~1971)	80, 88
김충선(金忠善, 1925~1994)	186, 188	엄태정(嚴泰丁, 1938~)	319
김충현(金忠顯, 1921~2006)	192, 432, 474, 475	오세창(鳴世昌, 1864~1953)	22, 52, 70, 71
김환기(金煥基, 1913~1974)	73, 91, 186, 274, 339, 340, 377, 404, 419	오일영(鳴一英, 1896~1960)	22
나혜석(羅蕙錫, 1896~1948)	91, 505	오지호(鳴之湖, 1905~1982)	49, 72
남 관(南寬, 1911~1990)	75, 110, 119, 150, 151, 186, 188, 274	유강열(劉康烈, 1920~1976)	153, 187, 369
노수현(盧壽鉉, 1899~1978)	14, 22, 25, 169, 208, 254	유영국(劉永國, 1916~2002)	91, 92
도상봉(都相鳳, 1902~1977)	116	윤경렬(尹京烈, 1916~1999)	126
류경채(柳景埰, 1920~1995)	121	윤승욱(尹承旭, 1914~?)	150
리창현(1943~)	111	윤효중(尹孝重, 1917~1967)	126
민영익(閔泳翊, 1860~1914)	30	윤희순(尹喜淳, 1902~1947)	62, 72, 95, 96
민택기(閔宅基, 1908~1936)	13	이건영(李健英, 리건영, 1922~?)	102
		이경성(李慶成, 1919~2009)	44, 56, 117, 139, 186, 187
		이규상(李揆祥, 1918~1967)	91
		이민희(李敏熙, 1934~)	180, 182, 220
		이병직(李秉直, 1896~1973)	19
		이석호(李碩鎭, 리석호, 1904~1971)	85, 86, 102, 106
		이여성(李如星, 리여성, 1901~?)	25
		이용우(李用雨, 1902~1953)	22, 25
		이운식(李雲植, 1937~)	139
		이유태(李惟台, 1916~1999)	68, 69, 102, 221

이인성(李仁星, 1912~1950)	72, 73, 80, 110, 271, 360, 392, 394	조달순(調達淳)	335
이중우(李鍾禹, 1899~1981)	56, 91, 116, 186	조동호(趙東虎)	13
이중섭(李仲燮, 1916~1956)	80, 186, 328, 337, 338, 392, 394	조병덕(趙炳惠, 1916~2002)	80, 119
이지휘(李志輝, 1935~)	180, 182, 220	조병룡(趙秉龍)	105
이한복(李漢福, 1897~1940)	52, 56	조석진(趙錫晉, 1853~1920)	14, 16, 18, 22, 25
이항성(李恒星, 1919~1997)	153	조종업(趙鍾業, 1930~2014)	474
장리석(張利錫, 1916~2019)	75, 405, 459	지운영(池雲英, 1852~1935)	11
장 발(張勃, 1901~2001)	172, 180, 182	전경자(千鏡子, 1924~2015)	296
장우성(張遇聖, 1912~2005)	68, 69, 102, 208, 222, 223, 322	최기원(崔起源, 1935~)	139
장혁태(張赫太, 1929~?)	111	최영림(崔英林, 1916~1985)	305, 381, 405
전뢰진(田雷鎭, 1929~)	424	최은석(崔恩晫, 1921~?)	103, 104
전상범(田相範, 1926~1999)	139	최재중(崔在宗, 1936~)	296, 277
전성우(全晟雨, 1934~2018)	173, 416	하인두(河麟斗, 1930~1989)	177, 180
전형필(李碩鎬, 1906~1962)	85, 416	하정웅(河正雄, 1939~)	462
정 규(鄭圭, 1923~1971)	72	한규복(韓圭復, 1881~1967)	13
정병조(鄭丙朝, 1863~1945)	46	한묵(韓默, 1914~2016)	186, 329
정운면(鄭雲勉, 1906~1948)	13	한홍택(韓弘澤, 1916~1994)	80, 88
정장직(鄭章植, 1952~)	314, 454	허 건(許健, 1907~1987)	274
정종어(鄭鍾汝, 1914~1984)	102	허백련(許百鍊, 1891~1976)	14, 17
정현웅(鄭玄雄, 1910~1976)	72	홍명섭(洪明燮, 1948~)	402
정홍거(鄭弘巨, 1912~?)	69, 100	홍세섭(洪世燮, 1832~1884)	14
조규봉(曹圭奉, 1917~1997)	78	홍인표(洪仁杓)	105, 107
		황중구(黃鍾九, 1919~2003)	21
		황중례(黃鍾禮, 1894~1950)	21





**충남미술 연구총서**  
**충남미술가편람 I**

발행인 양승조

발행일 2021. 11. 30

총괄 충청남도

발행처 충남문화재단

충남 예산군 삼교읍 예학로 10-22

전문건설회관 2층

Tel. 041-630-2900

Fax. 041-338-7963

조사·연구 주관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조사·연구, 편·집필 신수경, 정경숙, 김미정, 이안나

ISBN: 979-11-977032-1-8(세트)

979-11-977032-2-5

발간등록번호: 11-B553456-000001-10

이 책의 저작권은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남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21 충청남도 · 충남문화재단

장욱진	이종무	유진명	김재석	이완석	이국전	박여일	박상옥	조병호	한유등	김두환	구종서	김기승	이마동	우민형	고봉주	이순석	이봉영	이응노	이동훈	박성섭	송병돈	유치용	조동욱	임숙재	이경배	이상범	황인촌	박승무	정술원	정성원	유창환
송영수	전영화	신봉균	김장한	김교만	최종걸	박노수	강환섭	강래성	홍동식	정환섭	이창호	이윤섭	김영학	정택은	임홍순	이종학	김철호	윤영자	김기숙	이익용	윤후근	김성재	최덕후	김화경	최창식	성재경	황영준	이팔찬	김재배	최정수	조중현
권탁원	최병상	제정자	정영복	정관모	전영기	이종각	이용희	신권희	손경식	남철	이종수	신영상	김동수	장선백	강신철	조영동	임상록	임봉재	이우성	민경갑	최종태	조평휘	이희세	육명심	송용달	문우식	강나루	이남규	김영덕	김만희	
김수평	황만영	이철주	유재일	박영숙	박승배	김철성	권영우	이근신	유희영	김인중	김세원	황교영	조성묵	임명철	백현옥	김영배	김광식	황규태	하태진	최국병	이청자	이종환	이명희	우희춘	오태학	신현국	송진세	김한	김창희	박명규	
이택우	유영교	김정현	김여성	김순기	조태수	정해조	정명희	임립	임동식	이환영	오세열	김홍주	김관호	이영수	양창제	성능경	김희직	최태신	지치우	조종국	송번수	하동철	전래식	이영길	이석구	이건용	신양섭	신동주	성창경	이효숙	
	차선영	장준문	이길원	송근호	노광	김영대	최영근	장수봉	이명자	이곤순	윤복희	유병호	유근영	오정길	박병희	김영천	황용식	홍용선	장순업	임재우	박명규	김치중	김영순	김석기	임양수	인영선					